

쓰딸린선집

전 세계 무산자는 련합하라!

쓰딸린선집

(하)

민 족 출 판 사

차 례

1928~1952년

붉은군대의 세가지 특징에 대하여(1928년 2
월 25일 붉은군대창건 10돐을 기념하는 모스크바
쏘베트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1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4월련석
전원회의 사업에 관하여(1928년 4월 13일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모스크바조직열성자회의
에서 한 보고) ……7
1 자기비판에 관하여 ……8
2 곡물수매문제에 관하여 ……18
3 샤흐띄사건 ……31
4 총결론 ……41
쏘련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제8차대회에서
한 연설(1928년 5월 16일)……43
1 로동계급의 전투준비를 강화하라……44
2 아래로부터의 대중적비판을 조직하라……47
3 청년들은 과학을 습득하여야 한다……51
곡물전선에서(1928년 5월 28일 붉은교수학원,
공산주의과학원 및 스웨르들로브대학 학생들
과의 담화에서) ……56
자기비판의 구호의 저속화를 반대하여……71

전련맹공산당(불쉐위크)내의 우경적위험
성에 대하여(1928년 10월 19일 전련맹공산당(불쉐위크)
모스크바위원회 및 모스크바검열위원회 련석전
원회의에서 한 연설)……83
나라의 공업화 및 전련맹공산당(불쉐위크)내의
우익적편향에 관하여(1928년 11월 19일 전련맹
공산당(불쉐위크) 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한 연
설) ……100
1 공업발전의 속도문제 ……101
2 곡물문제 ……112
3 여러가지 편향과 이에 대한 타협주의와의 투
쟁에 관하여……123
꾸슈뙤쎄브에게 주는 회답……145
전련맹공산당(불쉐위크)내의 우익적편향에 관하여
(1929년 4월 전련맹공산당(불쉐위크) 중앙위원회 및 중
앙검열위원회 련석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속기록)……147
1 로선이 하나인가 둘인가? ……149
2 계급적변동과 우리의 의견상이 ……156
3 국제공산당의 로선에 관한 의견상이 ……166
4 국내정책의 로선에 관한 의견상이 ……173
(1) 계급투쟁에 관하여 ……174
(2) 계급투쟁의 첨예화에 관하여 ……180
(3) 농민에 관하여 ……185
(4) 신경제정책 및 시장관계에 관하여 ……189
(5) 소위《조세》에 관하여 ……195
(6) 공업의 발전속도와 련계의 새 형태에
관하여 ……202
(7) 리론가로서의 부하린 ……213

(8) 5개년계획인가 아니면 2개년계획인가 ……225
(9) 파종면적에 대한 문제 ……228
(10) 곡물수매에 대하여 ……231
(11) 외화준비와 곡물수입에 대하여 ……238
5 당의 지도에 관한 문제 ……241
(1) 부하린집단의 분파활동에 관하여 ……242
(2) 충실성과 집체적지도에 관하여 ……244
(3) 우익적편향을 반대하는 투쟁에 대하여……249
6 결 론 ……251

대중의 경쟁과 로력적앙양(에.미꿀리나의 소책자
《대중의 경쟁》의 서문) ……253

위대한 전환의 해(10월혁명 12주년에 제하여) ……257
1 로동생산능률면에서 ……258
2 공업건설면에서……260
3 농업건설면에서……263
결 론……273

쏘련에서의 토지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29년 12월 27일 맑스주의자—토지문제전문가대
표자회의에서 한 연설)……274
1 《균형》론 ……276
2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자연발전》론 ……279
3 소농경영의 《안정성》의 리론……282
4 도시와 농촌……288
5 집단농장의 본질에 관하여 ……293
6 계급적변동과 당정책상의 전환……298
7 결 론 ……302

아.엠.고리끼에게 보내는 편지……305

승리로 인한 현훈증(집단농장운동의 제 문제에 대하여) ····· 310
집단농장원동지들에게 주는 대답·····318
경제일군들의 임무에 관하여(1931년 2월 4일 제1차전련맹사회주의공업일군대표자회의에서 한 연설) ·····345
새로운 환경과 경제건설의 새로운 과업(1931년 6월 23일 경제일군회의에서 한 연설)·····359
1 로동력 ·····360
2 로동자의 로임 ·····363
3 로동조직 ·····367
4 로동계급의 생산기술지식인에 관한 문제·····372
5 낡은 생산기술지식인들의 개환의 정조·····376
6 독립채산제에 관하여·····379
7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지도하자 ·····382
독일작가 에밀 루드위히와의 담화(1931년 12월 13일) ·····387
제1차전련맹집단농장돌격대원대회에서 한 연설(1933년 2월 19일)·····407
1 집단농장의 길은 유일하게 옳은 길이다 ·····407
2 우리의 당면과업은 모든 집단농장원들을 부유하게 만드는것이다·····416
3 몇가지 의견 ·····420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제1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34년 1월 26일)(발취)·····427
3 당·····427

1. 정치사상적지도의 제 문제……428
2. 조직적지도의 제 문제……443
영국작가 에쥐.쥐.웰즈와의 담화(1934년 7월 23일)……455
크레믈리궁에서 거행된 붉은군대대학졸업식에서 한 연설(1935년 5월 4일)……479
쏘련 스따하노브운동자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1935년 11월 17일)……487
1. 스따하노브운동의 의의……487
2. 스따하노브운동의 근원……493
3. 새 인재와 새 기술적기준량……499
4. 당면한 과업……503
5. 두어마디의 말……505
쏘련헌법초안에 관하여(1936년 11월 25일 전련맹쏘베트 제8차비상대회에서 한 보고)……508
1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그 임무……508
2 1924년부터 1936년까지의 기간에 쏘련의 실생활에서 일어난 변화……509
3 헌법초안의 기본적특성……518
4 헌법초안에 대한 자산계급의 비판……524
5 헌법초안에 대한 수정의견과 보충의견……533
6 쏘련 새 헌법의 의의……545
크레믈리궁에서의 고등학교일군초대회에서 한 연설(1938년 5월 17일)……548
변증법적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에 대하여(1938년 9월)……551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제18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39년 3월 10일)
(발취) ……590
3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의 가일층의 공고화 ……590
1. 당성분의 개선대책. 조직의 세분화.
하부사업에로의 지도기관의 접근……591
2. 간부의 선발, 등용, 배치……594
3. 당의 선전사업. 당원들과 당간부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교양 ……597
4. 몇가지 리론문제……601
방송연설(1941년 7월 3일)……615
국방인민위원의 명령(제55호. 1942년 2월 23일
모스크바)……623
모스크바시 쓰딸린선거구선거자들의 선거전 대
회에서 한 연설(1946년 2월 9일) ……631
맑스주의와 언어학 제 문제 ……648
언어학에 있어서의 맑스주의에 관하여 …… ……648
언어학의 몇가지 문제에 관하여 예.크라쉐닌
니교와동지에게 보내는 회답 ……677
동지들에게 보내는 회답 ……685
짠께예브동지에게 ……685
메.벨긴과 에스.푸레르 두 동지에게……686
아.홀로뽀브동지에게……689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경제문제 ……697
1951년 11월토론회와 관련된 경제문제에 관한
의견 ……697
1.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경제법칙의 성격에
관한 문제 ……697
2.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상품생산에 관한

문제……705
3.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가치법칙에 관한
문제……714
4. 도시와 농촌,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대립의 폐절에 관한 문제와 그 차이의
청산에 관한 문제 ……719
5. 단일한 세계시장의 붕괴와 세계자본주의
체계의 위기의 심각화에 관한 문제……724
6. 자본주의나라들간의 전쟁의 불가피성에
관한 문제 ……726
7. 현대자본주의 및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
칙에 관한 문제 ……731
8. 기타 문제 ……735
9. 맑스주의적정치경제학교과서의 국제적의의……739
10. 정치경제학교과서초고를 개선할 방도……740
알렉싼드르 일리이치 노트킨동지에게 주는 대답 ……741
엘.베.야로쉔꼬동지의 오유에 관하여 ……750
1 야로쉔꼬동지의 주요오유 ……751
2 야로쉔꼬동지의 다른 오유……762
이.웨.싸니나동지와 웨.게.웬줴르동지에게 주는 대답
…… 776
1.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성격에 관한 문제 ……776
2. 집단농장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
에까지 제고시킬 방책에 관한 문제 ……779
부록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간략독본》 결속어
…… 788
주해……803
인명색인……837

붉은군대의 세가지 특징에 대하여

(1928년 2월 25일 붉은군대창건 10돐을 기념하는 모스크바쏘베트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동지들! 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우리 붉은 군대의 전사들, 우리 붉은 해군의 전사들, 우리 붉은 공군의 전사들, 끝으로 우리 예비훈련생, 즉 쏘련의 무장한 로동자들에게 축하를 드린다.

당은 로동자와 농민의 협조밑에 가장 위대한 전투에서 로동자와 농민의 자유를 고수하였으며 또 고수해낸 세계 최초의 붉은군대를 창건할수 있은것을 자랑한다.

당은 붉은군대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농민의 국내외의 적들과의 가장 가혹한 전투의 곤난한 길을 영예롭게 돌파하여 냈으며 또 붉은군대가 로동계급의 적들에게는 공포로 되고 전체 압박받고 예속되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되는 위대한 전투적혁명력량으로 된것을 자랑한다.

당은 붉은군대가 지주와 자본가들의 압박으로부터 로동자, 농민을 해방시키는 긴 길을 거치고 드디여 자기의 탄생 10돐기념일을 경축할 권리를 전취한것을 자랑한다.

동지들, 우리 붉은군대의 힘은 어디에 있으며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붉은군대가 일찌기 세상에 있었던 모든 군대와 구별되는 근본적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붉은군대의 힘과 위력의 원천을 이루고있는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붉은군대의 첫째가는 기본적특징은 바로 그가 해방된 로동자, 농민의 군대이며 그가 10월혁명의 군대이며 무산계급독재의 군대라는데 있다.

오늘날까지 자본주의제도하에 존재하고있는 군대는 그 구성여하를 물론하고 모두 자산계급정권을 공고히 하는 군대이다. 이러한 군대는 과거에도 자산계급의 통치를 유지하는 군대였거니와 지금도 역시 그러한 군대이다. 각국의 자산자들은 군대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자산계급국가들에서는 군대가 정치적권리를 박탈당하고있으며 정치적무대에서 배제되여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군대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와 반대로 언제 어데서나 모든 자본주의국가에서 군대는 근로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정치투쟁에 인입되여왔으며 또 인입되고있다. 군대가 그 나라들에서 로동자들을 탄압하고있으며 군대가 그 나라들에서 상전의 방벽으로 되고있다는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와 같은 군대와는 달리 우리의 붉은군대는 로동자, 농민의 정권을 공고히 하는 도구이며 무산계급독재를 공고히 하는 도구이며 로동자와 농민을 지주와 자본가들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도구라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우리 군대는 근로자들을 해방시키는 군대이다.

동지들,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인민이 지난날에도 군대를 무서워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무서워하고있으며 인민과 군대사이에는 군대와 인민을 격리시키는 장벽이 가로놓여있다는것

에 주의를 돌려본적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어떠한가? 우리 나라에서는 그와 반대로 인민과 군대가 하나의 전일체,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처럼 인민이 군대를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하는 곳은 세계의 어느곳에도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대를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에 대하여 배려하고있다. 어째서인가? 왜냐 하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로동자와 농민이 상전들에게 복무하는것이 아니라 이전의 노예인, 오늘의 해방된 로동자, 농민에게 복무하는 자기자신의 군대를 창건하였기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붉은군대의 힘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그러면 인민이 자기의 군대를 사랑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와 같은 군대는 가장 튼튼한 후방을 가지게 되며 그와 같은 군대는 불패적이라는것을 의미한다.

튼튼한 후방이 없는 군대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큰 군대, 가장 훌륭하게 무장한 군대도 튼튼한 후방이 없고 후방으로부터의, 즉 근로인민들로부터의 지지와 동정이 없었기때문에 붕괴되고 분쇄당한 일이 흔히 있었다. 우리 군대는 로동자, 농민으로부터 동정과 지지를 받고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군대이다. 여기에 그의 힘이 있으며 여기에 그의 견고성이 있는것이다.

무엇보다도 바로 여기에 우리의 붉은군대가 세계에 존재하였고 또 존재하고있는 다른 모든 군대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

당의 희망, 당의 과업은 붉은군대의 이 특징이, 붉은군대와 로동자, 농민과의 이 형제적인 친밀한 관계가 우리 붉은군대에 의하여 보전되며 튼튼해지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 붉은군대의 둘째 특징은 우리 군대가 우리 나라 제민족간의 친선관계를 공고히 하는 군대이며 우리 나라 피압박

민족을 해방하는 군대이며 우리 나라 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군대라는데 있다.

옛날에는 보통 군대는 대국주의의 정신, 침략주의의 정신, 약소민족은 당연히 정복되여야 한다는 정신으로 교양받았다. 낡은 형태의 군대, 자본주의적인 군대는 동시에 민족적, 식민지적 압박의 군대였다는것은 바로 이로써 설명된다. 여기에 낡은 군대의 기본약점의 하나가 있다. 우리의 군대는 식민지압박의 군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군대의 일체 본질, 우리 군대의 일체 제도는 우리 나라의 제 민족간의 친선관계를 강화하는데 렵각하고있으며 피압박민족들을 해방하며 쏘베트련맹의 성원인 사회주의공화국들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여야 한다는 사상에 렵각하고있다.

여기에 우리 붉은군대의 힘과 위력의 두번째 주요한 원천이 있다. 우리 군대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 광활한 우리 나라의 일체 민족의 수천만 대중의 가장 큰 지지를 받게 되는 담보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당의 희망, 당의 과업은 이 특징도 또한 우리의 붉은군대에 의하여 보전되며 튼튼해지도록 하는데 있다.

끝으로, 붉은군대의 셋째 특징은 우리 군대내에서 국제주의정신을 배양강화하고있으며 우리의 전체 붉은군대에 국제주의정신이 충만되여있다는데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보통 군대는 타국인민들에 대한 증오, 타국에 대한 증오, 타국의 로동자, 농민에 대한 증오의 정신으로 교양되고있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하고있는가? 그것은 국가들간에, 렬강들간에, 나라들사이에 군사충돌이 일어나는 때 군대를 하나의 공순한 무리로 만들기 위하여서이다. 여기에 모든 자본주의군대들의 약점의 근원이 있다.

우리의 군대는 이와는 전혀 다른 기초우에 건립되여있다.

우리 붉은군대의 힘은 그가 탄생한 그날부터 국제주의정신으로 즉 타국인민들을 존경하는 정신으로, 모든 나라의 로동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신으로, 나라들사이의 평화를 수호하고 강화하는 정신으로 교양받고있는데 있다. 바로 우리 군대가 국제주의정신의 교양, 모든 나라의 로동자들의 리해관계를 유일한것으로 보는 정신으로 교양받기때문에 우리 군대는 모든 나라의 로동자들의 군대인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자산자들이 우리 나라를 감히 침범하려 한다면 그때에는 상술한 사정이 우리 군대의 힘과 위력의 원천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왜냐 하면 그때에 가서 그들은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교양받은 우리 붉은군대가 상해로부터 뉴욕에 이르기까지, 런던으로부터 칼쿠타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처에서 무수한 벗들과 동맹자들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게 될것이기때문이다.

동지들, 이것이 바로 우리 군대의 정신을 일관하고있으며 그의 힘과 위력의 원천을 이루고있는 셋째 기본특징이다.

당의 희망, 당의 과업은 이 특징이 우리 군대에 의하여 보전되며 튼튼해지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 군대가 강대하고 힘있는것은 바로 그에게 이 세가지 특징이 구비되여있기때문이다.

우리 군대가 자기의 갈 곳을 알고있다는 사실도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그것은 우리 군대는 납병정①으로 구성된것이 아니라 어데로 갈것인가, 무엇때문에 싸우는가를 리해하고있는 자각한 사람들로 구성되여있기때문이다.

동지들,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가를 알고있는 군대는 불패적이다.

---

① 외국의 어린이들의 놀음감.—편집자

바로 이렇기때문에 우리 붉은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로 될 모든 근거를 가지고있는것이다.

우리의 붉은군대 만세!

붉은군대전사들 만세!

붉은군대의 지휘원들 만세!

붉은군대를 낳았으며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주었으며 영광을 준 무산계급독재 만세!(계속되는 우뢰같은 박수)

1928년 2월 28일 《프라우다》 제50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1권, 제20~24페지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4월련석전원회의 사업에 관하여

(1928년 4월 13일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모스크바조직열성자회의에서 한 보고①)

동지들! 방금 끝난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련석전원회의1는 최근 2년간의 일련의 전원회의들과는 다른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 특징은 이번 전원회의가 순전히 실무적인 전원회의였으며 당내에 싸움이 없는 전원회의였으며 당내에 긴장한 국면이 없는 전원회의였다는 점에 있다.

회의일정에는 곡물수매문제, 샤흐띄자건2에 관한 문제, 끝으로 중앙정치국 및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문제와 같은 가장 절박한 문제들이 제기되였었다. 보는바와 같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것들이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회의에서의 토론은 순전히 실무적으로 진행되였으며 결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던것이다.

이것은 전원회의에 반대파가 없었기때문이였다. 이것은 사람들이 분파적행위도 없고 분파적선동이 없이 엄격하게 실무적으로 문제를 취급하였기때문이다. 이것은 제15차대회3후

① 이 보고에는 당시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던 몇개 개소가 보충되여있다. —《쓰딸린전집》, 로문판, 편집자

에 즉 반대파를 숙청한후에 비로소 당이 실제적문제들을 진지하게 또 절실하게 취급할수 있었기때문이다.

이 점에 우리 당 제15차대회후에, 반대파를 숙청한후에 우리가 들어선 이 발전단계의 긍정적인 면, 달리말하면 더없이 유리한 점이 있는것이다.

1
자기비판에 관하여

전원회의사업의 특징, 전원회의에서의 토론과 전원회의의 결의문들의 특징은 전원회의사업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엄격한 자기비판의 기치하에 진행되였다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원회의에 제기된 문제, 거기에서의 연설은 어느것이나 다 우리 사업의 결함들을 비판하였으며 우리의 조직들은 다 자기비판을 하였다. 우리의 결함들에 대한 비판, 당조직과 쏘베트기관 및 경제기관들에 대한 성실한 볼쉐위크적자기비판—이러한것이 전원회의사업의 총적정신이였다.

나는 당대렬내에 일반적으로 비판을, 특히 자기비판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알고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도금》한 공산당원들(웃음소리)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 자기비판에서 도피하려고 하면서 또 그놈의 저주로운 자기비판이로구나, 또 우리의 결함을 적발해내는게로구나, 사람을 좀 편안히 살게 할수는 없는가 하고 불평을 부린다. 이러한 《도금》한 공산당원들이 우리 당의 정신이나 볼쉐위크들의 정신과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자기비판에 대하여 전혀 열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분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나는 다음과

같이 묻고싶다. 자기비판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은 어데서 온것이며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동지들, 자기비판이 공기나 물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없이는, 자기비판이 없이는 우리 당은 앞으로 나아갈수 없을것이며 우리들의 병집을 밝혀낼수 없을것이며 우리들의 결함들을 소멸할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결함들이 매우 많다. 우리는 그것을 공공연하고도 솔직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자기비판의 구호를 새로운 구호로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이 구호는 볼쉐위크당의 기초이다. 그것은 무산계급독재제도의 기초이다. 만일 우리 나라가 무산계급독재의 나라이며 이 독재를 지도하는것이 한개 당, 즉 다른 당들과 정권을 나누지 않고 또 나눌수도 없는 공산당인 이상 우리가 전진하려고 할 때 우리자신이 자기의 과오를 스스로 적발하고 시정하여야 한다는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우리이외에는 이런 과오를 폭로하며 시정할 사람이 없다는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동지들, 자기비판이 우리의 발전을 앞으로 추진시키는 가장 주요한 힘의 하나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명백한 일이 아닌가?

자기비판의 구호는 우리 당 제15차대회후에 특히 힘있게 관철되였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반대파를 숙청한 제15차대회후 당내에는 우리가 주의를 돌리지 않을수 없는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였기때문이다.

정세의 새로운 점이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당에 이제는 반대파가 없거나 혹은 거의 없다는데 있으며 반대파를 쉽게 타승한것(이 승리자체는 당에 대하여 매우 유리하다.)으로 말미암아 당내에 승리에 도취하며 안일에 빠져 우리 사업의 결함들에 대하여 눈을 감을 위험성이 조성될수 있다는데 있다.

반대파를 쉽게 타승한것은 우리 당에 대하여 매우 유리하

다. 그러나 그것은 그자체에 특히 불리한 면을 내포하고있는데 그것은 당내에 자기만족감, 자만심, 그리고 승리에 도취하는 정서가 차라날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면 승리에 도취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더는 전진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기비판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대파가 한것과 같은 악의적이며 본질상 반혁명적인 비판이 아니라 성실하고 공공연한 비판, 볼쉐위크적자기비판이 필요하다.

우리 당 제15차대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자기비판의 구호를 제기하였다. 그때로부터 자기비판의 파도는 높아져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4월전원회의의 사업에도 그 흔적을 남겨놓았던것이다.

우리의 적들(내부의 적, 외부의 적들)이 우리의 결함비판을 리용하여, 아하, 그들 볼쉐위크에게 있어서는 만사가 다 잘되여나가지는 않는구나 하고 떠들가봐 두려워하는것은 이상한 일일것이다. 우리 볼쉐위크들이 이런것을 두려워하는것은 이상한 일일것이다. 볼쉐위크주의의 힘은 바로 그가 자기의 파오를 인정하는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있다. 당, 볼쉐위크들 및 우리 나라의 모든 성실한 로동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사업에서의 결함, 우리 건설에서의 결함을 폭로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결함을 퇴치하는 방도를 강구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업과 건설에 보수, 침체와 부패의 현상이 없도록 하며 우리들의 모든 사업, 우리들의 모든 건설이 나날이 개선되고 승리에서 승리에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중요한것은 이 점에 있다.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결함에 대하여 지껄일테면 지껄이라고 하라. 이와 같은 잡담에 볼쉐위크들이 당황할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되여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자기비판으로 추동시키는 사정이 또

하나 있다. 나는 대중과 지도자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말한다. 최근에 우리에게는 지도자와 대중과의 사이에 어떤 특수한 관계들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 우리들사이에 지도자그루빠가 생겨나와 력사적으로 형성되게 되였는데 그들의 위신은 대중이 거의 접근할수 없을 정도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다른 한편으로 무엇보다도먼저 로동계급대중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대중은 매우 느리게 향상되고있으며 그들은 지도자들을 눈부신듯이 아래에서 우러러보기 시작하였으며 흔히 자기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기를 두려워한다.

물론 매우 높이 올라갔으며 매우 높은 위신을 가지고있는 지도자그루빠가 우리들사이에 형성되였다는 그 사실자체가 우리 당의 큰 성과이다. 이러한 위신있는 지도자그루빠가 없이 큰 나라를 지도한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라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우로 올라가면서 대중과 멀어지고있으며 대중은 감히 그들을 비판하지 못하고 올려 쳐다보기 시작하고있다는 이 사실은 지도자들이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며 대중이 지도자들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위험성을 조성하지 않을수 없다.

이 위험성은 지도자들이 자기자신을 완전완미한 사람으로 자부할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지도적상층부가 교오자만하며 대중을 우로부터 내려다보게 된다면 여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당의 멸망밖에는 아무것도 나올수 없으리라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것은 전진과 자기 사업에 대한 개선이지 당을 멸망시키는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전진하며 대중과 지도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언제나 자기비판의 문을 열어놓아야 하며 쏘베트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지도자들을《흑평하며》그들의 오유를 비판할 가능성을 주어 지도자들이 교오자만하지 말며 대중이 지도

자들과 멀어지지 말게 하여야 한다.

때로는 대중과 지도자와의 문제를 제발하는 문제와 혼동하고있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않다. 새로운 지도자들을 제발하는 문제는 비록 당이 신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미 제발된 가장 권위있는 지도자들과 대중과의 사이의 경상적이고 확고부동한 련결을 맺어주면서 이 지도자들을 보존하는데 있다. 문제는 우리들의 결점에 대한 자기비판과 비판을 통하여 생기발랄하고도 경각성높은 정신적통제로서의 당내의 광범한 여론, 로동계급의 광범한 여론을 형성해야 하며 가장 권위있는 지도자들이 만일 자기들에 대한 당의 신임, 로동계급의 신임을 확보하자면 그러한 감독의 목소리를 주의깊이 귀담아들어야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출판물, 우리 당과 쏘베트출판물의 의의는 그야말로 헤아릴수없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업의 결점을 경상적으로 비판하는 《로농감독국란》5을 꾸릴데 대한 《쁘라우다》4의 발기를 환영하지 않을수 없다. 다만 비판이 표면에만 국한될것이 아니라 엄숙하고 심각하게 되도록 노력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또한 우리 사업의 결함을 맹렬하고도 열정적으로 공격하고있는 《공청동맹쁘라우다》6지를 환영하여야 하겠다.

비판이 전면적이 못되며 때로는 100%로 정확하지 못하다고 비판자를 욕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 흔히는 비판이 모든 점에서 정확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그것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으면 곧 비방하고 욕설을 하기 시작한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위험한 오해이다. 이러한 요구를 제기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우리들의 결함을 시정하려고는 하나 때로는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

는 수백수천명의 로동자, 로동자통신원, 농민통신원의 입을 틀어막게 될것이다. 이것은 무덤이지 자기비판은 아닐것이다.

여러분은 로동자들이 우리 사업의 결함들을 사실대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때가 가끔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것은 그들이 비판하다가 《혼날》가봐 그럴뿐만아니라 불완전한 비판이라고 하여 《조소》를 당할가봐도 그러는것이다. 보통로동자나 보통농민으로서 우리들의 사업과 우리들의 계획에 결함이 있다는것을 자기자신의 경험에서 느끼고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자기의 비판을 아주 조리있게 론증할수 있겠는가? 만일 여러분들이 100%로 정확한 비판을 그들에게서 요구한다면 그것은 밑으로부터의 모든 비판의 가능성, 모든 자기비판의 가능성을 취소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나는 비판이 다만 5~10%라도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면 그러한 비판을 환영하여야 하며 귀담아들어야 하며 그의 건전한 알맹이를 참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되풀이하여 말하거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그 비판사업에는 아직 서투르나 진리를 말하며 쏘베트사업에 충실한 수백수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게 될것이다.

자기비판을 압살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쏘베트사람들의 온갖 비판을, 설혹 때로는 그것이 전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며 또 전부가 다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의깊게 그것을 귀담아듣지 않으면 안된다. 오직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대중은 미숙한 비판으로 하여 《혼나거나》 비판에 다소 오유가 있다 하여도 《조소》를 당하지 않을것이라고 확신할것이다. 오직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자기비판은 진정한 대중성을 띨수 있으며 참으로 대중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수 있을것이다.

말할것도 없이 여기에서는 《모든》 비판을 가리켜 하는 말

이 아니다. 반혁명분자들의 비판도 역시 비판인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비판은 쏘베트정권의 위신을 저락시키며 우리 나라 공업을 파괴하며 우리 당의 사업을 와해하는것을 목적으로 삼고있다. 우리가 말하는것이 이러한 비판이 아니라는것은 명백하다. 내가 말하는것은 이러한 비판인것이 아니라 쏘베트사람들에게서 오는 비판, 다시말하면 쏘베르정권기관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 공업을 개선하며 우리의 당 및 직업동맹의 사업을 개진할 목적으로 하는 비판이다. 우리들에게 비판이 필요한것은 쏘베트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바로 우리의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하기 위하여, 바로 이것을 위해서만이 당은 비판과 자기비판의 구호를 선포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자기비판의 구호로부터 우선 무엇을 기대하며 또 그 구호가 정확하고 성실하게 실시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수 있는가? 그것은 적어도 두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첫째로, 로동계급의 경각성을 높이고 우리들의 결함들에 대한 그들의 주의를 강화할것이며 이러한 결함들을 쉽게 시정하게 할것이며 우리 나라 건설사업에서 여러가지 《불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할것이다. 둘째로, 로동계급의 정치적교양수준을 높일것이며 그들의 국가의 주인공적감정을 발전시킬것이며 그들이 국가관리사업을 쉽게 배울수 있게 할것이다.

여러분은 샤흐띄사건뿐만아니라 1928년 1월경의 곡물수매의 위기도 우리들가운데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불의의 사건》이였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려본적이 있는가? 이 면에서 특히 주의를 돌릴만한것은 샤흐띄사건이다. 반혁명적자산계급전문가그루빠가 국제자본의 반쏘조직의 지시를 받고 5년간이나 활동하였다. 5년래 여러가지 결의문과 결정서들이 우리의

조직들에 의하여 씌여졌으며 각처로 배포되였다. 우리 나라의 석탄공업은 물론 그래도 상승하고있었다. 왜냐 하면 쏘베트의 경제제도는 우리가 머리를 잘 쓰지 않고 오유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문가들이 파괴활동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세를 차지하리만큼 생명력이 있고 유력하기때문이였다. 5년 동안에 이 반혁명적전문가그루빠는 보이라를 폭파하고 타빈을 파괴하는 등등으로써 우리 나라 공업에 대하여 해독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은듯이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청천벽력마냥 샤흐띄사건이 일어났다.

동지들, 이것이 정상적인 일인가?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키를 잡고 앉아서 눈을 뜨고는 있으나 그 어떤 재난이 닥쳐올 때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있다는것—이것을 지도라고는 말할수 없다. 볼쉐위크주의는 지도를 그렇게 리해하지 않는다. 지도하기 위해서는 예견하여야 한다. 동지들, 그런데 예견한다는것은 언제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한가지 정황은 수십명의 지도적동지들이 우리 사업에서의 결함을 살피며 발견하고있는데 로동자대중은 결함들을 살피려고도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는것이다. 이 경우에 모든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홀시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가지 정황은 수십명의 지도적동지들과 함께 수십만수백만의 로동자들이 우리 사업에서 결함들을 살피며 발견하며 또 우리들의 과오를 폭로하면서 공동한 건설사업을 담당하여 사업개선의 길을 가리켜 주는것이다. 이 경우에는 불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며 부정적현상을 제때에 발견하고 이러한 현상들을 없애기 위한 대책들을 제때에 강구하도록 담보할것이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경각성을 상실시킬것이 아니라 부단히 제고시키며 수십수백만의 로동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공동한

사업을 걸머지게 하며 수십명의 지도자뿐만아니라 수십수백만의 로동자, 농민이 우리 나라의 건설행정을 항상 주의깊게 살펴보고 우리들의 과오를 지적하고 그것을 적발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우리들에게는 《불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될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결함들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벌려야 하며 비판을 대중적인것으로 되게 하여야 하며 자기비판의 구호를 받아들이고 실시하여야 한다.

끝으로, 자기비판의 구호의 실시와 관련하여 로동계급의 문화적력량을 높이며 국가관리에 대한 로동계급의 기능을 양성할 문제에 관하여 말하겠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에게 부족되는 주요한것은 문화와 관리능력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신경제정책은 사회주의경제토대를 구축할 가능성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장하여주고있다. 문제는 〈다만〉 무산계급과 그 전위대의 문화적력량에 달려있다.》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로동계급속에서 국가를 관리하며 경제를 관리하며 공업을 관리할 기능과 능력을 양성하는것이 우리의 건설사업의 기본임무의 하나라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들의 오유들을 비판하며 우리들의 결함들을 지적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사업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로동자들의 힘과 재능, 로동계급의 우수한 사람들의 힘과 재능을 발휘시키지 않고서 이러한 기능과 이러한 능력을 로동계급속에서 양성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없다.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힘과 재능을 발휘시키고 그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220~221페지를 보라.—편집자

들에게 국가관리에 대한 기능을 습득할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자기비판을 성실하게 볼쉐위크적으로 진행하며 우리 사업에서의 결함들과 오유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볼쉐위크적으로 밑으로부터 비판하는것이 요구된다. 로동자들이 사업에 있어서의 결함을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비판하며 우리 사업을 개선하며 추진시킬수 있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로동자들이 국가, 경제 및 공업을 지도하는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로동자들의 국가의 주인공적인 감정, 그들의 열성, 그들의 경각성, 그들의 문화정도를 제고시키지 않을수 없다.

로동계급의 문화적력량문제는 결정적의의를 띤 문제중의 하나이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이때까지 존재하여온 모든 지배계급들중에서 지배계급으로서의 로동계급은 력사적으로 좀 특수하고 매우 유리하지 못한 지위에 처하여있었기때문이다. 종래의 모든 지배계급들—노예소유자, 지주, 자본가들—은 동시에 부유한 계급이였다.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칠 가능성을 가지고있었다. 로동계급이 그들과 다른 점은 그들이 가난한 계급이며 그들이 이전에는 자기들의 자녀에게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칠 가능성을 가지고있지 못하다가 지금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러한 가능성을 얻게 되였다는 점에 있다.

우리 나라의 문화혁명문제의 절박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쏘련로동계급은 그가 통치하는 10년동안에 이 면에서 지주나 자본가들이 수백년동안에 거둔것보다도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국제 및 국내 정세로부터 보면 우리가 이미 달성한 성과로써는 아직 매우 불충분하다.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의 문화적력량의 발전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는 온갖

수단, 로동계급속에 국가와 공업을 관리할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온갖 수단을 우리는 되도록 다 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상술한것으로부터 자기비판의 구호는 무산계급의 문화적력량을 발전시키며 로동계급의 관리기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수단중의 하나라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서 자기비판의 구호를 실시하는것은 우리의 절박한 과업이라는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론거가 나온다.

자기비판의 구호를 당면구호로써 우리에게 요구하는 근거는 대체로 이러하다.

그렇기때문에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의 4월련석전원회의사업이 자기비판의 기치밑에 진행되였다는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제는 곡물수매문제로 넘어가자.

2

곡물수매문제에 관하여

우선 금년 1월경에 우리 나라에서 폭발한 곡물수매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몇마디 말하려 한다. 문제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즉 우리들의 수매고는 작년 10월부터 저락되기 시작하여 12월에는 최저점에까지 내려갔고 금년 1월경에는 곡물수매고가 1억 3,000만뿌드나 부족되였다. 우리 나라의 금년의 수확은 작년보다 못하지 않은듯싶다. 혹 작년의 수확보다 좀 못할수도 있을것이다. 금년에는 이전부터 밀려온 저장은 작년보다 많았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나라의 상품곡물이 금년에는 작년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으리라고 인정되였었다.

이런 정황에 근거하여 년간수매계획도 작년보다 좀 높게 작성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매고는 저하되여 우리는 1928년 1월경에 이르러 1억 3,000만뿌드①의 부족을 보게 되였다. 그리하여 국내에는 곡물이 많으나 곡물수매는 저하되여 도시 및 붉은군대에서 기아의 위협을 받는 《기이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이런 《기이한》 사태는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여기에 그 어떤 우연성이 있지나 않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졸고있으며 반대파와의 투쟁에 몰두하고있어 무엇인가를 홀시하였다는것으로써 설명하려 한다. 우리가 졸고있었다는것은 물론 옳은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것을 졸고있었다는것으로써 설명하는것은 큰 오유에 빠지는것을 의미한다. 수매의 위기를 우연성으로써 설명해서는 더욱 안된다. 이러한 일은 우연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것은 너무나 유치한 설명이다.

그러면 수매의 위기를 조성하게 한 조건은 대체 어떠한것이였는가?

나는 그러한 조건이 우리 나라에 적어도 세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 나라의 국제국내정세의 조건하에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는 곤난이 있다. 나는 먼저 도시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곤난이 있다는것을 념두에 두고 말한다. 농촌에서 농산물을 최대한도로 끌어낼수 있도록 여러가지 상품을 농촌에 많이 공급하여야 할것이다. 이렇게 하자면 우리 나라의 공업을 오늘보다 더욱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공업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자면 보다 급속한 속도의 사회주의적축

① 뿌드는 로씨야의 무게의 단위이다. 1뿌드는 16.38키로그람에 해당된다. —편집자

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지들, 이러한 축적의 속도에 도달한다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로부터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이 부족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나는 농촌건설에서의 우리의 곤난을 념두에 두고 말한다. 동지들, 농업은 더디게 장성하고있다. 원래 농업이 일사천리로 발전하며 곡물가격이 내려가고 수확고가 부단히 제고되며 비료가 많이 사용되며 곡물생산의 기계화가 급속도로 발전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동지들,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재빨리 나타나지도 못할것이다.

무엇때문인가?

왜냐 하면 우리 나라 농업은 중대한 개선을 실시하기 어려운 소농경영이기때문이다. 통계수자는 전쟁전에 우리 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600만의 개인영농호가 있었고 현재는 우리 나라에 약 2,500만의 개인영농호가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진짜소농경제의 나라라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소농경제란 무엇인가? 이것은 제일 담보가 없고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발달하지 못하고 상품제공률이 제일 낮은 경영이다. 동지들, 문제의 모든 본질은 여기에 있다. 비료, 기계, 농학지식 및 기타 개량방법, 이러한것은 대규모적인 경영에서는 성과적으로 사용될수 있으나 소농경제에서는 사용되지 않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소농경제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바로 이렇기때문에 그것은 대규모적인 부농경영과의 경쟁에 견디여내지 못한다.

대체로 우리 나라의 농촌에 기계, 비료, 농학지식 등등을 리용하고있는 대규모적인 경영이 있는가? 그렇다, 있다. 첫째로 그것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다. 그러나 동지들, 우리 나라에는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 아직 많지 않다. 둘째로 대규

모적인 부농(자본주의적)농장이다. 이러한 농장은 우리 나라에 그리 적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농업에서 상당한 역할을 놀고있다.

우리는 농촌에서 개인적인 자본주의적대규모적경영을 격려하는 길을 취할수 있는가? 물론 없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농촌에서 집단농장과 국영농장과 같은 대규모적경영을 극력 발전시켜 그것을 현대과학의 기초우에 조직된 국가의 곡물공장으로 전화시키도록 힘써야 한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우리 당 제15차대회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전력을 다하여 발전시키라는 구호를 낸것이다.

집단농장이 빈농계층만으로 조직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유이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집단농장들은 개별적인 대소그루빠만이 아니라 전 농촌을 포괄하는 빈농, 중농의 농장으로 되여야 한다. 중농들에게 전망을 주어야 하며 그들이 무엇보다도 집단농장을 통해서 가장 순리롭고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만일 중농이 부농으로 올라가지 못하며 그렇다고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것도 어리석은노릇이라면, 그들이 집단농장건설을 통해서 경제를 개선할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은 우리 나라에 아직 적으며 말할수 없을 정도로 적다. 이로부터 농촌건설에서의 우리의 곤난이 생긴다. 이로부터 곡물생산이 부족되는 현상이 생긴다.

둘째, 이로부터 도시 및 농촌 건설에서의 우리의 곤난은 수매위기가 돌발할수 있는 기초로 된다는것을 볼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수매위기가 바로 금년에 돌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이러한 곤난은 비단 금년뿐만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다. 그러면 왜 바로 금년에 수매위기가 돌발하였는가? 그 비밀은 어데 있는가?

비밀은 부농들이 금년에 이러한 곤난을 곡물가격을 높이며 쏘베트의 가격정책을 공격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수매사업을 방해하는데 리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얻은데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곤난들을 리용할수 있은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인에 의하여서이다.

첫째로는 3년동안의 풍작이 역할을 놀아 부농들이 이 기간에 장성하였으며 전반 농촌, 특히 부농들이 이 시기에 곡물을 저장하여 가격을 조종하여보려고 할 가능성을 얻었기때문이다.

둘째로는 부농들이 곡물가격인상에 롱간을 부리며 그리하여 가격을 인상시키고있는 도시의 투기업자들의 지지를 받았기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부농들이 곡물의 주되는 소유자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곡물의 대부분을 가지고있는 주요하고 기본적인 대중은 중농이다. 그러나 부농은 농촌에서 일정한 경제적권위를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가격문제에 있어서 때로 중농을 자기뒤에 끌고나갈수가 있다. 그러므로 농촌의 부농분자들이 건설가운데서의 우리의 곤난을 곡물가격을 투기적으로 인상시키는데 리용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것이다.

그러면 례컨대 부농투기분자들이 한바와 같이 곡물가격을 40~50% 높인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선 로동자들의 실제임금을 저하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때에 우리가 로동자들의 임금을 올렸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부득이 공업제품의 가격을 올리게 될것이므로 로동계급도 빈농과 중농도 물질생활면에서는 다같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의심할바 없이 우리들의 전반 경제정책을 직접적으로 파괴한다는것을 의미할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금년 1월이나 봄에 파종준비를 앞두고 곡물가격을 40~50% 올렸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는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업원료기지를 파괴하였을것이다. 면화재배자가 면화를 버리고 보다 유리한 곡물생산으로 넘어갔을것이다. 아마재배자가 아마를 버리고 역시 곡물생산으로 넘어갔을것이다. 사탕무우재배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행동하였을것이다. 그리고 기타 사람들도 모두 이와 같이 하였을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의 투기적탐욕으로 우리의 공업원료기지를 파괴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금년봄에 곡물가격을 인상시켰다면 봄에 식량도 사야 하고 종자도 사야 할 빈농을 틀림없이 못살게 만들었을것이다. 빈농과 하중농은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것이다. 즉 당신들은 우리를 기만하였다. 왜냐 하면 작년가을에 우리는 당신들에게 헐값으로 곡물을 팔았는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들이 비싼 값으로 곡물을 사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기때문이다. 쏘베트일군 제씨들이여, 당신들은 대체 누구를 옹호하는가?—가난한 사람을 옹호하는가 아니면 부농을 옹호하는가?

바로 그렇기때문에 당은 곡물가격을 높이는 부농들의 투기적공격에 철저한 반격을 주어 로동계급과 우리 붉은군대를 기아로써 위협하려는 부농 및 투기분자들의 망상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셋째, 만일 다른 한가지 사정이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우리의 건설중의 곤난들을 그들

이 사실에 있어서 리용한바와 같이 그러한 정도로는 리용하지 못하였을것이며 따라서 수매위기도 이렇게 엄중하지 않았을것은 의심할바없다. 그 사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수매기관이 해이하며 수매기관에 통일전선이 없으며 호상 경쟁하며 곡물가격인상을 롱간하는 활동과 단호하게 싸우려 하지 않은데 있다.

그것은 끝으로 곡물수매지구의 우리 당조직들이 게을러 곡물수매운동에 있어야 할 태도로 참견하려 하지 않으며 사업에 참견하여 수매전선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게으른 현상들을 청산하려 하지 않은데 있다.

우리의 수매기관과 당조직들은 지난해의 수매운동에서 얻은 성과들에 도취되여 금년에도 수매사업이 저절로 되여나가리라고 생각하면서 만사를《천명》에다 맡김으로써 부농투기분자들에게 활동무대를 내여주었다. 그런데 부농들은 바로 이것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없었던들 수매위기가 이처럼 엄중하게는 되지 않았을것이라는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우리들 즉 우리 수매기관이나 기타 조직들이 농촌에 대한 공업제품공급의 거의 80%를 장악하고있고 농촌에서의 전체 수매는 거의 90%를 장악하고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의 조직이 이 유리한 조건을 잘 리용할수만 있다면 농촌에서 부농을 좌우할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준다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리한 조건을 리용할 대신에 모든 일을 제멋대로 되게 내버려두며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본의는 아니지만 쏘베트정권을 반대하는 농촌자본주의분자들의 투쟁에 편리를 주었다.

동지들, 이것이 작년말에 수매위기를 조성시킨 조건들이다.

이리하여 여러분은 수매위기를 우연한것이라고 인정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여러분은 수매의 위기가 우리의 건설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곡물수매문제에서 농촌자본주의분자들이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 쏘베트정권을 반대하여나선 첫 중대한 진공이라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동지들, 바로 여기에 곡물수매위기의 계급적배경이 있다.

여러분은 당과 쏘베트정권이 수매위기를 일소하고 부농들의 투기적탐욕을 제지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실제적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는것을 알고있다. 이러한 대책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출판물들에서는 많이 론의되였으며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열위원회와의 련석전원회의의 결의문에서도 충분히 자세하게 론의되였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상한 조건들때문에 채용된 몇가지 비상대책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한다. 이러한 대책은 물론 이러한 비상조건들이 없어지기만 하면 취소될것이다. 나는 투기취체법 제107조7 의 적용을 념두에 두고 말한다. 이 조항은 1926년에 중앙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였다. 우리는 이 조항을 작년에 적용하지 않았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바와 같이 곡물수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였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리유가 없었기때문이다. 금년 즉 1928년초에 와서야 이 조항을 상기하였다. 그것을 상기하게 된것은 부농들의 투기적회책이 우리에게 기아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일련의 비상사태를 조성시켜주었기때문이였다. 만일 다음수매년도에 비상사태가 없고 수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을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비상사태가 발생되고 자본주의분자들이 또다시 《장난》치기 시작한

다면 제107조가 또다시 적용될것이다.

이것을 리유로 해서 신경제정책의《폐지》니 여유량곡수매제의《복구》니 무엇이니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 신경제정책을 폐지하려고 망상하는것은 오직 쏘베트정권의 적들뿐이다. 오늘날 신경제정책은 그 누구보다도 쏘베트정권에 더 유리하다. 그러나 신경제정책은 부농도 포함한 자본주의분자들을 타승하기 위한 투쟁의 강화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부농 및 기타 자본주의분자들과의 투쟁을 중지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레닌주의와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왜냐 하면 우리 당내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자리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기때문이다.

식량위기를 제지하기 위해서 당과 쏘베트정권이 취한 대책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있는바이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는 잃은 부분을 보충하고 곡물수매에서 작년의 수매속도를 따라잡았으며 어떤 곳에서는 앞서기까지 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1월부터 3월까지의 이 3개월동안에 우리는 2억 7,000여만뿌드의 곡물을 수매하였다. 이것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아직 1억여뿌드를 더 수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수매위기를 제거할 가능성을 준 전과였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당과 쏘베트정권이 이 전선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말할수 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지방수매기관 및 당조직들의 전투준비태세를 실천속에서 검열하고 농촌에서 계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부농들과《싸우려》하지 않는 뚜렷한 타락분자들을 이 기관들에서 숙청함으로써 그 기관들을 건전히 하였으며 많으

나적으나 건전히 하였다.

셋째로, 우리는 부농을 고립시키고 부유한 중농상층에 좀 손해를 끼치게 함으로써 농촌사업을 개선하고 빈농을 더욱 가까이 우리들 편으로 접근시켰고 중농의 압도적대다수를 우리의 주위에 결속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레닌이 우리 당 제8차대회에서 제기한 우리들의 볼쉐위크의 낡은 구호를 즉 빈농에 의거하고 중농과 튼튼한 동맹을 맺어 부농에 대한 투쟁을 잠시도 멈추지 말라는 구호를 실현하였다.

나는 어떤 동지들이 이 구호를 달갑게 받아들이기를 꺼리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 무산계급독재가 공고화된 조건하에서의 로농동맹은 로동자들이 부농도 포함한 전체 농민과 동맹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괴상한 일이다. 아니다, 동지들, 우리는 그런 동맹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또 주장할수도 없다. 무산계급독재의 환경하에서 로동계급정권이 이미 공고화된 조건하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은 빈농에 의거하며 중농을 련합하고 부농들과 투쟁하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조건하에서의 농민과의 동맹이 부농과의 동맹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레닌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사람이다. 가난한자에게나 부유한자에게나 모두 마음에 드는 정책을 농촌에서 실시하려고 생각하는자는 맑스주의자인것이 아니라 바보이다. 왜냐 하면 동지들, 그러한 정책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웃음소리, 박수) 우리의 정책은 계급적인 정책이다.

우리들이 곡물수매사업을 강화한 대책의 결과는 대체로 이러하다.

물론 이러한 대책들을 실시할 때 우리들의 실제사업에는 과격한 행위와 당의 로선을 외곡한 사실들이 많았다.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았기때문에 우리의 정책을 외곡하여 누구보다도 빈농과 중농을 타격하였으며 107조를 옳게 적용하지 못하

였다는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있다. 우리는 그러한 외곡행위가 있는자들을 엄격히 처벌하고있으며 또 처벌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곡행위가 있다고 하여서 당이 취한 대책에서 얻은 훌륭하고도 참으로 중대한 결과—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수매위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을것이다.—를 보지 않는것은 피상한 일이다. 그렇게 하는것은 주요한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부분적인것과 우연적인것을 첫자리에 내세우는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는것은 우리들의 로선이 외곡된 개별적인 현상들—당이 취한 대책들에는 결코 기인하지 않는다.—을 가지고 수매운동의 극히 중대한 성과들을 말살해버리려고 하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들의 수매운동의 성공을 쉽게 하였으며 농촌의 자본주의분자의 공격에 대한 우리들의 투쟁을 쉽게 한 사정이 우리들에게 있었던가?

그렇다, 있었다.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두가지 지적할수 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 당 제15차대회이후, 반대파를 청산한 이후 즉 당이 당내의 적을 분쇄하고 최대한도의 통일을 달성한 이후에 당이 수매운동에 간섭하였으며 부농-투기분자들을 타격하였다는 사실이다. 부농에 대한 투쟁을 쉬운 일로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국내에 아무런 혼란도 없이 부농-투기분자들의 간계를 분쇄하기 위하여서는 아주 굳게 단결된 당, 아주 튼튼한 후방 및 완전히 공고한 정권이 필요하다. 부농이 끝 퇴각하지 않을수 없었다는데는 이러한 조건들의 존재가 중대한 역할을 놀았다는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둘째로, 그것은 우리가 부농-투기분자들을 제압할데 관한 실제적대책들을 로동계급, 붉은군대 및 농촌의 대다수 무산자층의 절실한 리해관계와 련결시켰다는 사실이다. 부농-

투기분자들이 도시 및 농촌의 근로대중들앞에 기아의 환영을 던졌으며 동시에 쏘베트정권의 법령(제107조)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정은 우리가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과의 투쟁에서 농촌의 대다수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농은 곡물을 가지고 제멋대로 투기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에 최대의 난관을 조성시켰으며 동시에 쏘베트정권의 법령 즉 로동자, 농민 및 붉은병사대의원쏘베트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사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부농을 쉽게 고립시켰다는것은 명백한것이 아닌가?

이리하여 1921년에 있은것과 어느 정도 동일한 그러한 정형(물론 다소 보류조건이 있지만은)이 일어났다. 그때에 레닌을 수반으로 한 당은 국내의 기아상태에 비추어 기근이 든 지방에 공급할 곡물을 수매하기 위하여 교회의 귀중한 물품을 몰수할데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기초우에서 광범한 반종교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신부들은 이러한 귀중한 물품을 를 어쥐고 놓지 않은것으로 하여 사실상 굶주리고있는 대중을 반대하게 되였으며 그리하여 전반 교회에 대한 또한 종교적편견에 대한 특히는 신부 및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야기시켰던것이다. 당시 우리 당내에는 마치 레닌이 1921년에 와서야 비로소 교회와의 투쟁의 필요성을 깨달았으며(웃음소리) 그전에는 그것을 모르고있은듯이 생각하는 그런 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동지들, 이것은 물론 어리석은 일이다. 레닌은 물론 1921년전에도 교회와 투쟁할 필요성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결코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광범한 대중적반종교운동을 인민대중의 절실한 리익을 위한 투쟁과 련결시키며 또 대중에게 리해되며 대중의 지지를 받도록 그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다.

곡물수매운동과 관련하여 당이 금년초에 채취한 대책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이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부농의 위험성과 투쟁할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동지들, 이것은 물론 어리석은 일이다. 당은 종래로 이러한 투쟁의 필요성을 알고있으며 또 그러한 투쟁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로 전개하여왔다. 당이 금년초에 채취한 대책의 특징은, 당이 금년에 와서 농촌의 부농-투기분자들을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광범한 근로대중의 절실한 리익을 위한 투쟁과 련결시킬수 있었으며 또 그것을 련결시킴으로써 부농을 고립시키고 농촌의 근로대중의 대다수를 자기 편으로 끌어올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

볼쉐위크적정책의 예술은 시간과 장소의 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또는 저런 지도적대책을 지지할 용의가 대중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가리지 않고 온 전선에 걸쳐 모든 대포를 맹목적으로 사격하는데 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볼쉐위크적정책의 예술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며 모든 사태를 고려하여 최대의 전과를 제일 빨리 거둘수 있는 전선에다 포화를 집중시킬줄 아는데 있는것이다.

우리가 아직 중농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중농이 격분하여 우리의 향집행위원회 위원장들을 때려부시고있으며 빈농이 신경제정책의 결과들에 망연자실하고있으며 파종면적이 전쟁전의 75%밖에 못되였으며 우리들의 앞에 나선 기본문제가 농촌에서 곡물 및 원료의 생산을 확장하는것이였으며 우리에게 아직 공업을 위한 중요한 곡물 및 원료기지가 없던 3년전에 우리가 부농을 본격적으로 타격하려고 하였더라면 사실에 있어서 오늘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겠는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우리는 투쟁에서 패배하였을것이며 파종면적을 오늘과 같은 규모로 확장하지 못하였을것이며 공업을 위한 곡물 및 원료 기지를 창설할 가능성을 잃었을것이며

부농의 강화를 쉽게 하고 중농을 우리에게서 리탈시켰을것이며 그리하여 오늘 국내에 일대 정치적혼란을 일으켰을것이라는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금년초의 우리 농촌의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파종면적은 전쟁전의 규모에까지 확장되였으며 공업을 위한 공고한 원료 및 곡물 기지가 창설되였으며 대다수 중농이 쏘베트정권을 지지하며 빈농은 다소 조직되였으며 그리고 농촌의 당조직 및 쏘베트기관들은 개선되고 강화되였다. 오직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부농-투기분자들에 대한 타격을 조직하는 사업에서 중대한 성과를 기대할수 있었다는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를 반대하는 광범한 대중적투쟁을 조직하는 사업에서의 이러한 두개 정형간의 모든 차이를 모를수 있는것은 정신병자들뿐이라는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이것이야말로 때와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투쟁력량의 호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각 전선에 걸쳐 모든 대포를 맹목적으로 함부로 쏘는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실례이다.

동지들, 곡물수매문제는 이러하다.

이제는 샤호띠사건으로 넘어가자.

3

샤호띠사건

샤호띠사건의 계급적배경은 어떠한것이며 이 사건의 근원은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떠한 계급적기초우에서 이러한 반혁명적경제사건이 발생할수 있었는가?

샤호띠사건은 우연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동지들이 있다. 그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졸고있

다보니 잘 살피지 못하였다. 우리가 졸고있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에 샤호띄사건과 같은것이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다. 그때에 졸고있었으며 그것도 여간히 졸고있지 않았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모든것을 졸고있었다는것으로써 설명하는것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샤호띄사건의 사실들과 재료들은 무엇을 말하고있는가?

사실들은 샤호띄사건은 이전에 석탄공업을 지배하고있던 일부 자산계급전문가들에 의하여 획책된 반혁명적경제사건이라는것을 말하고있다.

사실들은 또 비밀그루빠로 조직되여있은 이 전문가들이 오늘 외국으로 망명한 이전의 경영주들과 서구라파의 반혁명적반쏘적자본가들의 제 조직체로부터 암해활동의 경비를 받고있었다는것을 말하고있다.

끝으로 사실들은 자산계급전문가그루빠가 서방자본주의조직체의 지시에 따라서 활동하고있었으며 우리 나라 공업을 파괴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하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나라 공업에 대한 서구라파의 자본주의적반쏘베트조직체의 경제적간섭에 봉착하고있다는것을 말하고있다. 한때에는 군사-정치적간섭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국내전쟁의 승리로써 짓부실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간섭의 시도에 부딪치고있다. 이것을 짓부시는데는 국내전쟁이 필요한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그것을 짓부셔버려야 하며 또 우리는 지금 사용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그것을 짓부시고있다.

국제자본이 우리를 평안히 내버려두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 동지들, 이렇게 생각하는것은 옳지 않다. 계급이 아직 존재하고있으며 국제자본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 국제자본은 건설되고있는 사회주의국가의 발전을 가만히 보고있을수는 없다. 이전에 국제자본은 직접적무력간섭으로써 쏘베트정권을 전복하려고 시도하였었다.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오늘 국제자본은 은폐적이며 현저하지는 않으나 충분히 감촉할수 있는 경제적간섭의 방법으로 우리 나라 경제력을 약화시키려고 애쓰고있으며 또 앞으로도 애쓸것이다. 국제자본은 방해활동을 조직하며 이런 또는 저런 산업부문들에서 온갖 《위기》를 조작하며 이것으로써 미래의 무력간섭을 쉽게 하려고 하고있다. 여기에서는 국제자본과 쏘베트정권과의 계급투쟁이 밀접히 이어져있으며 그 무슨 우연성이란 근본적으로 말할수 없는것이다.

둘중의 하나이다—

혹은 우리가 앞으로도 여전히 혁명적정책을 실시하여 쏘련의 로동계급의 주위에 전 세계의 무산자와 피압박자들을 단결시키느냐—그때에는 국제자본은 우리의 전진을 백방으로 방해할것이다.

혹은 우리가 자기의 혁명적정책을 포기하고 국제자본에 대해서 약간의 원칙적양보를 하느냐—그때에는 국제자본은 아마 우리의 사회주의국가를 《선량한》 자산계급공화국으로 변질시키는 사업에서 우리를 《원조》하는것을 사양하지 않을것이다.

우리가 해방을 사명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구라파 및 아메리카 자본가들의 찬양을 받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런 천진한 사람들은 우리 당과 아무런 공통점도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것을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례컨대 영국은 자기와 함께 어떤 곳에서, 말하자면 페르싸나 아프가니스탄이나 토이기에서 략탈적세력권을 설정하자고 우리에게 요구하고있다. 이 경우에 영국은 만일 우리가 그러

한 양보를 한다면 우리들과 《친선》을 맺을 용의가 있다고 담보하고있다. 동지들, 이러한 양보를 할수 있겠는가?

전 장내의 웨침소리: 안됩니다!

쓰딸린: 미국은 다른 나라의 로동계급해방운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원칙적으로 포기할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만일 우리가 이런 양보를 한다면 만사가 잘 진행될것이라고 한다. 동지들, 이러한 양보를 할수 있겠는가?

전 장내의 웨침소리: 안됩니다!

쓰딸린: 우리가 만일 일본과 만주를 분할하는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일본과 《친선》관계를 맺을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양보를 할수 있겠는가?

전 장내의 웨침소리: 안됩니다!

쓰딸린: 혹은 레컨대 대외무역의 독점을 《완화》하며 전시 및 전쟁전의 모든 부채를 지불하는데 동의할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자들이 있다. 동지들 이렇게 할수 있겠는가?

전 장내의 웨침소리: 안됩니다!

쓰딸린: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또는 그와 류사한 양보를 할수 없기때문에,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것이 샤호띄사건이거나 아니면 그와 류사한 어떤 다른것이거나를 불론하고 우리는 국제자본이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대하여 온갖 비렬한 해독행위를 조작할것이라는것을 각오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샤호띄사건의 계급적근원이다.

무엇때문에 그 당시 국제자본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 무력간섭을 할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언제나 쏘베트정권의 토대를 전복하려고 벼르고있던 군사전문가, 장군과 장교, 자산계급과 지주의 아들들의 일련의 그루빠가 우리 나라에 존재하고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 장교들과 장군들은 국제자본의 재정적, 군

사적 및 기타 각 방면의 원조없이 쏘베트정권에 대한 대규모적인 전쟁을 조직할수 있었겠는가? 물론 없었을것이다. 국제자본은 백위군 장교와 장군들의 이러한 그루빠의 지원이 없이 대규모적인 무력간섭을 조직할수 있었겠는가? 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무력간섭이 우연한것이였으며 만일 우리가 크라스노브, 마몬또브 등등을 감옥에서 석방하지 않았더라면 간섭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물론 옳지 않다. 마몬또브, 크라스노브 및 기타 백위군장군들을 석방한것이 국내전쟁을 확대시키는데 있어서 역할을 놀았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무력간섭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쏘베트정권과 국제자본 및 로씨야내의 국제자본의 주구들인 장군들사이의 계급적모순들에 있다는것—이 점도 또한 조금도 의심할바없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전의 광산주인이던 몇몇 자산계급전문가들이 국제자본의 재정적 및 정신적인 지지가 없이, 쏘베트정권을 전복하는 일에서 국제자본이 그들을 원조할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없이 샤흐띄사건을 조작해낼수 있었겠는가? 물론 없었을것이다. 어쭙지않게 쏘베트정권을 한술의 물에다 잠가 죽이려고 벼르고있는 우리 나라 자산계급전문가들을 포함한 자산계급이 없이도 국제자본이 우리 나라에서 샤흐띄사건과 같은 경제적간섭을 조직할수가 있었겠는가? 없었을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대체 우리 나라에 경제적간섭이나 쏘베트정권을 전복하려고 벼르고있는 자산계급전문가들이 있는가?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이 많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무력간섭시기에 있은것보다는 훨씬 적고 보잘것없기는 하지만 반혁명적자산계급전문가들이 있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두가지 세력이 한데 결합되여 쏘련에 대한 경제적 간섭의 지반을 제공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샤흐띄사건의 계급적내막이다.

이제 샤흐띄사건에서 나오는 실제적결론에 언급하려 한다.

나는 샤흐띄사건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있는 네가지 실제적결론에 언급하려 한다.

레닌은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기본문제중의 하나라고 말하였다. 샤흐띄사건은 우리들의 경제간부들을 잘못 선택하였으며 또한 잘못 선택하였을뿐만아니라 이러한 간부들로 하여금 발전하기 어려운 조건하에 처하게 하였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제33호명령 특히 이 명령에 따르는 《표준규정》[9] 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표준규정의 특성은 그것이 기술지배인에게다 거의 모든 권리를 부여하고 책임지배인에게는 충돌을 조정하며 공장의《대표자노릇을 하며》거문고나 타고있을 권리를 남겨두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간부들이 충분히 발전할수 없었을것은 자명한 일이다.

당시에는 이 명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왜냐 하면 그때 우리 나라에는 경제간부들이 전혀 없었고 우리가 산업을 관리할줄 몰라 하는수없이 기술지배인에게 주요권리를 맡기지 않을수 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명령은 질곡으로 되였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경험이 있고 우리 나라 공업의 참다운 지도자로 발전할수 있는 자기의 경제간부들이 있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때지난 표준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과 바꾸어야 할 시기가 왔다.

공산당원들, 특히 경제사업을 하는 로동자공산당원들은 화학공식이나 기술지식 일반을 습득할수 없다고 말하는자들이 있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않다. 세상에는 근로자들과 볼쉐

위크들이 정복하지 못할 요새가 없다.(박수) 우리는 자산계급과의 투쟁에서 이보다 더한 요새들을 점령하여왔다. 모든 문제는 기술지식을 습득하고 견정한 결심과 볼쉐위크적인내성으로써 자기를 무장하려는 의욕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는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간부들의 사업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을 도와 충분한 권한을 가진 참다운 관리일군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낡은 표준규정을 폐지하고 그것을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인재들을 불구자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

우리 나라의 일부 타락한 경제일군들은 과연 우리들중의 어느 누구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였던가? 이러한 류의 동지들이 어째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생활에서 자산계급전문가들과 합류하여버렸는가?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적실천이 옳지 못하였기때문이며 우리 나라 경제일군들의 선발조건과 사업조건이 그들의 발전을 저애하고 그들을 자산계급전문가들의 추종자로 전화시키고있기때문이다. 동지들,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청산하여야 한다.

샤흐띄사건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있는 둘째 결론은 우리가 교등기술학교에서 간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있으며 우리의 붉은 전문가들을 잘 양성하지 못하고있다는데 있다. 이것은 도저히 회피할수 없는 결론이다. 례컨대 우리 나라의 많은 젊은 전문가들이 왜 사업에 적당하지 않으며 공업에 무용한 사람들로 되고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서적에 의하여서만 배웠으며 서적에서의 전문가일따름이므로 실천적경험이 없으며 생산과 멀어져있으므로 자연히 실패를 당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러한 전문가가 필요한가? 아니다, 이러한 전문가는 그들이 아무리 젊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문가는 그들

이 공산당원이든 아니든 리론상에서뿐만아니라 자기의 실천적 경험에 있어서나 생산과의 련관에 있어서 유능한 그러한 전문가이다.

탄광을 본적도 없고 갱도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젊은 전문가들과 공장을 본적도 없고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젊은 전문가들은 실제적사업에서 단련된, 그러나 우리 사업을 적대시하는 그런 낡은 전문가들을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비단 낡은 전문가나 우리의 경제일군들뿐만아니라 로동자들까지도 왕왕 이러한 젊은 전문가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젊은 전문가들에게 그와 같은 불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 대한 교육방법을 개변하여야 하며 또한 반드시 젊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고등기술학교에 들어가 학습하는 첫해부터 생산과 즉 공장, 탄광 등등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도록 그렇게 개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결론은 광범한 로동자대중을 공업관리사업에 참가시킬데 관한 문제이다. 샤흐띄사건의 자료를 볼 때 이 방면의 사태는 어떠한가? 매우 나쁘다. 동지들, 말할수없이 나쁘다. 로동법이 파괴되여 지하작업에 있어서의 6시간로동제가 준수되지 않으며 로동보호조건이 무시되고있다는것이 사실에 의하여 증시되였다. 그런데 로동자들은 참고만 있으며 직업동맹은 침묵을 지키고있으며 당조직들도 이러한 추태를 퇴치할 대책을 취하지 않고있다.

얼마전에 돈바쓰로 갔던 한 동지가 그곳 여러 탄광을 찾아다니며 로동조건에 대하여 광부들에게 물어보았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어느 한 광부도 그들의 로동조건에 대해서 불평을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있었다는 점이다. 《동무들, 어떻

게 살아갑니까?》 하고 그 동지는 그들에게 물었다. 《동무, 괜찮습니다. 잘살아갑니다.》라고 광부들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모스크바로 갑니다. 아무것이나 중앙에다 전달할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십시오.》 하고 그는 물었다. 《중앙에 가시면 우리가 괜찮게 살고있다고 말해주십시오.》 하고 광부들은 그에게 대답하였다. 《여보십시오, 동무들, 나는 외국사람이 아니라 로씨야사람입니다. 내가 여기로 온것은 당신들의 실정을 알기 위해서입니다.》라고 그 동지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동무, 우리는 외국사람에게나 우리 사람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사실밖에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광부들은 그에게 대답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광부들의 면모이다. 이것은 보통로동자들이 아니라 영웅들이다. 우리가 이미 로동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쌓아놓은 그 정신적자본의 부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라, 우리는 10월혁명의 위대한 유산을 랑비하는 너절하고 아무 쓸모없는 망나니처럼 이 극히 귀중한 정신적자본을 함부로 범죄적으로 랑비하고있다! 그런데 동지들, 옛 정신적자본에 오래도록 매여달려 그것을 그렇게 분별없이 랑비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현상을 없애버릴 때가 왔다. 벌써 오래전에 왔다!

끝으로 네번째 결론은 사업집행의 검열에 관한 문제이다. 샤호띠사건은 사업집행의 검열사업이 모든 관리부문들에서 당적부문에서도 산업 및 직업동맹 부문에서도 매우 좋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결의문들이 씌여지고 지령들이 각처로 발송되고있을뿐 이 결의문들과 지령의 집행정형은 어떤가? 그것들을 실지로 수행하고있는가, 아니면 책상서랍에 깔아두고만 있는가를 자문하여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일리이치는 국가관리사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

는 사업집행정형을 검열하는 문제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에서 우리는 매우 잘하지 못하고있다. 지도한다는것—이것은 결코 결의문들을 쓰며 지령들을 발송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지도한다는것—이것은 지령의 집행정형을 검사하는것이며 비단 지령의 집행정형뿐만아니라 지령자체도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동한 실천사업의 견지에서 검열하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들의 모든 지령들이 100%로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스운 일이다. 동지들, 그러한 일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사업집행검열은 바로 우리의 사업일군들이 실천의 불길속에서 우리의 지령들의 집행정형뿐만아니라 지령자체의 정당성도 검열하는데 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이 방면에 결함이 있다는것은 우리들의 지도전체에 결함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몇컨대 군 당계통에서의 사업집행정형의 검열을 들어보자. 우리는 보통 중앙위원회의 지령의 집행정형을 검열하기 위하여 지구위원회와 성위원회 비서들을 중앙위원회에 불러서 보고를 시킨다. 비서들은 보고하면서 자기 사업에서의 결함을 서인한다. 중앙위원회에서는 그 결함을 지적하고 천편일률적인 결의문들을 채택하여 사업을 심화시키고 확대하며 이러저러한 점을 강조하며 이러저러한 점에다 많은 주의를 돌리라는 지시를 준다. 비서들은 이 결의문을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후에도 또다시 비서들을 불러놓고 마찬가지로 심입, 확대 등등에 관한것을 지시한다. 나는 이러한 사업들이 아무 소용도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 동지들, 이러한 사업은 각급 조직들을 교양하며 독촉한다는 의미에서는 그자체의 좋은 면들도 가지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집행의 검열방법은 이미 불충분하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다른 방법, 즉 우리 당과 쏘베트 상층인원들을 지방에 파견하여

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충되여야 한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한다.(청중의 소리—《그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우리들의 지도동지들을 잠시 지방에 파견하여 일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휘자로서가 아니라 지방단체들의 지시하에 활동하는 보통일군으로서 파견하는것을 말하는것이다. 나는 이 방법이 큰 장래성을 가지고있으며 또 그것이 충직하고도 성실하게 실행된다면 사업집행에 대한 검열사업을 개선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만일 중앙위원, 중앙검열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인민위원 및 부인민위원, 전련맹직업동맹 중앙평의회 상무위원회 위원, 각 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늘 지방에 내려가서 사업함으로써 사업형편을 잘 살피며 모든 곤난과 모든 결점과 우점을 연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사업집행검열로 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존경하는 지도자들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이 제도화된다면(이것은 반드시 제도화되여야 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어내는 법령들과 우리가 작성하는 지령들이 현재의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더 정확한것으로 될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동지들, 샤흐띄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하다.

4

총 결 론

우리에게는 내부의 적이 있다. 우리에게는 외부의 적도 있다. 동지들, 잠시라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는 수매위기가 있었다. 그것은 이미 제거되였다.

수매위기는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이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 쏘베트정권을 반대하여 감행한 첫 중대한 진공을 표시하는첫이였다.

우리는 샤호띄사건을 경험하였다. 그것은 이미 제거되고 있으며 의심할바없이 제거될것이다. 샤호띄사건은 국제자본 및 우리 나라에 있는 그 앞잡이들이 쏘베트정권을 반대하여 감행한 새로운 중대한 진공을 표시하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내정에 대한 경제적간섭이다.

이러한 또는 이와 류사한 진공들이 내부로부터거나 외부로부터거나 반복될수 있으며 아마도 반복될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는 일이다. 우리들의 과업은 최대한으로 경각성을 높이고 경계하는것이다. 그리고 동지들, 우리가 만일 경각성을 높인다면 우리는 기필코 우리들의 적을 지금 타도하고있으며 또 과거에 타도한것과 같이 앞으로도 타도하고야말것이다.(오래동안 지속되는 폭풍우와 같은 박수)

1928년 4월 18일부 《쁘라우다》 제90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1권, 25~54페지

쏘련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제8차대회[10]에서 한 연설

(1928년 5월 16일)

동지들! 대회에서는 성과에 대하여 말하는것이 통례로 되여있다. 우리들에게 성과가 있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이 성과들은 물론 적지 않으며 그것들을 감출 아무런 리유도 없다. 그러나 동지들, 우리들사이에서는 최근에 성과에 대하여 너무도 많이 그리고 때로는 너무도 싫증나게 반복되였기에 다시 되풀이하고싶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통례를 위반하고 우리들의 성과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결함과 이 결함들로 하여 산생된 우리들의 과업들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는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동지들, 나는 우리 나라의 국내건설문제들과 관련되는 과업들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이 과업들이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와 관련되는것이다. 즉 우리들의 정치사업로선에 관한 문제, 광범한 인민대중, 특히는 로동계급의 열성의 제고 및 관료주의와의 투쟁에 관한 문제, 그리고 끝으로 우리 나라 경제건설에 새 간부를 육성하여줄데 관한 문제이다.

1
로동계급의 전투준비를 강화하라

첫째 문제로부터 시작하자. 현시기의 특징은 우리들이 이미 5년동안이나 평화적발전의 조건하에서 건설하고있다는것이다. 내가 평화적발전이라고 말하는것은 비단 외부의 적들과의 전쟁이 없다는 의미에서뿐만아니라 또한 국내에도 국내전쟁의 요소가 없다는 의미에서도 그러하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우리 나라 건설에서의 평화적발전의 조건들이라고 말하는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싶이 우리는 이와 같은 평화적발전의 조건들을 전취하기 위하여 온 세계 자본가들과 3년동안이나 싸웠던것이다. 당신들도 알다싶이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조건들을 전취하였으며 또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동지들, 어떠한 성과든지, 이 성과들도 포함하여 거기에는 그의 부정적인 면도 있다. 평화적건설의 조건들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않고 그저 지나간것은 아니였다. 그것들은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군들과 그들의 심리에 자기의 흔적을 남겨놓았다. 이 5년동안에 우리는 마치 궤도우를 달리듯이 평온하게 전진하였다. 이리하여 많은 일군들사이에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척되는듯하고 우리가 마치도 특별렬차에 타고있는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바꾸어탈것도 없이 궤도를 따라 사회주의에로 일직선으로 전진하면 될듯이 생각하는 그런 기분이 조성되여졌다.

이런 기초우에 《저절로 된다》는 론조, 《요행을 바라는》 론조, 저절로 《모든것이 다 된다》는 론조, 우리 나라에는 계급이 없고 우리의 적들은 이미 잠잠해졌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것이 거침없이 잘되여가리라는 론조들이 자라났다. 이로부터 태만과 침체 상태에 끌려들어가는 경향이 나오는것이다. 이러한 침체상태의 심리, 사업이 《저절로 되기》를 바라는 심리—바로 이러한것이 평화적발전시기의 부정적면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기분의 위험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와 같은 기분이 로동계급의 눈을 가리워 자기의 적을 똑똑히 보지 못하게 하며 적의 약점을 확대하는 말로써 로동계급을 마비시키며 그들의 전투적준비를 파괴하고있다는데 있다.

우리 당에는 백만명의 당원이 있고 공산주의청년동맹에는 2백만명의 단원이 있으며 직업동맹에는 1천만명의 맹원이 있으니 적들에 대한 종국적인 승리가 전적으로 보장될것이라고 자신을 안위하여서는 안된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않다. 가장 큰 군대가 교오자만하고 자기 력량을 지나치게 믿으며 적의 력량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깊은 잠속에 빠져 전투준비를 게을리한데서 결정적인 순간에 불의의 습격을 받아 멸망당한 사실들을 력사는 말해주고있다.

최대의 당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가 력사의 교훈에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면, 만일 그가 매일같이 자기 계급의 전투준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는 적의 불의의 습격을 당할수가 있으며 파멸당할수 있을것이다. 동지들, 불의의 습격을 당한다는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불의의 습격을 당한다는것은 《불의의 사건》의 희생품으로 되는것이며 적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포는 붕괴, 패배, 멸망을 초래한다.

나는 국내전쟁시기의 우리 군대생활가운데서 대군단이 충분한 전투준비를 갖추고있지 못하였기때문에 소부대에게 분쇄당하였던 많은 실례를 당신들에게 이야기할수 있다. 나는 1920

년에 5,000명이상의 기병을 가진 3개의 기병사단이 한개 보병대대에게 격파되여 패주한 사실을 당신들에게 이야기할수 있다. 이것은 단지 불의의 습격을 받은 기병사단들이 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적들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까닭이였다. 기실 적의 수자가 극히 적었으므로 만일 이 사단들이 수면상태에 빠지지 않았고 후에 또 공포와 속수무책의 상태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 보병대대를 일격에 격파할수 있었을것이였다.

이와 흑같은것을 우리 당, 우리 공산주의청년동맹, 우리 직업동맹, 우리 력량일반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이미 계급의 적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은 타도되였으며 청산되였다고 인정하는것은 옳지 않다. 아니다, 동지들, 우리의 계급의 적들은 존재하고있다. 비단 존재하고있을뿐만 아니라 자라나고있으며 쏘베트정권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의 수매사업의 곤난이 말하여준다. 그 당시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은 쏘베트정권의 정책을 파탄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샤흐띄사건2이 말하여주고있다. 이 사건은 국제자본과 우리 나라 자산계급이 쏘베트정권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한 행동에서 표현되고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내외정책의 령역에서의 허다한 사실들이 말하여주고있는바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있는 사실로서 여기서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로동계급의 이와 같은 적들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있을수는 없다. 로동계급의 계급적적들의 력량을 과소평가하는것은 범죄이다. 이 모든것에 대하여 침묵을 지킨다는것은 특히 지금 즉 로동계급의 전투준비를 파괴하고있는 태만 및 《저절

로 된다》는 론조가 약간의 유리한 지반을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평화적발전시기에 있어서는 더욱 침묵을 지킬수 없는것이다.

수매사업의 위기와 샤흐띄사건이 가지는 거대한 교양적의의는 그것들이 우리 나라의 모든 조직들을 각성시켰고 《저절로 된다》는 론조를 파탄시켰고 계급의 적들은 존재하며 그들은 잠자고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을 반대하여 로동계급의 력량, 경각성, 혁명성과 전투준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또다시 힘있게 지적한데 있다.

이로부터 계급의 적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전투적준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당의 당면과업, 당의 일상사업의 정치로선이 나온다.

공산주의청년동맹의 이번 대회가 특히 《공청동맹쁘라우다》지[6]가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이 과업에 중시를 돌리고있다는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여러분들이 알다싶이 토론자들의 연설에서나 또는 《공청동맹쁘라우다》지의 론문들에서나 이 과업의 중요성이 지적되고있다. 동지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다만 이 과업을 일시적인 그리고 순간적인 과업으로 생각하지 말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무산계급의 전투준비를 강화하는 과업은 우리 나라에 계급이 있는 한, 우리가 자본주의에 포위되여있는 한 우리의 일체 활동에 관통되여야 할 그러한 과업이기때문이다.

2

아래로부터의 대중적비판을 조직하라

둘째 문제는 관료주의와 투쟁하는 과업, 우리의 결함에

대한 대중적비판을 조직하는 과업, 아래로부터의 대중적통제를 조직하는 과업에 관한것이다.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가장 흉악한 적의 하나는 관료주의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모든 기관들에, 당기관에도, 공청동맹조직에도, 직업동맹기관에도, 경제기관에도 다 존재하고있다. 관료주의자에 대하여 말할 때 보통 낡은 비당원관리들 즉 우리 나라에서 흔히 만화에 나오는 안경쓴 사람들을 가리킨다. (웃음소리) 동지들, 이것은 아주 옳은것은 아니다. 만약 문제가 다만 낡은 관료주의자들에게만 있다면 관료주의와의 투쟁은 가장 용이한 일일것이다. 난점은 문제가 낡은 관료주의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기에 있다. 동지들, 문제는 새로운 관료주의자들에게 있으며 문제는 쏘베트정권을 동정하는 관료주의자들에게 있으며 끝으로 문제는 공산당원인 관료주의자들에게 있는것이다. 공산당원인 관료주의자는 가장 위험한 관료주의자이다. 왜? 왜냐 하면 그는 자기의 관료주의를 당원의 칭호로써 위장하기때문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공산당원관료주의자가 우리 나라에는 적지 않다.

우리의 당조직들을 례로 들어보자. 여러분은 스몰렌스크사건[11], 아르쪼몹스크사건[12] 등에 관한것을 알고있을것이다. 과연 이것이 우연한 일인가? 어째서 우리 당조직의 일부 고리들에서 이와 같은 부화타락한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발생되는가?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당의 독점을 터무니없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하부의 목소리를 압살하였으며 당내민주주의를 파괴하였으며 관료주의를 조장시켰기때문이다. 이 해독을 어떻게 제거할것인가? 나는 아래로부터의 당원대중의 통제를 조직하는 이외에는, 당내민주주의를 발양하는 이외에는 이 해독을 제거할 어떠한 다른 수단도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부패분자들에 대한 당원대중의 격분을

일으키며 아울러 그들이 이런 분자들의 목덜미를 쥐여 쫓아버리게 하는것을 반대할 무슨 리유가 있는가? 이에 대하여 무엇이든 반대할수는 아마도 없을것이다.

또 공청동맹을 례로 들어보자. 공청동맹내의 일부 조직들에 아주 부패한자들이 있으며 그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것을 당신들은 물론 부인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부패한자들에 대하여는 잠시 말하지 말기로 하자. 최근의 사실, 즉 공청동맹내의 분위기를 더럽히는 몇 개인을 둘러싸고 공청동맹내부에서 일어난 무원칙한 그루빠적투쟁을 들어보자. 《끄싸레브파》와 《쏘보레브파》는 공청동맹내에 얼마든지 있는데 맑스주의자를 찾자면 초불을 들고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무엇때문인가?(박수) 이 사실은 공청동맹지도부의 어떤 고리들이 관료주의적경화과정에 처해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직업동맹들은? 관료주의가 직업동맹들내에 수두룩하다는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우리는 기업소들에 생산협의회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직업동맹들에 림시검열위원회들을 가지고있다. 이 조직들의 과업은 대중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의 결함들을 적발하며 우리 나라 건설을 개선하는 길을 지적하는데 있다. 왜 이와 같은 조직들이 우리 나라에서 충분히 역할하지 못하고있는가? 왜 이 조직들이 생기가 없는가? 직업동맹내의 관료주의에 당조직내의 관료주의까지 합치면 로동계급의 이 가장 중요한 조직들을 발전시킬수 없다는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끝으로 우리의 경제기관들을 들어보자. 우리의 경제기관들에 관료주의가 있다는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샤흐띄사건만이라도 들어보라. 과연 샤흐띄사건은 우리의 경제기관들이 전진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벌벌 기여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

고있지 않는가?

이 모든 조직들에서의 관료주의를 어떻게 근절할것인가?

이를 위하여서는 오직 단 하나의 길이 있을따름이다.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통제를 조직하는것이며 우리 기관들의 관료주의에 대하여, 이 기관들의 결함과 과오에 대하여 로동계급의 수백만 대중의 비판을 조직하는것이다.

우리 조직들의 관료주의적병태를 반대하는 근로대중의 격분을 불러일으킬 때에는, 과거에는 공로가 있었으나 현재는 관료주의의 병에 걸린 몇몇 우리 동지들을 자극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는것을 나는 알고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사정이 아래로부터의 통제를 조직하는 우리들의 활동을 제지시킬수 있겠는가? 나는 제지시킬수도 없으며 또 제지시켜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공로에 대하여서는 그들에게 머리숙여 경례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현재의 과오와 관료주의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한바탕 두들겨줄수도 있다.(웃음소리, 박수)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달리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사업의 리익이 이것을 요구하는 이상 이렇게 해서 안될 리유가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은 우로부터의 비판, 로동감독국으로부터의 비판, 우리 당 중앙위원회로부터의 비판 등등을 운운하고있다. 물론 이 모든것은 좋은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써는 매우 부족하다. 뿐만아니라 현재 주요한것은 결코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다. 현재 주요한것은 관료주의를 반대하며 특히는 우리 사업의 결함들을 반대하는 아래로부터의 비판의 광범한 파도를 일으키는것이다. 다만 우로부터와 아래로부터의 이중의 압력을 조직함으로써만이, 다만 아래로부터의 비판에다 중점을 전이시킴으로써만이 성과적인 투쟁과 관료주의의 근절을 기대할수 있을것이다.

건설의 경험을 가지고있는것은 오직 지도자들뿐이라고 생

각하는것은 잘못이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 나라 공업을 건설하고있는 수백만 로동자대중은 매일과 같이 풍부한 건설경험을 쌓고있으며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지도자들의 경험보다 조금도 못지않게 귀중한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인 비판,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특히 이 수백만 대중의 이런 경험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며 이런 경험이 중시를 받아 실천에서 효력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서이다.

이로부터 나오는 당의 당면과업은 다음과 같다. 즉 관료주의와의 무자비한 투쟁,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인 비판의 조직, 그리고 이와 같은 비판을 우리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적인 결정들에서 참작할것 등이다.

공청동맹, 특히 《공청동맹쁘라우다》지가 이 과업의 중요성을 홀시했다고 말할수는 없다. 여기에서의 결함은 가끔 이 과업을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는것이다. 그런데 이 과업을 철저하게 수행하자면 비단 비판에 대해서 고려하여야 할뿐만아니라 비판의 효과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비판후 수행된 개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3

청년들은 과학을 습득하여야 한다

셋째 과업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새 간부들을 육성하는 문제에 관한것이다.

동지들, 우리앞에는 우리 나라의 전반 인민경제를 재건하는 거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농업부문에서 우리는 대규모의 련합된 공동경영의 기초를 닦아놓지 않으면 안된다. 몰로또브

동지의 오늘의 호소문[13]으로부터 당신들은 쏘베트정권이 분산된 소농경영을 집단화하며 그리하여 새로운 대규모의 곡물국영농장을 창건하는 가장 간고한 과업을 제기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을것이다. 이 과업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신속한 전진을 가져올수 없을것이다.

쏘베트정권이 공업에서는 가장 대규모적인, 집중된 생산에 의거하고있다면 농업에서는 가장 분산적인 소농경영에 의거하고있다. 그런데 이 소농경영은 반상품생산적경영으로서 파종면적이 전쟁전 기준에 도달했지만 전쟁전보다 제공하는 상품곡물은 훨씬 적다. 앞으로 곡물수매사업에서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곤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농업분야에서 대규모적인 공동적생산을 절실하게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적경영을 조직하기 위하여서는 농업과학을 습득하여야 한다. 또한 이것을 습득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농업과학을 습득한 사람이 우리 나라에는 말할수없이 매우 적다. 이로부터 새로운 사회적 농업을 건설할 새롭고 젊은 간부들을 육성할 과업이 나온다.

공업분야에서는 우리의 사태가 훨씬 좋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건설에 종사하는 새로운 간부들의 부족이 우리들의 전진을 저애하고있다. 사회주의공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새로운 간부들을 육성하는 문제가 극히 첨예하게 나서고있다는것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샤흐띄사건을 상기하면 충분하다. 물론 우리 나라에는 재래의 공업건설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나 첫째로 그들은 우리 나라에 적고 둘째로 그들전부가 새 공업의 건설을 원하고있는것이 아니며 셋째로 그들중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건설과업을 리해하지 못하고있으며 넷째로 그들중 대부분이 이미 늙어서 일할수 없게 되고있다.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 공산당원, 공청원들 가운데서 새로운 기술자

간부를 급속히 육성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건설에 참가하려고 하며 건설을 지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농업분야나 공업분야에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건설할줄 알며 지도할줄 아는 사람은 말할수없이 매우 적다. 반대로 우리 나라에는 이 분야에서의 무식이 너무도 많다. 그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에는 우리의 비문화성을 구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당신이 무식하고 또 글을 틀리게 쓰며 자신의 락후성을 자랑한다면 당신은《산업》로동자이며 당신은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게 될것이다. 만일 당신이 비문화성에서 벗어나 읽고 쓰기를 배우고 과학을 습득하였다면 당신은 제 사람이 아니며 대중으로부터《리탈》되였으며 더는 로동자가 아니라는것이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야만과 미개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과학과 문화가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와 같은 야만적인 태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일 로동계급이 비문화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만일 자기의 지식인들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만일 과학을 습득하지 않고 과학에 기초하여 경제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로동계급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될수 없는것이다.

동지들, 지금은 투쟁조건들이 국내전쟁시기와 다르다는것을 리해하여야 한다. 국내전쟁시기에는 공격의 방법으로써, 용감성과 대담성으로써, 기병대의 돌연습격의 방법으로써 적의 진지를 탈취할수가 있었다. 현재 평화적경제건설의 조건하에서는 기병대의 돌연습격의 방법으로써는 일을 망쳐버릴수 있을뿐이다. 용감성과 대담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용감성과 대담성만으로써는 큰 소득을 거둘수 없다. 이제 적을 쳐부시기 위하여서는 공업, 농업, 운수 및 상업을 건설할줄 알아야 하며 상업에 대한 귀족적이며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지식이 있어야 하며 과학을 습득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겸요하게 인내성있게 배워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서 즉 적에게서도 친구에게서도 배워야 하며 특히 적에게서 배워야 한다. 적이 우리를, 우리의 무식을, 우리의 락후성을 조소할가봐 두려워말고 이를 악물고 배워야 한다.

우리앞에는 요새가 있다. 이 요새는 과학이라고 하며 거기에는 지식의 수많은 부문들이 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요새를 점취해야 한다. 만일 청년들이 새생활의 건설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로근위대의 손색없는 후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제는 어느것에 대하여서나 조금씩 지껄일수 있는 일반 공산당원간부, 일반 볼쉐위크간부를 육성해내는데 국한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설익은 지식과 박식한체하는것이 장애물로 되고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금속, 방직, 연료, 화학, 농업, 운수, 상업, 부기 등 면의 볼쉐위크적전문가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가지 지식부문에서 사업의 주인이 될수 있는 수천수만의 많은 새 볼쉐위크간부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빠른 속도를 운운할 여지가 없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들이 선진적인 자본주의국가들을 따라잡으며 릉가할수 있다고 운운할 여지가 없다.

과학을 습득하며 모든 지식부문에서 볼쉐위크전문가들의 새로운 간부를 육성해내며 집요하게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는것--이것이 현재의 과업이다.

과학을 향하여 나아가는 혁명적청년들의 대중적행군—동

지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것이다.(폭풍우 같은 박수. 《만세!》, 《만세!》 하고 웨치는 소리. 전체 기립)

1928년 5월 17일부 《프라우다》 113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1권, 56~66페지

곡물전선에서

(1928년 5월 28일 붉은교수학원, 공산주의과
학원 및 스웨르들로브대학14 학생들과의 담화에서)

물음: 우리 나라에서의 곡물곤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곤난에서 벗어나는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곤난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전반 공업의 발전속도에 대하여, 특히 경공업과 중공업과의 호상관계의 견지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와야 하는가?

대답: 얼핏 보기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곡물곤난은 우연한 일로, 다만 계획이 잘못된 결과로, 다만 경제균형사업에서 여러가지 오유를 범한 결과로만 생각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얼핏 보기에만 그렇게 생각될수 있다. 기실 곤난의 원인은 그보다 더 깊은데 있다. 계획이 잘못되고 경제균형사업상에서 오유를 범한것이 여기에서 매우 큰 역할을 놀게 되였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모든것을 계획이 잘못된것으로나 우연적인 과오로써 설명하려는것은 극히 큰 오유를 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계획사업의 역할과 의의를 경시하는것은 오유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것을 계획할수 있고 모든것을 조절할수 있는 발전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서 계획원칙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것은 더욱 큰 오유이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는 우리의 계획의 통제를 받는 요소들외에도 또한 아직 잠시 계획의 통제를 받지 않는 다른 요소

들이 있다는것과 마지막으로 단순히 국가계획위원회의 계획만으로써는 전승할수 없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계급들이 남아있다는것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나는 모든것을 단순한 우연적인 현상이라든가 계획사업에서의 오유 등등에다 귀착시킬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곡물전선에서의 우리의 곤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곡물곤난의 근원은 우리 나라 상품곡물생산의 증장이 곡물에 대한 수요보다 더딘데 있다.

공업이 발전하고있다. 로동자들의 수효가 늘어나고있다. 도시들이 발전하고있다. 또한 상품곡물을 요구하는 여러가지 공업원료(면화, 아마, 사탕무우 등등.)의 생산지역들이 늘어나고있다. 이 모든것은 곡물에 대한 수요, 상품곡물에 대한 수요를 급속히 장성시키고있다. 그런데 상품곡물의 생산은 기막히게 더딘 속도로 자라나고있다.

국가의 관리하에 조달될수 있는 수매한 곡물이 우리 나라에서 작년이나 혹은 재작년에 비하여 금년에 적었다고는 말할수 없다. 그와 반대로 금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수중에 있는 곡물이 왕년에 비하여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곡물곤난을 받고있다.

여기에 약간한 수자를 들어보자. 1925~1926년도에는 3월 31일까지 우리는 4억 3,400만뿌드의 곡물을 수매할수 있었다. 그중에서 1억 2,300만뿌드를 외국으로 수출하고 국내에는 3억 1,100만뿌드를 남겨놓았다. 1926~1927년도에는 3월 31일까지 우리는 5억 9,600만뿌드의 곡물을 수매하였다. 그중 1억 5,300만뿌드는 외국으로 수출하고 국내에는 4억 4,300만뿌드를 남겨놓았다. 1927~1928년도에는 3월 31일까지 우리는 5억 7,600

만뿌드의 곡물을 수매하였다. 그중 2,700만뿌드는 외국으로 수출하고 국내에는 5억 4,900만뿌드를 남겨놓았다.

바꾸어말하면 금년에는 3월 31일까지 우리는 국내수요를 위한 곡물을 작년보다 1억뿌드나 더 많이 수매하였고 재작년도보다는 2억 3,000만뿌드나 더 많이 수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년도에 곡물전선에서 여전히 곤난에 봉착하고있다.

나는 나의 한 보고에서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 우선 부농들이 쏘베트경제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이 곤난을 리용하고있다는것을 이미 말하였다. 여러분은 쏘베트정권이 부농들의 반쏘베트적진출을 소탕하기 위하여 이미 일련의 대책들을 취하였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대하여 여기서 더 말하지 않겠다. 내가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있는것은 다른 문제이다. 내가 념두에 두고있는것은 상품곡물의 생산이 더디게 증가하는 원인에 관한 문제, 즉 우리 나라의 파종면적 및 곡물의 총생산고가 이미 전쟁전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상품곡물생산의 증장은 아직도 곡물수요의 증장에 비하여 더디다는데 관한 문제이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파종면적은 이미 전쟁전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것이 그래 사실이 아니란말인가? 그렇다, 이것은 사실이다. 곡물의 총생산고가 작년에 이미 전쟁전의 생산수준과 비등하게 되였다는것, 다시말하면 곡물이 50억뿌드에 달하였다는것이 그래 사실이 아니란말인가? 그렇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전보다 상품곡물을 2배나 적게 생산하고 외국으로 20배가량이나 적게 수출하는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이것은 무엇보다도먼저 그리고 주요하게는 10월혁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농업구성이 변경된데, 즉 최대의 상품

곡물을 제공하던 대규모적인 지주 및 부농적 경영으로부터 최소의 상품곡물을 제공하는 소농경영 및 중농경영에로 넘어가게 된데 그 원인이 있다. 전쟁전에는 우리 나라에 1,500~1,600만의 개인농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나라에 2,400~2,500만의 농호가 있다는 이 한가지만으로도 벌써 우리 나라 농업의 기본적토대가 지금은 최소한의 상품곡물을 제공하는 소농경영이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농업에서의 대규모적경영의 힘은 그것이 지주경영이든 부농경영이든 그렇지 않으면 집단경영이든가를 막론하고 그 대규모적경영이 기계를 사용하며 과학의 성과를 응용하며 비료를 사용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그리하여 상품곡물을 극히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다는데 있다. 이와 반대로 소농경영의 약점은 그것이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였거나 거의 가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반소비적이며 상품성이 적은 경영으로 되여있다는데 있다.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례로 들어보자. 이 두 농장이 생산하는 상품곡물은 그 총생산고의 47.2%를 차지한다. 다시말하면 이 농장들은 전쟁전의 지주경영보다 비교적 더 많은 상품곡물을 생산하고있다. 그러나 중소경영은 어떠한가? 그것들이 생산하는 상품곡물은 그 총생산고의 11.2%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보는바와 같이 그 차이가 아주 뚜렷하다.

여기에 파거 전쟁전시기와 현재 10월혁명후시기의 곡물생산의 구성을 밝혀주는 약간의 수자들이 있다. 이 수자는 중앙통계국 참의회 위원인 넴치노브동지가 제공한것이다. 넴치노브동지가 설명서에서 부언하다싶이 이 수자는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계산할수 있는 가능성만은 준다. 그러나 이 수자는 일반적인 곡물생산의 구성의 견치에서, 특히는 상품곡물생산의 구성의 견지에서 전쟁전시기와 10

월혁명후시기와의 사이의 차이점을 리해하기에는 아주 충분하다.

	곡물총생산고		상품곡물(농촌외의)		
	단위 백만뿌드	백분률	단위 백만뿌드	백분률	상품화률 (%)
전쟁전:					
1. 지 주	600	12.0	281.6	21.6	47.0
2. 부 농	1,900	38.0	650.0	50.0	34.0
3. 중농과 빈 농	2,500	50.0	369.0	28.4	14.7
총계	5,000	100	1,300.6	100	26.0
전쟁후(1926~1927년도):					
1. 국영농장과 집단농장	80.0	1.7	37.8	6.0	47.2
2. 부 농	617.0	13.0	126.0	20.0	20.0
3. 중농과 빈 농	4,052.0	85.3	466.2	74.0	11.2
총계	4,749.0	100	630.0	100	13.3

이 통계표는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첫째로, 이 통계표는 절대부분의 곡물생산이 지주와 부농측으로부터 소농과 중농측으로 넘어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것은 지주의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 부농의 세력을 기본상 소멸한 소농과 중농이 자기의 물질적상태를 아주 현저하게 개선할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10월혁명의 결과이다. 이 점에서 무엇보다도먼저 기본적농민대중이 10월혁명에서 얻은 결정적소득이 표현되고있는것이다.

둘째로, 이 통계표는 우리 나라에서 소농 그리고 우선 중

농이 상품곡물의 기본적소유자들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이것은 곡물총생산고의 견지에서뿐만아니라 상품곡물생산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10월혁명후에 쏘련은 이미 소농경제의 나라로 되였고 중농이 이미 농업에 있어서《중심인물》로 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이 통계표는 치주의 경영(대규모적)이 이미 소멸되고 부농의 경영(대규모적)이 3분의 1이하로 감소되였으며 농업이 겨우 11%의 상품곡물을 제공하는 소농경영에로 넘어갔으며 곡물생산의 령역에서 다소라도 발전된 대규모적공동경영(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 없는 형편하에서 전쟁전에 비하여 상품곡물의 생산을 훨씬 축소시키지 않을수 없었고 또 사실상 축소시켰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곡물총생산고가 전쟁전 수준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있는 상품곡물은 전쟁전의 절반밖에 안된다는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바로 곡물전선에서의 우리의 곤난의 근원이 있다.

바로 이령기때문에 곡물수매면에서의 우리의 곤난을 단순한 우연적인 현상으로 인정할수 없는것이다.

우리의 상업기관들이 많은 중소도시들에 곡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의무를 짊어졌으며 그 결과 어느 정도까지 국가의 곡물저장을 감소시키지 않을수 없었다는 사정도 또한 여기에서 일정한 소극적인 역할을 놀았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곡물전선에서의 우리의 곤난의 근원은 이런 사정에 있는것이 아니라 상품곡물의 수요가 매우 빨리 증장되는데 반하여 우리 농업의 상품화률이 더디게 발전된다는데 있다는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것이다.

이런 상태로부터의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상태로부터의 출로는 부농경영을 회복하고 부농경영을 발전시키며 전개시키는데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러한 사람들은 지주경영을 회복시키자고는 감히 말하지 못한다. 그들은 지금 그런 말을 하는것이 위험하다는것을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것만큼 쏘베트정권의…리익을 위하여서는 부농경영을 백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를 더욱 즐겨한다. 이런 사람들은 쏘베트정권이 대립되는 두 계급, 다시말하면 로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경제적원칙으로 삼는 부농계급과 온갖 착취의 소멸을 경제적원칙으로 삼는 로동계급에 동시에 의거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반동분자들이나 할수 있는 수작이다.

이 반동적《계획》들이 로동계급의 리익, 맑스주의의 원칙, 레닌주의의 임무들과는 아무러한 공통점도 없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부농은 도시의 자본가보다 《나쁘지는 않다》느니, 부농은 도시의 네프만①보다는 더 위험하지 않다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부농을 《두려워할》것이 없다느니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것은 로동계급과 기본농민대중의 경각성을 마비시키는 자유주의적공담이다. 공업에 있어서 우리가 전 공업제품량의 10분의 9를 생산하는 사회주의적대공업을 도시의 소자본가와 대립시킬수 있지만 농촌에서는 생산방면에서, 부농경영에 비하여 8분의 1의 곡물밖에 생산못하며 아직도 튼튼하여지지 못한 집단농장과 국영농장들을 부농적대생산에 대립시킬수 있을뿐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농촌에서의 대규모적인 부농경영의 역할을 리해하지 못하고 농촌에서의 부농의 비중이 도시공업에서의 소자본가들의 비중보다 백배나 더 크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미친것이며 레닌주의와 아주 인연을 끊고 로동계급의 적들의 편으로 넘어감을 의미한다.

---

① 네프만이란 로어 《нэпман》의 음역으로서 신경제정책시기의 자산계급분자를 말한다.—편집자

그러면 이런 상태로부터의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1) 출로는 우선 소규모적이며 락후하고 분산된 농민경영으로부터 기계가 있으며 과학의 성과로써 무장되였고 상품곡물을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집단적이며 대규모적인 공동경영에로 넘어가는데 있다. 출로는 농업에서 개체농민경영으로부터 집단적공동경영에로 넘어가는데 있다.

레닌은 이미 10월혁명초기부터 집단농장을 조직할것을 당에 호소하였다. 그때로부터 우리 당내에서는 집단농장의 사상에 대한 선전을 그친적이 없었다. 그러나 집단농장을 건설할데 대한 호소는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대중적반향을 일으켰다. 이것은 우선 농촌에서의 협동조합조직의 광범한 발전이 농민의 정서를 집단농장에 유리하게 전이되도록 준비하였으며 지금 많은 집단농장들에서 벌써 1제쌰찌나①에서 150~200뿌드의 수확을 낼수 있으며 30~40%의 상품곡물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빈농과 하중농을 집단농장에로 강력히 쏠리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서는 국가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집단농장운동에 대량적으로 자금을 지출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는 이것도 역시 적지 않은 역할을 놀았다. 금년에 국가에서 집단농장을 방조한 금액이 작년보다 2배(도합 6,000여만루블)나 더 많다는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제15차당대회3가 대중적 집단농장운동을 위한 조건이 이미 성숙되였고 집단농장운동을 강화하는것이 국내에서 상품곡물의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된다고 인정한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

중앙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1927년에 집단농장들의 곡물

① 제쌰찌나는 로씨야의 토지면적단위이다. 1제쌰찌나는 1.09헥타르로서 16.35무에 해당된다. —편집자

총생산고는 5,500만뿌드이하로 내려가지 않았고 그의 총평균 상품화률은 30%였다. 금년초에 일어난 새 집단농장 창설의 거센 파도와 원래의 집단농장들의 확장은 금년말에 반드시 집단농장들의 곡물생산을 훨씬 증가시킬것이다. 과업은 집단농장운동의 현재 발전속도를 확보하며 집단농장을 대규모적으로 넓히며 유명무실한 집단농장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명실상부한 집단농장으로써 바꾸며 그리고 집단농장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곡물전체를 국가기관 및 협동조합기관에 판매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과 대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확립하는데 있다. 이러한 조건을 준수한다면 3~4년후이면 우리는 집단농장으로부터 약 1억뿌드의 상품곡물을 얻게 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집단농장과 협동조합을 서로 다른것으로 생각하면서 집단농장운동을 협동조합운동과 대립시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이것은 물론 옳지 않다. 어떤 사람은 지어 집단농장을 레닌의 협동조합계획과 대립시키기까지 한다. 이와 같이 대립시키는것은 아무런 도리도 없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사실에 있어서 집단농장은 협동조합의 일종 형태로서 생산협동조합의 가장 뚜렷한 형태이다. 거기에는 판매조합이 있으며 공급조합이 있으며 생산조합도 있다. 집단농장은 전반 협동조합운동의 불가분적인 구성부분이며 또한 레닌의 협동조합계획의 불가분적인 구성부분이다. 레닌의 협동조합계획을 실시한다는것은 농민을 판매협동조합과 공급협동조합으로부터 생산협동조합으로, 말하자면 집단농장적협동조합으로 끌어올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무엇때문에 우리의 집단농장이 오직 판매협동조합과 공급협동조합이 발전되고 강화된후에야 산생되고 발전하기 시작할수 있었는가 하는것을 말하여준다.

(2) 둘째로, 첫째로는 원래 있던 국영농장들을 확장하고 공

고히 하며 새로운 대규모적인 국영농장들을 건립하고 발전시키는데 있다. 중앙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1927년노에 현유국영농장들의 곡물총생산고는 4,500만뿌드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으며 그의 상품화률은 65%였다. 국가의 일정한 지지가 있기만 하면 국영농장들이 곡물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과업은 이것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다. 쏘베트정권은 농민의 분여지가 없는 구역들에 새로운 대규모적인 국영농장(1만 내지 3만제싸찌나의 땅을 가진 국영농장)을 건립할데 대한 결정을 지었는데 이 국영농장들은 5~6년후이면 약 1억뿌드의 상품곡물을 생산할것이다. 이러한 국영농장들의 창립은 이미 착수되였다. 과업은 쏘베트정권의 이 결정을 기어코 실시하는데 있다. 이 과업을 완수하기만 하면 대략 3~4년후이면 우리는 신구국영농장들로부터 8,000만 내지 1억뿌드의 상품곡물을 얻을수 있을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3) 마지막으로, 끝으로는 중소개체농민경영의 단위당 수확고를 부단히 높이는데 있다. 우리는 부농들의 대규모적개체경영을 지지할수도 없거니와 또한 지지하여서도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중소개체농민경영에 대하여서는 지지할수 있으며 마땅히 지지하여 그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며 그것을 협동조합조직의 궤도에로 이끌어들여야 한다. 이 과업은 우리가 일적 1921년에 여유량곡징수제를 현물세로 바꿀 때에 특별히 강조하여 선포하였던 오랜 과업이다. 이 과업은 우리 당의 제14차대회15와 제15차대회에서 확인되였다. 이 과업의 중요성은 지금 곡물전선에서의 곤난들때문에 더 명확해졌다. 그러므로 이 과업은 이상의 두가지 과업, 즉 집단농장에 관한 과업 및 국영농장에 관한 과업을 완수하는것과 같이 견결히 완수되여야 한다.

모든 자료들은 수년내에 농민경영의 단위당 수확고를 15~20% 높일수 있으리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적어도 500만의 나무쟁기가 사용되고있다. 오직 이 나무쟁기를 쇠쟁기로 바꾸기만 한다면 우리 나라의 곡물생산은 크게 증가될것이다. 우리가 또한 일정한 수량의 비료, 정선한 종자, 소형기계 등등을 농민경제에 공급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더 말할것도 없다. 예매계약, 즉 여러 농촌들로부터 상당한 수량의 곡물을 얻게 되는 조건하에서 그들에게 종자 등등을 공급할데 대한 예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런 방법은 농민경영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며 농민들을 협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이끄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이 면에서 참답게 사업하기만 한다면 3~4년후이면 우리는 중소개체경영으로부터 적어도 1억뿌드의 상품곡물을 더 얻을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방법으로 이 모든 과업을 완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3~4년후이면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적당히 조절하기에 어느 정도 충분한 2억 5,000만~3억뿌드의 상품곡물을 더 가지게 될것이다.

이와 같은것이 대체로 곡물전선에서의 곤난들로부터 벗어져나오는데 필요한 대책들이다.

우리의 상업기관들을 많은 중소도시에 대한 곡물공급의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면서 이 주요한 대책들을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의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당면의 대책과 련결시키는것—이것이 현재의 과업이다.

이러한 대책들과 함께 또한 일부 다른 대책들 이를테면 우리 나라의 공업발전속도를 더디게 하는(그것은 우리 나라 공업의 발전은 곡물의 수요량을 급속히 증대시켰는데 이와 같은 증대는 상품곡물생산고의 증대를 잠시적으로 초과하였기때문이다.) 대책들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가? 아니다, 그렇

게 해서는 안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공업발전속도를 더디게 한다는것은 로동계급을 약화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공업발전에서의 매개의 전진, 매개의 새 공장은 레닌의 말에 의하면,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과의 투쟁중에서, 우리 나라 경제의 자본주의적요소들과의 투쟁중에서 자기의 진지를 강화하는 로동계급의 《새 보루》로 되기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는 상품을 농촌에 많이 공급하고 그곳으로부터 곡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농업에, 우선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에 기계를 공급하여주기 위하여, 농업을 공업화하며 농산물의 상품화률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의 공업발전속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속도를 될수 있는대로 더 빨려야 한다.

혹시 더욱 《신중히》 하기 위하여서는 주로 농민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공업을 우리 나라 공업의 토대로 만들기 위하여 중공업의 발전을 늦추어야 되지 않을가? 그래서는 절대 안된다! 그렇게 하는것은 자살하는것으로 경공업까지도 포함한 우리 나라의 공업전체를 파괴하는것으로 될것이다. 그렇게 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공업화의 구호를 떠나는것을 의미하며 우리 나라를 세계자본주의경제체계의 부속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레닌이 국제공산당 제4차대회16 에서 지적한 우리 당 전체가 무조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유명한 지도적명제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레닌은 국제공산당 제4차대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씨야를 구원함에 있어서 단지 농업에서의 풍작만으로써는 부족하며 또한 농민에게 필수품을 공급하는 경공업의 형편이 좋은것만으로써도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중공업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심지어 학교에서까지도 절약하고있다. 마땅히 이렇게 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우리는 중공업을 구원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부흥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공업도 건설할수 없으며 또 공업이 없이는 우리는 대체로 망해버리게 될것이며 독립국가로 될수 없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49페지)①

레닌의 이 지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상술한 대책들은 로농동맹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일으킬수 있는가? 나는 이런 대책들은 로농동맹의 공고화를 촉진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사실에 있어서 만일 집단농장과 국영농장들이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면, 만일 중소농호에 대한 직접적원조로 하여 그들의 단위당 수확고가 높아지고 그리고 협동조합이 갈수록 더욱 광범한 농민대중을 쟁취하게 된다면, 만일 국가가 또 많은 기동에 필요되는 몇억뿌드의 상품곡물을 얻게 된다면, 만일 이러한 대책들로 하여 부농들이 제어되고 점차 극복된다면—로농동맹내부에 있는 로동자와 농민사이의 모순들이 날로 없어지게 될것이며 곡물수매면에서 비상대책을 취할 필요도 없어지게 될것이며 광범한 농민대중이 날로 집단적경영형태의 편으로 돌아서게 될것이며 또 농촌에서의 자본주의분자들을 타승하는 투쟁도 날로 더욱 대중적이며 조직적인 성질을 띠게 될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이런 대책들을 취하면 오직 로농동맹에 유리할뿐이라는것이 명백하지 않단말인가?

무산계급독재의 조건하에서의 로농동맹이란 결코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는것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동맹은 로동·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66페지를 보라, 一편집자

계급과 근로농민대중과의 계급적동맹의 특수한 형태로서 그 목적은 (ㄱ) 로동계급의 진지를 강화하며 (ㄴ) 이 동맹내부에서의 로동계급의 지도적역할을 담보하며 (ㄷ) 계급과 계급사회를 폐절하는데 있다. 로농동맹에 대한 다른 모든 견해는 기회주의, 멘쉐위크주의, 사회혁명당주의 그밖의것으로는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지만 다만 맑스주의나 레닌주의로는 부를수 없다.

로농동맹에 관한 사상을 농민은 《최후의 자본주의적계급》①이라고 한 레닌의 저명한 명제와 어떻게 서로 결부시킬것인가? 여기에 모순이 없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여기에 모순이 있다. 실제에 있어서 여기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 레닌은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17의 보고에서 농민을 《최후의 자본주의적계급》이라고 인정하였을뿐만아니라 바로 같은 보고에서 로농동맹의 필요성을 재삼 론증하면서 《독재의 최고원칙이란 무산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수호함으로써 무산계급이 령도적 역할과 국가의 권력을 유지해나갈수 있게 하는것이다.》②라고 말하였다. 어쨌든 레닌이 여기에서 아무런 모순도 인정하지 않은것은 매우 명백하다.

농민은 《최후의 자본주의적계급》이라고 한 레닌의 이 명제를 어떻게 리해할것인가? 이것은 농민이 자본가들로써 이루어졌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첫째로, 이것은 개인농은 생산도구 및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기초우에다 그 경제를 건설하며 그렇기때문에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의 기초우에 경제를 건설하는 무산계급과는 다른 계급이라는것을 의미한다.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471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477페지를 보라, —편집자

둘째로, 이것은 개인농은 자체속에서 자본가와 부농, 그리고 기타 각종 착취자들을 낳으며 양육하여내는 그런 계급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은 로농동맹을 건립하는 사업에서 극복할수 없는 장애물로 되는것이 아닌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무산계급독재의 조건하에서의 무산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전체 농민과의 동맹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무산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은 로동계급과 근로농민대중과의 동맹이다. 이러한 동맹은 농민가운데의 자본주의분자들과 투쟁함이 없이는, 부농들과 투쟁함이 없이는 실현될수 없다. 농촌에서의 로동계급의 기둥으로서 빈농을 조직함이 없이는 이런 동맹은 튼튼해질수 없다. 그러므로 당전 무산계급독재의 조건하에서의 로농동맹은 빈농에 의거하고 중농과 튼튼한 동맹을 맺어 부농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말라고 한 레닌의 그 유명한 구호①밑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왜냐 하면 다만 이 구호를 실시함으로써만 기본적인 농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의 궤도에로 끌어들일수 있기때문이다.

여기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레닌의 이 두가지 공식간의 모순은 다만 가상적이며 표면적인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그 둘사이에는 아무러한 모순도 없는것이다.

1928년 6월 2일부 《쁘라우다》 제127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1권, 71~83페지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621페지를 보라, —편집자

자기비판의 구호의 저속화를 반대하여

자기비판의 구호는 그 어떤 순간적이며 일시적인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자기비판은 당간부들과 로동계급일반을 혁명적발전의 정신으로써 교양하는 특수한 방법, 즉 볼쉐위크적방법이다. 일찌기 맑스는 자기비판을 무산계급혁명을 강화하는 방법①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당내에서의 자기비판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나라에 볼쉐위크주의가 나타난 초기, 즉 볼쉐위크주의가 로동운동내의 특별한 혁명적조류로서 형성된 바로 그 초기에 시작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볼쉐위크주의가 아직 독립적인 정당으로 되지 못하고 멘쉐위크들과 함께 동일한 사회민주당내에서 사업하던 1904년 봄에 레닌은 벌써 그때에 《자기비판을 하여 자신의 결함을 무자비하게 폭로할것》을 당에 호소하였다. 당시 레닌은 그의 소책자 《1보전진 2보후퇴》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들[즉 맑스주의자의 적.—이.쓰딸린]은 우리의 론쟁을 보고 심술궂게 좋아하면서 흐물거린다. 물론 그들은 우리 당의 결함과 단점을 취급한 나의 소책자에서 개별적개소를 뽑아내여 자기들의 목적에 리용하려고 노력할것이다. 그러나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교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772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접음에 당황해하지 않을수 있게끔 그리고 그러한것을 무시하면서 자기비판사업과 자체의 결함을 무자비하게 폭로하는① 사업을 계속 전개할수 있게끔 이미 충분히 전투에서 단련되여있다. 이 결함들은 로동운동의 장성에 의하여 반드시 또 불가피적으로 극복되고야말것이다. 그런데 적진영의 제씨들이 그들의 〈당〉내의 진정한 사태에 관한 정경을—비록 우리의 제2차당대회 회의록이 제공하고있는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정도가 못된다 하더라도—한번 우리에게 소개할수 있다면 하여보라!》(《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6권, 161페지)②

그렇기때문에 자기비판이란 순간적인 현상이며 또한 그것은 온갖 류행이 낡아빠지게 되는것과 같이 조만간에 낡아빠지게 되고야말 한개 류행이라고 생각하는 동지들은 전혀 옳지 않다. 사실에 있어서 자기비판은 볼쉐위크주의의 무기고내에 없어서는 안되며 또한 일상 사용되는 무기로서 볼쉐위크주의의 본질 및 그의 혁명적정신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있는 것이다.

자기비판은 아직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따라서《아무것도 상실할것이 없는》그러한 당에 대해서는 좋은것이지만 이미 정권을 장악하였고 적대적세력에게 포위되여있으며 또한 약점을 폭로하면 적에게 리용될수 있는 그러한 당에 대해서는 위험하며 유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 이와 반대로 볼쉐위크주의가 정권을 장악하였다는 바로 그때문에 또 볼쉐위크들이 우리가 달성한 건설의 성과로 자만할수 있다는 바로 그때문에 또 볼쉐위크들이 자기의 약점을 깨닫지 못할수 있으며 따라서 자기의 적들의 활동을 용이케 할수 있다는 바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7권, 192페지를 보라. —편집자

로 그때문에 특히 오늘날, 특히 정권을 장악한후에 자기비판이 더욱 필요한것이다.

자기비판은 우리들의 과오와 우리들의 약점을 폭로하며 퇴치하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있다. 그러므로 무산계급독재의 조건하에서의 자기비판은 오직 볼쉐위크주의가 로동계급의 적들과 투쟁하는 사업을 용이하게 할따름이라는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레닌이 1920년 4~5월에 자기의 소책자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을 썼을 때에 그는 볼쉐위크들이 정권을 장악한후에 있어서의 정세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였던것이다.

《자기의 오유에 대한 당의 태도여하는 그 당의 진실성여하와 당이 자기의 계급과 근로대중에 대하여 그가 지닌 의무를 진정으로 리행하는가 안하는가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척도의 하나이다. 오유를 공공연히 시인하며① 그 오유의 원인들을 밝혀내며 오유를 낳게 한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오유를 시정할 방법을 상세히 토의하는것—이것이야말로 진실성있는 당의 표징이며 이것이야말로 당이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는것으로 되는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계급을 나아가서는 대중을 교양하며 훈련하는것으로 되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200페지)②

1922년 3월 제11차당대회[18]에서 레닌이 다음과 같이 말한것은 더더욱 옳았다.

《무산계급은, 그가 혁명에서 어떠한것은 훌륭하게 수행했고 또 어떠한것은 수행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인정하는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멸망한 모든 혁명적정당들은 자고자대하였고 그들의 힘이 무엇에 있는가를 몰랐으며 또 자기들의 약점에 대하여 말하기를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13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두려워①하였기때문에 멸망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것인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약점에 대하여 말하는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약점을 극복하는것을 배워낼것이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260～261페지)②

결론은 하나이다. 一즉 자기비판이 없으면 당, 계급, 대중에 대한 옳바른 교양도 없으며 또 당, 계급, 대중에 대한 옳바른 교양이 없으면 볼쉐위크주의도 없다.

무엇때문에 자기비판의 구호가 바로 오늘날에, 바로 현 력사적시기에, 바로 1928년에 특히 현실적의의를 가지게 되였는가?

그것은 1,2년전에 비하여 오늘날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계급관계의 첨예화가 일층더 명백히 나타났기때문이다.

그것은 1,2년전에 비하여 오늘날 우리 나라의 로동계급을 반대하여 우리들의 약점과 우리들의 오유들을 리용하는 쏘베트정권의 계급적원쑤들의 파괴활동이 존재한다는것이 일층더 명백하게 폭로되였기때문이다.

그것은 샤흐띄사건2 및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의 《수매사업방해수완》에서 얻은 교훈과 아울러 우리들의 계획상에서의 오유들을 우리는 잊을수 없으며 또 잊어서는 안되기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혁명을 강화하며 또 완전히 무장하여가지고 적을 대하려 한다면 샤흐띄사건과 곡물수매사업에서의 곤난에서 폭로된 우리의 과오와 약점들을 될수 있는대로 속히 극복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여러가지 《불의의 사건》과 《우연한 일》에 돌연히 봉착하여 당황함으로써 로동계급의 적들을 기쁘게 하기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275페지를 보라.—편집자

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폭로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의심할바없이 존재하는 우리들의 약점과 과오들을 될수 있는대로 빨리 폭로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주저한다는것은 우리의 적을 도와주는것이며 우리의 약점과 과오를 가심화시키는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자기비판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자기비판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또한 로동계급 및 농민의 수백만 대중을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과오들을 적발하며 퇴치하는 사업에 인입하지 않고서는 실행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4월련석전원회의1가 샤흐띄사건에 대한 결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것은 전적으로 옳았다.

《상술한 모든 대책들의 성과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조건은 자기비판에 관한 제15차대회3의 구호를 절실히 관철하는것이다.》①②

그러나 자기비판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앞에 나서고있는 많은 장애들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애들이란 대중의 문화적락후성, 무산계급선봉대의 문화력량의 부족, 우리의 라태성, 우리《공산당원의 교오자만》등등이다. 그러나 제일 큰 장애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장 큰 장애들가운데의 하나로 되는것은 우리 기관들의 관료주의이다. 관료주의분자들이 우리의 당조직, 국가기관, 직업동맹단체, 협동조합기관 및 기타 여러가지 조직들에 있다는것이 문제이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우리의 약점과 과오에 의하여 살아가며 대중의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전원회의 결정서집》, 1956년 인민출판사판, 제3분책, 444페지를 보라.—편집자

비판과 대중의 검열을 불과 같이 두려워하며 또 우리가 자기비판을 전개하는것을 방해하며 우리가 우리의 약점 우리의 파오를 퇴치하는것을 방해하는 관료주의이다. 다만 사무지체와 형식주의만을 우리 조직들에 존재하는 관료주의라고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관료주의는 우리의 조직들에 대한 자산계급적영향의 표현인것이다. 레닌이 다음과 같이 말한것은 옳다.

《…관료주의와의 투쟁은 절대로 필요한 투쟁인 동시에 소자산계급적 자연발생성과의 투쟁과업과 마찬가지로 복잡하다는것을 리해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 국가제도에 있어서 관료주의는 우리 당 강령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하나의 종기와 같은것인데 그 리유는 그것이 이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 및 그 분산성과 결부되여있기때문이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220페지)②

우리가 만일 자기비판을 전개하여 우리 건설사업에서의 종처를 진심으로 완치하려고 한다면 우리 조직들의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더욱 꾸준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관료주의에 대한 중요한 해독제로서 아래로부터의 비판과 아래로부터의 통제에 수백만의 로동자, 농민 대중을 더욱 꾸준하게 궐기시키도록 해야 한다.

레닌이 다음과 같이 말한것은 옳다.

《만일 우리가 관료주의와 투쟁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 투쟁에 하부사람들을 인입하여야 한다.…》《로동자들과 농민들을 인입하는 방법이외에 관료주의를 제거할수 있는 또 어떤 딴 방법이 있겠는가?》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496, 495페지)③

그러나 수백만 대중을《인입하기》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179페지를 보라.—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제31권, 386페지—편집자

모든 대중적조직들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먼저 당내에 무산계급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조건이 없이는 자기비판이란 령이며 텅 빈것이며 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비판이면 **아무것이나** 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로동계급의 문화수준을 높이며 그들의 전투정신을 발양시키며 승리에 대한 그들의 신심을 굳게 하며 그들의 력량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자기비판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비판이 있는 이상 **로동규률**은 필요치 않으며 일을 내던지고 조금씩 잡담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말하고있다. 이것은 자기비판인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에 대한 조롱이다. 자기비판은 로동규률을 파괴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또 로동규률이 소자산계급적해이성을 제지할수 있는 **자각적**인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비판이 있는 이상 **지도**가 필요없으며 키에서 물러서서 모든것을《제멋대로 내버려두어도》무방하다고들 말한다. 이것은 자기비판인것이 아니라 치욕이다. 자기비판은 지도를 약화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또 그 지도가 지상의 그리고 위신이 적은 지도로부터 **생기있고** 진실로 **위신있는** 지도로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종류의《자기비판》도 있다. 즉 당성을 **파괴**하며 쏘베트정권의 **위신을 손상시키며** 우리의 건설사업을 **약화시키며** 경제간부들을 **부식시키며** 로동계급을 **무장해제시키며** 변질분자의 공담을 초래하는 그러한 자기비판도 있다. 뜨로쯔끼적반대파가 바로 이와 같은《자기비판》을 진행하라고 어제 우리에게 호소하였다. 당이 이와 같은《자기비판》과 아무러한 공통점도 없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당은 이

와 같은 《자기비판》을 반대하여 모든 힘과 모든 수단을 다하여 싸울것이라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우리와는 인연이 없는 파괴적인 반볼쉐위크적《자기비판》과 당성의 배양, 쏘베트정권의 공고화, 우리의 건설사업의 개선, 우리 경제간부들의 강화, 로동계급의 무장화를 자기의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볼쉐위크적인 《자기비판》과를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우리가 자기비판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지는 몇달밖에 안된다. 이 운동을 초보적으로 총결짓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이 운동은 훌륭한 성과들을 나타내기 시작하고있다는것은 이미 현재에도 말할수 있다.

자기비판의 물결은 로동계급의 더욱 광범한 계층을 휩쓸고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사업에 끌어들이면서 장성확대되기 시작하였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생산협의회 및 림시검열위원회가 활기를 띠고있다는 그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말할수 있다.

물론 생산협의회와 림시검열위원회의 근거있고 검열된 의견들을 책상서랍에 깔아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아직도 남아있는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가장 결정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시도는 자기비판에 대한 로동자들의 열성을 없애버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발전하는 자기비판의 파도에 의하여 이와 같은 관료주의적지도들이 일소되고말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기비판의 결과로 우리의 경제간부들이 정신을 가다듬기 시작하였으며 경각성을 한층더 높이고있으며 경제지도문제들을 한층더 신중히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우리의 당, 쏘베트, 직업동맹 및 기타 모든 조직들의 간부들이 한층더 민감하여졌으며 대중의 요구에 한층더 잘 호응하게 되였다는것

도 부인할수 없다.

물론 당내민주주의와 일반적으로 로동자민주주의가 로동계급의 대중적인 조직들에서 이미 완전히 실행되고있다고 생각할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업의 운동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전진하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기비판의 결과로 우리 출판물이 한층더 생생하게 활기를 띠게 되였으며 그리고 로동자농민통신원조직과 같은 우리의 신문일군들의 대렬이 벌써 극히 중요한 정치적력량으로 되기 시작하였다는것도 또한 부인할수 없다.

물론 우리 출판물이 여전히 때로는 표면에 흐르고있으며 아직도 개별적인 비판적의견으로부터 보다 심각한 비판으로 또 심각한 비판으로부터 비판한 결과를 종화하는데로 즉 비판한 결과로서 우리의 건설면에서 어떠한 성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천명하는데로 넘어가는것을 배우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금후 운동의 진행과정에서 추진되리라는것은 거의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우리의 운동의 이러한 우점들과 더불어 결점들을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내가 말하는것은 자기비판의 구호의 외곡으로서 이러한 외곡은 운동초기인 지금 벌써 발생하고있다. 만일 인제 곧 이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자기비판을 저속화하는 위험을 조성할것이다.

(1) 우선 지적해야 할것은 일련의 출판기관들에서 운동을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나타난 결점을 절실하게 비판하는것으로부터 개인생활에서의 극단적행동을 반대하여 광고식으로 웨치는것으로 옮겨놓으려는 경향을 볼수 있다는 점이다. 믿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될는지도 모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사실이다.

실례로서 이르꾸쯔크 현위원회 및 현집행위원회의 기관지

인 《로동의 권력》지(제128호)를 들어보자. 여러분은 거기에서 《성생활의 방자는 자산계급적이다.》, 《한잔 마시면 또 한잔 마시게 된다.》, 《집 한간 가지게 되면 송아지도 가지고싶어한다.》, 《2인용침대에서의 강도》, 《소리없는 사격》, 기타 등등과 같은광고식《구호들》로써 꽉 들어찬 전 지면을 발견하게 될것이다. 묻노니, 《취인소》지19에나 적당한 이런 《비판적》웨침과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의 개선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는 볼쉐위크적자기비판과의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수 있겠는가? 이러한 광고식기사의 필자가 공산당원일수 있다. 아마도 그는 쏘베트정권의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적의로써 불타고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바른길을 떠나 자기비판의 구호를 저속화하고있으며 **우리** 계급의것이 **아닌** 말을 하고있다는것은 추호도 의심할바없다.

(2) 다음으로 지적하여야 할것은 지어 대체로 정당하게 비판할 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그러한 출판물들마저도 때로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 빠지며 비판으로 **대평판**을 일으키는 **경기**로 되게 한다는 점이다. 례로서 《공청동맹쁘라우다》지6를 들수 있다. 자기비판을 전개하는 사업에서의 《공청동맹쁘라우다》지의 공적은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그러나 이 신문의 최근호들을 들고서 전련맹직업동맹 중앙평의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과 그들을 풍자한 일련의 용허할수 없는 만화들을 보라. 묻노니, 이러한 《비판》은 대체 누구에게 필요하며 또 그것은 자기비판의 구호의 훼손이외에 무엇을 줄수 있는가? 만일 속물들을 웃기려고 대평판을 일으키는 눅거리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의 리해관계를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비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물론 자기비판을 위하여서는 《경기병》20도 포함한 여러가지 무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연 이로부터 경기병이 반드시 **경솔한** 기병대로 되여야 한다

는 결론이 나오겠는가?

(3) 끝으로 자기비판을 우리의 경제일군들을 공격하며 로동계급의 눈앞에서 그들의 위신을 낮추는것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많은 조직들에서 볼수 있는 뚜렷한 경향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크라이나와 중앙로씨야의 일부 지방단체들이 파오를 백퍼센트로 방지하지 못한 죄밖에 없는 우리의 우수한 경제일군들을 로골적으로 공격하였던것은 사실이다. 이 경제일군들을 철직시킬데 관한 지방조직들의 결정, 아무러한 약속력도 없으나 확실히 그들의 위신을 낮추려고 한 이 결정을 이와 달리 어떻게 리해할것인가? 비판은 비판대로 하면서 경제일군들에게 비판에 대한 답변을 용허하지 않는 행동을 이와 달리 어떻게 리해할것인가? 우리 나라에서는 도대체 언제부터 《쉐마크의 재판》[21]을 자기비판이라고 칭하게 되였는가?

물론 우리는 비판이 백퍼센트로 정당할것을 바랄수는 없다. 만일 비판이 아래로부터 오는것이라면 우리는 그 비판이 다만 5%나 10%밖에 정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홀시하여서는 안된다. 이 모든것은 옳다. 그러나 이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경제일군들에게 파오를 백퍼센트로 범하지 말라고 요구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가? 과연 파오를 백퍼센트로 범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가? 경제간부들을 양성하는데 많은 년한이 필요하며 또 가장 신중하고 관심하는 태도로 경제일군들을 대하여야 한다는것이 과연 리해하기 곤난한 일인가? 자기비판이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경제간부들을 공격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을 개선하며 강화하기 위하여서라는것이 과연 리해하기 어려운가?

우리 건설의 결함들을 비판하라. 그러나 자기비판의 구호를 저속화하지 말며 그것을 《2인용침대에서의 강도》라든가 《소리없는 사격》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주제에 대한 광고선전의

도구로 되지 말도록 하라.

우리 건설의 결함들을 비판하라. 그러나 자기비판의 구호를 짓밟지 말며 그것을 헐하고 듣기에도 몸서리치는 소문을 조작해내는 주방으로 되지 말도록 하라.

우리 건설의 결함들을 비판하라. 그러나 자기비판의 구호를 외곡하지 말며 그것을 우리의 경제일군 및 기타 모든 일군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주요한것은 아래로부터의 대중적비판을 우로부터의 《비판의》 웨침으로 바꾸어놓지 말며 로동계급대중이 이 운동에 뛰여들어 우리의 결함들을 시정하며 우리의 건설을 개선하는 사업에서 그들의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1928년 6월 26일부 《쁘라우다》 제146호에 게재

서명: 이. 쓰딸린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1권, 111~121페지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내의 우경적위험성에 대하여

(1928년 10월 19일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모스크바위원회 및 모스크바검열위원회 련석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동지들, 나는 우리의 관심사로 되고있는 우경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소한 일, 개인적문제 등등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내에 우경기회주의적위험성이 있는가, 이러한 위험성에 유리한 객관적조건들이 존재하고있는가, 이 위험성과 어떻게 투쟁하여야 할것인가—이것이 지금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익적경향에 대한 이 문제의 주위에 달라붙어 문제의 본질을 리해하는데 방해를 주고있는 모든 사소한 일들과 본질적이 아닌 요소들을 그 문제에서 제거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것이다.

자뽈스끼는 우경에 관한 문제는 우연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그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우경적편향에 있는것이 아니라 개인적다툼, 개인적알륵 등등에 있는것이라고 주장한다. 온갖 투쟁에서와 같이 여기에도 개인적다툼 및 개인적알륵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있다고 잠시

가정하자. 그러나 모든것을 개인적다툼으로 해석하고 그 개인적다툼의 뒤에 숨어있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것은 옳은 길, 맑스주의적길에서 벗어져나감을 의미하는것이다.

모스크바 당조직과 같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게 로련하고 한결같이 뭉쳐진 큰 조직이 몇몇 말썽군들이나 모략가들의 힘에 의하여 아래우가 다 뒤흔들린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아니다. 동지들, 세상에 그런 기적은 없다. 모스크바 당조직의 힘과 능력을 그렇게 가볍게 평가할것이 아니라는데 대해서 나는 더 말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개인적다툼과도 모략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층 깊은 원인들이 작용하였다는것은 명백하다.

프룬또브는 우경적위험성이 있다는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위험성은 엄숙한 실무가들이 참답게 취급할만한것은 아니라고 여기는데 이것도 역시 옳지 않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결국 우경적편향에 관한 문제는 말썽군들이나 취급할 일이지 실무가들어 취급할 일은 아니라는것이다. 나는 일상적인 실제사업에 몰두하여 우리의 발전전망에 관하여 생각할 여가가 없게까지 된 프룬또브를 충분히 리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 당일군들의 좁은 사무적인 실제주의를 우리 건설사업의 교조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건전한 실무주의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사업에서 전망을 잃어버리고 자체의 사업을 당의 기본로선에 종속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쁜 물건으로 되고만다. 그런데 우경적편향에 관한 문제는 우리 당의 기본로선에 관계되는 문제이며 우리 당이 제15차대회ɜ에서 규정한 발전전도가 옳은가 그른가 하는 문제라는것을 리해하기는 힘든 일이 아니다.

또한 우경적편향에 관한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우경적편향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집중하는 동지들도 옳지

않다. 우리에게 우경분자들이나 또 융화분자들을 지적하라, 그들의 이름을 대라,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징벌할것이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옳지 않다. 물론 개인도 일정한 역할을 논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당내에 우경적위험성을 산생시키는 조건들과 환경에 있는것이다. 사람을 철소해버릴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였다고 해서 우리 당내의 우경적위험성의 뿌리를 뽑아버렸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관한 문제는 의심할바없이 주의를 돌릴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의의는 못 가진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대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제니낀파들을 몰아내고 오데싸지방에서 제니낀군대의 잔여를 쳐없애던 1919년말과 1920년초에 오데싸에서 일어난 한가지 일을 상기하지 않을수 없다. 그때에 붉은군대의 일부 병사들은 만일 오데싸에서 련합국을 붙잡기만 하면 전쟁이 끝나리라고 확신하고 노기등등하여 오데싸에서 그 련합국을 찾았다.(만장의 웃음소리) 붉은군대병사들이 오데싸에서 그 련합국의 어느 대표자를 붙잡을수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하였다 하여서 물론 련합국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하였을것이다. 왜냐 하면 오데싸가 그 당시 제니낀파들의 마지막지반이기는 하였지만 련합국의 근거는 그 오데싸에 있은것이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에 있었기때문이다.

우경적편향에 관한 문제에서 이 편향을 발생케 하는 조건들을 잊어버리고 우경적편향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집중시키는 일부의 우리 동지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선 레닌의 로선에서 벗어나는 우경적편향과 또는 《좌》경적(뜨로쯔끼적)편향이 발생하는

조건들에 관한 문제를 밝혀놓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의 제 조건하에서의 공산주의운동내부의 우경적편향은 일부 공산당원들의 추향, 경향—형성되지도 않았고 또 아직 의식되지도 않았지만 여하튼 맑스주의의 혁명적로선으로부터 물러나서 사회민주주의의 편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의미한다. 부분적공산당원들이 선거투쟁에서 《계급 대 계급》이라는 구호의 타당성을 부인한다든가(프랑스) 혹은 공산당이 독자적으로 후보자를 제기하는데 반대한다든가(영국) 혹은 《좌익》사회민주당과의 투쟁에 관한 문제를 강조하려 하지 않는다든가(독일) 하는 등등의 일이 있다면 이것은 공산당내부에 공산주의를 사회민주주의에 순응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의 공산당내에서 우경적편향이 승리한다는것은 공산당의 사상적파멸과 사회민주주의의 거대한 강화를 의미할것이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의 거대한 강화란 무엇인가? 이것은 자본주의의 강화와 공고화이다. 왜냐 하면 사회민주당은 로동계급내에서의 자본주의의 주요한 지주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나라들의 공산당내에서 우경적편향이 승리한다는것은 자본주의의 보존에 필요한 조건들을 증대시킬것이다.

자본주의는 이미 전복되였으나 아직 그 뿌리가 근절되지 않고있는 쏘베트적발전조건하에서의 공산주의운동가운데의 우경적편향은 일부 공산당원들의 추향, 경향—즉 형성되지도 않았고 또 아직 의식되지도 않았지만 여하튼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부터 물러나서 자산계급사상체계에로 넘어가는 경향—을 의미한다. 우리의 부분적공산당원들이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에 대한 진공의 필요성을 거부하면서 당을 제15차대회의 결의

로부터 후퇴시키려고 시도한다든가, 우리 나라 공업발전의 급속한 속도는 나라를 멸망시킬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공업의 축소를 요구한다든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에 대한 재정지출을 랑비라고 인정하면서 그런 지출의 타당성을 거부한다든가, 자기비판은 우리의 기관을 동요시킨다고 간주하면서 자기비판의 토대우에서의 관료주의와의 투쟁의 타당성을 거부한다든가, 대외무역에 대한 독점의 완화를 요구한다든가 기타 등등의 일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당 대렬내에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사업을 《쏘베트적》자산계급의 구미와 요구에 순응시키려고—그들 자신은 이렇게 되는줄을 모를지도 모르나—시도하는자들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내에서 우경적편향이 승리한다는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적요소들의 거대한 강화를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적요소의 강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무산계급독재의 약화와 자본주의의 복구를 위한 기회의 증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당내에서 우경적편향이 승리한다는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의 부활에 필요한 조건의 증대를 의미한다.

우리 쏘베트나라에 자본주의의 부활(복구)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있는가? 그렇다, 그런 조건들이 있다. 이것은 혹 이상하게 보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지들,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전복하였고 무산계급독재를 수립하였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적공업을 농민경제와 결부시키면서 사회주의공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자본주의의 뿌리를 채 뽑아버리지 못하고있다. 그 뿌리는 대체 어디에 박혀있는가? 그것들은 상품생산에, 도시 소생산 특히 농촌의 소생산에 박혀있다.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힘은《소생산의 힘에도 의존하고있는것이다. 왜냐 하면 소생산은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세계적으로 극히 많이 남아있을뿐더러 그 소생산은 끊임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자연발생적으로 또 대량적으로 자본주의와 자산계급을 낳고있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73페지)①

우리 나라에서 소생산이 매우 보편적으로 지어는 우세를 차지하고있는만큼 또 그 소생산이 특히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 끊임없이 또 대량적으로 자본주의와 자산계급을 산생시키고있는것만큼 우리 나라에는 자본주의가 부활할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우리 쏘베트나라에는 자본주의의 부활의 가능성을 일소하고 근절하기에 필요한 수단과 힘이 있는가? 그렇다, 있다. 쏘련에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레닌의 명제의 정당성의 근거는 바로 이 점에 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무산계급독재를 공고히 하며 로농동맹을 강화하며 국가공업화의 각도에서 우리의 관건적인 경제부문을 발전시키며 공업을 고속도로 발전시키며 나라의 전기화를 실현하며 전반 인민경제를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 옮겨세우며 농민을 대중적으로 협동조합에 인입시키며 농민경영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며 개인영농을 공동적인 집단경영에로 점차 련합시키며 국영농장을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을 제한하고 타승할것 등등이 필요하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소농민의 국가에서 살고있는 한 로씨야에는 공산주의를 위해서보다도 자본주의를 위하여 더 튼튼한 경제적토대가 존재한다. 이것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81페지를 보라.—편집자

을 명심하여야 한다. 농촌생활을 도시생활과 비교하여 주의깊게 관찰한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못했으며 국내의 적들의 토대를 허물어내지 못했다는것을 알것이다. 국내의 적들은 소경영에 의지하고있다. 이것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한가지 수단이 있을뿐이다. 즉 농업도 포함하여 나라의 경제를 새 기술적토대우에, 현대적대규모생산의 기술적토대우에 옮겨놓는것이다. 그러한 토대로 되는것은 다만 전기화뿐이다. 공산주의—이것은 쏘베트정권 플류스 전국의 전기화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는 여전히 소농민국가로 머물러있을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는 비단 세계적 규모에서뿐만아니라 또한 국내에서도 자본주의보다 약하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토대를 소농민적인것으로부터 대공업적인것으로 옮겨놓고야말것이다. 오직 나라가 전기화될 때 공업, 농업 및 운수업에 현대적대공업의 기술적토대가 놓여질 때, 오직 그때에라야 우리는 종국적으로 승리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46～47페지)①

결론은 첫째로, 우리가 소농민국가에 살고있는 한, 우리가 아직 자본주의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못하고있는 한 공산주의를 위해서보다도 자본주의를 위하여 더 튼튼한 경제적토대가 존재한다는것이다. 나무는 찍어버렸으나 힘이 모자라서 뿌리는 뽑아버리지 못하는 일이 가끔 있다. 이로부터 곧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생겨나오는것이다.

결론은 둘째로, 우리 나라에는 자본주의가 부활할 가능성 이외에 또한 **사회주의가 승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것이다. 왜냐 하면 **만일** 우리가 나라의 전기화를 위하여 힘을 쓴다면 **만일** 공업, 농업, 운수업을 현대적대공업의 기술적토대우에 세운다면 우리는 자본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을 없애버릴**수 있으며** 자본주의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399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를 종국적으로 타승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로부터 곧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할 가능성이 생겨나오는것이다.

결론은 마지막으로, 농촌이 도시의 뒤를《저절로 따라오리라》고 인정하면서 농업을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도록 내버려두고 공업에서만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다는것이다. 도시에 사회주의공업이 존재한다는것은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의 기본적요인으로 되는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인이 아주 충분한것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적도시가 농민들의 마을을 자기뒤에 끝까지 이끌어나아가려면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반드시《농업도 포함하여① 나라의 경제를 새 기술적토대우에, 현대적대규모생산의 기술적토대우에 옮겨놓아야》한다.

레닌의 이 말은《신경제정책은…사회주의적경제의 토대를 구축할 가능성①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장하여주고있다.》②고 한 그의 다른 말과 모순되지 않는가? 아니다, 모순되지 않는다. 도리여 이 두마디 말은 서로 완전히 부합된다. 레닌은 결코 신경제정책이 기성적형태의 사회주의를 우리에게 준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레닌은 다만 신경제정책이 사회주의경제의 기초를 건설할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장하여준다는것을 말하였을뿐이다. 사회주의의 건설에 대한 가능성과 그 실제적건설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가능성을 현실성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실로 이 가능성을 현실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레닌은 나라를 전기화하며 공업, 농업, 운수업을 현대적대공업의 기술적토대우에 세우는것을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 제기한것이다.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220페지를 보라.—편집자

그러나 사회주의를 완전히 건설할 이 조건을 1～2년간에 실현할수는 없다. 1～2년간에 나라를 공업화하며 강유력한 공업을 건설하며 수백만 농민대중을 협동조합에 인입하며 농업을 새 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며 개인영농을 대규모적인 집단경영에로 련합하며 국영농장을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을 제한하며 타승할수는 없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산계급독재의 여러해동안의 완강한 건설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실행되지 않은 동안에는(그런데 이것은 대번에 해낼수는 없는것이다.) 우리는 소생산이 부단히 또 대량적으로 자본주의와 자산계급을 산생하고있으며 자본주의가 부활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소농민국가로 여전히 남아있게 될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무산계급은 진공속에서 살고있는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가장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생활속에서 살고있기때문에 소생산의 토대우에서 생겨나는 자산계급분자들은《사방으로부터 무산계급을 소자산계급의 자연발생적요소로 둘러싸고 그것을 무산계급속에 침투시키며 그것으로 무산계급을 부식하며 부단히 무산계급의 내부에 소자산계급의 나약성, 분산성, 개인주의 및 열광으로부터 실망에로 넘어가는 등의 낡은 악습을 재발시킨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89페지)①. 그리하여 무산계급과 그 정당내에 어느 정도의 동요, 어느 정도의 불안정을 가져오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 대렬내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동요와 레닌의 로선으로부터 리탈하는 편향들의 뿌리와 기초가 있는것이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우리 당내의 우경적 또는《좌》경적 편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00페지를 보라.—편집자

향에 관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인정할수 없는것이다.

우리 당내의 우경적위험 즉 공공연한 기회주의적편향의 위험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 편향이 우리 적들의 힘, 자본주의의 힘을 과소평가하며 자본주의가 부활할수 있는 위험성을 보지 못하며 무산계급독재의 조건하에서의 계급투쟁의 내막을 리해하지 못하므로 우리 나라의 공업발전속도를 늦출것을 요구하며 농촌과 도시의 자본주의분자들을 관대하게 대할것을 요구하며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에 대한 문제를 뒤로 미루기를 요구하며 대외무역에 대한 독점을 완화할것 등등을 요구하면서 매우 쉽게 자본주의에 양보한다는데 있다.

우리 당내에서 우경적편향이 승리한다면 자본주의세력을 자유롭게 할것이며 무산계급의 혁명진지를 허물어뜨릴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부활될 기회를 증대시킬것은 의심할바없다.

우리 당내에서의 《좌》경적(뜨로쯔끼적)편향의 위험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 편향이 우리 적들의 힘, 자본주의의 힘을 과대평가하며 자본주의가 부활할수 있는 가능성만 보고 우리 나라가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부득이 우리 당내에 메르미도르주의[22]가 있다는 잡담으로써 자신을 위로하고있다는데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소농민국가에서 살고있는 한 로씨야에는 공산주의를 위해서보다도 자본주의를 위하여 더 튼튼한 경제적토대가 존재한다.》① 레닌의 이 말로부터 《좌》경적편향은 다음과 같은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399페지를 보라.—편집자

옳지 않은 결론을 내린다. 즉 쏘련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으며 농민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대할수 없으며 로농동맹의 사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며 또 만일 서방에서 승리한 혁명의 원조가 제때에 오지 못한다면 쏘련의 무산계급독재는 꼭 멸망하든가 혹은 변질될것이며 농민과의 분렬을 대가로 회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초공업화라는 환상적계획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사업은 멸망된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로부터 《좌》경적편향의 정책상의 모험주의가 생긴다. 이로부터 정책상에서의 《초인간적》도약이 생긴다.

우리 당내에서 《좌》경적편향이 승리한다면 로동계급을 농민이라는 자기의 지반으로부터 분리시키며 로동계급의 선봉대를 그 나머지의 로동자대중과 분리시키며 따라서 무산계급을 패배케 하고 자본주의의 부활을 위한 조건들을 쉽게 형성시킬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보는바와 같이 이 두가지 위험성(《좌》경적이건 우경적이건), 레닌의 로선으로부터 리탈하는 이 두 편향(우경적이건 《좌》경적이건)은 비록 서로 같지 않은 량쪽으로부터 출발하였지만 그 결과는 같은것이다.

이 두 위험성중에서 어느것이 더 나쁜가? 나는 두가지가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 편향들과 성과있게 투쟁한다는 견지로부터 보아 그들 사이의 차이점은 《좌》경적위험성이 지금에는 우경적편향의 위험성보다 당에 대해 말하면 더 똑똑하다는데 있다. 우리가 《좌》경적편향과 치렬한 투쟁을 벌써 몇해동안 진행하였다는 이 사정은 물론 당에 대해서 헛되이 지나간것은 아니였다. 당이 《좌》경적 즉 뜨로쯔끼주의적편향과 투쟁하는 몇해동안에 많은것을 배웠으며 따라서 이제는 당을 《좌경적》언사로 기만

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되였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천에도 존재하였으며 또 지금에 와서는 작년도의 곡물수매상의 위기와 관련하여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이 강화된 결과로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있는 우경적위험성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위험성은 우리 당의 일부 당원들층의 눈에는 그리 똑똑하지는 못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파업은 《좌》경적위험성, 즉 뜨로쯔끼주의적위험성과의 투쟁을 추호도 약화함이 없이 우경적편향의 위험성을 뜨로쯔끼주의적위험성이 당에 대하여 명백한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되도록 모든 대책을 취하는데 있다.

우경적편향에 관한 문제가 만일 우리의 발전상의 곤난에 관한 문제들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아마 지금처럼 그렇게 첨예하게 나서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경의 존재가 우리의 발전상의 곤난들을 복잡하게 하며 이 곤난들을 극복하는 사업을 저애한다는 바로 거기에 있다. 바로 우경적위험성이 곤난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저애하기때문에 우경적위험성을 극복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우리의 곤난들의 성격에 대하여 몇마디 언급하려 한다. 우리의 곤난들을 침체나 혹은 쇠퇴의 곤난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것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경제의 쇠퇴 혹은 경제의 침체로 인한 곤난들이 있다. 이러한 곤난이 생길 때에 사람들은 그 침체현상의 해로운 점을 좀 경감시키거나 또는 그 경제적 쇠퇴의 정도를 좀 경감시키려고 애쓴다. 우리의 곤난은 그러한 곤난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우리의 곤난의 특징은 그 곤난이 앙양하는 가운데서의 곤난이며 발전하는 가운데서의 곤난이라는데 있다. 우리가 곤난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대개 공업을 몇퍼센트 제고시키며 파종면적을 몇퍼센트 확장할것이

며 단위당 수확고는 몇뿌드 높일것인가 하는 등등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의 곤난은 쇠퇴나 혹은 침체의 곤난이 아니라 앙양하는 가운데서의 곤난이기때문에 그 곤난은 당에 대하여 하등의 특별한 위험으로 될수 없다.

그러나 곤난은 여하튼 곤난이다. 그리고 곤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며 강의성과 인내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강의성과 인내성을 누구나 다 충분히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므로—그것은 아마 피곤과 과로의탓이거나 혹은 투쟁과 파란곡절이 없이 되도록 평온하게 사는것을 낫게 생각하는탓이겠지만— 여기에 바로 동요와 방황, 저애력이 가장 작은 로선에로 전환하는 일, 공업발전의 속도를 낮추라느니 자본주의분자들을 관대하게 대하라느니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부정하며 또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것을 거부하라느니 하는 말들이 시작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앞에 놓여있는 곤난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전진할수 없다. 그런데 곤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경적위험성을 쳐없애야 하며 우선 곤난과 투쟁하는 사업을 저애하며 또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우경적편향을 극복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물론 말로나 글로 하는 우경적 편향과의 투쟁이 아니라 실제적투쟁인것이다. 우리 당내에는 량심의 가책을 면하기 위하여, 승려들이 때때로《할렐루야 할렐루야》①를 외우듯이 우경적위험성과의 투쟁을 선포하는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그 투쟁을 튼튼한 기초우에서 수행하며 또 바로 그 편향을 실제로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아무런 그야말로 아무런 실제적대책도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① 유태교와 기독교에서 쓰는 환호성으로서《하느님을 찬미한다》는 뜻이다.—편집자

조류를 우리는 우경적인 공공연한 기회주의적편향에 대한 **융화주의적**조류라고 부른다. 이러한 융화주의와의 투쟁이 우경적 편향 및 우경적위험성에 대한 전반적투쟁의 구성부분이라는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왜냐 하면 기회주의자들을 비호하는 그 융화주의와 계통적으로 투쟁하지 않고서는 우경적기회주의적편향을 극복할수 없기때문이다.

우경분자에 관한 문제는 비록 그것이 결정적의의는 없다 하더라도 확실히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작년의 곡물수매위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 당의 기층조직들에 있는 우경적위험분자들과 충돌한 일이 있었다. 당시 여러 향과 촌의 많은 공산당원들이 당의 정책을 반대하여 부농분자들과 결합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었다. 여러분이 알다싶이 이런 분자들은 금년봄에 당에서 깨끗이 숙청되였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다 알고있는 금년 2월의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문헌에 특히 제기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자들이 우리 당내에 더는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것이다. 만일 우로 현 및 성의 당조직을 살펴보며 동시에 쏘베트기관과 협동조합기관을 잘 관찰하여본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우경적위험분자와 우경적위험성에 대하여 융화주의적태도를 취하고있는자들을 쉽게 찾아낼수 있을것이다. 우리 당 기관과 쏘베트기관의 적지 않은 일군들이 쓴 우경적편향에로의 경향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있는 그러한 《서한》, 《성명서》와 기타 문헌들이 있다는것은 다 아는바이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이 서한들과 문헌들에 대하여서는 중앙위원회 7월전원회의[23]의 속기록에 기재되여있다.

만일 좀더 올라가서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문제로 한다면 중앙위원회의 성원들가운데도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경적위험성에 대하여 융화주의적태도를 취하는 요인들이 있다는것

을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중앙위원회 7월전원회의의 속기록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된다.

그러면 정치국내부는 어떠한가? 정치국내부에는 어떠한 편향들이 있는가? 우리 정치국내부에는 우경분자도 《좌경분자》도 그들에 대한 융화주의자들도 없다. 이것은 여기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해야 하겠다. 당에 대하여 악의를 품은 분자들과 각종 반대파분자들이 우리 중앙위원회 정치국내에 우경적편향이나 혹은 그에 대한 융화주의적태도가 있다고 전파하고있는 요언들을 없애야 할 때가 왔다.

모스크바 당조직 또는 그의 상층기관인 모스크바위원회에 동요와 방황이 있었는가? 그렇다, 있었다, 지금에 와서 거기에는 방황도 동요도 없었다고 억설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일것이다. 페니꼬브의 솔직한 연설은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페니꼬브는 모스크바 당조직과 모스크바위원회내에서 말석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은 그가 우리 당 정책의 여러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서 범한 자기의 오유들을 솔직하게 또 공공연하게 승인하는것을 들었다. 이것은 물론 모스크바위원회전체가 다 동요에 빠졌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아니, 그런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금년 10월에 모스크바 당조직의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모스크바위원회의 격문과 같은 그러한 문헌은 모스크바위원회가 이미 자체의 일부 위원들의 동요를 극복하였다는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말하여준다. 나는 모스크바위원회의 지도적핵심이 이런 사태를 철저히 바로잡으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어떤 동지들은 구역당조직들이 이 문제에 간섭하여 모스크바 당조직의 일부 지도자들의 오유와 동요를 퇴치할데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불만을 표시한다. 나는 이런 불만이 정당하다고 할수 있는 근거를 모르겠다. 모스크바 당조직

의 구역열성자들이 오유와 동요를 퇴치할것을 요구하여 웨친 것이 무엇이 나쁘단말인가? 우리의 사업은 아래로부터의 자기비판의 구호밑에서 진행되는것이 아닌가? 자기비판이 당의 하부 및 전반 무산계급하층의 대중의 적극성을 높이는것이 사실이 아닌가? 구역열성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였는데 거기에 무슨 나쁜것이나 위험한것이 있는가?

중앙위원회가 이 사건에 간섭한것은 옳게 한것인가? 나는 중앙위원회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베르진은 구역당조직이 반대한 구역지도자의 한사람을 바꾸는 문제를 중앙위원회에서 제기한것은 지나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있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나는 1919년인가 1920년에 있은 몇가지 사실에 대하여 베르진이 회상할것을 바란다. 그때에 당로선에 대하여 내가 보기에는 그리 중대하지 않은 약간의 오유를 범한 몇몇 중앙위원들이 레닌의 제의에 의하여 징계처벌을 받았고 그중 한 사람은 뚜르께스딴으로 보내였고 다른 한사람은 중앙위원회의 자격을 하마트면 취소당할번하였다.[24]

레닌이 이와 같이 처리한것이 옳았는가? 나는 레닌이 아주 옳았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중앙위원회내의 형세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 그때에 중앙위원회의 절반은 또로쯔끼를 따랐고 중앙위원회자체내의 형세가 안정되지 않았었다. 오늘 중앙위원회는 비할수없이 관대하게 행동하고있다. 왜? 우리가 레닌보다 더 인자해서인가? 아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중앙위원회의 형세가 이미 그때보다 안정되여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위원회는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할수 있게 되였다는데 있다.

중앙위원회가 너무 늦게 간섭하였다고 단언하는 싸하로브도 옳지 않다. 왜냐 하면 중앙위원회의 간섭이 사실은 금년 2월부터 시작되였다는것을 그가 모르고있기때문이다. 싸하로

브가 원한다면 그는 이에 대한 확증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중앙위원회의 간섭이 대번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던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때문에 중앙위원회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다.

결론:

(1) 우경적위험성은 우리 당내의 엄중한 위험성이다. 그것은 그 위험성이 우리 나라의 사회적경제적환경에 뿌리박고있기때문이다.

(2) 우경적편향의 위험성은 여러가지 곤난들이 존재함으로써 가심해지는데 이 곤난들은 우경적편향 및 그에 대한 융화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극복할수 없다.

(3) 모스크바 당조직에는 동요와 방황이 있었고 또 불안정한 요소들도 있었다.

(4) 모스크바위원회의 핵심은 중앙위원회 및 구역열성자들의 도움으로 동요를 퇴치하기 위한 모든 대책들을 취하였다.

(5) 모스크바위원회가 이전에 나타났던 그 오유들을 극복하는데 성공하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6) 파업은 내부투쟁을 없애며 모스크바 당조직을 한덩어리로 결속시키며 자기비판을 전개하는 토대우에서 지부의 개선을 성과있게 실시하는데 있다.(박수)

1928년 10월 23일부 《쁘라우다》 제247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1권, 192~205페지

나라의 공업화 및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내의 우익적편향에 관하여

(1928년 11월 19일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전원회의25에서 한 연설)

동지들, 나는 정치국테제에서 제기된 세개의 기본문제를 가지고 말하려 한다.

우선 나라의 공업화에 관한 문제와 공업화사업에서의 지배적요인은 생산수단생산의 발전의 급속한 속도를 될수록 보장하면서 생산수단의 생산을 발전시키는것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하려 한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농업발전속도가 공업의 발전속도보다 비상히 뒤떨어져있다는 문제 또 그러므로 우리의 국내정책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긴박한 문제는 농업문제 특히 곡물문제이며 또 어떻게 농업을 새로운 기술에 기초하여 향상시키며 개조하는가 하는 문제 등을 가지고 말하려 한다.

그리고 끝으로 세번째로 말하려는 문제는 당로선으로부터의 편향에 관한, 두갈래 전선에서의 투쟁에 관한, 그리고 현시기에 있어서의 주요한 위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익적위험성과 우익적편향이라는것에 관한 문제이다.

1

공업발전의 속도문제

우리의 테제의 출발점은 일반적으로는 공업, 특수하게는 생산수단의 생산의 급속한 발전속도가 나라의 공업화의 기본적 토대와 열쇠로 되며 사회주의적발전에 기초하여 우리의 인민경제전반을 개조하는 기본적 토대와 열쇠로 된다는 명제이다.

그러면 공업화의 급속한 발전속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공업에 될수록 많은 투자를 하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내계획이나 예산외계획을 막론하고 우리의 모든 계획의 긴장을 초래하는것이다. 또 실제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즉 재건시기의 우리 나라의 통제수자들의 특징은 그것이 우리 나라의 긴장성의 특징밑에서 작성되며 또 실현되고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의 통제수자를 들어보든지, 우리의 예산초안을 검토하여보든지, 우리 당원동지들(당조직령역에서 일하는 동지들이거나 우리 쏘베트건설, 경제건설 및 협동조합건설을 지도하는 동지들이거나를 막론하고)과 담화를 하여보든지 어데서나 또 모든것에 있어서 한개의 특징, 즉 우리의 계획들이 긴장하다는것을 보아낼수 있다.

우리에게 대체 계획들의 이러한 긴장성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긴장성이 없이 지낼수는 없는가? 과연 보다 더 느린 속도로써, 보다 더 《평온한》 환경속에서 사업할수는 없는가? 우리가 공업을 고속도로 발전시킬데 관한 방침을 취한것은 정치국이나 인민위원회의 성원들의 성격의 조급성에 의하여 설명되는것은 아닌가?

물론 아니다! 정치국과 인민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신중하고 침착한 사람들이다. 내외의 환경을 제쳐놓고 추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물론 좀더 느린 속도로 사업할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로 내외의 환경을 제쳐놓아서는 안되며 둘째로는 만일 우리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출발한다면 바로 이 환경이 우리에게 공업발전의 급속한 속도를 강요하고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환경의 고찰, 우리에게 공업발전의 급속한 속도를 강요하는 국내국외조건들의 고찰에 넘어가기로 하자.

외부조건. 우리는 기술이 매우 락후한 나라에서 정권을 장악하였다. 우리는 다소나마 새로운 기술을 기초로 하고있는 소수의 대규모공업기업소들과 현대적기술성과로 보아 말할나위도 없는 수백수천의 공장을 가지고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우리 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한 현대적공업기술을 가지고있는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을 주위에 가지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을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서는 기술이 비단 전진하였을뿐만아니라 낡은 공업기술을 릉가하면서 줄기차게 앞으로 줄달음치고있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이로부터 일방으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쏘베트제도와 가장 선진적인 정권인 쏘베트정권을 가지고있고 타방으로는 사회주의와 쏘베트정권의 기초로 삼아야만 할 공업의 비상히 뒤떨어진 기술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볼수 있다. 여러분은 이런 모순이 존재하는 형편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여야 할것인가? 이를 위하여서는 발전한 자본주의나라들의 선진기술을 따라잡으며 따라앞서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제도 즉 쏘베트제도를 수립하였다는 의미에서는 선진적인 자본주의나라들을 따

라잡았고 또 따라앞섰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해서는 또한 반드시 기술적경제적면에서도 이 나라들을 따라잡으며 따라앞서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달성하든가 아니면 곤경에 빠지든가 둘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비단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견지로 보아서만 정당한것은 아니다.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적포위의 환경하에서 우리 나라의 독립을 고수하는 견지로 보아서도 정당한것이다. 국방을 위한 충분한 공업토대를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의 독립을 고수할수 없다. 공업에 있어서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공업토대를 만들수 없다.

공업발전의 급속한 발전속도가 무엇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며 또 무엇이 우리에게 이것을 강요하고있는가 하는것은 바로 이러하다.

우리 나라의 기술적 및 경제적 락후성은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이 락후성은 우리 나라의 전 력사에 의하여 우리가 물려받은 세기적락후성이다. 이 락후성은 이전의 혁명전시기에나 또 그후 혁명후시기에나 마찬가지로 불행으로서 느껴졌었다. 뾰뜨르대제가 서방의 비교적 발전한 나라들과 접촉하면서 군대에 대한 공급과 국방의 강화를 위하여 열광적으로 공장들을 건설하였는데 이것은 락후성의 울타리에서 탈출하려는 독특한 시도였다. 그러나 낡은 계급들중 그 어느 하나도 즉 봉건귀족도, 자산계급도, 우리 나라의 락후성을 청산하는 과업을 해결할수 없었다는것은 십분 뚜렷한 일이다. 그보다도 이 계급들은 비단 이 과업을 해결할수 없었을뿐만아니라 다소라도 만족할만한 형태로서 이 과업을 제기할수조차 없었다. 우리 나라의 세기적락후성은 오직 성과적인 사회주의건설의 기초우에서만 청산할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청산하는것

은 자기의 독재를 수립하였고 자기 수중에 나라의 령도권을 장악한 무산계급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락후성은 우리가 고안해낸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전 력사에 의하여 유산으로서 우리에게 물려준것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없으며 또 질 필요도 없다고 자신을 위로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않다. 일단 우리가 정권을 장악하고 사회주의기초우에서 나라를 개조하는 과업을 짊어진 이상 우리는 모든것에 대하여—나쁜것에 대해서나 좋은것에 대해서나—다같이 책임을 지며 또 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바로 그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기술적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우리가 선진자본주의나라들을 따라잡고 또 따라앞서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볼쉐위크들만이 할수 있다. 또 바로 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우리 나라 공업을 빠른 속도로 부단히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공업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있다는것은 오늘날 모두다 보고있는바이다.

기술적경제적면에서 선진적인 자본주의나라들을 따라잡으며 또 따라앞서는 문제는 우리 볼쉐위크들에게 대해 말하면 그 어떤 신기한것이거나 의외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찍 1917년에 즉 10월혁명전시기에 제기하였었다. 이 문제는 일찍 10월혁명전야인 1917년 9월에 즉 제국주의전쟁시기에 레닌이 자기의 소책자《닥쳐오는 파국, 그것과 어떻게 싸울것인가?》에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혁명은 로씨야로 하여금 몇달동안에 그 정치제도면에서 선진국가들을 따라잡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쟁은 사정없

는것이다. 멸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역시 선진국가들을 따라잡으며 또 앞서느냐—이렇게 전쟁은 가차없이 신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멸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속력으로 앞을 향하여 돌진하느냐—력사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1권, 191페지)①

우리의 기술적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할데 관한 문제를 레닌은 바로 이렇게 엄격히 제기하였다.

레닌이 이것을 쓴것은 10월혁명전야, 즉 무산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기전시기였다. 그때는 볼쉐위크들에게 아직 정권도 없었고 사회주의화된 공업도 없었고 수백만 농민을 포괄한 광범히 발전된 협동조합망도 없었고 집단농장도 국영농장도 없었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기술적경제적락후성을 근본적으로 청산할수 있는 약간의 본질적인것이 있는 오늘날 우리는 레닌의 말을 다음과 같은 말로써 바꾸어놓을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무산계급독재를 수립하여 정치적면에서 선진자본주의나라들을 따라잡았고 또 따라앞섰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또한 자본주의나라들을 따라잡으며 또 따라앞서기 위해서 무산계급독재, 우리의 사회화된 공업, 운수업, 신용계통 등등, 협동조합, 집단농장, 국영농장 등등을 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우리가 이를테면, 독일에서와 같이 그렇게 발전된 공업과 발전된 기술을 가졌다면, 만일 전반 인민경제내의 공업의 비중이 우리 나라에서 독일에서와 같이 그렇게 높다면 공업의 급속한 발전속도에 관한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과 같이 그렇게 첨예하게 제기되지 않았을것이다. 그러한 조건밑에서라면 우리는 자본주의나라들에 뒤떨어질것을 두려워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168~169페지를 보라.—편집자

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가 그들을 대번에 따라앞설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좀더 느린 속도로 공업을 발전시킬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지금 존재하고있는것과 같은 그러한 엄중한 기술적 및 경제적 락후성이 우리에게 없을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 독일의 뒤에 떨어져있으며 또 우리가 기술적 및 경제적 면에서 그를 따라잡기 아직 멀었다는 바로 그 점에 있는것이다.

만일 우리 나라가 무산계급독재의 유일한 나라가 아니고 무산계급독재의 나라들중의 한 나라라면, 만일 우리가 비단 우리 나라에서뿐만아니라 비교적 선진적인 다른 나라들, 이를테면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무산계급독재를 세웠더라면 공업의 급속한 발전속도에 관한 문제는 그다지 첨예하게 제기되지 않았을것이다.

이러한 조건밑에서라면 자본주의적포위가 우리에게 지금과 같이 그렇게 엄중한 위험성으로 될수 없을것이며 우리 나라의 경제적독립에 관한 문제는 자연히 차요한 지위로 물러날것이며 우리는 더 발전한 무산계급국가들의 체계에 들어갈수 있을것이며 우리는 이런 국가에 원료와 식료품을 공급하면서 우리의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계를 그들에게서 받을수 있을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공업을 비교적 느린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싶이 우리에게는 아직 이런 조건들이 없으며 또 우리는 아직도 기술적 및 경제적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에 의하여 포위된 무산계급독재의 유일한 나라로 있는것이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레닌은 경제적인 면에서 앞선 나라들을 따라잡으며 또 따라앞서는 문제를 우리의 발전의 사활적인 문제로서 제기한것이다.

우리 공업의 급속한 발전속도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외부조건**들은 바로 이러하다.

내부조건. 그러나 외부조건들외에도 또한 우리 나라의 전반 인민경제의 골간인 우리 공업의 급속한 발전속도를 강요하는 내부조건이 있다. 나는 우리의 농업, 농업기술, 농업경작법의 지나친 락후성을 두고 말한다. 나는 우리 나라에 분산되였고 아주 락후한 생산을 하고있는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소상품생산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념두에 두고 말한다. 이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사회주의대공업은 바다가운데의 섬처럼 보인다. 비록 이 섬의 기초가 매일과 같이 확대되여가고있기는 하지만 역시 바다가운데의 한개 섬인것이다.

공업은 농업을 포함한 전반 인민경제의 골간이며 공업은 락후하고 분산된 농업을 집단주의의 토대우에서 재건할수 있게 하는 열쇠라고 우리는 보통 말하고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순간이라도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것은 만일 공업이 수뇌라면 농업은 공업산품을 소화하는 시장으로서도 원료와 식량의 공급자로서도 인민경제의 수요를 위한 설비품을 수입하기에 필요한 수출예비의 원천으로서도 공업발전의 기초로 된다는 사실이다. 농업을 전혀 락후한 기술조건하에 머물러있게 하고서 공업을 위하여 농업기초를 보장하지 않고서 농업을 개조하지 않고서 또 그것을 공업수준에 따라가게 하지 않고서, 공업을 발전시킬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

이로부터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서 농업을 개조하는 사업을 촉진시키며 추진시키기에 필요한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농업에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과업이 나선다. 그러나 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 나라의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물론 분산적이고 령세적인 농업의 개조는

련합적이고 집중적인 사회주의적공업의 개조보다는 훨씬 더 곤난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과업은 우리앞에 제기되고있으며 우리는 반도시 이것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과업의 해결은 공업의 급속한 발전속도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한없이, 다시말하면, 너무나 장기간에 걸쳐서, 쏘베트정권과 사회주의건설을 두개의 상이한 기초우에, 즉 가장 대규모적이고 련합된 사회주의적공업의 기초와 가장 분산적이고 락후한 소상품적농민경영의 기초우에 머물러둘수는 없다. 농업을 점차적으로 그러나 또 부단히 또 완강하게 새로운 기술적 기초우에, 대생산의 기초우에 옮겨놓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적공업에 이끌어들이는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과업을 해결하든가—그때에는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가 보장될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과업을 포기하고 해결하지 못하든가—그때에는 자본주의에로 돌아가는것이 불가피하게 될것이다.—둘중의 하나이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소농민국가에서 살고있는 한 로씨야에는 공산주의를 위해서보다도 자본주의를 위하여 더 튼튼한 경제적토대가 존재한다.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농촌생활을 도시생활과 비교하여 주의깊게 관찰한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못했으며 국내의 적들의 토대를 허물어내지 못했다는것을 알것이다. 국내의 적들은 소경영에 의지하고있다. 이것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한가지 수단이 있을뿐이다. 즉 농업도 포함하여 나라의 경제를 새 기술 토대우에, 현대적대규모생산의 기술적토대우에 옮겨놓는것이다. 그러한 토대로 되는것은 다만 전기화뿐이다. 공산주의—이것은 쏘베트정권 뿔류스 전국의 전기화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46페지)①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399페지를 보라.—편집자

보는바와 같이 레닌은 나라의 전기화를 개별적발전소를 고립적으로 건설하는것으로 리해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농업도 포함하여① 나라의 경제를 새 기술적 토대우에》, 즉 이렇게 또는 저렇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기화와 련결된 《현대적대규모생산의 기술적토대우에 옮겨놓는것》으로 리해하고있다.

레닌이 이 연설을 한것은 그가 이른바 전기화계획 즉 로씨야전기화국가위원회의 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인 신경제정책실시의 직전 1920년 12월 쏘베트 제8차대회석상에서였다. 어떤 동지들은 이에 근거하여 이 인용문에 진술된 명제는 이미 오늘 현실에는 적용될수 없다고 말한다. 묻노니 어째서 그러한가? 그들은 말하기를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갔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는것, 이것은 물론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발전한 사회주의적공업을 가지고있으며 우리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집단농장을 가지고있으며 우리는 신구국영농장들을 가지고있으며 우리는 발전한 협동조합조직망을 풍부하게 가지고있으며 우리는 농민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농기구임경소들을 가지고있으며 우리는 지금 새로운 련계형태인 예약수매방법을 채용하고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공간과 다른 많은 공간들을, 농업을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로 점차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사용할수 있다. 이것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소생산이 우세한 소농국으로 남아있다는것도 역시 사실이다. 이것이 근본적인것이다. 또 이 근본적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우리가 소농민국가에서 살고있는 한 로씨야에는 공산주의를 위해서보다도 자본주의를 위하여 더 튼튼한 경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제적토대가 존재한다.》는 그리고 따라서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성이 결코 공허한 언사가 아니라는 레닌의 이 명제가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레닌은 이와 동일한것을 그러나 더욱 신랄한 형태로 이미 신경제정책이 실시된 이후에(1921년 3~4월) 쓴 소책자 《현물세에 관하여》의 초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만일 10~20년내에 전기화가 된다면 소경작자의 개인주의와 지방류통에서의 소농의 자유상업은 추호도 두려울것이 없다. 만일 전기화가 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에로의 복귀는 어쨌든 불가피하다.》

또 같은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농민과의 옳바른 호상관계가 10~20년 지속되면 승리는 세계적규모에서 보장될것이며(심지어 장성하고있는 무산계급혁명들이 지체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백파테로의 고통스러운 20~40년이 올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313페지)①

레닌은 문제를 바로 이와 같이 엄격하게 제기하였다. 즉 전기화이냐 다시말하면 《농업도 포함하여 나라의 경제를 새 기술적 토대우에, 현대적대규모생산의 기술적토대우에 옮겨놓》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에로 복귀하느냐 하고.

레닌은 《농민과의 옳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문제를 바로 이와 같이 리해하고있다.

여기서 문제는 농민을 회유하며 또 이 회유를 농민과 옳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방침으로 보는데 있는것이 아니라—회유로써는 현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때문에—문제는 농민으로 하여금 자기 영농을 《새 기술적 토대우에, 현대적대규모생산의 기술적토대우에》 옮겨놓도록 그들에게 방조를 주는데 있다.—왜냐 하면 농민을 빈궁으로부터 구출하는 기본적길이 여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313페지를 보라.—편집자

기에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 옮겨놓으려면 우리의 공업, 무엇보다도먼저 생산수단의 생산을 고속도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에게 공업을 고속도로 발전시킬것을 강요하는 내부조건들은 이러하다.

우리 인민경제의 통제수자의 긴장성은 바로 이러한 외부적 및 내부적 조건들우에 근거를 두고있는것이다.

우리의 경제계획들이 예산내의것이나 예산외의것이나 다 긴장하며 또 공업을 고속도로 발전시키는것을 목표로 기본건설사업에 크게 투자하는것은 바로 이에 기인한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수 있다. 즉 그러면 레제의 어디에, 레제의 어느 개소에 이것이 진술되여있는가고(누군가 《그렇습니다. 어디에 이것이 진술되여있습니까?》 하고 소리친다). 이에 대해서는 레제에서 1928～1929년도의 공업에 대한 자본투자액이 말해주고있다. 과연 우리는 레제를 통제수자의 레제라고 부르고있지 않는가? 동지들, 그렇지 않은가?(누군가 《그렇습니다.》 하고 소리친다.) 그렇다. 이 레제에서는 우리가 1928～1929년도에 기본건설자금을 공업에 16억 5,000만루블을 투자하고있다는것이 언급되고있다. 달리말하면 우리는 금년에 작년보다 3억 3,000만루블이나 더 많이 공업에 투자하고있는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공업의 발전속도를 유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 작년보다 더 많이 공업에 투자함으로써, 즉 공업의 기본건설을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증장시킴으로써 한걸음 더 전진하고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인민경제통제수자에 관한 레제의 중심이 있다. 그런데 어떤 동지들은 큰것을 보지 못하고있다. 통제수자에 관

한 테제의 지엽적인것에 대하여 이러니저러니 비판을 할뿐이였고 가장 중요한것은 깨닫지 못하였던것이다.

2
곡물문제

나는 지금까지 테제의 첫째 근본문제, 즉 공업발전의 속도문제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제는 둘째 근본문제 즉 곡물문제로 넘어가려 한다. 테제의 특징은 이 테제가 농업일반 특히 곡물경작의 발전문제를 강조하고있다는 점에 있다. 테제의 이러한 방침이 옳은가?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이미 7월전원회의23에서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에서 가장 큰 약점은 농업일반 특히 곡물경작의 비상한 락후성이라는것이 언급되였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이 공업에 뒤떨어졌다고 하면서 이것을 원망하고들있는데 이것은 물론 신중치 못한 생각이다. 농업은 언제나 공업에 뒤떨어져있었고 또 장차도 뒤떨어질것이다. 이것은 공업이 최대한으로 집중되여있고 농업이 최대한으로 분산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제 조건하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련합된 공업이 분산된 농업보다 더 빨리 발전하리라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로부터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도적역할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농업이 공업보다 일반적으로 뒤떨어진다는것을 곡물문제를 제기할 근거로 삼을수는 없다.

농업문제 특히 곡물경작문제는 농업이 일반적으로 공업보다 락후한것이 농업의 속도가 현저히 락후한것으로 전화하는 때에라야 비로소 무대에 오르게 된다. 인민경제의 현상태의 특징은, 우리가 부단히 발전하고있는 도시 및 공업지구의 상품곡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있는 한편 곡물경작의

발전속도가 공업의 발전속도보다 현저히 뒤떨어져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고있다는 점에 있다. 이에 있어서 과업은, 공업의 발전속도를 곡물경작의 발전수준에까지 낮추는데 있는것이 아니라(이것은 모든것을 혼란에 빠뜨릴것이고 또 발전을 후퇴시킬것이다.) 곡물경작의 발전을 공업의 발전속도에까지 따라잡게 하며 곡물경작의 발전속도를 전반 인민경제(공업, 농업 할것없이)의 급속한 추진을 보장하는 수준에까지 제고시키는데 있다.

우리가 이 과업을 해결하든가—그렇게 한다면 바로 이것으로써 곡물문제가 해결될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든가—그때에는 사회주의적도시와 소농민적 농촌사이의 결렬이 불가피하게 될것이다.—둘중의 하나이다.

동지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와 같이 서있다. 곡물문제의 실질은 이러하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곡물경작발전에서 《정체》되여있다거나 심지어 《퇴보》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프룸낀은 자기의 두번째 서한—우리가 오늘 그의 요구에 따라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배포한—에서 문제를 바로 그와 같이 제기하고있다. 그는 이 서한에서 우리가 농업에서 《정체》되여있다고 단적으로 말하고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우리는 출판물에서는 퇴보에 대하여 쓸수도 없고 또 써도 안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당내에서는 이와 같이 뒤떨어진것이 퇴보와 다름없다는것을 엄폐하여서는 안된다.》

프룸낀의 이 주장은 옳은가? 물론 옳지 않다! 우리들 정치국위원들은 이와 같은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또 정치국의 테제는 곡물경작상황에 관한 문제의 이와 같은 해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실제에 있어서 퇴보란 무엇이며 또 그것은 농업에서 어떻

게 나타나야만 하는가? 그것은 응당 농업의 후퇴, 하강에, 즉 새로운 영농형태로부터 낡은 중세기적영농형태에로 퇴보하는데 나타나야 할것이다. 그것은 이를테면 3순경작법으로부터 2순경작법에로, 쇠쟁기와 기계로부터 나무쟁기에로, 정선된 순종종곡으로부터 정선되지 않은 잡종종곡에로, 현대적경작법으로부터 저급적인 경작법에로 등등으로 농민이 이행하는것으로서 나타날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있단 말인가? 해마다 수백만 농호의 농민이 3순경작법으로부터 4순경작법 내지 다순경작법에로, 잡종종곡으로부터 순종종곡에로, 나무쟁기로부터 쇠쟁기와 기계에로, 저급적인 경작법으로부터 가장 고급적인 경작법에로 이행하고있는 사실이 과연 모든 사람과 매개인에게 똑똑하지 않단말인가? 이것이 대체 무슨 퇴보인가?

프룸낀은 대체로 자기의 견해를 론증하기 위하여 일부 정치국위원들의 옷자락에 매달리기를 즐긴다. 그가 이번에도 부하린이 자기의 론문 《경제학자의 수기》에서 《동일한것》을 말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하린의 옷자락에 매달리려고 노력하려라는것은 십분 있음직한 일이다. 그러나 부하린은 결코 《동일한것》을 말하지 않고있다. 부하린은 자기의 론문에서 퇴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에 관한 추상적인 리론적문제를 제기하였던것이다.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와 같은 문제의 제기는 매우 가능하며 또 당연한것이다. 그런데 프룸낀은 무엇을 하고있는가? 그는 퇴보의 가능성에 관한 추상적문제를 농업퇴보의 사실이라고 말하고있다. 바로 이것을 그는 곡물경작상황의 분석이라고 부르고있다! 동지들, 이것이 우스운 일이 아닌가?

만일 쏘베트정권이 그가 건립된 11년만에 농업을 퇴보시켰다면 그 쏘베트정권은 얼마나 훌륭한것인가! 그러한 정권은

지지할것이 아니라 내쫓아야 할것이다. 만일 쏘베트정권이 정말 농업을 퇴보시켰다면 로동자들은 이러한 정권을 오래전에 구축해버렸을것이다. 잠자면서 꿈속에서까지도 농업의 퇴보를 열망하고있는 가지각색 자산계급전문가들은 퇴보를 노래부르고있다. 한때 트로쯔끼가 퇴보를 노래부른 일이 있다. 나는 프룸낀이 이 의심스러운 길로 나서리라고는 예기하지 않았었다.

프룸낀은 퇴보에 관한 자기의 주장을 무엇에 근거하고있는가? 우선, 금년에 우리 나라의 곡물파종면적이 작년보다 적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있다. 이 사실은 무엇으로써 설명할것인가? 혹시 쏘베트정권의 정책에 의한것이나 아닌가? 물론 아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초원지대와 일부 북깝까즈에서의 추기파종작물의 피해와 우크라이나의 같은 지대에서 금년여름에 든 가물에 의하여 설명된다. 만일 전적으로, 완전히 농업을 좌우하는 이와 같은 불리한 기후조건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금년에 곡물파종면적을 작년보다 적어도 100만제싸찌나나 더 많이 가졌을것이다.

그는 다음으로, 금년에 곡물의 총생산량이 작년보다 약간 증가하였을따름인데(7,000만뿌드의 증가) 밀과 라맥은 2억뿌드나 더 적었다는 사실을 자기 주장을 론증하는 근거로 삼고있다. 그러면 이 모든것은 무엇으로써 설명할것인가? 역시 가물과 추기파종작물이 서리를 맞았다는것으로써 설명된다. 만일 이러한 불리한 기후조건이 없었더라면 금년의 곡물총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억뿌드나 증가했을것이다. 이런 지방 또는 저런 지방들의 수확에 대하여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가물, 서리 등등과 같은 요인들을 어떻게 무시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파종면적을 7% 확장하며 수확률을 3% 높이며 그리고 곡물의 총생산량을 10%가량 증가시키는 과업을 내

세우고있다. 우리가 이 과업을 완수하기에 모든 대책을 취하리라는것은 의심할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들에서 서리 혹은 가물로 또다시 부분적인 흉작을 만날수 있으며 따라서 이 사정은 곡물총생산량을 우리의 계획보다 또는 치어 금년의 총생산량보다 얼마쯤 저하시킬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은, 농업이 《퇴보하고있다》거나 이 《퇴보》는 쏘베트정권의 정책에 책임이 있다거나 우리가 농민들에게서 경제적자극을 《없애버렸다》거나 우리가 그들에게서 경제적전망을 《탈취하였다》는것을 의미하게 될것인가?

몇해전에 뜨로쯔끼는 《그까짓 비》따위는 농업에 대하여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동일한 오유를 범하였었다. 리꼬브는 중앙위원회 위원 대다수의 지지밑에서 그를 반박하였다. 이제 프룸낀은 농업에 대하여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기후조건들을 무시하며 모든 책임을 우리 당의 정책에 전가시키려고 애씀으로써 동일한 오유를 범하고있다.

농업일반 특히 곡물경작의 발전속도를 제고시키기에 필요한 방도와 수단들은 어떠한것들인가?

이러한 방도 또는 통로는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

(ㄱ) 빈농, 중농의 개인경영의 수확률을 높이며 파종면적을 넓힐것.

(ㄴ) 집단농장을 계속 발전시킬것.

(ㄷ) 낡은 국영농장을 확장시키며 새 국영농장을 발전시킬것.

이에 관해서는 7월전원회의의 결의문에서 이미 언급되였었다. 레제는 7월전원회의에서 진출된것을 반복하고있으나 그러나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기하고있으며 이 사업에 일정한 투자가 실시된다는것을 제기하고있다. 프룸낀은 여기서 또 트집을 잡을 구실을 발견했다. 그는 제1위에 개인경영이 서고

제2위와 제3위에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 선 이상 이것은 자기의 견해가 승리하였다는것 이외의 다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있다. 동지들, 이것은 우스운 생각이다. 만일 각종 경영형태의 비중으로부터 문제를 취급한다면 개인경영을 제1위에 놓아야 할것이다. 왜냐 하면 개인경영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보다 거의 6배이상의 상품량곡을 제공하기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경영의 류형의 견해로부터 즉 어떤 경영형태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형태이냐 하는 견해로부터 문제를 취급한다면 개인적농민경영에 비하여 농업의 가장 높은 류형인 집단농장 및 국영농장을 제1위에 놓아야 할것이다. 두가지 견해가 우리에게 다같이 접수될수 있다는것을 증명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우리의 사업이 이 모든 세개 방면에서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농업, 우선 곡물경작의 발전속도를 실제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이것을 위하여서는 우선, 우리 당 간부들의 주의력을 농업방면에 돌리며 곡물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주의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농업일반에 관한 일반적인 언사와 공담을 집어치우고 그리하여 각이한 지방들의 각이한 조건들에 좇아 곡물경작을 높일데 대한 실제적대책을 강구하는데로 넘어가야 한다. 말로부터 행동에로 넘어갈 때가 왔으며 어떻게 빈농, 중농의 개인경영의 단위면적수확률을 높이며 그들의 파종면적을 넓힐것인가, 어떻게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개선하며 일층 발전시킬것인가, 농민에게 우량종자와 우량종축을 공급하는 면에서 농민에게 주는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원조를 어떻게 조직할것인가, 농기구임경소를 거쳐 기계 및 기타 농구로써 농민들에게 주는 원조를 어떻게 조직할것인가, 어떻게 예약수매사업 및 일반적으로 농업협동조합사업을 넓히며 또 개선할것인가 하는 등등의 구체적문제를 연구할 때가 왔다(《그것은

실용주의입니다.》하는 소리). 이와 같은 실용주의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왜냐 하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곡물문제 해결의 가장 중대한 사업을 농업일반에 관한 텅 빈 잡담속에 잠겨버릴 위험이 있기때문이다.

중앙위원회는 우리의 주요곡물지구의 책임일군들을 조직하여 인민위원회 및 정치국내에서 농업발전문제에 관한 구체적보고를 하게 하는것을 과업으로 내세웠다. 이 전원회의석상에서 여러분은 북깝까즈에서의 곡물문제해결방도에 관한 안드레예브동지의 보고를 듣게 될것이다. 나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우크라이나, 중앙흑토대, 볼가강연안지방, 씨비리 등지로부터의 이와 류사한 보고를 듣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당의 주의력을 곡물문제에 돌리게 하며 그리하여 결국 우리 당 간부들을 곡물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궤도에 옮겨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로는, 농촌의 우리 당 일군들은 자기들의 실제사업에서 중농을 부농과 엄격히 구별하며 그들을 일률적으로 취급하지 말며 또 부농을 타격해야 할 경우에 중농을 타격하지 말도록 힘써야 한다. 드디여 이러한 과오들을—이렇게 말하는것은 실례이지만—청산할 때가 왔다. 례로써 개인세에 관한 문제를 들어보자. 우리에게는 농호수의 불과 2% 내지 3%, 즉 가장 부유한 일부 부농에게서 세를 받을데 관한 정치국의 결정과 또 이에 상응하는 법률이 있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가? 어떤 지방들에서는 10%, 12%, 혹은 그이상 넓힘으로써 중농을 건드리고있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끝마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의 경애하는 《비평가》들은 이러한 그리고 이와 류사한 악렬한 현상을 청산할 구체적방법들을 댈 대신에 《부농의 가장 부유한 부분》이라는 말을 《부농의 가장 유력한 부

분》 또는 《부농의 최상층부분》이라는 말로써 바꿀것을 제의하면서 말재주를 피우고있다. 마치도 이것은 동일한것이 아닌것같이 여기는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부농이 약 5%쯤 된다는것이 실증되였다. 법령은 개인세로써 다만 농호의 2% 내지 3% 즉 부농의 가장 부유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것이 실증되였다. 실천가운데서 이 법령이 많은 지방들에서 위반되고있다는것이 실증되였다. 그런데 《비평가》들은 이런 현상들을 청산할 구체적대책을 댈 대신에 입으로만 비판을 늘어놓으며 이것으로써는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못한다는것을 리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순전히 경만 읽는자들이다!(《그들은 부농전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과세할것을 제안하고있습니다.》라는 조리) 자, 그렇다면 농호의 2% 내지 3%에 대한 개인세법령의 폐지를 요구해야 할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어느 누가 개인세법령의 폐지를 요구하였다는것을 듣지 못하였다. 개인세를 마음대로 넓히는것은 지방예산을 보충할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하는 방법으로써, 당의 지시를 위반하는 방법으로써 지방예산을 보충하여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에는 당이 존재해있으며 그것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쏘베트정권이 존재해있으며 그것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만일 지방예산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지방예산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를 취소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빈농과 중농의 개인경영에 대한 자극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이미 실시된 곡물가격의 인상, 혁명적법률의 실제적실시, 예약수매에 의한 빈농과 중농의 경영에 대한 실제적원조 등등은 확실히 농민의 경제적자극을 현저히 강화시킬것이다. 프룸낀은 우리가 농민들에게서 경제적전망을 빼앗음으로써 이 자극을 없애버렸거나 또는 거의 없애버렸다고 생

각한다. 이것은 물론 어리석은 생각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동계급과 기본농민 대중과의 련계와 동맹은 대체 무엇에 의거하고있는지 리해할수 없게 된다. 이 동맹을 정신적동맹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은 타산에 의거하는 동맹, 두 계급의 리해관계의 동맹, 호상리익을 목적으로 하는 로동자와 기본농민 대중과의 계급적동맹이라는 것을 결국 리해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농민들에게서 경제적전망을 빼앗음으로써 농민의 경영적자극을 없애버렸거나 또는 거의 없애버렸다면 우리에게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련계가 없을것이며 동맹이 없을것은 명백하다. 여기서 론의될수 있는 것은 빈농, 중농 대중의 경제적자극의 《창조》 또는 《발동》에 관한것이 아니라 이 자극을 강화하며 또 로동계급과 기본농민 대중의 호상리익을 가져오도록 그것을 한층더 발전시킬데 관한것이라야 할것이 명백하다. 인민경제의 통제수자에 관한 테제는 바로 이에 관해서 말하고있다.

끝으로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나는 소비품과 아울러 또 특히 농산물생산을 제고시킬수 있는 생산적성질의 상품들(기계, 비료 등등)을 두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서 만사가 잘되여간다고 말할수 없다. 여러분은 상품결핍현상이 아직 해소되기에는 멀었으며 또 아마도 급속히는 해소되지 않으리라는것을 알고있다. 우리 당내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상품의 결핍을 당장에 해소시킬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유감이지만 옳지 않다. 상품결핍현상이 첫째로는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의 제고 및 상품—그 생산은 해마다 증가되고있으나 전부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있다.—에 대한 지불능력이 있는 수요의 거대한 증가와 관련되여있으며 또 둘째로는 공업에 대한 개조의 현시기와 관련되여있다는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업에 대한 개조는 자금을 소비수단의 생산분야로부터 생산수단의 생산분야로 이동하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공업에 대한 중대한 개조는 더우기 우리 쏘베트의 조건하에서는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새로운 기업소들의 건설에 돈이 투자되고있으며 도시 및 새로운 소비자의 수가 증가되는 반면에 새로운 기업소들은 3~4년을 경과한후에라야만 비로소 새로운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사정이 상품의 결핍을 해소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지 못할것은 리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상품결핍현상앞에서 다만 팔짱을 끼고 자기의 무력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상품의 결핍을 완화시키며 경감시키기 위한 구체적방책을 채용할수 있으며 또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데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할수 있으며 또 당장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을 높이는것과 직접 련계가 있는 공업부문(쓰딸린그라드뜨락또르공장, 로스또브농업기계공장, 워로네즈종곡정선기공장 기타 등등.)을 강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모자라기 쉬운 상품(나사, 유리, 못 등등.)을 증가시키는것과 관계있는 공업부문을 되도록 강화하여야 한다. 기타 등등.…

꾸바크는 인민경제의 통제수자에 의하면 금년도에 개인농경영에 주는 자금이 작년보다 적다고 하였다. 나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꾸바크는 아마 우리가 예약수매의 방식으로 금년에 농민들에게 약 3억루블의 대부금(작년보다 거의 1억루블이나 많다.)을 주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것 같다. 만일 이 사정을 고려한다면—그런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우리는 금년에 개인농경영의 발전을 위하여 작년

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신구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에 대해 말한다면 이 사업에 금년에는 약 3억루블(작년보다 1억 5,000만루블이나 더 많다.)이 투자되고있다.

집단농장, 국영농장과 예약수매방법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러한것들을 우리의 상품곡물자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이러한것들은 동시에 로동계급과 기본농민 대중과의 새로운 련계형태이다.

예약수매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말하였으므로 나는 이에 대하여 더 말하지 않겠다. 예약수매방법을 보편적으로 채용하는것은 개인농경영의 노력을 련합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국가와 농민사이의 호상관계를 고정시켜놓음으로써 도시와 농촌사이의 련계를 튼튼히 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나는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서 농업에 대한 개조를 촉진하며 농민들의 머리속에 혁명을 일으켜놓으며 침체와 인습으로부터 해방되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공간으로 되는 집단농장 특히 국영농장에 주의를 돌릴것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바이다. 우리의 곡물생산지방들에서의 뜨락또르, 대형농업기계 및 뜨락또르대의 출현은 그 부근 농민의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다. 종자, 기계, 뜨락또르로써 부근농민을 도와주는것은 의심할바없이, 농업의 비상한 앙양의 광대한 길로 농민을 인도하기에 노력하고있는 쏘베트국가의 력량과 위력의 표징으로서 농민들에게 평가될것이며 또 고려될것이다. 이 사정을 우리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았고 또 지금도 아마 충분히 고려하고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곡물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형태의 련계를 공고히 하는데 있어서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 지금 일으키고있으며 또 일으킬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곡물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방책과 수단은 대체로 이러한것들이다.

3
여러가지 편향과 이에 대한 타협주의와의 투쟁에 관하여

이제는 우리 테제의 세번째 기본문제, 레닌의 로선으로부터 리탈하는 편향들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기로 하자.

여러가지 편향의 사회적기초는 우리 나라에서 소생산이 우세하다는 사실, 소생산으로부터 자본주의분자들이 부단히 자라난다는 사실, 우리 당이 소자산계급의 자연발생적인 세력에 포위되여있다는 사실, 끝으로 우리 당의 일부 고리들이 이 자연발생적인 세력에 침식되여있다는 사실이다.

여러가지 편향의 사회적기초들은 대체로 이러하다.

이런 편향은 모두 소자산계급적성격을 띠고있다.

여기서 주로 론의되는 우익적편향은 무엇에 귀착되는가? 그것은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그것은 자산계급사상체계에 순응시키는 방향으로, 우리의 정책을 《쏘베트》적자산계급의 구미와 요구에 순응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있다.

만일 우익적편향이 우리 당내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 대하여 어떤 위험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 당의 사상적파괴, 자본주의분자에 대한 방임, 자본주의의 부활의 혹은 레닌이 말한것과 같이 《자본주의에로의 복구》의 가능성의 증대일것이다.

우익적편향에의 경향들은 주로 어디에 등우리를 틀고있는가? 우리의 쏘베트기관과 경제기관, 협동조합기관과 직업동맹

기관 속에 그리고 당기관속에도 특히 그의 농촌하층조직속에 들고있다.

우리 당원들사이에 우익적편향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물론 있다. 뢰꼬브는 드네쁘르강건설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샤뚜놉스끼를 례로 들었다. 샤뚜놉스끼가 우익적편향 즉, 공공연한 기회주의에로의 편향을 범한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나는 샤뚜놉스끼가 우익적편향의 특징, 그 면모의 특징을 규정하는데의 전형적인 인물로는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는 첫번째 명예를 프룸낀에게 증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웃음소리) 나는 그의 첫번째 서한(1928년 6월)과 그다음, 여기에서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된 그의 두번째 서한(1928년 11월)을 두고 말한다.

이 두통의 서한을 분석하여보자. 첫번째 서한의 《기본명제》를 들어보자.

(1) 《농촌은 소수 빈농층을 제외하고는 우리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있다.》 이것은 정말인가? 정말이 아니라는것은 명백하다. 만일 이것이 정말이라면 우리에게는 련계에 대한 추억조차 남아있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사실인즉 6월이래(서한은 6월에 쓴것이다.) 이미 거의 반년이 지났지만 소경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로동계급과 기본농민 대중의 련계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또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고있지 않는가. 프룸낀은 무엇때문에 사실에 맞지 않는것을 쓰고있는가? 그것은 당을 위협하며 당을 우익적편향에 순종시키기 위해서이다.

(2) 《최근에 채택된 방침은 기본중농대중을 암흑의 상태에로, 전도가 없는 상태에로 이끌었다.》 이것은 정말인가? 전혀 거짓말이다. 만일 우리 나라에서 금년봄에 기본대중이 경제적암흑상태와 전도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모든 주요한 곡물생산지들에서 중농이 춘기파종면적을 확장하지 않았을것

은 명백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춘기파종이 흔히 4~5월에 진행된다. 그런데 프룸낀의 서한은 6월에 쓴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쏘베트정권하에서, 곡물의 기본수매자는 누구인가? 국가 및 그와 련계를 가지고있는 협동조합이다. 만일 중농대중이 경제적으로 전도가 없는 상태에 처하여있었다면, 만일 그들이 쏘베트정권과의 《련계의 파렬》상태에 있었다면 그들은 중요한 곡물수매자인 국가의 념원에 맞추어 춘기파종면적을 확장하지 않았을것은 명백하다. 프룸낀은 명백히 모순된 말을 하고있다. 여기서도 프룸낀은 당으로 하여금 그의 즉 프룸낀의 견해에 대하여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도가 없는 상태라는 《공포》로써 당을 위협하려고 애쓰고있다.

(3) 《제14차대회 및 제15차대회로 되돌아가야 한다.》 제15차대회[3]가 여기에 끌려들어간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의 요점은 제15차대회에 있는것이 아니라 제14차대회[15]에로의 후퇴라는 구호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부농에 대한 공격의 강화》(제15차대회의 결의문을 보라.)를 포기하는것을 의미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것은 제14차대회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것은 프룸낀이 14차대회로 되돌아가자는 호소로써 당이 14차대회로부터 15차대회에 이르기까지에 걸은 일보전진을 부정하며 또 이 전진을 부정함으로써 당을 뒤로 끌어가고있기때문이다. 중앙위원회 7월전원회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렸다. 전원회의는 그 결의문에서, 15차대회의 결정—《부농에 대한 공격을 계속 전개할것.》—을 피하려고 시도하는자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자산계급적경향의 표현》이라고 단적으로 지적하였다. 정치국이 7월전원회의 결의문에서 서술한 이 조항은 바로 프룸낀과 그의 첫번째 서한을 고려에 넣었던것이라는것을 나는 프룸낀에게 단적으로 말하는

바이다.

(4) 《집단화로 나아가는 빈농에 대한 최대한의 방조.》 우리는 집단화로 나아가는 빈농 또는 지어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빈농에 대해서까지도 항상 힘자라는대로 또 될수 있는대로 최대한의 방조를 주어왔다. 여기에는 아무런 새로운 점도 없다. 14차대회에 비하여 15차대회의 결정들에 있는 새로운것은 이 점에 있는것이 아니라 15차대회가 집단농장운동의 전면적 발전을 가장 중요한 당면과업중의 하나로 내세운 점에 있는것이다. 프룸낀은 집단화로 나아가는 빈농에 대한 최대한의 방조를 운운하면서 본질에 있어서는 15차대회가 내세운 집단농장운동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당의 과업을 회피하며 거절하고 있는것이다. 실질에 있어서 프룸낀은 집단농장을 통하여 농촌에서 사회주의적부문을 강화하는 사업의 전개를 반대하는것이다.

(5) 《국영농장의 확장을 돌격식 및 초돌격식으로 하지 말것.》 프룸낀은 우리가 원래 있던 국영농장을 확장하며 새로운 국영농장을 창설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금방 착수한데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모를리 없다. 프룸낀은 만일 우리에게 이 목적을 위한 예비적자금이 있었더라면 물론 여기에 주었어야 할 자금이 지금 주고있는 자금보다 더 많았을것이라는것을 모를리 없다. 여기서 《돌격식 및 초돌격식으로》라는 말을 끄집어낸것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아내며 또 이것으로써 그가 국영농장을 조금이라도 본격적으로 확장하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엄폐하기 위한것이다. 프룸낀은 기실 여기서 국영농장을 통하여 농촌의 사회주의적부문을 강화하는데 반대의견을 표명하고있다.

이제 프룸낀의 이 모든 명제들을 한데 모아놓는다면 여러분은 우익적편향을 특징짓는 일종의 꽃다발을 받게 될것

이다.

프룸낀의 두번째 서한에로 넘어가기로 하자. 두번째 서한이 첫번째 서한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첫번째 서한의 오유를 더 심화시키고있다는 점이다. 첫번째 서한에서는 중농경영이 전망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두번째 서한에서는 농업의 《퇴보》에 대하여 언급하고있다. 첫번째 서한에서는 부농에 대한 공격을 완화시키는 의미에서 14차대회로 되돌아가자고 말하였었다. 그런데 두번째 서한에서는 《우리는 부농경영의 생산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말하고있다. 첫번째 서한에서는 공업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었다. 그런데 두번째 서한은 공업건설에 적게 투자하자는 《새로운》 리론을 전개하고있다. 하여간 두 서한에는 일치되는 두 점이 있는데 그것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에 관한것이다. 두 서한에서 프룸낀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발전을 반대하고있다. 두번째 서한이 첫번째 서한의 오유를 더 심화시켰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퇴보》의 리론에 관해서 나는 이미 말하였다. 이 리론이 쏘베트정권의 멸망을 꿰치는 자산계급전문가들에 의하여 조작된것임은 의심할바없다. 프룸낀은 재정인민위원부 주위에 둥지를 틀고있는 자산계급전문가들에 의하여 놀랐으나 이번에는 자신이 당을 우익적편향에 순종시킬것을 희망하면서 당을 위협하려 시도하고있다.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였으므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두가지 조항 즉 부농경영에 관해서와 공업에 대한 기본건설투자에 관해서 고찰하여보기로 하자.

부농경영에 관하여. 프룸낀은 《우리는 부농경영의 생산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하고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부농이 자기의 착취적경영을 발전시키는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부농이 자기의 착

취적경영을 발전시키는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농촌에서 자본주의를 방임하고 그것에 자유를 주며 그것을 발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프랑스자유주의자들의 낡은 구호《레쎄 페르, 레쎄 파쎄》26 즉 자산계급이 자기 사업을 하는것을 방해하지 말라, 자산계급이 자유로 행동하게 내버려두라는 구호가 되고만다.

이 구호는 프랑스의 오랜 자유주의자들이 프랑스자산계급 혁명시기에 즉 자산계급을 속박하고 그들의 발전을 가로막던 봉건적인 권력과 투쟁하던 시기에 제기된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적요소에 대한 제한을 더한층 강화한다.》(통제수자에 관한 테제를 보라.)는 **사회주의적**구호로부터 농촌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속박하지 말라는 **자산계급-자유주의적**구호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으로 된다. 대체 우리는 과연 불쉐위크로부터 자산계급자유주의자로 변하려고 생각하고있는가? 프룸낀의 이 자산계급-자유주의적구호와 당의 로선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수 있는가?

(프룸낀: 《쓰딸린동지, 다른 개소들도 읽어주시오.》) 나는 이제 이 개소의 전문을 읽겠다. 그것은 이렇다.—《우리는 부농경영의 생산을 방해해서는 안되지만 **동시에 부농의 노예적착취와 싸워야 한다.**》 그러면 존경하는 프룸낀, 당신은 이 문구의 절반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것이 아니라 사태를 호전시킨다고 생각하는가? 노예적착취와의 투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예적착취와의 투쟁이라는 구호는 봉건-농노적 또는 반봉건적착취방법을 반대하는 자산계급혁명의 구호였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실지로 이 구호를 내건것은 우리가 철폐하려고 애쓰던 착취의 노예적형태와 자산계급제도가 의연히 세력을 가지고있던 한 우리가 당시에는 제한도 철폐도 할수 없었던 착취의 비노예적형태 즉 소위《진보적》형태를 구별하

면서 자산계급혁명의 길로 나가던 때이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자산계급민주주의공화국을 향하여 나아갔었다. 그런데 지금은 만일 나에게 틀림이 없다면 우리 나라의 혁명은 착취의 《진보적형태》도 포함한 착취의 모든 형태를 견폐하는 방침을 취하고있으며 또 취하지 않을수 없는 사회주의혁명인것이다.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발전시키고있으며 또 전진시키고있는 사회주의혁명으로부터 우리가 뒤로 역전하여 자산계급혁명의 구호로 되돌아갈것을 원한단말인가? 어찌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말을 할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부농경영을 방해하지 말라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부농을 방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를 방임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정권을 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일찌기 프랑스의 자산계급적자유주의자들이 봉건적정권에 대하여 자산계급의 발전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하던 때에, 그들은 이것을 자산계급에게 정권을 위임하라는 구체적인 요구로써 표현하였었다. 그리고 그들은 옳았었다. 충분히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자산계급은 정권을 장악하여야만 하였다. 그런즉 만일 철저할것을 기한다면 부농을 정권에 참여시키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왜냐 하면 부농으로부터 정권을 빼앗고 그것을 로동계급의 수중에 집중하고서는 부농경영의 발전을 구속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리해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프롬낀의 두번째 서한을 읽으면 이러한 결론들이 자연히 나온다.

공업의 기본건설에 관하여. 통제수자의 심의에서 우리는 세가지 수자를 가지고있었다. 즉 최고인민경제위원회는 8억 2,500만루블을 요구하였고 국가계획위원회는 7억 5,000만루블을 제의하였으며 재정인민위원부는 겨우 6억 5,000만루블을 제의하는데 동의하였다. 우리 당 중앙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

하여 어떠한 결정을 채택하였는가? 중앙위원회는 8억루블로 즉 재정인민위원부가 제의한것보다 바로 1억 5,000만루블이 더 많게 결정하였다. 재정인민위원부가 적게 제의하였다는것은 물론 아무것도 이상할것이 없다. 왜냐 하면 재정인민위원부가 런색한것은 세상이 다 아는바이며 또 그는 런색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프룸낀이 6억 5,000만루블의 수자를 고집하는것이 런색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번째 서한과 재정인민위원부 기관지상의 특별론문에서, 만일 우리가 최고인민경제위원회에 기본설비로 6억 5,000만루블이상을 지급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우리의 경제상태를 악화시킬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신발명의 《가능성》리론에 립각한데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프룸낀이 공업발전의 지금 속도를 저하시키는것이 진실로 우리의 전반 인민경제의 상태를 악화시킬것이라는것을 리해하지 못함으로써, 그 속도의 유지를 반대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제 프룸낀의 두번째 서한의 이 두 조항 즉 부농경영에 관한 조항과 공업의 기본건설에 관한 조항을 합치고 여기에다 《퇴보》의 리론을 첨가하여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우익적편향의 면모를 보게 될것이다.

여러분은 우익적편향이란 무엇이며 또 어떤 모양을 하고있는지 알고싶은가? 프룸낀의 두개의 서한을 연구하여보면 알게 될것이다.

우익적편향의 면모에 관한 문제는 이러하다.

그러나 테제는 비단 우익적편향에 관해서만 말하는것이 아니라 이른바 《좌익적》편향에 관해서도 말하고있다. 《좌익적》편향이란 무엇인가? 우리 당내에 정말 이른바 《좌익적》편향이라는것이 있는가? 우리 당내에 우리가 테제에서 말하는것과

같은 반중농적경향—초공업주의적경향 등등이 있는가? 물론 있다. 이것들은 대체 무엇인가? 그것들은 뜨로쯔끼주의편향이다. 이미 7월전원회의가 이에 관하여 말하였었다. 나는 곡물수매정책에 관한 7월전원회의의 유명한 결의문을 두고 말한다. 이 결의문에는 2개 전선에 대한 투쟁 즉 15차대회로부터 뒤걸음치려는 사람들(이것은 우경이다.)을 반대하며 또 비상대책을 당의 항구적인 방침으로 전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것은 《좌익적》경향 즉 뜨로쯔끼주의경향이다.)을 반대하는 투쟁에 관하여 언급되여있다.

뜨로쯔끼주의의 요인들과 뜨로쯔끼주의적사상경향들이 우리 당내에 있는것은 분명하다. 아마도 4,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15차당대회전의 론쟁시에 우리의 강령을 반대하여 투표하였다고 생각된다.(《1만명입니다.》라는 소리) 만일 1만명이 반대투표를 하였다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때문에 전혀 투표하지 않았지만 뜨로쯔끼주의에 공명하는 당원은 2만명이나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들이 바로 그 뜨로쯔끼주의분자들이다. 이들은 당에서 탈당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아직 뜨로쯔끼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뿐만아니라 그 후 뜨로쯔끼적조직으로부터 탈퇴하여 당에 돌아온 뜨로쯔끼주의분자의 일부는 아직 뜨로쯔끼주의와 절연하기에 이르지 못했으며 그리고 또한 아마 당원사이에 자기의 견해를 전파하기를 사양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끝으로 우리 당의 일부 조직내에서 뜨로쯔끼주의가 다소 부활하고있다. 이것을 전부 한데 합치면 여러분은 당내에 뜨로쯔끼주의에로의 편향이 존재한다는것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얻게 될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자산계급의 자연발생적세력이 존재하고 이 자연발생적세력이 우리 당을 압박하고있는 조건

하에서는 우리 당내에 뜨로쯔끼주의적경향이 없을수 없다. 뜨로쯔끼주의자들의 간부들을 체포하거나 혹은 출당시키는것과 뜨로쯔끼주의를 숙청하는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다. 후자는 일층더 어려울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익적편향이 있는 곳에는 《좌익적》편향이 꼭 있을것이라는것을 말한다. 《좌익적》편향은 우익적편향의 그림자다. 레닌은 소환파27에 언급하여《좌익》도 같은 멘쉐위크인데 다만 뒤집어놓은것일따름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옳다. 현재의 《좌익》에 대하여서도 꼭같이 말하여야 하겠다. 뜨로쯔끼주의에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은 본질상 역시 우익으로서 다만 뒤집어놓은것일따름인즉 《좌익적》언사로써 엄폐하는 우익이다.

이로부터 두개 전선에 대한 투쟁 즉 우익적편향 및 《좌익적》편향에 대한 투쟁이 나오는것이다.

이렇게 말할수 있다. 즉 《좌익적》편향이 본질상 우익기회주의적편향인 이상 그들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두개 전선이 있는가? 사실상 우익의 승리가 자본주의부활의 가능성의 증대를 의미하며 《좌익》의 승리도 역시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들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으며 어째서 한쪽을 우익이라 하고 다른쪽을 《좌익》이라고 하는가? 또 그들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데 있는가? 두개 편향이 하나의 사회적근원을 가지고있으며 그들 량자는 모두 소자산계급적편향들이라는것이 과연 사실이 아니란말인가? 이 두가지 편향이 승리한다면 그것들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는것이 과연 사실이 아니란말인가? 그렇다면 그들사이의 차이점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차이점은 그들의 강령이 다르며 요구가 다르며 방법과 수단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레컨대 우익이 《드네쁘르강건축공사를 건설할 필요는 없

었다.》고 말하면 《좌익》은 반대로 《우리에게 단 하나의 드네쁘르강건축공사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매년 하나씩 드네쁘르강건축공사를 내놓으라.》(웃음소리)고 말한다. 차이점이 확실히 있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우익이 《부농을 다치지 말라, 그들을 자유로 발전시키라.》고 말한다면 《좌익》은 반대로 《중농도 역시 부농과 마찬가지로 사적소유자이므로 부농뿐만아니라 중농까지도 타도하라.》고 말한다. 여기에 확실히 차이점이 있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우익이 《곤난이 닥쳐왔다, 손을 떼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한다면 《좌익》은 반대로 《우리에게 곤난이 다 무엇이냐, 당신들이 말하는 곤난쯤은 우리는 아무것으로도 여기지 않는다, 전력을 다하여 앞으로 날아가자.》(웃음소리)라고 말한다. 여기서 확실히 차이점이 있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좌익》의 독특한 강령과 독특한 수법의 전모이다. 그들 즉 《좌익》에게 있어서나 우익에게 있어서나 사회적근원이 동일하며 또 좌익은 레닌로선을 반대하는 투쟁을 위하여 가끔 우익과 타협하며 련맹을 맺는다는것을 전 세계가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익》이 가끔 《좌익적》호언장담으로써 로동자의 일부분을 자기 편에 유인하며 자기를 우익의 가장 단호한 반대자인것처럼 가장하는데 성공하는것은 기실 이로써 설명된다.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우리 레닌주의자들은 두개 전선에 대하여 즉 우익적편향에 대하여서도 《좌익적》편향에 대하여서도 투쟁하여야 한다.

그런데 뜨로쯔끼주의적경향이 《좌익적》편향이라면 이것은 《좌익》이 레닌주의보다 더 좌익에 서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레닌주의는 세계로동운동에서 **가장 좌익적인**(인용부가 없는) 조류이다. 우리 레닌

주의자들은 제국주의전쟁이 개시되기전 시기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극좌익으로서 제2국제당에 가입하였다. 우리가 제2국제당에 머물러있지 않고 제2국제당내에 분렬을 설교한것은 극좌익인 우리가 맑스주의의 소자산계급적배반자들, 사회평화주의자들 및 사회배외주의자들과 한당내에 있기를 원하지 않기때문이다.

그후에 이 천술과 이 사상은 전 세계의 볼쉐위크적당들의 기초로 되였다. 우리 레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당내에서 인용부없는 유일한 좌익이다. 그러므로 우리 레닌주의자들은 자기 당내에서《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자의 당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기 당내에서 우리가 공공연한 기회주의적경향분자라고 부르는자들과만 투쟁하는것이 아니라《좌익적》호언장담으로써 자기의 우익적기회주의본성을 엄폐하면서 맑스주의보다《더 좌익적》이며 레닌주의보다《더 좌익적》이기를 원하는자들과도 투쟁하는것이다.

뜨로쯔끼주의적경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좌익》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그것을 풍자적으로 리해해야 한다는것은 누구든지 다 알수 있을것이다. 레닌은《좌익공산주의자》[28]들을 어떤 때에는 인용부안에 넣어 좌익이라고 불렀으며 어떤 때에는 인용부가 없이 좌익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레닌이 그들을 좌익이라고 부른것은 그들을 풍자한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입으로는, 외관상으로는 좌익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자산계급의 우익적경향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수 있을것이다.

만일 뜨로쯔끼주의자들이 어제까지도, 국내의 반쏘베트적 계층들과 로골적으로 직접 결탁하면서, 공공연한 기회주의분자들과 더불어 통일된 반레닌적련맹을 결성하였다면 이들이 무슨 좌익적(인용부가 없는)경향을 가졌다고 말할수 있겠는

가? 레닌적당을 반대하는 《좌익》과 우익의 공공연한 련맹이 자산계급분자의 확실한 지지를 받으면서 어제까지도 존재하였었다는것은 과연 사실이 아니란말인가? 또 이것은 그들 즉 《좌익》과 우익사이에 만일 공통적인 사회적근원이 없다면, 만일 그들에게 공통적인 기회주의적본성이 없었다면, 그들이 통일된 련맹을 결성할수 없었으리라는것을 말하는것이 아닌가? 뜨로쯔끼분자들의 련맹은 1년전에 붕괴되여버렸다. 샤뚜놉스끼와 같은 우익의 일부분은 이 련맹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련맹의 우익은 금후 바로 우익의 면모를 나타내게 될것이며 《좌익》은 자기의 우익적경향을 《좌익적》언사로써 엄폐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좌익》과 우익이 또다시 서로 만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담보할수 있는가?(웃음소리). 여기에 아무런 담보도 없으며 또 있을수 없다는것이 뚜렷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두개 전선에서의 투쟁의 구호를 견지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당내에 중간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선포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두개 전선에서의 투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중간주의가 아닌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뜨로쯔끼주의자들은 문제를 바로 그렇게 말하고있다. 즉 《좌익》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 뜨로쯔끼자들이며 《진정한 레닌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우익》이 있는데 이것은 기타의 모든 사람들이며 끝으로 《좌익》과 우익사이를 동요하고있는 《중간파》들이 있다. 우리 당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옳다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그럴수 없다는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자는 다만 모든 개념을 혼동하며 또 오래전에 맑스주의와 리탈한 사람들뿐이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것은 오직, 부산계급의 리익과 소자산계급의 리익과의 련맹의 당이였던 전쟁전시기의 사회민주당과 혁명적무산계급의 단일계급의 당인 공산당사이의 원칙적차이를 보지도

못하고 또 리해하지도 못하는자들뿐이다.

중간주의를 공간적개념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례를 들어 한 장소에는 우익이 앉아있고 다른 한 장소에는 《좌익》이 앉아있으며 중간에는 중간파가 앉아있다는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중간주의란 정치적개념이다. 그의 사상체계는 순응하는 사상체계이며 **하나의 공동의 당내에서** 무산계급의 리익을 소자산계급의 리익에 종속시키는 사상체계이다. 이 사상체계는 레닌주의와는 배치되는것이며 또 대립되는것이다.

중간주의는 전쟁전시기의 제2국제당에게는 당연한 현상이다. 거기에는 우익(대다수)이 있었고 좌익(인용부가 없는)이 있었으며 또 중간파들이 있었다. 이 중간파들의 일체 정책은 좌익적언사로써 우익의 기회주의를 장식하며 좌익을 우익에 복종시키려는데 있었다.

당시 볼쉐위크들을 핵심으로 했던 좌익의 정책은 무엇이였는가? 이것은 중간파들과 결정적으로 투쟁하며 우익들과의 분렬을 위한 투쟁을 하며(특히 제국주의전쟁이 폭발된후) 그리고 참으로 좌익적이며 참으로 무산계급적인 분자들로써 새로운 혁명적국제당을 조직하는것이다.

당시 어째서 제2국제당내에 이와 같은 세력배치와 제2국제당내에서의 볼쉐위크들의 그와 같은 정책이 생길수 있었는가? 그것은 당시 제2국제당이 소자산계급적사회평화주의자들과 사회배외주의자들에 아첨하는, 무산계급의 리익과 소자산계급의 리익과의 련맹의 당이였기때문이다. 그것은 볼쉐위크들이 그때 무산계급적분자들을 소자산계급의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시도하고있던 중간파에 대하여 포화를 집중하지 않을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그것은 또 볼쉐위크들이 그때 분렬사상을 선전하지 않고서는 무산계급이 자기자체의 단일계급의 혁명적 맑스주의당을 조직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우리 공산당내에도 그와 같은 세력배치가 있으며 우리 볼쉐위크도 전쟁시기의 제2국제당의 당들에서 실천했던 그 정책을 우리 당내에서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할수 있겠는가? 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할수 없다는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부산계급분자들과 소자산계급분자들과의 련맹의 당인 사회민주당과 혁명적무산계급의 **단일계급**당인 공산당과의 사이의 **원칙적차이**를 리해하지 못하는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거기에는 (사회민주당에는) 당의 하나의 계급적기초가 있었다. 여기에는(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와는 전혀 다른 당의 기초가 있다. 거기에서는(사회민주당에서는) 각이한 리익의 련맹의 당에 중간파가 없을수 없기때문에 중간주의는 자연적인 현상이였으며 그리하여 볼쉐위크들은 분렬의 로선을 실시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여기에서는(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공산당은 무산계급의 **단일계급**의 당으로서 각이한 종류의 계급분자들의 련맹의 당이 아니기때문에 중간주의의 존재는 근거가 없는것이며 또 레닌적당성과 량립할수 없는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의 지배적세력은 세계로동운동의 가장 좌익적인 조류(레닌주의자들)이기때문에 우리 당내에서의 분렬정책은 레닌주의의 견지로 보아 아무런 정당성도 가지지 못하며 또 가질수도 없는것이다.(«우리 당내에 분렬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소리) 문제는 분렬의 가능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일계급의 레닌적당내에서의 분렬정책이 레닌주의의 견지로 보아 정당화될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 원칙적차이를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레닌주의와 배치되는자이며 레닌주의와 결렬하는자이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다만 얼빠지고 맑스주의의 마지막여분마저 잃어버린 사람들만이 우리 당의 정책 즉 두개 전선에서의 투쟁정책을 중간주의의 정책이라고 진심으로 주장할수 있

다고 나는 생각한다.

레닌은 항상 《좌익적》편향과 아울러 확연한 멘쉐위크적편향을 반대하여 우리 당내의 두개 전선에서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레닌의 소책자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을 읽어보고 우리 당의 력사를 읽어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당이 두가지 편향 즉 우익적 및 《좌익적》 편향과의 투쟁속에서 자라났으며 또 강화되였다는것을 리해할것이다. 한편, 소환파 및 《좌익》공산주의자들과 투쟁하였으며 다른 한편, 10월혁명 이전과 10월혁명기간 및 그이후의 공공연한 기회주의적편향과 투쟁하였다.—바로 이것이 우리 당이 자기 발전도상에서 걸어온 단계이다. 우리는 공공연한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싸워야 하거니와 《좌익》공론가들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고 한 레닌의 말을 다 아는바이다.

이것은 레닌이 중간주의자였으며 그가 중간주의의 정책을 실시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익적 및 《좌익적》 편향주의자들이란 무엇인가?

우익적편향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물론 전쟁전시기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기회주의는 아니다. 기회주의에로의 편향은 아직 기회주의는 아니다. 우리는 레닌이 그때 편향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였던가를 알고있다. 우측에로의 편향 이것은 아직 기회주의로 형성된것이 아니며 수정할수 있는 그 편향이다. 그러므로 우측에로의 편향을 이미 형성된 기회주의와 동일시할수는 없다.

《좌익적》편향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전쟁전시기의 제2국제당내의 극좌익이던 볼쉐위크와는 절대 상반되는 그 어떤것이다. 《좌익》분자들은 인용부가 없는 좌익이 아닐뿐더러 그

들은 본칠상 우익분자로서 다만 무의식적으로 《좌익적》언사로써 자기의 진정한 본성을 엄폐하는것이 다를뿐이다. 《좌익》분자들과 진정한 레닌주의자 즉 우리 당내의 유일한 좌익(인용부가 없는)파의 사이에 있는 모든 심각한 차이를 보지 않는것은 당에 대한 범죄행위이다(《그러면 여러가지 편향들을 합법화시키는것입니까?》라는 소리). 만일 편향들과 공개적으로 투쟁하는것이 합법화시키는것이라면 레닌은 이미 오래전에 이 편향들을 《합법화시켰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그들 즉 이 편향자들은 우익, 《좌익》 할것없이 다 당에 대한 자산계급적자연발생적인 세력의 침습과 당의 개별적고리들의 부패를 반영하는 비무산계급층의 가지각색 분자들가운데서 증모되고있다. 다른 당에서 온 일부 사람들, 당내의 뜨로쯔끼적경향을 가진 사람들, 당내의 이전의 여러가지 파벌의 잔여분자들, 국가기관, 경제기관, 협동조합 및 직업동맹기관내에서 관료화하고있으며(또 관료주의화한) 이 기관들에서 명확히 드러난 자산계급분자들과 결탁하고있는 당원들, 부농과 한덩어리로 되고있는 우리 농촌조직내의 부유한 당원들, 기타 등등.—이와 같은것들이 레닌의 로선으로부터 리탈하는 편향의 배양기이다. 이 분자들이 참으로 좌익적이며 레닌주의적인것을 조금도 받아들일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들은 오직 공공연한 기회주의적편향이나 또는 자기의 기회주의를 좌익적언사로써 엄폐하는 소위 《좌익적》편향을 육성할수 있을뿐이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두개 전선에서의 투쟁이 당의 유일하게 옳바른 정책인것이다.

다음으로, 레제에서 우리가 우익적편향과 투쟁하는 **주요방법**은 사상적투쟁을 널리 벌리는것이여야 한다고 한것은 옳은가?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뜨로쯔끼주의와 투쟁한 경험을 회상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우리는 뜨로쯔끼주의와 무

엇으로부터 투쟁하기 시작하였던가? 조직적처리로부터 시작하지나 않았던가? 물론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상적투쟁으로부터 시작했다. 그 투쟁은 1918년부터 1925년에 이르기까지 수행되였다. 1924년에 벌써 우리 당과 국제공산당 제5차대회[29]는 소자산계급적편향으로서의 뜨로쯔끼주의에 관해서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뜨로쯔끼는 우리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다. 우리가 뜨로쯔끼와 뜨로쯔끼분자들이 중앙위원회에 남아있는것을 《참아왔다》는것을 볼수 있다. 어째서 우리는 그들이 당지도기관에 머물러있는것을 허용하였는가? 그것은 뜨로쯔끼주의분자들이 그때에 당과 의견상이가 있었지만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하고 충성하였기때문이다. 어느때에 우리는 어느 정도 광범한 규모에서 조직상의 처리를 단행하기 시작하였는가? 뜨로쯔끼분자들이 파벌을 조직하고 자기의 파벌적중심을 창설하였으며 자기의 파벌적조직을 새 당으로 전변시켰으며 또 사람들을 반쏘적시위운동에로 호소하기 시작한후에야 시작하였다.

나는, 우익적편향과의 투쟁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익적편향이 당내에서 장성되고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것을 이미 형태를 갖춘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다만 형성되고있으며 형태를 갖추고 있는중일뿐이다. 우익분자들에게 파벌조직이 있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우리 당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할수 있는가? 나는 이 점에서 그들을 비난할 근거가 우리에게는 아직 없다고 생각한다. 우익분자들이 반드시 자기의 조직을 조직하리라고 단언할수 있는가? 나는 이 점에 의문을 가진다. 이로부터는, 우리가 현단계에 우익적편향과 투쟁하는 주요한 방법은 사상투쟁을 광범히 벌리는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약간의 우리 당원들사이에서 우익적편향과의 투

쟁을 사상투쟁으로부터 시작할것이 아니라 조직상의 처리로부터 시작하자는 상반되는 경향이 있음으로 하여 더욱 정당하다. 그들은 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우리에게 우익에 속하는 사람들을 10명 또는 20명쯤 내놓으라,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단숨에 분쇄해버리고 우익적편향을 모조리 제거해버릴것이다. 동지들, 나는 이러한 기분은 옳지 않으며 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기분에 따라 떠돌것이 아니라 우익적편향과의 투쟁을 옳은 궤도우에 올려놓기 위하여 현단계에 있어서 우익적편향과 투쟁하는 주요한 방법은 사상적투쟁이라는것을 명확하고도 단호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조직상의 온갖 처리를 배제한다는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심할바없이 조직상의 처리가 여기서 부차적인 역할을 놀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며 우익분자들이 당의 결정을 위반하지 않고있는 한 우리는 그들을 이러저러한 지도적조직 및 지도적기관으로부터 내쫓아서는 안된다.(«그러면 모스크바의 실제는 어떻습니까?»라는 소리)

나는 모스크바의 지도적동지들가운데는 우익분자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우익적기분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가 있은적이 있다. 지어는 거기에 타협적인 경향까지도 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나는 모스크바위원회안에 우익적편향이 있었다고는 말할수 없다.(«그렇지만 조직상의 투쟁은 있지 않았습니까?»라는 소리)

조직상의 투쟁은 비록 그것이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 할지라도 있기는 있었다. 그것이 있게 된것은 모스크바에서 자기비판에 기초한 개선이 실시되고있었으며 또 지구의 열성자들은 자기의 비서를 바꿀 권리를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웃음소리)(«그래 비서의 개선은 공포되였습니까?»라는 소리).

비서의 개선을 아무도 금지하지 않았다. 중앙위원회의 6월선언30은 하급단체들에게 만일 어떤 비서나 어떤 위원회나를 물론하고 바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비판을 전개한다는것은 헛소리로 되고만다는것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여러분은 이러한 선언을 반박할수 있겠는가?(《당대표자회의이전에말입니까?》라는 소리) 그렇다, 설사 당대표자회의전이였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어떤 동지들이 조롱하는 미소를 얼굴에 띠우고있는것을 보고있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여러분들가운데의 일부 동지들은 이러저러한 우익적편향을 나타낸 사람들의 직무를 될수록 빨리 철소할것을 절박히 바라고있다는것을 나는 알고있다. 그러나 친애하는 동지들, 이것은 문제의 해결방법이 아니다. 물론 직무를 철소하는것은 해설운동을 전개하여 우익적편향, 우경적위험성, 그리고 그와의 투쟁에 관한 문제를 광범하고도 알기 쉽게 해설하는것보다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가장 쉬운것이라 하여 가장 좋은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우경적위험성을 반대하는 광범한 해설운동을 조직하도록 노력하라, 이 사업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말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 운동이 광범하면 할수록 또 깊으면 깊을수록 우익적편향에는 더욱 불리하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나는 우익적편향을 반대하는 우리 투쟁의 중심은 마땅히 사상적투쟁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바이다.

모스크바위원회에 대하여 말한다면, 나는 전련맹공산당(불쉐위크) 모스크바위원회 및 모스크바검열위원회 련석전원회의석상에서 우글라노브가 결론에서 진술한것에 무엇을 더 첨가하겠는지 모르겠다. 그는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만일 잠간 력사를 회상한다면, 즉 내가 1921년에 레닌그

라드에서 지노위예브와 어떻게 격투하였는가를 회상한다면, 당시의 〈격전〉이 지금보다 좀더 컸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때에 우리가 옳았기때문에 승리자로 되였다. 지금은 우리가 잘못하였기때문에 패배를 당하였다. 좋은 교훈으로 될것이다.》

우글라노브는 오늘도 그가 일찌기 지노위예브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던것과 같은 투쟁을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그는 대체 최근에 누구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는가? 중앙위원회의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한것이 뚜렷하다. 그밖에 또 누구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는가? 이 투쟁은 어떠한 기초우에서 수행될수 있었는가? 분명히 우익적편향과의 타협의 기초우에서 수행될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므로 헤제는 아주 정확하게 레닌적로선으로부터 리탈하는 편향들과 타협하는것을 반대하는, 특히 우익적편향과 타협하는것을 반대하는 투쟁의 필요성을 우리 당의 당면과업중의 하나로 강조하고있는것이다.

끝으로 마지막문제. 헤제에는 우리는 지금 우익적편향과 투쟁할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여야 한다는것이 지적되여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당면에 있어서 우경적위험성이 우리 당내의 주요한 위험성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뜨로쯔끼주의의 경향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더우기 화력을 집중한 투쟁이 우리 나라에서 벌써 10년간이나 진행되고있다. 이 투쟁의 결과 뜨로쯔끼주의의 주요간부들을 짓부셔버렸다. 공공연한 기회주의적편향과의 투쟁이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맹렬하게 수행되였다고는 말할수 없다. 그런데 이 투쟁이 특히 맹렬하게 수행되지 못한것은 우리 여기에 있어서는 우익적편향이 우리의 곡물수매사업의 곤난과 관련하여 자라난 소자산계급의 자연발생적세력의 강화에 따라 강화되고 증대되면서도 아직은 형성되지 못했고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시기에 처하여있

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요타격은 마땅히 우익적편향에 돌려야 한다.

동지들, 나는 나의 연설을 끝마치면서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내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는 또 하나의 사실을 지적하려 한다. 우리들 정치국위원들은 여러분에게 통제수자에 관한 테제들을 제기하였다. 나는 나의 연설에서 이 테제를 절대 정당한것으로서 지지하였다. 나는 이 테제에 가하여질수 있는 개별적인 수정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테제들이 근본적으로 옳으며 또 우리에게 레닌로선의 옳바른 실행을 보장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심도 있을수 없는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정치국에서 우리는 이 테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는것을 여러분에게 언명하여야 하겠다. 우리 당에 악의를 품고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당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우리 당의 원쑤들이 우리 대렬속에 끊임없이 요언을 퍼뜨리고있기때문에 이 사실이 다소나마 의의를 가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요언이라고 하는것은, 마치도 우리 정치국내에는 우익적편향, 《좌익적》편향, 타협주의와 기타 알지 못할 그 무엇이 있는듯이 떠들어대는 요언들을 가리켜 말하는것이다. 이 테제들은 정치국내의 우리 전원이 통일되여있다는 사실에 대한 또 하나의, 아니 백번째의, 혹은 백한번째의 증거로 될것이다.

나는 이번 전원회의도 또한 만장일치로 이 테제를 기초로 하여 채택할것을 바라는바이다.(박수)

1928년 11월 24일부 《프라우다》 제273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1권, 212~249페지

꾸슈띄쎄브에게 주는 회답

꾸슈띄쎄브동지:

1928년 12월 11일부의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제기한 문제는 일견 옳은듯이 보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그것은 비판할나위도 없는 문제입니다. 레닌이 《공산주의—쏘베트정권 쁠류스 전기화이다.》①라고 말한것은 공산주의제도하에서 어떠한 정권이 있으리라든가 또 우리가 나라의 전기화만 참답게 실행하면 공산주의는 다 실현된것과 같다는것을 말하려고 한것이 아니였다는것을 리해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레닌은 무엇을 말하려고 이런 말을 하였는가? 나의 생각같아서는 그가 말하려고 한것은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려면 쏘베트정권만으로는 부족하다는것,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려면 쏘베트정권은 반드시 나라를 전기화하여 **전반 인민경제를 대규모적생산에로 이행시켜야 한다는것**, 쏘베트정권은 공산주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러한 길을 취할 용의가 있다는것뿐입니다. 레닌이 한 그 유명한 말은 전기화를 통하여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려는 쏘베트정권의 결심을 말하여줄따름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공화국을 사회주의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사회주의를 실현하였고 계급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1권, 380페지를 보라.—편집자

을 소멸하였고 국가를 폐절(왜냐 하면 사회주의의 실현이란 곧 국가의 소멸을 의미하는것이므로)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회주의제도하에 계급, 국가 등등이 아직도 존재할것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그런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 공화국을 사회주의공화국이라고 부를 권리가 있는가? 물론 있습니다. 어떠한 견지에서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그것은 사회주의를 실현하며 계급을 소멸하는 등등을 실행할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용의의 견지에서입니다.

꾸슈띄께브동지, 아마 당신은 이 문제에 관한 레닌의 의견을 들어보는데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한다면 들어보십시오.

《로씨야의 경제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면서 이 경제의 과도적성격을 부인한 그러한 사람은 아직은 없었던것 같다. 어떠한 공산주의자도 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실행하려는 쏘베트정권의 결의를 의미하는것이지 새로운 경제제도를 사회주의적인것으로 인정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전혀 아니라는 그것을 또한 부인한것 같지는 않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2권, 513페지)①

이것으로써 문제는 명백하게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적인사를 보내면서

이.쓰딸린

1928년 12월 28일

《쓰딸린전집》, 제11권에
처음으로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1권,
268~269페지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540페지를 보라.—편집자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내의 우익적편향에 관하여①

(1929년 4월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련석전원회의31에서 한 연설)
(속 기 록)

동지들! 비록 부하린집단의 어떤 동지들의 연설에서는 개인적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었지만 나는 개인적인 요소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언급하지 않으려 하는 까닭은 개인적인 요소란 사소한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론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부하린은 나와의 개인적인 서신왕래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편지 몇통을 읽었는데 이 편지들에서 우리는 어제까지는 개인적으로 벗이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치상에서 의견상이가 생겼다는것을 볼수 있다. 우글라노브와 똠스끼의 연설에서도 역시 그러한 론조가 토로되고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로볼쉐위크들인데 갑자기 우리들사이에 의견상이가 생겨 서로 존경할줄 모르게 되다니 어찌 그럴수가 있겠는가고 그들은 말하는것이다.

나는 이 모든 불평과 절규는 아무 가치도 없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족적집단이거나 친구간의 개인적집단인것

---

① 이 연설에는 당시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던 30여페지의 원문이 보충되였다.—《쓰딸린전집》, 로문판 편집자

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정당이다. 개인적인 우정의 리익을 사업의 리익보다 더 높이 놓는것은 절대로 용허할수 없다.

동지들, 만일 우리가 늙었다는것만으로써 로볼쉐위크로 불리운다면 우리의 사업은 그릇되게 될것이다. 로볼쉐위크들이 존경을 받는것은 그들이 늙었기때문인것이 아니라 그들이 늙었지만 동시에 영원히 젊고 로쇠하지 않는 혁명자이기때문이다. 만일 로볼쉐위크가 혁명의 길에서 물러선다든가 혹은 정치적으로 퇴폐해지고 타락한다면 비록 그가 백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로볼쉐위크로 불리울 권리가 없으며 그도 자기를 존경할것을 당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우정은 우정이고 사업은 사업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개인적인 우정문제를 정치문제와 절대 혼동시할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다 로동계급을 위하여 봉사하고있다. 때문에 만일 개인적우정의 리익이 혁명의 리익과 충돌될 때에는 개인적우정은 차요한 위치에 놓아야 할것이다. 볼쉐위크인 우리는 오직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수밖에 없는것이다.

부하린반대파의 어떤 동지들의 연설가운데 있는 그 개인적인 암시와 은근한 비난에 대하여서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 보건대 이 동지들은 암시와 애매한 언사로써 우리들사이의 의견상이의 정치적기초를 은폐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정객의 수완으로써 정치를 대체하려 하고있다. 이 면에서 똠스끼의 연설이 가장 특징적이다. 그의 연설은 정객의 수완으로써 정치를 대체하려 시도하는 로동조합주의적정객들의 전형적연설이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와 같은 술책으로써는 사람들을 속일수 없을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본문제로 넘어가자.

1

로선이 하나인가 둘인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통적인 총로선이 있는가 아니면 두 개의 로선이 있는가—동지들, 이것은 근본문제이다.

뢰끄브는 여기에서 한 자기의 연설에서 우리의 총로선은 하나이며 만일 우리사이에 약간의 《크지 않은》 의견상이가 있다면 그것은 총로선을 리해함에 있어서 《사소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것이 옳은가? 유감스럽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을뿐만아니라 사실과 정반대되는 말이다. 사실에 있어서 만일 우리의 로선이 하나이고 우리사이에는 다만 리해하는데 사소한 차이만 있다면 왜 부하린은 까메네브를 우두머리로 한 어제날의 뜨로쯔끼파한테로 달려가 중앙위원회가 중앙정치국을 반대하여 그들과 분파적련맹을 결성하려고 시도하였는가? 부하린이 거기에서 중앙위원회의 로선은 《멸망을 초래》할것이며 부하린, 똠스끼, 뢰끄브와 당중앙위원회사이에는 원칙적인 분기가 있으며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을 반드시 근본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말한것이 그래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만일 로선이 하나이라면 왜 부하린은 중앙위원회를 반대하여 어제날의 뜨로쯔끼파들과 결탁하여 비밀활동을 감행하고 있는가? 무엇때문에 뢰끄브와 똠스끼는 이 문제에서 그를 지지하고있는가?

만일 총로선이 하나이라면 하나의 공통한 총로선을 견지하고있는 정치국위원회의 일부분이 동일한 그 총로선을 견지하

고있는 정치국위원회의 다른 일부분을 암해하는것을 어떻게 용인할수 있겠는가?

하나의 공통적인 총로선이 있다면 이러한 동요정책을 용인할수 있겠는가?

만일 로선이 하나이라면 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총로선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1월 30일부 부하린의 선언서는 어디서 나올수 있었겠는가?

만일 로선이 하나이라면 (ㄱ) 농민에 대한 군사적봉건적착취정책; (ㄴ) 관료주의의 부식정책, (ㄷ) 국제공산당을 해체시키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당을 몰렴치하고 란폭하게 모욕하고 비난한 2월 9일부 3인조(부하린, 릐꼬브, 똠스끼)선언서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혹시 이 선언서들은 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였는가? 혹시 이 선언서들이 지금에 와서는 잘못된것으로 인정되였는가? 혹시 릐꼬브, 부하린 및 똠스끼는 의심할바없이 오유적인 이 반당적선언서들을 철회하는데 동의하였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야 할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의 로선은 하나이며 우리들사이에는 다만 리해하는 면에서 사소한 차이가 있을뿐이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그러나 부하린, 릐꼬브와 똠스끼의 연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그들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이 선언서들에 진술되여있는 자기들의 견해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언명하면서 앞으로도 자기들의 선언서를 철회하지 않으려고 하고있다.

이렇다면 하나의 공통적인 총로선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만일 로선이 하나이고 이 당의 로선이 부하린집단의 견해대로 농민에 대하여 군사적봉건적착취정책을 실시하는것이라

면 부하린, 뢰교브와 똠스끼는 파연 이 파멸적인 정책과 투쟁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이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것인가? 이것이야말로 허튼소리이다.

만일 로선이 하나이고 당의 이 로선이 부하린반대파의 견해대로 관료주의를 부식하는것이라면 뢰교브, 부하린과 똠스끼는 파연 이 관료주의와 투쟁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당내에 관료주의를 부식하려고 하는것인가? 이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한 말이다.

만일 로선이 하나이고 당의 이 로선이 부하린반대파의 견해대로 국제공산당을 해체시키는것이라면 뢰교브, 부하린과 똠스끼는 파연 이 국제공산당을 해체시키는 정책과 투쟁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국제공산당을 해체시키려고 하는것인가? 어떻게 이와 같은 황당한 말을 믿을수 있겠는가?

아니다, 동지들! 우리에게 하나의 공통적로선이 있다고 한 뢰교브의 성명에는 그 어딘가 상서롭지 못한데가 있다. 어쨌든 우리가 방금 우에서 말한 부하린집단의 선언서와 행동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본다면 하나의 공통적인 로선이 존재한다는 견해는 성립될수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

만일 로선이 하나라면 부하린, 뢰교브와 똠스끼의 사직정책은 어디서 나왔는가? 공통적인 총로선이 있는 정황하에서 정치국위원들의 일부가 반년동안이나 계속하여 당내에서 사업을 태공하면서 당중앙위원회의 루차의 결의를 실행할것을 일관적으로 거부하여왔다는것을 그래 상상할수 있단말인가? 만일 우리에게 확실히 공통적인 하나의 총로선이 있다면 일부 정치국위원들이 극력 실시하고있는 이 와해적인 사직정책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겠는가?

우리 당의 력사에는 사직정책을 실시한 실례들이 있다. 례를 들면 다 아는바와 같이 10월혁명후의 이틀날에 까메네브

와 지노비예브를 선두로 하는 부분적동지들이 당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포기하였던것이다. 그때 그들은 순 볼쉐위크적정부를 성립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던 우리 당 중앙위원회를 반대하여 멘쉐위크 및 사회혁명당원32들과 함께 련합정부를 성립할것을 자기들의 사직정책의 근거로 삼았다는것도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때의 이 사직정책에는 의미가 있었다. 왜냐 하면 이 사직정책은 부동한 두개의 로선—그 하나는 순 볼쉐위크적정부를 성립하자는 로선이였고 다른 하나는 멘쉐위크 및 사회혁명당원들과 함께 련합정부를 성립하자는 로선이였다.—의 존재를 그 근거로 삼고있었기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명백하고도 알만한 일이였다. 그러나 지금 부하린반대파가 한편으로는 총로선이 일치하다고 언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0월혁명시기의 지노비예브와 까메네브에게서 따온 사직정책을 실시하고있는 여기에는 아무러한 론리도 없는것이다.

둘중의 하나이다. 즉 로선이 하나라면 부하린과 그의 동료들의 사직정책은 리해할수 없고 해석할수 없는것이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로선이 둘이 있다면 사직정책은 충분히 리해할수 있고 해석할수 있는것이다.

만일 로선이 하나라면 정치국내의 3인조(리꼬브, 부하린과 똠스끼)가 정치국에서 5개년계획과 농민문제에 관한 기본테제들을 채택할 때에 자기들이 기권할수 있다고 생각한 그 사실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 누구에게 있어서나 총로선은 하나였는데 경제정책의 기본문제들에 대하여 일부 동지들이 기권할수 있었다는것은 과연 있을수 있는 일인가? 아니다, 동지들, 그러한 괴상한 일은 이 세상에는 없다.

끝으로 만일 로선은 하나인데 우리가 리해하는데 사소한 차이가 있었을뿐이라고 한다면 왜 부하린반대파동지들(부하

린, 릐꼬브와 똠스끼)은 금년 2월 7일 정치국위원회가 그들에게 제기한 타협방안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하지 않았는가? 이 타협방안이 부하린집단에게 그들이 저절로 빠져들어간 함정속에서 벗어져나올수 있는 완전한 출로를 주었다는것이 과연 사실이 아니였던가?

금년 2월 7일에 중앙위원회의 대다수가 제의하였던 그 타협방안원문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내부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판명되였다.

(1) 부하린은 까메네브와의 담판이 정치적오유였다는것을 승인한다.

(2) 부하린은 1929년 1월 30일부의 자기의 〈성명〉에서 중앙위원회는 사실에 있어서 〈농민에 대하여 군사적봉건적착취〉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위원회는 국제공산당을 해체시키고있으며 당내에 관료주의를 부식시키고있다고 주장한 이 모든것은 치열한 론쟁가운데서 흥분되여 말한것이며 더는 이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이 문제들에서 중앙위원회와 의견상이가 없다는것을 승인한다.

(3) 부하린은 이에 근거하여 정치국내에서 일심협력하여 사업할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승인한다.

(4) 부하린은 〈쁘라우다〉4와 국제공산당에서의 자기의 사직을 단념한다.

(5) 그러므로 부하린은 1월 30일부의 자기의 성명을 철회한다.

상술한 정황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정치국과 중앙검열위원회 상무위원회 련석회의에 부하린의 오유를 정치적으로 평가한 결의초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현유의 모든 문건들(연설, 속기록 등등.)을 취소할것을 정치국 및 중앙검열위원회 상무위원회 련석회의에 제의한다.

위원회는 부하린이 〈쁘라우다〉지 주필 및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비서의 직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해줄것을 정치국과 중앙검열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제의한다.》

만일 우리의 로선이 정말 하나이고 우리들사이에 리해하는 면에서 사소한 차이밖에 없다고 한다면 부하린과 그의 벗들은 왜 이 타협방안을 거부하였는가? 부하린과 그의 벗들은 정치국에서 그들에게 제기한 이 타협방안을 애써 틀어쥠으로써 당내의 긴장한 국면을 없애고 정치국내에서 일심협력하여 사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것이였다는것이 과연 리해하기 어렵단말인가?

당의 통일에 대하여 론의되고있으며 정치국내에서의 집체적사업에 대하여 론의되고있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을 원하며 집체적사업을 존중하는자라면 이 타협방안을 접수하여야 하였을것이 그래 명백하지 않단말인가? 부하린과 그의 벗들은 왜 이 타협방안을 거부하였는가?

만일 우리의 로선이 하나였다면 2월 9일부의 3인조의 선언서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것이며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제기한 타협방안에 대한 부하린과 그의 벗들의 거부도 없었을것은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아니다, 동지들, 이상에서 말한 사실들을 보면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로선이 존재한다는 견해는 성립될수 없는것이다.

이리하여 우리에게는 사실상 하나의 로선이 있는것이 아니라 두개의 로선이 있는바 그중 하나는 중앙위원회의 로선이며 다른 하나는 부하린집단의 로선인것이다.

릐꼬브가 자기의 연설에서 우리의 총로선은 하나라고 성명한것은 거짓말이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당의 로선과는 다른 자기의 로선을 은폐하여가지고 암암리에 당의 로선을 파괴하려고 하였던것이다. 기회주의정책이란 바로 의견상이를 말살하며 당내실정을 덮어감추며 자기자신의 립장을 은폐함으로써 당으로 하여금 문제를 완전히 명백하게 판별할수 없게

하는데 있는것이다。

무엇때문에 기회주의는 이와 같은 정책을 요구하는가? 로선이 일치하다는 공담으로써 자신을 엄호하여가지고 실제에 있어서는 당의 로선과는 다른 자기자신의 로선을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것이다。 릐꼬브는 이번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련석전원회의에서 한 자기의 연설에서 이와 같은 기회주의적견해를 취한것이다。

레닌동지가 자기의 한 론문에서 기회주의자일반에 대하여 내린 평가를 들어보는것이 어떻겠는가? 그 평가가 우리에게 대하여 중요한것은 그것의 일반적의의때문에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릐꼬브에게 완전히 적용되기때문이다。

레닌은 기회주의 및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회주의와의 투쟁에 관하여 말할 때 모든 분야에서의 전체 현대기회주의의 특징, 즉 애매성, 모호성,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기회주의자는 그 본성자체로 해서 언제나 문제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제기하는것을 피하고 합성력을 찾으며 서로 배척하는 견해들사이에서 감돌아치며 어느 편에나 다 〈찬동〉하려 하며 자기의 다른 의견을 사소한 수정, 의문, 착하고 친진한 소원 등등에 귀결시키려 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6권, 320페지)①

바로 이러한것이 명확성과 확정성을 두려워하며 사물의 진상을 덮어감추려 하며 당내의 실제적의견상이를 말살하려는 기회주의자의 면모이다。

그렇다, 동지들, 현실이 아무리 불쾌하다 할지라도 현실을 바로볼줄 알아야 한다。 참말이지 우리는 결코 진실 공포증에 감염되여서는 안될것이다。 볼쉐위크들이 다른 모든 정당들

① 《레닌선집》, 제1권, 660페지를 보라。—편집자

과 다른 점은 그들이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실을 정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있다. 그런데 지금의 진실은 우리에게 사실상 하나의 공통한 로선이 없다는것이다. 하나의 로선은 당의 로선이며 혁명적레닌적로선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또 하나의 로선, 즉 반당적선언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사직하는 방법으로, 당을 중상하는 방법으로 암암리에 당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반당적련맹을 조직할 목적으로 어제의 뜨로쯔끼분자들과 비밀리에 담판하는 방법으로 당의 로선을 반대하는 부하린집단의 로선이 있다. 이 둘째 로선은 기회주의로선이다.

이것은 그 어떠한 외교적언사로써도, 유일한 로선이 있다는 그 어떠한 교활한 성명 등등으로써도 덮어감출수 없는 사실인것이다.

2
계급적변동과 우리의 의견상이

우리의 의견상이는 어디에 있으며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여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최근에 우리 나라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일어난 계급적변동의 문제와 관련되고있다. 어떤 동지들은 우리 당내의 의견상이는 우연성을 띠고있다고 생각하고있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지 못하다. 우리 당내의 의견상이는 최근에 일어나고있으며 또한 그 발전에 있어서 전환을 일으키고있는 계급적변동과 계급투쟁의 첨예화의 기초우에서 발생한것이다.

부하린집단의 주요한 오유는 그들이 이 변동과 이 전환을

보지 못하며 그것을 보지 못할뿐만아니라 보려고도 하지 않는데 있다.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그들은 당과 국제공산당의 새 과업들에 대하여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몰리해는 부하린반대파의 특징을 이루는것이다.

동지들, 여러분은 부하린반대파의 지도자들이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련석전원회의에서 진술한 연설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적변동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회피하였으며 계급투쟁의 첨예화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의견상이는 바로 이 계급투쟁의 첨예화와 관련되여있다는데 대하여서는 추호의 암시조차도 하지 않았다는것을 느꼈는가? 그들은 모든것에 대하여서 즉 철학에 대하여서도, 리론에 대하여서도 말하였으나 현시기에 우리 당의 방침과 실제사업을 규정하여주는 그 계급적변동에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무엇때문에 이와 같은 괴상한 일이 생기게 되는가? 건망증에서일가? 물론 아니다! 정치가는 주요한것을 잊을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 나라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지금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혁명과정을 보지 못하며 또한 리해하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주요한것을 홀시하였으며 정치가로서 홀시하여서는 안될 계급적변동을 홀시하였기때문이다.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부하린반대파는 우리 당의 새 과업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어찌할 방책이 없어 옴짝달싹못한것이다.

우리 당내에 있은 최근의 사건들을 상기하여보라. 우리 나라에서의 새로운 계급적변동들과 관련하여 당이 최근에 내세운 구호들을 상기하여보라. 나는 다음과 같은 구호들, 즉 자기비판의 구호, 관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며 또 쏘베트기관을 청결하자는 구호, 새로운 경제사업간부들과 붉은 전문가

들을 양성하자는 구호, 집단농장과 국영농장 운동을 강화하자는 구호, 부농들에 대한 진공의 구호, 생산물원가인하와 직업동맹의 실제사업을 철저히 개선하자는 구호, 당을 순결화하자는 구호 등등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어떤 동지들에게는 이 구호들이 놀랍고도 현기증이 날만한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 구호들이 현시기에 있어서 당에 가장 필요하고 또한 절박한 구호들이라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가 샤흐띄사건2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제사업간부들에 대한 문제, 낡은 전문가들을 교체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출신의 붉은 전문가들을 양성할데 대한 문제를 새로 제기한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샤흐띄사건과 관련하여 무엇이 명백하여졌는가? 자산계급이 아직도 채 소멸되지 않았다는것, 그들은 우리의 경제건설에 대하여 암해활동을 조직하고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조직하리라는것, 우리의 경제기관, 직업동맹기관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당조직들이 우리의 계급적적들의 파괴활동을 홀시하였다는것,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힘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의 조직을 공고히 하고 개선하며 우리 조직의 계급적경각성을 높이고 강화하여야 한다는것 등이 명백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비판**의 구호에 관한 문제가 날카롭게 제기되였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폭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기관들의 사업을 대중의 감독하에 두지 않고서는 우리의 경제기관, 직업동맹기관, 당조직들을 개선할수 없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사업과 자산계급의 암해활동을 제지하는 사업을 추진시킬수 없기때문이다. 그런데 암해활동은 탄광구역들에서만 발생한것이 아니라 금속생산분야에서도, 군수공업분야에서도, 교통인민위원부내에서도, 산금공업 및 백금공업과 기타 등등에서도 발생하였으며

또한 계속하여 발생하고있다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기비판의 구호를 제기하였던것이다.

다음으로, 곡물수매에 난관들이 있고 쏘베트의 가격정책을 반대하는 부농들의 진출이 있기에 우리는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치중하여 발전시키며 또 부농을 공격하며 부농과 부유한 분자들에 대한 억압의 수단으로써 곡물수매를 조직하는 문제를 날카롭게 내세웠다.

곡물수매상에서의 난관들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그것은 부농이 졸고있는것이 아니라 자라고있으며 그들은 쏘베트정권의 정책을 반대하여 파괴적활동을 조직하고있는데 우리의 당조직, 쏘베트기관, 협동조합기관들은—어쨌든 그 기관들의 일부분은—적을 보지 못하고있거나 그 적과 투쟁하는것이 아니라 그에 순응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므로 자기비판의 구호와 우리의 당조직, 협동조합기관 및 일반적으로 수매기관들을 검열하며 또 개선하자는 구호가 새로이 날카롭게 제기된것이다.

그다음으로, 사회주의의 토대우에 공업과 농업을 개조하는 새로운 과업들이 제기된것으로 하여 생산물의 원가를 부단히 인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경쟁을 전개하자는 등등의 구호가 제기되였다. 이러한 과업들은 직업동맹과 쏘베트기관의 모든 실제사업을 재검토하여 그 기관들을 근본적으로 활약시키며 이 기관들로부터 관료주의분자들을 숙청하여낼것을 요구하였다.

이때문에 직업동맹 및 쏘베트기관에 있는 관료주의를 반대하자는 구호가 날카롭게 제기되였던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을 순결화할데 관한 구호문제가 있다. 당자체를 날카롭게 만들어놓지 않고서 우리의 쏘베트기관, 경제기관, 직업동맹기관, 협동조합기관들을 튼튼히 할수 있다든가

또 이런 기관들에서 관료주의의 오물을 깨끗이 제거해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관료주의분자들이 경제가관, 협동조합기관, 직업동맹기관 및 쏘베트기관들에 존재하고있을뿐만아니라 당자체의 기관내에도 존재하고있다는것은 추호도 의심할바없는것이다. 당이 이 모든 기관들의 지도적력량인 이상 당을 순결화하는것이 로동계급의 모든 기타 단체들을 철저히 활기있게 하고 또 개선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으로 된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때문에 당을 순결화하자는 구호가 제기된것이다.

이 구호들은 우연한것인가? 아니다.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 구호들이 우연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당신들은 보아낼수 있을것이다. 이 구호들은 자본주의분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의 진공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의 전일적인 련쇄의 불가결의 고리를 이루고있는것이다.

이 구호들은 우선 우리 나라의 공업과 농업을 사회주의의 토대우에서 개조하는 시기와 관련되여있다. 그런데 인민경제를 사회주의의 토대우에서 개조한다는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회주의가 인민경제가운데에 있는 자본주의분자들을 반대하여 전반 전선에 걸쳐 진공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사회주의건설면에로 내디딘 매우 중대한 전진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조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경제, 쏘베트와 직업동맹 및 당과 협동조합 기관의 사회주의건설간부들을 제고하고 강화하여야 하며 우리의 모든 조직들을 날카롭게 만들어놓아야 하며 이 조직들에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해야 하며 수백만 로동계급과 농민대중의 적극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이 구호들은 사회주의의 진공에 대하여 인민경제내의 자본주의분자들이 반항하는 사실과 관련되여있다. 이

른바 샤흐띄사건을 절대 우연한것으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샤흐띄분자》들은 지금 우리 산업의 모든 부문에 박혀있다. 그들중에서 많은자들이 체포되였으나 아직 모조리 잡아내지는 못하였다. 자산계급지식인들의 암해활동은 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가장 위험한 반항형태의 하나이다. 이 암해활동은 국제자본과 직접 련계를 가지고있기때문에 더욱 위험한것이다. 자산계급의 암해활동은 자본주의분자들이 무기를 버리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는것, 그들이 쏘베트정권을 반대하여 재로 진출하기 위한 힘을 축적하고있다는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실증하여준다.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을 놓고 말한다면 벌써 일년이 넘도록 계속된, 쏘베트의 가격정책을 반대하는 부농들의 진출은 더구나 우연한것으로 인정할수 없는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때문에 부농들이 1927년이전까지는 자발적으로 곡물을 내놓았으나 1927년이후에는 자발적으로 곡물을 내놓지 않는가 하는것을 지금까지도 해석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이상할것 없다. 만일 이전에는 부농이 아직도 비교적 연약하였고 자기의 경영을 확립할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였고 자기의 경영을 튼튼히 할만한 자본을 넉넉히 가지지 못하였기때문에 그는 할수없이 자기의 전부 혹은 거의 전부의 여유량곡을 시장으로 내여가지 않을수 없었으나 여러해동안 풍년을 이루어 경제적으로 자리가 잡히였고 필요한 자본을 축적한 지금에 와서는 그들은 시장에서 수단을 부릴 가능성을 얻었으며 육류, 귀밀, 보리 및 기타의 부차적인 농산물을 시장으로 내싣는것을 낫게 여기며 보배중의 보배라고 할수 있는 곡물은 자기의 예비로 따로 저장해둘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다. 지금에 와서 부농들이 자진하여 곡물을 내놓기를 바라는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여기에 곧 현재 부농들이 쏘베트정권의 정책을 반대하는 근원이 있는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진공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 분자들의 반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새것을 반대하고 낡은것을 고수하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는, 무산계급의 계급적적들의 력량의 재편성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계급투쟁의 첨예화를 일으키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계급적적들의 반항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닦아놓기 위하여서는 다른 모든 방법이외에 또한 우리의 모든 조직들을 날카롭게 하며 이 조직들에서 관료주의를 제거하고 이 조직들내의 간부들을 제고시키며 아울러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을 반대하여 천백만 로동계급대중과 농촌근로자계층의 대중을 동원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계급적변동의 기초우에서 우리 당의 현재의 구호들이 나오게 된것이다.

자본주의국가의 계급적변동에 대하여서도 역시 이렇다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만일 자본주의의 안정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스운 일이다. 만일 안정이 날로 공고하여지고 날로 견고하여진다고 단언한다면 그것은 더욱 우스운 일이다. 사실상 자본주의의 안정은 날이 가고 달이 바뀜에 따라서 파괴되며 동요되고있다. 국외시장 및 원료를 위한 투쟁의 첨예화, 군비의 확장, 미국과 영국간의 대항적모순의 증대, 쏘련사회주의의 장성, 자본주의국가의 로동계급의 좌익화,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의 파업과 계급적박투의 도래, 인도까지 포함한 식민지들에서의 혁명운동의 장성,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의 공산주의의 장성—이 모든것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의 요소들이 자라나고있다는것을 의심할바없이 말하여준다.

이로부터 자본주의의 사회적지주인 사회민주당과 더우기 그들의 《좌》익과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과업이 나온것이다.

이로부터 공산당내에서 사회민주당의 영향의 앞잡이인 우익분자와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과업이 나온것이다.

이로부터 공산당내에서의 기회주의의 피신처인 우익적융화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과업이 나온것이다.

이로부터 공산당내에서의 사회민주당의 전통을 제거하여야 할 구호가 나온것이다.

이로부터 직업동맹내에서의 공산주의의 이른바 새 전술이 나온것이다.

일부 동지들은 이 구호들의 의의와 역할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는 이 구호들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무산계급대중에게 새로운 계급투쟁의 준비를 시킬수 없다는것, 사회민주당을 타승할수 없다는것,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로동계급을 인도할 능력이 있는 공산주의운동의 진정한 수령을 선발하여낼수 없다는것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동지들, 이것이 곧 우리 나라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일어난 계급적변동이다. 이 계급적변동의 토대우에서 우리 당의 국내정책과 국제공산당에 대한 우리 당의 현재의 구호들이 나온것이다.

우리 당은 이 계급적변동을 보고있다. 우리 당은 새 과업의 의의를 리해하며 또 그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력량을 동원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사변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곤난을 극복할 준비를 갖추고있기때문에 그의 앞에 놓여있는 곤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하린집단의 불행은 그들이 이런 계급적변동을 보지 못하며 당의 새로운 과업을 리해하지 못하는데 있다. 그들이 당의 새로운 과업을 리해하지 못하기때문에 언제나 당황망조하

며 곤난을 도피하려 하며 곤난앞에서 물러서려고 하며 진지를 내줄 작정을 하고있는것이다.

여러분은 예니쎄이와 같은 큰 강에서 폭풍우를 만난 어부를 본적이 있는가? 나는 그것을 본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폭풍우를 만난 어떤 어부들은 자기들의 모든 힘을 동원하고 자기의 동료들을 고무하여 《여보게들, 키를 단단히 잡고 파도를 헤치고 나아갑세. 우리는 이겨낼것이네!》라고 하면서 폭풍우를 맞받아 용감하게 배를 저어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어부들은 폭풍우가 닥쳐오는것을 느끼자 락심하여 비탄하기 시작하며 자기 대오의 의지를 저락시키면서 《어허, 큰일났다. 폭풍우가 닥쳐온다. 다들 선창밑에 엎드려 눈을 감으라. 행여나 강변으로 밀려나가겠는지》라고 한다.(만장의 웃음소리)

부하린집단의 방침과 행동이 곤난앞에서 황겁히 물러서는 둘째 어부들의 방침 및 행동과 꼭같다는것을 더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구라파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의 조건들이 성숙되고있으며 이런 정형은 우리에게 공산당내의 우익적편향과의 투쟁을 강화하며 당내에서 우익분자들을 내쫓으며 또 우익적편향을 엄호하여주는 융화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며 공산당내의 사회민주주의적전통과의 투쟁을 강화하는 등등에 대한 새 과업을 내세우게 하였다고 말하는것이다. 그런데 부하린은 이 모든것은 다 빈말이며 우리에게는 그러한 새 과업이라고는 근본적으로 없으며 실제에 있어서 문제는 중앙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이 그를 즉 부하린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려는데》 있는것이라고 우리에게 대답하고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계급적변동은 우리에게 생산물의 원가를 계속 인하하며 또 기업소들에서 로동규률을 강화할것을

요구하는 새 과업을 제기하였다는것, 그리고 이 과업의 수행은 직업동맹의 모든 실제사업을 근본적으로 개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것을 말한다. 그런데 똠스끼는 이 모든것은 다 빈말이며 우리에게는 이러한 새 과업이 근본적으로 없으며 실제에 있어서 문제는 중앙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이 그를, 즉 똠스끼를《악의적으로 공격하려는데》있는것이라고 우리에게 대답하고있다.

우리는 인민경제의 재건은 우리에게 쏘베트기관과 경제기관내의 관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며 이런 기관내의 부패분자, 이색분자와 파괴분자들을 숙청하는 등등의 새 과업을 제기하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뢰꼬브는 이 모든것은 다 빈말이며 우리에게는 그러한 새 과업이라고는 근본적으로 없으며 실제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이 그를, 즉 뢰꼬브를《악의적으로 공격하려는데》있는것이라고 우리에게 대답하고있다.

동지들, 이것이 그래 가소롭지 않단말인가? 부하린, 뢰꼬브, 똠스끼는 자기들의 배꼽이외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단말인가?

부하린집단의 불행은 그들이 새로운 계급적변동을 보지 못하며 당의 새 과업을 리해하지 못한데 있는것이다. 바로 그 집단이 이 과업을 리해하지 못하고있었으므로 그들은 하는수 없이 사건의 뒤꼬리를 따라가게 되며 또한 곤난앞에서 굴복하게 되는것이다.

여기에 곧 우리의 의견상이의 근원이 있는것이다.

3

국제공산당의 로선에 관한 의견상이

부하린이 성숙되여가는 새로운 혁명적앙양의 조건들로 하여 생기는 새 과업, 즉 공산당내에서 우익분자들을 몰아내며 융화주의를 제어하며 공산당내에서 사회민주주의적전통을 청소함에 관한 국제공산당의 새 과업들을 보지 못하며 리해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나는 우에서 이미 말하였다. 국제공산당의 문제들에서의 우리의 의견상이는 이런 정황을 완전히 확인하였다.

이 방면에 있어서의 의견상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였는가?

문제는 국제공산당 제6차대회33에서의 국제정세에 대한 부하린의 테제로부터 시작되였다. 테제는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에서 미리 심사하는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조건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부하린이 서명한 테제가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에 회부된 동시에 제6차대회 외국대표들에게도 발송되였다. 그러나 테제중의 많은 조항은 불만족스러운것이였다.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은 이 테제에 약 20개소나 수정을 가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런 정형은 부하린의 처지를 약간 거북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였던가? 무엇때문에 부하린은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이 그 테제를 검토하기도전에 그것을 외국대표단들에게 배부하였는가? 테제가 불만족한것인 이상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은 그것을 수정하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그리하여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으로부터는 국

제정세에 대한 사실상 새로운 테제가 제출되였고 외국대표단들은 그것을 부하린이 서명한 이전테제와 대치시켜보기 시작하였다. 만일 부하린이 외국대표단들에게 자기의 테제를 급급히 배부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거북한 일이 없었으리라는것은 명백하다.

나는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의 대표단이 부하린의 테제에 가한 네개의 기본적인 수정을 지적하려 한다. 나는 국제공산당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상이의 성격을 더욱 똑똑히 하기 위하여 이 몇개의 기본적인 수정을 지적하려 한다.

첫째 문제는 자본주의의 안정의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부하린의 테제에 의하면 당면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안정을 동요시키는 아무런 새로운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와 반대로 자본주의는 개조되고있으며 기본상에서 상당히 튼튼해지고있다는것이다.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이 소위 제3시기에 대하여, 즉 우리가 지금 처하고있는 이 시기에 대하여 이와 같이 평가한다면 이에 동의할수 없었던것은 매우 명백한 일이다. 대표단이 이에 동의할수 없었던것은 제3시기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를 보류하는것은 소위 자본주의가 《건실하여진다》는 견지에, 즉 힐페르딩의 견지에, 우리 공산당원들이 채용하지 말아야 할 견지에 우리가 뭡각한다고 말할 구실을 우리의 비판자들에게 줄수 있었기때문이다. 이렇기때문에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은 이에 수정을 가하게 되였다. 이 수정에서 자본주의적안정은 공고하지 못하고 또한 공고하게 될수도 없으며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첨예화됨으로써 그 안정은 제 사변의 진전에 따라 동요되고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동요되리라는것을 볼수 있다.

동지들, 이 문제는 국제공산당의 각 지부에 대하여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자본주의적안정이 동요하고있느냐

혹은 공고해지고있느냐 하는 이 점에 의하여 공산당의 일상적인 정치사업에서의 모든 방침이 결정되는것이다. 우리가 오늘 혁명운동의 쇠퇴기, 즉 단순한 력량집결시기에 처하여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혁명적앙양의 조건이 날로 높아지는 시기, 즉 로동계급이 곧 닥쳐올 계급적전투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기에 처하여있는가 하는 이 점에 의하여 공산당의 전술적방침이 결정되는것이다.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에 의하여 제기되였고 그후에 대회에서 채납된 수정이 좋다는것은 둘째 전망, 즉 새로운 혁명적앙양의 조건들이 장성할 전망에 대하여 명확한 목표를 주었기때문이다.

둘째 문제는 사회민주당과의 투쟁에 관한 문제이다. 부하린의 테제에는 사회민주당과 투쟁하는것은 국제공산당 각 지부의 기본적임무의 하나라고 론술되였다. 이것은 물론 옳은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민주당을 반대하는 투쟁이 성과있게 전개되게 하려면 사회민주당의 소위 《좌》익, 즉 《좌익적》언사를 쓰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로동자대중을 교묘하게 기만하여 그들이 사회민주당에서 떨어져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좌》익과 투쟁하는 문제를 강조하여야 할것이다. 《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사회민주당을 타승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린의 테제에는 《좌》익사회민주당에 대한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물론 큰 결함이다. 그러므로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은 그후 대회에서 채택된바와 같이 부하린의 테제에 적당한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셋째 문제는 국제공산당 각 지부내에 있는 융화주의에 대한 문제이다. 부하린의 테제에는 우익적편향과 투쟁할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언급되여있지만 우익적편향에 대한 융화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언급되여있지 않았

다. 이것은 물론 큰 결함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익적편향에 대하여 선전포고할 때 우익분자들은 항상 융화분자로 가장하여 당을 곤난한 처지에 빠지게 하기때문이다. 우익분자들의 이런 기만책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융화주의와 견결히 투쟁할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은 그후에 대회에서 채택된바와 같이 부하린의 테제에 적당한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넷째 문제는 당의 규률에 관한 문제이다. 부하린의 테제에는 공산당내에서 철같은 규률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하여 제기하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작지 않은 결함이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우익적편향과의 투쟁을 강화하는 시기에, 공산당내에서 기회주의분자를 숙청하자는 구호를 실천하는 시기에 우익분자들은 늘 분파를 조직하며 그들자신의 분파적규률을 꾸며내여 당의 규률을 위반하고 파괴하기때문이다. 당이 우익분자들의 분파적습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철같은 규률에 대한 문제와 당원들이 이 규률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야 할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지 않고서는 우익적편향과의 진지한 투쟁이란 운운할 여지도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은 그후에 제6차대회에서 채택된바와 같이 부하린의 테제에 적당한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가 부하린의 테제에 대하여 이와 같은 수정을 가하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그럴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옛날에 사람들은 철학가 플라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우리는 플라톤을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더 사랑한다. 부하린에게 대하여서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할수 있을것이다. 즉 우리는 부하린을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당을, 국제공산당을 더 사랑한다. 그러므로 전련맹공산당(볼

쉐위크)대표단은 부하린의 테제에 대하여 이런 수정을 가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국제공산당의 제 문제에 관한 우리의 의견상이의 첫째 단계이다.

우리의 의견상이의 둘째 단계는 소위 위토르프와 텔만의 사건과 관련된것이다. 위토르프는 당의 경비를 람용한데서 출당당한 함부르그당단체의 전임비서이다.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내의 융화파들은 비록 텔만동지가 위토르프의 범죄와는 아무러한 관계도 없었지만 위토르프가 텔만동지와 친근하다는 것을 리용하여 위토르프사건을 텔만사건으로 전화시키고 독일공산당지도부를 전복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융화파인 에웨르트와 게르하르트가 그때에 텔만동지를 반대하여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을 일시 자기들 편으로 끌게 되였던 것을 여러분은 아마도 출판물보도에서 이미 알고있을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되였는가? 그들은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에 알리지도 않고 또 그의 승낙도 없이 텔만동지를 지도부에서 제거하였으며 그가 매수되였다고 비난하였으며 그리고 《해당》한 결의를 공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융화주의와 투쟁할데 대한 국제공산당 제6차대회의 지시를 집행할 대신에, 우익적편향 및 융화주의와 투쟁할 대신에 사실에 있어서는 그 지시를 극히 란폭하게 위반하였으며 독일공산당의 혁명적지도부와 투쟁하였으며 텔만동지와 투쟁하였으며 그리하여 독일공산주의자들의 대렬안에 있는 우익적편향을 **엄호하고** 융화주의의 지위를 **확립케** 하였다.

그런데 부하린은 키를 돌려 정세를 바로잡을 대신에, 제6차대회의 지시가 위반된것을 바로잡을 대신에, 융화파들에게 경고를 줄 대신에 다 알고있는 자기의 편지에서 융화파들의

찬탈행위를 승인할것과 독일공산당을 융화파들의 수중에 넘겨주고 텔만동지의 죄파를 또다시 선포함으로써 한번 더 출판물을 통하여 비난할것을 제의하였다. 이것이 소위 국제공산당의 《지도자》이다! 그래 세상에 이런 《지도자》도 있단말인가?

중앙위원회는 부하린의 제의를 토의하고 그것을 부결하였다. 이것은 물론 부하린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 누가 잘못이였던가? 제6차대회에서 결의를 채택한것은 그것을 위반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기 위하여서이다. 제6차대회가 독일공산당의 지도권을 텔만동지를 위수로 한 그의 기본적핵심의 수중에 보전하고 우익적편향 및 그에 대한 융화주의에 대하여 투쟁을 선포할것을 결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융화파인 에웨르트와 게르하르트가 이 결정을 뒤엎으려고 감히 생각했다면 부하린의 의무는 융화파들에게 독일공산당내의 지도권을 넘겨줄것이 아니라 경고를주어야 할것이였다. 이것은 제6차대회의 결정을 《망각한》 부하린의 잘못이다.

우리의 의견상이의 셋째 단계는 독일공산당내에 있는 우익적편향과의 투쟁에 관한 문제, 브란들레르와 탈하이메르의 분파조직을 분쇄하고 이 분파조직의 두목들을 독일공산당에서 출당시킨 문제와 관련되여있다. 이 근본적문제에 있어서 부하린과 그의 벗들의 《립장》은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가하기를 항상 회피한 거기에 있었다. 실제에 있어서 이것은 독일공산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부하린과 그의 벗들은 이것을 알고있으면서도 늘 이 일을 저애하면서 해당기관회의에 참가하는것을 항상 회피하였었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아마 국제공산당앞에서나 독일공산당내의 우경분자들앞에서나 모두 《결백한 군자》로 남아있으려 하였기때문이다. 《브란들레르와 탈하이메르를 공산당에서 출당시킨것은 부

하린파인 우리인것이 아니라 그들, 즉 중앙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이다.》라고 후에 말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소위 우익적위험파의 투쟁이다!

끝으로, **우리의 의견상이의 넷째 단계이다.** 이 단계는 노이만을 독일로부터 소환하라는것과 또 텔만동지가 마치 그의 어느 연설에서 제6차대회에서의 부하린의 보고를 비판했다고 해서 텔만동지에게 경고를 주자는것을 중앙위원회 11월전원회의25에 제기한 부하린의 요구와 관련되여있다. 우리는 부하린의 요구를 확증하는 문건을 아무것도 장악하지 못하였으므로 물론 부하린의 요구에 동의할수 없었다. 부하린은 노이만과 텔만을 공소하는 문건을 내놓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문건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문건 대신에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정치서기국에서 한 모두가 다 아는 윙베르-드로의 연설, 즉 그후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기회주의적연설로 판정된 그 연설을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 단원들에게 배부하였다. —부하린은 윙베르-드로의 연설을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 단원들에게 배부하여 그것을 텔만동지를 공소하는 재료로 소개하면서 노이만을 소환하며 텔만동지에게 경고를 주자는 자기의 요구가 정확하다는것을 증명하려고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는 이것으로써 자기자신이 윙베르-드로와 즉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가 그 립장을 기회주의적립장이라고 간주하는 윙베르-드로와 공동일치하다는것을 증명하였다.

동지들, 이것이 국제공산당에 대한 문제에서의 우리의 주되는 의견상이이다.

부하린은 우리가 국제공산당 각 지부에 있는 우익적편향 및 그에 대한 융화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독일공산당과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내에서 사회민주주의분자들과 그 전통을

청소해내며 공산당에서 브란들레르 및 탈하이메르 일파를 출당시키는것은 국제공산당을 《와해》시키고 국제공산당을 《멸망》시키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며 우익적편향 및 우익적편향에 대한 융화주의와 투쟁할 문제를 강조하는것은 국제공산당을 공고히 하며 국제공산당에서 기회주의자들을 청소해내며 그리하여 그의 각 지부를 볼쉐위크화하며 각국 공산당이 앞으로 닥쳐오는 혁명적투쟁에로 로동계급을 준비시키는것을 도와주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당은 그자체로부터 부패한것을 청소해냄으로써 튼튼해지기때문이다.

여러분이 보는바와 같이 이것은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위원들사이에 있는 단순한 견해상의 작은 차이인것이 아니라 국제공산당의 정책의 근본적문제에 있어서의 매우 중대한 의견상이인것이다.

4
국내정책의 로선에 관한 의견상이

나는 우에서 우리 나라의 계급적변동과 계급투쟁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부하린집단이 맹목중에 걸려 이 변동을 보지 못하며 당의 새 과업을 리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이로하여 부하린반대파는 경황실색하며 곤난을 두려워하며 곤난앞에 굴복하려 한다고 나는 말하였다.

부하린파의 이런 오유들이 하늘에서 떨어진것이라고 말할수 없다. 그와 반대로 이런 오유들은 이미 지나간 시기, 즉 인민경제의 부흥기라고 부르는 발전단계와 관련되여있다. 이 시기의 건설사업은 평화적으로,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진행되

였으며 지금 존재하고있는 그런 계급적변동도 아직 없었으며 오늘 보고있는 그런 계급투쟁의 첨예화도 아직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전시기, 즉 부흥기와 다른 새로운 발전단계에 처해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건설시기, 즉 사회주의의 토대우에서 전반 인민경제를 개조하는 시기에 처해있다. 이 새시기는 새로운 계급적변동과 계급투쟁의 첨예화를 일으키고있다. 이 시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투쟁방법을 취하고 우리의 력량을 재편성하고 우리의 모든 조직을 개선하고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부하린집단의 불행은 그들이 아직도 지나간 낡은 생활을 하면서 이 새시기의 특성을 보지 못하며 새로운 투쟁방법의 필요성을 리해하지 못하는데 있다. 이로부터 그들의 맹목증, 경황실색, 곤난앞에서의 당황증이 생긴것이다.

(1) 계급투쟁에 관하여

부하린집단의 이 맹목증과 경황실색의 리론적기초는 무엇인가?

이 맹목증과 경황실색의 리론적기초는 우리 나라 계급투쟁에 대한 문제에서 부하린이 고집하고있는 비맑스주의적인 오유적견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부농들이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는 부하린의 비맑스주의적리론과 무산계급독재의 조건하에서의 계급투쟁의 내막에 대한 몰리해를 두고 말하는것이다.

부하린의 《사회주의에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부농이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는 모두가 다 알고있는 구절을 여러번 인용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를 빼놓고 인용되였다. 나는 그 전문을 인용하려 한다. 동지들, 이것은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주의적리론으로부터 부하린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나갔는

가 하는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들어보라.

《우리의 농민협동조합의 기본적조직망은 부농식협동조합세포로써가 아니라 〈근로〉식협동조합세포로써 구성될것이다. 이 세포는 우리의 전 국가적기관의 체계에로 성장하며 따라서 사회주의적경제의 단일한 련쇄의 고리로 될것이다. 다른 한편 부농의 협동조합체들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은행 등등을 거쳐서 이런 체계에로 성장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이 협동조합체들은 레컨대 리권기업소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류체가 될것이다.》①

어떤 동지들은 부하린의 소책자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무엇때문에 리권소유자들에 대한 그 마지막구절을 빼놓군 하는지 모르겠다. 보건대 로지트는 부하린을 도울 생각으로 이것을 리용하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하린의 의도를 외곡한다고 앉은자리에서 소리쳤다. 그런데 이 인용문의 요점은 실로 리권소유자들에 관한 마지막 한구절에 있는것이다. 왜냐 하면 만일 리권소유자들이 부농들과 동일시되고 부농들이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고 하면 이로부터 어떤 결론이 나오겠는가? 이로부터는 단 한가지 결론, 즉 리권소유자들도 역시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는것, 즉 부농들뿐만아니라 리권소유자들도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는 결론이 나오는것이다.(만장의 웃음소리)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바로 이러하다.

로지트: 부하린은 《이류체》라고 말하고있다.

쓰딸린: 부하린은 《이류체》라고 말한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이류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부농들과 리권소유자들은 사회주의체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류체로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되는것이다. 부하린의 오유는 바로 부농들과 리권소유자들이 비록 《어느 정도까지는》 이류체이지만 사회주의에로 성장할수 있다고 인정한데 있는것이다.

부하린의 리론이 얼마나 황당한가를 보라.

도시와 농촌의 자본가, 부농과 리권소유자들은 모두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 —부하린은 이런 어리석은 말까지 하게 되였다.

아니다, 동지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회주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부하린자신이나 그런것을 가지라고 하라.

우리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지금까지 도시와 농촌의 자본가와 로동계급과의 사이에는 리해관계면에서 서로 조화될수 없는 대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있다.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주의적리론은 바로 이 토대우에 립각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지금 자본가가 사회주의에로 평화적으로 성장한다는 부하린의 리론대로 한다면 이 모든것은 뒤집혀져야 하며 착취자와 피착취자간의 서로 조화될수 없는 계급적리해관계의 대립이 없어지고 착취자들이 사회주의에로 성장하는것이다.

로지트: 그렇지 않다. 무산계급독재가 전제로 되여야 한다.

쓰딸린: 그러나 무산계급독재는 계급투쟁의 가장 날카로운 형태이다.

로지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쓰딸린: 그러나 부하린의 말에 의하면 자본가는 무산계급독재에로 성장할수 있다는것이다. 로지트, 당신은 어찌하여 이것을 리해하지 못하는가? 만일 도시와 농촌의 자본가가 무산계급독재의 체계에로 성장할수 있다면 누구를 반대하여 투쟁할것이며 누구를 반대하여 그 가장 날카로운 형태의 계급투쟁을 할것인가?

무산계급독재는 자본주의분자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며 자산계급을 진압하고 자본주의를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그런데 도시와 농촌의 자본가, 부농과 리권소유자들이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면 대체 무산계급독재가 그래도 필요한가?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어느 계급을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가?

로지트: 문제는 바로 부하린이 말하는 성장이 계급투쟁을 전제로 한다는 거기에 있다.

쓰딸린: 내가 보기에는 로지트는 부하린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맹세한것 같다. 그러나 그의 봉사는 곰의 봉사와 같다. 왜냐 하면 그가 부하린을 구하려 하던것이 사실에 있어서는 그를 여지없이 망쳐놓았기때문이다. 《친절한 곰은 원쑤보다도 더 위험하다.》[34]는 말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만장의 웃음소리)

둘중의 하나이다. 즉 자본가계급과 이미 정권을 장악하였고 자기의 독재를 세운 로동계급간에 서로 조화될수 없는 리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든가 아니면 이 리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든가이다. 그렇다면 계급적리해관계의 조화를 선포하는 그것뿐이다.

둘중의 하나이다. 즉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의 리론이든가 아니면 자본가들이 사회주의로 성장한다는 리론이다.

서로 조화될수 없는 계급적리해관계의 대립이든가 아니면 계급적리해관계의 조화에 관한 리론이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로 성장하며 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고 설교하는 브렌타노나 씨므니 웨브형의 《사회주의자》라면 리해할수도 있을것이다. 왜냐 하면 이런 《사회주의자들》은 사실에 있어서는 반사회주의자들이며 자산계급자유주의자들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맑스주의자가 되기를 원하면

서 그와 동시에 자본가계급이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는 리론을 설교하는 사람은 리해할수가 없는 일이다.

부하린은 자기의 연설에서 레닌의 한단락의 저명한 말을 인용하여 부농이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는 리론의 정확성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레닌이 말한것은 자기가 말한것과 같다고 억설하고있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레닌에 대한 란폭하고도 용서할수 없는 비방이다.

레닌의 말에서 인용한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물론 우리 쏘베트공화국에 있어서는 사회제도가 두 계급, 즉 로동자, 농민의 협력에 기초하여 있는데 오늘날에는 일정한 조건밑에서 〈네프만〉, 즉 자산계급도 이러한 협력에 참가하는것이 용허되여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405페지)①

여러분이 보는바와 같이 여기에는 자본가계급이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는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여기에서는 다만 우리가 《일정한 조건밑에서》 로동자와 농민의 협력에 네프만, 즉 자산계급도 참가하는것이 《용허되여있다》는것만을 말하였을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하여 네프만들이 사회주의에로 성장할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가? 물론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직 몰렴치한 사람들만이 레닌의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할것이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지금** 자산계급을 소멸하지 않으며 우리가 **지금**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밑에서 즉 무산계급독재의 법률—이 법률은 자본가들을 부단히 제한하며 인민경제생활에서 그들을 점차 몰아낸다.—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조건하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97페지를 보라. —편집자

에서 그들의 존재를 용허한다는것을 의미할따름이다.

격렬한 계급투쟁이 없이 자본가들을 몰아내며 자본주의의 뿌리를 뽑아버릴수 있을가? 아니다, 그럴수 없는것이다.

자본가들이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는 리론과 실천하에서 계급을 없앨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럴수 없는것이다. 그러한 리론과 실천은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주의적리론과 모순되므로 다만 계급을 키우며 영구화시킬따름이다.

그런데 레닌의 이 말은 완전히 무산계급독재하에서의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주의적리론에 립각하고있는것이다.

부농이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는 부하린의 리론과 격렬한 계급투쟁으로서의 독재에 관한 레닌의 리론과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여기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부하린은 무산계급독재하에서 계급이 소멸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계급투쟁이 반드시 **종식**되여야 하며 **청산**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레닌은 무산계급독재하에서 무산계급독재전보다 **더 격렬하여지**는 완강한 계급투쟁에 의하여서만 계급들이 소멸될수 있다고 가르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계급의 소멸은 오래고 곤난하고 완강한 **계급투쟁**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이 계급투쟁은 자산계급정권이 전복된후에, 자산계급국가가 파괴된후에, 무산계급독재가 수립된후에(낡은 사회주의와 낡은 사회민주주의의 속물들이 생각하는바와 같이) **소멸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그 형태가 달라질뿐 많은 점에 있어서 일층더 가렬하여지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315페지)①

계급의 소멸에 관하여 레닌은 바로 이와 같이 말하였다.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858페지를 보라. —편집자

무산계급의 격렬한 계급투쟁에 의한 계급의 소멸—이것이 바로 레닌의 공식이다.

계급투쟁의 소멸과 사회주의에로의 자본가들의 성장에 의한 계급의 소멸—이것이 바로 부하린의 공식이다.

이 두 공식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수 있는가?

부농이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는 부하린의 리론은 이렇듯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으로부터 리탈하였다. 그 리론은 강단사회주의35의 리론에 접근한것이다.

부하린과 그의 벗들의 모든 오유의 근원은 여기에 있다.

부농이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는 부하린의 리론은 그 리론자체가 부하린의 오유를 말하여주기때문에—말하였을뿐만아니라 교합쳤다.—더 길게 론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못한 말이다! 이 리론이 파묻혀있는 동안은 이 리론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지 않을수 있다. 각이한 동지들이 쓴 저술에는 별별 어리석은 말들이 다 나올수 있으니까! 우리는 최근까지 이러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정세는 변하였다. 최근 몇해동안에 활기를 띠게 된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적세력은 이 반맑스주의적리론으로 하여금 현실적인 성격을 띠게 하면서 이 리론을 고무격려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그것이 파묻혀있다고 말할수 없다. 지금 부하린의 이 괴이한 리론은 우리 당내의 우익적편향의 기발로, 기회주의의 기발로 되려 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리론을 홀시할수 없게 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당원동지들이 우익적편향과 투쟁하는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확하지 못하고 해로운 그 리론을 분쇄하여야 한다.

(2) 계급투쟁의 첨예화에 관하여

부하린의 첫째 오유로부터 생기게 되는 그의 두번째 오유

는 그가 계급투쟁의 첨예화에 관한 문제와 쏘베트정권의 사회주의적정책에 대한 자본주의적요소의 반항이 강화된다는 문제에 대하여 오유적인 비맑스주의적관점을 취한데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였는가? 자본주의적요소가 우리 경제의 사회주의적부분보다 더 급속하게 장성하고있기때문에 그들이 반항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파괴하고있다는 말인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뿐만아니라 자본주의적요소가 사회주의적요소보다 더 급속하게 장성한다는 말은 옳지 못하다. 만일 이 말이 옳다고 한다면 사회주의건설은 벌써 파멸의 지경에 처하였을것이다.

여기서 문제로 되고있는것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적요소들에 대하여 성과있게 진격하고있으며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적요소보다 더 급속하게 장성하고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본주의적요소의 비중이 저하되고있으며 또 자본주의적요소의 비중이 저하되고있기때문에 자본주의적요소는 치명적위험을 감촉하고 자기의 반항을 강화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적요소가 아직까지도 반항을 강화할수 있는것은 세계의 자본주의가 그들을 지지하여주고있기때문일뿐만아니라 또한 그들의 비중이 비록 저하되고있으며 그들의 상대적장성이 사회주의의 장성보다 저하되고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절대적장성이 진행되고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사회주의의 장성에 반항하기 위한 힘을 저축할 일정한 정도의 가능성을 그들에게 주기때문이다.

목전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목전의 이런 력량대비의 조건하에서 계급투쟁이 첨예화되고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적요소들의 반항이 강화되고있는것은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부하린과 그의 벗들의 오유는 바로 그들이 이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를 리해하지 못한데 있다. 그들의 오유는 그들이 계급투쟁의 첨예화를 여러가지 우연한 원인으로써, 말하자면 쏘베트기관의 《무용성》, 정책집행에서의 지방동지들의 《경솔성》, 령활성의 《결핍》, 《지나친 행위》 등등으로써 설명하려고 시도하면서 문제를 맑스주의적으로써가 아니라 속물적으로 취급하는데 있다.

그 례로, 계급투쟁의 첨예화에 관한 문제를 전혀 비맑스주의적으로 취급하는것을 보여주는 부하린의 《사회주의에로 가는 길》이란 소책자에서 한단락을 들어보자.

《농촌에서는 이곳저곳에서 계급투쟁이 이전과 같은 표현형태로 폭발되고있으며 그리고 이 첨예화는 대개 부농분자들에 의하여 야기되고 있다. 례를 들면 부농들이거나 혹은 남을 착취하여 부유해지며 또한 쏘베트정권기관에 기여든자들이 농촌통신원들을 사살한 이것은 계급투쟁의 가장 날카로운 표현형태이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 하면 가장 날카로운 투쟁형태는 폭동이기때문이다. —이.쓰딸린〕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들은 대개 지방쏘베트기관이 아직도 무력한 곳에서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이런 기관이 개선됨에 따라, 쏘베트정권의 모든 기층조직들이 강화됨에 따라, 또 농촌의 당조직과 공청동맹조직들이 개선되고 강화됨에 따라 이런 현상은 점점 적어질것이며 나중에는 자취를 감추게 될것이 아주 명백하다.》①

이리하여 계급투쟁의 첨예화는 기관, 즉 우리의 기층조직들이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연약한가 강유력한가 하는 기관의 성격상 원인들로써 설명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리하여 례를 들면 쏘베트정권에 대한 자산계급분자들의 반항형태이며 계급투쟁의 첨예화의 형태인 샤흐띄의 자산계급 지식분자들의 암해활동은 계급적세력의 호상관계로써, 사회주의의 장성으로써 설명되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관이 무용하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다는것으로써 설명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리하여 샤흐띄구역에서 대규모적인 암해활동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관이 좋았던것이 그후 대규모적인 암해활동이 생긴후에는 갑자기 우리의 기관이 무엇때문인지 아무데도 쓸수 없는것으로 되였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리하여 곡물수매사업이 저절로 진행되였고 또한 우리나라의 계급투쟁이 아직 특별히 첨예화되지 않았던 작년까지는 우리의 지방조직이 좋았으며 지어는 리상적이였던것이 부농들의 반항이 특히 날카로운 형태를 띠게 된 작년부터는 우리의 조직이 갑자기 좋지 못한것으로 되였고 아무데도 쓸수 없는것으로 되였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것은 해석이 아니라 해석에 대한 조롱이다. 이것은 과학인것이 아니라 마술이다.

이렇게 첨예화된 진정한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에 있다.

첫째, 우리는 전진하고있으며 우리는 진공하고있으며 공업과 농업에서의 사회주의적경제형태도 장성하고있으며 이런 장성에 동반하여 도시와 농촌의 일부분 자본가들이 상응한 배척을 받고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하는 레닌의 공식대로 살고있다. 즉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자본가들과 한차례 최후의 판가리싸움을 하여 우리가 그들을 타도하든가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타도하든가 하는 이것이 지금의 사태이다.

둘째, 자본주의분자들은 자진하여 무대에서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존의 마지막날이 닥쳐오고있음을 알고있기때문에 사회주의에 반항하고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반항할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당분간 반항할수 있는것은 그들의 비중이 저하되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절대적으로는 아직 장성하고있기때문이다. 즉 도시와 농촌의 소자산계

급은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자기들가운데서 날마다 시간마다 대소자본가들을 낳고있으며 그리하여 이 자본주의분자들은 자기의 생존을 고수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고있기때문이다.

사멸하여가는 계급이 자진하여 무대에서 물러나간 일은 력사상에 아직 없다. 사멸하여가는 자산계급이 자기의 생존을 고수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나머지 힘을 다 써보지 않은 그러한 일은 아직도 력사상에 없었다. 우리의 기층 쏘베트기관이 좋든나쁘든간에 우리의 전진과 우리의 진공은 어쨌든 자본주의분자들을 감소시키고 그들을 몰아내게 될것이며 그리고 그들, 사멸하여가는 계급들은 어쨌든 반항할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계급투쟁의 첨예화의 근원이 있다.

부하린과 그의 벗들의 오유는 그들이 자본가들의 반항의 중대를 자본가들의 비중의 장성과 동일시한데 있다. 그러나 이렇게 동일시하는데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근거가 없다는것은 자본가가 반항하는것은 결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졌다는것을 의미하지 않기때문이다. 실제는 이와 정반대이다. 사멸하여가는 계급이 반항하는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력량이 더 강하게 되였기때문인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그들보다 급속하게 장성하며 그들이 우리보다 갈수록 약화되여가기때문이다. 바로 그들이 갈수록 약화되여가기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존의 마지막날이 닥쳐온다는것을 감촉하고 모든 힘과 모든 수단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현 력사시기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의 첨예화와 자본가들의 반항의 원인이 있는것이다.

이러한 실제정세에서 당의 정책은 어떠한것이여야 하는가?

당의 정책은 반드시 로동계급과 농촌의 피착취대중을 각성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위하여 또 반항하는 계급적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위하여 그들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그들의 동원준비를 강화하는것이여야만 한다.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좋은 점의 하나는 그 리론이 무산계급독재의 적을 반대하여 로동계급을 쉽게 동원하는데 있다.

자본가가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는 부하린의 리론과 계급투쟁의 첨예화에 관한 부하린의 견해의 해독은 어디에 있는가?

그 해독은 그 리론이 로동계급을 마비시키며 우리 나라 혁명력량의 동원준비를 파괴하며 로동계급을 환산시키며 그리하여 쏘베트정권에 대한 자본주의분자들의 진공을 쉽게 하여주는데 있다.

(3) 농민에 관하여

부하린의 세번째 오유는 농민문제에 관한것이다. 다 알다싶이 농민문제는 우리의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농민은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 몇개 부동한 사회적집단 즉 빈농, 중농과 부농으로 구성되여있다. 물론 이 집단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같을수 없다는것은 뻔한 일이다. 로동계급의 **기둥**으로서의 빈농, **동맹자**로서의 중농, **계급적적**으로서의 부농—이것이 이 사회적집단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이 모든것은 명백한것이며 또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그러나 부하린은 이 문제를 좀 다르게 보고있다. 그가 농민을 특징지음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분화의 사실이 없어지고 몇개의 사회적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어디로인가 사라져버리고 다만 농촌이라는 하나의 회색반점만 남는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부농도 부농이 아니고 중농도 중농이 아니고 농촌에는 온통 빈궁만이 있다는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 자기

의 연설에서 바로 이렇게 말하였다. 즉 우리 나라의 부농을 부농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들은 가난뱅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중농은 중농에 비슷이나 한가? 그들은 굶주리는 가난뱅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하린은 이 자리에서 말하였다. 물론 농민에 대한 이런 견해는 레닌주의와는 상용될수 없는 근본적으로 그릇된 견해인것이다.

레닌은 개체농민을 **최후의 자본가계급**①이라고 말하였다. 이 명제는 옳은것인가? 그렇다, 의심할바없이 옳은것이다. 어째서 개체농민을 최후의 자본가계급으로 간주하였는가? 그것은 우리 나라의 사회를 구성하고있는 두 기본계급중에서 농민은 사적소유와 소상품생산을 경제적토대로 하고있는 계급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농민이 소상품생산을 하고있는 개체농민으로서 남아있는 한 그들은 자기들가운데서 항상 또한 끊임없이 자본가를 낳으며 또한 낳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로농동맹문제에 대한 우리의 맑스주의적태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농민과의 **온갖 종류**의 동맹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이 아니라 다만 농민중의 자본주의적요소와의 투쟁에 렵각한 **그러한 동맹**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로부터 최후의 자본가계급으로서의 농민에 대한 레닌의 명제는 로농동맹의 사상과 모순되지 않을뿐만아니라 도리여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분자들을, 특수적으로는 농촌에서의 농민중의 자본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것을 목적으로 삼고있는 로동계급과 대다수 농민과의 동맹에 근거를 준다는것을 알수 있다.

레닌은 로농동맹이 다만 농민이 자기자신이 낳고있는 바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471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로 그 자본주의요소들과의 투쟁에 렵각하여야만이 그 동맹은 튼튼한것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이 명제를 내놓았다.

부하린의 오유는 그가 이 간단한 사실을 리해하지 못하며 또 접수하지 않으며 그가 농촌에 있는 사회적집단을 망각하고 그에게 있어서는 부농과 빈농이 시야로부터 사라지고 다만 똑같은 중농대중만이 남아있게 된 거기에 있는것이다.

이 사정은 의심할바없이 부하린의 우익적편향을 표명하여주는것으로서 뜨로쯔끼주의적, 《좌》익적편향과는 정반대된다. 그런데 《좌》익적편향은 농촌에서 빈농과 부농외에는 다른 사회적집단은 보지 못하며 그리하여 그의 시야로부터 중농이 사라지게 되는것이다.

농민과의 동맹문제에서 뜨로쯔끼주의와 부하린집단사이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뜨로쯔끼주의는 중농대중과 튼튼한 동맹을 맺는 정책을 반대하지만 부하린집단은 전체 농민과의 온갖 동맹을 맺을것을 찬성하는 점에 있다. 이 두 견해는 다 옳지 못한것이며 또한 그것들이 다 매한가지라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레닌주의는 농민의 기본대중과의 튼튼한 동맹, 즉 중농과의 동맹은 절대로 주장하나 온갖 동맹을 다 주장하지 않으며 로동계급의 지도적역할을 보장하며 무산계급독재를 강화하며 계급의 소멸을 촉진하는것과 같은 그런 중농과의 동맹을 주장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협조라는것은 여러가지로 같지 않게 리해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견지에서 본다면 협조는 오직 로동계급의 독재를 지지하며 또한 계급을 소멸하는 수단의 하나로 되는 때에라야만 허용될수 있는것이며 옳은것이며 또한 원칙적으로 가능한것이다. 만일 이 점을 망각한다면 로동계급과 농민파의 협

조에 대한 공식은 필연적으로 쏘베트정권의 모든 적들과 독재의 모든 적들이 주장하는 그런 공식으로 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387페지)①

그리고 또一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은 무산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고있으며 지도하고있다. 그들은 농민을 지도하고있다. 농민을 지도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소생산자들을 보존하기 위한 로선을 실시하는것이 아니라 계급을 소멸하기 위한 로선을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한다는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로선으로부터 리탈한다면 우리는 사회주의자로 더는 될수 없으며 그리하여 지금 무산계급의 가장 흉악한 적인 소자산계급의 진영에, 사회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의 진영에 굴러떨어지게 될것이다.》(우와 같은 책, 399～400페지)②

이것이 농민의 기본대중과의 동맹, 중농과의 동맹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의 레닌의 견해이다.

중농에 관한 문제에서의 부하린집단의 오유는 그들이 로동계급과 자본가들과의 중간에 있는 중농의 이중적성격, 이중적지위를 보지 못한데 있다. 《중농은 동요하는 계급이다.》③ 라고 레닌은 말하였다. 왜 그런가? 그것은 중농은 한편으로는 근로자이기에 그들로 하여금 로동계급과 접근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소유자이기에 그들로 하여금 부농과 접근하게 하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중농의 동요가 생기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리론적으로만 옳은것이 아니다. 이런 동요는 역시 실천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표현되고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근로자로서의 농민은 사회주의에로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395～396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410페지—편집자
③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799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기울어지며 자산계급의 독재보다도 로동자의 독재를 좋아한다. 곡물의 판매자로서의 농민은 자산계급측으로, 자유상업측으로 기울어진다. 즉 그는 〈습관화된〉, 낡은 〈에로부터 내려오는〉 자본주의에로 후퇴하려 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314페지)①

그러므로 중농파의 동맹은 오직 그것이 자본주의분자들을 반대하고 자본주의일반을 반대하는 경우에라야만이 그리고 그것이 이 동맹에 있어서의 로동계급의 지도적역할을 보장하며 계급의 소멸을 촉진할 경우에라야만이 튼튼한것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부하린집단은 이런 간단명료한것을 망각하고있다.

(4) 신경제정책 및 시장관계에 관하여

부하린의 네번째 오유는 신경제정책문제에서 생겼다. 이 면에서의 부하린의 오유는 그가 신경제정책의 두 면을 보지 못하고 다만 신경제정책의 한 면만 본데 있다. 1921년에 우리가 신경제정책을 실시할 때에 우리는 그 예봉을 전시공산주의를 반대하는데 돌렸으며 모든 개인상업의 자유제도와 질서를 반대하는데 돌렸다. 우리는 신경제정책이 개인상업의 일정한 자유를 허용하는것이라고 인정하여왔으며 또 인정하고있다. 문제의 이 일면은 부하린이 기억하고있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부하린은 문제의 이 일면이 신경제정책의 전부라고 인정함으로써 오유를 범하였다. 부하린은 신경제정책이 또 다른 일면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잊어버렸다. 문제는 신경제정책이 개인상업의 완전한 자유, 시장에서의 가격의 자유로운 동락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데 있다. 신경제정책은 시장에서의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857~858페지를 보라.—편집자

국가의 조절적역할이 보장된 조건하에서 일정한 한계와 일정한 범위내에서 하는 개인상업의 자유를 허락한다. 여기에 바로 신경제정책의 두번째 면이 있다. 그런데 신경제정책의 이 면은 우리들에게는 그의 첫번째 면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의 가격의 자유로운 등락현상이 없다. 곡물가격은 대체로 우리가 규정한다. 공업품가격도 우리가 규정한다. 우리는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며 공업제품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노력한다. 시장에서의 이러한 독특한 질서가 자본주의나라들에는 없다는것이 그래 명백하지 않은가?

이로부터 신경제정책이 존재하고있는 동안은 그것의 두 면, 즉 전시공산주의제도를 반대하며 또한 개인상업의 일정한 자유를 보장하는것을 자체의 목적으로 하는 첫째 면과 개인상업의 완전한 자유를 반대하며 또한 시장에서의 국가의 조절적 역할을 보장하는것을 자체의 목적으로 하는 둘째 면이 보장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두 면중에서 어느 한 면이라도 없앤다면 신경제정책은 있을수 없다.

부하린은 《좌측으로부터》 오는 위험성 즉 상업에 대한 모든 자유를 청산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험성만이 신경제정책을 위협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극히 큰 오유이다. 더구나 이러한 위험성은 지금에 있어서 가장 비현실적이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의 지방조직과 중앙조직에는 일정한 상업자유를 보장하는것이 완전히 필요하며 적당하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거나 거의 없기때문이다.

우측으로부터 오는 위험성,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적역할을 취소하며 시장을 《해방》하는것으로 개인상업의 완전

한 자유의 시대를 열어놓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험성이 훨씬 더 현실적인것이다. 우측으로부터 신경제정책을 파괴시킬 위험성이 지금은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없다.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적세력은 바로 이 면에서, 즉 우측으로부터 신경제정책을 파괴시키려고 활동하고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많은 동지들이 가끔 이런 고함의 영향을 받고있다. 부농 및 부유한 분자들의 고함, 투기업자들과 매점인들의 고함소리는 바로 이 면으로부터의 신경제정책에 대한 포격이라는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부하린이 신경제정책을 파괴하는 이 두번째 현실적인 위험성을 보지 못하고있다는 이 사실은 그가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적세력에 넘어가고말았다는것을 명백히 말하여주고있다.

부하린은 시장의 《정상화》와 구역별에 따라 곡물수매가격을 《조절》할것, 즉 곡물의 가격을 높일것을 제의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그가 쏘베트의 시장조건에 만족해하지 않으며 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적역할을 점차 취소하려하며 우측으로부터 신경제정책을 파괴하는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적세력에 양보할것을 제의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부하린의 권고에 따라갔다고 잠시 가정하여보자. 이로부터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는가? 우리가 가령 가을에 즉 곡물수매초기에 곡물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자. 그러나 시장에는 곡물의 값을 세곱이나 더 주고 살수 있는 사람들이, 온갖 투기업자들과 매점인들이 언제나 있으며 또 그들은 기꺼해서 천만뿌드쯤 수매할것이나 우리는 수억뿌드를 수매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우리가 투기업자들과 경쟁할수 없기때문에 곡물을 가지고있는자들은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것을 기다리면서 곡물을 쌓아둘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곡물이 제

일 수요될 봄에 가서 우리는 또다시 곡물가격을 높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봄에 곡물가격을 높인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이것은 가을에 싼값으로 자기들이 팔았던 바로 그 곡물을 일부는 종자로, 일부는 량식으로 쓰려고 봄에 가서 비싼。값으로 다시 사지 않으면 안될 농촌의 빈농층과 경제력이 약한 농민층을 해치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한 수량의 곡물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그 어떤 뚜렷한 성과를 거둘수 있겠는가?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것은 틀림없다。 왜냐 하면 일부 투기업자들과 매점인들은 언제나 2배, 3배나 더되는 값으로 이 곡물을 사들이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투기업자들과 매점인들을 압도하려고 공연한 애를 쓰면서 곡물의 가격을 또다시 올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로부터 우리가 곡물가격을 올리는 길에 일단 들어선다면 충분한 수량의 곡물을 입수할 담보도 없여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전락되지 않을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써 끝나지 않는다。

첫째로, 곡물수매가격을 높인다면 우리는 이후에 또 농산물가격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에서 생산되는 원료의 가격도 높여야 할것이다。

둘째로, 곡물수매가격을 높인다면 우리는 도시에서 곡물의 낮은 소매가격을 유지할수 없게 되므로 우리는 곡물의 판매가격을 높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로동자들의 리익에 손해를 끼칠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므로 임금을 급속히 높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공업제품의 가격도 높이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왜냐 하면 공업제품의 가격을 높이지 않으면 공업화의 리익에 위반되여 자금이 도시에서 농촌에로 이동될수 있기때문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가격을 낮추거나 혹은 적어도 온정지키

는 토대우에서가 아니라 곡물과 공업제품의 가격을 높이는 토대우에서 공업제품과 농산물의 가격의 균형을 가져오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달리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공업제품과 농산물의 가격을 높이는 방침을 취하여야 한다.

가격을 이렇게 《조절》하는것은 쏘베트적가격정책을 완전히 취소하게 되며 시장에서의 국가의 조절적역할을 취소하게 되며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적세력으로 하여금 완전히 제멋대로 작용하도록 만들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것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다만 도시와 농촌의 부유한 계층들에게 유리할뿐이다. 왜냐 하면 비싼 공업제품과 농산물은 로동계급이나 농촌의 빈농과 경제력이 약한 계층들에게는 살수 없는 물건으로 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부농들과 부유한자들과 네프만들과 기타 부유한 계급들이 리익을 보게 될것이다.

이것도 역시 결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결합은 독특한 것으로서 도시와 농촌의 부유한 계층들과의 결합이다. 로동자들과 농촌에서의 경제력이 약한 계층들은 충분한 권리로, 우리의 정권은 누구의 정권인가? 로동자-농민의 정권인가? 아니면 부농-네프만의 정권인가고 우리에게 질문할것이다.

로동계급과 농촌에서의 경제력이 약한 계층들과의 결렬, 도시와 농촌에서의 부유한 계층들과의 결합—이것이야말로 부하린식의 시장의 《정상화》와 구역에 따른 곡물가격《조절》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당이 이 멸망의 길에 들어설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신경제정책에 대한 부하린의 모든 개념이 얼마나 혼란되여있으며 또한 그가 얼마나 단단히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적세

력의 포로로 되여있는가 하는것은 도시와 농촌사이, 국가와 농민사이의 상품류통의 새 형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취한 극히 부정적인 그의 태도에서 알수 있다. 그는 국가가 농민의 상품공급자로 되였으며 농민이 국가의 곡물공급자로 되는것을 보기만 하여도 분개하며 반대한다. 그는 이것을 신경제정책의 모든 규준을 위반한것으로, 신경제정책을 파탄하는것으로 간주한다. 묻노니, 무엇때문인가? 어떤 근거에서인가?

국가와 국영공업이 중개자 없이 농민의 상품공급자로 되며 또한 농민 역시 중개자 없이 공업과 국가의 곡물공급자로 되는것이 무엇이 나쁜가?

맑스주의와 맑스주의적정책의 견지에서 볼 때 농민이 이미 국영공업이 수요하는 면화, 사탕무우, 아마 등의 공급자로 전화되고 국영공업이 이 농업부문을 위한 도시상품, 종자, 생산도구 등의 공급자로 전화된 거기에 무슨 좋지 못한것이 있는가?

예약구입제의 방법은 여기에서 도시와 농촌사이의 상품류통의 새 형태를 확립하는 기본적방법이다. 그런데 예약구입제의 방법은 과연 신경제정책의 요구와 모순되는가?

이런 예약구입제의 방법을 채용하였기때문에 농민은 면화, 사탕무우, 아마뿐만아니라 곡물방면에 있어서까지도 국가의 공급자로 되고있는데 이것이 그래 무엇이 좋지 못한가?

어찌하여 작은 거래의 상업과 소규모적인 상업은 상품류통이라고 할수 있으나 물품의 가격과 질에 따라 미리 작성한 예약(예약구입제)에 따라 진행하는 큰 상업은 상품류통이라고 할수 없는가?

도시와 농촌과의 사이에 예약구입제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런 새로운 대량적인 상품류통형태는 바로 신경제정책의 토대우에서 생긴것이다. 이런 형태들은 인민경제의 계획

적사회주의적지도를 강화하는 면에서 우리 기관들의 거대한 천진이라는것이 그래 리해하기 아주 어렵단말인가?

부하린은 이와 같은 간단명료한 도리마저도 리해하지 못한다.

(5) 소위 《조세》에 관하여

부하린의 다섯번째 오유(나는 그의 주요한 오유들에 대하여 말하는것이다.)는 도시와 농촌간의 《협상가격차》에 대한 문제, 즉 소위 《조세》에 대한 문제에서 그가 당의 로선을 기회주의적으로 외곡한데 있다.

정치국 및 중앙검열위원회 상무위원회의 련석회의(1929년 2월)의 《협상가격차》문제에 대한 유명한 그 결정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결정서에서 말한것은 농민은 국가에 바치는 직접 및 간접의 보통조세이외에 또 공업제품을 살 때에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하고 농산물을 팔 때에는 돈을 덜 받는 형태로 일종의 추가세를 바치게 된다는것이다.

농민이 바치는 이러한 추가세라는것이 실제에 존재한다는것이 사실인가? 그렇다,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그것을 또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우리는 그것을 또 《협상가격차》라고도 부르며 우리 나라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농업으로부터 공업에로의 자금 《이동》이라고도 부르고있다.

이러한 《이동》의 방법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만일 진정으로 공업발전의 급속한 속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잠시적대책으로서 이러한 《이동》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서는 우리들사이에 의견상이가 없다. 그런데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그것은 비단 공업자체에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우선 지금 뜨락또르, 농업기계와 비료의 부족을 느끼고있는 농업에, 농민에게

우선 필요하기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곧 이러한 추가세를 폐지할수 있는가?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할수 없다. 최근 몇년내에 그것을 폐지할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폐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금 곧 폐지할수는 없다.

그리하여 《협상가격차》로 하여 생기게 된 이 추가세는 《조세비슷한것》으로 되였다. 조세가 아니고 《조세비슷한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락후하기때문에 생기게 되는 《조세비슷한것》이다. 이러한 추가세는 공업발전을 추진시키며 우리 나라의 락후한 상태를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부가세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농민을 착취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아니다, 이러한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쏘베트정권의 본질은 농민에 대한 국가측의 그 어떠한 착취도 용허하지 않는다. 7월전원회의[23]에서 한 우리 동지들의 연설에서는 근로농민의 물질적복리의 부단한 제고는 쏘베트사회의 발전법칙이며 따라서 이것은 농민에 대한 착취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기때문에 쏘베트제도하에서 사회주의국가는 농민을 착취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지적되여있다.

농민이 이러한 부가세를 능히 감당해낼수 있는가? 그렇다, 감당해낼수 있다. 어째서 그런가?

첫째로, 그것은 이러한 부가세의 징수는 농민의 물질적상태가 부단히 개선되는 조건하에서 실시되고있기때문이다.

둘째로, 그것은 농민에게는 자기의 개인경영이 있어서 거기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농민에게 부가세를 지불할 가능성을 주기때문이다. 그런데 개인경영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모든 힘을 공업화사업에 바치고있는 로동자에게 대하여서는 그렇게 말할수 없다.

셋째로, 그것은 부가세의 액수가 해마다 축소되기때문

이다.

우리가 이러한 부가세를 《조세비슷한것》이라는 말로써 부르는것이 옳은가? 의심할바없이 옳은것이다. 이 말로써 부가세를 징수하는것은 불쾌한 일이고 본의에서 나온것이 아니며 그것을 장기간 유지하는것은 허용할수 없다는것을 우리 동지들에게 암시하는것이다. 농민에 대한 부가세를 이렇게 부름으로써 우리들이 말하고저 하는것은 우리가 그것을 징수하는것은 본의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수요에 의하여 나온것이며 우리 볼쉐위크들은 반드시 모든 대책을 취하여 될수만 있으면 급속한 시일내로 이러한 부가세를 폐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는것이다.

이와 같은것이 《협상가격차》, 《이동》, 《추가세》, 그리고 상술한 문헌중에서 《조세비슷한것》이라고 불리우게 된것에 관한 문제의 본질이다.

부하린, 뢰꼬브 및 똠스끼는 《조세》란 말을 트집잡으려고 하면서 당을 농민에 대하여 군사적-봉건적착취정책을 실시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소경까지도 그것이 우리 당을 조포하게 중상하려는 부하린파의 비루한 시도라는것을 알고있다. 이제는 지어 그들자신까지도 그들의 군사적-봉건적착취의 허튼소리가 철저히 실패하였다는것을 묵인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왜냐 하면 둘중의 하나이기때문이다.

혹은 부하린분자가 현시기에 《협상가격차》 및 농업으로부터 공업에로의 자금《이동》은 불가피한것이라고 인정하든가—그렇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비난이 중상이라는것과 당이 완전히 옳다는것을 반드시 인정하여야 한다.

혹은 그들이 현시기에 있어서의 《협상가격차》와 《이동》의 불가피성을 부인하든가—그러면 그렇다고 솔직히 말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은 그들을 우리 나라의 공업화를 반대하는자들의 부류에 넣을수 있을것이다.

나는 어쨌든 부하린, 리꼬브 및 똠스끼가 현시기에 있어서의 《협상가격차》의 불가피성과 농업으로부터 공업에로의 자금《이동》의 불가피성을 무조건 인정하고있는 그들의 일련의 연설을 인용할수 있다. 그런데 실로 이것이야말로 《조세비슷한것》이라는 제기법의 인정인것이다.

그래 그들은 지금도 계속하여 《이동》의 관점, 《협상가격차》를 유지하는 관점에 서있는것인가 아닌가? 그들은 이것을 솔직히 말하여야 한다.

부하린: 이동은 필요한것이다. 그러나 《조세》란 적절한 말은 아니다.(만장의 웃음소리)

쓰딸린: 그러고보니 문제의 실질에 있어서는 우리들사이에 의견상이가 없다는것이다. 그러고보니 농업으로부터 공업에로의 자금의《이동》, 이른바 《협상가격차》, 부가세, 《조세비슷한것》은 현시기에 있어서 국가공업화에 필요한, 일시적인 방책이라는것이다.

매우 좋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때문에 야단인가? 그들은 《조세》라든가 《조세비슷한것》이라든가 하는 말은 맑스주의문헌에서 사용할수 없는것이라고 인정하기때문에 이런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단말인가?

그렇다면 《조세》란 말에 대하여 말해보기로 하자.

동지들, 나는 이 말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맑스주의문헌가운데서, 례를 들면 레닌동지의 론문들가운데서 공인된것이라고 단언한다. 동지들, 이것은 레닌의 론문을 읽지 않은 사람들중의 일부 사람을 놀라게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부하린은 맑스주의문헌에서는 《조세》라는 말을 쓸수 없다고 여기서 《떠들어댔다》. 그는 당중앙위원회가, 일

반적으로 맑스주의자들이 《조세》라는 말을 서슴지않고 사용하고있는데 대하여 분개하였으며 놀랐다. 그러나 이 말이 오래전에 레닌동지와 같은 맑스주의자의 론문중에서 공인되였다는것이 증명되였다면 여기에 무슨 놀랄것이 있는가? 혹은 부하린의 관점에서 볼 때 레닌은 맑스주의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것이나 아닌가? 그렇다면 친애하는 동지들, 솔직하게 말해보라.

레컨대 레닌과 같은 맑스주의자의 론문 《〈좌익적〉유치성과 소자산계급성에 대하여》(1918년 5월)를 펼치고 다음과 같은개소를 읽어보라.

《수천루블이나 가지고있는 소자산계급은 국가자본주의의 원쑤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수천루블을 빈민을 반대하여 모든 전 국가적인 통제를 반대하여 그들자신의 리익을 위해서만 쓰려고 하는것이다. 그런데 이 수천루블이라는 금액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파탄시키는 투기를 위한 수십억의 기초로 된다. 가령 일정한 수효의 로동자들이 며칠동안에 1,000이라는 수자로 표현되는 가치의 총액을 준다고 하자. 그리고 또 이 총액중에서 200이 소규모적투기와 각종의 절도와 쏘베트법령 및 쏘베트질서에 대한 소소유자들의 〈회피〉행위로 하여 상실된다고 가정하자. 자각적로동자라면 누구나 다 다음과 같이 말할것이다. 즉 만일 내가 더 훌륭한 질서와 조직을 세울수 있는 대가로써 1,000중에서 300을 줄수 있다면 나는 200 대신에 300을 기꺼이 내줄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질서와 조직이 잘 정돈되고 모든 국가적독점에 대한 소소유자들의 파괴가 종국적으로 타파된다면 쏘베트정권하에서는 이 〈조세〉를, 말하자면 100 혹은 50까지 감소시키는것은 아주 용이한 과업일것이기 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2권, 515페지)①

이로써 이미 명백해졌으리라고 본다. 이와 같은것을 근거로 하여 레닌동지를 로동계급에 대하여 군사적-봉건적착취정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543페지를 보라.—편집자

책을 주장하는자라고 선언할수 있겠는가? 친애하는 동지들, 선언해보라!

웨침소리: 어쨌든 중농에 대해서는 《조세》라는 개념을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었다.

쓰딸린: 당신은 중농이 로동계급보다도 당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은 불행한 맑스주의자이다.(만장의 웃음소리) 로동계급의 정당인 우리가 로동계급에 대하여 《조세》라고 말할수 있다면 무엇때문에 우리의 동맹자에 지나지 않는 중농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수 없는가?

트집을 잡기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은 론문 《〈좌익적〉유치성에 대하여》에서 사용한 《조세》라는 말을 레닌동지의 실언, 그것도 우연한 실언이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검토해본다면 트집을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의심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레닌동지의 다른 한 론문(더 정확하게 말하여 소책자) 《현물세에 관하여》(1921년 4월)를 펼치고 324페지(《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324페지)①를 읽어보라. 여러분은, 《조세》에 관하여 이제 방금 인용한 인용문을 그 책에서도 레닌동지가 문자그대로 되풀이하였다는것을 볼수 있을것이다. 끝으로, 레닌동지의 론문 《쏘베트정권의 당면과업》(1918년 3～4월, 《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2권, 448페지)을 펼치고 본다면 여러분은 레닌이 그 론문에서도 《전 인민적인 통계 및 밑으로부터의 통제를 조직하는 사업에서의 우리들자신의 락후성때문에 바치는 조세〔여기서는 이미 괄호는 없다.〕》②에 대하여 말하고있는것을 볼수 있을것이다.

이로부터 《조세》라는 말이 레닌의 론문들에서 결코 우연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506～507페지—편집자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504페지를 보라.—편집자

적인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다. 레닌동지가 이 말을 사용하고있는것은 《조세》의 림시적인 성격을 강조하여 볼쉐위크의 의력을 북돋아줌으로써 우리들의 락후성, 우리들의 《결점》때문에 로동계급이 바치고있는 이러한 《조세》를 가능하면 곧 폐지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이로부터 《조세비슷한것》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나는 맑스주의자들의 훌륭한 동료로, 레닌동지의 동료로 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부하린은 여기에서 맑스주의자는 자기의 저작에서 《조세》라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어떠한 맑스주의자를 이렇게 말하고있는것인가? 만일 그가 념두에 둔것이, 실레의 말이지만 맑스주의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자유주의자에 가까운 슬렙꼬브, 마레쯔끼, 뻬뜨룹스끼, 로지트 등과 같은 맑스주의자들이라면 부하린의 분개는 충분히 리해할만한것이다. 그러나 그가 념두에 둔것이, 례컨대, 레닌동지와 같은 진정한 맑스주의자라면 《조세》라는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가운데서 공인되였다는것, 그리고 레닌의 저작을 잘 모르고있는 부하린은 여기에서 잘못 말하였다는것을 승인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조세》문제는 이것으로써 끝난것이 아니다. 문제는 부하린과 그의 친구들이 《조세》라는 말을 트집잡아가지고 농민에 대하여 군사적 봉건적착취정책을 실시한다고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두말할것도 없이 그들이 군사적-봉건적착취를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것은 우리 기관들에서 실시하고있는 우리 당의 정책, 즉 부농에 대한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한 자기들의 극도로 되는 불만을 표시하려고 한것이다. 농민을 지도하는 사업에서의 레닌적당정책에 대한 불만, 우리의 량곡수매정책에 대한 불만,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우리의 정책에

대한 불만, 끝으로 시장을 《해방》하고 개인상업의 완전한 자유를 확립하려는 소원, 이것이 바로 농민에 대한 군사적-봉건적착취정책에 대한 부하린의 절규에서 나타난것들이다.

나는 우리 당의 력사에서 당이 군사적-봉건적착취정책을 실시한다고 당을 비난한 그러한 실례를 모른다. 당을 반대하는 이런 무기는 맑스주의자들의 무기고에서 가져온것이 아니다. 그러면 대체 어디서 가져왔는가? 립헌민주당[36] 수령 밀류꼬브의 무기고에서 가져온것이다. 립헌민주당원들은 로동계급과 농민을 리간시키려 할 때 보통 말하기를—불쉐위크 제씨여, 당신들은 농민의 해골우에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라고 말한다. 《조제》에 대하여서 요란스럽게 떠드는 부하린은 밀류꼬브 제씨의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있으며 인민의 원쑤들의 뒤꼬리를 따르고있는것이다.

(6) 공업의 발전속도와 련계의 새 형태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공업의 발전속도와 도시와 농촌사이의 련계의 새 형태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의견상이의 매우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당의 경제정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의 실천상 의견상이의 모든 실머리가 이 문제에 집중되여있다는데 있다.

련계의 새 형태란 무엇이며 우리의 경제정책의 견지로 보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먼저 공업이 주로 농민의 개인적수요(꽃천, 신발, 일반방직물 등.)를 충족시키던 도시와 농촌사이의 련계의 낡은 형태외에도 우리에게는 또한 공업이 농민경제의 생산적요구(농업기계, 뜨락또르, 우량종자, 비료 등등.)를 충족시키는 련계의 새 형태가 필요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전에는 우리가 농민경제의 생산적요구에는 적게 류의

하면서 주로 농민의 개인적수요를 충족시켰지만 지금에는 우리는 농민의 개인적수요를 계속 충족시키면서 새 기술적토대우에서 농업생산을 개조하는데 직접 관계를 가지는 농업기계, 쯔락또르, 비료 등등의 공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농업을 회복하며 농민들이 지난날 지주 및 부농들의 토지를 잘 리용하게 되는것이 문제로 되고있던 동안은 우리가 련계의 낡은 형태로써 만족할수 있었다. 그러나 농업을 개조하는것이 문제로 되고있는 지금은 그것만으로써는 아직 불충분하다. 지금은 한걸음 더 나아가 새 기술과 집단적로동의 토대우에서 농업생산을 개조하도록 농민을 도와주는것이 요구된다.

둘째로 이것은 우리의 공업을 재장비하는 동시에 우리가 농업도 참답게 재장비하기 시작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공업을 새 기술적토대우에 세우면서 또 공업에 새롭고 좋은 기계와 새로운 우수한 간부들을 보내주면서 이를 재장비하고있으며 또 부분적으로는 벌써 재장비하여놓았다. 우리는 지금 새 공장들을 건설하고있으며 낡은 공장들을 개조하고 확장하고있으며 야금공업, 화학공업과 기계제조공업을 발전시키고있다. 이 기초우에서 도시들이 발전되며 새 공업지구들이 증가되며 낡은 공업지구들이 확장되고있다. 이 기초우에서 량곡과 공업원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있다. 그런데 농업에서는 의연히 구식농구를 쓰고있으며 옛날선조들의 경작방법을 쓰고있으며 지금은 쓸수 없든가 혹은 거의 쓸수 없게 된 낡은 원시적기술을 그대로 쓰고있으며 낡은 개체농민들의 경영방식과 로동방식을 채용하고있다.

레컨대 혁명전에는 우리 나라에 약 1,600만의 농호가 있었는데 지금은 2,500만이상의 농호가 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 이것은 농업이 더욱더 분산되고 세분화된 성격을 띤다는것이 아니고 무엇을 설명하는것인가? 그런데 분산된

소규모적경영의 특징은 그것이 기술, 기계, 뜨락또르와 농업의 과학성과를 충분히 리용할수 없으며 그것이 상품화률이 적은 경영이라는데 있다.

이로부터 농산물상품량이 부족하게 되는것이다.

이로부터 도시와 농촌사이에, 공업과 농업사이에 결렬의 위험성이 생기게 되는것이다.

이로부터 농업을 우리의 공업발전속도에까지 끌어올려 그것을 따라잡게 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것이다.

이 결렬의 위험성을 피면하기 위하여서는 농업을 새 기술의 토대우에서 참답게 재장비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업을 재장비하기 위하여서는 분산된 개체농호들을 점차적으로 대농장, 즉 집단농장에로 통합시켜야 하며 농업을 집단적 로동의 토대우에 건설하여야 하며 집단경영들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전의 국영농장과 새 국영농장들을 발전시켜야 하며 농업의 모든 기본적부문에 대하여 대량적예약구입제를 절차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농민이 새 기술을 습득하며 또 로동을 집단화하는것을 도와주는 농기계-뜨락또르임경소망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체소농경영을 대규모적인 집단적생산의 토대우에 점차로 옮겨세워야 한다. 왜냐 하면 오직 사회적대생산만이 과학성과와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리용하며 우리 나라 농업의 발전을 급속도로 추진시킬수 있기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빈농, 중농의 개체경영을 내버려두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빈농, 중농의 개체경영은 지금 량곡과 원료를 공업에 공급하는 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있으며 또한 가까운 장래에도 역시 이런 역할을 할것이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아직 집단농장에 련합되지 않은 빈농, 중농의 개체경영을 지지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개체농민경영만으로는 벌써 불충분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곡물수매상에서의 곤난이 이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모든 힘을 다하여 집단적경영형태와 국영농장을 발전시키는것으로써 빈농, 중농의 개체경영의 발전을 보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농민으로 하여금 자기의 소규모적인 개체경영을 집단적로동의 궤도에로 쉽게 옮겨세우게 하기 위하여서는 예약구입제를 광범히 맺으며 농기계-뜨락또르임경소를 세우며 협동조합을 전력을 다하여 발전시키는것으로써 빈농, 중농의 개체경영과 집단적사회적형태의 경영과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하는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농업의 진정한 발전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곡물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경제력이 약한 농민계층을 령락과 빈궁에서 구원하기는 불가능하다.

끝으로, 이것은 우리의 농업생산을 개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것을 공급하는 기본적원천으로 되는 우리의 공업을 극력 발전시켜야 하며 야금공업, 화학공업과 기계제조공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뜨락또르공장, 농업기계공장 등등을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농민의 기본대중을 대규모적인 예약구입제로써 집단적형태의 경영에로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또 상당한 수량의 뜨락또르와 농업기계 등등을 농업에 공급하지 않고서는 집단농장들을 발전시킬수 없으며 농기계-뜨락또르임경소들을 발전시킬수 없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리의 공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기계와 뜨락또르를 농촌에 공급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집단제의 토대우에서 농업을 개조

하는 열쇠로 되는것이다.

이와 같은것이 곰 련계의 새 형태의 의미와 역할이다.

부하린집단은 련계의 새로운 형태의 필요성을 말로써는 승인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말로써만의 승인으로서 그 목적은 련계의 새 형태를 말로써만 승인한다는 허울밑에서 그와는 정반대되는 어떤것을 끄집어내려는데 있다. 사실에 있어서 부하린은 련계의 새 형태를 반대하는것이다. 부하린의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농업생산을 개선하는데 공간으로 되는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려는것이 아니라 개체농민경영을 발전시키려는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시장의 《정상화》이며 시장에서의 농산물가격의 자유로운 롱락의 허용, 개인상업의 완전한 자유의 허용인것이다. 이로부터 중앙위원회의 7월전원회의에서 한 그의 연설과 중앙위원회의 7월전원회의이전에 내여놓은 그의 테제에서 나타난바와 같은 집단농장에 대한 그의 불신임적태도가 생기게 된것이다. 이로부터 곡물수매에 있어서 부농을 반대하는 온갖 형태의 비상대책에 대한 그의 부정적태도가 생기게 된것이다.

도깨비가 향내를 피하듯이 부하린이 비상대책을 회피한다는것은 다 아는바이다.

현조건하에서는 부농이 충분한 수량의 곡물을 자진하여 저절로 내여놓지 않으리라는것을 부하린은 아직까지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는것도 다 아는바이다.

이것은 오늘날 2년간에 걸친 우리의 수매사업의 경험에 의하여 증명되였다.

그런데 만일 상품곡물이 그냥 부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하린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즉 비상대책으로써 부농을 놀래우지 말고 외국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여야 한다고. 그는 얼마전에 외국으로부터 약 5,000만

뿌드의 곡물을, 즉 외화로 약 1억루블에 해당되는 곡물을 수입하자고 제의하였다. 만일 공업용설비를 수입하기 위하여 외화가 수요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하린은 이에 대하여 먼저 국외로부터 곡물을 수입하여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공업용설비의 수입을 뒤로 밀어놓자는것이다.

이렇다고 하면 곡물문제를 해결하며 농업을 개조하는데 기초로 되는것은 공업의 급속한 발전속도인것이 아니라 자유시장 또는 시장에서의 가격의 자유로운 통락의 토대우에서의 부농경영까지 포함한 개체농민경영의 발전이라는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두개 서로 다른 경제정책방안이 있게 된다.

당의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우리는 공업을 재장비(개조)한다.

2. 우리는 농업을 참답게 재장비(개조)하기 시작한다.

3. 이것을 위하여서는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건설을 확장하여야 하며 공업과 농업사이에 생산적련계를 수립하는 수단으로서 예약구입제 및 농기계-뜨락또르임경소들을 대규모적으로 건립하여야 한다.

4. 현시기의 곡물수매상에서의 난관에 대하여 말한다면 부농의 반항을 격파하며 또 곡물을 수입하지 않고 지내며 공업발전을 위하여 외화를 보존할수 있도록 부농에게서 여유곡물을 최대한으로 거두는 수단으로써 중농 및 빈농 대중의 공동한 지지를 받는 림시적비상대책을 취할수 있다는것을 반드시 승인하여야 한다.

5. 빈농 및 중농의 개인경영은 나라에 식량과 원료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놀고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놀게 될것이나 그러나 그 하나만으로는 벌써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농업으로부터 자본주의분자들을 몰아내는

것을 쉽게 하며 개체농민경영들을 대규모적인 집단적경영의 궤도에로, 집단적로동의 궤도에로 점차 옮겨세우는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서는 빈농 및 중농의 개인경영의 발전을 집단농장 및 국영농장의 발전, 대규모적인 예약구입제와 농기계-뜨락또르임경소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써 보충하여야 한다.

6. 그러나 이 모든것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공업 즉 야금공업, 화학공업, 기계제조공업, 뜨락또르공장, 농업기계공장 등등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농업의 개조도 곡물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한것이다.

결론—우리 공업의 급속한 발전속도는 농업을 개조하는 열쇠로 된다.

부하린의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공업상품, 원료와 곡물의 가격이 등귀된다 하더라도 시장을 《정상화》하며 시장에서의 가격의 자유로운 롱락을 허용하며 곡물가격의 인상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발전속도를 어느 정도 늦추면서라도 개체농민경영을 극력 발전시켜야 한다.(7월에 제기한 부하린의 테제, 7월전원회의에서 한 부하린의 연설)

3. 부농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이 비록 중농 및 빈농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책을 언제든지 어떤 조건하에서든지 지어 부분적으로라도 적용하지 말고 자류방임적으로 곡물을 수매하여야 한다.

4. 곡물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약 1억루블의 곡물을 수입하여야 한다.

5. 만일 외화가 부족되여 곡물과 공업용설비품을 동시에 수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공업용설비품의 수입을 감소할것, 즉 우리의 공업발전의 속도를 늦출것—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농업은 《제자리에서 답보》하거나 《급전직하》할것이다.

결론— 개체농민경영의 발전은 농업을 개조하는 열쇠로 된다.

동지들,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되고있다!

부하린의 방안은 공업발전의 속도를 늦추며 련계의 새 형태를 파괴하는 방안이다.

이러한것이 곧 우리들사이의 의견상이이다.

우리는 련계의 새 형태를 발전시키는 즉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발전시키는 등등에 있어서 늦지나 않았는가 하고 가끔 묻는 사람이 있다.

당이 이 사업에 있어서 적어도 약 두해나 늦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쏘련의 경제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좌익적》 횐소리쟁이들만이 그렇게 말할수 있는것이다.

이 사업에서 늦었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일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건립할 필요성을 예견하는것을 말하는것이라면 우리는 벌써 10월혁명당시에 이 일을 시작하였을것이다. 당이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필요성을 그때에 10월혁명시기에 벌써 예견하였다는데 대하여서는 추호도 의심할바없는것이다. 끝으로 제8차당대회[8](1919년 3월)에서 채택된 우리의 당강령을 들수가 있다.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필요성은 그 강령가운데에 극히 명료하게 고려되여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지도적상층부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필요성을 예견하였다는 그 하나만으로써는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위한 대중적운동을 실현하며 조직하기에는 불충분한것이다. 그런즉 예견이 문제인것이 아니라 집단농장과 국영농장 건설계획의 실현이 문제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을 실현하려면 여태까지는 우리 나라에 없었고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나타난 여러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동지들, 문제는 여기에 있는것이다.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건립하기 위한 대중적운동의 계획을 실시하려면 우선 당원대중이 이 사업에 있어서 당의 지도적상층부를 지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당은 백만의 당원을 가진 큰 당이다. 그러므로 광범한 당원대중으로 하여금 지도적상층부의 정책의 정확성을 확신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첫째이다.

다음으로, 이것을 위하여서는 농민들속에서 집단농장을 지지하는 대중적운동을 일으켜 농민이 집단농장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개인경영보다 집단농장이 우월하다는것을 경험에 의하여 확신하고 자진하여 집단농장에 들어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일정한 시일을 수요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이것이 둘째이다.

그다음으로, 이것을 위하여서는 집단농장건설에 투자하며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에 투자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국가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친애하는 동지들, 이 일에는 수억만루블이 수요된다. 이것이 셋째이다.

끝으로, 이것을 위하여서는 농업에 기계, 뜨락또르, 비료 등등을 공급할수 있는 공업이 어느 정도 충분히 발전되여야 한다. 이것이 넷째이다.

이 모든 조건들이 2~3년전에 벌써 우리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렇다고 단언할수 없다.

우리는 반정부당인것이 아니라 집정당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반정부당은 그 당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 실현할 목적으로 구호(나는 운동중에서의 근본적인 실천적구호에 대하여 말하는것이다.)를 내여놓을수 있다. 누구든지 반정부당이 자기의 근본적구호를 당장에 실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당을 비난할수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정권을 잡고있는것이

반정부당인것이 아니라 다른 당이라는것을 다 알고있기때문이다.

집정당으로서의 우리 불쉐위크당은 사태가 전혀 다르다. 이러한 정당의 구호들은 단순한 선동적인 구호인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것이다. 왜냐 하면 그 구호들은 지금 당장에 실현하여야 할 실천적결정의 효력, 법률상의 효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실천적구호를 내여놓고 후에 가서 그 실시를 연기할수는 없다. 이것은 대중을 속이는것으로 될것이다. 실천적구호를, 특히 수백만 농민대중을 집단제의 궤도에로 이끄는것과 같은 그러한 중대한 구호를 내여놓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직접 실현할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조건들을 창조하고 조직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의 상층부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건립하는 필요성을 예견하는것만으로는 불충분한것이다. 바로 이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호들을 지체없이 실행하며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또한 요구되는것이다.

우리 당의 당원대중이 례컨대 2~3년전에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극력 발전시킬데 대한 준비를 가지고있었던가? 없었다. 당원대중에게는 아직 이런 준비가 없었다. 련계의 새 형태에로의 당원대중의 본격적인 전환은 곡물수매면에서의 최초의 엄중한 난관이 생긴 그때에야 비로소 시작되였다. 이러한 난관들의 생김으로 하여 당원대중들은 련계의 새 형태, 무엇보다도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건립을 촉진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였으며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자기들의 중앙위원회를 견결히 지지하게 되였던것이다. 이것이 곧 이전에는 우리에게 없었지만 지금은 이미 구비된 하나의 조건이다.

2~3년전에 집단농장이나 혹은 국영농장을 위한 수백만 농민대중의 본격적인 운동이 우리 나라에 있었던가? 아니다.

없었던것이다. 2~3년전에 농민들은 국영농장을 적대시하였고 집단농장을 아무 쓸모없는 《꼼무니야》①라고 비웃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사태가 달라졌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을 종자, 우량종가축, 기계, 뜨락또르 등으로써 농민경영을 원조하여주는 원천으로 보는 많은 농민층이 있다. 지금 기계와 뜨락또르만 보내준다면 집단농장사업은 급속도로 전진하게 될것이다.

상당히 많은 농민층에서 이와 같은 전변이 어째서 생기게 되였는가? 무엇이 이 전변을 촉진시켰는가?

무엇보다도먼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이다. 협동조합, 특히 농민들가운데서 집단농장을 지지하는 심리적토대를 조성한 농업협동조합의 강력한 발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많은 농민층에서 표현되고있는 집단농장에 가입하려는 그러한 갈망을 보지 못하였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또 소농경영을 대규모적, 집단적경영에 통합시킴으로써 농업을 어떻게 개선할수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좋은 본보기를 농민들에게 보여준 잘 조직된 집단농장의 존재가 역시 큰 역할을 놀았다.

여기에서는 또한 경영을 개선하는 사업에서 농민을 도와준 설비가 구전한 국영농장들의 존재도 역시 자기 역할을 놀았다. 나는 여러분이 다 알고있는 다른 사실들에 대하여서는 더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이전에는 우리에게 없었지만 지금은 구비되고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2~3년전에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에 수억루블을 지출하여 이 사업에 많은 자금을 투자할수 있었다고 단언할수 있는가? 없다. 그렇게 단언할수 없다. 그것이 없이

---

① 당시 쏘련농민은 《공산주의》를 《꼼무니야》라고 불렀다.—편집자

는 농업의 개조는 고사하고 아무런 공업화도 근본적으로 실현할수 없는 그러한 최저한도의 공업의 발천에 필요한 자금도 우리에게는 부족하였던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나라의 공업화의 토대로 되는 그러한 공업에서 자금을 떼내여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에 넘겨줄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할수 없었다는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은 우리에게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발전시킬 자금이 있다.

끝으로, 우리는 2~3년전에 벌써 기계, 뜨락또르 등등을 농업에 대량적으로 공급할만한 충분한 토대를 공업에서 가지고있었다고 단언할수 있었겠는가? 아니다, 그렇다고 단언할수 없었다. 당시의 임무는 장래에 기계와 뜨락또르를 농업에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공업적토대를 창설하는것이였다. 당시에 우리는 이 토대를 창설하는데 우리의 많지 않은 자금을 소비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은 우리에게 농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공업토대가 있다. 여하튼 이 토대는 우리 나라에서 급속도로 건립되여가고있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대량적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은 다만 최근에 와서야 조성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동지들, 사태는 바로 이러하다.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련계의 새 형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늦었다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7) 리론가로서의 부하린

우리 정책의 기본적문제에 있어서 우익반대파의 리론가인 부하린이 범한 주되는 오유들은 대체로 이상과 같다.

부하린은 우리 당의 리론가중의 한사람이라고들 말한다.

이것은 물론 옳은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리론이 모두가 다 옳다고 할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그가 당의 리론 및 정책 문제에 있어서 내가 방금 분석한 많은 오유를 범하였다는것을 보아도 넉넉히 알수 있는것이다. 이 오유들 즉 국제공산당에 관한 오유와 계급투쟁, 계급투쟁의 첨예화, 농민, 신경제정책, 련계의 새 형태 등의 문제들에 대한 오유들—이 모든 오유가 그에게 있어서는 결코 우연히 나타난것이 아니다. 그렇다, 이 오유들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부하린의 이 오유들은 그의 옳지 못한 리론적견해와 그의 리론적결함에서 생긴것이다. 그렇다, 부하린은 리론가이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맑스주의적리론가는 못되며 맑스주의적리론가로 되자면 아직 더 배워야 할 그러한 리론가이다.

리론가로서의 부하린에 대한 레닌동지의 유명한 서한을 인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서한을 읽어보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앙위원회의 젊은 위원들중에서 부하린과 빠따꼬브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고저 한다. 내 보기에는 그들은 가장 탁월한 일군들이다(가장 젊은 일군들중에서).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것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 즉 부하린은 당의 극히 귀중한 리론가일뿐만아니라 전당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정당하게 인정되고있지만 그의 리론적견해는 완전히 맑스주의적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곤난하다. 왜냐 하면 그에게는 번쇄적인 무엇이 있기때문이다.(그는 변증법을 공부한 일이 없으며 또 생각컨대 변증법을 충분히 리해한 일이 없다.)》①(1926년 7월 전원회의의 속기록, 제4책, 66페지)②

총적으로 보아 그는 변증법을 모르는 리론가이다. 번쇄철학자적리론가이다. 그의 《리론적견해들을 완전히 맑스주의적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36권, 617페지를 보라. —편집자

인것으로 취급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아주 의심스러운》 그러한 리론가이다. 이것이 바로 레닌이 부하린의 리론적면모에 대하여 준 평가이다.

동지들, 이와 같은 리론가는 아직 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리해할것이다. 그런데 만일 부하린이 자기는 아직 완전히 성숙된 리론가가 아니며 자기는 더 배울 필요가 있으며 변증법은 맑스주의의 령혼인데 자기는 변증법을 아직도 습득하지 못한 리론가인것을 안다면 만일 그가 이것을 알았다면 그는 좀 겸손하였을것이며 당에 리익을 주었을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부하린은 겸손하지 않았다. 불행한것은 그가 겸손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지어 그는 많은 문제들에서, 무엇보다도 국가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의 도사인 레닌을 가르치려고 덤벼든데 있는것이다. 부하린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여러분이 다 알고있는, 1916년에 레닌과 부하린사이에 일어났던 국가문제에 대한 리론적론쟁을 나는 여기에서 인용하고저 한다. 이것은, 레닌을 가르치려고 하는 부하린의 지나친 망상을 폭로하는 동시에 무산계급독재, 계급투쟁 등의 기타 문제들에서 그의 리론적빈약의 근원을 폭로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1916년에 실상은 레닌동지를 반대하여 쓴 부하린의 론문이 Nota Bene의 필명으로 잡지《청년인터나쇼날》[37]에 발표되였었다. 이 론문에서 부하린은 다음과 같이 썼다.

《…사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과의 차이를 전자는 국가찬성자들이고 후자는 국가의 반대자들이라는 점에서 찾는다는것은 전혀 잘못이다. 실제에 있어서 차이는 혁명적사회민주당이 집중된 생산 즉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생산으로서의 새로운 사회적생산을 조직하려 하

지만 분산된 무정부적생산은 낡은 기술, 낡은 형태의 기업에로 퇴보하는것을 의미할뿐이라는데 있다.…》

《…대중의 교양자로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렇게 되여야 할 사회민주당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더 국가에 대한 자기의 원칙적인 적대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현재의 전쟁은 국가의식의 뿌리가 로동자의 정신에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가를 보여주었다.》

부하린의 이 견해들을 비판하면서 레닌은 1916년에 발표된 유명한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것은 옳지 않다. 필자는 국가에 대한 사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의 태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는것이 아니라 장래 사회의 경제적기초에 대한 그들의 태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다른 문제에 대답하고있는것이다. 물론 이것은 극히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사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의 태도의 차이에서 주되는것을 망각해도 좋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현대국가와 그 기관들을 리용할것을 주장하며 또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독특한 과도적형태로서 국가를 리용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한 과도적형태—그것도 역시 국가이다.—는 무산계급독재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은 국가를 〈철폐〉하며 그것을 〈폭파〉(《sprengen》)하려고 한다. 이것은 어떤개소에서 Nota Bene동지가 표현한 말인데 그는 이 견해가 사회주의자들의 견해인것처럼 잘못 소개하고있다. 사회주의자들은—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이에 관한 엥겔스의 말을 너무나 불완전하게 인용하였다.—자산계급을 수탈한후에 국가가 〈조락〉하며 점차적으로 〈잠든다〉고 인정한다.…》

《국가에 대한 〈원칙적인 적대성〉을 〈강조〉하려면 그것을 실지로 〈명확히〉 리해할 필요가 있는데 필자에게는 바로 이 명확성이 없다. 〈국가의식의 뿌리〉를 운운하는 문구는 맑스주의적인것도 아니고 사회주의적인것도 아닌 벌써 전혀 혼란된 문구이다. 〈국가의식〉이 국가의식의 부인과 충돌된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정책(즉 국가에 대한 기회주의적, 개량주의적, 자산계급적 태도)이 혁명적인 사회민주주의적정책(즉 자산

계급국가에 대한 또 자산계급을 전복하기 위하여 그들을 반대하여 국가를 리용하는데 대한 혁명적인 사회민주주의적태도)과 충돌한것이다. 이것은 전혀 서로 다른 별개의 사물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9권, 296페지)①

이로써 무엇이 문제로 되였으며 또한 부하린이 어떠한 반무정부주의적구렁텅이에 빠졌는가가 명확해진듯하다!

스뗀: 당시 레닌은 국가의 《폭파》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 상세히 천명하지 않았다. 부하린은 무정부주의적오유를 범하면서도 이 문제를 천명하기 시작하였다.

쓰딸린: 아니다. 지금 문제로 되는것은 여기에 대한것이 아니라 국가일반에 대한 태도이며 부하린의 견해에 의하면 로동계급은 로동계급의 국가까지도 포함하여 그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적대적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것이다.

스뗀: 당시 레닌은 다만 국가를 리용하는데 대하여서만 말하였을뿐 부하린을 비판하는데 있어서 《폭파》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쓰딸린: 당신은 오해하고있다. 국가의 《폭파》란것은 맑스주의적공식이 아니라 무정부주의적공식이다. 부하린(또는 무정부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로동자들은 반드시 어떤 국가에 대하여서든지, 따라서 과도기의 국가, 즉 로동계급의 국가에 대하여서도 자기의 원칙적인 적대적태도를 강조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여기서 문제로 되고있다는것을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로동계급은 무산계급독재에 대하여 반드시 원칙적인 적대적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의 로동자들에게 설명하여보라.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3권, 165~166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그러나 무산계급독재도 역시 국가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청년인터나쇼날》잡지에 발표된 부하린의 론문에 진술된 그의 립장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국가를 부인하는 립장이다.

부하린은 여기서 《사소한것》을 홀시하였다. 즉 만일 로동계급이 자산계급을 진압하며 또 사회주의를 건설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로동계급은 자기자신의 국가가 없이는 해나갈수 없는 시기인 전반 과도기를 홀시하였다. 이것이 첫째이다.

둘째로는 당시 레닌동지가 자기의 비판에서 일반적으로 국가의 《폭파》, 《철폐》에 관한 리론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것은 옳지 못하다. 내가 인증한 인용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레닌은 이 리론을 언급하였을뿐만아니라 또한 그는 이 리론을, 자산계급을 전복한후 새 국가, 즉 무산계급독재의 국가를 **창건**하고 **리용**할데 대한 리론에 대치시키면서 그것을 무정부주의적리론이라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폭파》, 《철폐》라는 무정부주의적리론을 **무산계급**국가의 《조락》 혹은 **자산계급**국가기관의 《파괴》, 《분쇄》라는 맑스주의적리론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가지 부동한 개념을 동일한 사상을 표현하는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두 개념을 혼동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하다. 레닌은 그가 국가일반을 《폭파》한다든가 《철폐》하여야 한다는 무정부주의적리론을 비판할 때에 바로 이 **자산계급적**국가기구의 《파괴》와 **무산계급**국가의 《조락》에 대한 맑스주의적리론에서부터 출발하였던것이다.

문제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마 1916년말이나 1917년초(1917년 2월혁명전)에 국가문제에 대하여 쓴 레닌동지의 원고 한편을 여기에 인용하는것도 무방할것 같다. 이 원고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쉽게 알수 있다.

(ㄱ) 국가문제에 대한 부하린의 반무정부주의적오유를 비판할 때에 레닌은 무산계급국가의 《조락》과 자산계급국가기구의 《분쇄》에 관한 맑스주의적리론을 근거로 삼았다는것이며

(ㄴ) 레닌의 말에 의하면 비록 부하린이 《카우쯔키보다는 진리에 더 가깝기》는 하나 그래도 그는 《카우쯔키파들을 폭로시킬 대신에 자기의 오유로써 그들을 도와주고있다.》는것이다.

이 원고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1875년 3월 18~28일부의 베벨에게 보낸 엥겔스의 편지는 국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큰 중요성을 가지고있다.

아래와 같은것이 가장 중요한 구절의 전문이다. 즉

〈…자유로운 인민국가는 자유로운 국가로 되여버렸다. 문자상으로 보면 자유로운 국가란 자국의 공민을 자유롭게 대할수 있는 국가, 즉 전제적정부를 가지고있는 그런 국가이다. 벌써 본래의 의미에서의 국가에 관한 이 모든 공담을 내버려야 할것이다. 벌써 본래의 의미에서의 국가가 아니였던 빠리꼼뮨이 있은후에는 특히 그러하다. 이미 쁘루동을 반대한 맑스의 저서와 다음으로 《공산당선언》이 사회주의적사회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국가는 저절로 해체되며(sich auflöst) 소멸된다고 직접 말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부주의자들은 〈인민국가〉란것으로써 우리를 몹시 비난하였다. 국가란 투쟁에서, 혁명에서 자기의 적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하여 리용하는 잠시적기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인민국가에 대하여 운운하는것은 순전히 무의미한것이다. 무산계급이 아직 국가를 필요로 하는 동안은 〔고시크체는 엥겔스의것〕 그들은 자유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적을 진압하기 위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것이며 그리고 자유에 대하여 말할수 있게 될 때에는 국가는 국가로서 더 존재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국가라는 〔고시크체는 엥겔스의것〕 말 대신에 프랑스말인 《꼼뮨》에 해당되는 훌륭한 오랜 독일말인 《공동체》(Gemeinwesen)란 말을 쓸것을 제의하고싶다.〉

이것은 맑스와 엥겔스의 저서에서 〈국가를 반대〉하는 아마 가장 훌륭하고 또한 가장 신랄한 구절일것이다.

(1) 〈국가에 관한 모든 공담을 집어치워야 할것이다.〉

(2) 〈빠리꼼뮨은 벌써 본래의 의미에서의 국가가 아니다.〉(그러면 무엇인가? 국가로부터 비국가로 넘어가는 과도적형태란것이 분명하다!)

(3) 무정부주의자들은 〈인민국가〉라는것으로써 우리를 몹시 〈비난하였다〉.(in die Zähne geworfen—문자대로는—뺨을 치다.)(즉 맑스와 엥겔스는 독일의 자기 동지들이 범한 그 확연한 오유를 부끄러워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오유를 무정부주의자들의 오유보다는 비교할 수없이 작은것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형편으로서는 두말할 것없이 옳게 본것이였다. 이 점을 주의하라!!)

(4) 〈사회주의의 사회제도가 전법됨에 따라〉 국가는 〈저절로 분해되며(《해체되며》)(이 점에 주의하라.) 또 소멸된다〉.…(이후 저서에서 《조락한다》고 한것과 대조하라.)

(5) 국가는 〈투쟁에서, 혁명에서…〉 필요한 〈잠시적기관〉이다.(물론 무산계급에게 필요한것이다.)

(6) 국가는 자유를 위하여 필요한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의 적을 진압(Niederhaltung은 본래의 의미대로 하면 진압인것이 아니라 복구를 제지하는것, 순종하게 한다는것이다.)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7) 자유가 있게 될 때에는 국가는 없어진다.

(8) 〈우리는〉(즉 엥겔스와 맑스는) 〈어디에서든지〉(강령에서) 〈국가〉란 말 대신에 〈공동체〉(Gemeinwesen), 〈꼼뮨〉이란 말을 쓸것을 제의하고싶다!!!

이로부터 기회주의자들뿐만아니라 또한 카우쯔키도 맑스와 엥겔스를 얼마나 비속화시켰으며 더럽히였는가를 알수 있다.

기회주의자들은 내용이 매우 풍부한 이 8가지의 사상중에서 한가지도 리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다만 현재의 실천적필요만, 즉 무산계급을 훈련하며 교양하기 위하여 또한 〈양보를 쟁취하기〉 위하여 정치적투쟁을 리용하며 현대적국가를 리용한다는것만 보았다. 이것은 옳은것이다(무정부주의자들에 반하여).그러나 그것은, 간술로 표현할수 있다면 아직 맑스주의의

1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카우쯔키는 자기의 선전활동과 일반적인 정론활동에서 1, 2, 5, 6, 7, 8항목들과 맑스의 〈파괴〉를 아주 말살하였다.(잊어버렸는가? 아니면 리해하지 못하였는가?)(1912년이 아니면 1913년에 판네쿠크와의 론쟁에서 카우쯔키(아래의 45~47페지를 참조하라.)는 벌써 이 문제에서 완전히 기회주의로 전락되였다.)

우리가 무정부주의자들과 다른 점은 (α) 지금 국가를 리용하며 (β) 무산계급혁명시기에 국가(《무산계급독재》)를 리용한다는데 있으며—이 두 점은 지금 실천상에서 극히 중요한것이다.(부하린은 이것을 바로 잊어버렸다!)

우리가 기회주의자들과 다른 점은 (αα) 국가의 〈림시적〉성격에 대하여, (ββ) 지금 국가에 대한 〈공담〉이 해롭다는데 대하여, (γγ) 무산계급독재가 완전한 국가라고는 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δδ) 국가와 자유와의 모순에 대하여, (εε) 국가란 말 대신에 〈공동체〉란 말이 더 정확한 관념(개념, 강령에서의 술어)에 대하여, (ζζ) 반료주의적군사기관을 〈분쇄〉(Zerbrechen)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우리가 보다 심각하고 〈보다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있는데 있다.

또 잊어서는 안될것은 독일의 공공연한 기회주의자들(베른슈타인, 콜브 등.)은 무산계급독재를 직접적으로 부인하고있으며 그리고 정식강령과 카우쯔키는 일상적인 선동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며 또 콜브따위의 반역행위를 묵인함으로써 그것을 간접적으로 부인하고있다는 그것이다.

1916년 8월에 부하린에게 〈국가에 관한 당신의 사상을 더 심숙시키라〉는 편지를 썼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사상을 더 심숙시키지 않고 〈Nota bene〉라는 이름으로써 출판물에 매여달려 카우쯔키파를 폭로할 대신에 자기의 오유로써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부하린이 카우쯔키보다는 진리에 더 가깝다.》①

국가문제에 관한 리론적론쟁의 간단한 경과는 이러하다.

---

① 레닌의 《국가에 관한 맑스주의의 진술》, 1973년 인민출판사, 한문판, 23~26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문제는 명백한듯하다. 즉 부하린은 반무정부주의적오유를 범하였으니 이제는 이 오유를 시정하고 레닌의 뒤를 따라 나아가야 할 때가 되였다. 그러나 오직 레닌주의자들만이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것이다. 부하린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양이다. 도리여 그는 오유를 범한것이 자기가 아니라 레닌이며 자기가 레닌의 뒤를 따라갔거나 혹은 따라가야 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닌이 할수없이 부하린의 뒤를 따라오게 된것이라고 말하고있다.

동지들, 여러분은 이것을 믿을수 없는것이라고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더 들어보라. 1916년에 있은 그 론쟁이후 9년을 지나는 동안에 부하린은 줄곧 침묵을 지켜오다가 레닌이 서거한후 1년이 지나서 즉 1925년에 와서 부하린은 일찌기 《〈사회민주주의자〉론문집》[38] 편집부(즉 레닌)가 출판하기를 거절한 《제국주의국가리론에 대하여》란 론문을 《법의 혁명》이란 론문집에 발표하였다. 그 론문의 주해에서 그는 이 론쟁에서 레닌이 옳았던것이 아니라 부하린 자기자신이 옳았던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성명하였다. 이것은 믿지 못할 일 같지만 그러나 동지들, 이것은 사실이다.

그 주해의 원문을 들어보라.

《잡지 〈청년인터나쇼날〉에 실린 론문을 반대하여 웨.이.〔즉 레닌〕가 단평을 발표하였다. 독자들은 내가 범한것처럼 말하고있는 그 오유가 나에게 없음을 쉽게 보아낼수 있을것이다. 왜냐 하면 나는 무산계급독재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있었기때문이다. 다른 한편 그때에 일리이치가 국가(물론 자산계급국가)의 〈폭파〉에 대한 문제를 무산계급독재의 사멸에 대한 문제와 혼동하면서 그 명제를 옳지 못하게 취급하였던것은① 그의 단평에서 볼수 있는것이다. 그때에 나는 독재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말하여야 할것이였을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자신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을 변호할수 있는것은 그때에 자산계급국가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찬양이 너무나도 보편적이였으므로 이러한 정세하에서는 당연히 모든 주의력을 그 기구의 폭파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게 되였다는것이다.

내가 미국으로부터 로씨야에 돌아와서 나제쥬다 쁜스딴찌노브나를 만나게 되였을 때(이것은 비밀리에 열린 우리의 제6차대회에서 있은 일이며 그때 웨.이.는 피신하여있었다.) 그의 첫말이 〈웨.이.는 국가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는 당신과 의견상이가 없게 되였다고 당신에게 전하여달라고 하였다.〉라는것이였다. 일리이치는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폭파〉에 관해 역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①. 그러나 그는 이 문제와 그리고 후에는 독재에 대한 학설을 발전시켰으며 그는 이 방면에 있어서의 리론적사상의 발전에 있어서 완전한 한시기를 개척하였다.》

부하린은 레닌이 서거한후 1년이 지나자 레닌에 대하여 이렇게 운운하였던것이다.

보라, 이것이 바로 채 배우지 못한 리론가의 턱없는 자고자대의 견본인것이다!

나제쥬다 쁜스딴찌노브나가 부하린이 여기서 쓴것과 같은 말을 정말 그에게 전했을수도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어떠한 결론이 나와야 하는가?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오직 부하린이 자기의 오유를 포기하였든가 혹은 포기하려고 한다고 생각할만한 약간의 근거가 레닌에게 있었다는 그 한가지뿐일것이다. 다만 그것뿐일것이다. 그러나 부하린은 달리 생각하였다. 그는 지금부터는 국가에 대한 맑스주의학설의 창시자나 혹은 적어도 고취자로 간주되여야 할것은 레닌이 아니라 부하린 자기자신이라고 인정하였다.

우리는 종래로 자기를 레닌주의자로 간주하였으며 또한 지금도 여전히 간주하고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레닌이나 그의 제자들인 우리가 다 부하린주의자로 되여버렸다. 동지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들, 그야말로 좀 가소로운 일이다. 그러나 부하린이 지나치게 자고자대하면서 말하는것이니 무슨 방법이 있는가.

부하린이 상술한 론문에 대한 자기의 주해에서 실언하였다든가 또는 그가 어리석은 말을 한 다음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부하린은 매우 신중하게 말하였던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볼수 있다. 즉 이 주해에서 부하린이 쓴 레닌의 **오유**와 부하린의 **정당성에** 대한 자기의 성명이 얼마전에 즉 1927년에, 다시말하면 레닌을 반대한 부하린의 첫번째 도전이 있은후 2년을 지나서 마레쯔끼가 쓴 부하린의 략전에 또다시 발표되였지만 부하린은 마레쯔끼의 이와 같은…대담한 행위에 항의하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것이다. 레닌에 대한 부하린의 반대행동을 우연한것이라고 인정할수 없음은 명백한 일이다.

이리하여 레닌이 아니라 부하린이 옳았고 맑스주의국가학설의 고취자는 레닌인것이 아니라 부하린인것으로 된다.

동지들, 이와 같은것이 곧 부하린의 리론적편견과 리론적야심인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람은 여기에서 한 자기의 연설에서 우리 당의 리론적견해에는 《무엇인가 부패한것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 당의 리론적견해에는 뜨로쯔끼주의적경향이 있다고 감히 말할 용기를 가지고있는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있는자는 여러가지 극히 엄중한 리론적 및 실천적 오유를 범하고있으며(과거에도 범하였으며) 얼마전까지도 뜨로쯔끼의 제자로 있었으며 어제까지도 레닌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뜨로쯔끼주의자들과의 동맹을 맺으려고 시도하였으며 그들한테 드나들며 은밀히 그들과 결탁하던 그 부하린인것이다!

동지들, 이것이 그래 우스운 일이 아닌가?

(8) 5개년계획인가 아니면 2개년계획인가

이제는 릐꼬브의 연설에 대하여 말하기로 하자. 부하린이 일적 우익적편향에 리론적기초를 주려고 시도하였다면 릐꼬브는 자기의 연설에서 우리 나라의 농업방면에 있어서의 곤난에서 오는 《무서운 일들》로써 우리를 놀래우면서 이것에 실천적 제의의 기초를 닦으려고 애쓰고있다. 이것은 릐꼬브가 리론적 문제들에 언급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는 리론적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던것이다. 그러다 그는 이에 언급하면서 적어도 두가지 엄중한 오유를 범하였다.

릐꼬브는 정치국위원회에서 부결된 5개년계획에 관한 자기의 결정서초안에서 《5개년계획의 중심사상은 인민의 로동생산률을 증대시키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정치국위원회가 전혀 옳지 못한 이 견해를 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릐꼬브는 여기에서 한 자기의 연설에서 의연히 이 견해를 변호하였다.

쏘베트국가에서의 5개년계획의 중심사상은 로동생산률을 증대시키는데 있다고 하는것은 옳은가? 아니다, 옳지 못하다. 우리에게는 인민의 로동생산률의 증대라면 어떤것이나 다 필요한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인민의 로동생산률의 일정한 증대, 즉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부분이 자본주의적부분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우세를 점하도록 보장하여주는 그러한 증대가 필요한것이다. 이 중심사상을 잊어버린 5개년계획은 5개년계획인것이 아니라 5개년망설인것이다.

로동생산률의 일반적인 증대는 어떤 사회든지—자본주의사회나 자본주의이전의 사회나 다 관심하고있는것이다. 쏘베트사회가 온갖 다른 사회와 다른 점은 이 사회가 로동생산률의 어떤 형태의 증대이든지 다 관심을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형태,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경제형태에 대한 사회주의적경제형태의 우세를 보장하며 그리하여 자본주의적경제형태를 극복하며 몰아내는것을 보장하는 그러한 중대에 관심을 가지고있다는 거기에 있는것이다. 그런데 릐꼬브는 쏘베트 사회발전의 5개년계획의 이 진정한 중심사상을 잊어버리고있다. 여기에 그의 첫째 리론적오유가 있다.

그의 둘째 오유는 그가 상품류통의 견지에서 볼 때 이를테면 집단농장과 자본주의적개인경영까지 포함한 온갖 개인경영과의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거나 또는 리해하려고 하지 않는데 있다. 릐꼬브는 곡물시장에서의 상품류통의 견지에서, 곡물취득의 견지에서 볼 때 집단농장과 개인곡물소유자와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며 따라서 우리가 곡물을 집단농장에서 사든지 개인소유자에게서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르헨띠나의 어떤 곡물매점인에게서 사든지 자기의 견해에 의하면 어쨌든 마찬가지라고 단언한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이것은 곡물을 어디서 사든지, 누구에게서 사든지, 개인에게서 사든지 혹은 집단농장에서 사든지 어쨌든 마찬가지라고 한 때 단언한, 일반이 다 아는 프룸낀의 유명한 성명을 되풀이하는것이다.

이것은 위장한 형태로써 곡물시장에서의 부농의 음모를 옹호하며 회복시키며 변호하는것이다. 이러한 변호가 상품류통의 견지에서 진행되고있지만 이 사실은 어쨌든 곡물시장에서의 부농의 음모에 대한 변호라는 그 진상을 개변시킬수 없다. 만일 상품류통의 견지에서 볼 때 집단적경영형태와 비집단적경영형태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집단농장을 발전시키고 집단농장에 우대를 주며 농업에서의 자본주의분자들을 전승하는 어려운 과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가? 릐꼬브가 옳지 못한 견해를 가진것은 명확한 일이다. 여기에 그의 둘째

리론적오유가 있다.

이것은 말이 난김에 언급하였을뿐이다. 이제 릐교브의 연설에서 제기된 실제적문제를 말하기로 하자.

릐교브는 여기에서 5개년계획이외에 이와 병행되는 다른 계획, 즉 농업발전에 대한 2개년계획이 더 있어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그는 그 병행되는 2개년계획안에 관한 제의를 농업에서의 곤난으로써 변호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5개년계획은 좋은 일이다. 나는 이 계획을 찬정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동시에 농업에 대한 2개년계획을 작성한다면 더욱 좋을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이 침체될것이라고 하였다.

겉으로 보기에 이 제의는 조금도 나쁜것이 없는듯하다. 그러나 만일 이 문제를 상세히 관찰한다면 농업에 대한 2개년계획은 5개년계획의 비현실적이며 지상공문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생각해낸것임을 알수 있다. 우리가 이에 동의할수 있었겠는가? 아니다, 동의할수 없었던것이다. 우리는 릐교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즉 만일 당신이 농업면에서의 5개년계획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있다든가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5개년계획에 지정된 지출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한다면 당신의 보충적제의와 당신의 추가투자액에 대하여 솔직히 말하라. 그러면 우리는 농업에 대한 그 추가투자액을 5개년계획에 넣는데 동의할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였는가? 릐교브에게는 농업을 위한 추가투자액에 대한 아무리한 보충적제의도 없었던것이다. 묻노니, 그렇다면 농업에 대한 병행적2개년계획은 무엇을 위한것인가?

우리는 그에게 계속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즉 5개년계획이외에도 5개년계획의 일부분으로서의 년도계획이 있다. 농업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당신에게 구체적인 보충적제의가 있다

면 그것을 첫 두해의 년도계획에 넣을수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되였는가? 알고보니 릐꼬브에게는 추가지출에 대하여 제출할 그런 구체적제안이 없었던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2개년계획에 대한 릐꼬브의 체의는 농업의 발전을 위한것이 아니라 5개년계획의 비현실적이며 지상공문적인 성격을 강조하려는것이며 5개년계획의 명성을 손상시키려는것임을 리해하게 되였다. 《정신적》, 외견적으로는 5개년계획이요, 행동과 실제사업에서는 2개년계획이요 하는것이 릐꼬브의 전략인것이다. 릐꼬브가 2개년계획을 제기한것은 앞으로 5개년계획을 실천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에서 2개년계획을 5개년계획에 대치시키며 5개년계획을 변경하여 공업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5개년계획을 2개년계획에 순응시키기 위한것이다.

이러한 리유로 우리는 병행적2개년계획에 대한 릐꼬브의 체의를 부결하였던것이다.

(9) 파종면적에 대한 문제

릐꼬브는 여기에서 쏘련의 파종면적이 계속 축소되는 추세를 보여주고있다고 단언하면서 당을 위협하였다. 동시에 그는 파종면적이 축소되는것은 당정책의 탓이라고 암시하면서 당을 지적하여 말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이 퇴화되고있다고는 직접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연설은 우리에게 퇴화비슷한 그 어떤 현상이 존재하는듯한 그런 인상을 준다.

파종면적이 부단히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는 말이 옳은가? 아니다, 옳지 않다. 릐꼬브는 여기에서 전국의 파종면적에 대하여 평균수자를 가지고 론단하였다. 그러나 각 지방별로 통계한 자료에 의하여 정정되지 않은 평균수자에 의거

하는 방법은 과학적방법이라고 할수 없다.

뵈교보는 언젠가 레닌이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읽은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만일 읽었다면 그는 이 책에서 레닌이 파종면적의 증가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각 지방별로 통계한 재료를 무시하고 평균수자의 방법을 리용하는 그런 자산계급경제학자들을 어떻게 질책하였는가를 기억할 것이다. 뵈교보가 지금에 와서 자산계급경제학자들의 오유를 되풀이한다는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만일 각 지방별로 파종면적의 변동정형을 관찰한다면 즉 만일 과학적으로 문제를 취급한다면 일부 지방들에서는 파종면적이 계속 증가되고 다른 지방들에서는 주로 기후조건의 영향으로 하여 파종면적이 때때로 줄어드는 일이 있으나 우리의 중요한 곡물생산지방 중 단 하나의 지방에서도 파종면적이 계속 축소된다는것을 보여주는 그런 재료는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

사실에 있어서 상재나 한재를 입은 지방들에서는, 례컨대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방들에서는 파종면적이 최근에 와서 축소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목소리: 우크라이나가 다 그런것은 아니다.

쉴리히테르: 우크라이나에서는 파종면적이 2.7%나 확장되였다.

쓰딸린: 나는 우크라이나의 전원지대를 두고 말하는것이다. 그런데 불리한 기후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지방들, 례컨대 씨비리, 볼가강류역, 까자흐스딴과 바슈끼리야에서는 파종면적이 계속 확장되고있다.

어떤 지방들에서는 파종면적이 부단히 증가되고있는데 다른 지방들에서는 때로 축소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사실에 있어서 당의 정책이 우크라이나에서와 그리고 쏘련의 동부나 중부에서 각각 다르다고는 단언하지 못할것이다. 동지들, 이것

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기후조건이 여기서 적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기후조건과는 관계없이 부농들이 파종면적을 축소하고있다는것은 옳은 말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부농을 반대하여 빈농과 중농 대중을 지지하는 당의 정책에 《허물이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로부터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우리가 언제 부농들까지도 포함한 농촌의 모든 사회적집단들을 만족시킬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적이 있었단말인가?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맑스주의적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면서 착취자들이나 피착취자들을 다 만족시킬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시할수 있단말인가? 만일 농촌에서 자본주의분자들을 제한하고 타승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레닌의 정책을 우리가 실시하여 부농들이 자기들의 파종면적을 부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특이한것이 있는가? 그래 과연 그렇게 안될수도 있단말인가?

이 정책이 정확하지 못할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솔직히 말하여보라. 맑스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으로서 부농들이 파종면적을 부분적으로 축소하는것을 보고 겁이 나서 파종면적이 **일반적으로** 축소된다고 억설하며 또한 부농들외에도 파종면적을 확장하고있는 빈농들과 중농들이 있으며 또 파종면적을 급속도로 확장하고있는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 있는것을 잊어버리고있다는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뜨꼬브의 연설에는 파종면적에 관한 문제에서 또 한가지 옳지 못한것이 있다. 어떤 곳에서는, 즉 집단농장이 가장 발전된 곳에서는 빈농과 중농의 개인경작지가 축소되기 시작한다고 뜨꼬브는 여기에서 불평을 부렸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좋지 못한것이 있단말인가? 또 그와 달리 어떻게 될수 있겠는가? 만일 빈농과 중농이 개

인경작지를 버리고 집단경영에로 넘어간다면 집단농장의 확대 및 증가가 필연적으로 개인농인 빈농과 중농의 경작지를 축소시키게 될것은 명확하지 않은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지금 집단농장은 200여만헥타르의 토지를 가지고있다. 5개년계획말에 가서는 집단농장들이 2,500만헥타르이상의 토지를 가지게 될것이다. 누구의 토지의 축소로써 집단농장의 경작지가 확대되는가? 빈농과 중농의 개인경작지를 축소함으로써일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은 어쩌자는 말인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빈농과 중농의 개체경영을 집단경영의 궤도에 올려세울수 있겠는가? 허다한 지역들에서 개인경작지를 축소함으로써 집단농장의 경작지가 증가될것이라는것은 명확하지 않단말인가?

이와 같이 단순한 도리를 어떤 사람들은 리해하려고 하지 않는것이 참말 이상한 일이다.

(10) 곡물수매에 대하여

우리의 곡물면에서의 곤난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황당한 말들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잠시적곡물곤난의 주되는 인소를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금년에 라맥과 밀을 작년보다 5억~6억뿌드나—나는 총수확고에 대하여 말한다.—적게 수확하였다는것을 잊어버리고있다. 이것이 우리의 곡물수매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물론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이것은 중앙의 정책의 탓이나 아닌가? 아니다, 이것은 중앙의 정책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초원지대에 있은 심한 흉작(상재와 한재에 의한)과 북깝까즈, 중

앙흑토대, 서북지방에 있은 부분적흉작에 원인이 있는것이다.

작년도에는 3월 31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2억뿌드의 곡물(라맥과 밀)을 수매하였는데 금년에는 2,600만~2,700만뿌드밖에 수매하지 못한것은 주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

밀과 라맥의 수매고가 중앙흑토대에서는 거의 8분의 7이 줄었고 북깝까즈에서는 4분의 3이 줄어든것도 역시 여기에 그 원인이 있는것이다.

동부의 어떤 지방들에서는 곡물수매가 금년에 거의 2배로 증가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써는 물론 우리가 우크라이나, 북깝까즈와 중앙흑토대에서 적게 수매한 수자를 보충할수 없었으며 또한 보충하지 못하였다.

평년작인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북깝까즈에서 수매되는 곡물이 전 쏘련적으로 수매되는 곡물의 약 절반이다 된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뢰끄브가 이 사정을 잊어버린것은 이상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곡물수매상에서 잠시적인 곤난에 봉착하게 된 주요한 요인으로 되는 둘째 사정이다. 나는 곡물수매에 대한 쏘베트정권의 정책에 대한 농촌의 부농분자들의 반항을 념두에 두고있다. 뢰끄브는 이 사정을 회피하였다. 그런데 이 요인을 회피하는것은 곡물수매사업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를 회피하는것임을 의미하는것이다. 곡물수매에 관한 최근 2년동안의 경험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그것은 자기의 수중에 많은 잉여곡물을 가지고있으며 또한 곡물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농촌의 부유한 계층들이 필요한 수량의 곡물을 쏘베트정권이 규정한 가격에 따라 자진하여 우리에게 팔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도시와 공업지구, 붉은군대와 공예작물재배지방들을 위한 식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매

년 약 5억뿌드의 곡물이 수요된다. 자연방임적인 방식에 의하면 우리는 약 3억~3억 5,000만뿌드의 곡물을 수매할수 있다. 나머지 1억 5,000만뿌드는 농촌의 부농과 부유한 계층에 대하여 쵸직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써 거두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2년동안의 곡물수매의 경험은 곧 이러한것을 우리에게 말하여준다.

최근 2년동안에 어떤 변화가 발생되였으며 이런 변화들은 어디에서 생겼으며 어찌하여 이전에는 자류방임적인 방식이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고것이 불충분한것으로 되였는가? 부농분자들과 부유한 분자들이 이 몇해동안에 장성하였으며 몇해동안의 풍작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그들은 경제적으로 튼튼하여졌으며 자본을 축적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이 지금 물가등귀를 기다려 여유곡을 창고에 쌓아두고 또한 다른 농산물들로 돌려맞추면서 시장에서 마음대로 수단을 부리는 사태가 발생한것이다.

곡물을 보통상품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곡물은 먹을수도 없고 또한 누구에게나 팔수 없는 면화하고는 다르다. 곡물은 면화와 달라서 우리의 현조건하에서는 누구든지 사야 하며 또 그것이 없이는 생존할수 없는 그러한 상품이다. 부농은 이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에 곡물을 창고에 쌓아두고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곡물소유자들을 감염시키고있다. 부농은 곡물이 보배중의 보배라는것을 알고있다. 부농은 여유곡이 자기의 치부의 수단일뿐만아니라 빈농들을 착취하는 수단이라는 것도 알고있다. 부농의 수중에 있는 여유곡은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부농분자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하여지는 수단이다. 고러므로 우리가 부농들에게서 그 여유곡을 걷어오는 것은 도시와 붉은군대에 대한 곡물공급을 쉽게 할뿐만아니라 또한 부농층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하여지는 수단을 파

피할수 있는것이다.

이 여유곡을 획득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무엇보다도먼저 해롭고 위험한 자류방임의 심리를 일소하여야 한다. 곡물수매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부농을 반대하는데 빈농과 중농 대중을 동원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쏘베트정권의 곡물수매사업의 강화대책을 사회적으로 지지하도록 그들을 조직하여야 한다. 자원적헌납39의 원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우랄과 씨비리에서의 곡물수매방법이 가지는 의의는 그것이 부농을 반대하여 곡물수매를 강화하는데로 농촌의 근로자층을 동원할수 있는 거기에 있다. 이 방법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준다는것은 경험이 보여주었다. 경험은 이 좋은 결과들이 다음의 두 방면에서 나타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첫째로 우리는 농촌의 부유한 계층으로부터 여유곡을 징수하여 그것으로써 국내의 곡물공급을 쉽게 하며 둘째로 우리는 이 사업에서 부농을 반대하는데로 빈농과 중농 대중을 동원하며 그들을 정치적으로 교양하며 그들로써 농촌에서의 우리의 유력한 수백만의 정치적군대를 조직하는것이다. 어떤 동지들은 이 마지막정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랄과 씨비리의 곡물수매방법의 가장 중요한 결과로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결과중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하기는 이 방법은 때로는 부농을 반대하는 비상조치의 적용과 결부된다. 그리하여 부하린과 리꼬브의 희극적개탄을 일으키게 하는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좋지 못한것이 있는가? 어찌하여 때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우리의 계급적원쑤인 부농을 반대하여 비상조치를 적용하여서는 안되는가? 어찌하여 도시에서는 투기업자들을 수백명씩 체포하여 그들을 뚜루한스크변강으로 추방할수 있는데 곡물투기활동을 하며 쏘베트정권을 교살하며 또한 빈농을 착취하려고 시도하는 부농들에

게서는 빈농과 중농들이 우리의 곡물수매기관에 곡물을 파는 그 가격대로 사회적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여유곡을 수매하여서는 안되는가? 그렇게 하여서 안될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 우리 당이 원칙적으로 투기분가와 부농에 대하여 비상조치를 적용하는데 반대한다고 그 어느때에 표시한적이 있는가? 그래 우리 나라에는 투기업자들을 반대하는 법률이 없단말인가?

리꼬브와 부하린은 아마도 부농에 대하여 그 어떠한 비상조치를 취하는것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자산계급자유주의파의 정책이지 맑스주의적정책은 아니다. 여러분은 레닌이 신경제정책을 실시한 이후에도 지어 빈농위원회40의 정책을—물론 일정한 조건하에서—회복하려고까지 주장하였던것을 모를리 없을것이다. 그런데 부농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비상조치를 적용한다는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빈농위원회의 정책에 비하면 창해의 일속만큼도 못되는것이다.

그들, 부하린집단의 지지자들은 계급적적들이 자원적으로 자기의 리익을 포기하고 자진하여 우리에게 자기의 여유곡을 팔도록 그들을 설복할것을 희망하고있다. 그들은, 장성하였고 투기활동을 하고있으며 다른 농산물을 가지고 수단을 부릴수 있으며 또한 자기의 여유곡을 감추고있는 그러한 부농들이 우리의 곡물수매가격대로 자기의 여유곡을 자진하여 우리에게 팔리라는것을 희망하고있다. 그들은 미치지 않았는가? 그들은 계급투쟁의 본질을 리해하지 못하며 계급이란 무엇인가를 모르고있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그런데 곡물수매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집된 농촌대회에서 부농들이 우리 일군들과 쏘베트정권을 어떻게 조롱하였는가를 그들은 알고있는가? 레컨대 까자흐스딴에서 국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곡물을 팔아야 한다고 우리의 선동원이 두시간

동안이나 곡물소유자들에게 설복하고있을 때에 부농이 입에 담배대를 끄나물고나서서 그 선동원에게 《여보게 젊은이, 춤이나 춰보게, 그러면 내가 곡물 두어뿌드를 주지》라고 대답한 그러한 사실을 그들은 알고있는가?

목소리: 숙일놈들!

쓰딸린: 그런 인간들을 좀 설복해보라.

그렇다, 동지들, 계급은 계급인것이다. 그 누구도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것이다. 우랄파 씨비리의 방법이 좋다는것은 실은 그 방법이 부농들을 반대하여 빈농과 중농층을 궐기시킬 가능성을 쉽게 하여주며 부농들의 반항을 격파시킬 가능성을 쉽게 하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여유곡을 쏘베트정권 기관에 팔지 않을수 없게 하기때문이다.

지금 부하린집단에서 가장 류행되고있는 말은 곡물수매사업에서 《지나친 행동》이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를 끄는 상품이다. 그것은 이 말이 저들의 기회주의적로선을 덮어감추는데 도움이 되기때문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로선을 덮어감추려고 할 때에는 늘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물론 부농들을 압박하는데 반대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하는것은 이 면에서 나타나는 중농을 해치는 그러한 지나친 행동이다라고 한다. 그리고나서는 이 지나친 행동의 《폭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농민》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으며 마르꼬브와 같은 동지들이 황급하여 쓴 편지들을 읽으며 그런후에는 부농을 압박하는 정책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보라, 옳은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나친 행동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 옳은 정책을 철폐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옳은 로선을 실시하는데서 지나친 행동이 있었다는 리유로 그 로선을 기회주의적로선으로 바꿈으로써 그 옳은 로선을 철폐하려

는 이것이 기회주의자들의 상투적수단이다. 이 경우에 부하린집단의 지지자들은 보다 더 위험하고 보다 더 해로운 다른 종류의 지나친 행동, 즉 부농과 결합하며 농촌의 부유한 계층에 양보하는 방향, 당의 혁명적정책을 우익분자들의 기회주의적 정책으로써 바꾸는 방향으로의 지나친 행동도 있다는데 대해서는 조심히 침묵을 지키고있다.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러한 지나친 행동을 반대한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농에 대한 타격이 중농을 자극하는데는 반대한다. 이것은 명확한 일로서 이에 대하여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하린집단이 열심히 일삼고있는 그 지나친 행동이라는 그런 공담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정책을 취소하며 또 우리 당의 혁명적정책을 부하린집단의 기회주의적정책으로써 바꾸려고 하는데 대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안된다, 그들의 이런 술책으로써는 사람을 속일수 없다.

당의 정치적조치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런 혹은 저런 지나친 행동이 나타나지 않은적이 있으면 말해보라. 이로부터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는 투쟁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것을 리유로 하여 유일하게 옳은 로선인 그 로선자체를 비난할수 있겠는가?

7시간로동제의 실시와 같은 이러한 조치를 례로 들어보라. 이 조치는 최근에 우리 당이 실시하는 가장 혁명적인 조치중의 하나이라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없다. 실질적으로 극히 혁명적인 이 조치가 우리 나라에서 가끔 여러가지 지나친 행동을 초래하게 되며 때로는 가장 나쁜 지나친 행동을 초래하게 되는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7시간로동제를 실시하는 정책을 철폐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부하린반대파의 지지자들은 곡물수매사업에서의 지나친 행동을 들어가지고 떠드는데 자기들이 어떠한 진구렁에 빠지게 되였는가를 리해하는가?

(11) 외화준비와 곡물수입에 대하여

끝으로, 곡물수입과 외화준비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겠다. 내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뢰꼬브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외국으로부터의 곡물수입문제를 여러번 제기하였던것이다. 뢰꼬브는 처음에 약 8,000만 내지 1억뿌드의 곡물을 수입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자면 외화가 약 2억루블이나 요구된다. 그후 그는 5,000만뿌드의 곡물수입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이것은 외화 1억루블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것을 부정하고 우리 나라 공업용설비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마련한 외화를 소비하는것보다 부농에 압력을 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지 않은 이 여유곡을 내놓게 하는것이 더 낫다고 단정하였다.

지금 뢰꼬브는 활동방향을 바꾸고있다. 지금 그는 자본가들이 우리에게 곡물을 대여하려 하고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는듯이 억설하고있다. 그는 자기가 받은 몇통의 전보에 의하면 자본가들이 우리에게 곡물을 대여하려 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말하였다. 동서에 그는 우리들가운데 제 마음대로이거나 혹은 리해할수 없는 어떤 다른 원인으로 우리에게 대여해주는 곡물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듯이 사태를 묘사하였다.

동지들, 이 모든것은 허튼소리이다. 서방의 자본가들이 갑자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몇천만뿌드의 곡물을 거의 무상으로 또한 장기간 대여하여주려고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동지들, 이것은 허튼소리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각기 부동한 자본가집단들이 우리의 정황을 탐지하고 우리의 재력, 우리의 지불능력, 우리의 견실성을 이미 반년동안이나 탐지하고있다는데 있다. 그들은 빠리, 체스꼬슬로벤스꼬, 미국과 아르헨띠나에 있는 우리 나라의 상업대표들을 찾아와서 우리 나라에 3개월 혹은 기껏해서 6개월이란 최단기의 신용대부의 방식으로 곡물을 팔겠다고 약속하고있다. 그들의 목적은 신용대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곡물을 팔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사실 곤난한가, 우리의 재력이 정말 고갈되였는가, 재정상태가 견실한가, 우리가 그들의 낚시에 물리는가 하는것들을 알아내려는데 있는것이다.

지금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우리의 재력에 관한 론쟁이 크게 벌어지고있다. 어떤자들은 우리가 이미 파산당하였다고 하며 쏘베트정권의 파탄은 몇주일간이 아니면 몇개월간의 문제라고 말하고있다. 또 어떤자들은, 그런것이 아니라 쏘베트정권은 매우 든든하며 그는 재력이 있으며 곡물도 충분하다고 말하고있다.

현재의 파업은 곡물을 대여해주겠다는 허위적인 약속에 속지 말고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견정한 정신과 강의한 정신을 발휘하여 곡물을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을 자본주의세계에 보여주는데 있는것이다. 이것은 나 개인의 의견만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국의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이와 같은 리유로 우리는 1백만딸라의 신용대부의 형식으로 쏘련에 곡물을 수출하겠다는 난쎈따위의 자선가들의 제의를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던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리유로 우리는 우리에게 적은 곡물을 대여하여주겠다는 빠리, 미국, 체스꼬슬로벤스꼬에 있는 자본주의세계의 모든 간첩들에게 부정적인 대답을 주었던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리유로 우리는 곡물소비면에서 최대의 절약을 하며 곡물수매면에서도 최대의 조직성을 발휘하기로 결정하였던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가지 목적을 추구하였다. 즉 한편으로는 곡물을 수입하지 않고 견디여나가며 공업설비의 수입을 위한 외화를 보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적들에게 우리는 견실하며 우리는 그런 작은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에 넘어가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던것이다.

이런 정책이 옳은가? 나는 그것이 유일하게 옳은 정책이였다고 생각한다. 그 정책이 옳다고 하는것은 비단 우리가 여기에서, 즉 우리 국내에서 곡물을 받을 새로운 가능성을 얻게 되였기때문만인것이 아니다. 그 정책이 옳다고 하는것은 또 우리가 곡물을 수입하지 않고도 견디여나가면서 자본주의세계의 간첩들을 물리치면서 우리의 국제적지위를 공고히 하였으며 우리들의 지불능력을 높였으며 쏘베트정권은《멸망에 직면하였다》는 허튼소리를 철저히 분쇄하였기때문이다.

며칠전에 우리는 독일의 자본가대표들과 몇차례의 초보적인 담판을 하였다. 그들은 우리에게 5억의 대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대부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여긴것은 자국의 공업을 위하여 쏘련의 주문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것을 알수 있는것이다.

며칠전에 영국보수당대표단이 우리 나라에 왔었는데 그들도 역시 쏘베트정권의 공고화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쏘련의 공업주문을 자국에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대부금을 제공하는것이 합리하다고 인정하였다.

만일 내가 우에서 말한 그런 필요한 견정성을 우리가 발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선 독일인들로부터, 다음으로는 영국자본가들로부터 그 대부금을 받을 이와 같은 새로운 가능성

을 가지지 못하였을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자의때문에 가상적인 장기적신용대부의 방식으로 가상적인 곡물을 주겠다는것을 거절한데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적들의 진상을 간파하고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내며 그리하여 우리의 국제적지위를 강화함에 필요한 견정성을 발휘하는데 있는것이다.

동지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곡물수입을 거절한 리유이다.

보는바와 같이 곡물수입문제는 여기서 뒤프브가 말한바와 같이 그렇게 단순한것은 아니다. 곡물수입문제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에 관계되는 문제인것이다.

5

당의 지도에 관한 문제

이와 같이 우리는 리론의 령역에서나 우리 당의 국제공산당에 대한 정책 및 국내정책의 령역에서 생긴 우리의 의견상이에 관한 주요한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이상에 론술한바로부터 우리에게 **일치한** 로선이 있다고 하는 뒤프브의 말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상에 론술한바로부터 우리에게는 사실상 **두개** 로선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 하나는 당의 총로선으로서 우리 당의 혁명적인 레닌적로선이며 다른 하나는 부하린집단의 로선이다. 이 둘째 로선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부하린집단내부에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혼란된 견해가 있기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둘째 로선이 당내에서 세력이 약하므로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가장하려고 애쓰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보

는바와 같이 이 로선은 의연히 존재하고있으며 또한 이것은 당의 로선과는 다른 로선으로서 우리 정책의 거의 모든 문제에서 당의 총로선과 대립되는 로선이다. 이 둘째 로선은 우익적 편향의 로선이다.

이제 당의 지도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자.

(1) 부하린집단의 분파활동에 관하여

부하린은 우리 당내에는 반대파가 없으며 저들 부하린집단은 반대파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않다. 전원회의의 론쟁들에서 부하린집단은 새로운 반대파라는것이 아주 명확히 드러났다. 이 집단의 반당활동은 이 집단이 당의 로선을 수정하려고 하며 이 집단이 당의 로선을 재검토하려고 하며 당의 로선을 다른 한 로선, 즉 틀림없이 우익적편향의 로선인 반대파의 로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조건을 준비하고있다는데 있다.

부하린은 3인조는 분파집단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않다. 부하린집단은 분파활동의 모든 요소를 가치고있다. 거기에는 강령도 있고 분파적폐쇄성도 있으며 거기에는 사적정책도 있고 중앙을 반대하는 조직적투쟁도 있다. 이외에 또 무엇이 요구되겠는가? 부하린집단의 분파성이 이미 명백해졌는데 무엇때문에 그 진상을 엄폐하겠는가?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련석전원회의가 소집된것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의 의견상이에 관한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부하린집단이 분파적집단이라는것이 그 진상인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분파적집단인것이 아니라 우리 당내에 존재한 모든 분파적집단들중에서도 가장 불유쾌하고도 치처분한 분파적집단이라고 나는 말하고싶다.

이것은 이 집단이 지금 아쟈리야에서의 소동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소한것까지 자기들의 분파적목적에 리용하려고 하는것만 보아도 명백한것이다. 기실 이 이른바 아쟈리야《폭동》을 크론슈따트폭동41과 같은 그런 폭동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그 폭동과 비교하면 이른바 아쟈리야《폭동》은 심지어 창해일속만도 못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쯔로쯔끼파나 지노위예브파가 이 엄중한 크론슈따트폭동을 중앙위원회를 반대하며 당을 반대하는데 리용하려고 시도한 일이 있었던가? 동지들, 그러한 일은 없었다는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오히려 이 엄중한 폭동이 일어난 시기에 우리 당내에 있던 반대파집단들은 그것을 반당적목적에 리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 폭동을 진압하도록 당을 도왔던것이다.

그런데 지금 부하린집단은 어떻게 행동하고있는가? 당신들은 그들이 이 사소한 아쟈리야《폭동》을 가장 비열하고 가장 무치한 방법으로 당을 반대하는데 리용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아냈을것이다. 이것이 그래 극히 엄중한 분파적활동이 빚어낸 맹목과 타락이 아니고 무엇인가?

보건대 그들은 자본주의국가들과 린접하고있는 변경지구들에서 소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할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있는것 같다. 보건대 그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계급들, 즉 부자와 빈민도, 로동자와 자본가도 모두가 좋아하는 정책을 실시할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있는것 같다. 보건대 그들은 우리 나라에 불평분자가 없도록 할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있는것 같다. 부하린집단중의 이 동지들은 미치지나 않았는가?

국내외자본주의세계와 투쟁하고있는, 무산계급독재를 실시하고있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나라에서 불평분자가 없도록 하며 우리에게 적의를 품고있는 국가들과 린접하여있는 일부 변경지구들에서 이따금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할수 있겠는가? 만일 국제자본이 우리 나라의 변

경지구에서 쏘베트정권을 반대하는 국내불평분자들의 진출을 조직하는데 모든 힘을 경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하여 자본주의적포위가 존재하겠는가? 두뇌가 단순한 자유주의자외에 또 그 누가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제기할수 있겠는가? 분파적소심증이 때로 사람들을 자유주의적 맹목성과 편협성에까지 이르게 한다는것은 과연 똑똑한 일이 아닌가?

(2) 충실성과 집체적지도에 관하여

뢰꼬브는 여기에서 부하린을 우리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가장 《결백한》, 가장 《충실한》 당원의 한사람이라고 단언하였다.

실례이지만 나는 이에 의문을 가진다. 우리는 뢰꼬브의 말을 믿을수 없다. 우리는 사실을 요구한다. 그러나 뢰꼬브에게는 사실이라고 할만한것이 없다.

레컨대 뜨로쯔끼파들과 련계를 가지고있는 까메네브집단과의 부하린의 비밀교섭, 즉 분파적련맹을 조직할데 관한 교섭, 중앙의 정책을 변경할데 관한 교섭, 정치국위원들을 변경할데 관한 교섭, 곡물수매의 위기를 리용하여 중앙을 반대할데 관한 교섭 등을 들어보자. 묻노니, 자기 중앙위원회에 대한 부하린의 《충실성》, 《결백성》은 어디에 있단말인가?

반대로 이것이 그래 정치국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자기의 중앙위원회와 당에 대한 충실성을 **전적으로** 위반한것이 아니란말인가? 만일 이것을 중앙위원회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자기 중앙위원회에 대한 배반행위라고 하겠는가?

부하린은 충실성이니, 성실성이니 하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왜 그는 자기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음과 같이 자문하려고는 하지 않는가? 즉 나는 중앙위원회를 반대하여 뜨

로쯔끼파들과 비밀교섭을 가짐으로써 나의 중앙위원회를 배반하였는데 이것이 자기 중앙위원회에 대한 충실성의 초보적인 요구마저 가장 불성실하게 위반하고있는것이 아닌가라고.

부하린은 여기서 당중앙위원회에는 집체적인 지도가 결여되여있다고 말하였으며 이 집체적지도에 대한 요구를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다수 위원들이 위반하고있다는것을 우리들더러 믿으라고 하였다.

물론 우리 전원회의는 모든것을 참고있다. 전원회의는 부하린의 이 파렴치하고도 위선적인 말에 대해서도 참을것이다. 그러나 그야말로 두터운 낯짝을 가진 사람만이 전원회의에서 대다수 중앙위원들을 이와 같이 감히 반대할것이다.

사실상 대다수 중앙위원들이 국가라는 수레를 끌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것을 앞으로 밀고나가면서 이 간거한 사업에서 부하린집단더러 도와줄것을 요구하였지만 부하린집단은 자기의 중앙위원회를 도와주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도리여 배방으로 중앙위원회를 방해하며 수레바퀴에 몽둥이를 끼워넣으며 사직하겠다고 위협하며 또한 우리 당 중앙위원회를 반대하여 당의 원쑤인 뜨로쯔끼파들과 음모를 꾸미고있는데 그래 여기서 그 무슨 집체적지도라는것을 말할수 있단말인가?

뜨로쯔끼파들과 반당적련맹을 맺고 자기의 중앙을 배반하고있는 부하린이 우리 당 중앙위원회에서의 집체적지도를 원하지 않고있으며 또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위선자이외의 그 누가 부인할수 있겠는가?

부하린이 의연히 중앙위원회의 집체적지도에 대하여 빈소리만 치면서 대다수의 중앙위원들을 나무라고있는것은 그가 자기의 반역적렵장을 엄폐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을 소경이 아닌 이상 그 누가 보지 못하겠는가?

부하린이 당중앙위원회에 대한 충성과 집체적지도의 초보

적인 요구마저 위반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것을 지적해야 하겠다. 우리 당의 력사에는 레닌의 생존시인 브레스트강화시기[42]에 부하린이 강화문제에서 소수로 되자 우리 당의 원쑤인 좌익사회혁명당원[43]한테로 달려가서 그들과 비밀교섭을 하였으며 그들과 련맹을 맺어가지고 레닌과 중앙위원회를 반대하려고 시도한 실례가 있다. 그가 당시 좌익사회혁명당원들과 무엇을 말하였는지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좌익사회혁명당원들이 당시 레닌을 체포하고 반쏘베트적정변을 일으키려고 하였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매우 괴상한것은 부하린이 한편으로는 좌익사회혁명당원들한테 달려가서 그들과 한동아리가 되여 중앙위원회를 반대하는 비밀활동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하는것과 꼭 마찬가지로 집체적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계속 웨쳐댄것이다.

이밖에도 우리 당의 력사에는 레닌의 생존시에 부하린이 우리 당의 모스크바구역지도부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좌익》공산주의자집단의 지지를 받을 때 전체 당원들에게 당중앙에 대한 불신임을 표시하고 당중앙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며 우리 당내의 분렬문제를 제기하라고 호소한 실례도 있다. 이것은 브레스트강화시기에 중앙이 이미 브레스트강화의 조건을 반드시 접수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채택한후의 일이다.[44]

이것이 부하린의 충실성이며 집체적지도이다.

뢰꼬브는 여기서 집단적사업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그와 그의 가장 가까운 벗들은 집단적사업을 지지하고있지만 정치국위원의 다수는 이 집단적사업을 반대하고있다고 암시하였다. 여기에서 뢰꼬브는 자기의 말을 확증할 단 하나의 사실도 들지 못하였다.

뢰꼬브의 이 터무니없는 말을 폭로하기 위하여 뢰꼬브가 어떻게 집단적사업을 실시하였는가를 말해주는 몇가지 사실,

몇가지 실례를 들고저 한다.

첫째 실례. 미국에로 황금을 수출한 일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있는 일이다. 여러분들중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인민위원회 혹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렇지 않으면 중앙의 동의밑에서 혹은 중앙에 알린 다음에 미국에로 황금을 수출하였으리라고 여길것이다. 그러나 동지들, 그렇지 않다.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우리에게는 중앙의 비준이 없이는 황금을 수출하지 못한다는 결정이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위반되였던것이다. 누가 황금을 수출하는것을 허락하였는가? 알아본즉 뢰교브의 한 대리인이 뢰교브에게 알리고 그의 동의밑에서 황금을 수출하였던것이다.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첩단적사업인가?

둘째 실례. 그것은 미국의 어느 한 대개인은행과의 담판에 관한 문제이다. 이 은행의 재산은 10월혁명후에 국유화되였는데 지금 이 은행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있다. 중앙은 이 손해를 배상하는 조건에 관하여 이 은행과 우리 나라의 국립은행대표사이에 담판이 진행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개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알다싶이 우리의 대외정책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 담판이 인민위원회나 혹은 중앙위원회의 비준밑에 진행된것이라고 인정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지들, 사실은 이렇치 않다.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는 이 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후에 중앙위원회에서는 이 담판이 있는것을 알고 담판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이 담판을 비준하였는가 하는데 있다. 알아본즉 그것은 뢰교브의 한 대리인이 뢰교브에게 알리고 그의 동의밑에 그 담판을 허락하였던것이다.

이것이 어디 집단적사업인가?

셋째 실례. 그것은 부농과 중농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데 관한 문제이다. 그것은 로씨야련방경제위원회①(이 위원회의 의장은 로씨야련방에 있는 릐꼬브의 한 대리인임.)가 중농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를 **감소**시키고 농촌의 상층계층 즉 부농에게 공급하는 기계를 **증가**시키기로 결정한것이다. 로씨야련방경제위원회의 반당적, 반쏘베트적 결정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까자흐 및 바쉬끼르 두 쏘베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 씨비리 및 불가강하류변경지구, 불가강중류 및 우랄주에 있어서는 본 조항에 지적되여있는 농업기계와 농구의 공급비률을 농촌의 상층계층에게는 20%까지 **높이고** 중농계층에게는 30%까지 **낮출것**.》

보라, 우리 당이 부농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빈농과 중농 대중을 조직하여 부농을 반대하는 시기에 로씨야련방경제위원회는 중농에 대한 기계공급률을 **낮추**고 농촌의 상층계층에 대한 공급률을 **높일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레닌적, 공산주의적 정책이라는것이다!

후에 중앙에서는 이 괴상한 사건을 알고 경제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이 반쏘베트적결정을 누가 비준하였는가? 그것은 릐꼬브의 한 대리인이 릐꼬브에게 알리고 그의 동의밑에서 비준한것이였다.

이것이 그래 집단적사업인가?

릐꼬브와 그의 대리인들이 집단적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이상과 같은 실례로써도 충분한것 같다.

---

① 즉 로씨야쏘베트련방사회주의공화국 인민위원회 경제위원회이다. —편집자

(3) 우익적편향을 반대하는 투쟁에 대하여

부하린은 우리 당의 조직들에게 《악의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그의 말대로 하면) 정치국위원 세사람이 《정치적으로 사형》[45] 당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부하린은 정치국위원 세사람, 즉 부하린, 릐꼬브와 똠스끼의 오유를 출판물에서와 회의에서 비판한것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사형》한것이며 이리하여 이들 정치국위원 세사람은 《할수없이》 침묵을 지키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동지들, 이 모든것은 허무맹랑한 말이다. 이것은 우익적 편향을 반대하는 당의 투쟁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자유주의화한 공산당원의 거짓말이다. 부하린의 견해에 의하면 그와 그의 벗들이 설사 우익적편향의 오유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당은 이 오유를 폭로할 권리가 없으며 당은 우익적편향과의 투쟁을 중지하고 부하린과 그의 벗들이 자기들의 오유를 포기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것이다.

부하린은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것을 요구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는 그가 당을 위하여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당이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있지나 않는가? 그런데 전당이 일떠나 우익적편향을 반대하고 곤난에 대하여 단호한 공세를 가하고있는 이때에 누가 그를 침묵케 하고 가만히 앉아있게 강박하였는가? 어찌하여 부하린과 그의 가장 친밀한 벗들은 지금 우익적편향 및 그와의 융화주의를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하지 않는가? 만일 부하린과 그의 가장 친밀한 벗들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이 행동을 취하려고 결정하였더라면 당은 그들을 환영했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누가 의심할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들은 무엇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취해야 할 이 행동을 취하려고 결심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자기 집단의 리익을

당 및 당의 총로선의 리익보다 더 중요시한때문이 아닌가? 부하린, 뢰꼬브와 똠스끼가 우익적편향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것은 대체 누구의 탓인가? 정치국위원 세사람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사형》했다고 하는 이 말은 당으로 하여금 침묵을 지키게 하고 우익적편향을 반대하는 투쟁을 중지시키려는 정치국위원 세사람의 서투르게 가장한 시도인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우익적편향을 반대하는 투쟁을 우리 당의 차요적인 과업으로 간주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우익적편향을 반대하는 투쟁은 우리 당의 결정적과업의 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자기의 대오내에서, 자기의 당내에서, 운동을 지도하며 무산계급을 앞으로 인도하고있는 무산계급정치참모부내에서 당을 해체시키며 로동계급을 와해시키며 우리의 정책을 《쏘베트》자산계급의 구미에 맞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곤난앞에 굴복하려고 시도하는 우익분자들의 자유로운 존재와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한다면—만일 우리가 이 모든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혁명을 점차 제동하고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파탄시키며 곤난을 회피하며 자본주의분자들에게 진지를 내여주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우익적편향을 반대하는 투쟁을 거부하는것은 로동계급을 배반하고 혁명을 배반하는것이라는것을 부하린집단은 리해하고있는가?

우익적편향 및 우익적편향에 대한 융화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앞에 놓여있는 곤난을 극복할수 없으며 이런 곤난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전취할수 없다는것을 부하린집단은 리해하고있는가?

사실이 이러한데 정치국위원 세사람이 《정치적으로 사형》

당했다고 하는 가련한 말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아니다, 동지들, 부하린분자들은 이른바 《정치적으로 사형》당했다는 자유주의적공담으로써는 당을 놀래울수 없다. 당은, 그들이 우리 당의 전체 중앙위원들과 함께 한대렬에 서서 우익적편향과 우익적편향에 대한 융화주의와 견결히 투쟁할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있다. 당은, 로동계급을 동원하는 사업을 용이하게 하며 계급적적들의 반항을 짓부시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봉착하는 곤난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 부하린집단에게 이렇게 할것을 요구하는것이다.

부하린파가 당의 이 요구를 수행한다면 그때에는 당은 그들을 환영할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는 그들은 자기자신을 원망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6
결 론

결론으로 넘어가겠다.

나는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기한다.

(1) 우선 부하린집단의 견해를 규탄하여야 한다. 이 집단의 성명과 이 집단의 대표들의 연설에서 진술된 견해는 당의 로선과 상용될수 없으며 그것은 완전히 우익적편향의 립장과 전적으로 일치하다는것을 인정하고 이 견해를 규탄하여야 한다.

(2) 부하린과 까메네브집단과의 비밀교섭을 부하린집단의 불충실성 및 분파성의 가장 뚜렷한 표현으로서 규탄하여야 한다.

(3) 부하린과 똠스끼가 취한 사직정책을 당규률의 초보적

인 요구에 대한 엄중한 위반으로서 규탄하여야 한다.

(4) 부하린과 똠스끼의 현임직무를 파면하는 동시에 만일 그들이 중앙위원회결정에 조금이라도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는 부득이 그들을 정치국에서 제명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5)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회의에서 연설할 때에 당로선 및 중앙위원회와 그의 각 기관들의 결정을 조금이라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당기관지나 쏘베트기관지나 신문잡지에서 당의 로선 및 당의 지도기관의 결정을 완전히 리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당, 중앙위원회, 당정치국에서 결정한 비밀을 루설하려고 시도하는자들에 대하여서는 중앙위원회 및 당으로부터 제명하는데까지 이르는 특별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8) 당내문제에 관한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련석전원회의의 결정서를 당분간 출판물에 공포하지 말고 각 지방당조직 및 제16차대표자회의46 대표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것이 현사태에서 벗어날수 있는 출로인것 같다.

어떤 동지들은, 부하린과 똠스끼의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의 자격을 즉시 취소할것을 주장하고있다. 나는 이런 동지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것 같다.

《쓰딸린전집》, 제12권에
전문이 처음으로 발표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2권, 3~96페지

대중의 경쟁과 로력적앙양

(예. 미꿀리나의 소책자
《대중의 경쟁》의 서문)

현재 우리 나라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실중의 하나는 수백만 로동자대중속에서 광범히 전개되고있는 경쟁운동이라는것을 의심할수가 없을것이다. 광대한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의 경쟁, 로동자와 농민간의 경쟁, 집단농장과 국영농장간의 경쟁, 이런 대중적생산의 호상경쟁을 근로자들의 특별계약에 규정하는것—이 모든것은 대중의 사회주의적경쟁이 벌써 전개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조금도 의심할바없는 사실들이다.

근로대중의 강력한 생산의욕이 앙양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절망적인 회의론자들까지도 지금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회주의는 경쟁을 말살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로 비로소 경쟁을 진실로 광범하게, 진실로 대중적인 규모에서 적용할 가능성을 지어주며 또한 근로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시키며 재능을 발휘할수 있는 그러한 활동무대에 참으로 그들의 대다수를 끌어넣을 가능성을 지어준다. 인민속에 있는 이 재능은 무궁무진하게 잠재하고있는데 자본주의는 이 재능을 대량적으로 유린하고 억압하고 절식시켰던것이다.…》

《…오늘에야 비로소 기업욕, 경쟁심, 용감한 창의를 발휘할 가능

성이 참으로 대중적으로 광범하게 조성되였다.…》 왜냐 하면 《몇세기동안이나 남을 위하여 로동하고 착취자를 위하여 강제로동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일할 가능성이 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정부가 정권을 장악하고있는 오늘 우리의 과업은 경쟁을 조직하는것이다.》①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6차대표자회의46가 경쟁에 관하여 로동자와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호소문을 발표하였을 때에 그것은 바로 레닌의 이 명제로부터 출발하였던것이다.

일부 관료주의적《동지》들은, 경쟁은 볼쉐위크들의 새로운 류행에 지나지 않으며 《계절》이 지나면 필연코 쇠퇴하여버릴 그러한것으로 생각하고있다. 관료주의자들인 이런 《동지》들은 물론 잘못 생각하고있다. 실제에 있어서 경쟁은 수백만 근로대중의 최대한의 **적극성**에 기초한 **사회주의건설의 공산주의적방법**인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경쟁은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의 토대우에서 나라의 일체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을 전화시키는 사명을 가진 그러한 **공간**인것이다.

관료주의자들인 또 다른 《동지》들은 경쟁의 거센 파도에 질겁하여 이 경쟁에 인위적인 틀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제한하며 경쟁을 《중앙집권화》하며 그 규모를 축소시키며 그리하여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것—대중의 **창발성**을 박탈하려고 시도하고있다. 관료주의자들의 시도가 실현될수 없으리라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쨌든 당은 그러한 시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모든 대책을 취할것이다.

사회주의경쟁을 사무실적인 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사회주의경쟁은 수백만 근로자들의 창조적**창발성**에 렵각하는 대중의 실무적인 혁명적**자기비판**의 표현인것이다. 의식적이건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392페지와 393페지를 보라.—편집자

무의식적이건 대중의 이 자기비판과 이 창조적창발성을 억압하는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우리의 위대한 사업에 대한 장애물로서 응당 제거되여야 한다.

관료주의의 위험성은 구체적으로는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대중의 정력, 창발성 및 자주적활동을 구속하고 우리 제도의 내부에, 로동계급 및 농민의 내부에 잠재하고있는 거대한 예비력을 억눌러두고 우리의 계급적원쑤와의 투쟁에서 이 예비력을 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서 표현된다. 사회주의경쟁의 과업은 이러한 관료주의적속박을 분쇄하며 대중의 정력과 창조적창발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광활한 활무대를 열어놓으며 우리 나라 제도의 내부에 잠재하는 거대한 예비력을 발현케 하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내외의 계급적원쑤와의 투쟁에 리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때때로 사회주의경쟁을 보통경쟁과 혼동한다. 이것은 커다란 오유이다. 사회주의경쟁과 보통경쟁은 판이한 두개의 원칙이다.

보통경쟁의 원칙은—일부 사람의 패배와 죽음, 다른 일부 사람의 승리와 지배이다.

사회주의경쟁의 원칙은 일반적인 앙양을 달성하기 위한 선진분자의 락후분자에 대한 동지적방조이다.

보통경쟁은 이렇게 말한다.—자기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락후한자를 타도하라고.

사회주의경쟁은 이렇게 말한다.—일부 사람은 일을 잘못하고 또 일부사람은 일을 잘하고 제3부류는 일을 더 훌륭히 한다.— 일을 더 훌륭히 하는자를 따라가라, 그리하여 일반적인 앙양을 달성하라고.

사회주의경쟁의 결과로 일어나는 수백만 근로대중을 포괄한 전대미문의 생산열의는 실로 이로써 설명되는것이다. 보통

경쟁은 결코 대중의 이와 같은 열의와 비슷한 어떤것도 불러 일으키지 못한다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우리의 출판물들에는 사회주의적경쟁에 관한 론설과 기사들이 빈번히 게재되군 한다. 경쟁의 철학에 대하여, 경쟁의 근원에 대하여, 경쟁의 가능한 결과 등등에 대하여 쓰고들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경쟁이 대중자체에 의하여, 어떻게 수행되고있는가 하는 정경, 수백만의 로동자대중이 경쟁을 하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무엇을 체험하고있는가 하는 정경, 로동자대중이 경쟁운동을 자기자신의 혈연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있는 정경 등을 얼마만이라도 조리있게 묘사한 기사는 드물게밖에 볼수 없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경쟁의 이러한 면이 극히 중요한것이다.

예. 미꿀리나동지의 소책자는 경쟁의 실천중에서 얻은 자료들에 근거하여 근로자대중자체의 사업으로서의 경쟁을 조리있게 서술한 첫시도라고 나는 본다. 이 소책자의 가치는 그것이 사회주의적경쟁의 내부적원동력으로 되는 위대한 로력적앙양의 심오한 과정에 관한 간결하고 진실한 이야기라는데 있다.

1929년 5월 11일

1929년 5월 22일 《쁘라우다》
제114호에 게재

서명: 이. 쓰딸린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2권, 97～100페지

위대한 전환의 해

(10월혁명 12주년에 제하여)

지난해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한해였다. 이 전환은 도시 및 농촌의 자본주의적분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의 단호한 진공의 기치밑에서 진행되였고 또한 계속 진행되고있다. 이 진공의 특징은 그것이 우리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재건(개조)의 여러 기본적분야에서 벌써 우리에게 많은 결정적성공을 주었다는 점에 있는것이다.

이로부터 당은 신경제정책의 첫단계들에서 우리의 퇴각을 타당하게 리용하여 그후의 신경제정책의 다음단계들에서 전환을 조직하며 자본주의적분자들에 대한 성과적진공을 수행하였다는 결론이 나오는것이다.

레닌은 신경제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 퇴각, 마치도 뒤로 퇴각하는듯하지만 우리는 먼저 뒤걸음질하였다가 다음에 뛰여서 힘차게 앞으로 조약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것이다. 오직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신경제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뒤로 퇴각한것이다. …그것은 퇴각하였다가 앞으로 가장 완강한 진공을 시작하기 위하여서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61～362페지)①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395페지를 보라.—편집자

지난 1년간의 총화는 당이 자기의 사업에 있어서 레닌의 이 결정적인 지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다는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말하여준다.

* * *

만일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의의가 있는 경제건설의 분야에서의 지난 1년간의 총화를 들어본다면 이 전선에서의 우리의 진공의 **성공**, 지난 1년동안의 우리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본적요인에 귀착시킬수 있을것이다.

1

로동생산능률면에서

지난 1년동안의 우리의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들중의 하나는 우리가 로동생산능률면에서 **결정적전환**을 달성해낸 그 사실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것이다. 이 전환은 사회주의건설전선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수백만 대중이 **창조적창발성**을 발휘하였으며 강력한 **로력적앙양**을 일으킨데서 나타났다. 이 점에 지난 1년동안의 우리의 첫째 기본적성과가 있다.

대중의 창조적창발성 및 로력적앙양이 전개된것은 다음의 세가지 기본적인 선을 통하여 촉진되였다. 즉

(ㄱ) **자기비판**을 통하여—대중의 로동의 창발성 및 로동의 적극성을 속박하는 관료주의와의 투쟁의 선을 통하여,

(ㄴ) **사회주의경쟁**을 통하여—태공분자 및 무산계급의 로동규률을 파괴하는자들과의 투쟁의 선을 통하여,

(ㄷ) **련속작업제**[47]의 조직을 통하여—생산에서의 보수성

및 완고성과의 투쟁의 선을 통하여.

그 결과 우리는 광대한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로동계급의 수백만 대중의 로동열의와 중산로동호조에의 호응의 형태로서 나타난 로동전선에서 위대한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그런데 이 성과의 의의는 참으로 비할바없이 큰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수백만 대중의 로력적앙양과 로력적열의만이 로동생산능률의 부단적장성을 보장할수 있는것이며 또 이와 같은 장성이 없이는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는 생각도 할수 없기때문이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로동생산능률—이것은 결국 새로운 사회제도의 승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되는것이다. 자본주의는 농노제도밑에서는 일찌기 볼수 없었던 로동생산능률을 창조하였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새롭고 훨씬 더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창조할 때에야 종국적으로 극복될수 있으며 또 종국적으로 극복되고말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342페지)①

이로부터 출발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우리는 로동열의, 로동의욕, 그리고 완강성으로써 충만되여야 할것이다. 왜냐 하면 지금 로동자 및 농민의 가장 급속한 구제와 인민경제의 구제는 이에 달려있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477페지)②

이러한것이 곧 레닌이 당앞에 내세운 과업이다.

지난 1년은 당이 이 도상에 놓여있는 난관들을 과감히 극복하면서 이 과업을 성과있게 수행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지난 1년동안에 당이 거둔 첫째 중요한 성과는 이러하다.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6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31권, 363페지를 보라.—편집자

2
공업건설면에서

당의 둘째 성과는 첫째 성과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당이 거둔 둘째 성과는 우리가 지난 1년동안에 중공업의 기본건설을 위한 **자금의 축적문제**를 기본적으로 순리롭게 해결하였으며 생산수단생산의 발전에서 **급속한 속도**를 취하였으며 또 우리 나라를 **금속의** 나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만들어놓은데 있다.

여기에 지난 1년동안에 우리가 거둔 둘째 기본적성과가 였다.

경공업문제에는 특별한 곤난이 없다. 우리는 그 문제를 몇해전에 벌써 해결하였다. 보다 어렵고 또 보다 중요한것은 중공업문제이다.

보다 어렵다고 하는것은 그것이 거액의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공업이 락후한 나라들의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중공업은 거액의 장기차관이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하다고 하는것은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런 공업도 건설할수 없으며 아무런 공업화도 실시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장기차관도, 얼마간의 장기신용대부도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지금도 받지 못하고있으므로 이 문제의 첨예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명백한것이다.

모든 나라의 자본가들이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써 축적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것이며 중공업을 재건하는 문제에서 실패하

고 부득이 우리가 그들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노예로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차관 및 신용대부를 줄것을 거절하고있는것은 실로 이로부터 출발하는것이다.

그런데 지난 1년간의 총결은 이 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지난 1년간의 총결의 의의는 그 총결이 자본가나으리들의 타산을 산산이 분쇄하여버린데 있다.

지난 1년은 쏘련에 대하여 공공연한 또는 은연한 금융적 봉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본가들의 노예로 되지 않았으며 또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써 축적문제를 성과있게 해결하여 중공업의 기초를 닦아놓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지금에 와서는 지어 로동계급의 가장 흉악한 적들까지도 이것을 부인할수 없게 되였다.

사실에 있어서 첫째로, 작년에는 대공업의 기본건설에 대한 투자액이 16억루블이상이였으며 그중에서 약 13억루블이 중공업에 지출되였는데 금년에 와서는 대공업의 기본건설에 대한 투자액이 34억루블이상에 달하고 그중에서 25억루블이상이 중공업에 지출될것이며 둘째로, 작년에는 대공업의 총생산액이 23% 증가되였으며 그중에서 중공업이 30% 증가되였는데 금년에 와서는 대공업의 총생산액이 반드시 32%나 증가되여야 하며 그중에서 중공업이 반드시 46%나 증가되여야 한다면--중공업의 건설을 위한 자금축적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극복할수 없는 난관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이 그래 명백하지 않단말인가?

우리가 종전의 속도를 앞질러나가면서 또한 우리의 《예로부터의》 락후성을 뒤에 내던져버리고 우리의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일층 빠른 보조로 전진하고있음을 그래 의심할수 있단말인가?

이상과 같다고 한다면 5개년계획의 예정안이 지난 1년간

에 넘쳐완수되였으며 자산계급문필가들이 《달성할수 없는 환상》으로 간주하였고 또 우리의 우익기회주의자들(부하린집단)에게 공포증을 일으키게 한 5개년계획의 **최상**안이 사실에 있어서는 5개년계획의 **최소**안으로 변하였다는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수 있겠는가?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로씨야를 구원함에 있어서 단지 농업의 풍작만으로써는 부족하며 또한 농민에게 필수품을 공급하는 경공업의 형편이 좋은것만으로써도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중공업도 필요하다.…중공업을 구원하지 않고서는, 중공업을 부흥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공업도 건설할수 없으며 또 공업이 없이는 우리는 대체로 망해버리게 될것이며 독립국가로도 될수 없다.…중공업은 국가의 보조금을 필요로 한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회주의국가는커녕 문명국가로도 되지 못하고 망해버릴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49페지)①

레닌은 축적문제와 중공업건설에 관한 당의 과업을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제기하였다.

지난 1년은 당이 이 로상에 가로놓여있는 온갖 난관들을 단호히 극복하면서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물론 공업에 더는 중대한 난관들이 없으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중공업건설의 과업은 다만 축적문제에만 관계되는것이 아니다. 이 과업은 또한 간부문제 즉

(ㄱ) 쏘베트에 호의를 가진 수만명의 기술자 및 전문가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참가**시키는 문제,

(ㄴ) 로동계급출신인 새 붉은 기술자 및 붉은 전문가들을 **양성**해내는 문제에도 관계되는것이다.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66페지를 보라.—편집자

만일 축적문제가 대체로 해결된것으로 간주할수 있다면 간부문제는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간부문제는 현재 공업을 기술적으로 재건하는 정세하에서는 사회주의건설 사업의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로 되는것이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부족되는 주되는것은 문화성과 관리능력이다.… 신경제정책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사회주의경제의 토대를 축성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여준다. 문제는 〈다만〉 무산계급과 그 전위대의 문화적력량에 달려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207페지)①

여기에서 말하고있는것은 우선 《문화적력량》의 문제, 일반적으로는 경제건설을 위한 또 특수적으로는 공업건설 및 그 관리를 위한 간부문제란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로부터는 중공업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축적의 분야에서 매우 큰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간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는 한 중공업의 건설문제는 완전히 해결된것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것이다.

이로부터 제기되는 당의 과업은 간부문제의 해결에 착수하며 기어이 이 요새를 점령하는 그것이다.

지난 1년동안 당이 거둔 둘째 성과는 이러하다.

3

농업건설면에서

마지막으로, 지난 1년동안에 거둔 이상의 두가지 성과와 유기적으로 련결된 당의 셋째 성과에 관하여 말하려 한다. 그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220~221페지를 보라.—편집자

것은 우리의 농업발전에서의 근본적전환, 즉 소규모적인 락후한 개인경영으로부터 대규모적인 선진적집단적농업에로, 토지의 공동경작에로, 농기계-뜨락또르임경소에로, 새 기술에 의거하는 로동조합, 즉 집단농장에로, 마지막으로는 수백대의 뜨락또르와 꼼바인으로 장비된 거대한 국영농장에로의 근본적전환에 관하여 말하는것이다.

이에 있어서 당이 거둔 성과는 우리가 허다한 지방들에서 기본적농민대중을 낡은 자본주의적발전의 길로부터 새로운 사회주의적발전의 길로 돌아서게 하였다는데 있다. 이 자본주의발전의 길은 다만 한줌도 못되는 부자-자본가들만이 리득을 보고 절대다수의 농민은 령락하고 빈사의 지경에 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발전의 길은 부자-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중농과 빈농을 새로이 재장비시키며 새 농구로써 장비시키며 뜨락또르와 농업기계로 장비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빈궁과 부농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여 조합적으로, 집단적으로 토지를 경작하는 넓은 길에 나설수 있게 하는것이다.

당이 거둔 성과는 우리가 믿기 어려운 난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농들 및 승려들로부터 속물 및 우익기회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암흑세력의 결사적인 반항에도 불구하고 농민자체속에서 이 근본적전환을 조직해내며 또 빈농 및 중농의 광범한 대중을 끌고나아가는데 성공하였다는데 있다.

다음에 몇가지 수자를 보도록 하자.

1928년에 국영농장들의 파종면적은 142만 5,000헥타르이고 그 상품곡물생산액은 600만젠트네르이상(3,600만뿌드이상)이였으며 집단농장들의 파종면적은 139만헥타르이고 그 상품곡물생산액은 약 350만젠트네르(2,000만뿌드이상)였다.

1929년에는 국영농장들의 파종면적은 181만 6,000헥타르

이고 그 상품곡물생산액은 약 800만젠트네르(약 4,700만뿌드)였으며 집단농장들의 파종면적은 426만 2,000헥타르이고 그 상품곡물생산액은 약 1,300만젠트네르(약 7,800만뿌드)였다.

닥쳐오는 1930년에는 국영농장들의 파종면적은 통제수자에 의하면 328만헥타르로 될것이고 그의 상품곡물생산액은 1,800만젠트네르(약 1억 1,000만뿌드)로 될것이며 집단농장들의 파종면적은 반드시 1,500만헥타르로 될것이고 그 상품곡물생산액은 약 4,900만젠트네르(약 3억뿌드)로 될것이다.

달리말하면 닥쳐오는 1930년에는 국영농장 및 집단농장에서의 상품곡물생산액은 4억뿌드이상, 즉 **전체** 농업의 상품곡물생산액(농촌밖에서 매매되는 곡물)의 50%이상으로 될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발전속도는 대체로 그 거대한 발전속도로써 특징지어지는 우리의 사회주의화된 대규모적공업에서조차도 **찾아볼수 없는** 속도임을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우리의 청소한 사회주의적대농업(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 위대한 장래성을 가지고있으며 또한 그것이 기적적인 장성을 보이리라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집단농장건설분야에서의 이 전례없는 성과는 여러가지 원인으로써 설명되는바 그 원인중에서 적어도 다음의 몇가지를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이 성과는 **무엇보다도먼저** 당이 협동조합운동의 보급을 통하여 일관하게 농민대중을 집단농장에로 인입하면서 대중을 교양하는 레닌의 정책을 실시한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이 성과는 당이 운동보다 앞서나가려고 하며 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써 집단농장을 발전시키려고 시도한자들(《좌익적》공담가)과 그리고 또 당을 뒤로 끌어당기려고 하며 운동의 뒤꼬리에 떨어져있으려고 시도한자들(우익적미련둥이)과 성공적인 투쟁

을 수행하였다는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없이는 당은 집단농장운동을 농민자체의 진정한 대중적운동으로 전환시키지 못하였을것이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페쯔로그라드의 무산계급과 페쯔로그라드 수비대의 병사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들은 농촌의 건설에서는 큰 곤난에 봉착하리라는것, 여기에서는 보다 더 점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것, 여기에서 법령으로다 법률로써 토지의 공동경작을 실시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것, 이 공동경작에 대하여 호응할수 있는것은 극소수의 의식있는 농민이며 농민의 대다수는 이 과업을 제기하지도 않고있음을 잘 알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것에 국한하였던것이다. 즉 결코 대중의 발전보다 앞서나아가지 않고 이 대중자신의 경험과 그들자신의 투쟁에서 전진운동이 전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252페지)①

당이 집단농장건설전선에서 아주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당이 레닌의 이 전술적지시를 정확하게 실행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농업건설사업에서 얻은 이 미증유의 성과는 쏘베트정권이 농민들의 새 농구, 새 기술에 대한 요구가 자라나는것을 옳게 예견하였으며 또 토지경작의 낡은 형태로서는 농민의 상태가 절망적이라는것을 옳게 예견하였으며 이 모든것을 고려하고서 농기구임대소, 뜨락또르대, 농기계-뜨락또르임경소 등으로써, 토지의 공동경작을 조직하는것으로써, 집단농장을 설치하는것으로써, 마지막으로는 국영농장들의 힘으로써, 농민경영에 각 방면으로 원조를 주는것으로써, 농민에 대한 원조를 제때에 조직하였다는 그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근로농민대중에게 계통적이며 장구한 생산상의 원조를 주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8권, 124페지를 보라.—편집자

는데 대한 자기의 용의와 자기의 능력을 사실에서 증명한 정권, 즉 쏘베트정권이 인류의 력사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옛날부터 농구의 결핍으로 고통을 받아오던 근로농민대중이 이 원조에 탈혀불어 집단농장운동의 길에 나서지 않을수 없었던것은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그리하여 지금부터는 《농촌에 낯을 돌리라》는 로동자들의 낡은 구호가 아마도 《도시에 낯을 돌리라》는 집단적농민들의 새로운 구호로써 보충되게 되리라는것을 어찌 이상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집단농장건설사업에서의 이 미증유의 성과는 우리 나라의 선진적로동자들이 이 사업을 담당하였다는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나는 우리 나라의 주요한 지방들에 몇십 몇백개씩 널려있는 로동자작업반을 념두에 두고있는것이다. 집단농장운동에 대한 헌존한 또는 장차 있게 될 모든 선전원들중에서 로동자선전원들이 농민대중속에서의 가장 탁월한 선전원들이라는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집단적대경영이 개인적소경영보다 우월하다는것, 또 헌존하는 집단농장 및 국영농장들이 이 우월성을 실증하는 명백한 실례로 되는 이상 로동자들이 그것을 농민들에게 납득되도록 설복할수 있었다는것이 무슨 이상한 일이겠는가?

집단농장건설분야에서의 우리의 성과는 내가 보기에는 최근 몇해동안에 얻은 모든 성과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이 성과는 실로 이러한 토대우에서 자라난것이다.

4만 내지 5만헥타르의 대규모적곡물공장을 세울 가능성 및 적당성에 대한 《과학》의 반대론은 붕괴되였으며 산산이 분쇄되였다. 실천은, 다만 실천만이 《과학》에서 배워야 할뿐만 아니라 《과학》도 실천에서 배우는것이 해롭지 않다는것을 다

시한번 증명하여놓음으로써 그 《과학》의 반대론을 론박하여버렸다.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대규모적인 거대한 곡물공장들의 뿌리를 박지 못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나라이다. 이 《자그마한》 차이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본가가 있는 거기에서는 많은 면적의 토지를 사들이지 않거나 또는 절대지대를 물지 않고서는 대규모적곡물공장을 세울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것은 생산에 거대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토지의 사적소유가 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와 반대로 절대지대도, 토지매매도 없다. 이것은 대규모적곡물농장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놓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에는 토지의 사적소유가 없기때문이다.

자본가가 있는 거기에서는 대규모적곡물공장은 최대한도의 리윤을 얻든가 그렇치 않으면 적어도 소위 평균리윤률에 해당하는 그러한 리윤을 얻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것이니 그렇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말하여 자본가는 곡물농장을 세우는데 흥취를 가지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와 반대로 동시에 국가적경영이기도 한 대규모적곡물농장은 그자체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도의 리윤도, 평균리윤률도 요구하지 않고도리여 최소한도의 리윤으로써 만족할수 있으며 또한 어떤 때에는 하등의 리윤이 없이도 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또한 대규모적곡물경영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들을 지어주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대규모적곡물농장을 위한 특혜적신용대부도, 특혜적조세제도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와 반대로 사회주의적부분을 지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쏘베트제도하에서는 그러한 특혜들이 존재하고있으며 또 앞으로

도 존재할것이다.

존경하는 《과학》은 이 모든것을 잊어버렸다.

우익기회주의자들(부하린집단)의 주장들 즉,

(ㄱ) 농민들은 집단농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것이며

(ㄴ) 집단농장의 급속한 발전은 오직 대중의 불만 및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결별만을 일으킬것이며

(ㄷ)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발전의 《대로》는 집단농장인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인것이며

(ㄹ) 집단농장의 발전 또는 농촌의 자본주의분자에 대한 공격은 우리 나라에 곡물결핍을 가져오게 하리라는 주장들은 붕괴되였으며 산산이 분쇄되여버렸다.

이와 같은 모든 자산계급자유주의적인 케케묵은 폐물은 붕괴되였으며 산산이 분쇄되였다.

첫째로, 농민들은 집단농장으로 들어왔으며 그것도 전 촌적으로, 전 향적으로, 전 지역적으로 집단농장으로 들어왔다.

둘째로, 대중적집단농장운동은 로농결합을 약화시킨것이 아니라 그것을 튼튼히 하여놓았으며 그것에 새로운 생산적토대를 지어주었다. 만일 농민의 기본적대중에게 어떤 중대한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쏘베트정권의 집단농장정책에 대한것이 아니라 쏘베트정권이 농민들에게 기계와 뜨락또르를 공급하는 면에서 집단농장운동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대한것임을 지금에는 장님이라도 볼수 있는것이다.

셋째로, 농촌의 사회주의적발전의 《대로》에 관한 론쟁은 아이헨왈드와 슬렙꼬브따위의 어린 소자산계급적자유주의자들에게나 알맞는 반쇄철학적론쟁인것이다. 아직 대중적집단농장운동이 없었던 때에는 협동조합의 저급적형태인 공급 및 판매협동조합들이 《대로》였지만 협동조합의 보다 높은 형태, 즉 협동조합의 집단농장적형태가 무대에 나선 때에는 이 집단농

장적형태가 발전의 《대로》인것은 명백한 일이다.

저급(공급-판매의)형태로부터 고급(생산-집단농장의)형태에 이르기까지의 농업협동조합의 모든 형태를 포함하고있는 레닌의 협동조합계획은 농촌의 사회주의적발전의 인용부를 달지 않은 대로인것이다. 집단농장를 협동조합에 대립시키는것은 레닌주의를 모욕하는것이며 또한 자기자신의 무지를 폭로함을 의미하는것이다.

넷째로,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에 대한 공격이 없이는, 또 집단농장 및 국영농장 운동의 발전이 없이는 우리는 지금 곡물수매사업에서 금년에 얻은 그 결정적성과도 또 이미 국가의 수중에 저축되여있는 그 수천만뿌드의 상비곡물저장도 가질 수 없었으리라는것은 지금에 와서는 장님이라도 볼수 있는것이다.

그뿐만아니라 집단농장-국영농장운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곡물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져나오고있거나 아니면 벌써 벗어져나왔다는것을 확언할수 있는것이다. 만일 집단농장 및 국영농장들이 더욱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여나간다면 한 2, 3년 지나서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가는 곡물산출국의 하나로 되거나 지어 제일가는 곡물산출국으로도 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 근거가 없다.

오늘 집단농장운동에서의 새로운것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집단농장운동에서 새로운 결정적인것은 농민들이 이전처럼 개개의 소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전 촌, 전 향, 전 구역 지어 전 주적으로 집단농장으로 들어오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이것은 중농이 집단농장에 들어온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여기에 바로 지난 1년간의 쏘베트정권의 가장 중요한 성과인 농업발전에서의 근본적 전환의 기초가 있는것이다.

로동계급이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 기본적농민대중을 이끌고나갈 능력이 없다고 하는 뜨로쯔끼주의의 멘쉐위크적《관념》은 붕괴되고있으며 산산이 분쇄되고있다. 지금에 와서는 지어 장님이라도 중농들이 집단농장쪽으로 돌아선것을 볼수 있다. 지금에 와서는 공업과 농업의 5개년계획은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5개년계획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5개년계획을 경축할 권리가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다 명백한 일이다.

쏘련에서의 자본주의의 재생을 꿈꾸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자본가들의 마지막 한가닥 희망인《사적소유의 신성한 원칙》은 붕괴되고있으며 거품으로 되고있다. 그들이 자본주의의 지반의 비료로 보고있던 농민들은 그 찬양받던《사적소유》의 기치를 대중적으로 내던지고 집단주의의 궤도에로, 사회주의의 궤도에로 넘어서고있다. 자본주의의 재생에 대한 마지막 한가닥 희망은 붕괴되고있다.

진격하고있는 사회주의에 반대하여 구세계의 모든 힘을 궐기시키려는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분자들의 필사적시도는, 계급투쟁을 첨예화시키려는 시도는 바로 이것에 의한것이다. 자산계급은 사회주의에로《성장》하려 하지 않는것이다.

자산계급의 최사슬에 매여있는 주구들, 여러가지 스뜨루웨도배와 게쎈도배, 밀류꼬브도배와 께렌스끼도배, 단도배와 아브라모위치도배들이 최근에 와서 볼쉐위크주의에 적의를 품고 영악스럽게 짖어대는것은 또한 이것에 의한것이다. 자본주의의 복구에 대한 최후의 희망이 사라져가고있으니 어찌 광분하지 않을수 있으랴.

계급적적들의 이와 같은 발광적인 격분과 자산계급주구들의 이와 같은 광란적인 고함은 당이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려운 전선에서 참으로 결정적승리를 거두었다는것을 증명하는

것외에 무엇을 더 증명할수 있겠는가?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실제적으로 농민에게 공동적, 집단적, 조합적, 로동조합적 토지경작의 우월성을 보여줄수 있게 되는 경우에라야만, 또 조합적, 로동조합적 경영방법에 의하여 농민을 원조할수 있게 되는 경우에라야만, 그때에라야만 비로소 국가정권을 장악하고있는 로동계급은 현실적으로 농민에게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여주게 될것이며 현실적으로 수천만 농민대중을 확고히 또한 진정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579페지)①

레닌은 수백만 농민을 로동계급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도문제를, 또 농민을 집단농장건설의 궤도에로 옮겨세우는 방도문제를 이렇게 세웠다.

지난 1년은 당이 이 도상에 가로놓여있는 일체 난관을 견결히 극복해가면서 이 과업을 성과있게 실행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중농은 공산주의사회에서 우리가 그들의 생활의 경제적조건들을 헐하게 하여주며 또 개선하여주는 그때에라야만 우리 편에 서게 될것이다. 만일 우리가 래일 10만대의 제1급뜨락또르를 제공하고 아울러 휘발유와 운전수를 보내줄수 있다면(당신들은 이것이 지금은 아직 몽상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중농은 〈나는 꼼무니야를 찬성하오.〉(즉 공산주의를 찬성한다.)라고 말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국제자산계급을 타승하여야 할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 뜨락또르를 공급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로 이 뜨락또르들을 제공할수 있으리만큼 우리의 생산력을 높여야 할것이다. 이 문제는 오직 이렇게 세우는것만이 정당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170페지)②

레닌은 중농을 기술적으로 재장비시키는 방도문제를, 중농을 공산주의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도문제를 이렇게 세웠다.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06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29권, 184~185페지를 보라.—편집자

지난 1년은 당이 이 과업도 성과적으로 실행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끝 닥쳐올 1930년 봄에 가서는 우리의 전야에는 6만대이상의 뜨락또르가 있게 될것이며 그후 한해를 지나서는 10만대이상의 뜨락또르가 있게 될것이며 또 두해를 더 지나서는 25만대이상의 뜨락또르가 있게 되리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몇년전만 하여도 《몽상》으로 인정되였던 일을 지금 우리는 그것을 훨씬 초과하여 실현할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중농이 《꼼무니야》편으로 돌아선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당이 거둔 셋째 성과는 이러하다.

이러한것이 지난 1년동안에 얻은 당의 기본적성과들이다.

결 론

우리는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의 《로씨야》적락후성을 뒤에 던져버리고 전속력을 다하여 공업화의 길로, 즉 사회주의를 향하여 나아가고있다.

우리 나라는 금속의 나라로, 자동차화한 나라로, 뜨락또르화한 나라로 되여가고있다.

우리가 쏘련을 자동차에 앉히고 농부를 뜨락또르에 앉히게 되는 그때에 가서는 자기의 《문명》을 가지고 뽐내는 존경하는 자본가들이 우리를 따라와보라고 하라. 우리는 그때에 가서 여러 나라들중에서 어떤 나라들이 후진국으로, 어떤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판정》되게 될것인가를 두고보자.

1929년 11월 3일

1229년 11월 7일 《쁘라우다》
제259호에 게재

서명: 이.쓰딸린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2권, 106~121페지

쏘련에서의 토지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29년 12월 27일 맑스주의자—토지문제전문가대표자회의48에서 한 연설)

동지들! 목전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생활의 기본적사실, 사람들의 보편적주목을 끌고있는 사실은 집단농장운동이 줄기차게 장성하고있는 사실이다.

현재의 집단농장운동의 특징은 종전처럼 빈농의 개개의 그루빠만이 집단농장에 들어오고있는것이 아니라 중농의 다수도 집단농장에 들어오고있는데 있다. 이것은 집단농장운동이 근로농민의 개개의 그루빠나 계층의 운동으로부터 수백만, 수천만 농민의 기본적대중의 운동으로 변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반부농적**인 성격을 띤 날로 자라나는 강대한 집단농장운동이 자기의 길에서 부농의 반항을 물리치고 부농을 격파함으로써 농촌에서의 대규모적인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길을 개척하고있다는 극히 중요한 사실도 이것으로써 설명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실천상**의 성과를 자랑할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경제분야에서의, 특히는 농업분야에서의 우리의 **리론적**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말할수 없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리론적사유가 실천적성과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으며 우리의

실천적성과와 리론적사유의 발전사이에는 얼마간 간극이 있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리론적사업은 실천적사업을 따라가야 할뿐만아니라 실천적사업에 앞서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전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실제활동가들을 무장시켜주어야 한다.

나는 여기에서 리론의 의의에 대하여서는 상세히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리론이 만일 진정한 리론이라면 그것은 실제활동가들에게 방침을 확정할수 있는 능력, 명확한 전망, 사업에 대한 확신, 우리 사업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주게 될것이다. 이러한 모든것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또한 가지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불행한것은 우리가 바로 이 령역에서, 즉 우리 나라의 경제문제를 리론적으로 구명하는 령역에서 다리를 절기 시작하고있는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적정치적 생활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문제에 관해서 각종 자산계급적 및 소자산계급적 리론이 아직도 횡행하고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러한 리론 및 사이비한 리론이 지금까지도 당연한 반격을 받지 않고있다는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자산계급적 및 소자산계급적 리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인 맑스-레닌주의적정치경제학의 일련의 기본적명제들이 망각되기 시작하여 우리의 출판물에 널리 선전되지 않고있으며 첫자리에 내세워지지 않고있는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맑스-레닌주의적리론을 기초로 하여 자산계급적리론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지 않고서는 계급적적들을 완전히 타승할수 없다는것을 그렇게 리해하기 어렵단말인가?

새로운 실천은 과도기경제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낳고있다. 지금에 와서는 신경제정책에 관한 문제, 계급에

관한 문제, 건설속도에 관한 문제, 결합에 관한 문제, 당의 정책에 관한 문제 등이 새로이 제기되고있다. 실천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곧 새로운 정세에 근거하여 이 모든 문제를 연구하는데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실제활동가들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있는 자산계급적리론을 타승할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완고한 편견으로 이루어진 이 리론의 뿌리를 뽑아버릴수 없다. 왜냐하면 리론상에서의 자산계급적편견과 투쟁하여야만 맑스-레닌주의의 진지를 공고히 할수 있기때문이다.

이제 리론이라고 불리우고있는 이 자산계급적편견중에서 몇가지만을 들어서 그것을 비판하고 따라서 우리 나라 건설의 몇가지 근본문제에 대한 설명으로써 이러한 편견의 황당성을 론증하기로 하자.

1

《균형》론

여러분은 물론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두 부문간의 소위 《균형》론이 공산당원들사이에서 아직까지도 횡행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 이 리론은 물론 맑스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그러나 우익편향분자들의 진영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고취되고있다.

이 리론에 의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먼저 사회주의적성분—이것은 말하자면 상자이다.—을 가지고있으며 이밖에 또 우리는 비사회주의적성분—혹은 자본주의적성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다른 상자이다.—을 가지고있다고 가정되고있다. 이 두 상자는 서로 다른 궤도에서 부닥치지 않고 평화롭게 앞으

로 이동하고있다. 주지하다싶이 기하학상에서 평행선은 서로 교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훌륭한 리론의 창안자들은 이 평행선이 어느때든지 한번은 교차될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교차되는 때에 우리는 사회주의를 가지게 될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그런데 이 리론은 두개의 이른바 《상자》뒤에 계급이 있으며 또한 이 두 《상자》는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생사결단의 투쟁속에서, 《누가 누구를》 전승하는가 하는 원칙에 의한 투쟁속에서 움직이고있다는것을 보지 못하고있다.

이 리론이 레닌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는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 리론이 객관적으로는 개인농경영의 진지를 고수하며 집단농장에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부농분자들을 《새로운》 리론적무기로 무장시켜주며 집단농장의 진지를 파괴하는것을 자체의 목적으로 삼고있다는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론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출판물들에서 횡행하고있다. 그런데 이 리론이 우리의 리론가들로부터 심대한 반격을 받았다고 말할수 없으며 치명적인 반격을 받았다고는 더구나 말할수 없다.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발생된것은 우리의 리론적사상이 락후한탓이 아니라면 무슨탓이겠는가?

기실, 맑스주의의 보물고에서 재생산론을 끄집어내여 두 부문간의 균형론을 반격하기만 한다면 이 균형론은 분쇄되고 말것이다. 사실상 맑스주의적재생산론은 현대사회가 해마다 축적하지 않고서는 발전할수 없으며 또 해마다 확대재생산을 하지 않고서는 축적할수 없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하고도 리해할수 있는 일이다. 우리의 집중된 사회주의대공업은 맑스주의적확대재생산리론에 의하여 발전되고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그 규모가 해마다 자라나고있으며 자체

의 축적을 가지고있으며 일사천리로 전진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공업은 전반 인민경제를 다 포괄하고있는것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민경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소농경영이 우세를 차지하고있다. 우리의 소농경영이 확대재생산의 원칙에 좇아 발전하고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수 없다. 우리 나라의 소농경영의 대부분은 해마다 확대재생산을 실현하지 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반대로 그것은 단순재생산조차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확대재생산을 실현할 가능성은 없으면서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 있어서 우세를 차지하고있는 소농경영과 같은 그러한 농업의 토대를 가지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화의 공업을 급속히 밀고나갈수 있겠는가? 아니다, 밀고나갈수 없다. 상당히 긴 시기에 걸쳐 쏘베트정권과 사회주의건설사업을 부동한 두 기초우에, 다시말하면 가장 대규모적이고 가장 통일된 사회주의적공업의 기초와 가장 분산적이고 가장 락후한 농민의 소상품생산적경영의 기초우에 세울수 있겠는가? 아니, 그렇게 할수 없다. 그렇게 해나간다면 조만간에 인민경제전체가 죄다 붕괴되고말것이다.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출로는 농업을 대규모화하며 농업을 축적과 확대재생산을 실현할수 있도록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민경제의 농업적토대를 개조하는데 있다.

그러면 농업을 어떻게 대규모화할것인가?

그렇게 하는데는 두가지 길이 있다. 즉 그 하나는 농업에다 자본주의를 자래우는 방법으로 농업을 대규모화하는 자본주의적길로서 그것은 농민의 빈궁화와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 길은 쏘베트경제와 량립할수 없는 길이므로 우리는 이 길을 거부한다.

다른 한 길은 농업에다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자래우는

사회주의적인 길로서 이 길은 소농경영을 기술과 과학으로 장비된 대규모적인 집단적경영에로 련합시킨다. 이 경영은 확대재생산을 실현할수 있기때문에 앞으로 발전할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이렇게 나서고있다. 즉 이 길로 나아갈것인가 아니면 저 길로 나아갈것인가, 자본주의에로 후퇴할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에로 전진할것인가 하는것이다. 그 어떤 셋째 길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균형》론은 셋째 길을 취하려고 시도한다. 이 셋째 길(존재하지 않는)을 바라고있기때문에 그것은 공상적이며 반맑스주의적인것이다.

이와 같이 맑스의 재생산론으로써 반격하기만 한다면 두 부문간의 《균형》론은 분쇄되고말것이다.

무엇때문에 우리의 맑스주의자—토지문제전문가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있는가? 가소로운 《균형》론이 우리의 출판물들에서 횡행하고있고 맑스주의적재생산론이 파묻혀있는 이것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2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자연발전》론

이제 정치경제학에서의 둘째 편견, 즉 자산계급적류형의 둘째 리론에 대하여 말해보기로 하자. 내가 말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의 《자연발전》론이다. 이 리론은 맑스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지만 우익진영중에 있는 우리 동지들은 그것을 열심히 설교하고있다.

이 리론의 창안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있다. 즉 우리 나라에는 자본주의가 있었는데 그때 공업은 자본주의

적토대우에서 발전되고있었으며 농촌은 자연발생적으로, 자연발전적으로 차본주의적도시를 따라갔으며 자본주의적도시의 모양에 따라 개조되였던것이다. 만일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이렇게 할수 있었다면 무엇때문에 쏘베트경제제도하에서는 그와 같이 할수 없겠는가? 무엇때문에 농촌은, 소농경영은 자연발전적으로 사회주의적도시를 따라가 사회주의적도시의 모양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자체를 개조하지 못하겠는가라고. 이 리론의 창안자들은 이 점에 근거하여 농촌은 자연발전적으로 사회주의적도시를 따라갈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농촌이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도시를 따라갈수 있다면 우리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창설하기 위하여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때문에 론쟁할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이것이 객관적으로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에게 집단농장을 반대하는 신식무기를 주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또 하나의 리론이다.

이 리론의 반맑스주의적본질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의 리론가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집단농장의 실제활동가들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이 괴상한 리론을 질책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였다는것은 괴상한 일이 아닌가?

소농적개인경영적농촌에 대한 사회주의적도시의 지도적역할이 매우 크고 비상히 중요하다는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농업에 대한 공업의 개조적역할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소농적농촌이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 자연발전적으로 도시를 따라가게 하는데 이 요인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다, 충분하지 못하다.

자본주의제도하에서 농촌이 자연발생적으로 도시를 따라간것은 도시의 자본주의적경제와 농민의 소상품적개인적경제

가 본질적으로 같은 류형의 경제였기때문이다. 물론 소농적상품경제는 아직 자본주의적경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기초로 하고있기때문에 본질상에서는 자본주의적경제와 같은 류형에 속한다. 레닌이 부하린의 소책자 《과도기의 경제》에 관하여 쓴 론평에서 《농민의 상품—자본주의적경향》과 《무산계급의 사회주의적경향》①과는 완전히 상반된다②고 한것은 매우 정확한것이다. 《소생산은 끊임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자연발생적으로 또 대량적으로 자본주의와 자산계급을 낳고있다.》③(레닌)고 하는것도 바로 이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농민의 소상품적경제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역시 도시의 사회주의적생산과 동일한 류형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맑스주의와 인연을 끊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할수 없다는것은 아주 명백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레닌은 《우리가 소농민국가에서 살고있는 한 로씨야에는 공산주의를 위해서보다도 자본주의를 위하여 더 튼튼한 경제적토대가 존재한다.》④고 말하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의 《자연발전》론은 부패한 반레닌주의적리론이다.

그러므로 소농적농촌이 사회주의적도시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것을 제외하고도 또 사회주의적도시를 따라 농민의 기본적대중을 이끌고나갈수 있는 사회주의적지반으로서의 국영농장과 집단농장 형태의 사회주의적대경영을 농촌

---

① 고시크체는 레닌의것. —이.쓰딸린

② 《부하린의 소책자 〈과도기의 경제〉에 대한 론평》, 1976년 인민출판사판, 24페지를 보라. —편집자

③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81페지를 보라. —편집자

④ 우와 같은 책, 399페지—편집자

에 자래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자연발전》론은 반맑스주의적인 리론이다. 사회주의적도시는 농촌에다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자래우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방식으로 농촌을 개조하여야만 소농적농촌을 이끌고나갈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반맑스주의적《자연발전》론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토지문제리론가들로부터 당연한 반격을 받지 않고있다는것은 이상한 일이다.

3

소농경영의 《안정성》의 리론

정치경제학에서의 셋째 편견, 즉 소농경영의 《안정성》의 리론에 대하여 말해보기로 하자. 다 아는바와 같이 자산계급 정치경제학은 대규모적경영이 소규모적경영보다 우월하다는 맑스주의의 저명한 명제에 반대하여 이 명제는 다만 공업에서만 타당하고 농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있다. 이 리론을 설교하는 다피드나 헤르쯔따위의 사회민주당의 리론가들은 소농은 견인성과 인내성이 강해서 자기의 땅뙈기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생이라도 견디여낼 각오를 가지고있으며 그리하여 소농경영은 농업에서의 대규모적경영과 투쟁할 때에는 안정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렵각》하려고 시도한다.

이와 같은 《안정성》은 그 어떤 불안정성보다도 더 나쁘다는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 반맑스주의적리론이 천백만 소농대중을 령락시키는 자본주의제도를 찬양하며 공고히 하려는 이 한가지 목적만을 가지고있다는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 리론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맑스주

의자들은 그렇듯 용이하게 이 리론을 분쇄할수가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실천, 우리의 현실이 이 리론을 반대하는 새로운 론거를 주고있으나 우리의 리론가들은 이상하게도 로동계급의 적들을 반대하여 이 새로운 무기를 리용하려 하지 않거나 또는 리용할줄 모르는데 있다. 나는 토지의 사적소유를 없애버린 실천, 우리 나라에서 토지를 국유화한 실천, 자기의 땅뙈기에 대한 노예적집착으로부터 소농을 해방시키고 그리하여 소농경영으로부터 대규모적집단경영으로 넘어가는 일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실천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구경 무엇이 서구라파의 소농을 소상품적경영에다 과거에도 얽매여두었고 지금도 얽매여두고있으며 앞으로도 얽매여두려 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또 주로는 그들에게 자기의 땅뙈기가 있으며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가 있는 그것이다. 그들은 땅뙈기를 사기 위하여 몇해를 두고 돈을 모은다. 그들이 땅뙈기를 산후에는 개인경영의 기초인 자기의 땅뙈기를 고수하기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하며 우매하고 빈곤한 생활에 빠져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땅뙈기와 인연을 끊으려 하지 않을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요인이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 나라에서도, 쏘베트제도의 조건하에서도 계속하여 역할을 할수 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수 없다.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은 우리 나라에는 토지의 사적소유가 없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 토지의 사적소유가 없기때문에 우리 나라 농민들에게는 서방의 농민들이 가지고있는것과 같은 땅뙈기에 대한 그런 노예적 집착이 없는것이다. 이런 정황은 소농경영을 집단농장의 궤도에로 넘어가게 하는것을 쉽게 하여주지 않을수 없다.

바로 여기에 토지가 국유화된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 농촌의 대규모적경영, 농촌의 집단농장이 소농경영에 대한 자기의 우월성을 그렇게 용이하게 나타낼수 있는 원인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절대지대를 없애버리고 토지의 사적소유를 폐지하고 토지의 국유화를 확립한 쏘베트토지법령의 위대한 혁명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이로부터 소농경영이 대규모적경영과의 투쟁에서 안정상을 보이고있다고 선언하는 자산계급경제학자들을 반대하기 위한 새로운 론거를 우리가 가지고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우리의 토지문제리론가들은 온갖 자산계급적리론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 새로운 론거를 충분히 리용하지 않는가?

우리는 토지의 국유화를 실시할 때 특히 리론적사유의 가장 풍부한 보물고인 《자본론》 제3권과 맑스의 유명한 저서 《잉여가치의 학설사》와 레닌의 토지문제에 관한 저작에 제시되고있는 리론적원제로부터 출발하였다. 나는 일반적인 지대론, 특히 절대지대론을 념두에 두고 말한다. 이러한 저작의 리론적명제가 도시 및 농촌에서의 우리의 사회주의적건설의 실천가운데서 훌륭히 실증되였다는것은 지금은 아주 명백하다.

다만 리해하지 못할것은 무엇때문에 챠야노브따위의 《쏘베트》경제학자들의 비과학적리론은 우리의 출판물들에 자유롭게 횡행되고있는데 지대론 및 절대지대론에 관한 맑스, 엥겔스, 레닌의 천재적로작들은 널리 보급되지 못하며 전면에 내세워지지 않고 한쪽에 파묻혀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여러분은 아마 엥겔스의 유명한 소책자 《농민문제》를 기억하고있을것이다. 여러분은 물론 엥겔스가 소농들을 협동적

경영의 길, 집단적경영의 길로 이행시키는 문제를 얼마나 신중하게 대하고있는가를 기억하고있을것이다. 나는 엥겔스의 이 소책자에서 해당한개소를 인용하려 한다.

《우리는 단연 소농의 편에 선다. 우리는 할수만 있다면 보든것을 다하여 그의 운명을 보다 견딜수 있게 하여줄것이며 그가 결심만 한다면 그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여줄것이며 심지어 그가 아직 결심하지 못하고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분할지에 대하여 좀 생각하여볼 여유를** 줄것이다.》①②

여러분은 엥겔스가 개인적농민경영을 집단주의의 궤도에로 이행시키는 문제를 얼마나 신중하게 대하고있는가를 알수 있을것이다. 보기에는 지나친듯한 엥겔스의 이러한 신중한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그는 어디로부터 출발하였는가? 그가 토지의 사적소유의 존재로부터, 농민에게는《자기의》땅《뙈기》가 있으며 그들(농민)이 이 땅뙈기와 갈라지기 어렵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것은 명백하다. 서방의 농민들은 바로 이러하다. 토지의 사적소유가 존재하는 여러 자본주의국가들의 농민들이 바로 이러하다. 여기에는 물론 대단한 신중성이 필요하다.

우리 쏘련에도 이러한 형편이 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수 없다.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은 우리 나라에는 농민을 개인적경영에 얽매여놓는 토지의 사적소유가 없기때문이다. 그렇게 말할수 없는것은 우리 나라에는 개인농을 집단주의의 궤도에로 쉽게 이행시키는 토지의 국유화가 있기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에서 최근 집단농장운동이 비교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②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11페지를 보라. —편집자

적 쉽게, 비교적 빠르게 발전하고있는 원인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유감스러운것은 우리의 토지문제리론가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농민의 실정과 서방농민의 실정사이에 있는 이러한 차이를 똑똑히 밝히려고 하지 않는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은 다만 우리 쏘베트일군들에게 있어서뿐만아니라 모든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큰 의의를 가질것이다. 왜냐 하면 자본주의국가들에서 무산계급이 정권을 잡는 첫날부터 토지국유화의 토대우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게 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토대가 없는 정황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게 될것인가 하는 이것은 여러 자본주의국가에서의 무산계급혁명에 대하여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나는 얼마전에 발표된 나의 론문(《위대한 전환의 해》①)에서 대규모적국영농장을 념두에 두고 일반이 다 알고있는 농업에서 대규모적경영이 소규모적경영보다 우월하다는 몇가지 론거를 전개하였다. 이 모든 론거가 대규모적경영단위인 집단농장에도 완전히 적용된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나는 농기계-뜨락또르의 토대를 가지고있는 발전한 집단농장뿐만아니라 또한 집단농장건설에서 이른바 공장제수공업시기의, 즉 농민의 이전의 농구에 의거하고있는 초급적집단농장에 대해서도 말하는것이다. 나는 전반적집단화의 지역에서 지금 건립되고있는, 농민의 생산도구를 모아가지고 사용하는데 불과한 그런 초급적집단농장을 념두에 두고 말한다.

이전의 돈강주 호뽀르지방에 있는 집단농장들을 례로 들어보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 집단농장들은 기술상에서 소농경영과 별로 구별이 없는듯하다(기계가 적고 뜨락또르도 적

---

① 이 책, 257~273페지를 보라, —편집자

다). 기실 집단농장내부에서 단지 농민의 농구를 모아가지고 사용하였지만 우리의 실제활동가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효과를 보았다. 이 효과는 어디에 표현되였는가? 그것은 집단농장의 궤도에 들어선후 파종면적이 30, 40, 50%나 확장된데서 표현되였다. 이《현훈증을 일으킬 정도》의 효과는 무엇으로써 설명할것인가? 개체영농의 조건하에서는 무력했던 농민들이 자기의 농구를 모아가지고 집단농장에 련합함으로써 거대한 력량으로 전화되였다는것으로써 설명된다. 농민들이 개체영농의 조건하에서는 개간하기 어려웠던 황무지와 처녀지를 개간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는것으로써 설명된다. 농민들이 처녀지를 자기의것으로 만들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는것으로써 설명된다. 공지, 분산된 땅뙈기, 분계지 등등을 리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는것으로써 설명된다.

황무지와 처녀지를 개간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의 농업에 대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여러분은 토지문제가 지난날 로씨야혁명운동의 축이였다는것을 알고있다. 여러분은 토지부족을 근절하는것이 토지운동의 목적의 하나였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토지부족은 절대적인것이라고, 즉 로씨야에서는 경작할수 있는 공지가 더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실제형편은 어떠하였는가? 지금에 와서는 아주 명백하지만 쏘련에는 몇천만헥타르의 공지가 있었으며 또 아직도 남아있으나 농민들은 그 보잘것없는 농구로써는 도무지 경작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리고 지난날 농민들이 처녀지와 황무지를 개간할수 없었기때문에 그들은《부드러운 토지》; 지주의 소유인 토지나 개체영농의 조건하에서 농민이 가지고있는 농구를 가지고 경작하기에 알맞는 토지를 경작하는데로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토지부족》의 근원이였다. 그렇기때문에 뜨락또르로써 장비된 우리 곡물트레스트가 이전에

농민이 경작하지 않았고 또 소농의 농구를 가지고 하는 개체영농으로써는 경작할수도 없던 약 2,000만헥타르나 되는 공지를 경작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는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매개 단계(그의 최초의 단계에 있어서나 뜨락또르로써 장비된 보다 발전된 단계에 있어서나)에서의 집단농장운동의 의의는 농민들이 지금에 와서 황무지와 처녀지를 경작할 가능성을 가지게 된데 있는것이다. 여기에 바로 농민들이 집단적로동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파종면적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고있는 비밀이 있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집단농장이 개인영농보다 우월하다는 근원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우리의 농기계-뜨락또르임경소와 농기계-뜨락또르대가 전면적집단화구역의 초급적집단농장을 도와주게 되며 집단농장자체가 자기의 수중에 뜨락또르와 꼼바인을 집중시킬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때에는 집단농장이 개인농경영보다 더욱 우월하다는것은 더 론쟁할 여지도 없을것이다.

4
도시와 농촌

이른바 《협상가격차》에 관하여 자산계급경제학자들에 의하여 배양된 편견이 존재하고있는데 이 편견에 대해서도 역시 유감스럽게 쏘베트출판물들에서 전파되고있는 다른 모든 자산계급적리론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무자비한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10월혁명이 2월혁명보다 농민에게 준것이 적다느니 10월혁명은 실은 농민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느니 뭐니 하는 리론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이 편견은 한동안 한 《쏘베트》경제학자에 의하여 우리의 출판물들에서 선전되였다. 과연 이 《쏘베트》경제학자는 그후에 자기의 리론을 포기하였다.(웨치는 소리, 《그는 대체 누구입니까?》) 그는 그로만이다. 그러나 이 리론은 뜨로쯔끼-지노위예브반대파의 지지를 받았으며 또 당을 반대하는데 리용되였다. 그리고 이 리론이 오늘날 《쏘베트》의 여론계에서 횡행하고있지 않는다고 단언할 근거는 전혀 없다.

동지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사이의 호상관계문제와 관련된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사이의 대립을 소멸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것은 《협상가격차》라는 절실한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 괴상한 리론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민들이 10월혁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는 말이 옳은가? 사실을 들어보자.

나에게는 유명한 통계학자 넴치노브동지의 저명한 통계표가 있다. 이 통계표는 나의 론문 《곡물전선에서》에 발표되였다.① 이 통계표에서 혁명전에 지주가 적어도 6억뿌드의 곡물을 《생산》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지주는 당시 6억뿌드나 되는 곡물의 소유자였다.

이 통계표에 의하면 부농은 당시 19억뿌드의 곡물을 《생산》하고있었다. 이것은 당시 부농이 가지고있던 매우 큰 힘이다.

같은 이 통계표에 의하면 빈농과 중농은 25억뿌드의 곡물을 생산하고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전의 농촌, 10월혁명전의 농촌의 진상이다.

10월혁명이후 농촌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 바로 이

---

① 이 책, 60페지를 보라. —편집자

통계표의 수자를 들수 있다. 1927년을 례로 들어보자. 이해에 **지주**는 곡물을 얼마나 생산하였는가? 물론 그들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생산할수도 없었던것이다. 왜냐 하면 지주는 10월혁명에 의하여 타도되였기때문이다. 농민들이 지주의 멍에에서 벗어져나왔기때문에 농민들의 형편이 크게 개선되였다는것을 여러분은 리해할것이다. 이것은 물론 농민들이 10월혁명으로 하여 얻은 큰 리득이다.

1927년 **부농**들은 곡물을 얼마나 생산하였는가? 19억뿌드가 아니라 6억뿌드의 곡물을 생산하였다. 여기에서 부농의 힘은 10월혁명후의 시기에 3분의 1이하로 약화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이 빈농과 중농의 형편을 개선하여주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을 여러분은 리해할것이다.

그런데 1927년에 **빈농과 중농**은 곡물을 얼마나 생산하였는가? 25억뿌드가 아니라 40억뿌드를 생산하였다. 여기에서 빈농과 중농이 10월혁명후에 혁명전시기보다 곡물을 15억뿌드나 더 많이 생산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빈농과 중농이 10월혁명에서 막대한 리득을 얻었다는것을 말하여주는 사실이다.

10월혁명은 바로 이러한것을 빈농과 중농에게 주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10월혁명이 농민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말할수 있는가?

그러나 동지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10월혁명은 토지의 사적소유를 폐지하였고 토지의 매매를 폐절하였으며 토지의 국유화를 실현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농민이 이제는 곡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토지를 살 필요가 전혀 없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전에 그들은 토지를 사기 위하여 몇해를 두고 돈을 모았으며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빚을 지는것도, 모진 착취를 당하는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토지

구입비는 물론 곡물의 생산가격에 가산되였다. 이제는 농민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이제는 농민들이 토지를 사지 않고서도 곡물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그러므로 농민이 토지를 사는데 지출되던 수억루블이 이제는 농민의 주머니에 남게 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것은 농민들의 형편을 개선한것인가 아니면 개선하지 않은것인가? 개선하였다는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농민들은 여전히 개인영농의 방식으로 구식농구를 가지고 토지를 다루지 않으면 안되였다. 낡고 더는 쓸모없게 된 생산도구에 의한 개인영농이 생활을 개선할수 없으며 부단히 자기의 물질적생활을 향상시키고 자기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의 넓은 길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리득을 줄수 없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바이다. 집단농장운동이 힘있게 전개된후인 지금에 와서 농민들은 자기의 로동을 이웃사람들의 로동과 련합시키며 집단농장에 련합되여 처져지를 개간하고 황무지를 리용하며 기계와 뜨락또르를 받아들이며 그리하여 자기의 로동생산률을 3배는 아니라 하더라도 2배는 제고시킬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농민이 집단농장에 련합됨으로써 이제는 전과 같은 로동으로써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것을 생산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곡물생산의 원가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낮아졌다는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물가가 안정되여있는 조건하에서 곡물을 팔아 얻은 돈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찌 10월혁명이 농민에게 리득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할수 있는가?

이러한 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과 쏘베트정권을 중상하고있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로부터는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

이로부터 《협상가격차》에 관한 문제, 《협상가격차》의 청산에 관한 문제가 이제는 새로 제기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로부터 만일 집단농장운동이 지금의 속도로 발전한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협상가격차》는 폐절되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로부터 도시와 농촌간의 관계문제는 새로운 지반우에서게 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은 재빨리 소멸되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동지들, 이러한 정황은 우리의 전반 건설사업에 대하여 극히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농민들의 심리를 개변하며 그들로 하여금 도시에 관심을 돌리게 한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을 폐절하기 위한 지반을 닦아주었다. 이것은 《도시에 낯을 돌리라》는 집단농민들의 구호로써 《농촌에 낯을 돌리라》는 당의 구호를 보충할 지반을 닦아주었다.

여기에는 이상할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 하면 농민은 지금 도시로부터 기계, 뜨락또르, 농업기사, 조직자 그리고 부농을 반대하고 타승하기 위한 직접적인 원조를 받고있기때문이다. 도시를 략탈자처럼 보고 그에 대하여 극히 불신임하던 낡은 형의 농민은 뒤로 물러갔다. 그들 대신에 도시로부터 생산에서의 실제적원조를 받으려는 기대로써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농민, 집단화농민이 나타났다. 빈농으로 떨어질가봐 두려워하며 남몰래(선거권을 빼앗길수 있으니까!) 부농의 지위에까지 올라서려고만 하던 구식농민은 새로운 전망—집단농장에 가입하여 빈궁과 우매한것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향상하는 광활한 길에 나서려는 전망을 가진 신식농민으로 나타나고있다.

동지들, 사태는 바로 이렇게 전변하고있다.

동지들, 이럴수록 우리의 토지문제리론가들이 10월혁명의

성과와 날마다 자라나는 집단농장운동의 의의를 비방하려 시도하는 온갖 자산계급적리론을 통책하며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하여 모든 대책을 취하지 않는것이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다.

5
집단농장의 본질에 관하여

경제적류형으로서의 집단농장은 사회주의적경제형태의 하나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의심할수 없다.

이 회의에서의 연설자의 한사람은 집단농장을 중상하였다. 그는 경제조직으로서의 집단농장은 사회주의적경제형태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고 단언하였다. 동지들, 나는 집단농장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전적으로 옳지 않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이와 같은 평가가 실제사정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경제적류형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그것은 생산과정에서의 사람들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이 매우 명백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에 의하여 경제적류형이 결정되겠는가? 그런데 집단농장에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과 생산수단을 박탈당한 계급이 있단말인가? 집단농장에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이 있단말인가? 그래 집단농장은 국가소유인 토지우에서 기본적생산도구에 대한 공유화를 실시하지 않는단말인가? 어떠한 근거로써 경제적류형으로서의 집단농장이 사회주의적경제형태의 하나가 아니라고 단언할수 있는가?

물론 집단농장들에는 모순이 있다. 물론 집단농장에는 개인주의적잔재와 지어 부농사상의 잔재까지도 있는데 이러한

잔재는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잔재는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집단농장이 공고화됨에 따라, 집단농장이 기계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없어질것이다. 그러나 경제요인으로서의 집단농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 모순과 결함을 가지고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촌발전의 새로운 길이라는것, 부농의 자본주의발전의 길과는 상반되는 농촌의 사회주의발전의 길이라는것을 그래 부인할수 있단말인가?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 집단농장(내가 말하는것은 가짜집단농장이 아니라 진짜 집단농장이다.)이 자본주의분자들과의 필사적인 격투속에서 발전한 농촌사회주의건설의 기지와 근거지로 되고있다는것을 그래 부인할수 있단말인가?

집단농장을 모독하며 집단농장을 자산계급적경제형태라고 부르려 하는 어떤 동지들의 시도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것이 아주 명백하지 않단말인가?

1923년에는 우리 나라에 대중적집단농장운동이 아직 없었다. 레닌은 자기의 소책자 《협동조합에 관하여》에서 협동조합의 모든 형태를 즉 그 저급형태(공급판매협동조합)와 고급형태(집단농장)를 다 념두에 두었다. 그때 그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협동조합적기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였는가? 레닌의 소책자 《협동조합에 관하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우리 나라의 현존제도하에서는 협동조합기업체는 집단적인 점에서 자본주의적사적기업체와 구별되지만 그러나 만일 그것이 토지와 생산수단이 국가 즉 로동계급에 속하는 조건에서 세워진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적기업체와 구별되지 않는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96페지)②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6페지를 보라.—편집자

여기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레닌은 협동조합기업체를 고립시켜 관찰한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우리 나라의 제도와 련계시켜 관찰하였으며 생산수단이 국가의 소유로 된 나라에서, 국가의 소유로 된 토지우에서 경영되고있다는데 주의를 돌리였다. 레닌은 협동조합기업체를 이렇게 관찰한후 협동조합기업체를 사회주의기업체와 다른 점이 없다고 단정하였던것이다.

레닌은 협동조합기업체일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현시기의 집단농장에 대해서는 더욱 충분한 리유로써 이렇게 말할수 있다는것이 아주 명백하지 않단말인가?

레닌이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는 《협동조합의 단순한 장성이》《사회주의의 장성과 동일하다》①고 인정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이 보는바와 같이 우에서 언급된 그 연설자는 집단농장을 모독함으로써 반레닌주의적인 극히 엄중한 오유를 범하였다.

이 오유로부터 그의 다른 오유—집단농장내에서의 계급투쟁에 관한 오유—가 나온다. 그 연설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농장내에서의 계급투쟁이 집단농장밖에서의 계급투쟁과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할수 있을 정도로 집단농장내에서의 계급투쟁을 분장하여 묘사하였다. 지어는 집단농장내에서의 계급투쟁이 더 치렬하다고까지 생각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오유를 범한 사람은 우에서 말한 그 연설자 한사람뿐이 아니다. 계급투쟁에 관한 공담, 집단농장에서의 계급투쟁에 관한 지껄임은 지금 우리의 모든《좌적》공담가들의 특징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지껄임속에서 가장 희극적인것은 이렇게 지껄이는자들이 계급투쟁이 없거나 또는 거의 없는 곳에서는 계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7페지—편집자

급투쟁을 《보고》있으나 계급투쟁이 있으며 또 아주 첨예한 곳에서는 도리여 계급투쟁을 보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집단농장내에 계급투쟁의 요소가 있는가? 그렇다, 있다. 집단농장내에 아직도 개인주의적심리, 지어는 부농적심리의 잔재까지도 남아있는 이상, 집단농장내에 아직도 물질생활의 상태면에서의 일부 불평등한 현상이 있는 이상 집단농장내에 계급투쟁의 요소가 없을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집단농장내에서의 계급투쟁이 집단농장밖에서의 계급투쟁과 같은것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수 없다. 우리의 《좌적》 공담가들의 오유는 바로 그들이 이 차이점을 보지 못하고있는데 있는것이다.

집단농장밖에서의, 집단농장이 성립되기 이전의 계급투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점유하고있으며 그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으로써 빈농을 착취하는 부농과의 투쟁을 의미한다. 이 투쟁은 생사를 결단하는 투쟁이다.

그러면 집단농장의 토대우에서의 계급투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부농이 이미 격파되였으며 또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빼앗겼다는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그것은 빈농과 중농이 이미 기본적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공유화한 토대우에서 집단농장에 련합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집단농장장원들사이의 투쟁 즉 그들중의 일부분은 아직 개인주의적잔재와 부농사상잔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집단농장내부의 일부 불평등한 현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리용하려 시도하고있지만 다른 일부는 집단농장으로부터 이러한 잔재와 불평등한 현상을 일소해버리려 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오직 장님만이 집단농장의 토대우에서의 계급투쟁과 집단농장밖에서의 계급투쟁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보아내지 못

한다는것이 아주 명백하지 않단말인가?

만일 집단농장만 있으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이 다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일것이다. 만일 집단농장장원들이 이미 사회주의자로 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구나 잘못일것이다. 그렇지 않다. 집단화한 농민을 개조하며 그들의 개인주의적심리를 극복시켜 그들을 사회주의사회의 진정한 근로자로 되게 하려면 아직도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그것은 집단농장의 기계화가 빨리 실현될수록 또 집단농장의 뜨락또르화가 빨리 실현될수록 더욱 빨리 실현될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농촌의 사회주의적개조의 공간으로서의 집단농장의 거대한 의의를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는다. 집단농장의 위대한 의의는 그것이 농업에서 기계와 뜨락또르를 사용하는 중요한 기지로 되며 사회주의의 정신으로 농민을 개조하며 그들의 심리를 개변시키는 중요한 기지로 되는데 있는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옳게 말하였다.

《소농을 개조하며 그들의 전체 심리와 관습을 개조하는 사업은 여러 세대를 요하는 사업이다. 소농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것, 말하자면 그들의 전체 심리를 건전하게 하는것은 다만 물질적토대, 기술, 농업에서의 뜨락또르와 기계의 대규모적인 사용, 대규모적인 전기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239페지)①

집단농장이야말로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천백만의 개체적 소농을, 경제적번영의 공간이며 농업의 사회주의적발전의 공간인 기계 및 뜨락또르를 가진 대규모경영으로 끌어들일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회주의적경제형태라는것을 누가 부인할수 있겠는가?

우리의 《좌적》공담가들은 이 모든것을 잊어버렸다.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205페지를 보라.—편집자

우리의 그 연설자도 이것을 잊어버렸다.

6
계급적변동과 당정책상의 전환

마지막으로, 국내의 계급적변동과 농촌의 자본주의분자에 대한 사회주의의 진공에 관한 문제를 말하여보기로 하자.

이 1년동안의 우리 당의 사업의 특징은 우리가 당으로서, 쏘베트정권으로서

(ㄱ) 농촌의 자본주의분자에 대하여 전 전선에 걸쳐 진공을 전개하였다는것,

(ㄴ) 이 진공은 다 아는바와 같이 매우 현저한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 계속 가져오고있다는데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부농의 착취적 경향을 제한하는 정책으로부터 계급으로서의 부농을 소멸하는 정책으로 넘어갔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반 정책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의 하나를 수행하였으며 또 계속 수행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당은 부농의 착취적경향을 제한할것을 주장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이 정책은 일찌기 제8차당대회[8]에서 선포되였다. 이 정책은 신경제정책을 실시할 때와 우리 당 제11차대회[18]에서도 또다시 선포되였다. 쁘레오브라젠스끼의 테제에 대한 레닌의 유명한 서한①(1922년)은 누구나 다 기억하고있겠지만 레닌은 그 서한에서 이 정책을 꼭 실시하여야 한다고 또다시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은 우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208~212페지를 보라.—편집자

리 당의 제15차대회3에서 또다시 긍정되였다。우리는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이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옳았는가? 그렇다, 그것은 당시에는 절대로 옳았다。5년 혹은 3년전에 우리가 부농에 대하여 그러한 진공을 할수 있었겠는가? 그때 우리가 그러한 진공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다, 기대할수 없었다。그렇게 하는것은 극히 위험한 모험주의였을것이다。그렇게 하는것은 배우 위험한 진공놀음이였을것이다。왜냐 하면 그렇게 하였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였을것이며 실패하였더라면 부농의 진지가 튼튼해졌을것이기때문이다。왜 그런가? 왜냐 하면 그때 우리의 농촌에는 부농을 단호히 진공할수 있는 거점, 즉 광범한 국영농장 및 집단농장망이 아직 없었기때문이다。왜냐 하면 그때 우리는 부농의 자본주의적생산을 집단농장 및 국영농장의 사회주의적생산으로써 대체할 가능성을 가지고있지 못하였기때문이다。

1926~1927년에 지노위예브-뜨로쯔끼반대파는 즉시 부농에 대한 진공정책을 취할것을 당에 대해서 한사코 강요하였다。당은 이 위험한 모험행동을 취하지 않았다。왜냐 하면 당은 신중한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진공놀음을 용허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었기때문이다。부농에 대한 진공은 한날 엄숙한 일이다。이것을 부농을 반대하는 호언장담과 혼동해서는 안된다。또한 이것을 지노위예브-뜨로쯔끼반대파가 당에 강요한 부농과의 헐뜯기정책과 혼동해서도 안된다。부농을 진공한다는것은 부농을 분쇄하며 계급으로서의 그들을 청산한다는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목적을 떠난 진공은 호언장담, 헐뜯기, 공담, 기타 어떠한것으로도 될수 있으나 진정한 볼쉐위크적진공으로는 될수 없다。부농을 진공한다는것은 실제행동으로 준비하여 가지고 부농을 치되 부농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차는것

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볼쉐위크들이 말하는 진정한 진공이다. 우리가 5년 혹은 8년전에 이러한 진공을 하여가지고 성공을 기대할수 있었겠는가? 아니다, 기대할수 없었다.

확실히 부농은 1927년에 6억뿌드이상의 곡물을 생산하였는데 그중에서 농촌밖에서의 교환으로 약 1억 3,000만뿌드를 팔았다. 이것은 무시할수 없는 상당히 중대한 힘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에서는 얼마나 생산하였던가? 약 8,000만뿌드를 생산하였는데 그중에서 약 3,500만뿌드를 시장에(상품량곡으로서) 실어냈다. 그때 우리가 부농의 생산과 상품량곡을 집단농장 및 국영농장의 생산과 상품량곡으로써 대체할수 있었겠는가를 여러분자신이 판단하여보라. 그렇게 할수 없었던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부농을 단호히 진공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틀림없이 실패하고 틀림없이 부농의 진지가 강화되여 곡물을 얻을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때 우리는 지노위에브-뜨로쯔끼반대파의 모험주의적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부농에 대한 결정적인 진공을 할수 없었으며 또 해서는 안되였던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의 사정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에게는 부농을 타격하며 부농의 반항을 분쇄하며 계급으로서의 그들을 소멸하며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생산으로써 부농의 생산을 대체할수 있는 충분한 물질적토대가 있다. 1929년에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에서 생산한 곡물은 적어도 4억뿌드(1927년의 부농경제의 총생산액보다 2억뿌드가 적다.)가 된다는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있을것이다. 다음으로 1929년에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에서 제공한 상품량곡이 1억 3,000만뿌드이상(즉 1927년에 부농들이 내놓은 상품량곡보다 더 많다.)이다 된다는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1930년

에는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곡물총생산액은 적어도 9억뿌드(즉 1927년에 부농들이 생산한 총생산액보다 더 많다.)로 될것이며 또 거기서 제공하는 상품량곡도 적어도 4억뿌드(즉 1927년에 부농들이 내놓은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되리라는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있을것이다.

동지들, 오늘 우리 나라의 사정은 바로 이러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 경제에 일어난 변동이다.

이로부터 오늘 우리 나라에는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생산으로써 부농의 생산을 대체할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부농에 대한 우리의 결정적진공은 지금 의심할바없는 성공을 거두고있는것이다.

만일 부농을 반대한다는 근거없는 장담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단호한 진공을 하려면 부농에 대하여 이렇게 진공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우리가 부농의 착취적경향을 제한하던 정책으로부터 계급으로서의 부농을 소멸하는 정책에로 넘어가게 된 원인이다.

그러면 부농의 재산을 수탈하는 정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전면적으로 집단화를 실시한 지방들에서는 부농의 재산을 수탈하는것을 용허할수 있는가?—하고 각지의 사람들은 묻는다. 이것은 가소로운 질문이다! 우리가 부농의 착취적경향을 제한하고있는 동안은, 우리가 부농에 대한 결정적진공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고있는 동안은, 또 우리에게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생산으로써 부농의 생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없는 동안은 부농의 재산을 수탈하는것을 용허할수 없었다. 그때에는 부농의 재산에 대한 수탈을 용허하지 않는 정책은 필요하였으며 또 옳았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지금 우리는 부농을 단호히 진공하며 부농의 반항

을 물리치며 계급으로서의 부농을 소멸하며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생산으로써 부농의 생산을 대체할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지금은 전면적으로 집단화를 실시하고있는 빈농과 중농 대중자신이 부농의 재산을 수탈하고있다. 지금은 전면적으로 집단화를 실시한 지방들에서 부농의 재산을 수탈하는것은 벌써 단순한 행정적조치가 아니다. 지금 이러한 지역에서 부농의 재산을 수탈하는것은 집단농장을 성립하고 발전시키는데의 구성부분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지금에 와서 부농의 재산을 수탈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는것은 가소로운 일이며 신중하지 못한 일이다. 목이 떨어졌는데 머리털을 아까와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부농을 집단농장에 가입시킬수 있는가고 하는 질문도 이와 못지않게 우스운 일이다. 물론 그들을 집단농장에 가입시킬수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집단농장운동의 불구대천의 원쑤이기때문이다.

7
결 론

동지들, 이러한것이 우리 맑스주의자—토지문제전문가들의 리론적사업에서 간과될수 없는 여섯가지 기본적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의의은 우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맑스주의적해명은, 때로는—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당원동지들에 의하여 전파되여 우리 실제활동가들의 사상을 혼란하게 하고있는 온갖 자산계급적리론을 근절하여버릴 가능성을 준다는데 있다. 이러한 리론은 벌써 오래전에 근절되고 포기되여야 할것이였다. 왜냐 하면 오직 이러한 리론 및 이와 류사한 리

론과의 무자비한 투쟁에서만 맑스주의자—토지문제전문가들의 리론적사유가 장성되고 강화될수 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의 의의는 그것이 과도기의 경제에 관한 낡은 문제들에 새로운 면모를 부여하고있다는데 있다.

지금에 와서는 신경제정책에 관한 문제, 계급에 관한 문제, 집단농장에 관한 문제, 과도기경제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있다.

신경제정책을 퇴각으로, 그리고 오직 퇴각으로만 리해하는자들의 오유를 폭로하여야 한다. 사실상 레닌은 이미 신경제정책을 실시할 그때에 신경제정책은 퇴각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동시에 도시 및 농촌의 자본주의분자에 대한 새로운 단호한 진공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고 말하였다.

신경제정책은 다만 도시와 농촌과의 사이의 련계를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자들의 오유를 폭로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도시와 농촌과의 사이의 어떠한 련계든지 다 요구되는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것은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련계이다. 우리가 신경제정책을 실시하는것은 그것이 사회주의사업을 위해 복무하기때문인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주의사업을 위해 복무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것이다. 레닌은 신경제정책은 참답게 또 장기간에 걸쳐 실시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신경제정책이 영원히 실시될것이라고 말한적은 없다.

그리고 또 맑스주의적재생산론을 보급시키는 문제도 제기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균형표의 작성격식에 관한 문제도 연구되여야 한다. 중앙통계국에서 1926년에 인민경제균형표라고 공포한것은 균형표가 아니라 수자놀음이였다. 인민경제의 균형표의 문제에 대한 바자로브와 그로만의 견해도 역

시 타당하지 않다. 만일 혁명적맑스주의자들이 과도기경제의 제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쏘련의 인민경제의 균형표의 격식을 만들어내야 할것이다.

만일 우리의 맑스주의자경제학자들이 현 발전단계에서 새롭게 제기되고있는 과도기경제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특별그루빠를 선정한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일것이다.

1929년 12월 29일부 《프라우다》 제309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2권, 120~151페지

아.엠.고리끼에게 보내는 편지

친애하는 알렉쎄이 막씨모위치!

회답이 늦어서(너무 늦어서!) 무척 미안하게 되였습니다. 저를 너무 책망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몹시 일이 바빴던탓입니다. 그리고 또 좀 앓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변명으로는 될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약간의 설명으로는 되겠지요.

(1) 우리는 자기비판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알렉쎄이 막씨모위치, 자기비판이 없으면 기관의 정체와 부패, 관료주의의 조장, 로동계급의 창조적창발력의 파괴는 불가피적입니다. 물론 자기비판은 적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기는 합니다. 이 점에서는 당신은 완전히 옳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것은 우리들의 전진, 근로자들의 건설적열의의 발휘, 경쟁의 전개, 돌격대 및 기타 등등을 위한 재료를(그리고 추동력을) 주는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은 긍정적인 면에 의하여 보상되며 또 보상되고도 남음이 있는것입니다.

우리 출판물들이 우리의 결함들을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놓는다든가 때로는 지어(무의식적으로) 그런것들을 광고까지 한다든가 하는것은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며 지어는 확실히 그러할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의 결함을 우리의 성과로써 상쇄할것을(보상하고도 남음이 있게 할것을—라고 나는 말하고싶습니다.) 요구하고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당신

은 물론 옳습니다. 우리는 이 결함을 반드시 지체없이 극복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좋을것입니다.

(2) 우리 나라에는 여러가지 청년들이 있습니다. 소침한자, 피로한자, 락망한자(제닌과 같은)들이 있습니다. 또 용감한자, 락천적인자, 승리를 쟁취하려는 굳센 의지와 억제할수 없는 지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의 낡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고있는 이때, 익숙한 낡은 길을 파괴하고 생소한 새길을 개척하고있는 이때, 유족하게 살고있던 많은 주민층이 제 궤도에서 물러나가고 맥을 추지 못하게 되여 이전에는 박해와 시달림을 받던 수백만사람들에게 길을 내주게 된 이때 청년들은 우리에게 동감을 가지는 한결같은 사람들의 집단일수 없으며 그들사이에 분화나 분렬이 없을수 없습니다. 첫째로 청년들가운데는 부유한 가문의 자제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들의(그들의 사회적지위로 보아) 청년들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들이 모두다 한결같이 낡은것의 대규모적인 파괴와 새로운것의 급속한 건설의 광경을 당연한, 따라서 소망하는것으로서, 그러나 마음껏 《휴식》할수 있고 《행복》을 누릴수 있는 《전반적인 복지》라는 그런 극락세계와는 비슷하지도 않은것으로서 받아들일만큼 충분한 의지와 힘과 의력과 리해력을 가지고있는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골머리아픈 혼란》가운데서는 피로한자, 신경이 과민한자, 맥이 빠진자, 락망한자, 빼소니치는자, 그리고 원쑤의 진영으로 탈주해가는자들이 없을수 없다는것은 물론입니다. 이것은 혁명의 불가피한 《지출》입니다.

오늘 중요한것은 청년들가운데서 지도적역할을 놀고있는것은 소침한자들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투적인 공청맹원들—자본주의의 파괴자인 볼쉐위크들, 사회주의의 건설자인 볼쉐위크들, 전체 피압박자들과 예속되여있는자들의 해방자인 볼

쉐위크들의 수많은 새로운 세대의 핵심이라는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담보가 있습니다.

(3) 이것은 물론 우리가 소침한자, 우는소리를 하는자, 늘 의혹을 품고있는자들에게 조직적인 사상적(기타의 모든)영향을 주는 방법으로써 극력 그들의 수효를 감소시켜서는 안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당, 우리 문화단체, 우리 출판물, 우리 쏘베트들의 주요한 과업의 하나는 이 방면의 사업을 조직하여 훌륭한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는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우리 벗들은) 당신이

(ㄱ) 잡지 《국외에서》[49]를 창간하고

(ㄴ) 아.똘스또이 및 기타의 문학가들을 참가시켜 《국내전쟁》에 관한 일련의 대중적문집을 발간하자고 제의한바를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부언하여야 할것은 이와 같은 사업을 어느 하나라도 라데크나 그의 어떤 친구의 지도하에 맡겨둘수 없다는것입니다. 문제는 라데크의 선량한 의도라든가 그의 량심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분파적투쟁의 론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친구들은 이러한 투쟁을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있습니다.(아직 약간의 중대한 의견불일치가 남아있는 한 이것이 그들을 분파투쟁에로 추동시킬것이니까요.) 우리 당의 력사는(비단 우리 당의 력사뿐만아니라) 사물의 론리가 인간의 의도의 론리보다 더 강하다는것을 가르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지도를 정치적으로 견실한 동지들에게 맡기고 라데크와 그의 친구들은 기고자로서 참가시키는것이 보다 옳을것입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더 적절할것입니다.

(4) 특별잡지 《전쟁에 관하여》의 창간에 관한 문제를 신

중히 토의한 결과 우리는 그러한 잡지를 현재 출판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쟁문제(나는 제국주의전쟁을 두고 말합니다.)는 현존하는 정치잡지에서 론술하는 것이 보다 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전쟁문제는 정치문제와 갈라놓을수 없는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은 정치의 표현이기때문입니다.

전쟁을 묘사한 소설에 대하여서는 잘 검토한 다음 출판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서적시장에는 전쟁의 《참화》를 묘사하고 모든 전쟁에 대하여(제국주의적전쟁에 대해서뿐만아니라 모든 다른 전쟁에 대하여도) 혐오를 고취하는 허다한 소설들이 나돌고있습니다. 그것은 큰 가치가 없는 자산계급평화주의적인 소설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독자들을 제국주의전쟁의 참화에 대한 공포로부터 그와 같은 전쟁을 조직하는 제국주의정부를 타도할 필요성에 대한 리해에로 이끄는 그런 소설입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모든 전쟁을 다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혁명적인 전쟁인 제국주의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적, 반제국주의적, 혁명적 전쟁은 찬성합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그러한 전쟁은 비단 《류혈의 참화》를 면할수 없을뿐만아니라 지어는 그것으로 가득차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쟁만은 찬성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쟁의 《참화》를 반대하여나서려고 하는 워론스끼의 립장은 자산계급평화주의자의 립장과 그리 다른 점이 없는것 같습니다.

(5) 우리 나라, 우리 출판물에서는 반종교적선전문제에 있어서 일대 혼란이 지배하고있다고 하는 당신의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때로는 적의 물방아에다가 물을 대여주는 놀랄만한 말들도 보게 됩니다. 이 분야에서 할일은 태산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당신의 제의에 관하여 반종교적사업을 하는 동

지들과 미처 토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편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6) 까메굴로브의 요청은 만족시켜줄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무슨 평론가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상.

굳은 악수를 보내며 당신의 건강을 빕니다.

문안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쓰딸린

당신께 로씨야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말입니까? 누구를 청하려 하십니까? 편지로 알려주십시오. 꼭 파견해드리겠습니다.

이.쓰딸린

1930년 1월 17일

《쓰딸린전집》, 제12권에
처음으로 발표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2권, 152~155페지

승리로 인한 현훈증

(집단농장운동의 제 문제에 대하여)

집단농장운동의 분야에서 쏘베트정권이 달성한 승리에 대해서 지금은 누구나 다 말하고있다. 지어 적들까지도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그런데 그 승리는 실로 큰것이다.

금년 2월 20일까지 쏘련의 전체 농호의 50%가 이미 집단화된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1930년 2월 20일까지 우리가 집단화5개년계획을 2배이상으로 초과완수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금년 2월 28일까지 집단농장들이 벌써 봄파종용종자를 3,600여만젠트네르 즉 계획의 90%이상인 근 2억 2,000만뿌드나 수집한것은 사실이다. 다만 집단농장부문만에서—그것도 곡물수매계획을 성과있게 완수한 뒤에—2억 2,000만뿌드의 종자를 수집하였다는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이 모든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사회주의에로의 농촌의 근본적전환이 이미 보장되였다고 간주할수 있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이러한 승리가 우리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지도적력량으로서의 전체 로동계급에 대해서, 그리고 당자체에 대해서 모두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있다는것은 증명할 필요

도 없다. 직접적인 실천적결과는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이러한 승리는 당자체의 내부생활에 대해서나 우리 당의 교양에 대해서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리 당에 용기와 자기의 력량에 대한 신념을 북돋아주고있다. 그것은 로동계급을 우리 사업의 승리에 대한 신념으로써 무장시켜준다. 그것은 수백만의 새로운 예비군을 우리 당의 주위에 접근시키고있다.

이로부터 이미 달성한 승리를 **공고히 하며** 가일층의 전진을 위하여 그것을 계획적으로 **리용할것**이라는 당의 과업이 나온다.

그러나 승리에는 그의 어두운 면도 있다. 특히 그것이 비교적 《쉽게》, 말하자면 《생각밖으로》 얻어지는 때에는 그렇다. 그러한 승리는 왕왕 《우리는 모든것을 다 해낼수 있다!》, 《우리에게는 모든것이 다 식은죽먹기다!》라고 하는 자만과 자부심을 자아낸다. 이러한 승리는 흔히 사람들을 도취하게 하며 그리하여 사람들은 승리로 인한 현훈증을 일으키게 되며 지각의 한도를 잃게 되며 현실을 리해하는 능력을 잃게 되며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적의 력량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문제를 《대번에》 해결하려는 모험주의적시도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달성한 승리를 **공고히 하며** 더한층 전진하기 위하여 그것을 계획적으로 **리용하려는** 관심도 없어지게 된다. 무엇때문에 우리는 이미 달성한 승리를 공고화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대번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까지 달려나갈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모든것을 다 해낼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모든것이 다 식은죽먹기인데!》

이로부터 사업에 해롭고 위험한 이러한 기분과 단호하게 투쟁하여 그것을 당으로부터 몰아내야 할 당의 과업이 나

온다.

사업에 해롭고 위험한 이러한 기분이 우리 당 대렬내에 얼마간 널리 전파되였다고는 말할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분은 좌우간 우리 당내에 있는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강화되지 않으리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는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기분이 우리들사이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한다면 집단농장운동은 현저히 약화될것이며 이 운동이 파괴될 위험이 현실로 될 수 있으리라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없다.

이로부터 이러한 기분과 이와 비슷한 반레닌주의적기분을 계통적으로 폭로하여야 할 출판물의 과업이 나온다.

몇가지 사실을 들어보자.

1. 우리 집단농장정책이 승리한 원인의 하나는 이 정책이 집단농장운동의 자원적원칙과 또 쏘련의 각 지방의 각이한 조건을 고려하는 원칙에 립각하고있다는 그것이다. 집단농장을 강제로 세워서는 안된다. 그것은 미련한것이며 반동적인것일 것이다. 집단농장운동은 농민의 기본대중의 적극적지지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발전한 지방에서의 집단농장건설의 모범을 발전하지 못한 지방에다 기계적으로 옮겨놓아서는 안된다. 이것은 미련한것이며 반동적인것일것이다. 그러한 《정책》은 집단화사상을 일거에 훼손시킬것이다. 집단농장건설의 속도와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쏘련의 각 지방의 각이한 조건을 면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의 집단농장운동에서 곡물생산지구가 다른 모든 지구보다도 앞서나가고있다. 무엇때문인가?

첫째로 이 지방들에는 이미 튼튼히 자리잡힌 국영농장 및 집단농장이 가장 많이 있으므로 그것들을 통하여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의 힘과 의의, 새로운 집단적경영조직의 힘과 의의에 대하여 확신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기때문이다.

둘째로 이 지방들은 곡물수매운동에서 두해동안에 걸친 부농파의 투쟁의 훈련을 받았는데 이것은 집단농장운동의 사업을 쉽게 하지 않을수 없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지방들에서는 최근 몇해동안에 공업중심지로부터 우수한 간부들을 많이 공급받았기때문이다.

다른 지방, 례컨대 우리 나라 북부의 주들과 같은 소비지역이거나 또는 이를테면 뚜르께스딴과 같은 아직도 뒤떨어진 민족들이 거주하고있는 지방에도 이러한 특히 유리한 조건이 구비되였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수 없다.

쏘련의 각 지방의 각이한 조건을 고려하는 원칙은 자원적 원칙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집단농장운동의 가장 중대한 전제조건의 하나라는것은 아주 명백하다.

그런데 실지 우리 나라에서는 때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군 하는가? 자원적원칙과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원칙이 일부 지방들에서 위반되고있지 않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유감이지만 그렇게 말할수 없다. 례컨대 다 아는바이지만 곡물생산지방보다 집단농장을 즉시로 조직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이 비교적 적은 북부소비지대의 여러 지방들에서는 집단농장의 조직을 위한 준비사업을 집단농장에 대한 관료적명령으로써, 집단농장의 장성에 관한 지상의 결의로써, 현실에는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불어대는 결의가 산더미같이 있는 지상집단농장의 조직으로써 바꾸어놓으려고 노력하는 일이 적지 않다.

또는 뚜르께스딴의 일부 지방을 놓고보더라도 거기에는 집단농장을 즉시 조직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이 북부소비지대의 주들보다도 더 적다. 그런데 다 아는바와 같이 뚜르께스딴의 어떤 지방들에서는 무력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써, 아직

집단농장에 들어오려 하지 않는 농민들에게 관개용수와 공업제품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써 쏘련의 선진지방들을 《따라잡으며 또 앞서려고》 시도한 일이 이미 있었다.

이러한 쁘리쉬베예브중사50식《정책》과 집단농장건설사업에서 자원적원칙 및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원칙에 의거하고있는 당의 정책과의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수 있겠는가? 그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외곡, 집단농장운동에 대한 이러한 관료적명령, 농민들에 대한 이러한 당치않은 위협은 누구에게 필요한것인가? 우리의 적들에게밖에는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다!

이와 같은 외곡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가? 우리의 적들을 강화하며 집단농장운동의 사상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좌익》이라고 자처하는 이러한 외곡의 조작자들이 실은 우익기회주의를 도와주고있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2. 우리 당의 정치적전략의 최대의 장점의 하나는 그것이 매개 시기에 운동의 **기본적고리**를 찾아내여 이 고리를 잡아쥔 다음 과업의 해결을 위하여 련쇄전체를 하나의 총적목적에로 끌어당길줄 아는데 있다. 당은 집단농장건설의 체계에 있어서 집단농장운동의 기본적고리를 이미 찾아냈다고 말할수 있는가? 그렇다, 말할수 있으며 또 그렇게 말하여야 할것이다.

그 기본적고리란 무엇인가?

토지공동경작조합인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생산수단이 아직 공유화되지 못한 토지공동경작조합은 집단농장운동의 이미 지나간 단계이다.

혹은 농업꼼뮨인가? 아니다, 꼼뮨이 아니다. 꼼뮨은 아직 집단농장운동에서 개별적현상이다. 생산뿐만아니라 분배까지

도 공유화된 농업끔뮨이 주요형태로 될만한 조건은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다.

현시기에 있어서 집단농장운동의 기본적고리, 즉 지금 틀어쥐여야 할 집단농장운동의 주요형태는 농업로동조합이다.

농업로동조합에서는 기본적생산수단, 주로 곡물재배에서의 기본적생산수단 즉 로동, 토지리용, 기계 및 기타의 농구, 역축, 경영용건물 등등이 공유화된다. 거기에서는 터밭(자그마한 채소원과 작은 과수원), 주택, 젖짜는 가축의 일부, 소가축, 가금 등등은 공유화되지 않는다.

로동조합이 집단농장운동의 기본적고리로 되는것은 그것이 곡물문제해결의 가장 적당한 형태이기때문이다. 그런데 곡물문제가 전반 농업체계에 있어서 기본적고리로 되는것은 곡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목축업(대소가축)의 문제도, 공업에 기본원료를 공급하는 경제작물 및 특수작물 문제도 해결할수 없기때문이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농업로동조합은 현시기 집단농장운동의 체계에서의 기본적고리로 되는것이다.

오늘 그 마지막정문이 발표되는① 집단농장의 《모범규약》은 이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우리의 당 및 쏘베트 일군들은 반드시 이 점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들의 의무의 하나로서는 이 규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며 그것을 철저히 실시하는것이다.

이러한것이 현시기의 당의 방침이다.

당의 이 방침이 위반되거나 외곡되지 않고 실시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아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렇다고 말할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쏘련의 여러 지방에서는 집단농장의 존재를 위한 투쟁이 아직 끝날 날이 멀었으며 로동조합이 아직

---

① 1930년 3월 2일부 《쁘라우다》.

공고화되지 못했는데 로동조합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번에 농업꼼뮨으로 뛰여넘어가려는 시도가 있다. 로동조합도 아직 공고화되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주택, 소가축, 가금을 벌써 《공유화》하고있다. 그런데 이런 《공유화》는 지상적관료주의적명령으로 변하고있다. 왜냐 하면 그러한 공유화를 필요로 하는 조건이 아직 없기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곡물문제는 집단농장에서 이미 해결되였으며 그것은 벌써 지나간 단계의 문제로 되였으며 따라서 현시기의 기본적과업은 곡물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아니라 목축업 및 양금업 문제를 해결하는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을것이다. 집단농장운동의 여러가지 형태를 한데 얼버무려놓는 이 우둔한《짓》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우둔하고 사업에 해로운 조급성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곡물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때에, 집단농장의 로동조합적형태가 아직 공고하지 못한 때에 주택, 모든 젖짜는 가축, 모든 소가축, 가금 등을 《공유화》함으로써 집단화농민들을 회롱하는것—이러한 《정책》이 우리의 불구대천의 적들에게만 구미에 맞고 유리할수 있다는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이러한 열광적인 《공유화론자》중의 한사람은 지어 《3일내로 매 농가에 있는 전체 가금의 수자를 조사하며》, 통계 및 감독 사업을 위한 전문《지휘관》을 두며, 《로동조합에서 지휘적지위를 점령하며》, 《부서를 떠나지 말고 사회주의적전투를 지휘하며》, 그리고—당연한 일이지만—전 로동조합을 완전히 들어쥐라는 명령까지 로동조합에 내리고있다.

이것은 무엇인가—집단농장을 지도하는 정책인가. 아니면 집단농장을 와해시키며 그 위신을 떨구는 정책인가?

나는 교회의 종을 떼여내리는것으로부터 로동조합의 초적사업에 착수하는 소위 《혁명가》들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도 않겠다. 종을 떼여던진다.—이 얼마나 혁명적인가!

우리의 대렬에서 어찌하여 《공유화》에 관한 이러한 우둔한 짓, 자기자신을 뛰여넘으려는 가소로운 시도, 계급과 계급투쟁을 피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나 실은 우리의 계급의 적들의 물방아에다 물을 대여주는 시도가 발생할수 있었는가?

그것은 집단농장건설전선에서 우리가 《쉽게》, 그리고 《생각밖으로》 승리를 달성한 분위기속에서만 발생할수 있었다.

그것은 일부분 당원들속에—《우리는 모든것을 다 해낼수 있다!》, 《우리에게는 모든것이 다 식은죽먹기다!》라고 하는 우둔한 기분이 생긴 결과로써만 발생할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동지들에게 승리로 인한 현훈증이 생겨 그들이 잠시동안 명철한 리지와 랭정한 견해를 잃어버린 결과로써만 발생할수 있었다.

집단농장건설령역에서 우리 사업의 로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분을 영영 없애버려야 할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의 당면과업의 하나이다.

령도예술이란 중대한 일이다. 운동에서 뒤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왜냐 하면 뒤떨어진다는것은 대중으로부터 리탈한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나치게 나가지도 말아야 한다. 왜냐 하면 앞으로 지나치게 나간다는것은 대중을 잃고 자기를 고립지킨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운동을 지도하며 동시에 수백만 대중과의 련계를 유지하려고 하는자는 반드시 두 전선에서 즉 뒤떨어지는자를 반대하여서도 또 앞으로 지나치게 나가는자를 반대하여서도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당이 강력한 당이며 또 불패의 당인것은 당이 운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수백만 로동자 및 농민 대중과의 련계를 유지강화할줄 알기때문이다.

1930년 3월 2일부 《프라우다》 제60호에 게재

서명: 이.쓰딸린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2권, 167~174페지

집단농장원동지들에게 주는 대답

신문을 통하여 다 아는바이지만 쓰딸린의 론문 《승리로 인한 현훈증》①과 중앙위원회의 유명한 결정② 《집단농장운동에서의 당로선에 대한 외곡과의 투쟁에 관하여》는 집단농장운동의 실제활동가들가운데서 허다한 반향을 일으키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요사이에 농장원동지들에게서 거기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답하여달라고 요청한 많은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들에 대해서는 사인편지로써 대답하여야 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는 없었다. 왜냐 하면 편지의 반수이상은 발신인의 주소가 없었기때문이다.(주소를 써보내는것을 잊어버렸던것이다.) 그런데 그 편지들에 언급된 문제는 우리의 모든 동지들에게 있어서 거대한 정치적의의가 있는 문제이다. 그뿐만아니라 나는 물론 주소를 써보내는것을 잊어버린 동지들에게도 회답을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농장원동지들의 편지에 대하여 그중에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골라내여 공개적으로 즉 출판물을 통하여 대답할 필요를 느끼게 되였다. 또 이 문제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결정이 있었기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대답하는데 더욱 즐겨 착수하게 되였다.

---

① 이 책, 310~317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이 결정은 1930년 3월 15일부 《쁘라우다》지, 제73호에 발표되였다.(《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집》, 1957년 인민출판사판, 제4분책, 117~120페지를 보라.)—편집자

첫째 문제: 농민문제에서의 오유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대답: 중농에 대하여 옳지 못한 태도를 취한데 있다. 중농파의 경제적관계에서 폭력을 채용한데 있다. 중농대중과의 경제적결합은 강제적수단에 기초할것이 아니라 중농과의 협의, 중농과의 동맹에 기초하여 맺어져야 한다는것을 잊어버린데 있다. 현시기의 집단농장운동의 토대는 자본주의일반, 특히는 부농을 반대하는 로동계급 및 빈농의 중농과의 동맹이라는것을 잊어버린데 있다.

중농과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부농에 대하여 진공이 진행되고있던 동안은 모든 일이 잘되여나갔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한 우리의 일부 동지들이 부농을 반대하던 길로부터 부지불식간에 중농을 반대하는 길로 전락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집단화의 퍼센트를 높이기에 열중한 나머지 중농에 대하여 폭력을 적용하여 그들에게서 선거권을 빼앗으며 부농을 수탈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하자 진공은 외곡되기 시작하고 중농과의 통일전선은 파렬되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당연하게도 부농은 다시 일어서보려고 시도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의 계급적적들과의 투쟁에서는 필요하며 유익한 폭력이 우리의 동맹자인 중농과의 관계에서는 용허될수 없으며 해로운것으로 된다는것을 그들은 망각하였다.

기병적습격은 군사적성질을 띤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며 유익한것이지만 집단농장건설—그것도 중농과의 동맹하에 조직되고있는—의 과업을 해결하는데는 적당치 않으며 해로운것으로 된다는것을 그들은 망각하였다.

이 점에 농민문제에서의 오유의 근원이 있다.

중농과의 경제적관계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기에서는 기실 폭력의 방법으로써는 아무것도 달성할수 없다는 진리에 립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는 경제적과업은 전혀 다르게 제기되고있다. 여기에는 건체 토대와 건체 건물을 그대로 남겨두고서 끊어버릴수 있는 그러한 상층부가 존재하지 않는것이다. 도시에서 자본가들이 이루어지고있었던것과 같은 그런 상층부가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폭력에 의한 행동은 모든 사업을 파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중농에 대한 경제적관계에 있어서 폭력수단을 사용하려는 생각보다도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168페지)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중농에 대한 폭력은 극도로 해로운것이다. 중농은 수가 많은, 몇백만이나 되는 계층이다. 구라파에서는 어디서도 중농이 그렇게 큰 력량에 달하지는 않고있으며 기술과 문화, 도시생활, 철도가 굉장히 발전되여있어서 거기서는 이와 같은 폭력을 생각하기도 가장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장 혁명적인 어느 한 사회주의자도 중농에 대한 폭력수단을 제의한 일은 없었던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167페지)②

이만하면 명백하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문제: 집단농장운동에서의 주요한 오유는 어떠한것인가?

대답: 주요한 오유는 적어도 세가지가 있다.

(1) 집단농장건설에 있어서 레닌의 자원적원칙이 위반되였다. 집단농장건설의 자원적원칙에 관한 당의 기본적지시와 농업로동조합의 모범규약이 위반되였다.

레닌주의는 농민들을 자원적원칙에 의하여 개인적경영에 대한 공동적, 집단적 경영의 우월성을 설복하는 방법으로써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803페지와 804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803페지를 보라.—편집자

그들을 집단적경영의 궤도에로 이끌어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레닌주의는 집단농장의 우월성을 농민들에게 납득시키려면 오직 집단농장이 개인적경영보다 나으며 집단농장이 개인적경영보다 유익하며 집단농장이 농민 즉 빈농 및 중농에게 궁핍과 빈궁으로부터 벗어져나올 길을 열어준다는것을 가리켜주며 사실로써, 경험으로써 증시하여주게 되는 경우에라야만 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레닌주의는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 집단농장은 공고하게 될수 없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레닌주의는 집단농장경영을 폭력으로 강박하려는 온갖 시도, 집단농장을 강제로 건립하려는 온갖 시도는 모두 불량한 결과를 가져올따름이며 집단농장운동으로부터 농민들을 리탈시키게 할 따름이라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사실에 있어서도 이 기본적규칙이 준수되고있던 동안은 집단농장운동은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였다. 그런데 승리에 도취된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이 규칙을 무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나친 조급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그리하여 집단화의 퍼센트를 높이기에 열중한 나머지 강제로 집단농장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불량한 결과가 인차 나타나게 되였다는것은 놀랄바가 아니다. 갑자기 생겨난 집단농장은 그것이 급속히 나타난것과 마찬가지로 급속히 사라지게 되였으며 그리고 어제까지도 집단농장에 커다란 신뢰를 가지고있던 농민의 일부는 집단농장으로부터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이 점에 집단농장운동에서의 첫째의 주요한 오유가 있는것이다.

집단농장건설의 자원적원칙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우리의 과업은 토지의 공동경작에로 이행하며 대규모의 공동경영에로 이행하는것이다. 그러나 쏘베트정권측으로부터의 어떠한 강제

도 있을수 없으며 어떠한 법령도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농업끔뮨은 자원적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있으며 토지의 끔동경작에로의 이행은 다만 자원적으로만 될수 있는것이며 이 점에 대하여 로농정부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강제수단도 있을수 없으며 또 법령으로써 허용되여있지 않다. 만일 당신들중에서 누구든지 그런 강제를 보았다면 당신들은 그것이 권한의 람용이며 법령의 위반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노력하고있으며 또 반드시 시정할것이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43페지)②

또 이렇게 말하였다.

《실제적으로 농민에게 공동적, 집단적, 조합적, 로동조합적 토지경작의 우월성을 보여줄수 있게 되는 경우에라야만, 또 조합적, 로동조합적 경영방법에 의하여 농민을 원조할수 있게 되는 경우에라야만, 그때에라야만 비로소 국가정권을 장악하고있는 로동계급은 현실적으로 농민에게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여주게 될것이며 현실적으로 수천만 농민대중을 확고히 또한 진정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조합적, 로동조합적 농업을 촉진할수 있는 그 어떤 조치이든 그 의의는 더 말할수 없이 큰것이다. 우리 나라는 산간벽촌에 산재하고있는 수백만의 개인농을 가지고있다. …조합적, 로동조합적 농업으로 넘어가는것이 필요하며 또 가능하다는것이 농민에게 비근한 경험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증명되는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로씨야와 같은 광대한 농업국에서 사회주의적농업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1보를 내디디였다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을것이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579~580페지)③

끝으로 레닌의 저작중에서 또 한개소를 인용하기로 하자.

《중농의 각종 조합과 그리고 농업끔뮨을 장려함에 있어서 쏘베트정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29권, 25페지를 보라.—편집자

③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06페지와 107페지를 보라. —편집자

권의 대표자들은 그러한것을 조직하는 데에 사소한 강제라도 용허해서는 안된다. 농민자신이 자기의 자유로운 창의에 의하여 실현하였으며 그것이 유리하다는것이 그들에 의하여 실천상에서 검증된 그러한 련합만이 가치가 있다. 이 사업에서 과도한 조급성은 유해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단지 새로운것에 대한 중농의 편견을 강화시킬따름이기때문이다. 농민을 꼼뮨에 가입시킬 목적으로 비단 직접적인 강제뿐만아니라 간접적인 강제라도 적용하는 그러한 쏘베트정권의 대표자들은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농촌사업에서 제거되여야 한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174페지)②

이만하면 명백하리라 생각한다.

당이 레닌의 이 교시를 엄격하게 실시하리라는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2) 집단농장건설에서 쏘련의 각 지방에서의 각이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레닌의 원칙이 위반되였다. 쏘련에는 여러가지 경제형태와 문화수준을 가진 극히 다종다양한 지역이 있다는것이 망각되였다. 이 지역들가운데는 선진적인 지역과 중등정도의 지역과 락후한 지역이 있다는것이 망각되였다. 집단농장운동의 속도나 집단농장건설의 방법이 매우 부동한 이 지역들에서는 같을수 없다는것이 망각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만일 단순히 로씨야의 모든 지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법령을 제정한다면, 만일 우크라이나와 돈의 볼쉐위크-공산당원들과 쏘베트일군들이 무작정하고 다른 지방들에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실시한다면 그것은 잘못일것이다. …》 왜냐 하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천편일률적인 한가지 틀에 구속되지 않으며 우리의 경험, 중앙로씨야의 경험을 그냥 그대로 전체 변강에 옮겨놓을수 있다고는 절대로 규정하지 않는것이기》때문이다.(《레닌전집》,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29권, 189페지를 보라, —편집자

로문판, 제3판, 제24권, 125～126페지)①

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앙로씨야와 우크라이나와 씨비리를 균등일률적으로 취급하거나 그것을 일정한 률에다 들어맞추려는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일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243페지)②

끝으로 레닌은 깝까즈의 공산당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웠다. 그들은

《로씨야쏘베트련방사회주의공화국의 형편이나 조건과는 다른 자기들의 형편과 그 공화국들의 형편의 특수성을 리해하며 또 우리의 전술을 그대로 모방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조건의 차이에 맞추어서 신중하게 변화시킬 필요성을 리해해야 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191페지)③

이만하면 명백하리라고 생각한다.

레닌의 이 교시에 기초하여 우리 당 중앙위원회는《집단화의 속도에 대하여》라는 결정(1930년 1월 6일부 《쁘라우다》를 보라.)④에서 집단화의 속도로 보아 쏘련의 각 지방을 세가지 류형으로 나누고 그중에서 북깝까즈, 볼가강중류지방, 볼가강하류지방은 기본적으로는 1931년 봄에 집단화를 끝낼수 있고 다른 곡물지방(우크라이나, 중앙흑토지대, 씨비리, 우랄, 까자흐스딴 및 기타)은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1932년 봄에 끝낼수 있고 나머지지방은 집단화를 5개년계획말까지 즉 1933년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9권, 133페지—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제32권, 210페지—편집자
③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500페지를 보라.—편집자
④ 1930년 1월 5일부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의 결정《집단화의 속도와 집단농장건설에 대한 국가의 원조에 관하여》를 두고 말한다.(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집》, 1957년 인민출판사판, 제4분책, 112～115페지를 보라.)—편집자

까지 연기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였는가? 집단농장운동의 초보적성과에 도취된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레닌의 교시도 중앙위원회의 결정도 까맣게 잊어버리였다. 모스크바주는 집단화에 대한 과장적인 수자를 내놓기에 열중한 나머지 적어도 3년이란 기간(1932년말까지)의 여유를 가지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 봄에 집단화를 끝내라는 책임을 자기의 사업일군들에게 주었다. 중앙흑토지대는 《다른 주보다 떨어지기》가 싫어서 적어도 2년이란 기간(1931년말까지)의 여유를 가지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 상반기까지 집단화를 끝내라는 책임을 자기의 사업일군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남깝까즈의 일군들과 뚜르께스딴의 일군들도 선진지방들을 《따라잡으며 또 앞서》는데 열중한 나머지 만 4년이란 기간(1933년말까지)의 여유를 가지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화를 《최단기간》에 끝낼 방침을 취하였다.

이렇게 지나치게 빠른 집단화의 《속도》의 조건하에서는 집단농장운동의 준비가 아직 잘되여있지 않은 구역들이 보다 잘 준비되여있는 구역들을 《앞서》는데 열중한 나머지 집단농장운동의 급속한 속도를 보장함에 있어서 부족되는 요인을 자기자체의 행정적열의로 보충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강한 행정적 압력을 가하지 않을수 없게 된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결과는 다 아는바이다. 이 지방들에서 혼란이 생겼기때문에 그후 중앙위원회가 간섭하여 그것을 정돈하게 된것은 모두가 다 아는 바이다.

이 점에 집단농장운동에서의 둘째 오유가 있다.

(3) 집단농장건설에서는 운동의 미완성형태를 뛰여넘는것을 용허할수 없다는 레닌의 원칙이 위반되였다. 대중의 발전정도를 넘어서지 말며 대중의 운동에 명령하지 말며 대중과

유리되지 말고 대중과 함께 나아가면서 그들을 앞으로 추동시키며 그들을 우리의 구호아래에로 이끌어오며 그들이 자기자체의 경험에 의하여 우리의 구호의 정당성을 확신하도록 도와주라는 레닌의 원칙이 위반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기에서도 페뜨로그라드 무산계급과 페뜨로그라드 수비대병사들은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였을 때에 농촌의 건설에 있어서는 큰 곤난에 봉착하리라는것, 여기에서는 더 점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것, 여기서 법령과 명령으로써 토지의 공동경작을 실시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짓이라는것, 이 공동경작에 대하여서는 극소수의 각성된 농민이나 동의할것이고 농민의 대다수는 이 과업을 제기하지도 않으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혁명발전에 절대로 필요한것에 국한하였다. 즉 결코 대중의 발전정도를 앞서나가지 않고 그 대중자신의 경험과 그들자신의 투쟁에서 전진운동이 전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252페지)②

레닌의 이 지시로부터 출발하여 중앙위원회는 《집단화의 속도에 대하여》라는 유명한 결정(1930년 1월 6일부 《쁘라우다》를 보라.)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ㄱ) 현시기의 집단농장운동의 주요형태는 농업로동조합이다.

(ㄴ) 그렇기때문에 집단농장의 주요형태로서의 농업로동조합의 모범규약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ㄷ) 우리의 실제사업가운데서 집단농장운동을 우로부터 《명령》을 내리거나 《집단화유희를 하는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현재 우리는 꼼뮨이 아니라 집단농장건설의 주요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28권, 124페지를 보라.—편집자

형태인 농업로동조합을 조직하는 방침을 취하여야 하며 농업로동조합을 경유하지 않고 꼼뮨으로 뛰여넘어가는것을 용허해서는 안되며 집단농장으로 나가는 농민들의 대중적운동을 집단농장의 《명령발포》로, 《집단농장유회》로 바꾸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만하면 명백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였는가? 집단농장운동의 초보적성과에 도취된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레닌의 지시도, 중앙위원회의 결정도 까맣게 잊어버리고말았던것이다. 이 동지들은 농업로동조합을 위한 대중적운동을 조직할 대신에 개인농들을 곧바로 꼼뮨규약에로 《인도하기》 시작하였다. 운동의 로동조합적형태를 공고화할 대신에 작은 가축, 가금, 자가용착유가축, 주택 등을 강제로 《공유화》하기 시작하였다.

레닌주의자에게 허용될수 없는 이러한 조급성의 결과는 지금에 와서는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견고한 꼼뮨은 통례로 물론 설립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것때문에 많은 농업로동조합을 놓쳐버렸다. 하기는 《좋은》 결정서들이 남아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

이 점에 집단농장운동에서의 셋째 오유가 있다.

셋째 문제: 이러한 오유는 어떻게 발생할수 있었으며 또 당은 그것을 어떻게 시정해야 할것인가?

대답: 그러한 오유는 집단농장운동의 령역에서 우리가 취득한 급속한 승리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승리는 왕왕 현훈증을 일으킨다. 승리는 흔히 지나친 자부심과 자만심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집정당의 대표자들에게 특히 생기기 쉬운 일이다. 우리 당과 같이 거의 헤아릴수 없는 력량과 권위를 가지고있는 그런 당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여기에서는 레닌이 맹렬히 반대하여 싸운 그 공산당원의 교오자만의 사실이

완전히 나타날수 있다. 여기에서는 법령, 결정서, 지령의 만능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생길수 있다. 여기에서는 당의 혁명적대책이 끝없이 넓은 우리 나라의 이구석저구석에서 개별적 당대표자들의 형 빈 관료적지령으로 전화될 위험성이 완전히 현실적이다. 나는 지방의 일군들뿐만아니라 개별적인 주위원회의 위원들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들까지도 념두에 두고 말한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공산당원의 교오자만이란 공산당에 들어있으며 아직 거기에서 숙청되지 않고있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임무를 공산당원의 명령으로써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을 의미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50～51페지)①

이러한 지반우에서 집단농장운동에서의 오유와 집단농장건설사업에서의 당로선의 외곡이 산생되였다.

만일 이러한 오유와 외곡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만일 그것이 급속하게 흔적도 없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오유와 외곡의 위험성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서의 위험성은 이러한 오유들이 집단농장운동을 파괴시키고 중농과의 불화를 초성시키고 빈농대렬을 와해시키고 우리 대렬을 혼란시키며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전체를 약화시키며 부농을 부활시키는데로 우리를 직접 내모는데 있다.

간단히 말한다면 이러한 오유는 농민의 기본대중과의 동맹을 튼튼하게 하는 길, 무산계급독재를 튼튼하게 하는 길로부터 이 대중과 결별하는 길로, 무산계급독재를 파괴하는 길로 우리를 밀어보내는 경향을 가지고있다.

이 위험성은 벌써 2월후반에, 즉 이미 얻은 승리에 눈이 어두워진 우리의 일부 동지들이 레닌의 길로부터 반대로 달아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59페지를 보라.—편집자

난 바로 그 시기에 나타났다. 당중앙위원회는 이 위험성을 고려하고 곧 이 일에 간섭하여 집단농장운동에 관한 특별론문에서 함부로 날뛰는 동지들에게 경고를 줄것을 쓰딸린에게 위임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승리로 인한 현훈증》이라는 론문이 쓰딸린의 개인적발기에서 나온것으로 생각하고있다. 이것은 물론 엉터리없는 말이다. 우리에게 중앙위원회가 있는것은 이러한 일에서 그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발기에 맡겨두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중앙위원회가 취한 깊은 정찰이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오유의 깊이와 범위가 해명되게 되자 중앙위원회는 1930년 3월 15일부의 그 유명한 결정을 발표하여 지체없이 자기의 권위의 모든 힘으로 이 오유를 타격하였던것이다.

절벽을 향하여 질주하는 사람들을 그 미친듯이 달려가는 도중에서 멈춰세우고 옳바른 길로 돌려세우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중앙위원회가 레닌당의 중앙위원회라고 불리우는것은 그것이 이보다 더한 난관도 극복할줄 알기때문이다. 그리고 중앙위원회는 벌써 그러한 난관을 기본상 극복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당의 전 부대가 달리던 자기의 걸음을 멈추고 제때에 옳바른 길로 돌아서서 행진하면서 자기의 대오를 재편성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당이 레닌의 당이라고 불리우는것은 그것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신축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당은 벌써 그러한 난관을 기본상 극복하였다.

여기에서의 주요한 문제는 자기의 오유를 시인하는 용기를 발휘하며 그 오유를 가장 짧은 시일내에 청산할 힘을 자체내에서 찾아내는것이다. 최근의 승리에 도취되여 자기의 오유를 시인하기를 겁내는것, 자기비판을 겁내는것, 오유를 급속히 또 결정적으로 시정하기를 원치 않는것—여기에 주요한 난관이 있는것이다. 오유를 흔적도 남지 않게 하려면 이 난관을

극복하며 과장된 수자적계획과 관청적-관료주의적인 최대한주의를 버리며 자기의 주의력을 집단농장의 조직 및 경제 건설의 파업에 돌리기만 하면 된다. 이 위험한 난관을 당이 이미 기본상 극복하였다는것을 의심할 하등의 리유도 없을것이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멸망한 모든 혁명적 정당들은 교오자만하였고 그들의 힘이 무엇에 있는가를 몰랐으며 자기들의 약점에 대하여 말하기를 두려워하였기때문에 멸망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것인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약점에 대하여 말하는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약점을 극복하는것을 배울것이기때문이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260～261페지)②

레닌의 이 말을 잊어서는 안된다.

넷째 문제: 당로선에 대한 외곡과 투쟁하는것은 뒤로 물러서며 퇴각하는것이 아닌가?

대답: 물론 아니다! 여기에서 퇴각을 운운할수 있는것은 오직 계속 오유를 범하며 계속 외곡하는것을 진공으로 인정하며 오유와의 투쟁을 퇴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뿐이다. 오유와 외곡을 거듭 쌓아올리면서 하는 진공—이것이야말로 말할나위도없이 좋은 《진공》이다.…

우리는 농업로동조합을 현시기의 집단농장운동의 기본적 형태로서 내세우고 해당한 모범규약을 집단농장건설사업의 지침으로서 제정하였다. 우리는 이 사업으로부터 과연 퇴각하고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는 로동계급 및 빈농과 중농과의 생산적결합을 튼튼하게 하는것을 현시기의 집단농장운동의 기초로서 내세웠다.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275페지를 보라.—편집자

우리는 이 사업으로부터 파연 퇴각하고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는 부농계급을 청산한다는 구호를 현시기 농촌에서의 우리의 실제사업의 주되는 구호로서 내세웠다. 우리는 이 사업으로부터 파연 퇴각하고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1930년 1월에 쏘련의 각 지방을 일정한 부류로 나누고 매개 부류에 대하여 각각 서로 다른 속도를 규정함으로써 쏘련의 농업집단화의 일정한 속도를 정하였다. 우리는 이 사업으로부터 파연 퇴각하고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당의 《퇴각》이 있단말인가?

우리는 오유를 범하고 외곡한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오유로부터 퇴각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솔한 행동으로부터 퇴각하여 레닌주의의 립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런것을 바라는것은 그러한 조건하에서만 우리의 계급적적들에 대한 **본격적진공**을 계속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뒤로 물러난다는것을 의미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진공이라는것을 경솔한 유희로서가 아니라 **옳바른진공**을 수행하려 한다는것을 의미할따름이다.

다만 변태적인 사람이나 《좌익적》편향자들만이 당의 이러한 립장을 퇴각으로 평가할수 있다는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퇴각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정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ㄱ) 그들은 진공의 법칙을 모르고있다. 그들은 이미 점령한 진지를 **튼튼히 하지 않은** 진공은 실패의 운명을 피면하지 못할 진공이라는것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례컨대 군사방면에서의 진공은 어떤 때에 성공적인것으로 될수 있는가? 사람들이 덮어놓고 전진하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점령한 진지를 공고화하며 이미 변화된 정세에 알맞게 자기의 병력을 재편성하며 후방기관을 단속하며 예비군이 바싹 접근하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경우인것이다. 무엇때문에 이러한것이 필요한가? 그것은 불의의 사태에 대처하며 어떠한 진공에서도 있을수 있는 개별적돌파를 없애며 그리하여 적의 완전한 섬멸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1920년의 뽈스까군대의 오유는 단지 군사적면에서만 말한다면 그들이 이 법칙을 무시한데 있었다. 그들이 단숨에 끼예브까지 쳐들어왔다가 다음에는 또 이와 마찬가지로 단숨에 와르샤와까지 퇴각하지 않을수 없게 된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이 점이다. 1920년의 쏘베트군대의 오유도 만일 그것을 역시 단지 군사방면에서만 말한다면 그들이 와르샤와에의 진공에서 뽈스까군이 범한것과 같은 오유를 되풀이한데 있다.

계급투쟁전선에서의 진공의 법칙에 대해서도 이와 꼭같이 말해야 할것이다. 점령한 진지를 튼튼히 하며 자기의 병력을 재편성하며 예비군으로써 전선을 보장하며 후방기관을 단속하는 등등을 하지 않고서는 계급적적을 섬멸하기 위한 진공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모든 문제는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진공의 법칙을 모르는데 있다. 모든 문제는 당이 이 법칙을 알고 그것을 실시하는데 있다.

(ㄴ) 그들은 진공의 계급적본질을 모르고있다. 그들은 진공에 대하여 웨치고있다. 그러나 어느 계급과 련합하여 어느 계급에 대하여 진공한다는말인가? 우리는 중농과 련합하여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에 대해서 진공한다. 왜냐 하면 이러한 진공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줄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당의 개별적 부대가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진공이 옳바른 길로부터 벗어나 그 예봉을 우리의 동맹자인 중농에게 돌

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우리에게는 그래 일정한 계급과의 련합하에 수행하는 일정한 계급에 대한 진공이 아니라 어떠한 진공이라도 다 필요하단말인가? 돈 끼호떼[51]도 역시 풍차를 진공하면서 적을 진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다 알다싶이 그는 이런 소위 진공에서 자기의 이마를 깨뜨렸을뿐이였다.

아마도 우리의 《좌익적》편향자들은 돈 끼호떼와 월계관을 다투고싶은 모양이다.

다섯째 문제: 우리에게는 어떠한 위험성이 주되는것인가, 우익적위험성인가 《좌익적》위험성인가?

대답: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주되는 위험성은 우익적위험성이다. 우익적위험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전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지금도 주되는 위험성이다.

이 명제는 《좌익적》편향자들의 오유와 외곡이 현재 집단농장운동의 주되는 장애물이라고 한 1930년 3월 15일부의 중앙위원회결정의 유명한 론점에 모순되지 않는가? 아니다,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집단농장운동의 령역에서의 《좌익적》편향자들의 오유는 당내에서의 우익적편향을 강화하며 공고화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지어주는 그런 오유이기때문이다. 왜 그런가? 왜냐 하면 이러한 오유는 당의 로선을 외곡하기때문이며 그리하여 그것은 당의 신망을 떨어뜨리는 일에 편리를 주며 따라서 그것은 당의 령도를 반대하는 우익분자들의 투쟁에 편리를 주기때문이다. 당지도부의 신망을 떨어뜨리는것은 당을 반대하는 우익분자들의 로대로 삼을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우익분자들에게 이러한 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좌익적》편향자들, 그들의 오유 및 외곡이다. 그렇기때문에 우익기회주의와 성과적으로 투쟁하기 위해서는 《좌익》기회주의자들의 오유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좌익적》편향자들은

객관적으로는 우익편향자들의 동맹자인것이다.

이러한것이 《좌익》기회주의와 우익편향주의와의 특수한 련계이다.

일부 《좌익》분자들이 우익분자들과 동맹하여야 한다고 종종 말하고있는 사실도 이 련계로써 설명하여야 한다. 어제까지도 우리를 욕하며 돌격을 《실행》하여 쏘련을 불과 2~3주일 동안에 집단화하려고 시도하던 《좌익》분자들의 일부가 오늘에 와서는 소극적으로 되여 맥을 버리고 태연하게 투쟁무대를 우익분자들에게 내여주고 그리하여 부농앞에서 진짜퇴각(인용부없는!)의 로선을 취하고있는 특수한 현상도 역시 이것으로써 설명하여야 한다.

현시기의 특징은 《좌익적》편향자들의 오유와의 투쟁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익기회주의와의 성과적인 투쟁의 조건으로 되며 또 이 투쟁의 특수적형태라는데 있다.

여섯째 문제: 농민의 일부가 집단농장으로부터 탈퇴하는것을 어떻게 평가할것인가?

대답: 농민의 일부가 탈퇴하는것은 최근에 약간의 견고하지 못한 집단농장이 우리에게 생겼으며 그 집단농장들에서 지금 견실하지 못한 분자들이 탈퇴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유명무실한 집단농장들은 없어지고 견고한 집단농장들은 남아서 더욱 튼튼하게 되리라는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동지들은 이것으로 하여 비관실망하고 당황해하면서 한사코 집단화의 과장된 퍼센트에 메달리고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잘코사니야 하면서 집단농장운동의 《실패》를 예언하고있다. 그러나 량자가 다 아주 잘못 생각하고있다. 량자는 모두 집단농장운동의 본질에 대한 맑스주의적리해와는 멀리 떨어져있다.

집단농장으로부터 탈퇴하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소위 죽

은 넋52들이다. 이것은 지어 탈퇴인것이 아니라 원래 빈터였다는것을 폭로하는것이다. 우리에게 죽은 넋들이 요구되는가? 물론 요구되지 않는다. 나는 북깝까즈동지들과 우크라이나동지들이 죽은 넋을 가지고있는 집단농장들을 해산하여버리고 참으로 생명이 있고 참으로 견고한 집단농장들을 조직하고있는것은 아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집단농장운동에 리득을 줄뿐이다.

둘째로 탈퇴하고있는것은 우리의 일을 아주 적대시하고있는 이색분자들이다. 이런 분자들을 속히 쫓아내면 낼수록 집단농장운동에 더 유리할것은 명백하다.

마지막으로 탈퇴하고있는것은 이색분자라거나 죽은 넋이라고는 할수 없는 동요분자들이다. 이들은 우리가 오늘에는 아직 우리 사업의 정당성을 믿도록 설복하지 못하고있으나 래일에는 틀림없이 설복하게 될 그런 농민들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탈퇴는 비록 일시적이나마 집단농장운동의 중대한 손실이다. 그렇기때문에 집단농장내의 동요분자들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지금 집단농장운동의 가장 절박한 과업중의 하나인것이다.

그러므로 농민의 일부가 집단농장으로부터 탈퇴하는것은 단지 부정적현상으로만 되는것은 아니다. 또 이 탈퇴가 집단농장으로부터 죽은 넋과 진짜이색분자들을 내보내고있는것만큼 그것은 집단농장들을 건전하게 하며 튼튼하게 하는 유익한 행정이라는것을 의미한다.

한달전에 사람들은 곡물생산지대의 60%이상이 집단화되였다고 인정하였다. 만일 진정한 그리고 비교적 견고한 집단농장들을 두고 말하는것이라면 지금에 와서는 이 수자가 틀림없이 과장된것이였다는것이 명백하다. 만일 농민의 일부가 집단농장으로부터 탈퇴한 뒤에 곡물생산지대의 집단화가 40%라

는 수자를 보장할수 있다면—이것은 꼭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현시기에서의 집단농장운동의 최대의 성과일것이다. 나는 우리의 개별적인 어떤 전면적집단화구역에서의 집단화가 이미 80% 내지 90%에 달하고있다는것을 잘 알면서도 이 경우에 곡물생산지대에 대한 평균수자를 취하고있는것이다. 곡물생산지대에서의 40%의 집단화라는것은 우리가 집단화의 최초의 5개년계획을 1930년 봄에 와서 2배나 수행해냈다는것을 의미한다.

누가 쏘련의 사회주의적발전에서의 이 력사적성과의 결정적의의를 감히 부인하겠는가?

일곱째 문제: 동요하는 농민들이 집단농장으로부터 탈퇴하는것은 옳게 행동하는것인가?

대답: 아니다, 그들의 행동은 옳지 않다. 그들은 집단농장으로부터 탈퇴함으로써 자신의 절실한 리익을 배반하고있다. 왜냐 하면 집단농장만이 농민들에게 빈궁과 우매로부터 벗어져나올 길을 열어주기때문이다. 그들은 집단농장으로부터 탈퇴함으로써 자기를 더 나쁜 형편에 처하게 하고있다. 왜냐 하면 그들은 쏘베트정권이 집단농장에 주는 여러가지 특전과 리득을 받지 못하게 되기때문이다. 집단농장에서 보게 되는 오유나 외곡은 탈퇴의 리유로는 되지 않는다. 오유는 집단농장에 그냥 남아있으면서 공동의 힘으로써 시정해야 한다. 쏘베트정권이 모든 힘을 다하여 그러한 오유와 투쟁할것이기때문에 그것은 더욱 용이하게 시정될것이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상품생산하에서의 소규모적경영제도는 대중의 빈궁과 그들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낼수 없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0권, 122페지)①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50페지를 보라.—편집자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소농경영으로써는 빈궁으로부터 빠져나올수 없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540페지)①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옛날대로 소규모적경영에 매달려있게 된다면 비록 우리가 자유스러운 토지우에 있는 자유로운 공민이라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멸을 면치못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0권, 417페지)②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다만 공동적, 로동조합적, 공동경작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제국주의전쟁이 우리를 몰아넣은 그 막다른골목으로부터 빠져나올수 있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537페지)③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대규모적인 모범적농장에서의 공동경작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로씨야가 지금 처하고있는 경제적파멸에서, 또 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빠져나올수 없기》때문이다. (《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0권, 418페지)④

이 모든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집단농장이야말로 농민들을 곤궁과 우매로부터 벗어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농민들이 집단농장으로부터 탈퇴하는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것은 명백하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0권, 126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제24권, 463페지—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제30권, 123페지—편집자
④ 《레닌전집》, 한문판, 제24권, 464페지를 보라.—편집자

《당신들은 모두 쏘베트정권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농업꼼뮨, 로동조합 그리고 개인적인 소농경제를 공동적, 조합적 또는 로동조합적 경제로 전화시킬수 있는 모든 조직, 또한 이러한 전화를 점차 촉진시킬수 있는 모든 조직에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가를 물론 알고있을것이다.》① (《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579페지)②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쏘베트정권은…꼼뮨과 조합에 직접적우선권을 주어 그것들을 첫 자리에 내세웠다.》① (《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399페지)③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쏘베트정권이 개인농경영에서는 향수할수 없는 특전과 우선권을 집단농장에 주리라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쏘베트정권이 토지를 분여하는 면에서나 기계, 뜨락또르, 종자 등등을 공급하는 면에서나 세금부과를 경감하는 면에서나 대부금을 주는 면에서나 집단농장에 특전을 주리라는것을 의미한다.

왜 쏘베트정권은 집단농장에 특전과 우선권을 주는가?

그것은 집단농장이야말로 농민을 빈궁으로부터 벗어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때문이다.

그것은 집단농장에 대한 우선적원조야말로 빈농 및 중농에게 주는 원조의 가장 유효한 형태이기때문이다.

며칠전에 쏘베트정권은 집단농장의 공유화된 모든 역축(말, 황소 및 기타)과 그리고 집단농장의 집단적소유이거나 농장원들의 개인적소유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젖소, 돼지, 양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06페지를 보라.—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제3권, 694페지—편집자

및 가금에 대하여 **두해동안** 세금부과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밖에 쏘베트정권은 농장원들에게 준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년말까지 **연기할것**과 집단농장에 가입한 농민들에게 4월 1일이전에 부과한 모든 벌금 및 법률적처벌을 **취소할것**을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쏘베트정권은 금년에 집단농장에 5억루블의 금액을 꼭 대부하여주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특전은 집단농장농민들에 대한 원조로 될것이다. 이러한 특전은 탈퇴하지 않고 집단농장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서 집단농장의 적들과의 투쟁속에서 단련되였으며 집단농장을 고수하였으며 집단농장운동의 위대한 기발을 고수한 집단농장농민들에게 주는 원조일것이다. 이러한 특전은 현재 우리 집단농장의 기본적핵심이며 앞으로는 우리 집단농장을 공고화하며 또 이를 잘 꾸림으로써 수백만의 농민을 사회주의의 편으로 전취하여들일 빈농 및 중농인 농장원들에게 주는 원조일것이다. 이러한 특전은 현재 집단농장의 기본적골간이며 집단농장운동의 영웅들이라고 부를만한 집단적농민들에게 주는 원조일것이다.

집단농장으로부터 탈퇴한 농민들은 이러한 특전을 **받지 못할것이다.**

농민들이 집단농장으로부터 탈퇴하는것은 잘못 행동하고 있는것이라는것은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집단농장으로 돌아옴으로써만 그들이 이러한 특전을 받을 수 있다는것은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여덟째 문제: 꼼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들을 해산해야 할것인가?

대답: 아니다, 그것들을 해산해서는 안되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나는 지상의 꼼뮨에 대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꼼뮨에 대하여 말하는것이다. 쏘련의 곡물생산지대에는 장려하고 지지하여줄만한 훌륭한 꼼뮨들이 많다. 나는 여러해동안의 시련을 겪어내였으며 투쟁속에서 단련되여 자기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증명한 오랜 꼼뮨들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이러한 것은 해산할것이 아니라 로동조합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

꼼뮨을 조직하고 운영하는것은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대규모적이며 견고한 꼼뮨들은 오직 경험있는 간부들과 시련을 겪은 지도자들이 있는 경우에만 존재할수 있으며 발전할수 있다. 로동조합규약으로부터 꼼뮨규약으로 총망히 이행하는것은 다만 농민들을 집단농장운동으로부터 떼여버릴뿐이다. 그렇기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특히 신중해야 한다. 로동조합은 보다 꾸리기 쉬우며 광범한 농민대중이 보다 리해하기 쉬운것이다. 그러므로 로동조합은 현시기에 있어서의 집단농장운동의 가장 보급된 형태인것이다. 농업로동조합이 강화되고 튼튼하게 되는데 따라서만 비로소 꼼뮨의 편으로 넘어가는 농민의 대중적운동의 조건아 형성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속히는 되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최고형태인 꼼뮨은 오직 장래에 가서만 집단농장운동의 주되는 고리로 될수 있는것이다.

아홉째 문제: 부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대답: 지금까지 우리는 중농에 대하여 말하였다. 중농은 로동계급의 동맹자이므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우호적인것이여야 한다. 부농의 경우는 이것과 다르다. 부농은 쏘베트정권의 적이다. 우리와 그들과의 사이에는 평화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부농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계급으로서의 그들을 청산하는 정책이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일거에 그들을 청산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가 그들을 포위하고 청산하기 위하여 대책을 대리라는것을 의미한다.

부농에 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농은 가장 야수적이고 가장 란포하며 가장 야만적인 착취자로서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력사상에서 지주, 황제, 승려, 자본가들의 정권을 수차 복구한 일이 있다. 부농은 지주나 자본가들에 비하여 수가 많다. 그렇지만 부농은 인민들중에서 소수이다.… 이 흡혈귀들은 전쟁시에 인민의 궁핍을 리용하여 부유해졌다. 그들은 곡물 및 기타 식료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수백수천만의 돈을 모았다. 이 거미들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령락된 농민을 희생으로 하여, 굶주리는 로동자를 희생으로 하여 살쪘다. 이 흡혈귀들은 근로자들의 피를 빨아먹었으며 도시와 공장의 로동자가 굶주리면 굶주릴수록 더욱더 부유해졌다. 이 악마들은 지주들의 토지를 탈취하여왔고 지금도 탈취하고있으며 빈농을 또다시 노예화하고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206～207페지)①

우리는 이 흡혈귀들, 거미들, 악마들의 착취적경향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참아왔다. 우리가 참아온것은 당시 부농적경영과 부농적생산을 대체할것이 없었기때문이다. 지금은 우리는 우리의 집단농장 및 국영농장의 경영으로써 그들의 경영을 넉넉히 대체할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이제는 이 거미들, 흡혈귀들의 존재를 더 참을 필요가 없다. 집단농장들에 불을 지르며 집단농장활동가들을 살해하며 파종을 해하려고 시도하고있는 이 거미들, 흡혈귀들의 존재를 이이상 더 참는다는것은 로동자 및 농민들의 리익을 배반하는 것으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계급으로서의 부농을 청산하는 정책은 볼쉐위크들만이 가질수 있는 그런 완강성과 철저성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584페지를 보라.—편집자

열째 문제: 집단농장의 당면한 실천적과업은 무엇인가?

대답: 집단농장의 당면한 실천적과업은 파종을 위한 투쟁, 파종면적을 최대한으로 확장하기 위한 투쟁, 파종을 옳게 조직하기 위한 투쟁이다.

지금 집단농장의 다른 모든 과업은 파종의 과업에 적응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집단농장에서의 기타 모든 사업은 파종을 조직하는데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집단농장과 집단농장 비당원열성자들의 견실성, 집단농장의 지도자 및 그 볼쉐위크적핵심의 능력이 평장한 결정이나 과장적축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파종을 옳게 조직하는 실제사업에 의해서 검열되리라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실제적과업을 훌륭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단농장일군들의 주의력을 집단농장건설의 **경제문제**, **집단농장내부건설문제**에 돌리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최근까지도 집단농장일군들의 주의력의 중심은 집단화의 높은 수자를 추구하는데 있었으며 또 사람들은 진정한 집단화와 지상의 집단화의 차이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는 수자에 대한 이러한 열중은 버려야 한다. 이제는 사업일군들의 주의력은 집단농장을 **공고히** 하며 집단농장을 조직적으로 **정비하며** 집단농장들에서의 실제적사업을 **조직하는**데 집중되여야 할것이다.

최근까지도 집단농장일군들의 주의력은 대규모적집단농장들, 소위 《대형농장》을 조직하는데 집중되여있었는바 그러한 《대형농장》은 흔히 농촌에서 경제적지반이 없는 거대한 지상기관으로 변하였다. 그리하여 걸치레의 사업이 실제적사업을 삼켜버렸다. 이제는 걸치레에 대한 이러한 열중은 버려야 할것이다. 이제는 사업일군들의 주의력은 농촌에서의 집단농장

의 조직적 및 경제적 사업에 돌려져야 할것이다. 이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보게 되는 때면 《대형농장》은 자연히 나타날것이다.

최근까지도 중농들을 집단농장의 지도사업에 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력이 아주 적게 돌려졌었다. 그런데 중농가운데는 집단농장건설의 훌륭한 관리일군으로 될수 있는 우수한 경영자들이 있다. 이제는 우리 사업에 있는 이 결함을 청산하여야 한다. 지금의 과업은 중농가운데서 우수한 사람들을 집단농장의 지도적사업에 끌어들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최근까지도 농촌녀성가운데서의 사업에 충분한 주의가 돌려지지 않았다. 지나간 시기는 농촌녀성가운데서의 사업이 우리 사업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이 결함을 결정적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최근까지도 일부 지방의 공산당원들은 자기들자신의 힘으로써 집단농장건설의 모든 과업을 해결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비당원들을 집단농장의 책임적사업에 인입하며 비당원들을 집단농장의 지도적사업에 등용하며 집단농장내에서 광범한 비당원열성자들을 조직하는데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우리 당의 력사는 이러한 견해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는것을 증명하였으며 또 집단농장건설의 지나간 시기는 그것을 다시한번 증시하였다. 만일 공산당원들이 비당원들과의 사이에 장벽을 쌓아놓고 자기의 갑속에 들어박혀있었더라면 그들은 모든 사업을 망쳐버렸을것이다. 공산당원들이 사회주의실현을 위한 전투에서 승리의 영광을 얻고 공산주의의 적들이 박멸될수 있은것은 무엇보다도 공산당원들이 비당원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사업에 인입할줄 알았으며 그들이 광범한 비당원측으로부터 힘을 섭취할줄 알

았으며 그들이 자기 당의 주위에 광범한 비당원열성자들을 묶어세울줄 알았기때문이다. 이제는 비당원들에 대한 우리 사업의 이 결함을 결정적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우리 사업에서의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며 그것을 근절하는것—이것은 곧 집단농장의 경제적사업을 제 궤도에 올려세우는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1) 파종을 옳게 조직하는것—이것이 곧 파업이다.

(2) 집단농장운동의 경제적문제에 주의력을 집중하는것—이것이 곧 그 파업의 해결에 필요한 수단이다.

1930년 4월 3일부 《쁘라우다》제92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2권, 177~200페지

서명: 이.쓰딸린

경제일군들의 임무에 관하여

(1931년 2월 4일 제1차전련맹
사회주의공업일군대표자회의53에서 한 연설)

동지들! 이 대표자회의의 사업은 이제 곧 끝나게 된다. 이제 여러분은 결정서들을 채택하게 될것이다. 나는 그 결정서들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결정서들에서(나는 그 결정서들을 약간은 알고있다.) 여러분은 1931년도의 공업통제수자를 찬성하며 또 그 수자들을 수행할 의무를 지게 될것이다.

볼쉐위크의 말은 신중한 말이다. 볼쉐위크들은 자기들의 약속을 언제나 지켜왔다. 그런데 1931년도의 통제수자들을 수행할 의무를 진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공업총생산액을 45% 증가시키는것을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단히 큰 임무이다. 그뿐만 아니다. 이와 같은 의무를 진다는것은 여러분이 비단 우리의 5개년계획을 4개년에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는것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이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여서 이에 관해서는 어떠한 결정서도 이이상 더 필요없다.) 그것은 여러분이 공업의 기본적인 결정적부문들에서 5개년계획을 3개년에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대표자회의가 1931년도의 계획을 수행하며 5개년계획을 3개년에 수행하겠다고 약속하는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

에게는 《쓰라린 경험》이 있다. 우리는 약속이 언제나 다 실행되는것은 아님을 알고있다. 1930년초에도 역시 이 년도의 계획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던것이다. 그때에는 우리 공업생산액을 31~32% 증가시켜야 하였다. 그러나 약속은 완전히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사실상 1930년도의 공업생산액은 25% 밖에 증가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금년에도 되풀이되지 않겠는가고 물어야 하겠다. 지금 우리 공업의 지도자들, 일군들은 1931년도에 공업생산액을 45% 증가시키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러나 이 약속이 실행되리라는 어떠한 담보가 있는가?

통제수자를 수행하고 생산액을 45% 증가시키고 5개년계획을 4개년이 아니라 기본적인 결정적부문들에서 3개년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기본조건이 요구된다.

첫째로는 이를 위한 현실적인 또는 우리들이 늘 말하는 《객관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이 가능성이 실현되도록 우리의 기업소들을 지도하려는 의욕과 그러한 수완이 있어야 한다.

작년에 우리에게는 계획을 전부 완수할만한 《객관적》가능성이 있었는가? 그렇다, 있었다. 론쟁할 여지 없는 사실들이 이것을 증명하고있다. 이 사실들이라는것은 작년 3월과 4월의 공업생산액이 재작년에 비하여 31% 증가되였다는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때문에 전년계획을 완수하지 못하였는가? 무엇이 방해하였는가? 무엇이 부족하였는가? 현존하는 가능성을 리용하는 수완이 부족하였다. 공장과 광산물 옳게 지도하는 수완이 부족하였다.

우리는 첫째 조건 즉 계획을 완수할만한 《객관적》가능성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조건 즉 생산을 지도할

수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였다. 바로 기업소들을 지도할 수완이 부족하였기때문에, 바로 이때문에 계획은 결국 완수되지 못하였다. 31~32% 대신에 우리는 다만 25%를 증가시켰을뿐이였다.

물론 25% 증가시킨것도 대단한 일이다. 어느 자본주의국가든지를 물론하고 1930년에는 생산액을 증가시키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증가시키지 못하고있다. 어느 자본주의국가도 례외없이 생산이 다 급격히 저하되고있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25% 증가시켰다는것은 큰 전진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더 많이 증가시킬수 있었다. 우리는 이에 필요한 모든 《객관적》조건들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이외의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며 계획이 완전히 완수되며 우리가 현존하는 가능성을 충분히 리용하며 여러분의 약속이 얼마만이라도 지상공문으로 되지 않으리라는 어떠한 담보가 있는가?

여러 나라들의 력사, 군대들의 력사에는 성공하고 승리할만한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지도자들이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리용할줄 몰랐기때문에 그 가능성은 쓸데없는것으로 되고 군대가 패배당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우리에게는 1931년도의 통제수자들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란 어떠한것이며 그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되게 하자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우선 충분한 국내의 자연부원 즉 광석, 석탄, 석유, 곡물, 면화가 요구된다. 우리 나라에는 그런것들이 있는가? 있다. 그뿐만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다. 어떠한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그런 부원의 종합체를 이루고있는 우랄

을 례로 들어보자. 광석, 석탄, 석유, 곡물—우랄에는 무엇이나 없는것이 없다! 우리 나라에는 생고무이외에는 무엇이나 다 있다. 그러나 생고무도 1~2년후이면 우리에게 있게 될것이다. 이 면에서 본다면 즉 자연부원의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완전히 보장되여있다. 우리 나라에는 그런것들이 오히려 필요이상으로 있다.

무엇이 또 요구되는가?

이 거대한 자연부원을 인민에게 유리하게 리용하게 하려는 의욕과 힘을 가지고있는 그러한 정권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정권이 있는가? 있다. 사실 자연부원을 리용하는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일군들 호상간의 의견충돌이 없이 언제나 진행되는것은 아니다. 례를 들면 작년에 쏘베트정권은 우리가 계속 발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제2석탄-야금기지를 창설하는 문제에서 약간의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장애를 극복하였다. 우리에게는 오래지 않아 이 기지가 있게 될것이다.

무엇이 또 요구되는가?

이 정권이 수천만 로동자 및 농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것이 또 요구된다. 우리의 정권이 그와 같은 지지를 받고있는가? 그렇다, 받고있다. 여러분은 쏘베트정권처럼 로동자와 농민의 지지를 받는 정권을 세계 이느곳에서도 더는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나는 사회주의적경쟁이 성장하는 사실, 돌격대운동이 장성하는 사실, 호응산업재정계획을 위한 투쟁운동 등은 지적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쏘베트정권에 대한 수천만 대중의 지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는 이 모든 사실들은 다 아는바이다.

1931년도의 통제수자들을 완수하며 또 초과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

자본주의의 불치의 병에 걸리지 않으며 자본주의보다 훨씬 우월한 그런 제도가 또한 필요하다. 공황, 실업, 랑비, 광범한 대중의 빈궁—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불치의 병이다. 우리의 제도는 이러한 병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고있다. 그것은 정권이 우리의 수중 즉 로동계급의 수중에 있기때문이며 그것은 우리가 계획경제를 실시하며 계획적으로 자원을 축적하며 또 그 자원을 인민경제의 각 부문에 합리하게 분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불치의 병에는 걸리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가 자본주의와 다른 점이 있으며 여기에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의 결정적우월성이 있다.

자본가들이 어떻게 공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가를 보라. 그들은 로동자들의 임금을 최대한도로 낮춘다. 그들은 원료의 가격을 최대한도로 낮춘다. 그러나 그들은 일용공업품과 식료품의 가격은 얼마만이라도 실질적으로 낮추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상품의 주요소비자들을 희생시키며 로동자들을 희생시키며 농민들을 희생시키며 근로자들을 희생시켜 공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시반을 헐어내고있는것이다. 그 결과 공황으로부터 벗어날 대신에 그 공황을 더 심하게 하며 새로운 보다 더 격렬한 공황을 초래하는 새 전제조건들을 조성한다.

우리의 우월성은, 우리에게는 생산과잉의 공황이 없으며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없으며 또 있을수 없으며 생산의 무정부상태가 없다는데 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경제를 실시하고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는 공업이 가장 집중된 나라이다. 이것은 우리는 가장 훌륭한 기술의 토대우에서 우리의 공업을 건설할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미증유의 로동생산능률과 미증유의 축적의 속도를 담보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지난날의 우리의 약점은 이 공업이 분산된 소농경

영을 토대로 참고있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일이다.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벌써 없어졌다. 앞으로 아마 1년후이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적인 농업을 가진 국가로 될것이다.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은(이것은 대규모적경영형태이다.) 벌써 금년에 우리의 상품곡물총생산량의 절반을 내였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제도, 즉 쏘베트제도가 어떠한 자산계급국가도 몽상할수 없는 그런 급속한 전진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일사천리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요구되는가?

로동계급의 모든 우수한 사람들의 노력을 한목표에 집중시킬수 있는 충분히 단결되고 통일된 당, 난관앞에서 겁을 먹지 않고 옳바른 혁명적볼쉐위크적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충분히 세련된 당이 요구된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당이 있는가? 그렇다, 있다. 이 당의 정책은 옳은가? 그렇다, 옳다. 그것은 그 정책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 지금에 와서 다만 로동계급의 벗들뿐만아니라 그 적들까지도 인정하고있는바이다. 누구나 다 아는 《존경할만한》 신사들인 미국의 피쉬,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뿌엥까레 등이 우리 당을 반대하여 어떻게 고함치며 미쳐날뛰고있는가를 보라. 어째서 그들은 고함을 치며 미쳐날뛰고있는가? 그것은 우리 당의 정책이 옳기때문이며 그 정책이 계속 성공하고있기때문이다.

동지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1931년도의 통제수자를 쉽게 수행하며 5개년계획을 4개년에, 그리고 결정적부문들에서는 지어 3개년에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객관적가능성이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첫째 조건 즉 《객관적》가능성이 있는것이다.

둘째 조건 즉 이 가능성을 리용할 수완이 우리에게 있는

가?

다시말하면 우리는 공장, 광산을 경제적으로 옳게 지도하고있는가? 여기에서는 모든것이 다 잘되여가고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여기에서는 모든 일이 다 잘되여가고있는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쉐위크로서 이것을 솔직하게 또 공공연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을 지도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일부 사람들은 기업소의 지도문제를 늘 볼쉐위크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일부 사람들은 흔히 지도한다는것을 문서거나 명령서에 서명하는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슴아픈 일이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쉐드린의 소설에 나오는 뽕빠두르54일가가 자연히 회상될 때가 있다. 뽕빠두르부인이 그 아들에게 과학에 머리를 쓰지 말고 사물을 깊이 파고들지 말라,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맡겨두라, 그것은 네가 할일이 아니다, 네가 할일은 문서에 서명하는것이다라고 가르치던것을 기억할것이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볼쉐위크들가운데에도 문서에 서명하는것으로써 지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일을 깊이 연구하며 기술을 습득하며 일의 주인이 되는것—이러한 점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세차례의 혁명을 수행하였으며 가멸한 국내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현대공업건설의 거대한 과업을 해결하였으며 농민을 사회주의의 길로 인도한 우리 볼쉐위크들이 생산지도에서 종이장에 굴복한다는것이 있을수 있는 일인가?

이 원인은 문서에 서명하는것이 생산을 지도하는것보다 쉽다는데 있다. 그리하여 많은 경제일군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일하였다. 10년전에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내놓았었다. 즉 《공산당원들은 아직 생산기술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있으며 그

들은 아직 경제관리를 배워야 하기때문에 낡은 기수, 기사, 전문가들이 생산을 지도하게 하고 공산당원들은 기술사업에 간섭하지 말라. 그러나 간섭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충실한 전문가들과 함께 진정한 생산의 지도자, 사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 쉬임없이 기술을 연구하며 생산을 관리하는 과학을 연구하라.» 구호는 이러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였는가? 이 정식화의 둘째 부분은 포기되였다. 그것은 배우는것이 문서에 서명하는것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섭하지 말라는것을 생산기술의 연구를 거부하는것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비속화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헛된 일로, 해롭고도 위험한 헛된 일로 되고말았다. 여기서 속히 벗어날수록 좋다.

어 일이 잘되고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실생활이 우리에게 여러번 경고를 주었다. 샤흐띄사건[2]은 첫번째의 엄중경고였다. 샤흐띄사건은 당조직과 직업동맹에 혁명적경각성이 부족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 사건은 우리의 경제일군들이 기술면에서 말할수없이 락후하며 일부 낡은 기사와 기수들은 통제를 받지 않고 일하고있기때문에 해독행위의 길로 더 쉽게 전락하고있으며 더구나 그들은 국외의 적들의 여러가지 《제안》에 부단히 시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두번째 경고는 《공업당》의 재판[55]이다.

물론 해독행위의 기초로 되는것은 계급투쟁이다. 물론 계급적적들은 사회주의의 공세에 미친듯이 반항하고있다. 그러나 이 한가지만으로는 해독행위가 이와 같이 창궐하게 성행하는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어찌하여 해독행위가 이처럼 광범하게 성행할수 있었는가?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만일 우리가 경제지도사업을 달리 내세웠더라면, 만일 우리가 일찌기

실무를 연구하고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하였더라면, 만일 우리가 경제지도에 더 차추 그리고 총명하게 간섭하였더라면 해독분자들은 그렇게 많은 해독을 끼치지는 못하였을것이다.

우리들자신이 전문가로 되고 일의 주인으로 되며 기술지식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실생활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첫번째 경고도 지어 두번째 경고까지도 필요한 전환을 아직 보장해주지 못하였다. 때는 왔다. 기술에 주의를 돌릴 때가 온지는 오래다. 기술에 간섭하지 말라는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호를 내버리고 자신이 전문가로 되며 자기 사업에 정통한 사람으로 되며 자신이 경제사업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여야 할 때는 왔다.

무엇때문에 우리에게는 일장제가 없느냐고 혼히들 묻는다. 우리가 기술을 습득하기전까지는 그것이 없으며 또 없을것이다. 기술, 경제 및 재정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볼쉐위크들중에 충분히 많아지기전에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일장제가 없을것이다. 결정서를 쓰고싶은대로 얼마든지 쓰며 어떠한 말로써라도 맹세를 한다 한들 공장, 탄광의 기술, 경제, 재정을 습득하지 못하고서는 아무 소용도 없을것이며 일장제도 있을수 없을것이다.

따라서 과업은 우리자신이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이 일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는것이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의 계획의 완전한 완수와 일장제의 실시가 보장될수 있다.

이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완전히 할수 있는 일이다. 과학, 기술, 경험, 지식 이 모든것은 얻을수 있는것이다. 이러한것들이 오늘은 없다가도 래일은 있을수 있는것이다. 여기에서 주요한것은 기술을 습득하고 생산과학을 습득하려는 불타는 볼쉐위크적의욕을 가지는것이다. 불타는 의욕만 있으면 모든것을 달성할수 있으며 모든것을 극복할수 있

다.

속도를 얼마쯤 늦추며 전진을 억제할수 없느냐고 때때로 질문한다. 안된다, 동지들, 그렇게 할수는 없다! 속도를 늦춰서도 안된다! 반대로 힘과 가능성이 있는대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 쏘련의 로동자와 농민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이와 같이 할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있다. 전 세계의 로동계급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이와 같이 할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있다.

속도를 늦춘다는것—이것은 뒤떨어진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뒤떨어진자들은 뚜드려맞는다. 그러나 우리는 뚜드려맞고싶지 않다. 그렇다, 뚜드려맞고싶지 않다! 구로씨야의 력사는 그가 뒤떨어졌기때문에 계속 뚜드려맞은 기록이였다. 몽골의 칸에게 뚜드려맞았다. 토이기의 베크① 들에게 뚜드려맞았다. 스웨리예의 봉건령주들에게 뚜드려맞았다. 뽈스까와 리뜨와의 지주들에게 뚜드려맞았다. 영국과 프랑스 자본가들에게 뚜드려맞았다. 일본의 귀족들한테 뚜드려맞았다. 뒤떨어졌기때문에 모두가 뚜드리였다. 그것은 군사적으로 뒤떨어지고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고 국가제도가 뒤떨어지고 공업이 뒤떨어지고 농업이 뒤떨어졌기때문이다. 모두가 로씨야를 뚜드린것은 리익이 있었고 아무런 처벌도 없이 지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여러분은 혁명전의 한 시인의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할것이다. 《너 빈궁하고도 부요하여라. 너 강하고도 무력하여라, 어머니로씨야여!》② 이 신사들은 옛시인의 이 말을 잘 기억하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은 뚜드리면서 《너는 부요하다》, 그러니까 너의 등을 쳐먹을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뚜드리면서

---

① 남깝까즈, 중앙아세아, 토이기 등지의 왕후, 귀족 등 상층인사를 높여서 이르는 말이다.—편집자

② 엔.아.네크라쏘브의 시 《로씨야에서 유쾌하고 자유로운자 그 누구냐》에서 인용.—편집자

《너는 빈궁하고 무력하다》, 그러니까 너를 뚜드려도 략탈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뒤떨어진자들과 약한자들을 뚜드리는것—이것이 곧 착취자들의 법칙이며 자본주의의 숭냥이의 법칙인것이다. 너는 뒤떨어졌고 너는 약하니 너는 옳지 않다, 그러니 너를 뚜드리고 노예화할수 있다. 너는 강하다, 그러니 너는 옳다. 그러므로 너를 조심해야 한다는것이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우리는 더는 뒤떨어질수 없다.

과거에는 우리에게 조국이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를 전복하였으며 정권이 우리에게, 인민들에게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으며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고수할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뚜드려맞으며 또 우리의 조국이 독립을 상실하는것을 원하는가? 만일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최단기간에 우리 조국의 락후성을 청산하고 조국의 사회주의적경제건설사업에서 진정한 볼쉐위크적속도를 내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레닌은 10월혁명전야에 《죽느냐 그렇지 않으면 선진적인 자본주의나라들을 따라잡고 앞서느냐》①라고 말하였던것이다.

우리는 선진적나라들보다 50～100년이나 뒤떨어졌다. 우리는 이 거리를 10년동안에 달음질쳐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해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짓밟혀버리든가 둘중의 하나이다.

바로 로동자와 농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외에 또 보다 중대하고 보다 중요한 다른 의무가 있다. 그것은 전 세계 무산계급앞에 지닌 의무이다. 이 의무는 첫째번 의무와 합치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169페지를 참조하라.—편집지

이 의무를 더 높은 자리에 놓는다. 쏘련의 로동계급은 세계로동계급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쏘련의 로동계급의 노력으로써 뿐만아니라 또한 세계로동계급의 지지를 받았기때문에 승리하였다. 이와 같은 지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소멸되지 오랬을것이다. 우리 나라는 전 세계 무산계급의 돌격대라고 말들 한다. 이것은 잘한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의무를 지우는것이다. 무엇때문에 국제무산계급은 우리를 치치하고있으며 무엇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지지를 받게 되였는가? 그것은 우리가 자본주의와의 싸움에 맨먼저 뛰여들었으며 우리가 로동자의 정권을 맨먼저 수립하였으며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을 맨먼저 시작하였기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를 뒤집어엎고 전체 로동계급을 해방시키게 될 그런 위업을 우리가 수행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면 성공을 위하여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것은 우리 나라의 락후성을 청산하며 높은 볼쉐위크적건설속도를 내는것이다. 전 세계의 로동계급이 우리를 주시하면서—그야말로 우리의 선봉대이다, 그야말로 우리의 돌격대이다, 그야말로 우리의 로동자정권이다, 그야말로 우리의 조국이다, 그들은 자기의 위업 즉 **우리의** 위업을 훌륭히 하고있다, 우리는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그들을 지지하며 세계혁명의 위업을 확대발전시키자 하고 말하도록 우리는 전진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세계로동계급의 기대를 실현하며 그들앞에 지닌 우리의 의무를 실행하여야 할것인가? 그렇다, 만일 우리가 아주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것이 우리의 국내적 및 국제적 의무이다.

여러분이 보는바와 같이 이러한 의무는 우리에게 볼쉐위크적발전속도를 요구하고있는것이다.

경제지도면에서 우리가 이 몇해동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일을 하였으며 또 매우 많이 하였

다. 우리는 공업생산액을 전쟁전에 비하여 2배나 장성시켰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적인 농업생산을 창설하여놓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기간에 생산, 생산기술, 생산의 재정-경제적측면을 실제적으로 습득하기에 노력하였더라면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었을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선진자본주의국가들보다 뒤떨어져있는 그 거리를 최대한으로 10년동안에 달음질쳐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객관적》가능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있다. 다만 이 가능성을 진정으로 리용할 수완만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자신에게 달려있다. 오직 우리자신에게만 달려있는것이다! 우리가 이 가능성을 리용하는것을 배워야 할 때가 왔다. 생산에 간섭하지 않는 낡은 방침을 포기할 때가 왔다. 현시기에 적합한 다른 새 방침 즉 모든 일에 간섭하라는 방침을 장악할 때가 왔다. 만일 당신이 공장지배인이라면 모든 일에 간섭하여야 하며 모든것을 깊이 연구하며 무엇이건 등한시하지 말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볼쉐위크들은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볼쉐위크들자신이 전문가로 되여야 할 때가 왔다. 개조기에는 기술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기술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으며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지 않는 경제일군—이것은 웃음거리이지 경제일군은 아니다.

기술을 습득하는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들 한다. 옳지 않다! 볼쉐위크들이 점령할수 없는 요새는 없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과업을 많이 해결하였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전복하였다. 우리는 정권을 장악하였다. 우리는 가장 대규모적인 사회주의공업을 건설하였으며 중농을 사회주의길로 인도하였다. 우리는 건설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벌써 하여놓았다. 우리에게는 기술을 연구하고 과학을 습득하는 많지 않은 일이 남았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는 때에는 지금 우리가 꿈도 꿀수

없는 그러한 속도로써 우리 나라가 발전할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원한다면 이 일은 꼭 해낼것이다!

1931년 2월 5일부 《프라우다》 제35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3권, 29~40페지

새로운 환경과 경제건설의 새로운 과업

(1931년 6월 23일 경제일군회의56에서 한 연설)

동지들! 회의의 자료들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 공업부문의 계획수행정형은 매우 불일치하다. 지난 5개월동안에 작년보다 생산액이 40～50%나 장성된 공업부문들이 있는가 하면 20～30%밖에 장성되지 못한 공업부문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아주 적게 이를테면 6～10%나 또는 그이하밖에 장성되지 못한 개별적공업부문들도 있다. 이 마지막부류에는 석탄공업 및 강철공업이 포함된다. 보는바와 같이 정형은 불일치하다.

이런 같지 않은 정형을 무엇으로써 설명할것인가? 일부 공업부문들이 뒤떨어진 원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일부 공업부문들에서 겨우 20～25%밖에 장성되지 못하였으며 또 석탄공업과 강철공업에서는 그보다도 더 적게 장성되여 다른 부문들의 뒤꼬리를 따라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원인은 최근에 와서 공업발전의 조건들에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났고 새로운 지도방법들을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였으나 우리의 일부 경제일군들이 사업방법을 고칠 대신에 아직까지도 낡은 방식으로 사업하고있는데 있다. 다시말하면 문제는 공업발전의 새로운 조건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사

업하기를 요구하고있으나 우리의 일부 경제일군들은 이것을 리해하지 못하고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있는데 있다.

우리의 일부 공업부문들이 뒤떨어진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공업발전의 새로운 조건이란 무엇인가? 그것들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이 새로운 조건들은 적어도 여섯가지가 된다.

이제 이 조건들을 고찰하여보자.

1

로 동 력

무엇보다도먼저 문제로 되는것은 기업소들에 **로동력**을 보장하여줄데 관한것이다. 이전에는 로동자자신들이 공장으로 찾아가는것이 보통이였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연류동이 있었다. 그런데 이 자연류동은 그때 실업이 있었으며 농촌에 분화가 생기고 빈궁이 생기여 사람들을 농촌으로부터 도시에로 몰아내는 기아의 공포가 있기때문에 나타난것이였다. 《농촌으로부터 도시에로의 농민의 도주》라는 말을 기억하는가? 그때 무엇이 농민들을 농촌으로부터 도시에로 도주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기아의 공포와 실업이며 농촌은 농민에게는 계모였으므로 농민은 일자리만 얻을수 있다면 농촌으로부터 그 어디에라도 도주할 각오를 가지고있었다는 사정이다.

얼마전까지도 우리 나라의 사태는 바로 이러하였거나 또는 거의 이러하였다.

지금도 우리의 형편이 역시 그와 꼭같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은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바로 환경이 변화되였기때문에 우리 나라에는 이제는 로동력의 자연류동이 없게 되였다.

이 기간에 대체 무엇이 변화되였는가? 첫째로, 우리는 실업을 없애버렸으며 따라서 《로동시장》을 압박하는 힘을 없애버렸다. 둘째로, 우리는 농촌에서의 계급분화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렸으며 따라서 우리는 농민을 농촌으로부터 도시에로 몰아보내던 보편적인 빈궁을 소멸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수만대의 뜨락또르와 농업기계를 농촌에 공급하였고 부농을 격파하였고 집단농장을 조직하였으며 그리하여 농민들에게 사람답게 살며 일할 가능성을 지어주었다. 지금에 와서는 농촌을 농민의 계모라고 부를수는 없게 되였다. 그리고 바로 농촌을 더는 계모라고 부를수 없게 되였기때문에 농민은 농촌에 뿌리박고 살게 되였으며 따라서 우리 나라에는 《농촌으로부터 도시에로의 농민의 도주》도, 로동력의 자연류동도 이제는 없게 된것이다.

여러분이 보는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처하여있으며 또 기업에 로동력을 보장하여줄만한 새로운 조건들을 가지고있다.

이로부터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

이로부터 첫째로, 더는 로동력의 자연류동을 기대할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자연류동의 《정책》으로부터 공업을 위한 로동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정책에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서는 오직 하나의 방법 즉 경제조직이 집단농장 및 집단농장원들과 계약을 맺는 방법밖에 없는것이다. 여러분이 알고있는바와 같이 벌써 약간의 경제조직들과 집단농장들은 이 방법을 취하고있으며 또한 경험은 계약체결

방법은 집단농장을 위해서나 또는 공업기업소를 위해서나 다 대단한 성과를 내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로부터는 둘째로, 가장 어려운 로동행정을 즉시 **기계화**하며 이 사업(림산업, 건축업, 석탄공업, 적사작업, 운수업, 강철공업 등등)을 대폭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물론 수공로동을 내버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수공로동은 생산에서 아직도 오래동안 매우 큰 역할을 놀게 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로동행정의 기계화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새롭고 결정적인** 힘이며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발전속도도, 생산의 새로운 규모도 유지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우리에게는 기계화도 집단농장과의 계약체결도 《믿지 않는》 경제일군들이 아직도 적지 않게 있다. 이것은 새 환경을 리해하지 못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치 않으며 로동력이 기업에 《스스로 찾아오던》 《옛날의 황금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런 경제일군들인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일군들이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제기하고있는 경제건설의 새로운 과업과는 멀리 떨어져있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들은 분명히 로동력곤난은 우연한 현상이며 로동력의 부족은 말하자면 자연류동의 방법으로 스스로 없어질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것이다. 동지들, 이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로동력곤난은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 곤난은 오직 우리자체의 노력에 의해서만 없어질수 있는것이다.

이리하여 집단농장과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써 로동력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며 로동을 기계화하는것—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업이다.

우리의 공업발전을 위한 첫째의 새로운 조건은 이러하다.

이제 둘째 조건에 대하여 말하여보자.

2
로동자의 로임

나는 방금 우리의 기업소들을 위하여 로동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로동자들을 모집한다는것은 아직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기업소들에 로동력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서는 로동자들을 생산에 고정시키며 또 기업소들의 로동인원을 다소간이라도 고정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생산기술을 다소간이라도 습득하였고 또 새로운 기계에 익숙한, 고정로동인원이 없이는 전진할수도 생산계획을 완수할수도 없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거의 없을것이다. 그러한 고정로동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로동자들을 매번 새로 배워주어야 하며 절반의 시간을 생산에 리용할 대신에 로동자들의 교육에 허비하게 될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소들의 로동인원이 다소간이라도 고정되였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말할수 없다. 반대로 우리 나라의 기업소들에는 아직도 소위 로동력의 류동이 있다. 뿐만아니라 여러 기업소들에서는 로동력의 류동이 없어지기는 고사하고 도리여 자라나며 심해가고 있다. 여하간 여러분은 로동인원이 반년 혹은 지어 3개월동안에 30～40%밖에 변동되지 않는 그런 기업소들을 찾아내기 어려울것이다.

이전, 즉 우리 나라의 기술적장비가 복잡하지 않았고 생산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공업부흥기에는 이른바 로동력의 류동을 어떻게든지 《참아》갈수 있었던것이다. 지금은 사태가 다르다. 지금은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지금 생산의 규

모가 팽창히 커졌고 기술적장비가 극히 복잡하여진 대규모적인 재건기에 있어서는 로동력의 류동은 우리의 기업소들을 문란케 하는 생산의 재화로 변하였다. 지금 로동력의 류동을《묵과한다는것》은 우리의 공업을 와해시키며 생산계획완수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며 제품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을 파괴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력의 류동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불합리한 로임제도에, 불합리한 로임등급제에, 로임면에서의《좌익적》평균주의에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여러 기업소들에서는 로임률이 숙련로동과 미숙련로동과의 사이, 중로동과 경로동과의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게끔 제정되여있다. 로임면에서의 평균주의로 하여 미숙련로동자는 숙련로동자로 되는데 흥미를 가지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전망을 잃게 된다. 그때문에 미숙련로동자는 조금《벌어가지고》《행복을 찾아서》 어디론가 다른데로 가기 위하여 오직 림시로 일하는 공장에서의《림시과객》이라고 느끼게 된다. 임금면에서의 평균주의는 숙련로동자로 하여금 숙련로동을 제대로 평가하여주는 기업소를 찾아낼 때까지 이 기업소에서 저 기업소로 떠돌아다니지 않을수 없게 한다.

여기로부터 이 기업소에서 저 기업소에로의《전반적》이동, 로동력의 류동이 생기는것이다.

이 폐단을 없애버리기 위하여서는 평균주의를 폐지하고 낡은 로임등급제를 타파하여야 한다. 이 폐단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숙련로동과 미숙련로동과의 사이, 중로동과 경로동과의 사이의 차이에 주의를 돌리면서 로임등급제를 제정하여야 한다. 강철공업에서의 운반공이 소제부와 같은 액수의 로임을 받는 사실은 용인할수 없는 일이다. 철도운수업에서의 기관수가 필기원과 같은 액수의 임금을 받는 사실은 용인할수

없는 일이다. 맑스와 레닌은 숙련로동과 미숙련로동사이의 차이는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을 소멸한후에도 존재할것이며 다만 공산주의하에서만 이 차이가 없어질것이다, 그러므로 《로임》은 사회주의하에서라 할지라도 수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로동에 따라서 지불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일군과 직업동맹일군중의 평균주의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또 이 차이는 우리의 쏘베트제도하에서는 벌써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대체 누가 옳은가, 맑스와 레닌이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 평균주의자들이 옳은가? 맑스와 레닌이 이 점에 있어서 옳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여기로부터 숙련로동과 미숙련로동과의 차이를 념두에 두지 않고 평균주의적《원칙》에 의하여 로임등급제를 제정하는자는 맑스주의와 결별하는자이며 레닌주의와 결별하는자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공업의 각 부문, 각 기업소, 각 직장에는 모두 비교적 숙련된 골간로동자들이 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기업소에서 고정된 로동인원을 보장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먼저 또 주로 이 골간로동자들을 생산에 고착시켜야 한다. 그들, 즉 이 골간로동자들은 생산의 기본적고리를 이루고있는것이다. 그들을 기업소에, 직장에 고착시킨다는것은 전체 로동인원을 고착시키며 로동력의 류동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린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기업소에 고착시킬것인가? 오직 그들을 등용함으로써, 그들의 로임수준을 높임으로써, 일군의 숙련정도에 따라 합당한 보수를 주는 그런 로임제도를 제정함으로써만 그들을 기업소에 고착시킬수 있다.

그들을 등용하며 그들의 로임수준을 높인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미숙련로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는가? 이것은 다른것은 모두 제쳐놓고서라도 미숙련로동자

들에게 전망을 열어주며 숙련로동자들의 등급에로 오르도록 그들에게 자극을 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수십만, 수백만의 숙련로동자들이 수요된다는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다. 그러나 숙련로동자간부를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미숙련로동자들에게 앞으로 전진하려는, 진급하려는 자극과 전망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 대담하게 이런 방법을 쓸수록 더 좋은것이다. 왜냐 하면 로동력의 류동을 없애버리는 기본적방책이 바로 여기에 있기때문이다. 이 일에서 린색하게 구는것은 범죄이며 우리의 사회주의공업의 리익을 반대하여 행동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로동자들을 기업소에 고착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로동자들에 대한 공급과 주택조건을 한걸음 더 개선하여야 한다. 이 몇해동안에 주택건축과 로동자들에 대한 공급면에서 적지 않은 사업을 하였다는것을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이미 하여놓은것만으로는 급속히 자라나는 로동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아주 불충분하다.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주택이 적었다는것을 구실로 이미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여서는 안된다.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로동자들에 대한 공급이 훨씬 나빴다는것을 구실로 현상태에 만족하여서도 안된다. 부패한, 아주 썩어빠진 사람들만이 과거를 구실로 삼아 자기를 위안할수 있는것이다. 과거로부터 출발할것이 아니라 지금 로동자들의 증대되는 수요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들의 생활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는것을 리해하여야 한다. 현재의 로동자는 과거의 로동자가 아니다. 지금의 로동자, 우리 쏘련의 로동자는 식료품공급수요를 보장받는 면에서나, 주택수요를 보장받는 면에서나, 문화 및 기타 온갖 수요를 보장받는 면에서나 자기의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이 조건들을 보장하여줄 의무가 있다. 사실 우리 나라의 로동자들은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기반에서 해방되였으며 이미 노예가 아니라 자기 사업의 주인으로 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보장하여줄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들의 이런 요구를 만족시켜줄 의무가 있다. 우리자신도 지금 로동자들에게 일정한 요구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다는것을 잊지 말라, 즉 우리는 그들에게 로동규률, 긴장한 로동, 경쟁, 돌격대 운동을 요구하고있다. 로동자들의 대다수가 드높은 열의로써 쏘베트정권의 이 요구를 접수하였으며 그것을 영웅적으로 수행하고있다는것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로동자들이 쏘베트정권의 요구를 실현하면서 로동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처지를 앞으로 더 개선하여야 할 의무를 수행하여줄것을 쏘베트정권에 요구하게 되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로동력의 류동을 청산하며 평균주의를 없애버리며 로임을 합리하게 정하며 로동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것—이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우리의 공업발전을 위한 두번째로 되는 새로운 조건은 이러하다.

이제 셋째 조건에 대하여 말하여보자.

3
로 동 조 직

나는 우에서 로동력의 류동을 없애는것이 필요하며 로동자들을 기업소에 고착시켜야 한다는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로

동자들을 고착시키는것만으로써 모든 일이 다되는것은 아니다. 류동을 없애는것만으로써는 부족하다. 그밖에도 효과있게 로동하며 생산률을 높이며 제품의 질을 개선할수 있는 적당한 로동조건을 로동자들에게 지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능률이 달마다 계도마다 높아지도록 기업소들에서의 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우리의 기업소들에서의 지금의 로동조직이 생산의 현대적 요구에 적응된다고 말할수 있는가?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말할수 없다. 여하튼 우리 나라에는 로동조직이 잘 짜여있지 않으며 사업에서 질서가 잡히지 않고 서로 협조할 대신에 무질서와 혼란현상이 존재하며 사업에 대한 책임성 대신에 완전한 무책임성과 개인책임결여가 성행하고있는 기업소들이 아직도 많다.

개인책임결여란 무엇인가? 개인책임결여라는것은 위임받은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며 기계, 기대, 도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것이다. 개인책임이 결여한 곳에서는 로동생산능률을 얼마만이라도 본격적으로 높인다거나 제품의 질을 개선한다거나 기계, 기대, 도구를 애호한다는것은 운운할수도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여러분은 철도운수면에서의 개인책임결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알고있다. 개인책임결여는 공업에서도 그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우리는 철도운수면에서 개인책임결여를 없애버림으로써 그 사업을 향상시켰다. 우리는 공업에서도 그 사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와 꼭같이 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개인책임결여나 구체적인 일정한 일에 대한 매개 일군들의 책임결여와 의좋게 지내오던 옳지 않은 로동조직을 가지고서도 그럭저럭 《지낼수》 있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지금은 환경이 전혀 달라졌다. 지금과 같이 거대한 규

모의 생산과 거대한 기업소들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는 개인책임결여는 기업소들에서의 우리의 모든 생산적 및 조직적 성과에 대한 위협으로 될수 있는 공업의 화근인것이다.

어찌하여 개인책임결여가 우리의 여러 기업소들에 뿌리를 박을수 있었는가? 그것은 련속작업제[47]의 비법적동반자로서 기업소들에 들어온것이다. 련속작업체가 생산에서의 개인책임결여를 반드시 초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로동을 합리하게 조직하며 일정한 작업에 대하여 각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며 일정한 로동자들을 일정한 기계와 기대에 고착시켜놓으며 질과 숙련정도에서 서로 비슷한 교대반을 합리하게 조직한다면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련속작업제는 로동생산능률을 굉장히 높일것이며 사업의 질을 개선할것이며 개인책임결여를 근절할것이다. 례컨대 철도운수면에서의 사태가 이러하다. 즉 거기에서는 지금 련속작업제를 실시하고있지만 개인책임결여는 이제는 없다. 우리는 공업기업소들에서도 련속작업제가 이와 같이 훌륭히 실시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말할수 없다. 문제는 우리의 일부 기업소들이 적당한 조건들을 준비하지 않고 질과 숙련정도에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교대반을 적당하게 조직하지 않고, 구체적인 일정한 일에 대한 매사람의 책임을 정하지 않고 너무도 조급하게 련속작업제를 실시한데 있다. 이것은 자연발생성에 내여말긴 련속작업제가 개인책임결여로 되고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여러 기업소들에서는 지상의, 말뿐의 련속작업제와 지상의것이 아닌 현실적인 개인책임결여가 생기게 되였다. 그 결과 일에 대한 무책임성, 기계에 대한 무애착, 기대의 대량적파손과 로동생산능률제고에 대한 자극의 결여를 낳게 되였다. 《우리는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도 있고 사업을 개선할수도 있지만 아무도 전연 책임을 지지 않고있는데 누가 우리

를 중시하겠는가?》 하고 로동자들이 말하는것은 일리있는 말이다.

이로부터 우리의 일부 동지들이 일부 지방에서 련속작업제를 실시하는데 너무 조급히 서둔데서 련속작업제를 개인책임결여로 전화시킴으로써 그것을 외곡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같은 상태를 일소하며 개인책임결여를 없애는데는 두가지 출로가 있다. 혹은 철도운수면에서 실행한것처럼 련속작업제가 개인책임결여로 되지 않도록 련속작업제의 실시조건들을 변경하거나 혹은 지금 그와 같은 시험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이 없는 곳에서는 얼마전에 쓰딸린그라드뜨락또르공장에서 실시한것과 같이 지상의 련속작업제를 버리고 6일생산제로 잠시 고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상의것이 아닌 진정한 련속작업제로 돌아가기 위한, 개인책임결여가 없는 련속작업제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준비하거나 하는것이다.

다른 출로는 없다.

우리의 경제일군들이 이 모든것을 충분히 잘 리해하고있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있다. 어째서인가? 그것은 분명히 진리를 두려워하기때문이다. 그런데 어느때부터 볼쉐위크들이 진리를 두려워하게 되였는가? 일부 기업소들에서 련속작업제가 개인책임결여로 전화되였으며 따라서 그것이 극도로 외곡되여있다는것은 과연 사실이 아닌가? 묻노니, 이와 같은 련속작업제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지상의 외곡된 련속작업제를 보존하는것이 합리한 로동조직보다 중요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것보다 중요하며 진실한 련속작업제보다 중요하며 우리의 사회주의공업보다 중요하다고 누가 감히 말할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상의 련속작업제를 속히 매장하여버릴수록 합리한 로동조직을 더 속히 달성하게 될것이라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일부 동지들은 욕설을 퍼붓거나 희떠운 연설을 늘어놓으면 개인책임결여를 없애버릴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하튼 나는 개인책임결여와의 투쟁을 흔히 회의석상에서 이 개인책임결여에 대하여 한바탕 욕설을 퍼붓는데만 국한시키고있는 경제일군들을 안다. 그들은 그런 연설을 한후에는 개인책임결여가 저절로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만일 그들이 연설과 욕설로써 실천으로부터 개인책임결여를 일소할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대단히 그릇된 생각이다. 아니다, 동지들, 개인책임결여는 어느때에나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우리자신만이 없앨수 있으며 또 없애야 한다. 왜냐 하면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정권을 장악하고있으며 또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개인책임결여까지도 포함한 모든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있기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이 연설과 욕설을 일삼을 대신에 광산이나 공장에 한두달동안 침입하여 로동조직면에서의 모든 세부적인것과 《사소한것》을 연구하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개인책임결여를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그 기업소에서의 경험을 다른 기업소들에 보급시킨다면 훨씬 더 좋을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훨씬 훌륭한 일일것이다. 이것은 개인책임결여에 대한 진정한 투쟁일것이며 합리한 불레위크적로동조직을 위한 투쟁일것이며 기업소들에서의 합리한 력량배치를 위한 투쟁일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책임결여를 일소하며 로동조직을 개선하며 기업소에서 력량을 합리하게 배치하는것은 우리의 과업이다.

우리의 공업발전의 셋째로 되는 새로운 조건은 이러하다.

이제 넷째 조건에 대하여 말하여보자.

4

로동계급의 생산기술지식인에 관한 문제

일반적으로는 공업의 지도일군들, 특히는 기사, 기술자들에 관한 사정도 변화되였다.

우크라이나의 석탄강철기지가 우리 나라의 전체 공업의 기본적원천으로 되여있은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의 사태였다. 우크라이나는 남방이나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 등 우리의 모든 공업지구에 금속을 공급하고있었다. 우크라이나는 또 우리 쏘련의 주요한 기업소들에 석탄도 공급하고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우랄을 제외한다. 왜냐 하면 돈바쓰에 비하면 우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것이였기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공업의 지도일군들을 양성하기 위한 세개의 기본근거지 즉 남방, 모스크바지구, 레닌그라드지구를 가지고있었던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형편에서 그때 우리는 우리 나라가 겨우 가질수 있었던 최소한도의 기사, 기술자를 가지고서도 그럭저럭 해나갈수 있었다.

바로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사정은 이러하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는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하여있다. 우리가 지금의 발전속도와 거대한 생산규모를 유지하려면 단지 우크라이나의 석탄강철기지만 가지고서는 안된다는것이 지금에 와서는 명백한 일로 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석탄 및 금속은 그 생산이 장성되고있기는 하지만 인제는 벌써 우리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없게 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동부에 새로

운 석탄-강철기지 즉 우랄-꾸즈바쓰를 창설하지 않을수 없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우리가 이 기지를 창설하는데 성과가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앞으로 씨비리의 날로 장성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바로 씨비리에다 야금공업을 창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그것을 창설하고있다. 이밖에도 우리는 까자흐스딴과 뚜르께스딴에 새로운 유색금속공업기지를 창설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가장 광범한 철도부설사업을 벌려야 한다. 이것은 쏘련전체의 리익 즉 변강공화국들의 리익과 중부지역의 리익을 위해서도 요구되는것이다.

그리하여 여기로부터 우리가 이전에는 최소한도의 기사, 기술자 및 공업지도일군들의 력량만을 가지고서도 해낼수 있던것이 지금은 그것만으로써는 이미 해낼수 없게 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로부터 기사, 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이전의 근거지들만으로는 벌써 부족하며 우랄, 씨비리, 중앙아세아에 새로운 큰 기지망을 창설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일 우리가 쏘련의 사회주의적공업화강령을 진실로 실현하려고 한다면 기사, 기술자 및 공업지도일군들이 3배, 5배로 되도록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도일군 및 기사, 기술자라면 아무 사람이나 다 필요한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정책을 리해할수 있으며 그 정책을 파악할수 있으며 량심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려는 결심을 가지고있는 그런 지도일군 및 기사, 기술자들이 필요한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로동계급이 생산에서의 자기의 리익을 지배계급의 리익으로서 능히 고수할수 있는 자기자체의 생산기술지식인을 반드시 육성하여야 할 그러한 발전단계에 우리 나라가 들어섰다는것을 의미한다.

어떤 지배계급을 물론하고 자기자체의 지식인이 없어서는 안되였다. 쏘련의 로동계급도 그자체의 생산기술지식인이 없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의심할 근거는 조금도 없다.

쏘베트정권은 이 사태를 고려하여 로동계급과 근로농민출신의 사람들에게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대학의 문을 열어놓았다. 여러분은 수만명의 로동자, 농민의 청년들이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 이전에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량반의 자식들이 대학을 독차지하였지만 지금 쏘베트제도하에서는 로동자, 농민의 청년들이 거기에서 지배적력량을 이루고있다. 우리가 오래지 않아 우리의 대학교로부터 수천명의 새 기수와 기사들, 우리 공업의 새 지도일군들을 얻게 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문제의 일면일따름이다. 문제의 다른 일면은 로동계급의 생산기술지식인은 다만 대학을 마친 사람들로써만 형성되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소들의 실제사업일군들, 숙련로동자, 공장 및 광산에 있는 로동계급의 문화적력량으로써도 보충된다는데 있다. 경쟁의 발기자들, 돌격대의 지도자들, 로동의 앙양을 위한 실제적고무자들, 각 건설부문에 있어서의 사업의 조직자들이 바로 대학교를 졸업한 동지들과 함께 로동계급의 지식인의 핵심, 우리 공업의 지도일군들의 핵심을 이루어야 할 로동계급의 새로운 계층인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하층》출신의 창발력있는 이 동지들을 배제하지 말고 그들을 지도적지위에 대담히 등용하며 자기의 조직자적 재능을 발휘할 가능성을 그들에게 주며 자기의 지식을 충실히 할 가능성을 그들에게 주며 또 이를 위하여 돈을 아끼지 말고 그들에게 적당한 환경을 지어주는것이다.

이러한 동지들중에는 비당원이 적지 않게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담하게 그들을 지도적지위에 등용하는데 장애로는

될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이 비당원동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그들을 지도적직무에 등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은 유능하고 재능있는 일군들을 중시한다는것을 실제로 확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동지들은 공장의 지도적직무에는 오직 당원동지들만을 등용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그들은 당원이면 비록 재능이 적고 또 창발성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첫자리에 등용하고 재능이 있고 또 창발성이 있는 비당원동지들은 흔히 배척해버린다. 이와 같은《정책》보다 더 어리석고 반동적인것이 없다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정책》은 다만 당의 위신을 손상시키며 비당원로동자들을 당으로부터 멀어져나가게 하는 결과밖에 가져올수 없다는것은 거의 증명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정책은 결코 당을 폐쇄된 구루빠로 전화시키는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책은 당원로동자들과 비당원로동자들사이에《호상신뢰》의 분위기,《호상검열》(레닌)의 분위기가 존재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 당이 로동계급속에서 강력한것은 당이 바로 이와 같은 정책을 수행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쏘련의 로동계급이 자기자신의 생산기술지식인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것--우리의 과업은 이러하다.

우리 공업의 발전을 위한 네번째의 새로운 조건은 이러하다.

이제 다섯번째 조건에 대하여 말하여보자.

5
낡은 생산기술지식인들의 전환의 징조

낡은 자산계급적생산기술지식인에 대한 태도문제도 또한 다르게 제기되고있다.

2년전에만 하여도 우리 나라의 낡은 기술지식인가운데서의 가장 숙련된 부분이 해독행위의 병에 전염되여있었다. 그뿐만아니라 해독행위는 그때에는 일종 류행이였다. 어떤 사람은 해독행위를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해독분자들을 비호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수수방관하면서 중립을 취하였고 어떤 사람은 쏘베트정권과 해독분자들사이에서 동요하였다. 물론 낡은 기술지식인의 대다수는 얼마간 충실하게 계속 일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것은 기술지식인의 대다수가 아니라 그중 가장 숙련된 부분인것이다.

해독행위는 무엇에 의하여 발생되였으며 또 무엇에 의하여 양성되였는가? 쏘련국내의 계급투쟁의 첨예화, 도시 및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에 대한 쏘베트정권의 공격정책, 쏘베트정권의 정책에 대한 이 자본주의분자들의 반항, 국제정세의 복잡성, 집단농장과 국영농장 건설에서의 곤난 등에 의하여서이다. 전투적인 해독분자들의 적극성이 자본주의국가의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음모와 국내에서의 곡물곤난에 의하여 강화되였다면 다른 일부분의 낡은 기술지식인들의 적극적해독분자들 편으로의 동요는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으로부터는 하여튼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을것이다.》, 《쏘베트정권은 어쨌든 변질되여 곧 멸망될것이다.》, 《볼쉐위크는 자기의 정책으로써

무력간섭을 촉진하고있다.》는 등등의 뜨로쯔끼파적-멘쉐위크적발공부쟁이들의 류행적인 언사에 의하여 강화되였던것이다. 이밖에 또 우익적편향자중의 일부 로볼쉐위크들까지도 이런 《질병》과 싸워내지 못하고 이 시기에 당과 배치되는 길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볼쉐위크주의의 냄새란 한번도 맡아보지 못한 일부분의 낡은 기술지식인들도 하느님의 덕택으로 동요하였다는것은 놀랄것이 없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쏘베트정권이 낡은 기술지식인에 대하여 오로지 적극적해독분자들은 격멸하고 중립분자들은 분화시키며 충실한 사람들은 인입하는 정책을 쓸수밖에 없었던것은 당연한 일이다.

1~2년전에는 이러하였다.

지금도 우리는 이와 꼭같은 형편에 처하여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수는 없다. 반대로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형편에 처하여있다. 우선 우리는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분자들을 격파하였으며 또 지금 성과적으로 그들을 다스리고있다. 물론 이것은 구지식인들을 기쁘게 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들은 격멸당한 자기들의 벗들에게 아직도 동정을 표시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동정자들이, 더우기 중립분자와 동요분자들이 자기들의 적극적인 벗들이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당한후에도 달갑게 나서서 그 벗들과 운명을 같이하려 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곡물곤난을 극복하였으며 그것을 극복하였을뿐만아니라 곡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있다. 수량이 이렇게 많아보기는 쏘베트정권이 수립된 이래 처음인것이다. 이리하여 동요분자들의 이 《론거》도 파탄되고말았다.

그다음으로 우리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 건설전선에서 극히 큰 성과를 얻음으로써 확고한 승리를 얻었다는것은 지금

장님까지도 볼수 있다.

이리하여 낡은 지식인들의 《무기고》에서 가장 주요한것은 전멸되고말았다. 무력간섭에 대한 자산계급지식인들의 기대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적어도 잠시적으로는—모래우의 루각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사실상 6년간이나 무력간섭을 약속하여왔지만 무력간섭을 하려고는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다. 우리의 고명한 자산계급지식인들이 우롱을 당하였을뿐이라는것을 지금 인정하여야 한다. 유명한 모스크바재판에서의 적극적해독분자들의 행동자체가 해독행위의 사상을 훼손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또 사실상 훼손하였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태가 우리의 낡은 기술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새로운 환경은 낡은 지식인들속에서 새로운 기분을 조성시키지 않을수 없었으며 또 사실에 있어서 조성시켰다. 이전에 해독분자들을 동정하던 일부 지식인들이 쏘베트정권의 편으로 전환하려는 확연한 징조를 보이고있는 사실은 바로 이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비단 이러한 낡은 지식인들뿐만아니라 지어는 상당한 부분의 어제날의 확연한 해독분자들까지도 많은 공장들에서 로동계급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낡은 기술지식인들속에서 벌써 전환이 시작되였다는것을 의심할바 없이 말하여준다. 이것은 물론 우리에게 이제는 해독분자가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해독분자들이 있을뿐더러 우리 나라에 계급이 있는 한, 자본주의의 포위가 있는 한 해독분자들은 그냥 있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에 이러저러하게 해독분자들을 동정하던 낡은 기술지식인의 상당한 부분이 지금 쏘베트정권편으로 돌아선것만큼 적극적인 해독분자들은 그 수가 적어

졌으며 그들은 이미 고립되였으며 또 잠시 극히 비밀적인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수 없으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런데 여기로부터는 이에 상응하여 낡은 기술지식인에 대한 우리의 정책도 변경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일 해독행위가 성행하던 시기에는 낡은 기술지식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주로 그들을 격멸하는 정책으로 표현되였다면 지금 이 지식인들이 쏘베트정권의 편으로 돌아서고있는 시기에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주로 그들을 인입하며 그들에게 배려를 돌리는 정책에 표현되여야 할것이다. 이미 변화한 새 조건하에서 낡은 정책을 계속 실시하는것은 옳지 않으며 비변증법적인것이다. 지금까지도 거의 전부의 낡은 전문가와 기사들을 아직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나 해독분자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것이며 불합리한 일일것이다. 《전문가배척주의》가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나 해롭고 수치스러운 현상으로 인정되여왔으며 또 지금도 그렇게 인정되고있다.

그러므로 낡은 기사, 기술자들에 대한 태도를 고치며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돌리며 그들을 사업에 더 대담하게 인입하는것—이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우리의 공업발전을 위한 다섯번째로 되는 새로운 조건은 이러하다.

이제 마지막조건에 대하여 말하여보자.

6
독립채산제에 관하여

만일 내가 다른 한가지의 새로운 조건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으로 말하였다고 할수 없을것이다. 그것은 공

업을 위한, 인민경제를 위한 자금축적의 원천에 관한 문제이며 그 축적의 속도를 가속화할데 관한 문제이다.

축적의 견지로 보아 우리 공업의 발전에서 새롭고 특별한 정황이란 무엇인가? 축적의 낡은 원천이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보장할수 없는것으로 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진실로 공업화의 볼쉐위크적속도를 확보하며 또 빨리 하려고 한다면 축적의 새 원천을 찾아내며 축적의 낡은 원천을 확대하여야 한다.

자본주의국가들의 력사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자국의 공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신흥국가 치고 장기적인 신용대부금 혹은 차관의 형식으로 국외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고 해나간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서구라파나라들의 자본가들은 신용대부금이나 차관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 나라의 공업화는 반드시 실패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나라에 신용대부금이나 차관을 주기를 단연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오산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가 자본주의국가와는 달리 공업을 부흥시킬수 있으며 계속 발전시킬수 있는데 충분한 약간의 특수한 축적의 원천을 가지고있다는것을 타산하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공업을 부흥시키고 농업과 운수업을 부흥시켰을뿐만아니라 중공업, 농업과 운수업을 개조하는 거대한 사업을 이미 궤도에 올려세웠다. 우리는 물론 이 면에서 수백억루블을 지출하였다. 우리의 이 수백억루블은 어디에서 왔는가? 경공업, 농업 및 예산상의 축적에서 왔다. 얼마전까지의 우리의 정형은 바로 이러하였다.

지금의 정형은 전혀 다르게 되였다. 이전에는 축적의 낡은 원천으로써 공업 및 운수업을 개조하기에 넉넉하였다면 지금에는 그것으로써는 벌써 확실히 모자라기 시작하였다. 지금

문제는 낡은 공업을 개조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지금의 문제는 우랄, 씨비리, 까자흐스딴에 좋은 기술적장비를 갖춘 새 공업을 창설하는데 있다. 지금의 문제는 쏘련의 곡물산지, 목축구 및 원료산지에다 대규모적인 새 농업생산을 조직하는데 있다. 지금의 문제는 쏘련의 동부와 서부와의 사이에 새 철도망을 부설하는데 있다. 축적의 낡은 원천으로써는 이 거대한 사업의 완성을 담보할수 없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는 불합리하게 경영한탓으로 독립채산제의 원칙들이 우리의 여러 기업소와 경제기관들에서 여지없이 파탄되였다는 정형도 지적하여야 하겠다. 사실에 있어서 많은 기업소와 경제기관들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계산, 원가채산과 근거있는 수입지출균형표를 작성하지 않고있다. 사실에 있어서 여러 기업소와 경제기관들에서는 《절약제도》, 《비생산지출의 축소》, 《생산의 합리화》 등이 벌써 오래전부터 때가 지난 개념으로 되여버렸다. 그들은 분명히 국립은행이 《어쨌든 필요한 금액을 우리에게 지출할것》을 기대하고있다. 최근 많은 기업소들에서 원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였다는것은 사실이다. 이 기업소들에 원가를 10% 또는 그 이상 낮추라는 과업을 주었는데 그들은 도리여 원가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원가를 낮춘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은 원가를 1% 낮추면 공업내부에서 1억 5,000만~2억루블을 축적한것과 같다는것을 알고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원가를 올린다는것은 공업과 전 인민경제에 수억루블의 손실을 끼치는것과 같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 모든것으로부터 경공업만으로써는, 예산상의 축적만으로써는 농업으로부터의 수입만으로써는 더는 꾸려나갈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경공업은 축적의 가장 풍부한 원천이며 또 그것은 지금에 와서 일층 발전할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이 원천은 무진장한것은 아니다. 농업도 이보다 못하지 않게 풍부한 축적의 원천이다. 그러나 지금의 농업개조기에 있어서는 그자체가 국가의 재정상 보조를 요구하고있다. 예산상의 축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무한정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또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있다. 이밖에 무엇이 있는가? 이밖에 중공업이 있다. 그러므로 중공업—그리고 무엇보다도먼저 그중의 기계제작업—도 축적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축적의 낡은 원천을 더 강화하며 또 확대하는외 중공업—그리고 무엇보다도먼저 기계제작업—도 축적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줄로는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우리의 모든 기업소들에서 비경제적인 경영방법을 청산하며 공업의 내적자원을 동원하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강화하며 원가를 부단히 낮추며 례외없이 공업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공업내부의 축적을 증대시켜야 한다.

줄로는 이러하다.

그러므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강화하며 공업내부의 축적을 높이는것—이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7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지도하자

동지들, 이와 같은것이 우리의 공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건들이다.

이 새로운 조건들의 의의는 이 조건들이 새로운 사업방법

과 새로운 지도방법을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을 공업에 조성하고있다는 점에 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것을 알수 있다.

(1) 이제는 더는 이전과 같이 로동력의 자연류동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업에 로동력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서는 조직적으로 로동력을 모집하여야 하며 로동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기계화를 하지 않고서도 오늘의 건설속도와 생산규모를 확보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바다물을 숟가락으로 다 퍼내려고 기대하는것과 다름없다.

(2) 다음으로 공업에서의 로동력의 류동을 이이상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화근을 없애버리려면 새로운 원칙에 의하여 로임을 정하여야 하며 기업소의 로동인원을 어느 정도라도 고착시켜야 한다.

(3) 다음으로 생산에서의 개인책임결여를 이이상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화근을 없애버리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로동을 조직하여야 하며 또 각 부분의 로동자들이 작업과 기계와 기대와 로동의 질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력량을 합리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4) 다음으로 이전과 같이 우리가 자산계급로씨야로부터 물려받은 극소수의 낡은 기사, 기술자들에게만 의거하여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생산의 현유의 속도와 규모를 높이려면 로동계급이 자체의 생산, 기술지식인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5) 다음으로 모든 낡은 전문가들과 낡은 기사, 기술자들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취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편으로 견정하게 돌아선 전문가들과 기사, 기술자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바꾸고 그들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돌려야 한다.

(6) 끝으로 종전과 같이 축적의 낡은 원천에만 의거하여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업과 농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보장하려면 축적의 새로운 원천을 개척하며 비경제적인 경영을 청산하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를 낮추며 공업내부의 축적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것이 경제건설을 위한 새로운 사업방법과 새로운 지도방법을 요구하는 공업발전의 새로운 조건들이다.

새로운 방법으로 지도하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무엇보다도먼저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이 새로운 환경을 리해하며 공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며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의 사업을 개선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이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공중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업소를 지도하게 하여야 하며 그들이 일반적인 공담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엄격한 실사구시적인 정신으로 모든 문제를 취급하게 하여야 하며 그들이 지상통첩이나 일반적인 공담과 구호에 국한하지 말고 실무에 정통하게 하며 사업의 세부분을 탐구하게 하며 《사소한것》을 연구하게 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위대한 사업은 지금 《사소한것》으로부터 이루어지기때문이다.

다음으로 100~200개의 기업소들을 망라하고있는 현재의 우리의 방대한 련합체들을 지체없이 세분하여 몇개의 련합체로 갈라놓아야 한다. 100개 또는 그이상의 공장들과 관계하고 있는 련합체의 위원장이 그 공장들을, 그 공장들의 생산능력과 사업정형을 참으로 알수 없으리라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공장들을 알지 못하는 위원장이 그 공장들을 지도할수 없으리라는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련합체의 위원장들에게 공장의 정황을 진정으로 연구하며 공장을 지도할 가능성을 주기 위하

여서는 너무 많은 공장을 줄여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한 련합체를 몇개의 련합체로 갈라놓음으로써 그 련합체들이 공장과 접근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의 련합체의 관리제를 위원회관리제로부터 일장제로 고쳐야 한다. 련합체의 위원회에는 10명 내지 15명이 들어앉아서 공문을 쓰며 토론을 하고있는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동지들,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지상《지도》를 그만두고 참답게 실무적으로 볼쉐위크적으로 사업하여야 한다. 련합체의 지도부에는 련합체의 위원장과 몇명의 부위원장을 남겨두면 된다. 련합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이만하면 아주 충분할것이다. 기타 위원들은 아래로, 공장으로 내려가는것이 좋을것이다. 이것은 그들에 대하여서도 사업에 대하여서도 훨씬 유익할것이다.

다음으로 련합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더 자주 공장을 순시하며 그곳에 더 오래 머물러 사업하면서 공장일군들을 더 잘 알며 그곳 일군들을 가르칠뿐만아니라 또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제 공장들과 멀리 떨어져 사무실에 앉아서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공장을 지도하려면 기업소일군들과 더 자주 접촉하며 그들과 긴밀한 련계를 유지해나가야 한다.

끝으로 1931년도의 생산계획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려 한다. 당의 주위에는 우리의 생산계획은 비현실적인것이며 완수할수 없는것이라고 억설하는 약간의 속물들이 있다. 이것은 언제나《무의미한 우려》를 자기의 주위에 퍼뜨리는 쉐드린의 소설에 나오는 《령리한 모래무치》[57]와 비슷한자이다. 우리의 생산계획은 현실적인가? 무조건적으로 그렇다! 우리 나라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이 있다는 리유만으로써도 그것은 현실적이다. 그 계획의 수행이 지금에 있

어서는 전적으로 우리자신에게, 우리 나라에 있는 극히 풍부한 가능성을 리용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욕망에 달려있다는 리유로써만도 그것은 현실적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 기업소들과 공업부문들에서 어떻게 벌써 계획을 넘쳐완수할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다른 기업소들과 공업부문들에서도 계획을 완수하며 넘쳐완수할수 있는것이다.

생산계획을 수자와 과업을 라렬한 일람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실상 생산계획은 수백만의 사람들의 산 실천적활동인것이다. 우리의 생산계획의 현실성—이것은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고있는 우리의 천백만 근로자들인것이다. 우리의 생산계획의 현실성—이것은 바로 산 사람들이며 이것은 우리들이며 로동하려는 우리의 의지이며 새 방법으로 일하려는 우리의 결심이며 계획을 완수하려는 우리의 결의인것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의가 있는가? 그렇다,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산계획은 실현될수 있으며 또 실현되여야 한다.(오래 계속되는 박수)

1931년 7월 5일부 《프라우다》 제183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3권, 49~72페지

독일작가 에밀 루드위히와의 담화

(1931년 12월 13일)

루드위히: 나는 당신이 나를 만나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20여년동안 력사상의 탁월한 인물들의 생애와 활동을 연구하여왔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대신에 나는 사회경제적조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있습니다.

쓰딸린: 당신은 참 겸손하십니다.

루드위히: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할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될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기 크레믈리에서 뾰뜨르대제의 몇가지 유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당신에게 제기하려고 하는 첫 질문은 다음과 같은것입니다. 당신은 자기를 뾰뜨르대제와 비기는것을 허용합니까? 당신은 자기를 뾰뜨르대제의 사업의 계승자라고 생각합니까?

쓰딸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력사적비교는 언제나 위험한것입니다. 이 경우의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루드위히: 그러나 뾰뜨르대제는 자기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로씨야에 서방문화를 도입하기 위하여 매우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쓰딸린: 그렇습니다. 물론 뾰뜨르대제는 지주계급의 륭성과 대두하고있는 상인계급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습

니다. 뽀뜨르는 지주와 상인의 민족국가를 창건, 공고화하기 위하여 매우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주계급의 륭성, 대두하고있는 상인계급에 대한 원조, 이 두 계급의 민족국가의 공고화는 농노에 대한 가혹한 착취에 의하여 진행된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로 말하면 레닌의 제자일따름입니다. 나의 일생의 목적은 그의 훌륭한 제자로 된다는데 있습니다.

나의 필생의 과업은 다른 계급 즉 로동계급의 륭성에 있습니다. 이 과업은 어떤 《민족》국가를 공고화하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국가, 즉 국제주의적국가를 공고화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공고화되면 그만큼 전체 국제로동계급의 공고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만일 로동계급의 륭성 및 이 계급의 사회주의적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나의 사업에서의 매 일보가 로동계급의 상태를 공고화하며 개선하는것이 아니라면 나는 나의 일생이 무의미한것이였다고 생각할것입니다.

당신의 대비가 적당하지 않다는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레닌과 뽀뜨르대제를 놓고 말하면 후자는 창해일속이고 레닌은 온 대양입니다.

루드위히: 맑스주의는 력사에 있어서의 개인의 탁월한 역할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력사인물의 탁월한 역할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유물사관과 당신의 견해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쓰딸린: 아닙니다. 여기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맑스주의는 탁월한 인물의 역할도 또는 사람들이 력사를 창조한다는것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맑스의 《철학의 빈곤》① 및 기타 저작에서 당신은 바로 사람들이 력사를 창조한다는 말을 발견

---

①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4권, 71～198페지를 보라.—편집자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들은 어떤 환상으로나 제마음대로 력사를 창조하는것은 아닙니다. 매개의 새로운 세대는 이 세대가 탄생할 때 벌써 기존형태로서 있은 일정한 조건에 봉착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인물이란 그들이 이 조건을 옳게 리해하며 그것을 어떻게 개변할것인가를 리해할수 있는 한에 있어서만 일정한 가치가 있는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조건을 리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환상대로 조건을 개변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돈 끼호떼51의 처지에 빠질것입니다. 때문에 바로 맑스의 견해에 의하면 사람을 조건에다 대립시켜서는 결코 안됩니다. 바로 사람들이 력사를 창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기존형태로서 봉착한 조건을 옳게 리해하는 한에 있어서만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조건을 개변할것인가를 리해하는 한에 있어서만 력사를 창조합니다. 적어도 우리 로씨야볼쉐위크들은 맑스를 이렇게 리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맑스를 연구한것은 10년뿐이 아닙니다.

루드위히: 약 30년전에 내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유물사관의 신봉자라고 자칭하는 많은 독일교수들은 맑스주의는 영웅의 역할, 력사에 있어서의 영웅인물의 역할을 부인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쓰딸린: 그것은 맑스주의를 비속화하는자들이였습니다. 맑스주의는 종래로 영웅의 역할을 부인한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맑스주의는 그 역할을 상당히 큰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방금 내가 말한바와 같은 조건부로서만입니다.

루드위히: 우리가 앉아있는 책상주위에는 열여섯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편으로는 쏘련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나라로 알고있으며 다른편으로는 개인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나라로 알고있습니다. 구경 누가 결정합니까?

쓰딸린: 아닙니다. 개인이 결정할수 없습니다. 개인의 결정은 언제나 또는 거의 언제나 일면적인 결정입니다. 온갖 위원회, 온갖 집단내에는 중시를 일으킬만한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위원회, 온갖 집단내에는 옳지 않은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차의 혁명의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는 집체적으로 심사하고 수정하지 않은 개인의 결정은 100이면 약 90이 일면적이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쏘베트 및 당조직을 령도하고있는 우리의 령도기관인 우리 당 중앙위원회에는 약 7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 70명의 중앙위원회 위원가운데는 우리의 우수한 공업일군, 우리의 우수한 협동조합일군, 우리의 우수한 공급일군, 우리의 우수한 군인, 우리의 우수한 전전일군, 우리의 우수한 전동일군, 우리의 우수한 국영농장전문가, 우리의 우수한 집단농장전문가, 개인농경영을 익숙히 알고있는 우리의 우수한 전문가, 쏘련의 각 민족 및 민족정책을 익숙히 알고있는 우리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최고기관에는 우리 당의 지혜가 집중되여있습니다. 각자가 모두 어떠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나 제의를 시정할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의 경험을 내놓을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지 않다면, 만일 개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우리는 자기의 사업에서 중대한 오유를 범할것입니다. 각자가 개별적인 사람들의 오유를 시정할 가능성을 가지고있는 한, 또 우리가 그러한 시정을 중시하는 한 우리의 결정은 비교적 옳게 됩니다.

루드위히: 당신은 수십년동안 비밀공작을 해왔습니다. 당신은 무기나, 문헌 기타 등등을 모두 비밀리에 수송하여야 하였습니다. 당신은 쏘베트정권의 적들이 당신의 경험을 채용하여 같은 방법으로써 쏘베트정권과 투쟁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쓰딸린: 그것은 물론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루드위히: 당신의 정권이 적과의 투쟁에서 엄격하고 무자비한 원인은 이 점에 있는것이 아닙니까?

쓰딸린: 아닙니다. 주요원인은 거기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몇가지 력사적실례를 들수 있습니다. 볼쉐위크들이 정권을 장악하였을 때 처음에 그들은 자기의 적들에 대하여 온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멘쉐위크들은 계속 합법적으로 존재하면서 자기들의 신문을 발간하고있었습니다. 사회혁명당원32들도 계속 합법적으로 존재하면서 자기들의 신문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지어 립헌민주주의자36들도 자기들의 신문을 계속 발간하고있었습니다. 크라스노브장군이 페뜨그라드에 대한 반혁명적진공을 조직하였다가 우리 손에 잡혔을 때 우리는 전시의 조건에 따라서 그를 적어도 표로로 잡아둘수가 있었으며 그를 총살해야 할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보증서》를 믿고서 그를 석방하였던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였습니까? 얼마 안가서 그와 같은 온화한 태도는 쏘베트정권의 공고화를 파괴하게 될따름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적에 대하여 그와 같은 온화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는 오유를 범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오유를 더 반복하였더라면 우리는 로동계급에 대하여 죄를 지었을것이며 로동계급의 리익을 배반하였을것입니다. 이것은 꼼 아주 명백하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들을 온화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적들은 더욱더 반항한다는것을 꼼 알게 되였습니다. 얼마 안가서 우익사회혁명당원 고쯔 및 다른 자람들과 우익멘쉐위크들은 페뜨그라드에서 사관생들의 반혁명적진출58을 조직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의 많은 혁명적해병들이 희생되였습니다. 우리가 《보증서를 믿고서》 석방한 그 크라스노브는 까자크백위군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는 마몬또브와 련합하여 2년동안이나 쏘베

트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들 백위군 장군들의 배후에는 서방자본주의국가들—프랑스, 영국, 미국 및 일본의 앞잡이들이 있다는것이 곧 판명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온화한 태도를 보인것이 잘못이였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적들에 대하여서는 가장 무자비한 탄압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그들을 이겨낼수 있다는것을 경험에서 알게 되였습니다.

루드위히: 내가 보기에는 쏘련주민의 대부분이 쏘베트정권에 대하여 공포와 위구심을 느끼고있으며 또 쏘베트정권의 확고성은 어느 정도 이 공포감에 립각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공포감을 자아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을 의식할 때 당신의 심리상태는 어떠한가를 나는 알고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동지들, 당신의 친우들과 교제할 때는 공포감을 주는 방법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을 쓰고있는데 주민에게는 공포감을 주고있지 않습니까?

쓰딸린: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오유는 많은 사람들의 오유입니다. 당신은 공갈, 협박의 방법으로 14년동안이나 정권을 유지하며 수천만 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보다도 공갈에 능한것은 짜리정부였습니다. 짜리정부는 이 면에서 풍부한 옛경험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구라파, 특히 프랑스자산계급은 이 면에서 짜리제도를 백방으로 도와주었으며 그에게 인민을 공갈하는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구라파자산계급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공갈정책은 짜리제도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루드위히: 그러나 로마노브왕조는 300년간이나 존속하지 않았습니까?

쓰딸린: 그렇습니다. 그러나 300년동안에 봉기와 폭동—

스께빤 라진의 봉기, 예멜리얀 뿌가쵸브의 봉기, 12월당원의 봉기[59], 1905년의 혁명, 1917년의 2월혁명, 10월혁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나는 국내의 오늘의 정치적 및 문화적 생활조건이 옛시기의 조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대중의 무지몽매, 비문화, 굴종과 정치적박해는 당시의 《지배자들》에게 상당히 오래동안 정권을 틀어쥘 가능성을 주었던것입니다.

쏘련인민에 관해서, 쏘련의 로동자와 농민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들은 결코 당신이 생각하고있는바와 같이 온순하고 순순히 복종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라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쏘련사람들을 낡은 안광으로 보면서 로씨야에는 첫째로는 온순한 사람들, 둘째로는 라태한 사람들이 살고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 낡은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로씨야의 지주들이 빠리에 가서, 략탈로 모은 돈을 거기에서 랑비하면서 라태한 생활을 하게 된 때부터 구라파에 형성된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의지가 약하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였습니다. 여기로부터 《로씨야인은 라태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자신의 로동으로 생활자료를 획득하여왔으며 또 획득하고있는 로씨야의 로동자나 농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또 단기간내에 3차나 혁명을 수행하여 짜리제도와 자산계급을 격멸하고 지금 사회주의를 승리적으로 건설하고있는 로씨야의 농민과 로동자를 온순하며 라태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아주 기괴한 일입니다.

당신은 방금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일을 한사람이 결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로동자들은 어느때나 어떠한 조건하에서나 결코 개인독단을 용허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무리 큰 권위자들도 로동자대중의 신임을 받지 못하

고 로동자대중과의 련계를 잃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되며 무로 되고맙니다. 쁠레하노브는 일찍 아주 높은 권위를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였습니까? 그가 일단 정치적으로 다리를 절게 되자 로동자들은 그를 잊어버렸으며 그로부터 떨어져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실례로 뜨로쯔끼를 들어봅시다. 뜨로쯔끼도 물론 쁠레하노브와는 도저히 비길수 없지만 큰 권위를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였습니까? 그가 일단 로동자들로부터 떨어지자 로동자들은 그를 망각하고말았습니다.

루드위히: 전혀 잊고말았습니까?

쓰딸린: 때로는 회상합니다.—원한을 품고말입니다.

루드위히: 모든 사람이 다 원한을 품고있습니까?

쓰딸린: 우리 로동자들로 말하면 그들은 뜨로쯔끼를 원한과 분노와 증오를 품고 회상합니다.

물론 쏘베트정권을 실지로 무서워하며 그것을 반대하는 소부분의 주민들도 있습니다. 나는 사멸되고있으며 청산되고있는 계급의 잔여, 특히 농민의 보잘것없는 부분인 부농층을 념두에 두고 말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있는것은 실지로 존재하는 이들 집단에 대한 공갈정책뿐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볼쉐위크들은 여기에서는 공갈하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자산계급층을 청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쏘련의 근로주민, 적어도 전국인구의 90%를 이루고있는 로동자와 근로농민을 들어본다면 그들은 쏘베트정권을 지지하고있으며 그들의 압도적다수가 쏘베트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쏘베트제도를 지지하는것은 이 제도가 로동자와 농민의 근본적리익을 위하여 복무하고있기때문입니다.

쏘베트정권의 견고성의 기초가 여기에 있는것이지 소위 공갈정책에 있는것은 아닙니다.

루드위히: 나는 이 대답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이상하게 생각될 질문을 하는데 대하여 용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전기에는 말하자면 《강도적》사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께빤 라진의 개성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습니까? 《사상적강도》로서의 그에 대하여 당신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있습니까?

쓰딸린: 우리 볼쉐위크들은 볼로트니꼬브, 라진, 뿌가쵸브 등등과 같은 력사적인물들에 대하여 줄곧 흥미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행위에서 피압박계급의 자연발생적 폭동의 반영, 봉건적압박을 반대하는 농민의 자연발생적봉기의 반영을 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농민의 그와 같은 봉기의 첫시도의 력사를 연구하는것은 줄곧 흥미있는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서 그들을 볼쉐위크들과 아무러한 비교도 할수 없습니다. 개개의 농민봉기는 그것이 스께빤 라진의 봉기처럼 《강도적이고》 비조직적인것이 아니였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중대한 결과도 가져올수 없습니다. 농민봉기는 그것이 로동자봉기와 결합되고 또 로동자들에 의하여 지도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성공할수 있는것입니다.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련합봉기만이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라진이나 뿌가쵸브에 대하여 말하면 그들은 지주는 반대하였지만 《선량한 짜리》는 찬동한 짜리주의자였다는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바로 이러한것이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보는바와 같이 그들을 볼쉐위크들과 비교하는것은 아무리 하여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루드위히: 당신의 전기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

다. 내가 마싸리크한테 갔을 때 그는 나에게 자기는 여섯살때부터 벌써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자각하고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의하여 또 언제 사회주의자로 되였습니까?

쓰딸린: 나는 내가 여섯살때부터 벌써 사회주의에 쏠렸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아니 열살이나 열두살때부터도 아닙니다. 내가 혁명운동에 들어선것은 열다섯살때부터였는데 그때 나는 당지 남깝가즈에 있던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의 지하소조들과 련계를 가졌습니다. 이 소조는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나에게 맑스주의적비밀문헌에 대한 흥미를 붙여주었습니다.

루드위히: 무엇이 당신을 반대자적립장에 서게 하였습니까? 혹은 부모의 혹독한 대우에서였습니까?

쓰딸린: 아닙니다. 나의 부모는 교양은 받지 못하였지만 나를 혹독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공부하던 회랍정교의 신학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서 실시하던 사람을 우롱하는 제도와 예수이트적방법에 대한 항의로부터 나는 혁명가로, 참으로 혁명적인 학설로서의 맑스주의의 선봉자로 될 결의를 가지게 되였으며 또 실지로 그렇게 되였습니다.

루드위히: 그러나 당신은 예수이트교도들의 훌륭한 품질을 인정하고있지 않습니까?

쓰딸린: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에서 일관성, 완강성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방법은 감시, 간첩활동, 비밀탐지, 우롱입니다. 여기에 무슨 훌륭한것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례로서 기숙사에서의 감시를 들어봅시다. 아홉시에 차마시는 시간종이 나면 식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방으로 돌아오면 벌써 그동안에 방이 수색되여 물건상자들이 뒤죽박죽으로 됩니다.… 여기에 무슨 훌륭한것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루드위히: 나는 쏘련에서 미국의 모든것에 대한 비상한 존경을 보았습니다. 나는 미국의 모든것 즉 딸라의 나라, 가장 철저한 자본주의다라에 대한 숭배라고까지 말하고싶습니다. 이 감정은 귀국의 로동계급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뜨락또르나 자동차에 대해서뿐만아니라 미국인일반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쓰딸린: 당신은 과장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미국의 모든것에 대한 그 어떤 특별한 존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면에서의 즉 공업, 기술, 문학, 생활에 있어서의 미국의 실무성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자본주의나라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가운데는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건전한 사람, 일과 사업에 대한 그 모든 태도에 있어서 건전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실무성, 이 소박한 작풍을 찬성합니다. 미국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나라이기는 하지만 거기의 공업에서의 풍습과 생산에서의 습관에 일부 민주주의적인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봉건귀족의 나으리식습기가 살아있는 낡은 구라파자본주의국가들에 대하여서는 말할수 없습니다.

루드위히: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옳은가 하는것을 생각해보지조차 않습니다.

쓰딸린: 왜요, 생각해볼수도 있지요.

사회제도로서의 봉건제도는 구라파에서 이미 오래전에 분쇄되였지만 그의 많은 잔재는 생활속에나 풍습속에 계속 존재하고있습니다. 봉건적사회층은 기수, 전문가, 과학자, 작가를 계속 낳고있으며 이들은 공업, 기술, 과학, 문학에 귀족적풍습을 도입하고있습니다. 봉건적전통은 완전히 분쇄되지 않았습니다.

지주도 귀족도 없는 《자유로운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

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수 없습니다. 생산에서의 실제적이고 비교적 소박한 미국적풍습은 여기에서 나오는것입니다. 미국에 가본 우리 나라의 로동자와 경제일군들은 꼭 이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유쾌하고 놀라운 심정으로 미국에서는 생산과정에서 외면적으로는 기사와 로동자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그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구라파에서는 문제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민족에 대한,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민족의 대다수에 대한 우리의 호감에 대하여 말한다면 물론 독일사람에 대한 우리의 호감을 말하여야 할것입니다. 미국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이 호감과는 비길수 없습니다!

루드위히: 어째서 바로 독일민족에 대해서입니까?

쓰딸린: 독일민족이 맑스, 엥겔스와 같은 사람들을 세계에 내놓았다는 리유만으로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는것만으로써도 충분합니다.

루드위히: 최근에 독일의 일부 정치가들사이에서는 쏘련과 독일과의 전통적인 친선정책이 부차적인 지위에로 밀려나가리라고 여기는 엄중한 우려가 보입니다. 이 우려는 쏘련과 뽈스까의 교섭과 관련하여 생겨났습니다. 만일 이 교섭의 결과로 뽈스까의 현재의 국경에 대한 쏘련측의 승인이 사실로 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쏘련은 베르싸이유체계[60]를 반대하고 있으며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있는 전체 독일인민들을 크게 실망하게 할것입니다.

쓰딸린: 나는 일부 독일정치가들사이에 쏘련이 뽈스까와의 교섭 또는 뽈스까와 체결한 어떤 조약에서 다음과 같은것 즉 쏘련이 뽈스까의 령토와 국경을 승인하고 보장하여주는것을 의미하는 보조를 취하지나 않을가 하는데 대하여 일정한 불만과 근심이 보인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우려는 잘못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나라와도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성명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나라들과 이러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뽈스까와도 그와 같은 조약에 조인할 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성명하였습니다. 우리가 뽈스까와 불가침조약에 조인할 용의가 있다고 성명한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하는것은 공담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지로 그러한 조약에 조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특별한 류형의 정치가입니다. 오늘 한가지 일을 약속하거나 성명하고 그다음날에는 잊어버리거나 자기가 성명한것을 부인하면서도 얼굴도 붉히지 않는 그러한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국외에서 일어나는 일은 불가피적으로 국내에서도 알게 되며 로동자, 농민이 모두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말과 행동을 달리한다면 우리는 인민대중속에서 위신을 잃을것입니다. 뽈스까사람들이 우리와 불가침조약을 조인할데 관한 교섭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성명하였을 때 우리가 동의하고 교섭에 착수한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독일사람들의 견지에서 볼 때 일어날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태는 무엇인가? 독일사람들에 대한 관계의 개변, 관계의 악화인가?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뽈스까사람들과 꼭 마찬가지로 뽈스까와 쏘련의 국경을 변경하거나 쌍방의 독립을 파괴하기 위하여 폭력을 쓰거나 침략하지 않을것이라고 조약에서 반드시 언명할것입니다. 우리가 뽈스까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우리에게 같은 약속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독립을 파괴하거나 그 국경의 완정을 파괴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것이라는 그러한 조항이 없이는 조약을 체결할수 없습니다. 어겻이 없이는 조약을 운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것이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베르싸이유체계에 대한 승인입니까? 아닙니다. 혹은 이것이 국경의 보증입니까? 아닙니다. 뽈스까가 우리 국경의 보증인으로 된적이 없었으며 또 보증인으로 되지도 않을것이라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뽈스까국경의 보증인으로 된 일이 없으며 또 결코 되지도 않을것입니다. 독일에 대한 우리의 친선관계는 천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하는 우려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우려는 몇몇 뽈스까사람들과 프랑스사람들에 의하여 날조된 요언에서 생긴것입니다. 그 우려는 우리가 만일 뽈스까인에 의하여 조약이 조인되여 그것을 공포하는 때에는 없어질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조약에 독일을 반대하는것이란 아무것도 내포하고있지 않다는것을 보게 될것입니다.

루드위히: 나는 이 언명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평균주의》에 대해서 말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일반적평등에 대한 일정한 풍자적의미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평등은 사회주의적리상이 아닙니까.

쓰딸린: 맑스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로임, 동일한 량의 고기, 동일한 량의 빵을 받으며 동일한 옷을 입으며 동일한 량의 생산물을 받는 그러한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맑스주의는 다음과 같은 한가지를 말할따름입니다. 즉 계급이 종국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한, 그리고 로동이 생존수단으로부터 사람들의 일차적수요로, 사회를 위한 자원적인 로동으로 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기의 로동에 따라 보수를 받을것입니다. 《각자는 능력을 다하고 각자에게는 로동에 따라 분배한다.》—이것이 사회주의의 맑스주의적공식 즉 공산주의의

제1단계, 공산주의사회의 제1단계의 공식입니다.

공산주의의 최고단계에 있어서만 각자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로동하면서 자기의 수요에 따라 로동보수를 받을것입니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원칙을 실시하게 될것입니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람마다 수요가 다르며 또 다를것이라는것은 아주 명백한 일입니다. 사회주의는 결코 취미에 있어서의 차이, 수요의 량과 질에 있어서의 차이를 부인한 일이 없습니다. 맑스가 어떻게 슈티르네르의 평균주의적경향을 비판①하였는가를 읽으시오, 1875년의 《고타강령》에 대한 맑스의 비판②을 읽으시오, 맑스, 엥겔스, 레닌의 그후의 로작들을 읽으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어떻게 날카롭게 평균주의를 공격하고있는가를 알게 될것입니다. 평균주의의 근원은 개인농민적사유방식, 모든 부를 똑같이 분배하려는 심리, 소박한 농민적《공산주의》의 심리입니다. 평균주의는 맑스주의적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습니다. 맑스주의를 모르는 사람들만이 로씨야볼쉐위크들은 모든 부를 한데 모아놓은 다음 그것을 똑같이 분배하려고 한다는듯이 유치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것은 맑스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크롬웰시대나 프랑스혁명시대의 소박한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맑스주의나 로씨야볼쉐위크는 이와 같은 평균주의적《공산주의자》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습니다.

루드위히: 당신은 권연을 피우고있습니다. 쓰딸린선생,

---

① 카.맑스와 에프.엥겔스의 《독일의식형태》, 제1권, 《포이에르바흐, 베.바우에르 및 슈티르네르가 대표하는 현대독일철학에 대한 비판》.(《맑스 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권, 13~532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1~25페지를 보라.—편집자

당신의 전설적인 곰방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언젠가 말과 전설은 사라지지만 일은 남는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수백만사람들은 당신의 말과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당신의 전설적인 곰방대에 대해서는 알고있습니다.

쓰딸린: 나는 곰방대를 잊고 집에다 두고왔습니다.

루드위히: 나는 당신을 대단히 놀랠수 있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쓰딸린: 우리 로씨야볼쉐위크들은 놀란다는것을 잊은자 오래됩니다.

루드위히: 그렇습니다. 우리 독일에서도 그렇습니다.

쓰딸린: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도 멀지 않아 놀라지 않을것입니다.

루드위히: 나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수차 모험과 위험을 무릅쓰고나왔습니다. 당신은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당신은 수다한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당신의 많은 친우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당신은 운명을 믿습니까?

쓰딸린: 아닙니다, 믿지 않습니다. 볼쉐위크들, 맑스주의자들은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운명이라는 개념, 《쉬크잘》①이라는 개념자체가 편견이며 허튼소리이며 운명의 신야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고대희랍신화와 같은 그런것의 잔재입니다.

루드위히: 그러면 당신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연한 일입니까?

쓰딸린: 내적 및 외적 원인이 있는데 그 총체가 나를 죽

---

① 《쉬크잘》은 독일어 《Schicksal》의 음역으로서 운명이라는 뜻이다.—편집자

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그 누구이든 여기에 앉아있어야 할것이였기때문입니다. 《운명》이란것은 비합법칙적인것이며 신비적인것입니다. 나는 신비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위험이 나의 옆을 스쳐지나간데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많은 우연성과 원인이 있을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운명이라는것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루드위히: 레닌은 오래동안 외국에 가 망명하였습니다. 당신은 외국에 그리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당신의 결함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보건대는 혁명에 더 큰 리익을 가져온것은 외국에 망명하여 구라파를 더 상세히 연구할수는 있었으나 그대신에 인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할수 없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로씨야에서 사업하며 인민의 기분을 알고있었으나 그대신에 구라파를 잘 모르는 혁명가들입니까?

쓰딸린: 레닌은 이런 비교에서 빼놓아야 하겠습니다. 레닌은 비록 오래동안 외국에 있었지만 그와 같이 로씨야의 현실, 국내의 로동운동과 긴밀하게 련결되여있던 사람은 로씨야에 남아있던 사람들가운데에도 매우 적습니다. 내가 외국에 가서 레닌을 만났을 때(1906년, 1907년, 1912년, 1913년[61])마다 나는 그에게서 로씨야의 실천활동가들로부터 부쳐온 많은 서한을 보았으며 또 레닌은 로씨야에 남아있던 사람들보다 언제나 더 많은것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는 외국에 체류하고있는 것을 언제나 부담으로 생각하고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당과 그 지도부에는 로씨야에 남아있어서 외국에 가본 일이 없는 동지들이 외국에 망명하였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론 외국에 망명했던 사람들보다 혁명에 더 큰 리익을 가져올 가능성을 가지고있었습니

다. 우리 당에는 외국에 망명했던 사람들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만명의 당원중에서 그들은 100～200명이나 될것입니다. 70명의 중앙위원회 위원중에는 외국에 망명하였던 사람은 3～4명을 넘지 못할 정도입니다.

구라파를 인식하고, 구라파를 연구하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물론 구라파를 연구하려고 한 사람이 구라파에 체류하고있는편이 연구할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중 외국에서 오래 살지 않은 사람은 얼마간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체류하는것이 구라파의 경제, 기술, 로동운동의 간부, 각종 문학저서 또는 과학저서를 연구하는데 대하여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은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구라파에 있는것이 물론 구라파를 연구하는데 더 쉬울것입니다. 그러나 구라파에 살지 않은 사람이 받은 손실은 큰 의의를 가지는것은 아닙니다. 도리여 나는 20년이나 외국에 살면서 례컨대 샤를로텐부르그라든가 혹은 라뗑구62라든가에서 살면서 몇해동안 카페에 가서 맥주나 마시고 구라파는 연구하지도 못하고 구라파를 알지도 못하는 동무들을 많이 알고있습니다.

루드위히: 당신은 독일민족이 자유보다도 질서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쓰딸린: 한때 독일에서는 확실히 법률을 대단히 존중하였습니다. 내가 1907년에 베를린에 가 2～3개월 있을 때 우리 로씨야볼쉐위크들은 법률을 그처럼 존중하는 일부 독일친구들을 종종 비웃었습니다. 례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사회민주당위원회가 아무날 아무때에 시위행진을 단행할것을 결정하였는데 거기에는 모든 교외의 조직원들이 반드시 다 참가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외에서 오는 200명의 조직원을 가진 한 그루빠는 지정된 시간에 바로 시내에 도착

하고도 시위행진에는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은 두시간동안이나 정거장의 플래트홈에 서서 감히 나가려고 하지 못하였기때문입니다. 출구에 표를 받는 역원이 없어서 아무에게도 표를 주지 못하였던것입니다. 로씨야동지가 나타나서 독일사람들에게 간단한 출로 즉 표를 주지 않고 플래트홈을 나가는것을 가리켜주어야 하였다고 롱담삼아 말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 지금 독일에 이와 류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 지금 독일에서 법률이 존중받고있습니까? 자산계급적법률을 누구보다도 더 수호하여야 할 국가사회주의자63들자신이 이 법률을 파괴하고있으며 로동자구락부를 파괴하고있으며 로동자들을 비법적으로 학살하고있지 않습니까?

나는 로동자들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벌써 자산계급적법률을 존중하지 않은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인은 근래에 상당히 변하였습니다.

루드위히: 어떠한 조건하에서 로동계급이 한 당의 지도하에 종국적으로 완전히 단합될수 있습니까? 왜 공산주의자들이 말한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그와 같은 단합은 무산계급혁명후에만 가능합니까?

쓰딸린: 무산계급혁명의 승리로 하여 공산당의 주위에의 로동계급의 그와 같은 단합은 무엇보다도 쉽게 실현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할바없이 혁명전에 벌써 기본적으로 실현될것입니다.

루드위히: 공명심은 위대한 력사적인물의 활동에 대하여 자극으로 됩니까, 장애로 됩니까?

쓰딸린: 조건이 다름에 따라서 공명심의 역할은 다릅니다. 조건여하에 따라서 공명심은 위대한 력사적인물의 활동에

대하여 자극으로도 장애로도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로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루드위히: 10월혁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프랑스대혁명의 계속이며 완성이 아닙니까?

쓰딸린: 10월혁명은 프랑스대혁명의 계속도 완성도 아닙니다. 프랑스혁명의 목적은 자본주의의 확립을 위한 봉건제도의 청산이였습니다. 그런데 10월혁명의 목적은 사회주의의 확립을 위한 자본주의의 청산이였습니다.

1932년 4월 30일 잡지 《불쉐위크》 제8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3권, 93~109페지

제1차전련맹집단농장돌격대원 대회[64]에서 한 연설

(1933년 2월 19일)

남녀집단농장원동지들! 나는 당신들의 대회에서 연설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리유는 이미 앞에서 연설한 동지들이 말하여야 할것을 다 말하였고 또 정확하게 잘 말하였기때문이다. 그래도 역시 발언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동지들이 꼭 말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때문에 또 동지들에게 권력이 있기때문에(계속되는 박수) 나는 복종하지 않을수 없다.

나는 개별적인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몇마디 말하려 한다.

1

집단농장의 길은 유일하게 옳은 길이다

첫째 문제: 집단농장농민들이 나아가고있는 길은 옳은 길인가? 집단농장의 길은 옳은 길인가?

이 문제는 쓸데없는 문제가 아니다. 집단농장돌격대원들인 당신들은 집단농장이 옳은 길에 서있다는것을 의심하지 않을것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동무들에게는 쓸데없는 문제로 보일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모든 농민들이 다 당신

들처럼 생각하고있는것은 아니다. 집단농장원들도 포함한 농민들중에는 집단농장의 길이 옳은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 적지 않게 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몇백년동안 옛날식으로 살아왔고 낡은 길을 걸어왔으며 부농과 지주, 고리대금업자와 투기업자들 앞에서 허리를 굽실거려왔다. 이 낡은 자본주의적길이 농민들의 찬성을 받아왔다고는 말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이 낡은 길은 익숙하고도 습관된 길이며 그리고 아직 아무도 사실로써 달리 더 잘살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사람들이 아직도 옛날식으로 살고있기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그런데 볼쉐위크들은 폭풍우와도 같이 이 낡고 지저분한 생활에 갑자기 뛰여들어 낡은 길을 태버리고 새로운 식으로 집단농장생활을 할 때가 되였다. 모든 사람들이 자산계급국가들에서 사는것처럼 살것이 아니라 새로운 식으로, 로동조합식으로 생활을 시작할 때가 되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새생활이란 어떤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이 새생활이 낡은 생활보다 못하지나 않을는지. 어쨌든 새길은 낯설고 익숙하지 못하고 아직 완전히는 답사되지 못한 길이다. 낡은 길에 머물러있는것이 더 좋지 않을가? 새로운 집단농장의 길로 넘어가는것을 좀 두고보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가?

지금 일부 근로농민들은 바로 이러한 의문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가 이 의문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의문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때문에 우에서 제기된 문제는 쓸데없는 문제라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면 집단농장농민들이 걷고있는 길은 옳은 길인가?

어떤 동지들은 새길에로의 즉 집단농장의 길에로의 이행은 우리 나라에서는 3년전에 시작되였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옳을뿐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대중적인 집단농장건설은 3년전에 시작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이 이행은 부농층이 격멸되고 수백만의 빈농과 중농 대중이 집단농장에 가입하는것으로써 표징된다. 이 모든것은 다 옳다. 그러나 집단농장에로의 이와 같은 대중적인 이행을 시작하기 위하여서는 몇가지 예비조건, 즉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없이는 대중적집단농장운동은 상상할수조차 없는 몇가지 예비조건이 구비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먼저 농민들이 집단농장의 길에 들어서는것을 도와주었으며 또 계속 돕고있는 쏘베트정권을 가져야 하였다.

둘째로는 지주와 자본가를 몰아내고 그들의 공장과 토지를 빼앗아서 인민의 소유로 선언하여야 하였다.

셋째로는 부농층을 제어하고 그들의 농기계와 뜨락또르를 빼앗아야 하였다.

넷째로는 집단농장에 가입한 빈농과 중농들만이 기계와 뜨락또르를 사용할수 있다는것을 선포하여야 하였다.

끝으로 집단농장농민들에게 기계와 뜨락또르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나라를 공업화하며 새로운 뜨락또르공업을 건설하며 새로운 농기계제조공장들을 건설하여야 하였다.

이와 같은 예비조건이 없이는 3년전에 시작된 집단농장의 길에로의 대중적이행이란 상상할 여지도 없었을것이다.

그러므로 집단농장의 길로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10월혁명을 진행하고 자본가와 지주를 타도하고 그들

에게서 토지와 공장을 빼앗고 새 공업을 건설하여야 하였다.

새길, 즉 집단농장의 길에로의 이행은 10월혁명때부터 시작되였다. 이 이행이 3년천에 비로소 발랄하게 전개된것은 10월혁명의 경제적결과가 그때에야 비로소 전면적으로 나타났으며 그때에 와서야 비로소 나라의 공업화를 앞으로 추진시킬 수 있었기때문이다.

각국 인민들의 력사에는 적지 않은 혁명이 있었다. 이러한 혁명들은 다 일면적인 혁명이였다는 점에서 10월혁명과는 다르다. 근로자들에 대한 한 착취형태가 다른 한 착취형태로 바뀌여지기는 했으나 착취 그자체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였었다. 일부 착취자들과 압박자들이 다른 일부 착취자와 압박자로 바뀌여지기는 했으나 그 착취자와 압박자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오직 10월혁명만이 온갖 착취를 근절하며 모든 착취자와 압박자를 소멸할것을 자체의 목적으로 삼았던것이다.

노예혁명은 노예주를 소멸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노예제적 착취형태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 혁명은 농노주와 근로자들에 대한 농노제적착취형태로써 노예주와 노예제적착취형태를 대체하였다. 일부 착취자가 다른 일부 착취자로 바뀌였던것이다. 노예제도하에서는 《법률》은 노예주가 노예를 죽이는것을 허용하였다. 농노제도하에서는 《법률》은 《다만》 농노주가 농노를 파는것만을 허용하였다.

농노혁명은 농노주를 소멸하고 농노제적착취형태를 철폐하였다. 그러나 그 혁명은 농노주와 농노제적착취 대신에 자본가와 지주, 근로자들에 대한 자본가적 및 지주적 착취형태를 내놓았다. 일부 착취자가 다른 일부 착취자로 바뀌였던것이다. 농노제도하에서는 《법률》은 농노를 파는것을 허용하였다.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법률》은 《다만》 근로자들이 실

업당하고 파산당하고 굶어죽는것만을 허용한다.

오직 우리의 쏘베트혁명만이, 오직 우리의 10월혁명만이 일부 착취자를 다른 일부 착취자로 바꾸거나 한 착취형태를 다른 한 착취형태로 바꾸는것이 아니라 온갖 착취를 근절하며 낡은것이나 새것이나 할것없이 모든 착취자, 모든 부자와 압박자를 송두리채 없애도록 문제를 제기하였던것이다.(계속되는 박수)

바로 이때문에 10월혁명은 새로운 집단농장의 길에로의 농민들의 이행을 위한 예비조건이며 필요한 전제조건인것이다.

농민들이 10월혁명을 지지한것은 옳았는가? 그렇다, 그들은 옳았다. 10월혁명은 그들을 도와 지주와 자본가, 고리대금업자와 부농, 상인과 투기업자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였기때문에 그들은 옳았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문제의 한 면일따름이다. 압박자를 쫓아버리고 지주와 자본가를 쫓아버리고 부농과 투기업자를 제어하는것—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낡은 질곡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되기 위하여서는 착취자들을 쳐없애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또 새생활을 건설하여야 한다. 즉 근로농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처지를 개선할수 있게 하며 날마다 해마다 향상할수 있게 하는 그러한 생활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새 제도 즉 집단농장제도를 세워야 한다. 여기에 문제의 다른 한 면이 있다.

낡은 제도는 새로운 집단농장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낡은 제도하에서는 농민들은 제각기 혼자서 일하였으며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낡은 방법과 낡은 농구로써 일하였으며 지주와 자본가, 부농과 투기업자를 위하여 일하였으며 다른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배를 굶으면서 일하였다. 새

로운 집단농장제도하에서는 농민들은 로동조합의 방식으로 공동적으로 일하며 새 농구 즉 뜨락또르와 농업기계를 가지고 일하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집단농장을 위하여 일하며 자본가와 지주, 부농과 투기업자가 없이 살며 자기의 물질적 및 문화적 처지를 날마다 개선하기 위하여 일한다. 낡은 제도하에서는 정부는 자산계급정부이며 그 정부는 근로농민을 반대하고 부자를 지지한다. 새로운 집단농장제도하에서는 정부는 로농정부이며 이 정부는 모든 부자를 반대하고 로동자와 농민을 지지한다. 낡은 제도는 자본주의에 이르게 한다. 새 제도는 사회주의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가지 길, 즉 자본주의길과 사회주의길이며 사회주의에로의 전진의 길과 자본주의에로의 후퇴의 길이다.

그 어떤 셋째의 길에 나설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단농장의 길이 옳다는것을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동요하고있는 일부 동지들은 누구도 모르는 이 셋째의 길을 택하기를 특히 즐겨한다. 그들은 우리가 낡은 제도에로, 개인경영에로, 그러나 자본가와 지주가 없는데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우리 나라 경제제도의 합법적 현상으로서 부농과 기타의 소자본가《만을》 허용하기를 원한다. 기실 이것은 셋째의 길이 아니라 둘째 길 즉 자본주의에로 가는 길이다. 개인경영에로 돌아가며 부농층을 다시 부활시킨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부농적예속을 부활시키며 농민에 대한 부농층의 착취를 부활시키고 부농에게 권력을 준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부농층을 부활시키고도 동시에 쏘베트정권을 확보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럴수는 없다. 부농층을 부활지키는것은 부농정권을 수립하며 쏘베트정권을 취소하는데 이르지 않을수 없게 할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자

산계급정부의 성립에 이르지 않을수 없게 할것이다. 그리고 자산계급정부의 성립은 또 지주와 자본가의 부활과 자본주의의 부활에 이르지 않을수 없게 할것이다. 이른바 셋째의 길이라는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둘째의 길, 즉 자본주의에로 되돌아가는 길인것이다. 부농적예속을 부활시키고 자본주의에로 돌아가며 쏘베트정권을 취소하고 지주와 자본가의 정권을 부활시키는것을 원하는가고 농민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근로농민의 대다수가 어떠한 길을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라고 인정하는가 하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두가지 길밖에 없다. 즉 전진, 번영—새로운 집단농장제도에로의 길이냐 아니면 퇴각, 몰락—낡은 부농적자본주의제도에로의 길이냐 하는것이다.

셋째의 길은 없다.

근로농민들이 자본주의적길을 버리고 집단농장을 건설하는 길에 들어선것은 옳은 일이다.

집단농장의 길은 옳은 길이기는 하나 그것은 어려운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옳다. 물론 이 길에는 곤난들이 있다. 아름다운 생활은 저절로 얻어지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되는 곤난은 이미 다 지나가고 당신들앞에 남은 곤난은 심중하게 대할것들이 못된다는 점에 있다. 여하튼 10～15년전에 로동자들이 체험하였던 곤난에 비하면, 집단농장원동지들, 당신들의 지금의 곤난은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당신들중의 여러 토론자들은 여기에서 한 자기들의 연설에서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하리꼬브, 돈바쓰의 로동자들을 칭찬하였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 로동자들에게는 성과가 많으나 당신들 집단농장원들에게는 성과가 훨씬 적다고 하였다. 그들의 연설에는 만일 우리 집단농장농민들도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돈바쓰, 하리꼬브…의 로동자들에게 있는것

파 같은 그러한 성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약간의 동지적인 부러움까지도 보였다고 나에게는 생각된다.

이것은 모두 좋은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의 로동자들이 이 성과들을 달성하는데 얼마만한 희생을 냈으며 이 성과들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빈궁을 겪었는가를 아는가? 나는 1918년에 로동자들이 지낸 생활중에서 몇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 한다. 즉 그때에는 로동자들에게 육류나 기타의 식료품은 더 말할것도 없고 몇주일동안씩이나 빵 한쪼각도 내주지 못한적이 있었다. 그때에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의 로동자들앞에 찌끼가 절반이나 섞인 검은 빵이 8분의 1파운드씩 차례지는 날이면 아주 좋은 날로 인정되였다. 그런데 그런 형편이 몇달이나 반년이 아니라 웅근 두해동안이나 계속되였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참았으며 락심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그들은 좋은 때가 올것이며 그들이 결정적성공을 얻게 되리라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였는가? 보는바와 같이 로동자들은 잘못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분의 곤난과 고생을 로동자들이 겪은 곤난과 고생과 비교하여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곤난과 고생은 심중하게 말할만한것도 못된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집단농장운동을 더 추진시키며 전력을 다하여 집단농장건설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모든 집단농장들이 완전히 보장된, 그리고 경작할만한 토지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그런 토지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렇다, 있다. 가장 좋은 토지가 모두다 집단농장에 넘어갔으며 또 집단농장에 확보되여있다는것은 다 아는바이다. 그러므로 집단농장원들은 그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지나 않을가 하는 념려도 없이 그 토지를 마음대로 경작하며 개량할수 있는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둘째로 집단농장원들이 뜨락또르와 기계를 리용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렇다, 있다. 우리의 뜨락또르공장과 농기계제조공장들에서 무엇보다도먼저 또 주로 집단농장들을 위하여 생산하며 모든 현대식기구를 집단농장에 공급하고있다는것은 다 아는바이다.

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정부가 전력을 다하여 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집단농장농민들을 지지하여 적대계급들의 잔여분자들에게 집단농장을 파괴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정부가 있는가? 그렇다, 있다. 이 정부는 로동자, 농민의 쏘베트정부라고 한다. 자본가와 지주, 부농과 기타의 부자들을 지지하지 않고 근로농민을 지지하는 정부가 있는 나라가 있으면 말하여보라. 그러한 나라는 세상에 없으며 또 있은적도 없다. 오직 우리 쏘베트나라에서만 모든 부자와 착취자들을 반대하고 로동자와 농민—집단농장원을, 도시 및 농촌의 모든 근로자들을 업연히 보호하고있는 정부가 있는것이다.(계속되는 박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집단농장건설을 전개하며 낡은 기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데 필요한 모든것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것은 다만 한가지, 즉 성실하게 일하며 집단농장의 수입을 로동에 따라서 분배하며 집단농장의 재산을 애호하며 뜨락또르와 기계를 애호하며 말을 잘 돌보며 여러분의 로동자-농민국가가 맡기는 임무를 수행하며 집단농장을 튼튼히 하며 그리고 집단농장에 기여든 부농과 부농의 앞잡이들을 집단농장에서 쫓아내는것이다.

여러분은 아마 이와 같은 곤난을 극복하는것, 다시말하면 성실하게 일하며 집단농장의 재산을 애호하는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나의 의견에 동의할것이다. 지금 여러

분이 부자를 위하거나 착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집단농장을 위하여 일하고있기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로부터 여러분은 집단농장의 길 즉 사회주의의 길은 근로농민들을 위한 유일한 옳은 길이라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2
우리의 당면과업은 모든 집단농장원들을 부유하게 만드는것이다

둘째 문제: 우리는 새길 즉 우리의 집단농장의 길에서 무엇을 성취하였으며 또 앞으로 2~3년동안에 무엇을 성취하려고 생각하고있는가?

사회주의—이것은 좋은 일이다. 행복한 사회주의적생활—이것은 두말할것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장래의 일이다. 지금 주되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성취할것인가에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무엇을 이미 성취하였는가에 있는것이다. 농민은 집단농장의 길에 들어섰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농민은 이 길에서 무엇을 성취하였는가? 집단농장의 길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뚜렷하게 성취한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수백만의 빈농대중이 집단농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을 도와주는데 성공하였다. 우리는 수백만의 빈농대중이 집단농장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토지와 가장 좋은 생산도구를 리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중농의 수준에까지 향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우리는 이전에 굶다싶이 살아오던 수백만의 빈농대중이 지금 집단농장에서 중농으로 되고 생활이 보장된 인간

들로 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우리는 농민들이 빈농층과 부농층으로 분화되는 현상을 없애버리고 부농을 분쇄하여 빈농들로 하여금 집단농장에서 자기 로동의 주인으로 되며 중농으로 되도록 도와주는데 성공하였다.

4년전 즉 집단농장건설이 전개되기전의 사태는 어떠하였는가? 부농은 부유해지고 번영하여갔다. 빈농은 가난해지고 령락하여 부농의 노예로 되여갔다. 중농은 부농의 지위로 기여오르려다가는 번마다 아래로 굴러떨어져 빈농의 대렬을 보충하였으며 부농의 웃음거리로 되였다. 이러한 혼란속에서는 다만 부농들만이,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부유한 농민들만이 득을 보았으리라는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당시 농촌의 매 100호의 농호마다에 부농 4~5호, 부유한 농민 8호 내지 10호, 중농 45~50호, 빈농 약 35호가 있었다. 그러므로 부농적예속의 멍에를 벗수밖에 없었던 빈농은 적어도 전 농호의 35%였다. 나는 그 처지로 보아 빈농과 별로 차이가 없으며 또 부농에게 직접 예속되여있던 중농의 반수를 넘는 경제력이 약한 중농층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으련다.

우리는 집단농장건설을 전개함으로써 이 혼란과 불공정성을 없애버렸고 부농적예속을 짓부셔버렸으며 이 모든 빈농대중을 집단농장에 흡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보장된 생활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집단농장의 토지와 집단농장에 부여된 특전, 뜨락또르와 여러가지 농기계를 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을 중농의 수준에까지 올려세우는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적어도 2,000만이나 되는 농촌주민 즉 2,000만이나 되는 빈농을 빈궁과 령락에서 구출하였으며 그들을 부농적예속에서 구출하여 집단농장에 의하여 생활이 보장된 인간들로 전환시켰다는것을 의미

한다.

동지들, 이것은 거대한 성과이다. 이것은 아직까지 세상에 없었고 어떠한 국가도 아직까지 달성한적이 없는 성과이다.

이것이 곧 집단농장건설사업의 실제적이며 뚜렷한 결과이며 농민이 집단농장의 길에 들어선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은 집단농장건설에서의 우리의 첫걸음이며 우리의 첫성과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 첫걸음, 이 첫성과에 머물러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일것이다. 아니다, 동지들, 우리는 이 첫성과에 머물러있을수 없다.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며 집단농장을 철저히 공고화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둘째 걸음을 내디디여야 하며 우리는 새 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이 둘째 걸음이란 어떠한것인가? 그것은 집단농장원들을 —이전의 빈농도, 이전의 중농도—더 높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집단농장원들을 부유해지도록** 하는것이다. 그렇다, 동지들, 부유하게 만드는것이다.(계속되는 박수)

우리는 집단농장에 의하여 빈농을 중농의 수준에까지 올라서게 할수 있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집단농장원이 즉 이전의 빈농도 이전의 중농도 모두 부유한 농민의 수준에까지 향상되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달성할수 있는 일이며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달성하여야 할 일이다.(계속되는 박수)

우리에게는 지금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이 있다. 우리의 기계와 뜨락또르는 지금 잘 리용되지 못하고있다. 우리의 토지는 그다지 잘 경작되지 못하고있다. 기계와 뜨락또르의 리용상태를 개선하기만 한다면, 토지의 경작상태

를 개선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산량을 2, 3배나 더 높일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모든 집단농장원들을 집단농장의 전야에서 일하는 부유한 근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으로써 완전히 충분하다.

이전에는 부유한 농민들의 사정은 어떠하였는가? 부유한 농민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웃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며 그들을 착취하며 그들과의 매매에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들이며 고농을 여러 명 고용하며 그 고농을 기껏 착취하며 자본이나 좀 모으며 그리하여 자기의 지위를 풍고히 한 다음에 부농의 지위로 올라가야 하였다. 바로 이때문에 이전의 개인경영하에서는 부유한 농민들이 빈농과 중농의 불신임과 증오를 샀다. 지금은 사태가 다르다. 지금은 조건도 다르다. 부유한 집단농장원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지금은 자기의 이웃사람들을 해롭게 하거나 착취할 필요가 전혀 없다. 더우기 지금은 사람을 착취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우리에게는 토지의 사적소유나 소작제가 이미 없고 기계와 뜨락또르는 국가소유로 되여있으며 자본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지금 집단농장에서 행세하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한 일이 류행한 때도 있었으나 그것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부유한 집단농장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다만 한가지—집단농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뜨락또르와 기계를 옳바로 리용하며 역축을 옳바로 부리며 토지를 옳바로 경작하며 집단농장의 재산을 애호하는것만이 요구된다.

사회주의가 있는데 무엇때문에 일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전에도 일하였고 지금도 일하고있다. 이제는 일하는것을 그만둘 때가 아닌가? 동지들, 이러한 말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이것은 게으름뱅이의 철학이지 성실한 근로자들의 철학은 아니다. 사회주의는 결코 로동을

부정하지 않는다. 도리여 사회주의는 로동을 기초로 하여 건설되는것이다. 사회주의와 로동은 서로 갈라놓을수 없는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 레닌은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이며 레닌의 이 말은 누구를 반대하여 말한것인가? 착취자를 반대하여 즉 자기는 일하지 않고 남에게 로동을 강박하며 남을 희생시켜 부자가 되는 그런자들을 반대하여 말한것이다. 그리고 또 누구를 반대하여 말하였는가? 자신은 게으름을 부리면서 남의 등을 쳐서 살아보려는자들을 반대하여 말한것이다. 사회주의는 게으름뱅이노릇을 할것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실하게 일하며, 남을 위하여 부자와 착취자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일할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성실하게 일하고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집단농장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한다면 우리는 한 2~3년동안에 모든 집단농장원을, 이전의 빈농이나 이전의 중농을 모두 부유한 농민의 수준에까지, 생산물을 넉넉하게 가지며 완전히 문화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릴수 있을것이다.

여기에 현재 우리의 당면과업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달성할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든지 달성하여야 한다.(계속되는 박수)

3

몇가지 의견

이제는 몇가지 문제에 넘어가기로 하자.

우선 우리의 농촌당원들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당원도 있으나 비당원이 더 많다. 당원보다 비당원이 더 많이 대회에 모인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왜냐 하면 바로 비당원을 우선 우리의 사업에 끌어넣어야 하기때문이다. 비당원인 집단농장원을 볼쉐위크적으로 대하는 공산당원들이 있다. 그러나 자기가 당원이라고 거만을 부리며 비당원을 가까이하지 않는 그런 당원들도 있다. 이것은 좋지 않으며 해로운 일이다. 볼쉐위크의 힘, 공산당원의 힘은 그들이 수백만의 비당원열성자들을 우리 당 주위에 단합시킬줄 아는데 있다. 만일 당에 대한 수백만의 비당원로동자 및 농민의 신임을 전취할줄 몰랐다면 우리들 볼쉐위크들은 현재와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이것을 위하여서는 당원은 비당원과의 사이에 울타리를 치지 말며 당원은 당이라는 테두리안에 들어앉아있지 말며 자기가 당원이라고 거만을 부리지 말며 비당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비당원을 가르칠뿐만아니라 비당원에게서 배워야 한다.

당원이란 하늘에서 떨어진것이 아니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모든 당원들은 그들자신이 한때는 비당원이였다는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오늘은 그가 비당원이지만 래일은 당원이 될것이다. 대체 무엇을 가지고 거만을 부리는가? 우리 로볼쉐위크들중에는 당내에서 20~30년동안 사업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들자신도 한때는 역시 비당원이였다. 만일 약 20~30년전에 그때의 당원들이 우리를 천대하고 우리를 당에 접근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였을것인가? 그랬더라면 우리는 여러해동안 당과 떨어져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동지들, 우리들 로볼쉐위크들은 결코 가장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장내가 흥성거리며 계속되는 박수)

바로 이렇기때문에 비당원들앞에서 때때로 우쭐대는 우리

당원들, 오늘날의 젊은 당원들은 반드시 이 모든것을 기억하여야 하며 불쉐위크들을 아름답게 하는것은 거만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태도라는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제는 녀성에 대하여, 녀성집단농장원들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려 한다. 동지들, 집단농장에서 녀성문제는 큰 문제이다. 나는 여러분들가운데의 많은 사람들이 녀성들을 경시하며 지어는 그들을 비웃기까지 한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동지들, 이것은 잘못이다, 큰 잘못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녀성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보다도 집단농장운동이 훌륭하고 유능한 많은 녀성들을 지도적지위에 등용하였다는 점에 있는것이다. 이 대회와 그 구성을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녀성들이 오래전에 벌써 락후자로부터 선진자로 발전하였다는것을 볼것이다. 집단농장의 녀성은 큰 힘이다. 이 힘을 파묻어둔다는것은 죄를 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의무는 집단농장의 녀성들을 전진시키며 그 힘을 발동시키는것이다.

물론 쏘베트정권도 바로 얼마전에 녀성집단농장원에 대한 자그마한 오해를 가지고있었다. 문제는 젖소에 관한것이였다. 그러나 지금에는 젖소에 대한 문제가 풀리였고 그리하여 오해는 풀리였다.(계속되는 박수) 우리는 대다수의 집단농장원이 벌써 매호마다 젖소 한마리씩 가질수 있도록 할수 있었다. 이제 한두해 더 지나가면 자기의 젖소를 가지지 못한 집단농장원을 한사람도 찾아내지 못할것이다. 우리 볼쉐위크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집단농장원이 다 젖소 한마리씩은 가지도록 노력할것이다.(계속되는 박수)

녀성집단농장원들자신에 관해서 말하면 그들은 집단농장이 녀성을 위해서 어떠한 힘과 의의를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기억하여야 하며 다만 집단농장에서만 그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지위에 설수 있다는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집단농장이 없이는 평등이 없으며 집단농장에서만 평등이 있다. 녀성집단농장원 동지들은 이것을 기억하여야 하며 집단농장제도를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여겨야 한다.(계속되는 박수)

집단농장의 **남녀공청맹원들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려 한다. 동지들,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희망이다. 청년들은 우리 늙은 사람들과 교대하여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기치를 최후의 승리까지 추켜들고 나아가야 한다. 농민들중에는 낡은 집에 억눌려있고 낡은 생활의 습관과 추억에 억눌려 있는 늙은이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들이 언제나 당과 쏘베트 정권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있다는것은 물론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낡은 집에서 벗어나있으며 또 누구보다도 쉽게 레닌의 유훈을 체득할수 있다. 바로 청년들이 누구보다도 쉽게 레닌의 유훈을 체득하기때문에 그들은 뒤떨어진 동요분자들을 앞으로 인도할 사명을 지니고있는것이다. 그들에게 지식이 부족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은 얻을수 있는것이다. 그것은 오늘은 없다가도 래일에는 있을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과업은 레닌주의를 배우고 또 배우는것이다. 남녀공청맹원동지들! 볼쉐위크주의를 배우라, 그리고 동요분자들을 앞으로 인도하라! 좀 적게 떠들고 좀더 많이 일하라.—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필연코 성공할것이다.(박수)

개인농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려 한다. 여기에서는 개인농에 대하여 많이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농이 이미 세상에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개인농들은 있으며 또 그들은 래일의 우리 집단농장원들이기때문에 그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개인농의 일부가 완전히 타락하여 투기업에 몰두하였다는것을 알고있다. 우리의 집단농장원들이 개인농들을 엄격히

선택하여 집단농장원으로 받아들이며 어떤 때에는 그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것도 필시 이때문일것이다. 이것은 물론 옳은 일이며 이것을 반대할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농중에는 투기업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기의 식량을 벌고있는 다른 큰 부분이 있다. 이 개인농들은 아마 집단농장에 가입하려는 생각이 없지도 않을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집단농장의 길이 정당하다는데 대하여 의혹을 품고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집단농장원들이 개인농들에 대하여 랭혹한 태도를 취하고있기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집단농장에 들어오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물론 집단농장원들을 리해하여야 하며 그들의 처지를 알아주어야 한다. 이 몇해동안에 그들은 개인농들의 모욕과 조소를 적지 않게 받아왔다. 그러나 모욕과 조소가 여기서 결정적의의를 가져서는 안된다. 모욕을 잊어버릴줄 모르며 자기의 감정을 집단농장사업의 리익보다 더 높이 내세우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도자로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개개의 개인농들에게서 받은 모욕을 잊어버릴줄 알아야 한다. 나는 2년전에 볼가강연안에 사는 한 과부농민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 녀자는 자기를 집단농장에 받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나의 도움을 요구하였다. 나는 집단농장에 알아보았다. 그 집단농장에서는 그 녀자가 집단농장의 회의를 모욕하였으므로 그를 집단농장에 받아들일수 없다고 나에게 회답하였다. 어떻게 된 일인가? 사연인즉 이러하다. 농민들의 어느 한 회의에서 집단농장원들이 집단농장에 들라고 개인농들에게 권유하자 바로 이 과부는 권유에 대한 대답으로 치마자락을 들고 옛다 이 집단농장이나 받으라고 한 일이 있었다!(장내가 흥성거린다, 웃음소리) 그 녀자가 옳지 않게 행동하였으며 회의를 모욕하였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1년후에 그 녀자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였다면 그 녀자가 집단농장에 들어오겠다는것을 거절할수 있겠는가? 나는 그 녀자를 거절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집단농장에 이 의견을 써보냈다. 과부를 집단농장에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였는가? 지금 그 녀자는 집단농장에서 뒤꼬리에서가 아니라 앞장에 서서 일하고있다.(박수)

여러분, 이것은 만일 지도자들이 진정한 지도자로 되려면 사업의 리익이 요구할 때에는 모욕을 잊어버릴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실례이다.

일반 개인농에 대하여서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하여야 한다. 나는 개인농을 엄격히 선택하여 집단농장에 받아들이는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구별없이 모든 개인농에 대하여 집단농장에 들어갈 길을 막아버리는것을 반대한다. 그것은 우리의 정책, 볼쉐위크적정책이 아니다. 집단농장원들은 그들자신이 얼마전까지 개인농이였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으로 **베젠츄크집단농장원들의 편지**①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려 한다. 이 편지는 출판물에 게재되였으므로 여러분은 그 편지를 읽었을것이다. 이 편지는 두말할것도 없이 좋은 편지이다. 이 편지는 우리의 집단농장원들가운데 우리 나라의 자랑으로 되는 경험있고 자각있는 집단농장사업의 조직자 및 선전자가 적지 않게 있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아무리하여도 찬동할수 없는 옳지 않은 한구절이 있다. 문제는 베젠츄크의 동지들이 집단농장에서 하는 자기들의 로동은 사소하고 거의 보잘것없는 로동이며 가끔 장황하게 연설하는 연설자들과 지도자들의 로동은 위대하고 창조적인 로동으로 간주하고있다는데 있다. 이에 찬동할수 있겠는가? 아

① 1933년 1월 29일부 《쁘라우다》지 제28호에 게재된 중부볼가변강(지금의 꾸이븨쉐보주)의 베젠츄크기계뜨락또르임경소작업지구의 집단농장원들이 쓰딸린에게 보낸 서한을 념두에 두고있다.—편집자

니다, 동지들, 아무리하여도 이에 찬동할수는 없다. 베젠츄크의 동지들은 여기에서 파오를 범하였다. 그들은 겸손하기때문에 이와 같은 파오를 범한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파오가 되지 않는것은 아니다. 수령들을 력사의 유일한 창조자로 간주하고 로동자와 농민은 무시되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다만 수령들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보다도먼저 그리고 주로 수백만의 근로자대중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다. 공장, 탄광, 철도,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말없이 건설하며 생활의 모든 부를 창조하며 전 세계에 입을것과 먹을것을 공급하는 로동자와 농민—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며 새생활의 창조자인것이다. 아마 우리의 베젠츄크의 동지들은 이것을 잊고있는듯하다.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과대평가하며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기 시작하는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자고자대를 가져오는데 자고자대는 좋지 않은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그들의《겸손하고》《눈에 보이지 않는》로동이 사실상 력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대한 창조적로동이라는것을 보지 못하는것은 더욱 좋지 않은 일이다.

나는 베젠츄크의 동지들이 그들의 편지에 대한 나의 이 조그마한 수정을 접수해주기를 바라는바이다.

동지들, 이것으로써 나의 말을 끝내려 한다.

(박수가 오래동안 계속되다가 환호로 변한다. 전체 기립하여 쓰딸린동지에게 경의를 드린다.《우라》소리. 장내에서《쓰딸린동지 만세, 우라! 집단농장원 만세! 우리의 수령 쓰딸린동지 만세!》하는 소리가 울린다.)

1933년 2월 23일《쁘라우다》제53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3권, 212~229페지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제17차 대회[65]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발취)

(1934년 1월 26일)

3

당

당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자.

이번 대회는 레닌주의의 완전한 승리의 기발밑에서, 반레닌주의적집단의 잔재가 청산된 기발밑에서 진행되고있다.

뜨로쯔끼파의 반레닌주의적집단은 분쇄되여 흩어졌다. 그 조직자들은 지금 국외의 자산계급정당들의 뒤뜰에서 서성거리고있다.

반레닌주의적우익분자들도 분쇄되여 산산이 흩어졌다. 이 조직자들은 벌써 자기의 견해를 버린지 오래며 지금에 와서는 당앞에서 속죄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있다.

민족주의적편향자들의 집단도 분쇄되여 산산이 흩어졌다. 그 조직자들은 무력간섭을 지지하는 망명객들과 완전히 결탁하였거나 혹은 자기의 죄과를 자백하고말았다.

이러한 반혁명적집단에 참가하였던자들의 대다수는 부득

이 당의 로선의 정당성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게 되자 당앞에 항복하였다.

제15차대회3에서는 아직 당로선의 정당성을 증명하여야 하였고 저명한 반레닌주의적집단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또 제16차대회66에서는 그러한 집단의 마지막심복자들을 쳐없애지 않으면 안되였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아무것도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아마 쳐야 할 사람도 없을것이다. 당의 로선이 승리한것을 모두가 보고있는것이다.(우뢰와 같은 박수)

나라의 공업화정책은 승리하였다. 그 결과는 지금 누구에게나 다 명백해졌다. 이 사실을 과연 반박할수 있겠는가?

부농에 대한 청산과 전반적집단화의 정책은 승리하였다. 지금은 그 결과도 누구에게나 다 명백해졌다. 이 사실을 과연 반박할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의 경험은 개별적인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가 완전히 가능하다는것을 증명하여주었다. 이 사실을 과연 반박할수 있겠는가?

이 모든 성과들, 무엇보다도 5개년계획의 승리가 온갖 반레닌주의적집단들을 종국적으로 격파하고 모조리 분쇄해버렸다는것은 명백하다.

지금에 와서 당이 과거의 그 어느때보다도 더 통일단결되였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할것이다.(오래동안 지속되는 우뢰와 같은 박수)

1. 정치사상적지도의 제 문제

그런데 이것은 이제는 투쟁이 끝났으며 사회주의의 계속적인 진공이 필요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또 이것은 우리 당내에서 만사가 다 잘되여가며 더는 아무러한 편향도 없을것이며 따라서 이제는 자만자족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당의 적들, 잡다한 기회주의자들, 각종 민족주의적편향자들은 분쇄되였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상잔재는 아직도 일부 당원들의 머리속에 살아있으며 또 이따금 그 본색을 나타내고 있다. 당을 그 주위의 사람들과 분리되여있는 그 어떤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당은 그 주위환경속에서 살고있으며 활동하고있다. 그러므로 흔히 건전하지 못한 기분이 외부로부터 당내에 들어오는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분을 배양하는 환경을 이루고있는 어떤 중간층의 주민이 도시에나 농촌에나 아직 존재한다는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기분을 발생시키는 지반이 우리 나라에 남아있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우리 당 제17차대표자회의[67]는 제2차5개년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치적과업의 하나가 《경제와 인간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적잔재를 극복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아주 옳은 생각이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에서 이미 모든 자본주의적잔재를 극복하였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다고 말할수는 없다.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적잔재를 극복하였다고는 더구나 말할수 없다. 그것은 사람들의 의식은 그 발전에 있어서 그들의 경제상태보다 뒤떨어지기때문일뿐만아니라 자본주의적포위가 계속 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이 자본주의적포위는 쏘련의 경제와 사람들의 의식속에 자본주의적잔재를 소생시키며 그것들을 지지하려고 애쓰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볼쉐위크들은 항상 이 자본주의적포위를 반대하여 싸울 준비가 되여있어야 한다.

이러한 잔재들이 우리의 일부 당원들의 머리속에 이미 분쇄된 반레닌주의적집단들의 사상을 소생시키는데 유리한 지반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밖에 우리 당원들의 다수가 리론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한것과 당기관들의 사상사업이 미약한 점, 우리 당 일군들이 순전히 실제사업에만 몰두하여 자기들의 리론지식을 보충할 가능성을 잃고있는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여러분은 레닌주의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개별적당원들의 머리속에서 일어나는 혼란, 우리의 출판물에 자주 나타나며 분쇄된 반레닌주의적집단의 사상적잔재를 쉽게 소생시키는 혼란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게 될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투쟁이 끝났다거나 또는 사회주의의 진공정책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레닌주의에서의 몇개 문제를 례를 들어, 분쇄된 반레닌주의적집단들의 사상잔재가 일부 당원들속에 아직도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하는것을 증명할수 있다.

계급이 없는 사회주의사회의 건설문제를 들어보자. 제17차당대표자회의에서는 우리가 계급이 없는 사회주의사회를 창설하는데로 나아가고있다고 말하였다. 물론 계급이 없는 사회는 저절로 올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전체 근로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무산계급독재기관을 강화하며 계급투쟁을 전개하며 계급들을 소멸하고 자본주의적계급들의 잔재를 청산하는 방법으로써 국내외의 적들과 투쟁하는 가운데서 전취하고 건설하여야 하는것이다.

보건대 문제는 명백한것 같다.

그러나 이처럼 명백하고 초보적인 레닌주의의 명제가 선포되자 일부 당원들의 머리속에 적지 않은 혼란과 건전하지 못한 기분이 야기되였다는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계급이 없는 사회에로의 전진에 관한 론점은 구호로 제기된것이였는데 그

들은 자연발생적인 과정으로 리해하였다.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하니까 그들은 계급투쟁도 무산계급독재도 완화시킬수 있으며 또 어차피 국가는 가까운 장래에 조락될것이니 국가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릴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래지 않아 계급은 없어질것이니 계급투쟁도 없어질것이며 따라서 근심걱정이 없게 될것인즉 무기를 던지고 계급이 없는 사회가 올것을 기다리면서 안심하고 잠잘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어리석게 기뻐하는것이다.(만장의 웃음소리)

이러한 두뇌의 혼란과 이러한 기분이 우익분자들의 견해와 꼭같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이 견해에 의하면 낡은것은 저절로 새것으로 자라나게 되며 그리하여 어느날 불시에 우리는 사회주의사회에 들어서게 되리라는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분쇄된 반레닌주의적집단들의 사상잔재는 되살아날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며 아직도 자기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있다.

만약 우리 당의 다수 당원들이 이러한 혼란된 견해와 비볼쉐위크적기분에 사로잡혔더라면 우리 당은 두말할것도 없이 동원해제나 무장해제의 상태에 빠졌을것이다.

다음에는 농업로동조합과 농업끔뮨에 대한 문제를 들어보자. 지금은 누구나 다 현재의 조건하에서 로동조합이 집단농장의 유일하게 옳은 형태라는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완전히 명백하다. 즉 (ㄱ) 로동조합은 집단농장원들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상 리익을 그들의 사회적리익과 옳게 결합시키는것이며 (ㄴ) 로동조합은 개인적인 일상생활상 리익을 그들의 사회적리익에 알맞게 적응시키므로 지난날의 개인농을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을 쉽게 하여주는것이다.

생산수단만 사회화된 로동조합과는 달리 끔뮨에서는 얼마

전까지 생산수단뿐만아니라 매개 사원의 생활까지도 사회화되여있었다. 다시말하면 꼼뮨의 매개 성원들은 로동조합의 성원들과는 달리 가금, 소가축, 젖소, 곡물, 터밭을 개인소유로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이것은 꼼뮨에서는 그 성원들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상의 리익이 고려되여 사회적리익과 결합된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개인적리익이 소자산계급적평균주의에 유리하게 사회적리익에 의하여 압살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꼼뮨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것은 명백하다. 꼼뮨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몇개 또는 몇십개밖에 없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같은 원인에 의하여 꼼뮨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며 파탄을 면하기 위해 부득이 개인살림살이의 사회화를 포기하고 로력일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곡물을 성원들에게 나누어주며 가금, 소가축, 젖소, 기타의 개인소유물을 허락하고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꼼뮨들이 로동조합으로 넘어갔다는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런 나쁜것도 없다. 왜냐 하면 대중적인 집단농장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되여야 하기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꼼뮨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그것이 앞으로는 집단농장운동의 최고형태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아니다. 그런것이 아니다, 꼼뮨은 필요한것이며 또 그것은 물론 집단농장운동의 최고형태인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이 발달되지 못하고 생산물이 부족한 토대우에서 산생하여 그자체가 로동조합으로 자연적으로 넘어가고있는 현재와 같은 꼼뮨이 아니라 보다 더 발달된 기술과 풍족한 생산물을 토대로 하여 산생하게 될 장래의 꼼뮨인것이다. 현재의 농업꼼뮨은 기술이 그리 발전하지 못하고 생산물이 부족한 토대우에서 생겨났다.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하여 이 꼼뮨은 평균제를 실시하였고 자기 성원들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상의 리익을 적게 돌보

았던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에 와서 농장원들의 개인적인 일상 생활상 리익과 사회상 리익을 합리적으로 련결시키는 로동조합으로 넘어가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장래의 꼼뮨은 발달하고 유족한 로동조합으로부터 자라나게 될것이다. 장래의 농업꼼뮨은 로동조합의 전야와 목장에 곡물, 가축, 가금, 남새 및 기타의 모든 생산물이 풍족하게 되고 로동조합에 기계화된 세탁소와 현대식 부엌, 식당과 빵공장 등등이 있게 되고 농장원들이 자기의 젖소와 소가축을 기르는것보다 목장으로부터 우유와 육류를 받는편이 낫다고 생각할 때, 녀장원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빵공장에서 빵을 타오고 공동세탁소에서 세탁한 내의를 찾아오는것이 자기 손으로 씻는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생길것이다. 장래의 꼼뮨은 보다 더 발전된 기술과 보다 더 발전된 로동조합을 토대로 하여, 풍족한 생산물을 토대로 하여 생길것이다. 언제 그렇게 될것인가? 물론 속히 될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꼭 실현될것이다. 로동조합이 장래의 꼼뮨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촉진시킨다면 그것은 범죄일것이다. 이것은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며 우리의 적들을 도와줄것이다. 로동조합이 장래의 꼼뮨으로 전화하는 과정은 모든 농장원들이 그 필요성을 확신하게 됨에 따라 점차로 진행되여야 한다.

로동조합과 꼼뮨에 대한 문제는 바로 이러하다.

보건대 문제는 명백하고 또 거의 초보적인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혼란에 빠져있다. 그들은 당이 로동조합을 집단농장운동의 기본형태로 선언함으로써 사회주의에서 물러섰으며 꼼뮨으로부터 즉 집단농장운동의 높은 형태로부터 낮은 형태로 퇴각하였다고 생각하고있다. 어째서 그런가? 그것은 로동조합에서는 그 성원들의 수요나 개인생활상에서의 차이가 남아있으므로

평등이 없지만 꼼뮨에는 그 성원들의 수요나 개인생활형편이 다 균등화되여있으므로 평등이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그렇지만 첫째로, 지금 우리 나라에는 수요와 개인생활 면에서의 균등화, 평균제가 존재하는 그러한 꼼뮨이 없다. 실천은 꼼뮨들이 평균제를 포기하지 않고 또 실지로 로동조합으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기필코 파멸되였으리라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원래 세상에 없는것을 론거로 할 필요는 없다. 둘째로, 어떤 레닌주의자이든지간에 그가 진정한 레닌주의자라면 수요와 개인생활 면에서의 평균제는 원시적금욕주의자들의 어떤 종파에나 합당할지 모르나 맑스주의적으로 조직된 사회주의사회에는 합당치 않은 반동적인 소자산계급적망상이라는것을 알것이다. 왜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꼭같은 수요와 취미, 개인생활에서의 꼭같은 양식을 요구할수는 없기때문이다. 끝으로 로동자들속에는 사실 수요와 개인생활에서 차이가 남아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로동자들이 농업꼼뮨의 성원들보다 사회주의에서 더 멀리 떨어져있다는것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사람들은 확실히 사회주의란 사회성원들의 수요와 개인생활에서 평균제, 균등화, 평등화를 요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러한 추측은 물론 맑스주의나 레닌주의와는 아무러한 공통점도 없다. 맑스주의는 평등이라는것을 개인의 수요나 일상생활에서의 평균제로 리해하는것이 아니라 계급들의 소멸로 리해한다. 즉 (ㄱ) 자본가들이 전복되고 수탈된 다음 모든 근로자들이 착취에서 꼭같이 해방되는것, (ㄴ)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넘어간 뒤에 그것에 대한 사적소유제가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폐지되는것, (ㄷ)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로동할 동등한 의무와 모든 근로자들이 다 자기의 로동에 따라 그 보수를 받을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것(**사회주의**사회), (ㄹ) 모두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로동할 동등한 의무와 이에 대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수요에 따라 그 보수를 받을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것(공산주의사회)이다. 동시에 맑스주의는 사회주의의 시기에 있어서나 공산주의시기에 있어서나 사람들의 취미와 수요는 질적으로도 량적으로도 동일하거나 균일하지 않으며 또 그럴수 없다고 인정한다.

이것이 곧 평등에 대한 맑스주의적리해이다.

맑스주의는 이외의 어떠한 평등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사회주의가 사회성원들의 수요의 평균제, 균등화, 평등화와 그들의 취미 및 개인생활의 평등화를 요구한다거나 맑스주의자들의 계획에 의하면 모두다 같은 의복을 입고다니며 같은 음식을 같은 분량으로 먹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것은 허튼소리이며 맑스주의를 중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맑스주의는 평균제의 적이라는것을 깨달을 때가 왔다. 이미 《공산당선언》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원시적인 공상적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그것은 《보편적인 금욕주의와 조잡한 평균주의》①를 설교함으로 반동적이라고 하였다. 《반듀링론》에서 엥겔스는 맑스주의적사회주의에 반대하여 제기한 《급진적인 평균주의적사회주의》를 신랄히 비판하는데 한개의 장을 다 바쳤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산계급적인 평등의 요구의 실제적내용은 어느 경우에나 계급의 소멸을 요구하는것이다. 이 범위를 초월하는 온갖 평등의 요구는 불가피하게 황당한것으로 되고만다.》②

레닌도 역시 이와 같은것을 말하였다.

---

① 《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364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146페지를 보라.—편집자

《평등의 개념은 계급폐절을 도외시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헛된 편견이라고 쓴 엥겔스는 천번이나 정당하였다. 평등의 개념에 대하여 운운하는 자산계급교수들은 우리가 마치도 한사람을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만들것을 원하고있는듯이 론증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스스로가 생각해낸 허튼소리를 마치 사회주의자들이 말한것같이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을 비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식하기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그리고 바로 현대의 과학적사회주의의 창시자들인 맑스와 엥겔스가—평등이란 말을 계급의 청산으로 리해하지 않는다면 평등이란 내용없는 문구에 불과하다고 말한것을 알지 못하였던것이다. 우리는 계급을 청산하려고 하며 이 면에서 우리는 평등을 지지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서로 평등하게 만들려고 한다는것, 이것은 지식인들의 공허한 언사이며 어리석은 허구인것이다.》(《자유와 평등의 구호로 인민을 기만하는데 관하여》란 레닌의 연설, 《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293～294페지)①

이만하면 명백하리라고 생각한다.

자산계급문필가들은 맑스주의적사회주의를 모든것을 평균제의 《원칙》에 종속시키던 옛날 짜리시대의 병영처럼 묘사하기를 즐겨한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자산계급문필가들의 무지와 우매에 대하여 책임질수 없다.

맑스주의적사회주의에 대한 개별적당원들의 견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혼란과 농업꼼뮨의 평균제적경향에 대한 도취는 우리의 《좌익》고집쟁이들의 소자산계급적견해와 똑같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이 《좌익적》고집쟁이들은 한때 농업꼼뮨을 극단으로 리상화하여 그들은 지어 꼼뮨을 우리의 공장에다가도 건립하려고까지 하였다. 그들은 이 꼼뮨에서 숙련로동자와 미숙련로동자들이 각각 자기의 직업에 따라 일하면서 임금을 한주머니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다음에 그것을 똑같이 나누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838페지를 보라.—편집자

게 하려는것이였다. 《좌익적》고집쟁이들의 이러한 평균제의 어린애장난이 우리의 공업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가 하는 것은 다 아는바이다.

보는바와 같이 분쇄된 반당집단의 사상잔재들은 상당한 생명력을 가지고있다.

만일 당내에서 이러한 《좌익적》견해가 승리하였더라면 당은 맑스주의적당으로 될수 없었을것이며 집단농장운동은 완전히 와해되고말았으리라는것은 명백하다.

또한 실례로 《모든 집단농장원들을 부유하게 만들자》라는 구호를 들어보자. 이 구호는 다만 집단농장원들에게만 관계되는것이 아니다. 이 구호는 로동자들에게 더 관계되는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는 모든 로동자들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기때문이다. 즉 부유하고 충분히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기때문이다.

문제는 명백한것 같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을 부유하게 살게 하지 못한다면 1917년 10월에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여러해동안 사회주의를 건설할 필요가 없었을것이다. 사회주의는 빈궁과 궁핍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빈궁과 궁핍을 없애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하여 부유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초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명백하고 또 본질상 초보적인 구호가 일부 당원들속에서 많은 의혹과 착란과 혼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이 구호가 당에서 배격한 낡은 구호—《부자가 되라》는 구호로 되돌아가는것이 아닌가고 말한다. 그들은 또 계속하여 모두가 다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는 없게 된다면 우리 볼쉐위크들은 자기의 사업에서 누구에게 의거하며 가난한 사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일하여나가겠는가고 말한다.

이것은 우스운 일일수 있으나 이러한 소박한 반레닌주의

적견해가 일부 당원들가운데에 있는것은 의심할수 없는 사실이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수 없는것이다.

아마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라》는 구호와 《모든 집단농장원들을 부유하게 만들자》는 구호와의 사이에는 심연이 놓여있다는것을 모르는것 같다. 첫째로, 부자가 되는것은 오직 **개별적인** 사람들이나 집단만이 될수 있지만 부유한 생활이란 구호는 개별적인 사람이나 개별적인 집단에 관한것이 아니라 **모든** 집단농장원들에 관한것이다. 둘째로, **개별적인** 사람이나 **개별적인** 집단이 부자로 된다는것은 그 나머지 사람들을 자기에게 종속시켜 **착취하기** 위한것이지만 **모든** 집단농장원들의 부유한 생활이란 구호는 집단농장의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여있는 조건하에서 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할 온갖 가능성을 **제거하는것**이다. 셋째로, 《부자가 되라》는 구호는 자본주의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부농들이 아직 세력을 가지고있었으며 국내에서 개인농경리가 아직 우세를 차지하고 집단농장경리는 맹아상태에 처하여있던 신경제정책의 초기단계에 내놓았던것이지만 《모든 집단농장원들을 부유하게 만들자》라는 구호는 공업에서 자본주의적요소가 소멸되였으며 농촌에서는 부농들이 격파되였으며 개인농경리가 뒤로 물러나고 집단농장이 농업에서의 지배적형태로 전환된 때인 신경제정책의 마지막단계에 와서 내놓은것이다. 나는 《모든 집단농장원들을 부유하게 만들자》라는 구호가 고립적으로 제기된것이 아니라 《집단농장들을 볼쉐위크적으로 만들자》라는 구호와 불가분적인 련관속에서 제기되였다는것에 대해서는 더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라》는 구호는 실질에 있어서 자본주의를 **부활시키라는** 호소였지만 《모든 집단농장원들을 부유하게 만들자》라는 구호는 집단농장들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모든 집단농장원들을 부유한 근로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마지막잔

제를 때려부시라는 호소였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옳습니다!》라고 웨치는 소리)

이 두 구호사이에는 아무러한 공통점도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옳습니다!》라고 웨치는 소리)

가난한 사람들이 없이는 볼쉐위크적사업도, 사회주의도 불가능한듯이 생각하는것은 말하기조차 창피한 어리석은 일이다. 레닌주의자들은 자본주의분자들도 있고 자본가들에게 착취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가난한 사람에 의거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분자들이 타도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로부터 해방된 때의 레닌주의자들의 과업은, 그 존재의 전제조건이 이미 없어진 빈궁과 가난한 사람들을 공고화하며 보존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빈궁을 없애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한 생활에까지 향상시키는데 있는것이다. 빈궁과 궁핍에 기초하여 개인의 수요를 축소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에까지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낮추는데 기초하여 사회주의가 건설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어리석은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자신은 가난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고 부유한 생활에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있다. 이런따위의 소위 사회주의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그것은 사회주의인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풍자인것이다. 사회주의는 오직 사회의 생산력이 급격히 장성하는 토대우에서만, 생산물과 상품이 풍족한 토대우에서만 근로자들의 부유한 생활의 토대우에서만, 문화수준이 급격히 장성하는 토대우에서만 건설될수 있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 맑스주의적사회주의란 개인의 수요를 축소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방으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는것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는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발전된 근로자들의 모든 수요를 전면적으로 또

충분히 만족시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빈궁과 부유한 생활에 대하여 일부 당원들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혼란한 견해는 어떠한 조건을 물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볼쉐위크주의의 영원한 기둥으로 리상화하며 또 집단농장을 무자비한 계급투쟁의 무대로 간주하는 우리의《좌익적》고접쟁이들의 견해의 반영이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보는바와 같이 이 문제에서도 분쇄된 반당적집단의 사상잔재가 아직도 자기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있는것이다.

이러한 고접쟁이들의 견해가 우리 당내에서 승리하였더라면 집단농장은 최근 두해동안에 달성한것과 같은 그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것이며 얼마 못가서 붕괴되고말았을것은 명백하다.

또 민족문제를 실례로 들어보자. 이 민족문제에서도 역시 일부 당원들은 다른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혼란된 견해를 가지고있다. 나는 자본주의의 잔재의 생명력에 대하여 말하였다. 사람들의 의식속에 있는 자본주의의 잔재는 다른 그 어느 분야에서보다도 민족문제의 분야에서 훨씬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그 잔재가 훨씬 강한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것은 민족의 외의로 잘 변장할 가능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스크리쁘니크의 죄과를 개별적이고 례외적인것으로 생각들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된 스크리쁘니크와 그 일파의 죄과는 례외적인것이 아니다. 그러한 오유는 다른 여러 민족공화국들에서도 일부 동지들에게서 볼수 있다.

대로씨야민족주의의 편향이나 혹은 지방민족주의의 편향이나를 막론하고 민족주의의 편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민족주의의 편향은 로동계급의 국제주의적정책을 자산계급의 민족주의정책에 순응시키는것이다. 민족주의편향은 쏘베

트제도를 허물고 자본주의를 회복하려는 《자기의》《민족》자산계급의 시도를 반영한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이 두 편향의 근원은 공통한것이다. 이 근원은 레닌적국제주의로부터 물러서는것이다. 만일 이 두 편향을 다 공격하려면 지방민족주의의 편향이거나 대로씨야민족주의의 편향이거나를 막론하고 우선 그 근원을 쳐부셔야 한다. 즉 국제주의에서 물러서려는 사람들을 쳐부셔야 한다.(우뢰와 같은 박수)

어느 편향이 주되는 위험으로 되는가. 대로씨야민족주의의 편향인가 아니면 지방민족주의의 편향인가 하는것을 론쟁들 한다. 현조건하에서 이것은 형식적이며 따라서 쓸데없는 론쟁이다. 무엇이 주되는 위험이고 무엇이 주요하지 않은 위험이냐 하는데 대하여 때와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기성적인 방법을 내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짓일것이다. 이러한 방법이란 세상에 없다. 주되는 위험은 우리가 편향과의 투쟁을 정지하여 그것이 국가적인 위험으로 되기까지 발전되는것이다.(오래동안 지속되는 박수)

바로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편향이 주되는 위험으로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편향들과의 투쟁을 그만둔 결과 그것이 무력간섭을 기도하는자들과 결탁하게까지 자라나자 이 편향은 주되는 위험으로 되였다. 민족문제분야에서의 주되는 위험에 관한 문제는 쓸데없는 형식적인 론쟁에 의하여 해결되는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태를 맑스주의적으로 분석하고 이 분야에서 범한 오유들을 연구할 때만이 해결된다.

일반적인 정책문제에서의 우익적편향과 《좌익적》편향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말해야 할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부 당원들은 혼란된 견해를 적지 않게 가지고있다. 그들은 우익적편향을 반대하여 투

쟁할 때 흔히 《좌익적》편향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거나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면서 그것과의 투쟁을 그만두거나 약화시킨다. 이것은 엄중하고도 위험한 오유이다. 이것은 당원으로서 용허할수 없는 《좌익적》편향에 대한 양보이다. 이것은 최근에 와서 《좌익》분자들이 우익분자들의 립장으로 아주 넘어가 본질상 후자와 아무러한 차이도 없게 된 사실을 놓고 볼 때 더구나 용허할수 없는것이다.

《좌익》분자들이란 좌익적언사로써 자기들의 우익적실질을 가장하는 우익분자들이라고 우리는 항상 언명하여왔다. 지금에 와서 《좌익》분자들은 자신이 우리의 이 언명을 실증하여주고있다. 뜨로쯔끼주의자들의 지난해의 《통보》[68]를 들어보라. 여기에서 뜨로쯔끼주의자 제씨는 무엇을 요구하고있으며 또 무엇에 대하여 쓰고있는가, 그들의 《좌익적》강령은 어떻게 표현되고있는가? 그들은 수익성이 없다 하여 **국영농장을 해산할것**을 요구하며 실속이 없다 하여 **대부분의 집단농장을 해산할것**을 요구하며 **부농소멸정책을 거부할것과 리권정책으로 돌아갈것**을 요구하며 수익성이 없다 하여 **우리의 많은 공업기업소들을 리권으로 넘겨줄것** 등등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보잘것없는 비접쟁이들과 투항주의자들의 강령이며 쏘련에서 자본주의를 복구하려는 반혁명적강령이다!

이것이 극단적우익분자들의 강령과 무엇이 다른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것은 명백하다. 결국 《좌익》분자들은 우익분자들과 동맹을 무어 공동으로 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익분자들의 반혁명적강령에 공공연히 련합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도 《좌익》이 위험하지 않다거나 덜 위험하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이러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레닌주의의 극악한 적들의 물방아에 물을 대여주는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보는바와 같이 여기에서도, 즉 당로선에서 리탈하는 여러 가지 편향의 분야에서도—일반적인 정책문제에서의 편향이거나 민족문제에서의 편향이거나를 물론하고 일부 당원들의 의식도 포함한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의 잔재는 상당한 생명력을 가지고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치사상사업의 신중하고도 절박한 몇가지 문제이다. 일부 당원들에게는 이 문제에서 모호한 견해와 혼란된 관념 지어는 레닌주의에서 로골적으로 리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실지 일부 당원들의 견해에 있는 혼란을 보여주는 문제들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런데도 우리 당내에서 모든것이 다 잘되여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렇게 말할수 없다.

정치사상사업면에서의 우리의 과업은 다음과 같다. 즉

(1) 리론수준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높일것,

(2) 당의 모든 고리에서 사상사업을 강화할것,

(3) 당대렬내에서 레닌주의선전을 꾸준히 진행할것,

(4) 당단체들과 그를 둘러싸고있는 비당원열성자들을 레닌주의적국제주의정신으로 교양할것,

(5)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리탈하는 일부 동지들을 묵과할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비판할것,

(6) 레닌주의에 적대되는 사상조류와 그 잔재들을 부단히 폭로할것이다.

2. 조직적지도의 제 문제

나는 우리의 성과에 대하여 말하였다. 즉 인민경제와 문화분야에서 그리고 당내 반레닌주의적집단들을 극복하는 분야에서 당로선이 승리한데 대하여 말하였으며 우리의 승리가 가

지는 전 세계사적의의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나 어느 면에서나 다 승리하였으며 모든 문제가 벌써 다 해결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러한 성과와 승리란 세상에 천혀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온갖 종류의 미해결문제와 결함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우리앞에는 해결을 요구하는 과업들이 가득 쌓여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심할것도 없이 긴급한 당면과업들의 대부분이 이미 성과적으로 해결되였다는것을 말해주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당이 거둔 거대한 승리는 의심할바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것은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실지로 어떠한 투쟁과 노력으로 달성되였는가 하는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당이 옳은 로선을 작성하여 그것을 누구나 다 알도록 공포하고 그것을 일반적인 제강이나 결정서의 형식으로 서술하여 일치하게 가결하기만 하면 승리가 저절로 말하자면 자연발생적으로 올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오직 고칠수 없는 관료주의자들이나 형식주의자들만이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성과들과 승리는 자연발생적으로 온것이 아니라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치렬한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것이다. 승리는 어느때나 저절로 오는 법이 없다. 그것은 항상 쟁취하여야 하는것이다. 당의 총로선에 대한 좋은 결정서와 선언서는 다만 사업의 시작에 불과하다. 왜냐 하면 이것들은 승리하려는 희망을 의미할뿐이지 승리 그자체를 의미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옳은 로선이 제기되고 문제가 옳게 결정된후의 사업성과는 조직사업에 달려있으며 당의 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사람들을 옳게 선발하며 지도기관들의 결정실행정형을 검열하는데 달려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당의 옳은 로선과 옳은 결정들이 심대한 파괴를 당할 위험이 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옳은 정치로선이 나온후에는 조직사업이 정치로선자체의 운명까지도 포함한 모든것 즉 그의 실행이나 혹은 실패까지도 결정한다.

사실상 승리는 당의 로선을 관철하는 도중에서 나타난 온갖 난관과의 끊임없는 치렬한 투쟁에 의하여, 이 난관들의 극복에 의하여, 이러한 난관의 극복에로 전당과 로동계급을 동원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며 무능한 일군을 해임하고 난관과의 투쟁에 능력있는 훌륭한 일군을 선발한것에 의하여 달성된것이며 전취된것이다.

이러한 난관들이란 도대체 어떠한것들이며 그것은 어디에 숨어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조직사업에서의 난관이며 우리의 조직지도상에서의 난관이다. 그런 난관은 우리들자체와 우리의 지도일군들, 그리고 우리의 조직들과 우리의 당, 쏘베트기관, 경제기관, 직업동맹, 공청동맹 등 모든 기관들에 숨어있는것이다.

우리의 당, 쏘베트기관, 경제기관 및 기타 모든 기관들과 그 지도자들의 힘과 위신이 전례없이 제고되였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그들의 힘과 위신이 전례없이 제고되였기때문에 바로 지금 모든것, 거의 모든것이 다 그들의 사업여하에 달려있는것이다. 소위 객관적조건을 구실로 삼는것은 옳지 않다. 당의 정치로선의 정당성이 다년간의 경험에 의하여 증명되였고 이 로선을 지지하려는 로동자, 농민의 각오가 명백해진 지금에 와서는 이른바 객관적조건의 역할은 최소한도로 줄어들었고 반면에 조직들과 그 지도자들의 역할은 결정적이고 절대적인것으로 되였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 사업에서의 결함과 부족점들에 대한 책임의 십중팔구가 《객관적》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들자신에,

오직 우리들에게만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우리는 200만이상의 당원과 후보당원, 400만이상의 공청맹원과 후보맹원을 가지고있으며 300만이상의 로농통신원을 가지고있다. 우리의 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에는 1,200만이상의 회원이 있으며 직업동맹에는 1,700만이상의 맹원이 있다. 우리가 성과를 거둔것은 이 조직들의 덕택이다. 그렇지만 성과를 쉽게 거두게 하여주는 이러한 조직들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에서 적지 않은 부족점과 결함을 가지고있다면 그 책임은 오직 우리들, 우리의 조직사업, 우리의 조직적지도가 잘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관리기관에서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구체적인 산 지도대신에 《일반적인 지도》에 대한 공담, 직무별관리제[69]와 개인책임제의 결여, 사업에서의 개인책임의 회피와 임금제도에서의 평균주의, 사업수행정형에 대한 일상적인 검열의 결여, 자기비판을 두려워하는것 등등.—바로 여기에 우리의 난관의 근원이 있으며 여기에 지금 우리의 난관이 숨어있는것이다.

이러한 난관들을 결정서나 지령으로 극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것이다. 관료주의자들과 형식주의자들은 말로는 당과 정부의 결정에 충실하겠다고 하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 결정을 그대로 깔아뭉개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되여왔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직사업이 당의 정치로선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는 현상을 없애야 하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조직지도수준을 정치지도수준에까지 높여야 하며 우리의 조직사업이 당의 정치적구호와 결정을 실천하도록 보장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로동자, 농민 대중을 이 투쟁에 인입시켜야 하였으며 당자체를 발동시키고 당과 경제

기관들에서 민음성이 없고 견실하지 못하며 변질한자들을 숙청하여야 하였다.

그렇게 하는데는 무엇이 필요하였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것을 조직하여야 하였다.

(1) 자기비판을 벌리며 우리의 사업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적발폭로하는 사업,

(2) 당조직, 쏘베트기관과 경제기관, 직업동맹과 공청동맹조직들을 난관과의 투쟁에로 궐기시키는 사업,

(3) 당 및 정부의 구호와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로동자, 농민 대중을 궐기시키는 사업,

(4) 근로자들속에서 경쟁과 돌격대 운동을 벌리는 사업,

(5) 농기계임경소와 국영농장의 정치부를 널리 조직하여 당과 쏘베트의 지도를 농촌에 접근시키는 사업,

(6) 인민위원부, 중앙관리국, 트레스트를 세분화하며 경제적지도를 기업소에 더 접근시키는 사업,

(7) 사업에서의 개인책임회피와 평균주의적임금제도를 없애는 사업,

(8) 《직무별관리제》를 폐지하고 개인책임제를 강화하며 위원회제를 폐지하는 방침을 수립하는 사업,

(9) 집행정형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검열위원회와 로농감독국을 재조직하는 방침을 취하는 사업,

(10) 사무실에 앉아있는 유능한 일군들을 생산에 더욱 접근시키는 사업,

(11) 고칠수 없는 관료주의자들과 형식주의자들을 폭로하며 그들을 관리기관에서 축출하는 사업,

(12) 당과 정부의 결정을 위반하는자들, 사기군들, 공담군들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새사람들 즉 맡겨진 사업을 구체

적으로 지도하며 당과 쏘베트의 규률을 강화할수 있는 일군들을 등용하는 사업,

(13) 쏘베트경제기관들을 정돈하고 이 기관들의 정원을 축소하는 사업,

(14) 끝으로 당내동요분자들과 변질한자들을 숙청하는 사업.

이러한것들이 대체로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직사업수준을 정치적지도수준에까지 올려세우고 이렇게 하여 당의 로선을 실현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이 제기하여야 하였던 기본조치들이였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우리 당 중앙위원회는 총화기간에 자기의 조직사업을 바로 이렇게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중앙위원회가 지침으로 삼은것은 조직사업에서의 주되는것은 **인재의 선발과 실행정형에 대한 검열**이라고 한 레닌의 영명한 사상이였다.

나는 인재를 선발하고 무능한자들을 해임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려고 한다.

고칠수 없는 관료주의자와 형식주의자들의 해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불일치도 없다. 이밖에도 우리의 사업에 장애와 방해를 주며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두가지 형의 일군들이 있다.

첫째 형의 일군들은 과거에는 일정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고관이 된 사람들, 당과 쏘베트법률은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하여 작성된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과 정부의 결정실행을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지 않으며 따라서 당과 국가 규률의 기초를 파괴한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믿고 당과 쏘베트의 법령을 위반하는가? 그것은 쏘베트정권이 과거의 공로를 보아서 자기들을

건드리지 않으리라고 믿기때문이다. 거만해진 이 고관들은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간주하고 자기들은 지도기관의 결정을 위반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군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는가? 그들의 과거공로에 구애되지 말고 주저없이 그들을 지도적지위에서 철직시켜야 할것이다.(《옳습니다!》라고 웨치는 소리) 이러한 사람들은 낮은 직위로 내려보내되 이 사실을 신문에 공포하여야 한다.(《옳습니다!》라고 웨치는 소리) 이것은 거만해진 고관나으리들의 코대를 꺾고 적당한 자리에 보내기 위해서 필요하며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당파 쏘베트의 규률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옳습니다!》라고 웨치는 소리, 박수)

그러면 다음은 둘째 형의 일군들을 보자. 나는 말공부쟁이들, 말하자면 정직한 말공부쟁이들(웃음소리), 쏘베트정권에 충직하고 헌신적이기는 하나 지도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조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두고 말한다. 작년에 나는 이러한 동무와 담화한 일이 있다.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동무였으나 어떠한 사업이나 공담으로써 망쳐버릴수 있는 그런 고칠수 없는 말공부쟁이였다. 그 담화는 이러하였다.

나: 당신들의 파종사업은 어떻게 되여갑니까?

그: 쓰딸린동지, 파종말씀입니까? 우리는 동원되였습니다.(웃음소리)

나: 그래 어떻게 되였습니까?

그: 우리는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웃음소리)

나: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그: 쓰딸린동지, 우리에게는 전환이 있습니다. 꼴 전환이 있게 될것입니다.(웃음소리)

나: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였단말입니까?

그: 우리에게는 전진이 있습니다.(웃음소리)

나: 그럼 그건 그렇다 하고 당신들의 파종사업은 어떻게 되여갑니까?

그: 쓰딸린동지, 우리의 파종사업은 아직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있습니다.(모두다 앙천대소한다.)

이것이 말공부쟁이의 특징이다. 그들이 동원되였고 또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제기하였으며 그리하여 전환도 전진도 있지만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다.

이것은 얼마전에 우크라이나의 한 로동자가 묘사한 어느 한 조직의 형편과 꼭같다. 그때 그에게 이 조직에 방침이 있던가고 물었더니 그는 《뭐, 방침말입니까…방침이야 물론 있습지요, 단지 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달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던것이다.(만장의 웃음소리) 아마 그 조직에도 정직한 말공부쟁이들이 들어앉아있었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말공부쟁이들을 해임시키고 실무적사업에서 좀 먼곳에 보내놓으면 그들은 두팔을 벌리고 의아해하며 다음과 같이 묻는다. 《왜 우리를 해임시키는가?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단말인가? 우리가 돌격대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단말인가? 우리가 돌격대원들의 회의에서 당과 정부의 구호를 웨치지 않았단말인가? 우리가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모든 위원들을 명예주석단으로 선거하지 않았단말인가?(만장의 웃음소리) 과연 우리가 쓰딸린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지 않았단말인가? 우리에게서 무엇이 더 요구되는가?》(모두다 앙천대소한다.)

이러한 고칠수 없는 말공부쟁이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그들을 실무적사업에 그냥 남겨두는 날에는 어떠한 실지사업이든지 모조리 애매하고 모호한 공담의 바다속에 처넣게 될것이다. 분명히 이러한 사람들은 지도적직무를 해임하고 실

무적이 아닌 다른 사업을 맡기는것이 좋을것이다. 실무적인 사업에는 공담군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옳습니다!》라는 웨침소리, 박수)

중앙위원회가 쏘베트기관과 경제기관에서 일군들을 선발하는 사업을 어떻게 조직하였으며 또 실행정형에 대한 검열을 어떻게 강화하였는가 하는데 대해서 나는 이미 보고에서 간단히 말하였다. 더 자세한것은 까가노위치동지가 대회순서의 세번째 의정에서 여러분에게 말할것이다.

실행정형에 대한 검열사업을 더한층 강화할데 대하여 몇마디 언급하려고 한다.

금후의 실행정형에 대한 검열을 옳게 조직하는것은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지도기관들의 결정이 실행되고있는가 아니면 관료주의자들과 형식주의자들에 의하여 깔려있는가? 그것이 옳게 실행되고있는가 아니면 외곡되고있는가? 기관들이 성실하게, 볼쉐위크적으로 사업하고있는가 아니면 헛돌아치고있는가?—이 모든것은 오직 실행정형에 대한 잘 조직된 검열을 통해서만 제때에 알수 있다. 실행정형에 대한 잘 조직된 검열—이것은 기관들의 사업형편을 어느때에나 알수 있게 하며 관료주의자들과 형식주의자들을 세상에 폭로하는 탐조등이다. 우리의 결함들과 부족점의 십중팔구는 실행정형에 대하여 옳게 조직된 검열을 진행하지 않은데 있다고 단언할수 있다. 실행정형에 대한 이러한 검열이 있었다면 결함과 부족점은 확실히 방지되였을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실행정형에 대한 검열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두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즉 첫째로는 실행정형에 대한 검열을 이따금 생각나면 할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여야 한

다。 둘째로는 당 및 쏘베트 기관과 경제기관의 모든 고리에서 실행정형에 대한 검열의 지도적지위에 부차적인 인물이 나설것이 아니라 아주 권위있는 사람들 즉 그 기관의 지도자들자신이 나서야 한다。

실행정형에 대한 검열을 옳게 조직하는것은 중앙의 여러 지도기관에 대하여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 로농감독국은 그 조직상으로 보아 실행정형에 대한 검열을 잘 조직할데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수 없다。 우리의 경제사업이 비교적 단순하고 또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모든 인민위원부와 모든 경제기관의 사업을 **감독**할수 있다고 기대할수 있었던 몇해전만 해도 로농감독국은 적합한 조직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사업이 확대강화되였고 더욱 복잡하여졌으며 유일하게 중앙에서 **감독**해야 할 필요성도, 가능성도 없어지게 된 때인 지금에 와서는 로농감독국을 반드시 재조직하여야 할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감독이 아니라 중앙의 결정실행정형에 대한 검열이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중앙의 결정실행정형에 대한 **통제사업**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모든것을 죄다 감독하는것을 총적인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쏘베트정권의 중앙기관들의 결정실행에 대한 통제와 검열사업에 자기의 모든 주의력을 집중할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으로 될수 있는것은 오직 쏘련인민위원회에 직속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사업하며 각 지방에는 그 지방기관에 종속되지 않는 대표자들을 가지고있는 쏘베트검열위원회뿐이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충분한 권위를 가지게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일군이라도 추궁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쏘베트검열위원회 위원이 될 후보자들을 반드시 당대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쏘련인민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것이

다. 나는 이러한 조직만이 쏘베트적통제와 쏘베트적규률을 강화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중앙검열위원회로 말하면 다 아는바와 같이 무엇보다도먼저 또 중요하게는 그것이 당내의 분렬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되였던것이다. 한때 우리에게는 분렬의 위험성이 사실상 있었던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바이다. 또 중앙검열위원회와 그 소속기관들이 이 분렬의 위험성을 방지한 사실도 여러분은 알고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분렬의 위험성이 더는 없다. 그러나 그대신에 지금 우리에게는 당결정과 당중앙위원회의 결정들에 대한 실행정형을 검열하는 사업에 자기의 주되는 주의력을 집중할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되고있다. 이러한 조직으로 될수 있는것은 오직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에 직속되여 당과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사업하며 각 지방에는 그 지방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기의 대표자들을 가지고있는 당검열위원회뿐이다. 이러한 책임적조직이 반드시 큰 권위를 가져야 할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이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중앙위원회 위원까지도 포함하여 과오를 범한 일군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책임을 추궁할수 있게 하자면 이 위원회 성원들을 반드시 당의 최고기관인 당대회에서 선거 또는 해임시켜야 할것이다. 이러한 조직이 당중앙기관의 결정실행에 대한 검열을 원만히 보장하며 당규률을 강화할수 있게 할것은 의심할바 없다.

조직적지도문제에 대한것은 이상과 같다.

조직사업면에서 제기되는 우리의 과업들은 다음과 같다.

(1) 앞으로도 우리의 조직사업을 당정치로선의 요구에 적응시키며,

(2) 조직적지도를 정치적지도의 수준에까지 제고하며,

(3) 조직적지도가 당의 정치적구호와 결정들의 실현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는것이다.

1934년 1월 28일부 《쁘라우다》 제27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3권, 307~331페지

영국작가 에취.쥐.웰즈와의 담화

(1934년 7월 23일)

웰즈: 쓰딸린선생, 선생이 이처럼 나를 만나주니 더없이 고맙습니다. 얼마전에 나는 미국에 가서 루즈벨트대통령과 오래동안 담화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도사상이 어떤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선생을 방문하게 된것은 선생이 세계를 개변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있는가를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쓰딸린: 한일은 너무도 적습니다.…

웰즈: 나는 이따금 세계를 력방하면서 보통사람의 신분으로서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고있는 일들을 관찰하고있습니다.

쓰딸린: 당신과 같은 대활동가는 결코 《보통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력사만이 대활동가의 중요성을 보여줄수 있지만 당신은 어쨌든 《보통사람》으로서 세계를 관찰하고있는것이 아닙니다.

웰즈: 내가 일부러 겸손성을 보이려고 그러는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느 당파에 소속된 정치가거나 아주 중요한 국무활동가의 안광으로써가 아니라 될수록 보통사람의 안광으로 세계를 관찰하고있다는말입니다. 이번의 미국려행은 나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낡은 금융계는 무너져가고있으며 전국의 경제생활은 새로운 양식으로 개조되고있었습니다. 레닌은 일찍 《장사하는것을 배워야 하며》 자본가들에게서 그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자본가들이 사회주의정신을 체득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따라배워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개조를 진행하며 계획경제 즉 사회주의경제를 창설하는데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선생과 루즈벨트는 같지 않은 두 기점으로부터 출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톤과 모스크바사이에 사상적련계와 사상적혈연관계가 없습니까? 례를 들면 나는 여기서 진행되고있는 사업들 즉 관리기구를 확대하고 많은 새로운 국가조절기관들을 창설하며 모든것을 다 망라한 사회적봉사기관들을 내오는 일들을 워싱톤에서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도 귀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령도능력이 모자랍니다.

쓰딸린: 미국의 목적과 우리 쏘련의 목적은 다릅니다. 미국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경제혼란과 경제공황의 기초우에서 산생된것입니다. 미국사람들은 경제토대를 그대로 두고 사적자본주의가 활동하는 기초우에서 경제공황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그들은 현존하는 경제제도에 의하여 초래된 파괴와 손실을 최저한도로 감소시키려고 애쓰고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싶이 우리 나라에서는 낡은 경제토대가 무너지고 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토대가 세워졌습니다. 가령 당신이 말하는 그 미국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할수 있다 하더라도 즉 그런 손실을 최저한도로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정황하에서 그들은 현존하는 자본주의제도에 고유한 무정부상태의 근원을 뽑아버릴수 없는것입니다. 그들은 생산의 무정부상태를 초래하게 되며 또 초래하지 않을수 없는 경제제도를 아직까지 보존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최선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의 개조에 대하여, 무정부상태와 공황을 초래하는 이런 낡은 사회제도의 소멸에 대하여서는 운운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낡은 사회제도의 개별적인 나쁜 면들을 제한

할따름이며 낡은 사회제도의 극단적인 개별적현상들을 제한할 따름입니다. 그 미국사람들은 주관적으로는 자기네가 사회를 개조하고있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는 아직도 거기에 현유의 사회적기초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객관적으로는 그 어떤 사회적개조도 진행할수 없는것입니다.

계획경제라는것도 있을수 없는것입니다. 계획경제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있는가? 계획경제는 실업현상을 소멸하기에 극력 노력하고있습니다. 자본주의제도를 보존하는 정황하에서도 실업현상을 최저한도로까지 감소시킬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어느 한 자본가도 실업현상과 실업자후비군을 완전히 소멸하는데 대하여서는 언제나 백사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을것입니다. 왜냐 하면 실업자후비군은 로동시장을 압제하고 로임이 보다 적은 로동력을 보장하는 사명을 지니고있기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벌써 자산계급사회의 《계획경제》의 빈구석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다음, 계획경제는 인민대중에게 특히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업부문의 생산을 강화할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당신도 알다싶이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전혀 다른 동기에 의하여 생산이 확대되고있으며 리윤률이 가장 높은 경제부문에로 자본이 투입되고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자본가들이 제가 손해를 보고 비교적 낮은 리윤을 얻으면서 인민들의 수요에 만족을 주게 할수는 없습니다. 자본가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의 원칙을 폐지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계획경제를 확립할수 없는것입니다.

웰즈: 나는 당신의 말을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전 국가적으로 계획경제원칙을 접수한다면, 정부에서 이 원칙을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실시하기 시작한다면 나중

에 가서는 금융과두가 소멸되고 앵글로쌕쏜사람들이 리해하고 있는 그런 사회주의가 건립되리라는것을 치중하여 지적하고저 합니다. 루즈벨트의 《새로운 정치》라는 구호는 거대한 효과를 거두었을뿐만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 구호가 사회주의적구호인것 같습니다. 나는 두 세계의 대항성을 강조할것이 아니라 지금의 정세하에서 일체 건설적력량간에 존재하는 공통어를 확립하기에 힘써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딸린: 나는 자본주의적경제토대를 보존하고있는 조건하에서는 계획경제원칙을 실현할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으로써 루즈벨트개인의 뛰여난 품성 즉 그의 주동성과 용감성과 견결성을 낮추 평가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현대자본주의세계의 모든 수뇌자들가운데서 루즈벨트가 가장 재능있는 사람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본주의 조건하에서 계획적경제가 실시될수 없다는것을 확신하지만 이 신념때문에 결코 루즈벨트대통령개인의 능력과 재간과 용감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재간있는 통수도 그가 처한 환경이 그에게 불리하면 당신이 말한 그 목적에 도달할수 없는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조건하에서 앵글로쌕쏜사람들의 해석대로 당신이 말하는 그 사회주의목적에로 점차적으로 일보일보 나아갈수 있다는데 대하여 리론적으로는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주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선의 경우일지라도 그것은 체압을 제일 받지 않는 개별적자본주의리윤의 대표자들을 좀 제압하며 인민경제의 조절원칙을 좀 강화하는것을 의미할따름입니다. 이 모든것은 다 좋은것입니다. 그러나 루즈벨트거나 또는 현대자산계급세계의 다른 어느 수뇌자든지 이런저런 참다운 방법으로써 자본주의토대를 반대한다면 그들은 불가피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말것입니다. 루즈벨트의 수중에는 은행도 없

고 공업도 없고 대기업, 대농장도 없다는것을 알아야 하며 이 모든것은 다 사유재산이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철도나 상선이나 다 사적소유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련된 근로자대군과 기사와 기수들도 루즈벨트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것이 아니라 사적소유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으며 그들은 사적소유자들을 위하여 일하고있습니다. 자산계급세계에서의 국가의 기능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국가의 방위사업을 조직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가렴잡세를 징수하는 기구입니다. 진정한 경제는 자본주의국가와 별로 관계가 없으며 또 자본주의국가의 수중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국가는 자본주의경제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루즈벨트가 아무리 대단한 정력과 능력을 가지고있더라도 당신이 말하는 그 목적(참으로 그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있다면)에 도달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여 걱정됩니다. 몇세대가 지난후에는 이 목적에 다소 접근할수 있겠는지 모르기는 하겠지만 내 개인의 생각 같아서는 이것도 가능성이 아주 적은것입니다.

웰즈: 나는 선생보다도 경제적인 면에서 정치를 설명하는것을 더 확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발명과 현대과학으로 하여 강대한 력량이 리용되고있는데 이 력량은 우수한 조직체를 내오고 집단적인 우수한 사업을 이룩하였습니다. 즉 사회주의를 초래하였습니다. 사회적리론이 어떠하든지간에 개인의 활동을 조직하고 조절하는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였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은행을 감독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수송사업을 감독하고 중공업을 감독하고 일반공업을 감독하고 상업 등을 감독한다면 이런 빈틈없는 감독은 인민경제의 일체 부문을 국유화하는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사회화의 과정인것입니다. 사회주의와 개인주의는 검은것과 흰것처럼

완전히 상반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사이에는 여러가지 중간단계가 있습니다. 토비행위와 비슷한 개인주의가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와 동일한 의의를 가지는 규률성과 조직성도 있습니다. 계획경제의 실현은 상당한 정도에서는 경제조직자와 점차 사회주의조직원칙면으로 쟁취할수 있는 숙련된 기술지식인들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것이 가장 주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첫째로 나서는것이 조직이고 그다음에 나서는것이 사회주의이기때문입니다. 조직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직이 없으면 사회주의사상도 그저 하나의 사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쓰딸린: 개인과 집단, 개인리익과 집단리익간에는 조화될수 없는 대립이 없으며 또 대립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집단주의와 사회주의는 개인리익을 부인하는것이 아니라 개인리익과 집단리익을 결부시킨것이기때문에 그러한 대립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주의는 개인리익을 제쳐놓을수 없습니다. 오직 사회주의사회만이 이런 개인리익에 가장 충분한 만족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사회는 개인리익을 수호하는 유일하게 튼튼한 담보입니다. 이 의미에서 《개인주의》와 사회주의간에는 조화할수 없는 대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계급간의 대립, 유산자계급, 자본가계급과 근로자계급, 무산자계급간의 대립을 부인할수 있겠습니까? 한편은 유산자계급으로서 그들은 은행, 공장, 광산, 수송업, 식민지의 재배원을 갖고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리익과 그리고 리윤을 추구하는 자기의 욕망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단의 의사에 복종하지 않고 어떤 집단이나 다 자기의 의사에 복종시키려고 애쓰고있습니다. 다른 한편은 가난한 계급, 피착취자계급으로서 그들은 공장도 없고 은행도 없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최저한도의 수요를 만족시킬 가능성마저 박탈당하였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이런 리해관계와 욕망이 어찌 조화될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있는바에 의하면 루즈벨트는 이런 리해관계를 조화시킬 길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경험은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는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미국정황에 대하여서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고있을것입니다. 왜냐 하면 미국에 가보지 못한 나는 주로 미국정세를 신문잡지에 근거하여 관찰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면에 있어서는 약간한 경험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경험은 루즈벨트가 만약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희생시키는것으로써 진정 무산자계급의 리익을 만족시켜주려고 한다면 자본가계급들이 그대신 다른 대통령을 올려세우게 된다는것을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본가들은 대통령이야 올라앉을수도 있고 내려앉을수도 있지만 우리 자본가들은 여전히 자본가대로 남아있으며 우리의 리익을 보호하지 않는 대통령은 우리가 바꿀수 있다고 말할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무엇으로써 자본가계급의 의사에 대항하겠습니까?

웰즈: 나는 인간을 이렇게 단순히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으로 나누는것을 반대합니다. 물론 오로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여기에서처럼 장애물로 간주되고있지 않습니까?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얼마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투자하여 리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신의 활동목적으로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 서방에 이러한 사람들이 적단말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투자를 마지못해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재간이 있고 충직한 일부 기사와 경제조직자들은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

에 자극을 받아 일하고있는데 이런 기사와 경제조직자들이 적단말입니까? 내가 보건대는 실로 재능이 있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계급이 있는데 그들은 현존제도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의식하고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앞으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거대한 역할을 노는것입니다. 광범한 기사와 비행원들 속에서 그리고 군사기술계 등등에서 사회주의사상과 세계주의사상을 선전하여야 한다는것과 관련하여 나는 최근 몇년동안에 적지 않은 일을 하여왔으며 또 많은것을 생각하여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계급투쟁에 대한 선전을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대는것은 공연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피바다로 되여버린 이 세계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져있는가를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들이 계급투쟁에서 내세우고있는 원시적대항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딸린: 당신은 인간을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는것을 반대합니다. 물론 중간계층도 있고 당신이 말하는 그런 기술지식인도 있습니다. 이런 지식인들가운데는 아주 성실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실하지 못한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단말입니다. 그러나 인류사회는 무엇보다도먼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유산자와 피착취자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구분을 도외시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간의 모순을 도외시하는것은 기본사실을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서로 싸우고있는 두 계급중의 어느 한편에 서있지 않으면 이 투쟁에서 중립적이거나 혹은 반중립적인 립장에 서있는 중간계층이 존재한다는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이 기본적구분과 두 기본계급간의 이 기본적투쟁을 도외시하는것은 사실을 무시하는것이라고 다시한번 되풀이하는바입니다. 이 투쟁은 바야흐로 진행되고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것입니다. 이 투쟁의 결과는 무산자계급과 근로자

계급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웰즈: 그런데 로동에 종사하고 로동효률이 매우 높은, 그러나 가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적단말입니까?

쓰딸린: 물론 소토지소유자, 수공업자, 소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운명을 결정하는것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필수품을 생산하는 근로대중입니다.

웰즈: 그러나 여러가지 자본가가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리익만 도모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자본가가 있는가 하면 자기를 달갑게 희생하려는 자본가도 있습니다. 례를 들면 로모간은 돈벌이에만 눈이 벌개서 날뛰는 사람입니다. 그자야말로 사회의 기생충이지요. 그는 재부를 자기의 손아귀에 긁어모으는데만 골몰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로케펠러를 보십시오. 그는 출중한 조직자입니다. 그는 석유판매를 조직한 모범으로서 본받을만한 본보기입니다. 또 포드를 보십시오. 물론 포드는 매우 교활하고 리기적인 인간이기는 하나 당신들이 배우고저 하는 합리화생산의 극히 적극적인 조직자가 아닙니까? 나는 앵글로쌕쏜국가에서 최근에 쏘련에 대한 사회적여론이 크게 변하였다는것을 특히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우선 일본의 태도와 독일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단순히 세계정치로부터 산생된것이 아닌 다른 일부 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더 심각한 원인 즉 광범한 각계 인민들이 사적영리에 기초한 제도가 무너지고있다는것을 인식하게 된 원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두 세계간의 대립을 지나치게 강조할것이 아니라 모든 건설적운동과 모든 건설적 력량을 될수록 결합시키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선생보다 내가 더 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딸린 선생, 나는 세계가 사멸되여가는 낡은 제도에서 벗어날 날이 눈앞에 닥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쓰딸린: 나는 개인리익만 도모하고 돈벌이할 생각만 하는 자본가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에 이것으로써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두말할것없이 대단한 조직능력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결코 이 점을 부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쏘련사람들은 자본가들에게서 많은것을 배우고있습니다. 당신에게 하찮은 존재로 묘사된 그 모간도 재능이 있는 뛰여난 조직자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개조하려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할것 같으면 리익만을 한사코 피하는 사람들가운데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수 없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리익만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은 대립되는 량극에 서있습니다. 당신은 포드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물론 유능한 생산조직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로동계급을 어떻게 취급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당신은 모르고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로동자들을 아무 리유도 없이 거리바닥에 내던졌다는것을 모르고있단말입니까? 자본가는 리윤과 혈연적관계를 맺고있기때문에 자본가를 리윤과 갈라놓을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는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독자적인 역할을 놀수 없는 생산의《조직자》거나 기술지식인에 의하여 소멸되는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에 의하여 소멸될것입니다. 기사, 생산조직자는 자기의 념원에 좇아 일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령에 좇아, 주인의 리해관계로 인한 요구에 좇아 일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례외도 있습니다. 이 계층가운데는 자본주의기반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기술지식인들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기적》을 창조하여 인류에게 거대한 리익을 가져다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막대한 손해를 가져다줄수도 있습니다. 우리 쏘련사람들은 기술지식인들로부터 직접 경험한바가 적지 않습니

다. 10월혁명후에 일부 기술지식인들은 새사회건설에 참가하기 싫어하고 항거하면서 태공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기술지식인들을 이 건설에로 인입하기 위하여 여러 면으로 노력하였으며 그들과 가까이하기 위하여 갖은 방법을 다 썼습니다. 우리의 기술지식인들은 오랜 시일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새 제도를 적극적으로 방조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그들가운데서 우수한 일부분은 사회주의사회건설의 최전렬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있기때문에 기술지식인들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쁜 일을 할수도 있고 《기적》을 창조할수도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물론 한차례의 돌격으로써 기술지식인들이 정신적으로 자본주의세계로부터 리탈하게 할수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상입니다. 자산계급세계와 결렬하고 사회개조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을 기술지식인들속에서 많이 찾아볼수 있습니까? 당신의 견해에 의하면 영국과 프랑스 같은데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겠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주인과 결렬하고 세계를 개조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개조하자면 **정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을 홀시할수 있습니까? 웰즈선생, 나는 당신이 정권문제를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권탈취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고있다면 무슨 일을 해낼수 있겠습니까? 극상해야 그들은 정권을 탈취하는 새로운 계급을 협조할수 있을뿐 자신으로는 세계를 뒤엎지 못합니다. 세계를 뒤엎자면 자본가계급을 대체할수 있고 자본가계급처럼 충분한 권력을 가진 주인으로 될수 있는 그런 큰 계급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계급은 바로 로동계급인것입니다. 물론 기술지

식인들의 방조를 받아야 하나 또 이와는 반대로 기술지식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지식인들이 독자적인 력사적역할을 놀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세계를 개조한다는것은 거대하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행정입니다. 이 거대한 사업을 완수하자면 큰 계급이 있어야 합니다. 원거리를 항행하려면 큰 배가 있어야 합니다.

웰즈: 그렇습니다. 원거리를 항행하자면 선장과 항해사가 있어야 합니다.

쓰딸린: 옳습니다. 원거리를 항행하려면 무엇보다도먼저 큰 배가 있어야 합니다. 배가 없다면 항해사는 해서 무얼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웰즈: 큰 배란 인류를 말하지 계급을 말하지 않습니다.

쓰딸린: 웰즈선생, 당신은 모든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쁜 사람이 많다는것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자산계급의 선심을 믿지 않습니다.

웰즈: 나는 몇십년이전의 기술지식인들의 형편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때는 기술지식인은 아주 적었는데 할일은 매우 많아 기사, 기수, 지식인들이 누구나 다 자기의 지식을 써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들은 혁명성이 가장 결여한 계급이였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기술지식인들이 너무 많기때문에 그들의 심리상태가 급격히 변하였습니다. 전에는 혁명적언론이라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던 숙련된 지식인들이 지금에 와서는 혁명적언론에 대하여 흥취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얼마전에 나는 초청에 의하여 우리 영국에서 가장 큰 과학단체인 황실학회의 연회에 참석하였었는데 회장은 사회의 계획화와 과학적관리를 찬성하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30여년전에 이 학회에는 내가 금방 한 말을 알아들을수 있는 사람조

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혁명적견해를 갖고 과학적으로 인류사회를 개조할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학회를 지도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은 계급투쟁을 선전함에 있어서 이런 사실들을 예측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심리상태가 변하고있습니다.

쓰딸린: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가 지금 막다른골목에 빠졌기때문입니다. 자본가들은 막다른골목에서 빠져나올 출로를 찾고있지만 찾아내지 못하고있습니다. 이 출로는 자본가계급의 존엄과 그 계급의 리해관계에 부합되여야 합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공황에서 벗어날수 있겠지만 자본주의리익에 전혀 손해를 주지 않고 떳떳이 걸어나올수 있는 출로는 찾아내지 못할것입니다. 물론 광범한 기술지식계에서는 모두다 이 점을 의식하고있습니다. 그들가운데서 상당한 일부분이 막다른골목에서 빠져나올 출로를 제시할수 있는 그 계급과 자기들사이에는 공통한 리해관계가 있다는것을 의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웰즈: 쓰딸린선생, 당신은 혁명이 무엇이고 또한 그것이 실천적으로는 어떠한가 하는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있습니다. 군중들이 자기절로 그 어느때 폭동을 일으킬수 있습니까? 일체 혁명은 모두다 소수인들이 진행한다는 이 사실이 확정적인 진리이라고 당신은 생각하고계십니까?

쓰딸린: 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혁명을 지도하는 소수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재능있고 가장 충성하고 가장 정력적인 소수인들이 천백만사람들의 소극적인 지지일지라도 그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속수무책으로 되고말것입니다.

웰즈: 소극적인 지지일지라도라구요? 아마 무의식적지지이겠지요?

쓰딸린: 부분적으로는 반본능적인 지지, 반의식적인 지지

라도 그에 의거합니다. 그러나 천백만사람들의 지지가 없이는 가장 우수한 소수인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것입니다.

웰즈: 나는 서방의 공산주의선전을 관찰하여보았습니다. 나는 현대조건하에서는 이 선전이 전혀 시기에 맞지 않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폭력적행동을 선전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폭력에 의한 사회제도의 전복을 선전하는것은 그 어떤 폭정이 절대적통치를 실시하는 시기에만 적합한것입니다. 그러나 통치제도가 여하튼 훼멸되고있고 그것이 본시 해체되고있는 오늘의 조건하에서는 폭행에다 중점을 둘것이 아니라 효률에다, 기능에다, 생산능률에다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폭행에 관한 론조는 이미 케케묵은 론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서방의 공산주의선전은 건설면으로부터 문제를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로 되고있습니다.

쓰딸린: 물론 낡은 제도는 무너져가고 해체되여가고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모든 수단으로 무너져가고있는 제도를 수호하고 구원하기 위해 새롭게 발악하고있는 이것도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옳바로 인식하고있으면서도 그릇된 결론을 내리고있습니다. 당신은 낡은 세계가 무너져가고있다는것을 옳바로 인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낡은 세계가 저절로 붕괴되고있다고 생각하고있으니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천만에, 한 사회제도가 다른 한 사회제도에 의하여 대체되는 행정은 복잡하고도 장기적인 혁명행정인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행정인것이 아니라 투쟁이며 계급충돌과 련결된 행정인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이미 부패해지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썩을대로 다 썩어서 저절로 넘어가고야말 그런 나무와 단순히 비길수는 없습니다. 천만에, 한 사회제도가 다른 한 사회제도에 의하여 대체되는 혁명은 결국 투쟁이며 고통스럽고도 잔혹한 투쟁이

며 사활적인 투쟁입니다. 새세계의 사람들이 정권을 얻으면 그들은 낡은 세계가 폭력으로써 낡은 제도를 회복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정권을 수호하여야 합니다. 그들, 새세계의 사람들은 언제나 경각성을 확보함으로써 새 제도에 대한 낡은 세계의 침범에 반격을 가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낡은 사회제도가 무너지고있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파쑈주의를 례로 들어봅시다. 파쑈주의는 폭력으로써 낡은 세계를 유지하려는 반동적력량입니다. 당신은 파시스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권유하겠습니까? 설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폭력적방법을 리상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공산주의자들은 돌연적습격을 받으려 하지 않으며 낡은 세계가 저절로 력사무대에서 물러날것을 기대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낡은 제도가 폭력으로써 자체를 수호하고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로동계급에게 폭력으로써 폭력에 대처할 준비를 하며 사멸되여가고있는 낡은 제도가 당신들을 압살하지 못하도록 극력 방비하며 낡은 제도가 그 제도자체를 뒤엎을 당신들의 두손에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한 사회제도가 다른 한 사회제도로 대체되는 행정을 단순한 자연발생적인 평화적행정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폭력적인 행정으로 본다는것을 당신은 알수 있을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사실들을 예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웰즈: 그렇지만 당신께서 지금 자본주의세계에서 일어나고있는 일들에 류의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의 붕괴가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로골적인 폭도행위

로 전락한 반동적폭력의 폭발입니다. 이런 반동적이고 우둔한 폭도들파의 충돌에 대하여 론의한다면 사회주의자들은 법률에 호소하여야 하며 경찰들을 적으로 간주할것이 아니라 반동들파의 그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사회주의가 사용하고있는 그런 낡고 기계적이며 폭동적인 방법으로써 간단하게 행동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딸린: 공산주의자들은 풍부한 력사적경험으로부터 출발하고있습니다. 이 력사적경험은 우리들에게 이미 조락된 계급은 저절로 력사무대에서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알려주었습니다. 17세기의 영국력사를 돌이켜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낡은 사회제도는 이미 부패해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롬웰은 폭력으로써 낡은 제도를 짓부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웰즈: 크롬웰은 헌법에 의하여 립헌제도의 이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쓰딸린: 그는 헌법을 위하여 폭력을 리용하고 국왕을 처단하고 의회를 해산시켰으며 사람들을 더러 체포하고 더러 죽였습니다!

그럼 또 우리 나라 력사에서 례를 들어봅시다. 기나긴 세월 사람들은 그래 짜리제도가 부패해가고 무너지고있다는것을 몰랐단말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뒤엎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10월혁명에서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볼쉐위크만이 유일하게 정확한 출로를 지적할수 있다는것을 아는 사람이 그래 적었단말입니까? 그래 사람들이 로씨야자본주의가 이미 부패해졌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단말입니까? 그러나 당신도 알다싶이 우리는 국내외 모든 적들의 침해로부터 10월혁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치렬하게 투쟁해왔으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럼 또 18세기말엽의 프랑스를 보기로 합시다. 1789년에서 앞서 많은 사람들은 왕권과 농노제도가 어느 지경으로까지 부패해졌는가를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의 봉기와 계급충돌이 없이는 그것을 어찌할수 없었으며 또 어찌할수도 없는것이였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력사무대에서 물러서야 할 그런 계급들이 언제나 종국에 가서야 자기 역할이 종말을 고하였다는것을 확신하는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점을 확신시킨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썩어빠진 낡은 제도의 건축물우에 생긴 틈은 메울수 있으며 파괴되고있는 낡은 제도의 건축물은 수선하고 만회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멸되여가는 계급은 무기를 들고 갖은 수단을 다하여 계속 지배계급으로 생존할수 있도록 자기를 보위하는것입니다.

웰즈: 그러나 프랑스대혁명을 령도한 사람들가운데는 변호사가 적지 않습니다.

쓰딸린: 당신은 혁명운동에서의 지식인들의 역할을 부인합니까? 프랑스대혁명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봉건제도를 반대하고 제3신분의 리익을 수호하면서 승리를 쥐득한 인민혁명이 아니라 변호사들의 혁명이란말입니까? 프랑스대혁명의 지도자들가운데의 변호사들은 낡은 제도의 법률에 의하여 행동하였습니까? 그들이 자산계급의 새로운 혁명적법제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풍부한 력사적경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계급도 자원적으로 다른 계급에게 길을 내준적은 없었다는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있습니다. 세계력사에는 이러한 전례가 없는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력사적경험을 장악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산계급이 자원적으로 력사무대에서 물러나는것을 환영할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다싶이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최악의 경우에 대처할 준비를 하려 하며 경각성을 높여 싸울 준비를 하라고 로동계급에게 호소하는것입니다. 자기 군대의 경각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최고지휘관을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적들이 절대로 투항하지 않을것이므로 그들을 격파하여야 한다는것을 모르는 최고지휘관을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최고지휘관으로 되는것은 로동계급을 기만하고 팔아먹는것입니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나는 당신생각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그것이 사실 로동계급에게 있어서는 혁명의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웰즈: 나는 폭력의 필요성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투쟁형식은 현존하는 법률이 부여한 가능성에 가장 접근하여야 하며 반동들의 침해로부터 이 가능성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질서를 와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것은 그자체가 남김없이 와해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질서를 반대하고 법률을 반대하는 투쟁은 낡아빠진, 현실에 맞지 않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식적으로 좀 과장함으로써 진리를 더욱 똑똑히 밝히려 합니다. 나는 자기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달할수 있습니다. 즉 첫째로 나는 질서를 옹호하고 둘째로 현존제도가 질서를 보장하지 않는 한 나는 그 제도를 힐책하며 셋째로 나는 계급투쟁에 관한 사상을 선전하는것은 사회주의를 바로 사회주의에 수요되는 교육받은 사람들과 격리시켜놓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딸린: 거대하고도 중요한 사회적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주력이 있어야 하고 기둥이 있어야 하며 혁명적계급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주력에 대한 보좌적력량의 원

조를 조직하여야 합니다. 이 보좌적력량이란 지금의 형편에서는 지식인들의 우수한 력량도 가입할수 있는 정당인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교육받은 사람들》이란 말을 했지요.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교육받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17세기의 영국이나 18세기말엽의 프랑스나 10월혁명시기의 로씨야에서나를 막론하고 낡은 질서의편에 선 교육받은 사람이 아주 적단말입니까? 매우 높은 교육을 받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낡은 제도의편에 서서 낡은 제도를 위해 복무하였던것입니다. 그들은 낡은 제도를 수호하고 새로운 제도를 반대하였습니다. 교육이란 일종 무기로서 그 효과여부는 누가 그것을 장악하고 누구를 치는데 리용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무산계급과 사회주의는 매우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수요합니다. 둔재가 사회주의를 쟁취하고 새사회를 건립하도록 무산계급을 도와주지 못한다는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나는 지식인들의 역할을 낮추 평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그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오로지 지식인들가운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때문에 어떤 지식인들을 두고 말하는가 하는데 있을뿐입니다.

웰즈: 국민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변시키지 않고서는 혁명이 있을수 없습니다. 두가지 례만 들어보아도 충분할것입니다. 하나는 독일공화국의 례인데 거기서는 낡은 교육제도를 건드린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독일은 시종 공화국으로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국레이버당의 실례인데 거기서는 국민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변시키려는 결심이 부족하였습니다.

쓰딸린: 이것은 옳은 의견입니다.

어제 당신이 제기한 세가지 문제를 대답하겠습니다.

첫째, 혁명에 대해 말하면 주로 사회적기둥이 있어야 합

니다. 이 혁명적기둥이란 바로 로동계급인것입니다.

둘째, 반드시 보좌적력량이 있어야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이 력량을 당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소유한 로동자와 기술지식인들가운데서 로동계급과 긴밀한 련계를 갖고있는 분자들은 모두 이 당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로동계급과 결합하여야만 강력하게 될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로동계급을 반대한다면 그들은 하찮은 인간으로 되고맙니다.

셋째, 개혁의 공간으로 되는 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새 정권은 새로운 법제와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그 질서는 혁명적질서인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질서나 다 옹호하는것이 아닙니다. 나는 로동계급의 리익과 일치되는 질서만을 옹호합니다. 새 질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낡은 제도의 그 어느 법률을 리용할수만 있다면 낡은 법제도 리용하여야 합니다. 당신은 현존제도가 인민이 필요로 하는 질서를 보장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 제도를 힐책하여야 한다고 말했지요. 나는 당신의 이 의견에 대하여서 다른 생각이 조금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만약 공산주의자들을 폭력에 열중하는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배계급이 로동계급에게 자리를 내주는데 동의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폭력적방법을 즐겨 포기할것입니다. 그러나 력사적경험은 이 가설을 부인하였습니다.

웰즈: 그러나 영국력사에는 한 계급이 자원적으로 다른 한 계급에게 정권을 넘겨준 실례가 있습니다. 1830년부터 1870년 이 기간에 아무런 잔혹한 투쟁도 없이 귀족이 자원적으로 자산계급에게 정권을 넘겨준 행정이 나타났던것입니다. 귀족의 영향은 18세기말엽에 이르러서도 역시 상당히 컸으며 자산계급은 군주제의 다정다감한 기둥이였습니다. 정권의 이 이

행은 후에 금융파두지배의 확립을 초래하였습니다.

쓰딸린: 그런데 당신은 저도 모르게 혁명문제로부터 개량문제에로 전향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헌장운동70이 19세기 영국의 개량사업에서 아주 큰 역할을 놀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웰즈: 헌장파는 한일이 너무나 적을뿐만아니라 벌써 자취를 감추고말았습니다.

쓰딸린: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장파와 그들이 조직한 파업운동은 한때 아주 큰 역할을 놀았으며 지배계급이 선거제도면에서와 그리고 이른바 《령락된 소도시》71를 소멸하고 《헌장》의 몇몇 조례를 실시하는 면에서 많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습니다. 헌장파는 적지 않은 력사적역할을 놀았으며 일부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큰 진동을 피면하기 위하여 약간한 양보를 하고 일부 개량들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지배계급들가운데서 귀족이건 자산계급이건 영국의 지배계급은 자기들의 계급적리해관계를 수호하고 저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면에서 가장 총명하고 가장 원활하다고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현대력사에서 례를 들어봅시다. 이를테면 1926년의 영국의 총파업72말입니다. 그때 로동조합총협의회73에서 파업을 호소하였는데 그 어떤 자산계급도 이런 경우에는 우선 로동조합의 지도자를 체포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자산계급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리해관계로 볼 때 그들은 아주 총명하게 처사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나 할것없이 자산계급측에 이렇듯 원활한 계급적전략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할수 없습니다. 영국의 지배계급은 자기의 통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약간한 작은 양보와 개량을 종래로 아낀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량을 혁명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웰즈: 우리 나라의 지배계급에 대하여서 당신은 나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작은 혁명과 큰 개량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개량은 작은 혁명이 아닙니까?

쓰딸린: 아래로부터 오는 압력과 군중의 압력으로 하여 자산계급은 때로는 이러저러한 국부적개량을 실시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사회경제제도의 기초는 여전히 보존하는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양보가 자기의 계급적지배를 보전하는데 필요한것으로 생각되는 때에만이 이렇게 하는것입니다. 개량의 실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혁명이란 정권이 한 계급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한 계급의 수중에로 넘어가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개량이나 그것을 혁명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개량을 통하여, 지배계급의 양보를 통하여 한개 제도가 슬며시 다른 한개 제도로 넘어가게 함으로써 사회제도를 교체할수 있으리라고 기대할수는 없는것입니다.

웰즈: 당신의 이번 담화에 심심한 사의를 표시합니다. 그것은 이번 담화가 나에게 큰 의의를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해석을 가할 때 당신이 혁명전의 비밀소조에서 사회주의원리를 천명하던 일을 아마 회억하였을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인물이라고는 두사람밖에 없습니다. 수백만사람들이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말을 구절마다 귀담아듣고있습니다. 그 두 인물이란 바로 당신과 루즈벨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듯하게 말할수는 있겠지만 그 말을 계재하거나 그 말에 주의를 돌릴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나는 어제야 여기에 도착하였기때문에 귀국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에 대하여 아직 평가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건강한 사람들의 행복

에 넘치는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지금 자못 중대한 사업을 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1920년하고는 놀랄만큼한 대조를 이루고있습니다.

쓰딸린: 우리 볼쉐위크들이 좀더 총명하였더라면 좀더 많은 일을 하였을것입니다.

웰즈: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두다 좀더 총명하였더라면 좋았을것입니다. 사람들의 두뇌에는 완벽한 사회질서에 필요한 많은것들이 아직도 확실히 결핍하기때문에 사람들의 두뇌를 개조하는 5개년계획을 생각해내는것도 무방할것입니다.(웃음소리)

쓰딸린: 당신은 쏘련작가협회대회에 참석할 예산입니까?

웰즈: 매우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나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아서 쏘련에는 한주일간 체류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내가 여기에 온것은 당신을 회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우리의 담화에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만날수 있는 쏘련작가들과 그들이 필담회의에 참가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골즈워디가 창립한 국제작가조직인데 그가 서거한후에는 내가 주석으로 되였습니다. 이 조직은 아직 매우 약하지만 많은 나라들에 분회를 가지고있기때문에 그 회원들의 언론을 널리 발표할수 있습니다(이것이 보다 중요한것입니다).이 조직은 반대의견도 포함하여 모든 의견을 마음대로 발표할 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나는 막심 고리끼와 이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광범한 자유를 허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딸린: 우리 볼쉐위크들은 이것을 《자기비판》이라고 합니다. 쏘련에서는 이것이 널리 사용되고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소원이 있다면 내가 선뜻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웰즈: 고맙습니다.

쓰딸린: 당신이 나와 담화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까.우만스끼 기록

《레닌주의 제 문제》, 로문판, 제10판, 599~613페지에 게재

《쓰딸린전문집》, 한문판, 1~18페지

크레믈리궁에서 거행된 붉은군대 대학졸업식에서 한 연설

(1935년 5월 4일)

동지들! 최근에 우리가 건설부문에서뿐만아니라 관리부문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들속에서는 지도자들의 공로, 수령들의 공로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이 말들 하고있다. 모든것이 다, 우리의 모든 성과가 거의다 그들의 공로인듯이 말한다. 이것은 물론 옳지 못하며 정당하지 못하다. 문제는 수령들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에 대하여 말하려는것은 아니다. 나는 간부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간부에 대하여, 특히 우리의 붉은군대를 포함한 간부문제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려 한다.

여러분들도 알다싶이 우리는 기술적으로 락후하고 아주 가난하고 령락된 나라를 낡은 시대에서 물려받았다. 4년동안의 제국주의전쟁에 의하여 령락되였고 3년동안의 국내전쟁에 의하여 거듭 령락된 주민은 반문맹이고 기술은 락후하고 몇개 있는 공업은 소농경영의 바다속에 있는 섬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우리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때의 우리의 과업은 이 나라를 중세기적이며 암흑한 궤도에서 현대적공업과 기계화된 농업의 궤도에로 옮겨놓는것이였다. 보는바와 같이 이것

은 중대하고도 어려운 과업이였다. 우리가 극히 짧은 기간내에 이 과업을 해결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튼튼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과업을 해결하지 못하여 우리 나라—기술적으로 약하고 문화적으로 락후한—가 자기의 독립성을 잃고 제국주의국가들의 놀이감으로 되게 되든가, 문제는 그렇게 서있다.

우리 나라는 그 당시 기술부문에서 혹심한 기근의 시기를 겪고있었다. 공업에 쓸 기계들이 부족되였고 농업에 쓸 기계들이 없었고 운수에 쓸 기계들이 없었다. 나라를 공업적으로 개조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초보적인 기술적토대가 없었다. 다만 그런 토대를 쌓을만한 일부 전제조건들이 있을따름이였다. 일등급의 공업을 창설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공업이 공업뿐만아니라 농업과 우리의 철도운수까지도 기술적으로 개조할수 있게 하여야 하였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희생을 무릅쓰고 모든 면에서 엄격한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먹는데서도, 공부하는데서도 입는데서도 다 절약하여 공업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축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기술부문에서의 곤난을 퇴치할만한 다른 방도는 없었다. 레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가르치였고 또 우리는 이 사업에서 레닌의 발자국을 따라 나아갔다.

물론 이와 같은 크고도 어려운 사업에서 련속적이고 급속한 성과를 기대할수는 없다. 이런 사업에서는 몇해를 지나서야 비로소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대렬내에서 동요와 우유부단한 행위를 용허하지 않으면서 첫실패들을 극복하며 위대한 목적을 향하여 꾸준히 전진하도록 강인한 신경, 볼쉐위크적견인성, 강인한 인내성으로 무장하여야만 하였다.

여러분도 알다싶이 우리는 이 사업을 이와 같이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동지들이 모두다 튼튼한 신경, 견실성, 인내성을 충분하게 가지고있은것은 아니였다. 우리 동지들가운데는 첫난관에 부딪치자 곧 퇴각을 하자고 부르짖은 사람들이 있었다. 《옛일을 회상하는자에게서는 눈알을 뽑으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물론 옳은 말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기억력이 있으므로 우리 사업을 총화할 때에는 자연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게 된다.(장내가 홍성거린다.) 우리에게는 그 당시 확실히 난관에 겁을 집어먹고 퇴각하라고 당에 부르짖은 동지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말하는 공업화요, 집단화요, 기계요, 흑색야금공업이요, 뜨락또르요, 꼼바인이요, 자동차요 하는것이 다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직물을 될수록 많이 내놓으며 생산필수품생산을 위한 원료를 될수록 많이 사들이며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즐겁게 하는 모든 소소한 물품을 될수록 많이 만들어 주민에게 공급하는것이 더 낫겠다. 우리처럼 락후한 형편에서 공업을 창설한다는것, 더구나 일등급의 공업을 창설한다는것은 위험한 환상이다.》

물론 우리는 엄격한 절약으로 얻은 우리의 공업창설에 지출된 30억루블의 금화를 원료수입과 생활필수품생산의 확대에 쓸수도 있었다. 이것도 역시 일종의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채택하였더라면 야금공업도, 기계제조업도, 뜨락또르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땅크도 가지지 못하게 되였을것이다. 우리는 무장하지 못한채로 외적을 대하게 되였을것이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의 기초를 파괴하게 되였을것이다. 우리는 국내 및 국외의 자산계급에게 포로로 되였을것이다.

두가지 계획, 즉 사회주의를 패망에로 이끌어갔을것이며 또한 이끌어가지 않을수 없었을 퇴각의 계획과 우리 나라에서

의 사회주의를 승리에로 인도하는, 또한 동지들이 아는바와 같이 이미 그 승리에로 인도한 진공의 계획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였다는것은 명백하다.

우리는 진공의 계획을 선택하여 자기의 코앞밖에는 더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 나라의 가까운 장래,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장래는 내다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인 이 동지들을 뒤로 물리치고 레닌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 동지들은 언제나 비판과 소극적인 반항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중앙위원회를 반대하여 당내에서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우리를 위협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운데의 몇사람에 대하여 총탄으로 위협하였다. 보아하니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여 레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생각하였던것 같다. 이 사람들은 우리 볼쉐위크들이 특수한 형의 사람들이라는것을 아마 잊어버린것 같다. 그들은 볼쉐위크들을 난관으로도 위협으로도 놀래울수 없다는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투쟁에서 공포란것을 모르며 또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우리의 수령이며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의 어버이인 위대한 레닌이 우리를 단련시켰다는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원쑤들이 발광하면 할수록, 당내의 반대자들이 발작하면 할수록 볼쉐위크들은 새로운 투쟁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며 더욱 급속히 앞으로 나아간다는것을 잊어버렸다.

물론 우리는 레닌의 길에서 물러서려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뿐만아니라 우리는 이 길에 튼튼히 서서 그 도상에 가로놓여있는 온갖 장애를 물리치면서 더 빨리 앞으로 전진하였다. 우리가 이 도상에서 이 동지들중의 몇사람을 톡톡히 타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할수 없는 일이였다. 나도 역시 이 일에 손을 대였다는것을 고백하여야 하겠다.(열렬한 박수, 《우라》 소리)

그렇다, 동지들, 우리는 우리 나라의 공업화와 집단화의 길로 확신성있게 또한 급속하게 나아갔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길을 이미 지나온 길로 인정할수 있다.

이 길에서 우리가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는것을 지금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있다. 우리가 강력한 일등급의 공업, 강력하고도 기계화된 농업, 날로 확대발전되여가는 운수, 조직적이며 훌륭히 장비된 붉은군대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지금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있다.

이것은 우리가 기술령역에서 기근의 시기를 이미 지나왔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술령역에서의 기근의 시기를 지낸후 우리는 새 시기, 즉 기술을 습득하여 그것을 앞으로 밀고나아갈줄 아는 그런 인재들이나 간부들, 일군들이 부족한 시기에 들어섰다. 문제는 우리에게 공장, 집단농장, 국영농장, 운수업, 군대가 있고 또한 이러한 부문들을 장비할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그러나 그 기술을 최대한으로 리용할수 있는, 필요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재가 부족한것이다. 이전에 우리는 《기술이 모든것을 결정한다.》고 말하였다. 이 구호는 우리가 기술분야에서의 기근을 퇴치하고 우리 나라 사람들을 일등급의 기술로써 무장시키기 위한 모든 사업부문에서 가장 광대한 기술적토대를 닦아놓았다는 그 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써는 아직 매우 부족하다. 기술을 운용하며 그것을 충분히 리용하려면 그 기술을 습득한 인재가 있어야 하며 그 기술을 습득하여 그것을 솜씨있게 리용할줄 아는 간부가 있어야 한다. 기술을 습득한 인재가 없다면 그 기술은 죽은것이다. 기술을 습득한 인재를 선두에 세운 기술은 기적을 낳을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낳을것이다. 만일 우리의 일등급의 공장, 우리의 국영농장과 집단농장, 우리의

운수, 우리의 붉은군대에 이 기술을 운용할 능력을 가진 간부가 충분한 수에 달하였다면 우리 나라는 지금보다 3배, 4배나 효과를 낼수 있었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지금은 기술을 습득한 인재들에 대하여, 간부들에 대하여, 일군들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기술분야에서의 기근에 빠져있던 이미 지나간 시기를 반영한 《기술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낡은 구호는 지금 마땅히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구호로써 바꾸어야 할것이다. 이것이 지금은 주요한 점이다.

우리 사람들이 이 새로운 구호의 위대한 의의를 완전히 리해하고 자각하였다고 말할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말할수 없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에 있어서 자주 보게 되는것과 같은 인재에 대한, 간부에 대한, 일군에 대한 그런 형편없는 태도가 있을수 없는것이다.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구호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일군들에게 그들이 《작은》 일군이건 《큰》 일군이건 그들이 어느 부문에서 일하건 가장 깊은 배려를 돌리며 그들을 잘 육성하며 그들이 방조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이 첫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그들을 격려하며 전진하도록 그들을 추동할것 등등을 요구한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일군들에 대한 무관심한 관료주의적태도나 아주 그릇된 태도를 보게 된다. 사람을 잘 료해하고 또 잘 료해한 다음에 그를 등용할 대신에 흔히 사람을 장기쪽 다루듯하는것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 기계를 귀중히 여기며 우리의 공장에 기술설비가 얼마나 있다는것을 보고할줄은 알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가 일정한 기간에 얼마만한 인재를 육성하였으며 또 인재가 사업에서 장성, 단련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었는가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즐겨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하였다. 이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인재를 귀중히 여길줄 몰랐으며 일군들을 귀중히 여길줄 몰랐으며 간부를 귀중히 여길줄 몰랐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나는 내가 씨비리에서 류형살이를 하던 때에 있은 일이 회상된다. 그것은 봄에 강물이 불었을 때의 일이다. 사품치는 큰 강물에 떠내려오는 나무를 건지려고 30명가량의 사람들이 강으로 나갔다. 저녁에 그들이 마을로 돌아왔는데 그중 한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서른번째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물은즉 그들은 태연스럽게 《저기 떨어졌소》 하고 대답하였다. 《어떻게 되여 떨어졌소?》 하고 내가 다시 물으니 그들은 역시 태연스럽게 《물어볼것 있소? 빠져죽었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그중의 한사람이 《말에게 물을 먹여야겠군》 하면서 어디론지 급히 나가려 하였다. 나는 그들이 사람보다 짐승을 더 귀중히 여긴다고 꾸짖었더니 그들중의 한사람이 《우리가 사람을 아껴서 무엇하우? 사람이야 아무때라도 만들어낼수 있지요. 하지만 어디…말을 만들어내자구 해보우.》라고 대답하였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다고 찬동하였다.(온 장내가 웅성거린다.) 동지들, 이것은 사소한 일인듯하나 대단히 특징적인것이다. 나는 우리의 일부 지도자들이 인재나 간부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며 사람들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것은 내가 방금 이야기한 먼 씨비리에서 생겼던 일화에서 나타난, 사람과 사람사이의 그 이상한 관계의 잔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동지들, 우리가 만일 인재에 대한 기근을 성과적으로 퇴치하고 우리 나라에서 기술을 발전시키며 기술을 운용할수 있는 간부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자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재를 귀중히 여기고 간부를 귀중히 여기는것을 배워

야 하며 우리의 공동사업에 리익을 줄만한 능력을 가진 매개 일군을 귀중히 여기는것을 배워야 한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중한 자본중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결정적인 자본은 인재이며 간부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현 조건에서는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만일 우리의 공업과 농업, 운수업과 군대에 훌륭한 간부들이 수많이 있게 된다면 우리 나라는 불패의 나라로 될것이다. 우리 나라에 그러한 간부들이 없다면 우리는 한발자국도 내디딜수 없게 될것이다.

연설을 끝마치면서 우리의 붉은군대대학졸업생들의 건강과 장래성공을 위하여 축배를 들려고 한다! 여러분이 우리 나라의 국방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동지들! 당신들은 지금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리고 대학에서 첫 단련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는 다만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간부들은 실제사업에서, 학교밖에서, 난관과의 투쟁속에서, 난관을 극복하는데서 진정으로 단련된다. 동지들, 오직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난관을 도피하지 않을뿐만아니라 그 난관을 극복하고 청산하기 위하여 그 난관을 박차고 나아가는 그런 간부들이라야만 훌륭한 간부들이라는것을 기억하라. 오직 난관과 투쟁하는 가운데서라야만 진정한 간부가 단련된다. 만일 우리 군대에 진정으로 단련된 간부들이 충분히 있게만 된다면 우리 군대는 무적의 군대로 될것이다.

동지들, 당신들의 신체건강을 축하한다!(장내에는 폭풍우 같은 박수. 전체 기립하여 《우라》라는 우렁찬 환호로써 쓰딸린동지에게 경례를 보낸다.)

《레닌주의 제 문제》, 한문판, 578~583페지

쏘련 스따하노브운동자 제1차회의[74]에서 한 연설

(1935년 11월 17일)

1. 스따하노브운동의 의의

동지들! 스따하노브운동자들에 대하여 여기에서, 이 회의에서 많이 또 훌륭히 언급되였으므로 나는 별로 말할것이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연단에 불러내온것만큼 나는 몇마디 말을 하지 않을수 없다.

스따하노브운동을 남녀로동자들의 보통운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스따하노브운동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페지를 써넣게 될 그런 남녀로동자들의 운동이다.

스따하노브운동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도먼저 이 운동이 사회주의적경쟁의 새로운 앙양과 사회주의적경쟁의 재롭고도 더욱 높은 단계를 나타내고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어째서 그것을 새로운 단계라고 하며 더욱 높은 단계라고 하는가? 왜냐 하면 스따하노브운동이란 이 사회주의적경쟁형태는 사회주의적경쟁의 낡은 단계보다 훨씬 우월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적경쟁의 첫단계의 시기였던 약 3년전에 사회주의적경쟁이 새로운 기술과 반드시 련결되여

있은것은 아니였다. 뿐만아니라 그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술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적경쟁의 현단계, 즉 스따하노브운동은 반드시 새로운 기술과 련결되여야 한다. 새롭고 더욱 높은 기술이 없이는 스따하노브운동은 있을수 없었을것이다. 이 좌석에 앉아있는 스따하노브, 부쓰긴, 스메따닌, 크리워노스, 쁘로닌, 위노그라도와자매 및 기타 많은 동지들은 모두 새로운 인재로서 다 자기가 맡은 부문의 기술에 숙달하였으며 그것을 운용하여 발전시킨 남녀로동자들이다. 3년전에는 우리에게 이런 인재가 없었거나 거의 없었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특수한 인재들이다.

다음으로, 스따하노브운동은 오늘의 기술적기준량을 돌파하고 현유의 설계능력을 돌파하고 현행의 생산계획과 수지균형을 돌파하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남녀로동자들의 운동이다. 왜 이런 기준량을 돌파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이미 오늘에 와서는 즉 우리의 새로운 인재들에게 있어서는 낡은것으로 되였기때문이다. 이 운동은 기술에 대한 낡은 견해를 타파하고 낡은 기술적기준량, 낡은 설계능력과 낡은 생산계획을 타파하고 새롭고 더욱 높은 기술적기준량, 설계능력과 생산계획 등을 규정할것을 요구한다. 이 운동은 우리 나라 공업에서 혁명을 일으킬 사명을 지니고있다.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스따하노브운동은 그 실질에 있어서 한차례의 심각한 혁명운동인것이다.

여기에서 어떤 동지는, 스따하노브운동은 새롭고 더욱 높은 기술적기준량의 표현으로서 사회주의만이 달성할수 있고 자본주의는 달성할수 없는 그런 높은 로동생산능률의 전형이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어째서 자본주의가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타승할수 있었는가? 그것은 자본주의가 더욱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창조함으로써 봉건제도하에

서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얻을수 있는 가능성을 사회에 주었기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사회를 한층더 부유하게 만들어놓았기때문이다. 어째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경제제도를 타승할수 있으며 반드시 타승하여야 하며 또 꼭 타승할수 있는가? 그것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경제제도보다 한층더 높은 로동의 모범과 한층더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창조할수 있기때문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경제제도보다 사회에 더욱 많은 생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를 더욱 부유하게 할수 있기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빈민의 생활을 기초로 하여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얼마쯤 균등화하는 방법으로써 사회주의를 공고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소자산계급적관념이다. 기실 사회주의는 오직 높은 로동생산능률의 기초우에서만, 자본주의제도하에서보다 더 높은 로동생산능률의 기초우에서만, 생산물 및 각종 생활필수품을 풍족히 하는 기초우에서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기초우에서만 승리할수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자기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의 쏘련사회를 가장 부유한 사회로 만들수 있도록 하자면 우리 나라에 선진적인 자본주의 제 국가의 로동생산능률을 릉가하는 그런 로동생산능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이는 생산물과 각종 생활필수품의 풍족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다. 스따하노브운동의 의의는 이 운동이 높지 못한 낡은 기술적기준량을 타파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선진적인 자본주의나라들의 로동생산능률을 릉가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앞으로 더 공고하여질수 있는 실제적가능성, 우리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로 전환될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이 스따하노브운동의 의의의 전부가 아니다.

그 운동의 의의는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준비하여주는데 있다.

사회주의의 원칙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각자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소비품은 자기의 수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한 로동에 따라서 받는다는데 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문화기술수준이 아직도 높지 못하며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에 대립이 여전히 존재하며 로동생산능률이 아직도 소비품을 풍족하게 보장하여주리만큼 높지 못하므로 사회는 소비품을 사회성원들의 수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기여한 로동에 따라서 분배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는 일층더 높은 발전단계이다. 공산주의의 원칙은, 공산주의의 사회에서는 각자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소비품은 그가 지출한 로동에 따라서가 아니라 높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받는 그것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문화기술수준이 정신로동과 체력로동간의 대립의 기초를 없앨수 있는 그런 높이에까지 도달하였으며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대립이 이미 소멸되였으며 로동생산능률이 소비품을 매우 풍족하게 보장하여줄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에까지 도달하였으므로 사회는 그의 성원들의 수요에 따라 소비품을 분배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사와 기수, 즉 정신로동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중등숙련로동자들의 수준에까지 저하시킨 기초상에서 정신로동자와 육체로동자의 문화기술수준을 얼마쯤 균등화시키는 방법으로써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대립을 없앨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 다만 소자산계급적공담가들만이 공산주의를 이렇게 상상할수 있다. 사실상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대립은 로동계급의 문화기술수준을 기사, 기술자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데 의해서만 없애버릴수

있는것이다. 만일 이러한 수준에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그것은 쏘베르제도하에서는 전적으로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는 국내의 생산력이 자본주의의 속박에서 해방되여있고 로동이 착취제도의 압박에서 해방되여있고 로동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고있으며 로동계급의 젊은 세대들이 충분한 기술적교육을 받을수 있는 온갖 가능성이 보장되여있기때문이다. 다만 로동계급의 문화기술수준을 이러한 높이에까지 끌어올려야만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대립의 기초를 없애버릴수 있으며 또한 이렇게 하여야만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이행함에 필요한 높은 로동생산능률과 풍족한 소비품을 보장할수 있으리라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없는것이다.

이 면에서 볼 때 스따하노브운동의 중대한 의의는 우리나라 로동계급의 문화기술수준을 이와 같은 높이에까지 제고시킬 맹아(비록 그것이 아직 어린 맹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맹아인것이다.)를 내포하고있다는데 있다.

사실 이 스따하노브운동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대부분이 청년 혹은 중년의 남녀로동자들로서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이며 작업에서 정확성과 정밀성의 모범을 보여주며 작업에서 시간이란 요인을 소중히 여길줄 알며 그리하여 분으로써뿐만아니라 초로써까지 시간을 계산할줄 알게 된 사람들이다. 그들가운데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른바 기본적인 기술지식을 습득하였으며 또한 자기의 기술지식을 계속 충실히 하고있다. 그들에게는 일부 기사, 기수와 경제일군들에게 있는 그런 보수주의와 사상적침체성이 없으며 그들은 낡은 기술적기준량을 타파하고 새롭고 한층더 높은 기술적기준량을 창조해내면서 용감히 전진하고있다. 그들은 우리 나라 공업지도자들이 제정

한 설계능력과 경제계획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기하고 부단히 기사와 기수들의 의견을 보충하고 수정하며 때로는 기사와 기수들을 가르쳐주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추동하고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일에 대한 전문기술을 완전히 습득하고 그 기술을 최대한도로 리용할줄 아는 사람들이기때문이다. 오늘에는 스따하노브운동자들이 아직 그리 많지 못하지만 래일에 가서는 10배나 더 많으리라는것을 누가 의심할수 있겠는가? 스따하노브운동자들은 우리 나라 공업의 혁신가들이며 스따하노브운동은 우리 나라 공업의 미래를 대표하며 그것은 로동계급의 장래의 문화기술적앙양의 종자를 자체내에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과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대립의 폐절에 필요한 아주 높은 로동생산능률지표를 달성할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있다는것이 그래 명백하지 않단말인가?

동지들, 이것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 스따하노브운동이 가지는 의의인것이다.

스따하노브와 부쩍긴이 낡은 기술적기준량을 타파하기에 착수하였을 때에 그들은 스따하노브운동이 가지는 이러한 위대한 의의를 생각해보았던가? 물론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때에 관심을 돌린것은 기업소들에서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없애며 경제계획을 넘쳐완수하려고 힘쓴 그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쓰는 동안에 낡은 기술적기준량을 타파하고 선진적인 자본주의국가를 릉가하는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발전시키게 되였다. 그렇다고 하여 이 사정이 스따하노브운동의 위대한 력사적의의를 얼마쯤이라도 감소시킬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 1905년에 로동자대의원쏘베트를 처음으로 조직한 그 로동자들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말할수 있다. 그들

은 물론 로동자대의원쏘베트가 사회주의제도의 기초로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로동자대의원쏘베트를 창립한것은 다만 짜리정부의 진공을 막아내고 자산계급의 진공을 막아내기 위한것이였다. 그러나 그 사정은 1905년에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의 로동자들에 의하여 시작된 로동자대의원쏘베트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결국에는 전 세계의 6분의 1의 땅우에서 자본주의의 파멸과 사회주의의 승리에 이르게 하였다는 그 엄연한 사실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2. 스따하노브운동의 근원

우리는 지금 스따하노브운동의 요람, 이 운동의 기점에 서고있다.

스따하노브운동의 몇가지 특징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무엇보다도먼저 이 운동이 저절로 시작되였으며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우리의 기업소관리부측으로부터 이렇다 할 아무런 압력도 없이 아래로부터 시작되였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된다. 그뿐만아니라 이 운동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기업소관리부의 의지에 거역하여, 지어는 그들과의 투쟁속에서 발생되였고 발전하게 되였다. 몰로또브동지는 이미 당신들에게 아르한겔스크의 제재공 무씬스끼동지가 경영기관과 검사원도 모르게 한층더 높은 새로운 기술적기준량을 연구완성해 내느라고 어떤 고통을 겪게 되였던가를 말하였다. 스따하노브자신의 처지도 그보다 좋지는 못하였다. 왜냐 하면 그는 전진가운데서 일부 관리일군들로부터뿐만아니라 지어는 그의《혁신사업》에 대해서 조소, 중상하는 일부 로동자들로부터도 자기를 방위하지 않으면 안되였기때문이다. 부쓰긴에 대하여 말

하면 그도 자기의 《혁신사업》으로 하여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릴번하였다가 다행히도 직장장 쏘꼴린스끼동지의 간섭으로 하여 공장에 그냥 있게 되였다는것은 일반이 다 아는바이다.

여기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의 기업소관리부측으로부터 스따하노브운동에 대하여 어떤 작용을 놀았다고 한다면 그 작용은 스따하노브운동을 도와준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애한것이였다. 그러므로 스따하노브운동은 아래로부터 일어다 전개된 운동이다. 바로 이 운동이 저절로, 아래로부터 일어났기때문에 이 운동은 현대의 생명력이 가장 강하고 막아낼수 없는 운동인것이다.

다음으로 스따하노브운동의 또 하나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여야 하겠다. 이 특징은 스따하노브운동이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전례없던 그런 속도로 폭풍과도 같이 우리 쏘련의 전국각지에 퍼진것이다. 일은 어떻게 시작되였는가? 스따하노브는 석탄채굴의 기술적기준량을 5~6배, 지어는 더 많이 높이였다. 부쓰긴과 쓰메따닌도—전자는 기계제조업면에서, 후자는 제화공업면에서—역시 그렇게 하였다. 신문들은 이 사실들을 보도하였다. 이리하여 스따하노브운동의 불길은 즉시 전국을 휩쓸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어째서 스따하노브운동이 그처럼 빨리 보급되였는가? 혹시 스따하노브나 부쓰긴이 쏘련의 각 주 및 각 구역과 넓은 련결을 맺고있는 우수한 조직자들로서 그들자신이 이 일을 조직한것이나 아닌가? 아니다, 물론 그런것은 아니다! 혹시 스따하노브나 부쓰긴이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되려는 야심을 품고 그들자신이 스따하노브운동의 불꽃을 전국에 뿌려놓은것이나 아닌가? 그런것도 역시 아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스따하노브와 부쓰긴을 보았다. 그들은 이 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들은 전 쏘련에서 위

대한 인물이 되려는 야심이라고는 조금도 품지 않은 솔직하고도 겸손한 사람들이다. 내 보기에는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 그렇듯 확대된 이 운동의 규모에 대하여 얼마쯤 당황해하는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따하노브와 부쌔긴이 던진 그 불꽃이 전국을 휩쓸기에 족하였다면 그것은 스따하노브운동이 완전히 성숙된 운동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완전히 성숙된 일촉즉발의 운동만이, 오직 이러한 운동만이 그렇듯 재빨리 보급될수 있고 또 굴릴수록 커지는 눈덩이처럼 커질수 있는것이다.

무엇때문에 스따하노브운동을 완전히 성숙된 운동이라고 하는가? 이 운동이 그렇듯 급속히 보급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스따하노브운동의 근원은 어떠한것인가?

그 원인은 적어도 네가지가 있다.

(1) 스따하노브운동의 기초는 무엇보다도먼저 로동자들의 물질적생활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한것이다. 동지들, 생활이 한층더 좋게 되였다. 생활이 한층더 즐겁게 되였다. 생활이 즐거워지면 일도 순리롭게 되는것이다. 이때문에 작업의 높은 기준량이 생기게 되며 이때문에 남녀로동영웅이 나오게 되는것이다. 무엇보다도먼저 여기에 스따하노브운동의 근원이 있는것이다. 만일 우리 나라에 공황이 있고 만일 우리 나라에 로동계급을 고난속에 빠뜨리는 실업이 있고 만일 우리 나라 인민의 생활이 좋지 못하며 재미없으며 즐겁지 못하다면 우리 나라에는 결코 아무런 스따하노브운동도 있을수 없었을것이다.(박수) 세계에서 오직 우리 나라 무산계급혁명만이 자기의 정치적성과뿐만아니라 또한 자기의 물질적성과까지도 인민에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로동자혁명중에서 겨우 정권을 탈취해낸 혁명으로서는 단 하나만을 알고있다. 그것은 빠리꼼뮨이다. 그러나 빠리꼼뮨은 오래 존속하지 못하였다.

물론 빠리꼼뮨도 자본주의의 질곡을 타파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그러나 그 질곡을 미처 타파하지 못하였을뿐더러 더구나 혁명의 훌륭한 물질성과를 인민들에게 미처 보여주지 못하였다. 다만 우리 나라의 혁명만이 자본주의의 질곡을 타파하고 인민에게 자유를 주었을뿐만아니라 나아가서는 인민에게 부유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들을 마련하여주었다. 여기에 우리 나라 혁명의 힘과 불패성이 있는것이다. 자본가들을 내쫓고 지주들을 내쫓고 짜리의 도당들을 내쫓고 정권을 잡으며 자유를 얻는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자유 한가지만으로써는 매우 부족한 것이다. 만약 빵이 부족하고 버터와 지방이 부족하고 피륙이 부족하고 주택이 좋지 못하다면 자유 그 한가지만으로써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것이다. 동지들, 자유 하나만 가지고서는 잘아나아가기 매우 어려운것이다.(찬동하는 함성, 박수) 잘살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자유의 복리와 함께 물질적복리가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 혁명의 특징은 그것이 인민에게 자유뿐만아니라 물질적복리와 풍족하고도 문화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준데 있는것이다. 바로 이 원인으로 하여 우리의 생활이 즐겁게 되였으며 또한 이러한 토대우에서 스따하노브운동도 발전하게 된것이다.

(2) 스따하노브운동의 둘째 근원은 바로 우리 나라에 착취현상이 없어진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착취자를 위하거나 기생자들을 치부케 하기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계급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우수한 인물들이 정권을 잡고있는 자기의 쏘베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은 사회적의의를 가지는것이며 그것은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인것이다.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로동은 사적인 개인적성격을 띤다. 많이 일했

으면 많이 받아라. 그리하여 너대로 살아라. 아무도 너를 알지 못하며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너는 자본가를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냐? 너는 그들을 치부케 하여주는것이 아니냐? 그렇게 할수밖에 다른 도리가 있느냐? 네가 착취자들을 치부케 만들어주라고 그들은 너를 고용한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실업로동자대오에 가서 제멋대로 굶주리며 추위에 떨어보라. 그러면 우리는 더 온순한 다른 로동자를 고용할터이다라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사람의 로동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스따하노브운동이 일어날수 없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쏘베트제도의 조건하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여기에서는 로동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로동하는 사람이 착취자를 위하여 일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계급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일한다. 여기에서는 로동자들이 버림받거나 고독감을 느낄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기 나라의 자유로운 공민으로, 사회의 활동가로 인정한다. 만일 그가 일을 잘하고 전력을 다하여 사회에 기여한다면 그는 로동영웅이며 그는 영예를 지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스따하노브운동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3) 스따하노브운동의 셋째 근원으로 인정되여야 할것은 우리 나라에 새 기술이 있다는 점이다. 스따하노브운동은 새 기술과 밀접히 련계되여있다. 만일 새로운 기술이 없고 새로운 공장이 없고 새로운 설비가 없었다면 스따하노브운동은 우리 나라에서 일어날수 없었을것이다. 새 기술이 없어도 기술적기준량을 기껏해서 1~2배는 제고시킬수 있으나 그이상은 불가능하다. 스따하노브운동자들은 기술적기준량을 5배 내지 6배로 제고시켰다. 그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새 기술에 의거하

였기때문이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공업화, 우리 나라 공장의 개조, 새 기술과 새 설비의 존재는 스따하노브운동이 일어날수 있은 원인의 하나인것이다.

(4) 그러나 한갖 새 기술만으로써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일등급의 기술, 일등급의 공장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 기술을 운용할줄 아는 인재들이 없다면 그 기술은 다만 기술대로만 남아있을것이다. 새 기술이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자면 또한 그 기술을 운용하고 그 기술을 추진시킬 능력을 가진 사람, 즉 남녀로동자들의 인재가 있어야 한다. 스따하노브운동의 발생 및 발전은 우리 나라에 벌써 그런 인재들이 남녀로동자들속에 쟁겨났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가 새 공장을 건설하고 또 우리의 기업소들에 새 설비를 공급하였다고는 하지만 일을 절반밖에 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당은 약 2년전에 지적하였다. 당은 그때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는 열의에 이런 새로운 공장들을 완전히 운전하는 열의를 보충하여야 하며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후 두해동안에 그러한 새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인재를 배출하게 되였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우리 나라에 그러한 인재들이 있다는것은 지금에 와서는 명백하다. 만일 이러한 간부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나라에는 어떠한 스따하노브운동도 없었으리라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므로 새 기술을 습득한 남녀로동자출신의 새 인재들이 바로 스따하노브운동을 일으키고 앞으로 추진시킨 그 힘으로 된것이다.

스따하노브운동을 일으키고 또 앞으로 추진시킨 조건들은 이러하다.

3. 새 인재와 새 기술적기준량

나는 스따하노브운동이 점차 발전한것이 아니라 제방을 터뜨린 홍수마냥 폭발의 기세로 발전되였다는것을 말하였다. 그 운동이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은 명백하다. 어떤자는 그것을 방해하였고 어떤자는 그것을 내리눌렀지만 스따하노브운동은 힘을 모아가지고 이 장애물을 물리치고 급격히 전국에 전파되였다.

그것은 무엇때문이며 대체 누가 그것을 방해하였는가?

낡은 기술적기준량과 그 기준량을 고집하고있던 사람들이 방해하였다. 몇해전에 우리의 기사, 기수 및 경제일군들은 우리 나라 남녀로동자들의 당시의 기술적락후성에 맞추어 일정한 기술적기준량들을 제정하였었다. 그때로부터 몇해가 지나갔다. 그동안에 사람들은 자랐고 기술지식을 소유하게 되였다. 그런데 기술적기준량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기준량이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의 새로운 사람들에게 낡은것으로 되였다는것은 물론이다. 지금은 모두가 현존의 기술적기준량에 불만을 품고있다. 그러나 그 기준량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것이 아니였다. 그리고 문제는 결코 이 기술적기준량이 그 당시에 낮은 기준량으로 제정되였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먼저 그 기준량이 이미 낡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도 그것을 현시에 알맞는 기준량으로서 고집하려고 하는데 있다. 그들은 우리의 남녀로동자들의 기술적락후성에 사로잡혀 그 락후성에 발맞추며 그 락후성으로부터 출발하였던 관계로 사태는 드디여 그 락후성에 굴복하기 시작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그런데 그 락후성이 과거의것으로

되여버린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그래 우리가 우리의 락후성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성상이나 우상으로 받들어야 하겠는가? 만일 남녀로동자들이 벌써 자라났고 기술적으로 훈련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만일 낡은 기술적기준량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여 이미 우리의 남녀로동자들이 실지에 있어서 낡은 기술적기준량을 5배, 10배나 릉가할수 있게 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락후성에 충실하겠다고 언제 서약한 일이 있었던가? 동지들, 아마도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은듯하다. 그렇지 않은가?(만장의 웃음소리) 과연 우리는 우리의 남녀로동자들이 영원히 락후한채로 그냥 남아있으리라는것으로부터 출발하였던가? 암만해도 우리는 그런것으로부터 출발한것 같지 않은데 어떤가?(만장의 웃음소리) 그러면 도대체 문제는 어디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일부 기사 및 기수들의 보수주의를 타파해버리고 낡은 전통과 낡은 기준량을 타파하여버리고 로동계급의 새 력량에 광활한 무대를 열어줄 용감성이 부족하다는말인가?

과학을 운운하면서 과학의 론거, 기술편람들과 기술지도서들의 론거는 새롭고 일층더 높은 기술적기준량에 대한 스따하노브운동자들의 요구와 모순된다고 말들 하고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체 어떤 과학에 대하여 말하고있는가? 과학의 론거는 언제나 실천에 의하여, 경험에 의하여 검증되여왔었다. 실천이나 경험과 련계를 끊은 과학이란 도대체 무슨 과학이란말인가? 만일 과학이 우리의 보수주의적인 몇몇 동지들이 생각하고있는것과 같은것이라면 그것은 인류사회에서 없어진지 오랬을것이다. 과학이 과학이라고 불리우는 리유는 그것이 우상을 시인하지 않으며 진부해진 낡은것에 타격을 가하는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경험, 실천의 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기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일

반적으로 과학이란 없었을것이다. 그리하여 례컨대 천문학이 없었을것이니 우리는 아직까지도 프톨레메이의 케케묵은 학설을 믿고있었을것이며 또 생물학이 없었을것이니 우리는 아직까지도 인간창조에 관한 전설을 믿고있었을것이며 또 화학이 없었을것이니 우리는 아직까지도 련금술사들의 예언을 믿고있었을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스따하노브운동으로부터 이미 상당히 뒤떨어진 우리의 기사, 기수, 경제 일군들이 낡은 기술적기준량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지하고 과학적인 태도로써, 새로운 스따하노브적방식으로써 자기의 사업을 개변했으면 좋았으리라고 본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좋다고 말할것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술적기준량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기준량이 공업에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아무런 기준량이 없이도 해나갈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술적기준량도 이미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 동지들, 그것은 옳지 않은 말이며 어리석은 말이다. 기술적기준량이 없이는 계획경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밖에 기술적기준량은 뒤떨어진 대중을 선진적인 대중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기술적 기준량은 생산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선진분자들의 주위에 광범한 로동자대중을 조직하여놓는 커다란 조절력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술적기준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기준량인것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기준량이 필요되는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기술적기준량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곧 스따하노브, 부쓰긴, 위노그라도와 등 기타 사람들이 달성한 그런 기준량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도 역시 옳지 않은 말이다. 그런 기준량은 지금에는 현실적이 못

된다. 왜냐 하면 스따하노브나 부쓰긴보다 기술적으로 덜 훈련된 남녀로동자들로서는 그런 기준량을 수행하여내지 못할것이기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현재의 기술적기준량과 스따하노브나 부쓰긴이 달성한 그 기준량의 중간에 해당한 기술적기준량이 필요한것이다. 일반이 다 아는 사탕무우 500쩬트네르생산자 마리야 젬첸꼬를 례로 들어보자. 그 녀자는 사탕무우를 매 헥타르에서 500쩬트네르 내지 그이상을 수확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성과를 가령 우크라이나의 전체 사탕무우재배업에서의 수확기준량으로 삼을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럴수는 없다. 그렇게 할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마리야 젬첸꼬는 1헥타르당 500쩬트네르이상의 수확을 거두었지만 사탕무우의 평균수확량은 례컨대 우크라이나에서는 금년에 매헥타르당 130~132쩬트네르밖에 안된다. 보는바와 같이 차이는 적지 않다. 사탕무우의 수확기준량을 400쩬트네르 혹은 300쩬트네르로 정할수 있는가? 이 방면의 전문가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서의 1936년도의 1헥타르당 수확기준량은 200~250쩬트네르로 정해야 할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 기준량도 낮은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이 기준량을 완수하면 우리는 1935년도보다 2배나 더 많은 사탕을 얻게 되기때문이다. 공업에 대하여서도 역시 그렇게 말해야 할것이다. 스따하노브는 지금의 기술적기준량을 아마도 약 10배 내지 그이상 초과하였을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채탄기를 가지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기술적기준량으로 선포하는것은 부당한 일일것이다. 지금의 기술적기준량과 스따하노브동지가 달성한 기준량간의 중간점을 기준량으로 정해야 할것은 명백한 일이다.

어쨌든 한가지만은 명백하다. 즉 지금의 기술적기준량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락후한것이여서 우리 공업의 장애물로

되는만큼 우리 공업의 발전을 저애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새로운 일층더 높은 기술적기준량으로써 바꾸어야 할것이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기는 새로운 기술적기준량을 요구한다.

4. 당면한 과업

스따하노브운동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당면한 과업은 무엇인가?

문제를 분산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를 두개의 당면과업으로 총괄하자.

첫째 과업은 스따하노브운동자들이 스따하노브운동을 계속 발전시켜 그것을 쏘련의 모든 주와 구역들에 광범하게 또 깊이 보급시키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이것이 한면의 과업이다. 그리고 다른 한면의 과업은 경제일군 및 기사, 기수들중에서 낡은것을 고집하고 전진하기를 싫어하면서 스따하노브운동의 발전을 계속 저애하고있는 모든 분자들을 제지시키는것이다. 스따하노브운동을 우리 나라 전체에 전력을 다하여 보급시키려면 한갓 스따하노브운동자만으로는 물론 부족하다. 반드시 우리의 당단체들이 이 일에 참견하여 스따하노브운동자들로 하여금 이 운동을 철저히 전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면에서 도네쯔주 당단체가 확실히 커다란 창발성을 발휘하였다. 모스크바주 당단체와 레닌그라드주 당단체들에서도 이 면에서 일을 매우 잘하였다. 다른 주들은 어떠한가? 다른 주들은 아마 아직까지도 《준비》중에 있는 모양이다. 례컨대 우랄을 놓고보더라도 비록 그 지방이 다 아는바와 같이 거대한 공업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소식이 웬 일인지 들리지

않으며 또 들린다 해도 극히 적게 들린다. 아직까지도 《준비》조차 미처 못하고있는 모양인 서부씨비리와 꾸즈바쓰에 대하여서도 역시 같은 말을 하여야 할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당단체들이 이 일에 착수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도록 스따하노브운동자들을 도와주리라는것은 의심치 않아도 좋을것이다. 문제의 다른 면 즉 경제일군 및 기사, 기수 일군들중의 완고한 보수주의자들을 억제하는데 대해서 말하면 여기에서는 문제가 좀더 복잡하게 될것이다. 우선 스따하노브운동이 진보적이라는것과 또 스따하노브적방식으로 사업을 개진하여야 한다는것을 공업방면의 이들 보수주의분자들에게 설복하되 동지적 태도로 참을성있게 설복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만일 설복방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좀더 단호한 대책을 취해야 할것이다. 교통인민위원부를 실례로 들어보자. 이 인민위원부의 중앙기관에는 얼마전까지 교수, 기사 및 기타 전문가의 그루빠—그중에는 공산당원들도 있다.—가 있었는데 그들은 기차운행속력이 한시간에 13～14키로메터이면 그 한계에 닿았으니 만일 《운수공학》을 위반하지 않으려거든 이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또 벗어날수도 없다고 모든 사람에게 단언하였다. 이 그루빠는 자기들의 견해를 구두로 또는 출판물을 통하여 선전하여왔으며 교통인민위원부내 해당 각 기관들에 여러가지 지령들을 주는 자못 신망이 높은 사람들이였으며 또한 철도운수일군들가운데서 《권위》있는 사람들이였다. 우리는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철도사업에 종사하는 여러 실지일군들의 제의에 근거하여 13～14키로메터가 그 한계로 될수 없으며 사업을 잘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를 뛰여넘을수 있다는것을 그 위신있는 교수들에게 단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경험과 실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에 대한 자기들의 태도를 재검토할 대신에 철도업의 선진분자들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자기들의

보수주의적견해를 선전하기에 있는 힘을 다하였다. 우리는 그 촌경할만한 사람들을 좀 후려갈기고 교통인민위원부의 중앙기관에서 점잖게 내보내게 되였던것은 당연한 일이다.(박수) 그래서 어떻게 되였는가? 지금 우리의 기차운행속도는 매시간에 18～19키로메터로 되였다.(박수) 동지들, 만일의 경우에 완고한 보수주의자들이 스따하노브운동을 계속 방해하며 저애한다면 두말할것도 없이 우리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들에서도 역시 그런 방법을 취하여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둘째 과업은 스따하노브운동을 방해하려고는 하지 않으며 그 운동에 동정을 하면서도 아직 미처 개변되지 못하였고 또 아직 미처 스따하노브운동의 선두에 나서지 못한 그런 경제일군, 기사, 기수들로 하여금 개변되여 스따하노브운동의 선두에 나서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동지들, 나는 그런 경제일군, 기사 및 기수들이 쏘련에 적지 않게 있다는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만일 우리가 그런 동지들을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런 동무들의 수는 우리 나라에는 반드시 더 많아질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상의 과업들을 수행한다면 스따하노브운동은 대단히 힘차게 전개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주와 구역들을 휩쓸게 될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5. 두어마디의 말

나는 이번 회의와 이번 회의의 의의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려 한다. 레닌은 로동자와 농민을 가르칠뿐만아니라 또한 그들에게서 배울줄 아는 그런 지도자만이 진정한 지도자—볼

쉐위크가 될수 있다고 교시하였다. 볼쉐위크들중의 어떤 사람에게는 레닌의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력사는 레닌이 이 점에 있어서도 100%로 옳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실지에 있어서는 수백만의 근로자, 로동자 및 농민이 로동하며 생활하며 투쟁하고있다. 이 사람들이 헛되이 생활하는것이 아니라 생활하고 투쟁하면서 거대한 실천적경험을 쌓고있다는것을 누가 의심할수 있겠는가? 이러한 경험을 무시하는 지도자들을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할수 없다는것을 과연 의심할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들, 당 및 정부의 지도자들은 로동자들을 가르칠뿐만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 회의에 참석한 여러분이 이 회의를 통하여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에게서 무엇을 좀 배웠으리라는것을 나는 부인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 정부의 지도자들도 이 회의의 참가자들인 스따하노브운동자 여러분에게서 많은것을 배웠다는것도 역시 부인할수 없다. 그러므로 동지들, 감사를 드린다. 가르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우뢰와 같은 박수)

끝으로 이 회의를 어떻게 기념하여야 할것인가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려 한다. 우리 주석단에서 상의한 결과 정부지도자들과 스따하노브운동지도자들과의 이 회의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념하여야 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중의 100～120명에게 최고의 표창을 줄것을 결정하였다.

목소리: 옳습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쓰딸린: 동지들, 만일 동무들이 찬성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스따하노브운동자회의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감격적인 환호를 쓰딸린동지에게 보낸다. 박수갈채소리, 우렁찬 《만세》소리에 회장이 진동한다. 당의 수령 쓰딸린동지에게 경의를 드

리는 환호소리가 계속된다. 끝으로 3,000명의 회의참석자들은 일제히 무산계급의 《국제가》를 높이 부른다.)

《메닌주의 제 문제》, 한문판, 584~598페지

쏘련헌법초안에 관하여

(1936년 11월 25일 전련맹쏘베트
제8차비상대회75에서 한 보고)

(쓰딸린동지가 연단에 나타나자 회의의 전체 참가자들이 오래동안 열렬히 환호한다. 모두 기립한다. 장내에서 환호소리가 일어난다. 《쓰딸린동지 우라!》, 《쓰딸린동지 만세!》, 《위대한 쓰딸린 만세!》, 《위대한 천재 쓰딸린동지 우라!》, 《만세!》, 《붉은 전선이여!》 《쓰딸린동지에게 영광이 있으라!》)

1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그 임무

동지들!

이 대회의 심의에 헌법초안을 제출한 헌법위원회는 다 아는바와 같이 쏘련 쏘베트 제7차대회의 특별결정에 의하여 조직된것이다. 그 결정은 1935년 2월 6일에 채택되였는데 그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1. 쏘련헌법을 다음과 같은 방침에 의하여 수정할것.

(1) 완전히는 평등적이 아닌 선거제를 평등적인 선거제로, 간접선

거제를 직접선거제로, 공개선거제를 무기명선거제로 바꾸는 의미에서 선거제를 더 민주주의화할것.

(2) 헌법을 쏘련의 현시 계급적세력관계(새 사회주의적공업의 창설, 부농들의 격파, 집단농장제도의 승리, 쏘련사회의 기초인 사회주의적소유제의 확립 기타 등등.)에 적응되게 하는 의미에서 헌법의 사회경제기초를 더 정밀하게 규정할것.

2. 헌법위원회를 선출하고 그 헌법위원회로부터 제1항 규정의 원칙에 좇아 헌법수정안을 작성한후 쏘련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도록 할것을 쏘련중앙집행위원회에 건의할것.

3. 쏘련에서의 쏘베트정권기관들의 금후의 정기적선거는 새 선거제에 의하여 실시할것.》

이것은 1935년 2월 6일에 결정한것이다. 이 결정을 채택한 그다음날, 즉 1935년 2월 7일에 쏘련중앙집행위원회는 제1차회의를 열고 쏘련 쏘베트 제7차대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31명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를 내왔다. 쏘련중앙집행위원회 제1차회의는 헌법위원회에 쏘련헌법의 수정안을 작성할것을 책임지웠다.

헌법위원회는 이러한 정식적근거와 쏘련최고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을 전개하였던것이다.

이리하여 헌법위원회는 192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쏘련의 실생활에서 달성한 사회주의면에로의 모든 진전을 참작하면서 1924년에 채택된 현행헌법을 수정하여야 하였던것이다.

2

1924년부터 1936년까지의 기간에 쏘련의 실생활에서 일어난 변화

1924년부터 1936년까지의 기간에 쏘련의 실생활에서 생긴

변화중에서 헌법위원회가 그의 헌법초안에 반영하여야 할것들은 어떠한것인가?

그 변화의 본질은 어떠한것인가?

1924년에 우리의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그때는 신경제정책의 첫시기였다. 그때는 쏘베트정권이 사회주의를 배방으로 발전시키는 조건하에서 자본주의가 얼마쯤 활기를 띠는것을 용인하였고 자본주의적경제체제와 사회주의적경제체제와의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회주의적체제가 자본주의적체제보다 우세를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 때였다. 당시의 임무는 이 경쟁과정에서 사회주의의 진지를 공고히 하고 자본주의요소들을 청산하고 인민경제의 기본체제로서의 사회주의적체제의 승리를 완성하는데 있었다.

우리 나라의 공업, 특히 중공업은 그때에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것이 조금씩 부흥된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그 생산량이 전쟁전 수준에까지 이르기에는 멀었던것이다. 우리 나라 공업은 낡고 락후하고 빈약한 기술을 토대로 삼고있었다. 그가 사회주의방향으로 발전한것은 물론이다. 그때 우리 나라 공업에서 사회주의적요소의 비중은 약 8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자본주의적요소의 비중이 공업에서 20%이하를 차지하지는 않았다.

그때 우리 나라의 농업은 더욱 보잘것없었다. 물론 지주계급은 이미 소멸되였으나 농업자본가계급, 즉 부농계급은 의연히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있었다. 전반적으로 보아 그때의 농업은 락후한 중세기적기술에 의하여 경영되는 개체적소농경영의 망망한 대해라고 할수 있었다. 그리고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은 이 대해속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작은 섬들과 같았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의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은 우리의 인민경제에서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다. 집단농장과 국영농

장은 그 힘이 약하였으나 부농은 의연히 힘을 가지고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때에 부농에 대하여 제한할것만 제기하였고 청산할것은 제기하지 않았다.

국내의 상품류통형편도 역시 이러하였다. 상품류통령역에서 사회주의적요소가 50~60%를 차지하였을뿐이였다. 그외의 지반은 상인, 투기업자 및 기타 개인경영가들이 차지하고있었다.

1924년의 우리 나라의 경제형편은 바로 이러하였다.

현시기 1936년의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

이전에는 우리가 신경제정책의 첫시기, 신경제정책의 시초, 자본주의가 일정한 정도로 활기를 띠던 시기에 처하여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신경제정책의 최후시기, 신경제정책의 말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의 자본주의의 완전한 청산기에 처하여있다.

우선 우리 나라의 공업에 대하여 말하여보기로 하자. 우리 나라의 공업은 이 시기에 거대한 힘을 가진 공업으로 장성되였다. 지금은 벌써 그것을 빈약한 공업이라거나 또는 그 기술설비가 나쁜 공업이라고 말할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그것은 지금 비상히 발전된 중공업과 또 더한층 발전된 기계제작업의 기초우에, 풍부한 현대적인 새로운 기술적기초우에 건립되여있다. 가장 주요한것은 자본주의가 우리 나라 공업령역에서 전부 구축되고 사회주의적생산형태가 지금 우리 나라의 공업에서 유일한 지배적체계로 된 그것이다. 우리 나라 현시기의 사회주의적공업의 생산량이 전쟁전 공업생산량에 비하여 6배이상을 초과한 이 사실은 절대 사소한 일로 생각할수 없는 것이다.

농업면에서 우리는 지금 락후한 기술을 가지고 부농이 압도적세력을 가지고있던 수많은 개체적소농경영의 망망한 대해

에 빠져있는것이. 아니라 모든것을 포함하는 집단농장 및 국영농장 체계의 형태로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기계화되고 새 기술로 장비된 생산을 경영하고있다. 농업면에서 부농이 이미 청산되고 락후한 중세기적기술에 의하여 경영되던 개체적소농경영성분이 보잘것없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농업에서의 그 비중이 파종면적에서 볼 때 불과 2~3%밖에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 집단농장에서 570만마력에 달하는 31만 6,000대의 뜨락또르를 가지고있으며 게다가 국영농장의것까지 합치면 758만마력에 달하는 40여만대의 뜨락또르를 가지고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국내의 상품류통에 대해서 말한다면 상인들과 투기업자들이 이 령역에서 전부 구축되였다. 지금 상품류통은 전부 다 국가, 협동조합 및 집단농장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 투기업자들이 없는 상업, 자본가들이 없는 상업인 새로운 쏘베트상업이 산생되고 발전되였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의 사회주의적체제의 완전한 승리가 사실로 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현상이 없어졌고 청산되였다는것과 생산도구 및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제가 우리 쏘련사회의 확고부동한 기초로 확립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오래 계속되는 박수)

쏘련의 인민경제면에서 이 모든 변화들이 일어난 결과 우리는 지금 공황과 실업이 없고 빈궁과 파산이 없는 그리고 부유한 문화적생활을 향수할 모든 가능성을 공민들에게 줄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를 가지고있다.

1924년부터 1936년까지의 기간에 우리 나라 경제령역에서 일어난 변화들은 대체로 이러하다.

쏘련의 경제령역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계급적구성에도 그와 상응한 변화가 일어났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주계급은 국내전쟁의 승리적종결과 함께 완전히 소멸되였으며 기타 착취계급들도 지주계급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공업면에서는 자본가계급이 없어졌다. 농업면에서는 부농계급이 없어졌다. 상품류통면에서는 상인과 투기업자가 없어졌다. 이와 같이 모든 착취계급들이 청산되였다.

로동계급이 남아있다.

농민계급이 남아있다.

지식인이 남아있다.

그런데 만일 이 사회적집단들이 이 기간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말하자면 그들이 자본주의시기와 꼭같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것이다.

쏘련의 로동계급을 례로 들어보자. 사람들은 흔히 옛습관대로 그들을 무산계급이라고 부르고있다. 그런데 무산계급이란 무엇인가? 무산계급이란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에게 속하여있고 자본가계급이 무산계급을 착취하는 그런 경제제도하에서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수탈당한 계급이다. 무산계급이란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계급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다 아는바와 같이 자본가계급이 청산되였으며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에게서 탈환되여 로동계급을 령도적세력으로 하는 국가에 넘어왔다. 따라서 로동계급을 착취할 수 있는 자본가계급이 이미 없어졌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로동계급은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수탈당하지 않고있을뿐더러 반대로 전체 인민과 함께 그것을 점유하고있다. 그가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점유하였고 자본가계급이 이미 청산된 이상 로동계급을 착취할수 있는 온갖 가능성이 죄다 없어졌다.

사실이 이러한데 우리 나라의 로동계급을 무산계급이라고 부를수 있는가? 그렇게 부를수 없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맑스는 무산계급이 자신을 해방하려면 자본가계급을 분쇄하고 자본가의 수중에서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빼앗아내고 무산계급을 산생시키는 생산조건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쏘련의 로동계급이 자기 해방을 위한 이러한 조건들을 실현하였다고 말할수 있는가? 물론 그렇다고 말할수 있으며 또 그렇게 말하여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쏘련의 무산계급이 이미 완전히 새로운 계급으로 전화되였다는것, 자본주의적경제제도를 소멸하고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제를 확립하고 쏘련사회를 공산주의 길로 인도하는 쏘련의 로동계급으로 전화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쏘련의 로동계급은 착취에서 해방된, 인류의 력사에서 있어본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로동계급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농민에 관한 문제에로 넘어가자. 사람들은 흔히 농민을 소생산자계급이라고 말한다. 즉 농민은 그 성원들이 마치 흩어진 모래알처럼 전국 각지에 분포되여 자기의 소규모적경제범위내에서 제각기 락후한 기술에 의하여 근근히 농사를 지어가는 사적소유의 노예로서 지주, 부농, 상인, 투기업자, 고리대금업자들의 공공연한 착취를 당하는 소생산자계급이라고들 말한다. 그렇다. 자본주의국가들에서의 농민은 그 기본대중에 대하여 말하면 실로 이러한 계급인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농민, 쏘련농민의 대다수를 그와 같은 농민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물론 그렇게 말할수 없다. 우리 나라에는 그런 농민이 없다. 우리 쏘련의 농민은 완전히 새로운 농민이다. 우리 나라에는 농민을 착취할수 있는 지주, 부농, 상인, 고리대금업

자들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농민은 착취에서 해방된 농민이다. 다음 우리 쏘련의 농민은 절대다수가 집단농장의 농민이다. 다시말하면 그들의 로동과 재산은 개체로동과 락후한 기술의 토대우에 건립된것이 아니라 집단적로동과 현대적 기술의 토대우에 건립된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농민의 경제기초는 개체소유제인것이 아니라 집단로동의 토대우에서 성장한 집단소유제인것이다.

이로부터 쏘련의 농민은 인류력사에서 있어본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농민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인에 대한 문제, 기사, 기술자, 문화일군 및 모든 사무원 등등에 관한 문제에로 넘어가자. 우리 나라의 지식인들도 지난 기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지식인들은 이미 자기를 초계급적위치에 놓으려고 시도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 대부분이 지주와 자본가에게 봉사하던 그런 완고한 낡은 지식인이 아니다. 우리 쏘련의 지식인은 로동계급 및 농민과 긴밀히 련결된 완전히 새로운 지식인이다. 첫째, 지식인의 구성요소가 변하였다. 우리 쏘련의 지식인층에는 귀족, 자산계급출신의 비례가 극히 적다. 쏘련의 지식인은 그 80~90%가 로동계급, 농민 및 기타 근로자층의 출신이다. 그리고 지식인의 활동성격도 달라졌다. 그들은 이전에 부유한 계급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그것은 고들에게 다른 출로가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들은 오늘 인민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는데 그것은 착취계급이 이미 없어졌기때문이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그들은 오늘 쏘련사회에서 평등한 권리를 향수하는 성원으로 되여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어깨를 겯고 전진하면서 계급이 없는 사회주의 새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

이로부터 이 지식인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근로지식인이란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것들이 지난 기간에 쏘련사회의 계급적구성면에서 일어난 변화들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첫째로 이러한 변화들은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선, 그리고 이 두 계급과 지식인사이의 계선이 없어져가며 낡은 계급적특수성도 사라져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것은 즉 이러한 사회적집단들사이의 거리가 날로 축소되여가고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둘째로 이러한 변화들은 이 사회적집단들사이의 경제적모순들이 축소되여가고 소실되여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이 사회적집단들사이의 정치적모순들도 축소되여가고 소실되여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것이 바로 쏘련의 **계급적구성**면에서 일어난 변화들이다.

쏘련의 사회적생활에서 일어난 변화의 진상을 말할 때 다른 한면에서 일어난 변화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면 충분하지 못할것이다. 나는 쏘련에서의 **민족적**호상관계를 놓고 말한다. 다 알다싶이 쏘련에는 약 60개의 민족과 민족집단이 살고있다. 쏘베트국가는 다민족국가이다. 그러므로 쏘련의 여러 민족 인민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의를 가지지 않을수 없는 문제로 나서고있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다 알다싶이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은 1922년 쏘련 제1차쏘베트대회76에서 창건되였다. 그것은 쏘련의 각 민족 인민의 평등 및 자원의 원칙에 근거하여 구성된것이다. 1924년에 채택된 현행헌법은 쏘련의 첫 헌법이다. 그때는 각 민족사이의 관계가 아직 원만하게 조정되지 못하였고 대로씨야민족에 대한 불신임의 잔재가 아직 소실되지 못하였고 원심력이

계속 작용하던 시기였다. 그때 이런 조건하에서 각 민족 인민을 하나의 다민족련맹국가에 련합시켜 경제적, 정치적 및 군사적 호상원조의 토대우에서 그들의 형제적협작관계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쏘베트정권은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쏘베트정권은 다민족국가건설에서 당한 자산계급나라들의 실패의 경험들을 보았다. 그는 낡은 오지리-웽그리아제국이 와해된 교훈을 보았다. 그렇지만 쏘베트정권은 다민족국가의 창건을 위한 실험에 착수하였다. 왜냐 하면 쏘베트정권은 사회주의의 토대우에서 산생되는 다민족국가는 온갖 시련을 이겨낼수 있다는것을 알았기때문이다.

그때로부터 14년이 지나갔다. 이 시기는 실험의 결과를 검열하기에 충분한 시기였다.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가? 지나간 시기는 사회주의의 토대우에서 다민족국가를 창설하기 위한 실험이 완전히 성공되였다는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었다. 이것은 레닌의 민족정책이 이룩한 뚜렷한 승리인것이다.(오래 계속되는 박수)

어찌하여 이러한 승리를 가져올수 있었는가?

민족들사이의 분규를 산생시키는 주요한 세력인 착취계급이 소멸된것, 민족간의 호상불신임을 조장시키고 민족주의적 격정을 고취하던 착취제도가 없어진것, 온갖 예속을 반대하고 국제주의사상을 충실히 실현하는 로동계급이 정권을 장악한것, 경제적 및 사회적 생활의 모든 면에서 각 민족 인민간에 호상원조가 참답게 실현된것, 마지막으로 민족적형식과 사회주의적내용을 가진 쏘련 각 민족 인민의 민족적문화가 발랄하게 발전한것—이 모든것 또는 이와 류사한것들은 쏘련 각 민족 인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개변시켰으며 그들간의 호상불신임을 사라지게 하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는 감정을 발전시켰으며 그리하여 통일적인 련맹국가체계내에서의 각 민족

인민의 진정한 형제적협조관계를 건립하게 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완전히 형성된 다민족적사회주의국가를 가지게 되였다. 이 국가의 공고성 이야말로 세계의 어느 대륙의 어느 단일민족국가들도 비길수 없는것이다.(열렬한 박수)

이러한것이 지난 기간에 쏘련의 각 민족의 호상관계면에서 일어난 변화들이다.

이러한것이 1924년부터 1936년까지의 기간에 쏘련의 경제생활과 사회정치생활 면에서 일어난 각종 변화에 대한 총화이다.

3

헌법초안의 기본적특성

쏘련의 실생활에서 일어난 이 모든 변화들이 새 헌법초안에 어떻게 반영되였는가?

달리말하면 이 대회의 심의에 넘긴 헌법초안의 기본적특성은 어떤것인가?

헌법위원회는 1924년에 제정된 헌법조항들을 수정할것을 위탁받았다. 헌법위원회의 사업결과로 헌법의 새 조항, 즉 쏘련의 새 헌법초안이 나왔다. 헌법위원회는 새 헌법초안을 작성할 때 헌법을 강령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것은 헌법과 강령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강령은 아직 없는것, 장차 달성하고 전취하여야 할것에 대하여 말하여야 하는것이지만 헌법은 그와는 반대로 이미 있는것, 지금 이미 달성하였고 전취한것들에 대하여 말하여야 하는것이다. 강령은 주로 장래에 대하여 말하는것이고

헌법은 현재에 대하여 말하는것이다.

두가지 실례를 들어 이것을 말하여보기로 하자.

우리의 쏘련사회는 기본상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였으며 사회주의제도를 건립하였다. 즉 맑스주의자들이 다른 말로써 공산주의의 첫단계 혹은 저급단계라고 부르는 그러한 제도를 실현하였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공산주의의 첫단계인 사회주의를 기본상에서 실현하였다.(오래 계속되는 박수) 다 아는바와 같이 공산주의의 첫단계의 기본원칙은 《각자는 능력을 다하고 각자에게는 로동에 따라 분배한다.》는 공식인것이다. 우리의 헌법은 사회주의가 전취한 이 사실을 반영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헌법은 사회주의가 전취한 이 사실에 기초하여야 하는가? 전적으로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쏘련에서는 사회주의가 이미 달성되고 전취되였기때문이다.

그런데 쏘련사회는 비록 공산주의의 고급단계의 실현을 자기의 미래의 목표로 삼고있기는 하지만 아직 《각자는 능력을 다하고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공식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공산주의의 고급단계를 실현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의 헌법이 아직 없으며 앞으로 전취하여야 할 공산주의의 고급단계에 기초할수 있는가? 그럴수는 없다. 왜냐 하면 공산주의의 고급단계는 쏘련에서 아직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실현되여야 할것이기때문이다. 헌법이 강령 또는 앞으로 쟁취하여야 할것에 관한 선언서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할수 없는것이다.

현 력사적시기에 있어서의 우리 헌법의 범위는 이러한것이다.

그러므로 새 헌법초안은 지나온 행정에 대한 총화이며 이미 달성한 성과에 대한 총화인것이다.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에서 이미 달성하고 전취한것들을 기록하고 립법적으로 고정화하는것이다.(열렬한 박수)

이것이 쏘련 새 헌법초안의 첫째 특성이다.

다음으로, 자산계급국가들의 헌법은 언제나 자본주의제도의 확고불변의 신념으로부터 출발하는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주되는 기초는 자본주의의 원칙, 자본주의의 기본적준칙—토지, 삼림, 공장 및 기타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존재, 사회의 한 극에서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헐벗고 굶주리며 다른 한 극에서는 일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물쓰듯하며 호화롭게 지내는것, 그밖에 여러가지가 있는것이다. 자산계급국가들의 헌법은 자본주의의 이러한 준칙에 의거하고있는것이다. 그 헌법들은 이러한 준칙을 반영하고 그것을 립법적으로 고정화하는것이다.

자산계급국가의 헌법과는 달리 쏘련의 새 헌법초안은 쏘련에서 자본주의제도가 소멸된 사실과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사실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쏘련의 새 헌법초안의 주되는 기초는 사회주의적원칙, 이미 전취되였고 실현된 사회주의의 기본준칙—토지, 삼림, 공장 및 기타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이 사회주의적소유로 된것,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이 소멸된것, 다수의 사람이 굶주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호화롭게 살던 현상이 소멸된것, 실업이 없어진것,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에 의하여 로동이 로동능력을 가진 매개 공민이 리행해야 할 의무와 영광스러운 본분으로 된것, 로동할 권리, 즉 매개 공민이 취업의 보장을 받는 권리, 휴식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및 기타 권리를 가진것. 그밖에 여러가지가 있는것이다. 새 헌법초안은 사회주의의 이러한 준칙들을 의거로 하였으며 이러한 준칙들을 반영하였으며 립법적으로 이런 준칙들을 고정

화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새 헌법초안의 둘째 특성이다.

그다음으로, 자산계급헌법은 무언중에 사회가 적대되는 계급, 즉 재부를 점유한 계급과 재부를 점유하지 못한 계급들로써 구성된다는것, 어떠한 당이 정권을 잡게 되든지간에 사회에 대한 국가적령도권(독재)은 자산계급에게 장악되여야 한다는것, 헌법은 유산계급의 념원에 부합되며 유산계급에게 유리한 사회적질서를 고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자산계급헌법과는 달리 쏘련 새 헌법초안은 사회에는 적대되는 계급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것, 사회는 호상 친선적인 두 계급, 즉 로동자와 농민들로써 구성되여있다는것, 바로 이 두 근로자계급이 정권을 잡고있다는것, 사회에 대한 국가적령도권(독재)이 사회의 선진계급인 로동계급에게 장악되여있다는것, 헌법이 근로자의 념원에 부합되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회적질서를 고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것으로부터 출발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재 헌법초안의 셋째 특성이다.

또 다음으로, 자산계급헌법은 무언중에 각 민족들과 각 종족들이 서로 평등할수 없다는것, 완전한 권리를 가진 민족들과 완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민족들이 있다는것, 그밖에 셋째 등급의 민족이거나 종족, 례하면 권리를 가지지 못한 민족들보다도 권리가 한층더 적은 식민지의 민족 또는 종족이 있다는 전제조건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이것은 이 모든 헌법들이 기본상에서 민족주의적헌법, 즉 지배적민족의 헌법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자산계급헌법과는 달리 쏘련 새 헌법초안은 심각한 국제주의적성격을 띠고있다. 그것은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그것은 각 민족들과 종족들의 피부에서나 언어에서의 차이, 문화수준이나 국가발전수준에서의 차이, 그리고 기타 면에서의 온갖 차이가 민족적불평등을 변호하는 근거로 될수 없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그것은 모든 민족과 종족들이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간에, 그들이 강하거나 약하든지간에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향수하여야 한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이것이 새 헌법초안의 넷째 특성이다.

새 헌법초안의 다섯째 특성은 철저하고도 시종일관하게 민주주의적이라는데 있다. 민주주의적견지로부터 본다면 자산계급헌법들을 두 종류로 나눌수 있다. 즉 한 종류의 헌법은 공민의 평등한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직접 부인하거나 사실상에서 그것들을 있으나마나하게 만드는것이다. 다른 한 종류의 헌법은 민주주의적원칙을 즐겨 받아들이며 지어는 그것을 표방하기까지 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제한과 부대적조건을 덧붙여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기형적인것으로 만들어버리는것이다. 그 헌법들은 모든 공민들이 평등한 선거권을 가지고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거주년한, 교육정도 지어는 재산자격 등등으로써 그 권리를 제한한다. 그 헌법들은 공민의 평등한 권리를 운운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녀성들에게는 관계되지 않는것이라거나 혹은 일부 녀성들에게만 관계되는것이라는 부대적조건들을 내세우고있다. 그밖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쏘련 새 헌법초안의 특성은 이러한 부대적 조건과 제한들이 전혀 없는데 있다. 이 헌법초안은 적극적공민이요, 소극적공민이요 하는 구분을 두지 않고 모든 공민을 다 적극적인 공민으로 인정한다. 그것은 남성과 녀성, 《거주자》와 《비거주자》, 유산자와 무산자, 유식자와 무식자간의 권리상 차이를

승인하지 않고 모든 공민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다. 모든 공민의 사회적지위를 결정하는것은 재산정황도 민족별도 성별도 직위의 높고낮음도 아니고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로동인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헌법초안은 또 한가지 특성을 가지고있다. 자산계급헌법은 언제나 공민들의 형식적권리를 규정하는데 국한하고 이러한 권리의 실현조건, 실현의 가능성, 실현수단들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는다. 자산계급헌법들은 공민의 평등을 운운하지만 사회에서 자본가와 지주는 재부와 정치적세력을 가지고있고 로동자와 농민은 재부와 정치적세력을 가지지 못하고있는것만큼, 자본가와 지주는 착취자들이고 로동자와 농민은 피착취자들인것만큼 공장주와 로동자, 지주와 농민사이에 진정한 평등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망각하고있다. 그리고 또 자산계급헌법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운운하지만 로동계급은 마땅한 회장, 좋은 인쇄공장, 충족한 수량의 인쇄용종이 및 기타 등등을 가질수 없는것만큼 이러한 자유는 로동계급에게 있어서는 공담으로 될수밖에 없다는것을 망각하고있다.

새 헌법초안의 특성은 공민의 형식적권리를 규정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데 관한 문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의 수단에 관한 문제들에 중점을 두고있는데 있다. 새 헌법초안은 공민의 권리평등을 단순히 선포하는것만이 아니라 착취제도가 소멸된 사실, 공민이 온갖 착취에서 해방된 사실을 법법적으로 고정화함으로써 공민의 권리평등을 보장하여주고있다. 새 헌법초안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단순히 선포하는것만이 아니라 쏘련사회에서 공황이 없어진 사실, 실업이 없어진 사실들을 법법적으로 고정화함으로써 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주고있다. 새 헌법초안은 민주주

의적자유를 단순히 선포하는것만이 아니라 립법에 의한 일정한 물질적수단으로써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새 헌법초안에 제기된 민주주의는 《일반적인》 《공인된》 민주주의일반이 아니라 사회주의적민주주의라는것이 명백하다.

이러한것이 쏘련 새 헌법초안의 기본적특성들이다.

새 헌법초안에는 1924～1936년기간에 쏘련의 경제 및 사회정치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들과 발견들이 이렇게 반영되여있다.

4

헌법초안에 대한 자산계급의 비판

헌법초안에 대한 자산계급의 비판에 대하여 말하여보기로 하자.

외국자산계급의 출판물들이 우리의 헌법초안을 어떻게 대하고있는가 하는 문제는 두말할것없이 흥미있는 문제이다. 외국의 출판물들이 자산계급국가의 각 계층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있기때문에 우리는 헌법초안에 대한 이러한 출판물들의 비판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우리 나라 헌법초안에 대한 외국의 출판물들의 최초의 반응은 이 헌법초안을 묵과하는것으로 표현되였다. 여기에서 나는 가장 반동적인 파쑈적출판물들을 두고 말한다. 이러한 비판가들은 마치도 세상에는 이런 헌법초안이 전혀 없었던것처럼 또 도무지 없는것처럼 아예 입을 다무는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였다. 입을 다무는것을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묵과하는 방법은 무시하는 일종의 특수한 수단으로서 역시 비판의 한가지

형식인것이다. 비록 그것은 어리석고 가소롭기 짝이 없는것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비판의 일종 형식인것이다.(만장의 웃음소리, 박수) 이렇게 묵과하는 수단으로써는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나중에 하는수없이 말문을 열고 슬픈 일이지만 쏘련헌법초안이 있다는것과 또 있을뿐만아니라 그것이 이미 인심을 선동하는 나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세상에 보도하지 않을수 없었다. 실로 이렇게밖에 달리는 할수가 없었던것이다. 왜냐 하면 세상에는 어쨌든 사실의 진상을 알려는 여론계와 독자들과 산 사람들이 있는것이며 또 그들을 오래동안 속여나가기는 불가능하기때문이다. 기만으로써는 오래 견디여나갈수 없는것이다.…

둘째 종류의 비판가들은 헌법초안이 세상에 확실히 있다는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헌법초안은 사실상 헌법초안인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수완을 부려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한 내용없는 약속이며 텅 빈 종이장이여서 그리 큰 흥미를 끌만한것이 못된다고 한다. 동시에 그들은 또 쏘련이란 근본상 국가인것이 아니라 지리학적개념에 불과하기때문에(만장의 웃음소리) 쏘련이 더 좋은 초안을 내놓을수 없으며 쏘련이 국가가 아닌 이상 그 헌법도 진정한 헌법으로 될수 없다는것이다. 이런 비판가의 전형적대표자는 괴상하게도 바로 독일의 반공식잡지인 《독일외교정치통신》이다. 이 잡지는 쏘련의 헌법초안을 텅 빈 약속이고 기만이며 《뽀쫌낀의 농촌》77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였다. 그 잡지는 쏘련이란 국가인것이 아니라 《하나의 확정적인 지리학적개념에 불과하므로》(만장의 웃음소리) 쏘련헌법은 진정한 헌법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였다.

이따위 비판가라고 하는자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로씨야의 위대한 작가 쉐드린은 자기의 한편의 우화①에서 고집이 세고 편협하고 우둔하면서도 자부심이 몹시 강하고 직무에 충실한 관료의 전형을 묘사하였다. 이 관료는 자기의 《관할》지구에서 수천수만명의 주민을 학살하고 수십개의 도시를 불살라버리고 《질서와 안정》을 세워놓고는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살펴보다가 수평선 저쪽에 있는 미국이란 나라를 발견하였다. 그 나라는 물론 세상에 그리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인심을 끄는 자유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였다. 이 관료는 미국을 보자 이것은 대체 어떤 나라이냐,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이 나라는 도대체 무슨 리유로 존재하느냐?(만장의 웃음소리, 박수) 그것은 물론 몇세기전에 우연히 발견된 나라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다시 자취없이 붕괴해버릴수 없단말이냐?(만장의 웃음소리) 하고 펄펄 뛰며 소리쳤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미국을 다시 붕괴해버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만장의 웃음소리)

내 생각에는 《독일외교정치통신》잡지의 나으리들은 쉐드린이 우화에서 묘사한 관료와 신통하게도 꼭같은것이다.(만장의 웃음소리, 찬성의 박수) 쏘련은 오래전에 벌써 그 나으리들의 눈에 든 가시로 된것이다. 쏘련은 19년동안 등대마냥 거연히 서서 전 세계 로동계급을 해방의 정신으로 감염시켰으며 로동계급의 적들을 미쳐날뛰게 하였다. 이 쏘련은 존재하고있을뿐만아니라 날로 장성하고있으며 날로 장성하고있을뿐만아니라 날로 번영하고있으며 날로 번영하고있을뿐만아니라 새 헌법초안을, 즉 피압박계급의 정신을 환기시키며 새 희망을 안겨주는 헌법초안을 작성하기까지 하였다.(박수) 이러한 사

① 엠.에.쌀띄꼬브-쉐드린의 《정력을 기울여 나라일을 돌보는 한 장관이 어떻게 그의 열성으로 상관에게 근심걱정을 끼쳤는가 하는 이야기》를 가리킨다.—편집자

실앞에서 독일 반공식잡지의 나으리들이 어찌 격분해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그들은, 이것은 대체 어떤 나라이냐, 이 나라는 무슨 리유로 존재하느냐(만장의 웃음소리), 그것을 1917년 10월에 발견하였다면 왜 그것을 다시 자취없이 붕괴해버리지 못했단말이냐 하고 노발대발하고있다. 그리고나서 나으리들은 쏘련을 다시 붕괴해버리라는것, 쏘련이란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쏘련이란 한갖 지리학적개념에 불과하다는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것을 지시하였다!(만장의 웃음소리)

웨드린의 우화에 나오는 관료는 미욱한 인간이였지만 미국을 다시 붕괴해버리라는 지시를 내릴 때에는 그래도 실정을 리해하는 능력을 좀 나타내였다. 왜냐 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혼자말로 《그러나 이것은 나의 힘으로써는 어찌할수 없는 일일수도 있다.》고 중얼거렸기때문이다.(유쾌한 웃음이 터진다. 열렬한 박수) 독일의 반공식잡지의 나으리들이 물론 지상으로써는 이 나라나 저 나라를 《붕괴해버릴수》는 있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여 《이것은 그들의 힘으로써는 어찌할수 없는 일》이라는것을 예상할만한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있을는지 나는 모르겠다.…(유쾌한 웃음이 터진다. 열렬한 박수)

쏘련헌법이 텅 빈 약속, 《뽀쫌낀의 농촌》 등등과 같은것이라고 운운하는데 대하여 나는 더는 증명할 필요도 없는 일련의 확정적인 사실들을 인증하려고 한다.

1917년에 쏘련의 각 민족 인민들은 자산계급을 전복하고 무산계급독재를 건립하였으며 쏘베트정권을 건립하였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리고 쏘베트정권은 지주계급을 소멸하고 1억 5,000만헥타르이상에 달하는 이전의 지주, 관청, 사원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넘겨주었다. 이전에 농민들에게 속하여있던 토지는 이안에 들지 않는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리고 쏘베트정권은 자본가계급을 수탈하고 그들의 은행, 공장, 철로 및 기타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몰수하여 사회주의적소유로 선포한후 로동계급중의 우수한 인물들을 파견하여 이러한 기업소들을 지도하게 하였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다.(오래 계속되는 박수)

그리고 쏘베트정권은 사회주의적 새 원칙에 좇아 새 기술적토대우에 공업과 농업을 조직함으로써 지금 쏘련의 농업생산물을 전쟁전의 1배 반으로, 공업생산량을 전쟁전의 7배로 증대시켰으며 국민수입을 전쟁전의 4배로 증대시켰다. 이 모든것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다.(오래 계속되는 박수)

그리고 쏘베트정권은 실업을 없애버리고 로동할 권리, 휴식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였으며 로동자, 농민, 지식인에게 보다더 나은 물질적 및 문화적 조건들을 보장하여주었으며 보편적이고 직접적이고 평등적인 무기명투표에 의한 선거제를 실시하도록 보장하여주었다. 이 모든것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다.(오래 계속되는 박수)

마지막으로, 쏘련은 새 헌법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이상의 사실들을 기록하고 립법적으로 고정화한것이며 이미 달성하고 전취한것들을 기록하고 립법적으로 고정화한것이다.

묻노니,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반공식잡지를 꾸리는 나으리들이 《뽀쫌낀의 농촌》이라고 지껄여대는것은 바로 인민들이 쏘련의 진상을 알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미로에 몰아넣으며 기만하기 위한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실은 바로 이러하다. 그런데 사실들은 세상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움직일수 없는것이다. 독일 반공식잡지를 꾸리는 나으리들은 그 사실자체가 불행한것이라고 말할수도 있을것이다.(만장의 웃음소리)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이 다 아는 《어리

석은 사람에게는 법률이 소용없다.»는 로씨야의 속담으로 그들에게 대답할수 있다.(유쾌한 웃음소리, 오래 계속되는 박수)

셋째 종류의 비판가들은 헌법초안에 상당히 많은 우점들이 있다는것을 승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초안을 한낱 좋은 현상이라고 인정하나 이 초안중의 많은 조항들이 실현될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퍼그나 의심을 품고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조항들이 근본적으로 실현될수 없고 다만 지상공문으로만 남아있게 되리라고 믿고있기때문이다. 겸손하게 말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회의론자들인것이다. 이런 회의론자들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처음 보는것이 아니다. 1917년에 볼쉐위크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회의론자들은 볼쉐위크들이 아닌게아니라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정권을 유지할수 없으며 꼭 실패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볼쉐위크가 실패한것이 아니라 회의론자들이 실패하였다.

국내전쟁과 외국무력간섭이 있던 시기에 이 회의론자들은 쏘베트정권은 물론 나쁜것이 아니지만 제니낀 및 꼴챠크, 그리고 거기에 외국사람들까지 합하여 달려든다면 아마도 이 정권은 정복될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회의론자들은 이 점에서도 오산하였던것이다.

쏘베트정권이 제1차5개년계획을 공포하였을 때에도 회의론자들은 또다시 뛰쳐나와 5개년계획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실현될것 같지 못하다느니 볼쉐위크들은 5개년계획을 실현하지 못할것 같다느니 뭐니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5개년계획이 4년동안에 완수됨으로써 또다시 회의론자들이 실패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새 헌법초안 및 이 초안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비판에 대하

여서도 역시 이렇게 말하여야 할것이다. 헌법초안이 공포되자마자 이 비판가들은 또다시 뛰쳐나와 저들의 비관적인 회의론을 퍼뜨리며 헌법중의 일부 조항들은 실현될것 같지 못하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회의론자들이 이번에도 지난날 그들이 두차 실패하였던것처럼 실패하게 되리라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없는것이다.

넷째 종류의 비판가들은 새 헌법초안을 공격하면서 이 초안은 《우익적》이라느니, 《무산계급독재를 포기하였다》느니, 《볼쉐위크제도를 취소하였다》느니 뭐니 하고 평가하였다. 그들은 《볼쉐위크들은 우익적편향으로 넘어갔다,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여러가지 어조로 떠벌리였다. 이 면에서 특히 열성을 다하고있는것은 뽈스까의 일부 신문들과 미국의 일부 신문들이다.

이따위 비판가라는자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만일 로동계급독재의 기초를 확대하며 그 독재를 사회에 대한 국가적령도를 실행하는 더욱 령활하고도 더욱 강대한 체계로 만드는것을 로동계급의 독재를 강화하는것이 아니라 약화하는것으로, 지어는 이 독재를 포기하는것으로 해석한다면 묻노니, 나으리들은 로동계급의 독재라는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나 있는가?

만일 사회주의의 승리를 렵법적으로 고정화하며 공업화, 집단화, 민주주의화의 성과들을 렵법적으로 고정화하는것을 《우익적》이라고 한다면 묻노니, 나으리들은 좌익과 우익이 도대체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알고나 있는가? (만장의 웃음소리, 박수)

이 나으리들은 헌법초안을 비판함에 있어서 완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그런것만큼 그들이 우익과 좌익을 뒤섞어

놓는것은 조금도 이상할것 없다.

여기에서 고골리의 《죽은 넋》에 나오는 지주집《하녀》 뻴라게야를 련상하지 않을수 없다. 고골리의 묘사에 의하면 이 《하녀》가 한번은 치치꼬브의 말몰이군인 쩰리판에게 길을 가리켜주려고 하였는데 그만 좌우편을 가릴줄 몰라서 매우 곤난한 지경에 빠졌다고 한다. 뽈스까신문의 비판가들이 제아무리 자존심이 강하다 하더라도 《죽은 넋》에 나오는 지주집《하녀》 뻴라게야의 리해력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것을 승인하여야 할것이다.(박수) 여러분도 기억하고있겠지만 말몰이군 쩰리판은 뻴라게야가 좌우편을 가릴줄 모르는것을 보고 《애, 촌뜨기야… 너 그래 어느쪽이 오른쪽이고 어느쪽이 왼쪽인줄도 분간할줄 모르느냐》 하고 책망하였던것이다. 이 불행한 비판가들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책망해야 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에잇, 이 가련한 비판가들,…어느쪽이 오른쪽이고 어느쪽이 왼쪽인줄도 분간할줄 모르는가고.(오래 계속되는 박수)

마지막으로, 또 한 종류의 비판가들이 있다. 만일 방금 우에서 말한 비판가들이 헌법초안을 로동계급독재를 포기한것이라고 비난하였다면 이와는 반대로 이 종류의 비판가들은 쏘련의 현상태를 조금도 변경하지 않는다느니 로동계급독재를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느니 여러 정당의 자유를 용허하지 않는다느니 쏘련공산당의 현재의 령도적지위를 그대로 보존하여둔다느니 뭐니 하면서 헌법초안을 비난하고있다. 동시에 이 비판가들은 쏘련에 여러 정당의 자유가 없는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표징이라고 인정한다.

나는 새 헌법초안이 확실히 로동계급독재의 제도를 보존하며 쏘련공산당의 현재의 령도적지위를 조금도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보존하여두었다는것을 승인하여야 하겠다.(열렬한 박수) 만일 존경하는 비판가들이 이것을 헌법초안의 결함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로밖에는 더 생각할수 없는 것이다. 우리 볼쉐위크들은 도리여 이것을 헌법초안의 우점으로 생각한다.(열렬한 박수)

각종 정당의 존재의 자유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하여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있다. 당은 계급의 일부분이며 그 계급의 선진적부분이다. 몇개의 당, 즉 여러 정당들의 자유는 다만 적대적이며 불상용적리해관계를 가진 적대적계급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사회, 말하자면 자본가와 로동자, 지주와 농민, 부농과 빈농 및 기타 등등이 있는 그러한 사회에만 존재한다. 그런데 쏘련에는 벌써 자본가, 지주, 부농 등 계급이 없다. 쏘련에는 오직 두 계급, 즉 로동자와 농민만이 있으며 이 두 계급의 리해관계는 적대적인것이 아니라 호상 우의적인것이다. 그러므로 쏘련에는 몇개 정당이 존재할 토대, 여러 정당의 자유가 있어야 할 토대가 없는것이다. 쏘련에는 오직 한개의 당만이, 즉 공산당만이 존재할 토대가 있는것이다. 쏘련에는 오직 한개의 당만이 즉 로동자와 농민의 리익을 용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호하여주는 공산당만이 존재할수 있다. 그 당이 이 두 계급의 리익을 잘 보호한다는데 대하여서는 의심할 여지가 있을것 같지 않다.(열렬한 박수)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하여 말들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적대적계급들이 존재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는 결국 세력있는 사람들만 향수하는 민주주의이며 재산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향수하는 민주주의인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쏘련에서의 민주주의는 근로자들이 향수하는 민주주의, 즉 모든 사람들이 향수하는 민주주의인것이다. 이로부터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한것은 쏘련의 새 헌법초안인것이 아니라 자산계급의 헌법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나는 쏘련헌법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철저한 민주주

의적헌법이라고 생각한다.

쏘련의 새 헌법초안에 대한 자산계급의 비판은 이와 같은 것들이다.

5
헌법초안에 대한 수정의견과 보충의견

지금부터 나는 헌법초안을 전인민적으로 토론할 때 공민들로부터 제기된 헌법초안에 대한 수정의견과 보충의견들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헌법초안을 전인민적으로 토론할 때 수많은 수정의견과 보충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이 모든 의견들은 쏘련출판물들에 발표되였다. 이러한 수정의견들은 그 내용이 다종다양하고 그 가치도 다르기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세가지 부류로 나누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부류의 수정의견의 특징은 헌법에 관한 문제들을 제기한것이 아니라 장차 있게 될 립법기관들의 일상적립법사업에 관한 문제들을 제기한것이다. 보험사업에 관한 개별적문제들, 집단농장건설에 관한 약간의 문제들, 공업건설에 관한 약간의 문제들, 재정에 관한 문제들—이와 같은것들이 제기된 첫째 부류의 수정의견인것이다. 이 수정의견들을 제기한 사람들은 헌법문제와 일상적립법문제와의 차이점을 리해하지 못하는것 같다. 바로 그러하기때문에 그들은 될수록 많은 법률을 헌법에 써넣음으로써 헌법을 법률전서로 만들려는것이다. 그런데 헌법은 법률전서가 아니다. 헌법은 근본법이며 오직 근본법일따름이다. 헌법은 장차 있게 될 립법기관의 일상적립법

사업을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그런 사업이 있기를 요구하는것이다. 헌법은 그런 기관들의 장래의 렵법사업에 법률적 토대를 지어준다. 이러한 수정의견과 보충의견들은 헌법과는 직접적관계가 없으므로 나는 그것들을 우리 나라에 장차 있게 될 렵법기관에 넘겨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부류의 수정의견과 보충의견들은 력사적자료의 성질을 띤것이나 또는 쏘베트정권이 지금에는 아직 달성하지 못하였고 장차 달성하게 될 성과들에 대한 선언의 성질을 띤것들을 헌법에 써넣으려고 시도하는것이다. 여러해동안 내려오면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당과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이 어떠한 난관들을 타개하였는가를 헌법에 지적해야 한다는것, 쏘베트운동의 종국적목적이 완전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것을 헌법에 지적해야 한다는것—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가지 표현법으로 제기한것이 이 부류의 수정의견들이다. 나는 이러한 수정의견과 보충의견들도 역시 헌법과 직접 관계가 없기때문에 채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이미 달성된, 이미 보장된 성과들을 기록하는것이며 렵법적으로 고정화하는것이다. 만일 헌법의 이 기본적성격을 외곡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헌법의 내용을 모조리 지난날에 대한 력사적자료나 쏘련근로대중의 장래의 성과에 대한 선언들로써 채울수 없는것이다. 이러한것들은 기타의 방식이나 기타의 문헌을 통하여서도 말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부류의 수정의견과 보충의견들은 헌법초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것들이다.

이 부류의 수정의견들중의 대부분은 문자적수정을 가할 성질에 속하는것들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이 대회에서 선거되여 새 헌법의 전문을 최종적으로 심사할 위임을 받게 될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회에 넘겨야 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셋째 부류의 수정의견들중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들은 보다 본질적의의를 가지고있기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우선 헌법초안의 제1조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하여보자. 네가지 수정의견이 있다. 첫째 의견은《로동자 및 농민의 국가》란 말 대신에《근로자국가》란 말을 쓰자고 주장하는것이다. 둘째 의견은《로동자 및 농민의 국가》란 말을《로동자, 농민 및 근로지식인의 국가》란 말로 고치자고 주장하는것이다. 셋째 의견은《로동자 및 농민의 국가》란 말 대신에《쏘련경내에 거주하는 모든 종족과 민족들의 국가》란 말을 쓰자고 주장하는것이다. 넷째 의견은《농민》이란 말을《집단농장원》혹은 《사회주의적농업근로자》란 말로 바꾸자고 주장하는것이다.

이 수정의견들을 채납하여야 하는가? 나는 채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초안의 제1조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쏘련사회의 계급적구성에 대하여 말하고있다. 우리 맑스주의자들이 헌법에 우리 나라 사회의 계급적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럴수 없다. 다 알다싶이 쏘련 사회는 두 계급, 즉 로동자와 농민으로써 구성되여있다. 헌법초안 제1조는 바로 이 점을 말하고있다. 그러므로 헌법초안 제1조는 우리 나라 사회의 계급적구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그러면 근로지식인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할것인가고 물을수 있을것이다. 지식인은 종래로 계급으로 된적이 없었으며 또한 계급으로 될수도 없다.—그는 사회의 각 계급출신의 사람들로써 구성된 계층이였으며 또한 그런 계층으로 되고있다. 이전의 지식인은 귀족 및 자산계급 속에서 왔고 일부분은 농민속에서 왔으며 극히 적은 부분이 로동자속에서 왔다. 그러나 우리 쏘베트시

대에 있어서 지식인은 주로 로동자, 농민 속에서 온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왔든지간에 그가 어떤 성질을 띠든지간에 지식인은 계급이 아니라 계층인것이다.

이 사정은 근로지식인의 권리에 손상을 주지 않는가? 조금도 손상을 주지 않는다! 헌법초안의 제1조는 쏘련사회의 각 계층의 권리에 대하여 말하는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계급적구성에 대하여 말하고있다. 근로지식인의 권리까지 포함한 쏘련사회 각 계층의 권리는 주로 헌법초안 제10장과 제11장에서 설명되고있다. 이 두장에서 로동자, 농민 및 근로지식인들이 전국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지식인의 권리가 손상된다는 말은 전혀 성립될수 없는것이다.

쏘련의 각 민족과 종족들도 역시 이러하다. 헌법초안의 제2장에는 쏘련은 평등권을 가진 각 민족들의 자유로운 련맹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여있다. 쏘련사회의 민족구성을 설명하는것이 아니라 쏘련사회의 계급구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헌법초안 제1조에다 이 공식을 중복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쏘련의 각 민족들과 종족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헌법초안 제2장, 제10장, 제11장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이 몇장에서 쏘련의 각 민족들과 종족들은 전국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들의 권리가 손상된다는것은 전혀 운운할나위도 없는것이다.

《농민》이란 말을 《집단농장원》 혹은 《사회주의농업근로자》란 말로 바꾸자고 하는것도 역시 옳지 않은것이다.

첫째로, 농민들중에는 집단농장원이외에도 집단농장원이

아닌 농호가 아직 100여만호나 있다. 그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수정의견을 제기한 사람들은 그 농민들을 셈에서 빼려고나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것은 타당하지 못한것이다. 둘째로, 비록 농민의 대다수가 집단경제를 경영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농민이 아니며 그들에게 개인적 경영도, 개인의 터밭 및 기타도 없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셋째로, 만일 그렇다면 《로동자》란 말도 《사회주의적공업근로자》라는 말로 바꾸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정의견을 제기한 사람들은 웬 일인지 그렇게 하자는 리유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에서 그래 로동계급과 농민계급이 이미 없어졌는가? 만일 그 계급들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고정된 명칭들을 사전에서 없애버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 수정의견을 제기한 사람들은 아마 지금의 사회를 두고 말하는것이 아니라 계급이 없어지고 로동자와 농민이 단일한 공산주의사회의 근로자로 될 미래의 사회를 두고 말하는것 같다. 그러므로 그들은 앞서나가고있는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헌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미래로부터 출발할것이 아니라 현재로부터, 이미 있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것이다. 헌법은 앞서나갈수 없으며 또 그래서는 안된다.

(2) 다음으로 헌법초안 제17조에 대한 수정의견이다. 이 의견은 각 가맹공화국들이 쏘련으로부터 자유로 탈퇴할수 있는 권리를 가질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초안 제17조를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하는것이다. 이 제의는 옳지 않은것이므로 대회에서 채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쏘련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각 가맹공화국들의 자원적련맹이다. 만일 쏘련으로부터 자유로 탈퇴할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이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한다면 그것은 이 련맹의 자원적성질에 위반되는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동의할수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하는데 동의할수 없으며 또 동의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쏘련에는 이 련맹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공화국이란 하나도 없으므로 제17조는 실제적의의가 없는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쏘련에는 이 련맹으로부터 탈퇴하려고 하는 공화국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것은 물론 옳은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맹공화국들이 쏘련으로부터 자유로 탈퇴할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는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쏘련에는 다른 가맹공화국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가맹공화국도 없는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각 가맹공화국들의 권리평등에 관한 조항을 쏘련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것은 결코 아니다.

(3) 그다음으로, 쏘베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한 발전수준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것을 쏘베트사회주의가맹공화국으로 개변할수 있다는 새로운 조항을 헌법초안 제2장에 보충하자는 제의가 있다. 이 제의를 채납할수 있는가? 나는 채납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제의는 그 내용뿐만아니라 동기로 보아서도 옳지 못한것이다. 자치공화국을 가맹공화국으로 개변시키자는 리유를 그 공화국의 경제 및 문화의 발전정도로써 설명하여서는 안되며 마찬가지로 그 어떤 공화국을 자치공화국으로 그냥 남겨두는 리유도 그 공화국의 경제 및 문화의 락후성으로써 설명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맑스주의적견해가 아니며 레닌주의적견해가 아니다. 례하면 따따르공화국은 그냥 자치공화국으로 남아있고 까자흐공화국은 가맹공화국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까자흐공화국이 문화적 및 경제적 발전면에서 따따르공화국보다 높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실정은 이와 정반대인것이다. 례하면 불가강연안의 독일인자치공화국과 끼르기즈가맹공화국의 경우가 바로 이러하다. 그들중에서 전자는

문화적 및 경제적으로 후자보다 높지만 그냥 자치공화국으로 남아있는것이다.

자치공화국을 가맹공화국으로 개변하는데 근거로 되는 그 특징은 어떠한것들인가?

그 특징은 세가지이다.

첫째, 변강에 있으면서 주위가 다 쏘련의 령토에 둘러싸여있지 않는 공화국이여야 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만일 가맹공화국이 쏘련으로부터 자유로 탈퇴할수 있는 권리를 보류하려면 가맹공화국으로 된 이 공화국이 쏘련으로부터 탈퇴할 문제를 론리상에서 또한 실제상에서 제기할 가능성을 반드시 가지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오직 어떤 외국과 접경하고있는, 즉 주위가 다 쏘련의 령토에 둘러싸여있지 않는 공화국만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 물론 우리 나라에는 쏘련으로부터 탈퇴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공화국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가맹공화국이 일단 쏘련으로부터 탈퇴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이상 그 권리가 무의미한 빈 종이장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슈끼르공화국이나 따따르공화국을 례로 들어보자. 이 두 자치공화국을 가맹공화국으로 개변하였다고 가정하자. 묻노니, 그래 그 공화국들이 쏘련으로부터 탈퇴할 문제를 론리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제기할수 있겠는가? 제기할수 없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 공화국들의 주위가 다 쏘련의 공화국들과 주들에 둘러싸여있어서 사실상 쏘련으로부터 물러나갈래야 물러나갈 곳이 없기때문이다.(만장의 웃음소리, 박수) 그러므로 이러한 공화국들을 가맹공화국으로 개변시키는것은 옳지 못한것이다.

둘째, 그 민족이 그 민족의 이름을 띤 쏘베트공화국에서보다 집거하여있어야 하고 또 다수를 차지하고있어야 한다. 크림자치공화국을 례로 들어보자. 이 공화국은 변강에 있는

공화국이다. 그러나 크림의 따따르민족은 이 자치공화국에서 다수를 차지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소수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므로 크림공화국을 가맹공화국으로 만든다는것은 옳지 못하며 론리에도 맞지 않는것이다.

셋째, 그 공화국은 인구수로 보아서 너무 적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그 인구가 100만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인구가 극히 적고 군대가 얼마 되지 않는 자그마한 쏘베트공화국이 독립적국가로 생존해나갈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옳지 못하기때문이다. 제국주의강도들이 그 공화국을 냉큼 제 손에 움켜쥐리라는것은 의심할나위도 없는것이다.

이 세가지 객관적특징이 없이 현 력사적시기에 어떤 자치공화국을 가맹공화국으로 고치자고 제기하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4) 그다음으로,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들에서 각 가맹공화국들에 속하여있는 각 변강지구와 각 주 행정구역들의 획분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을 삭제하자고 제의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 제의도 채납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쏘련에는 각 변강구와 각 주의 계선을 개변시키려고 애쓰며 또 그렇게 하는것을 몹시 즐겨함으로써 사업상 혼란과 신심부족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초안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한을 주고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왜냐 하면 기타 여러 방면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 면에서도 확신성을 가져야 하며 온정성과 명확성을 가져야 하기때문이다.

(5) 다섯째 수정의견은 제33조에 관한것이다. 이 의견의 제의자들은 량원제를 세우는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민족쏘베트를 취소할것을 제의하고있다. 나는 이 의견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쏘련이 단일민족의 국가라면 일원제

가 량원제보다 나을것이다. 그러나 쏘련은 단일민족의 국가가 아니다. 다 알다싶이 쏘련은 다민족국가이다. 우리 나라에는 민족을 가리지 않고 쏘련의 모든 근로자들의 공통한 리익을 대표하는 최고기관이 있다. 그것은 련맹쏘베트이다. 그러나 쏘련의 각 민족들에게는 공통한 리익이외에 또 그들의 민족적 특점과 관련되는 자체에 특유한 특수적리익이 있다. 이 특수적리익을 홀시할수 있는가? 홀시할수 없다. 이러한 특수적리익을 반영하는 전문적인 최고기관이 필요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이 없이는 쏘련이라는 이 다민족국가를 관리해나갈수 없다는것은 의심할나위도 없다. 이러한 기관이 바로 제2원, 즉 쏘련의 민족쏘베트인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구라파와 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의 의회력사의 사실을 인증하면서 이런 나라들에서의 량원제는 나쁜 점밖에 없으며 제2원은 일반적으로 반동의 중심으로, 전진의 장애로 되고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모두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것은 그러한 다라들의 량원이 불평등하기때문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제2원은 흔히 제1원보다 더욱 많은 권리를 가지며 또 제2원은 통례로 민주주의적방식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흔히 우로부터 의원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구성되는것이다. 만일 량원이 평등하고 제2원도 제1원과 같이 민주주의적방식으로 구성된다면 이런 나쁜 점들이 없을것은 의심할바없는것이다.

(6) 그다음으로 헌법초안에 량원의원의 수를 같게 하자는 보충의견이 있다. 이 제의는 채납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제의는 량원간의 평등을 강조하는것이므로 정치적으로 퍽 유리한 점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7) 또 그다음으로 헌법초안에 련맹쏘베트의 의원과 같이 민족쏘베트의 의원도 직접적선거방법으로 선거할것을 보충하

자고 제기한 사람도 있다. 나는 이 제의도 채납할만한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선거시에 기술상 이러저러한 불편을 가져다줄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으로 민족쏘베트의 위신을 높일수 있기때문에 정치상에서 많은 유익한 점이 있다.

(8) 또 다음으로 제40조에 최고쏘베트 상무위원회에 립시법령을 반포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보충의견이 있다. 이 보충의견은 옳지 않으므로 대회에서 채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느 한 기관에서가 아니라 여러 기관들에서 법을 세우는 정형들이 반드시 폐지되여야 한다. 이러한 정형은 법률의 온정성원칙에 저촉된다. 그런데 법률의 온정성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필요하다. 쏘련에서 립법권은 오직 쏘련최고쏘베트란 이 기관에 의해서만 행사되여야 한다.

(9) 또 그다음으로 헌법초안 제48조에 쏘련최고쏘베트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쏘련최고쏘베트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국인민에 의하여 선거할것을 요구하는 보충안이 있다. 이 보충안은 우리 나라의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옳지 못한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헌법제도에 의하면 쏘련에는 최고쏘베트와 마찬가지로 전국인민에 의하여 선거되며 또 최고쏘베트와 대립되는 개인대통령이란 있어서는 안된다. 쏘련의 대통령은 집체적이다. 즉 그것은 전국인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고쏘베트에 의하여 선거되며 또 최고쏘베트에 향하여 자기의 사업을 보고하게 되는 최고쏘베트 상무위원회 위원장까지를 포괄한 최고쏘베트 상무위원회이다. 력사적경험은 최고기관을 건립하는 이 방법이 국가로 하여금 좋지 않은 우연적사건들의 발생을 피하도록 보장하여줄수 있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10) 또 그다음으로 제48조에 대한 수정의견이다. 즉 매

개 가맹공화국에 부위원장이 1명씩 있도록 하여 쏘련최고쏘베트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11명으로 증가시키자는 주장이다. 나는 이 의견을 채납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사업을 개선하게 하며 쏘련최고쏘베트 상무위원회의 위신을 공고하게 하여줄수 있기때문이다.

(11) 또 그다음으로 제77조에 대한 수정의견이다. 즉 새로운 전련맹인민위원부—국방공업인민위원부를 설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나는 이 의견도 채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박수) 왜냐 하면 우리 나라의 국방공업을 따로 분립시켜 인민위원부의 형태를 갖추게 할 때가 되였기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국방사업을 개선하게 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12) 또 그다음으로 헌법초안 제124조에 대한 수정의견이다. 이 수정의견은 종교적의식을 금지하는 방침에 따라 이 조항을 수정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의견은 우리 나라의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정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13) 마지막으로 보다 실질성을 띤 수정의견이 있다. 나는 헌법초안 제135조에 대한 수정의견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이 의견은 승려, 이전의 백위군, 지난날에 권세를 가졌던 인물, 사회에 유익한 로동에 참가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에게서 선거권을 박탈하든가 아니면 여하를 물론하고 이러한 인간들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에게 다만 선거권만 주고 피선거권을 주지 말자고 주장하고있다. 나는 이 의견도 부정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쏘베트정권은 비근로자들과 착취자들의 선거권을 영구히 박탈한것이 아니라 림시적으로 일정한 시기까지 박탈하였던것이다. 이러한자들은 한때 인민을 반대하여 공개적으로 전쟁을 하였으며 쏘베트법률에 반항하였다. 그들의 선거권을 박탈할데 대한 쏘베트법률은 그들의 반항에 대한 쏘베트정권의 대답이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적지 않게 흘러

갔다. 지난 이 기간에 우리는 착취계급을 소멸하였고 따라서 쏘베트정권은 필승불패의 힘으로 되였다. 이 법률을 수정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럴 때가 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쏘베트정권을 적대시하는 지난날의 백위군, 부농, 신부들이 국가의 최고기관에 기여들어올수 있으므로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들 한다. 도대체 두려울것이 무엇인가? 그래 승냥이가 무서워서 산으로 못간단말인가?(온 장내에 활기가 돌며 열렬한 박수가 터진다.) 첫째로, 이전의 부농, 백위군이나 신부들이 모두다 쏘베트정권을 적대시하는것은 아니다. 둘째로, 만일 일부 지방의 인민들이 쏘베트정권을 적대시하는자를 선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동사업이 대단히 잘못되여 우리가 그런 수치를 받는것이 마땅하다는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선동사업이 참으로 볼쉐위크적으로 전개된다면 인민은 자기의 최고기관에 쏘베트정권을 적대시하는자들이 혼입해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용허하지 않을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일을 잘해나가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열렬한 박수) 모든 일이 행정적명령에 의하여 착착 진행되여나가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일을 잘해나가야 한다. 레닌은 1919년에 쏘베트정권이 아무런 제한도 없는 일반적선거제를 실시하는것을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가 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아무런 제한도 없다**는 이 말에 주의를 돌리기 바란다. 레닌은 외국의 무력간섭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공업과 농업이 아주 나쁜 상태에 처하여있던 때에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로부터 이미 17년이 지나갔다. 동지들, 그래 레닌의 이 지시를 실행할 때가 되지 않았단말인가? 나는 그럴 때가 되였다고 생각한다.

레닌은 1919년에 자기가 집필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강령초안》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로씨야공산당은 일시적인 력사적필요성을 그릇되게 개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민의 일부분에 대한 선거권의 박탈이 쏘베트공화국에 있어서는 대다수 자산계급민주주의공화국들에서 그러하였던것처럼 종신무권리로 선포된 공민의 일정한 부류에 해당되는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착취자들에게만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의 근본법을 위반하여 완강하게 자기의 착취적지반을 고수하려 하며 자본주의적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것을 근로대중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쏘베트공화국에서는 한편으로는 매일과 같이 사회주의가 공고화되며 또 계속 착취자로 남아있거나 혹은 자본주의적관계를 유지할수 있는 그런 객관적가능성을 가진자의 수가 감소되여감에 따라 자연히 선거권을 박탈당할자의 비률이 감소된다. 지금 로씨야에서 그 비률은 아마 2~3%를 넘지 않을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가까운 장래에 외국침공이 중지되고 수탈자들이 완전히 수탈당하면 무산계급의 국가정권이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다른 방법을 택하며 또 아무런 제한도 없는① 일반적선거법을 실시할수 있는 그런 정세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성될수 있을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94페지)②

이것은 아주 명백한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쏘련헌법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수정의견과 보충의견은 이러한것이다.

6

쏘련 새 헌법의 의의

약 5개월동안에 걸쳐 진행된 전인민적토론의 결과로 보아 헌법초안이 이번 대회에서 꼭 비준되리라는것을 예상할수 있다.(열렬한 박수가 환호소리로 바뀌면서 전체가 기립한다.)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758페지를 보라.—편집자

며칠후이면 쏘련은 광범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주의적헌법을 가지게 될것이다.

이것은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사실, 쏘련의 근로자들이 자본주의적예속에서 해방된 사실, 쏘련에서 광범하고도 가장 철저한 민주주의가 승리한 사실들을 간명한 언어에 거의 기록식체제로 서술한 력사적의의를 띤 문헌으로 될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나라의 수천만의 정직한 사람들이 오래동안 갈망하여왔고 지금도 갈망하고있는 그런 사실이 쏘련에서 실현되였다는것을 실증하는 문헌으로 될것이다.(열렬한 박수)

이것은 쏘련에서 실현된것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전적으로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열렬한 박수)

이로부터 쏘련 새 헌법의 국제적의의는 무한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파쑈주의의 탁류가 로동계급의 사회주의운동을 더럽히며 문명세계의 우수한 인물들의 민주주의적요구를 더럽히고있는 오늘 쏘련의 새 헌법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불가피한 승리를 선언하는, 파쑈주의에 대한 공소장으로 될것이다.(박수) 쏘련의 새 헌법은 지금 파쑈의 폭행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지지와 실제적원조로 될것이다.(열렬한 박수)

쏘련의 새 헌법은 쏘련의 각 민족 인민들에게 있어서 더욱 큰 의의를 가지고있다. 쏘련의 헌법이 자본주의나라들의 인민들에 대해서는 행동의 강령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는것이라면 쏘련의 각 민족 인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투쟁의 총화, 인류의 해방을 위한 투쟁전선에서의 승리의 총화의 의의를 가지고있는것이다. 력경과 투쟁의 길을 걸어온 결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승리의 성과를 기록한 자기의 헌법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실로 즐겁고도 기쁜 일이다. 우리 나라 인민들이

무엇을 위하여 싸웠고 또 어떻게 전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승리를 달성하였는가를 안다는것은 얼마나 즐겁고도 기쁜 일인가. 우리 나라 인민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고 보람찬 결과를 가져왔다는것을 안다는것은 얼마나 즐겁고도 기쁜 일인가.(오래 계속되는 박수) 이것은 우리 나라의 로동계급, 우리 나라의 농민, 우리 나라의 근로지식인들을 정신적으로 무장시켜줄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전진을 추동하며 그들의 정당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킬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힘에 대한 신심을 강화하며 공산주의의 새 승리를 전취하기 위한 새 투쟁에로 그들을 동원할것이다.(열렬히 환호한다. 장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립한다. 《우라》를 높이 웨친다. 장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쓰딸린동지 만세!》를 높이 웨친다. 전체 대표자들이 기립하여 《국제가》를 높이 부른다. 《국제가》가 끝나자 또 환호소리가 터진다. 《우라!》 《우리의 수령 쓰딸린동지 만세!》를 높이 부른다.)

《레닌주의 제 문제》,
한문판, 599～628페지

크레믈리궁에서의 고등학교일군 초대회에서 한 연설

(1938년 5월 17일)

동지들!

나는 과학을 축하하여, 과학의 번영을 축하하여, 그리고 과학일군들의 건강을 축원하여 이 잔을 드는바이다.

인민과 동떨어져있지 않으며 인민을 멀리하지 않는 과학, 인민에 봉사하려 하고 그 성과를 모조리 인민에 바치려 하는 과학이 날로 번영하는것을 축하한다. 이러한 과학은 인민에 봉사하는것을 진심으로 원하고있으며 또 아주 기꺼이 봉사하고있는것이지 결코 어떤 막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봉사하고 있는것이 아니다.

과학의 번영을 축하한다. 이러한 과학은 과학계의 명망있는 오랜 지도자가 자신이 과학에 헌신하고있으며 또 과학의 독점가로 되고있는것에 만족하면서 제자리에서 답보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학은 늙은 과학자들과 젊은 과학자들과의 결합의 의의와 역할과 무진장한 힘을 알고있으며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과학의 고봉에 오르게 하기 위하여 이 과학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과학의 모든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고있으며 또 아주 기꺼이 열어주고있다. 이 과학은 미래는 과학청년들의것임을 인정하고있다.(박수)

과학의 번영을 축하한다. 이러한 과학에 종사하고있는 사람들은 비록 과학에 있는 전통적인 력량과 의의를 알고있으며 또 그 전통을 능란하게 과학에 리용하고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의연히 이런 전통의 노예로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낡은 전통, 낡은 규준, 낡은 방침이 진부하여져 전진도상의 장애로 되는 경우에는 이 과학은 그것들을 타파해버리고 새 전통, 새 규준, 새 방침을 수립할 용기와 결심을 가진다.(박수)

과학발전사에는 어떠한 애로에도 굴하지 않고 낡은것을 타파하고 새것을 창조한 용사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갈릴레이, 다윈 및 기타와 같은 이러한 많은 과학용사들은 세인들이 다 알고있는바이다. 내가 말하고저 하는 한 과학의 대가는 동시에 또한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의 도사이며 우리의 교양자인 레닌이다.(박수) 1917년의 정형을 회상하여보자. 그 당시 레닌은 로씨야사회발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국제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현상태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로씨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것은 그 당시 과학계의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수 없은 결론이다. 과학계의 탁월한 인물의 한사람인 쁠레하노브는 당시 레닌을 《잠꼬대》같은 소리를 한다고 경멸하였다. 과학계의 다른 유명한 사람들도 《레닌은 미쳤다》고 하면서 그를 멀찍한 곳에 가져다 숨겨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당시 과학계에서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레닌을 과학의 파괴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물결을 거슬러 나아가는것을 겁내지 않았으며 두려움없이 낡은것을 고집하는 악습과 투쟁하였다. 결국은 레닌이 승리하였다.(박수)

보다싶이 이것은 낡아빠진 과학을 반대하여 대담히 투쟁

하고 새 과학의 길을 개척한 한 과학용사의 모범인것이다.

과학계의 저명한 인물이 아니라 과학계에는 아무런 이름도 없는 인물, 평범한 인물, 실천가, 사업혁신가가 때로는 과학과 기술의 새길을 개척하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스따하노브동지와 빠빠닌동지는 과학계에서는 아무런 이름도 없는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학위도 없다. 그들은 그저 자기가 종사하고있는 일의 실천가이다. 그러나 스따하노브와 스따하노브일군들이 공업분야에서 자기의 실제사업에 종사하면서 과학계와 기술계의 저명한 사람들이 규정해놓은 현행기준량을 진부한것으로서 부정해버리고 진정한 과학과 기술의 요구에 알맞는 새 기준량을 채용하였다는것을 누가 모르는가? 빠빠닌과 빠빠닌탐험가들이 표류하는 얼음덩이우에서 자기의 실제사업에 종사하면서 별로 특별한 힘도 들이지 않고 북극지대에 관한 낡은 관념을 진부한것으로서 부정해버리고 진정한 과학의 요구에 알맞는 새 관념을 확립하였다는것을 누가 모르는가? 스따하노브와 빠빠닌은 과학혁신자이며 우리의 선진적과학계의 인물이라는것을 누가 부인할수 있겠는가?

보다싶이 과학에는 이런 《기적》도 있는것이다.

나는 이제 과학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과학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내가 말한 과학은 선진적과학이다.

우리의 선진적과학의 번영을 축하하여!

선진적과학에 종사하고있는 일군들의 건강을 축원하여!

레닌께서 영생불멸하실것과 레닌주의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을 축원하여!

스따하노브와 스따하노브일군들의 건강을 축원하여!

빠빠닌과 빠빠닌탐험가들의 건강을 축원하여!(박수)

1938년 6월 19일 《쁘라우다》 제136호에 게재

《쓰딸린선문집》, 174～176페지

변증법적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대하여

(1938년 9월)

변증법적유물론은 맑스-레닌주의적당의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을 변증법적유물론이라고 하는것은 자연현상에 대한 그의 견해, 자연현상에 대한 그의 연구방법, 이러한 현상에 대한 그의 인식방법이 변증법적이기때문이며 그리고 자연현상에 대한 그의 해석, 자연현상에 대한 그의 리해, 그의 리론이 유물론적이기때문이다.

력사적유물론은 변증법적유물론의 원리를 사회생활연구에 확장한것이며 변증법적유물론의 원리를 사회생활현상, 사회연구 및 사회력사연구에 적용한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자기들의 변증법적방법을 특징지으면서는 헤겔을 변증법의 기본특징을 규정한 철학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맑스와 엥겔스의 변증법이 헤겔의 변증법과 동일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사실 맑스와 엥겔스는 변증법에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형태를 부여하기 위하여 헤겔의 변증법에서 《합리적인 알맹이》만을 취하고 헤겔의 관념론적인 껍질을 벗겨버렸으며 변증법을 앞으로 더 발전시켰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변증법적방법은 헤겔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를뿐만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의것이다. 헤겔에게 있

어서는 그가 관념이라는 명칭밑에 독립적인 주체로까지 전화시키고있는 사유과정은 현실적인것의 창조자이고 현실적인것은 사유과정의 외적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서는 반대로 관념적인것은 인간의 두뇌에 옮겨져서 거기에서 변형된 물질적인것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카.맑스 《〈자본론〉, 제1권, 독일문판, 제2판의 발문》)①

맑스와 엥겔스는 자기의 유물론을 특징지으면서 언제나 포이에르바흐를 유물론의 권위를 회복시킨 철학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맑스와 엥겔스의 유물론이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과 동일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사실에 있어서 맑스와 엥겔스는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에서 그의 《기본적인 알맹이》를 취하고 그것을 유물론의 과학적, 철학적 리론으로 가일층 발전시키고 또 그의 관념론적 및 종교-륜리적 찌끼를 없애버렸다. 다 아는바와 같이 포이에르바흐는 근본적으로 유물론자였지만 유물론이라는 이 명칭은 한사코 반대하였던것이다. 엥겔스는 여러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포이에르바흐가 《비록 유물론적기초우에 서있기는 하였으나 이 문제에서는 아직 전통적인 관념론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있었으며》 《포이에르바흐의 실제상의 관념론은 그의 륜리학과 종교철학을 보면 곧 드러난다》.(《맑스엥겔스전집》, 로문판, 제1판, 제14권, 652~654페지)②

변증법이란 말은 희랍어 《dialego》에서 온것으로서 회화와 론전을 의미한다. 고대에는 상대자의 론단에서 모순을 폭로하고 이 모순을 극복하는것으로써 진리를 얻는 기교를 변증법이라고 하였던것이다. 고대의 어떤 철학가들은 사유에서의 모순을 폭로하고 대립된 견해를 충돌시키는것이 진리를 발견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217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26~227페지와 229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후 자연현상에까지 확장된 이 변증법적사유방식은 자연을 인식하는 변증법적방법으로 변하였는데 이 방법은 자연현상을 영원히 운동하며 또 변화하는 현상으로 보았으며 그리고 자연의 발전을 자연에서의 각종 모순발전의 결과로, 자연에서의 대립된 힘들의 호상영향의 결과로 보았다.

변증법은 본질적으로 볼 때 형이상학과 정반대되는것이다.

(1) **맑스주의적변증법적방법**의 기본특징은 다음과 같다.

(ㄱ) 변증법은 형이상학과는 정반대로 자연을 서로 분리되고 서로 고립되고 또 서로 의존되여있지 않는 사물과 현상의 우연한 집적으로 보지 않고 사물과 현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련계되고 서로 의존되여있으며 또 서로 제약되여있는 그러한 련관적이며 통일적인 전일체로 본다.

그러므로 변증법적방법은 자연의 어떠한 현상이든지 만약 그것을 고립되여있는것으로, 주위현상과 련계되여있지 않는것으로 취급한다면 리해할수 없다고 인정한다. 왜냐 하면 자연의 어떠한 령역의 어떤 현상이든지 그것을 주위의 조건들과 련계없이 그 조건들에서 분리하여 관찰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것으로 되고말것이며 그와 반대로 어떠한 현상이든지 만약 그것을 주위현상과의 불가분리적인 련계에서, 또 그 주위현상에 의하여 제약된것으로 관찰한다면 리해할수 있는것이며 또 론증할수 있는것이기때문이다.

(ㄴ) 변증법은 형이상학과는 반대로 자연을 정지와 부동, 정체와 불변 상태로 보는것이 아니라 부단한 운동과 변화, 부단한 갱신과 발전의 상태로 보는데 거기에서는 항상 그 무엇인가 발생하고 또 발전하며 그 무엇인가 파괴되고 또 소멸되는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변증법적방법은 현상들을 그것들의 호상련계와 호상제약의 견지에서만 관찰할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운동, 그것들의 변화, 그것들의 발전의 견지에서, 그것들의 산생과 쇠멸의 견지에서 관찰할것을 요구한다.

변증법적방법의 견지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것은 현시기에는 튼튼한듯하나 쇠멸하기 시작하는것이 아니라 현시에는 비록 튼튼하지 못하더라도 산생하며 또 발전하는 그것이다. 왜냐 하면 변증법적방법의 견지에서 볼 때 산생하고 발전하는것만이 불가항력적인것이기때문이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연전체는 가장 작은것에서 가장 큰것에 이르기까지, 모래알에서 태양에 이르기까지, 원생생물〔원생세포.—이.쓰딸린〕에서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원한 발생과 소멸, 부단한 흐름, 끝없는 운동과 변화 속에 처해있다.》(우와 같은 책, 484페지)①

그러므로 변증법은 《사물과 그것의 두뇌에서의 반영을 본질상 그 호상련관, 그 련쇄, 그 운동, 그 발생과 소멸로부터 고찰하는것이다.》(《맑스엥겔스전집》, 로문판, 제1판, 제14권, 23페지)②라고 엥겔스는 말하였다.

(ㄷ) 변증법은 형이상학과는 반대로 발전과정을 량적변화가 질적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단순한 장성과정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현저하지 않은 숨은 량적변화로부터 현저한 변화로, 근본적변화로, 질적변화로 넘어가는 그러한 발전으로 보는데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질적변화는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급속히, 돌연히 한 상태로부터 다른 한 상태로 비약적으로 넘어가는 형태로써 표현되며 우연적으로가 아니라 합법칙적으로 일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454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419～420페지를 보라.—편집자

어나는것이며 현저히 나타나지 않는 점진적인 수많은 량적변화의 축적의 결과로 일어나는것이다.

그러므로 변증법적방법은 발전과정을 순환운동으로, 이미 지나간 사물의 단순한 반복으로가 아니라 전진운동으로, 상승운동으로, 낡은 질적상태로부터 새 질적상태에로의 전화로, 단순한것으로부터 복잡한것에로, 저급으로부터 고급에로의 발전으로 리해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연은 변증법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다. 우리는 현대의 자연과학이 이러한 검증을 위한 극히 풍부하고 또 나날이 증대되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이 자료에 의하여 자연에서는 모든것이 결국 형이상학적으로가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진행되고있다는것, 자연은 영원히 동일한, 부단히 반복되는 순환을 하면서 운동하고있는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력사를 경과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하였다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이 점에서는 우선 다윈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오늘의 전 유기계가, 즉 식물도 동물도 따라서 또한 인간도 수백만년에 걸쳐 계속된 발전과정의 산물이라는것을 증명함으로써 형이상학적인 자연관에 가장 강력한 타격을 주었던것이다.(우와 같은 책, 23페지)①

변증법적발전이란것은 량적변화로부터 질적변화로 넘어가는것이라고 특징지으면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물리학에서는… 매개의 변화는 량의 질로의 전화이며 물체에 내재하거나 혹은 전달된 어떤 형태의 운동의 량에 생기는 량적변화의 결과이다. 례하면 물의 온도는 처음에는 물의 액체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도 없다. 그러나 액체상태의 물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면 그 응집상태가 변화를 일으켜 물은 끓 증기나 얼음으로 전화하는 점에 달하게 된다.… 례하면 일정한 최저강도의 전류가 있어야만 전등의 백금선이 빛을 내는것과 마찬가지로 매개 금속에는 각각 자기의 해열온도와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420페지—편집자

용해온도가 있으며 모든 액체에는 각각 일정한 압력하에서의 자기의 빙점과 비등점이 있다.—우리가 해당온도를 얻어낼수 있는 한 그렇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체는 해당한 압력과 랭각에 의하여 액체로 변하는 림계점이 있다.… 소위 물리학의 상수[한 상태로부터 다른 한 상태에로의 전환점.—이. 쓰딸린]는 그 대부분이 다름아닌 운동의 량적[변화] 증가나 감소가 해당물체의 상태의 질적변화를 일으키는, 그리하여 량이 질로 전화하게 되는 결절점을 표시하는것에 불과하다.》(우와 같은 책, 527~528페지)①

다음으로, 엥겔스는 화학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화학은 량적구성의 변화로 일어나는 물체의 질적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헤겔자신도 이미 알고있었다.… 산소를 놓고 말하면 만일 한 분자에 보통의 경우처럼 두개가 아니라 세개의 원자가 결합되면 냄새와 작용에 있어서 보통의 산소와는 전혀 다른 물체인 오존을 얻게 된다. 더구나 이 산소가 각이한 비례로 질소나 류황과 화합하면 그 비례에 따라 다른 화합물들과 질적으로 다른 물체가 생기게 되는데 대해서는 더 말할것도 없다!》(우와 같은 책, 528페지)②

마지막으로, 헤겔을 욕지거리하면서도 끝 헤겔로부터 그 유명한 원리, 즉 무감각계에서 감각계에로, 무기계에서 유기계에로 넘어가는것이 새 상태에로의 비약이라고 한 그 원리를 슬그머니 훔쳐낸 듀링을 비판하면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것은 헤겔의 도량관계의 결절선 그대로인데 이에 의하면 순 량적인 증가나 감소가 일정한 결절점에서 질적비약을 일으킨다. 례컨대 물을 가열하거나 랭각시키는 경우에는 비등점과 빙점이 바로 이 결절점인데 표준기압하에서는 이 결절점에서 새로운 집합상태에로의 비약이 일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487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487~488페지—편집자

어나며 따라서 량이 질로 전화한다.》(우와 같은 책, 45~46페지)①

(ㄹ) 변증법은 형이상학과는 반대로 자연의 사물, 자연의 현상에는 내재적모순이 고유하고있다는것으로부터 출발하며—왜냐 하면 그것들은 모두 자체의 긍정적측면과 부정적측면, 과거와 미래, 사멸하는것과 발전하는것들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따라서 이런 대립면간의 투쟁, 낡은것과 새것간의 투쟁, 사멸하는것과 발생하는것간의 투쟁, 소멸되고있는것과 발전되고있는것간의 투쟁은 발전과정의 내재적인 내용이며 량적변화가 질적변화로 전화하는 내재적인 내용을 이룬다는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변증법적방법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과정은 현상의 조화된 전개로서가 아니라 사물과 현상자체에 고유한 모순들의 발현으로서, 이 모순들에 기초하여 작용하는 대립적인 경향들의 《투쟁》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래의 의의에서의 변증법은 대상의 본질자체내에 있는 모순의 연구이다.》(레닌《철학필기》, 로문판, 263페지)②

그리고 계속하여

《발전이란 대립물의 〈투쟁〉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3권, 301페지)③

맑스주의적변증법적방법의 기본특징은 대략 이상과 같다.

변증법적방법의 명제들을 사회생활의 연구에, 사회력사의 연구에 확장하는것이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며 또 이 명제들을 사회력사와 무산계급당의 실천활동에 적용하는것이 얼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84페지—편집자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38권, 278페지를 보라.—편집자
③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712페지를 보라.—편집자

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리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만일 세계에 고립되여있는 현상들이란 없고 모든 현상들은 서로 련관되여있으며 서로 제약되여있다면 력사에서의 매개 사회제도와 사회운동을 평가할 때 력사가들이 흔히 하는것처럼 《영원한 정의》나 또는 어떤 선입견의 견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제도와 그 사회운동을 산생시키며 그것들을 련관시키는 조건들의 견지에서 평가하여야 한다는것은 아주 명백하다.

노예소유제도가 현조건에서는 무의미한것이며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현상이며 비정상적인 어리석은것이다. 그러나 무너져가는 원시공동체제도의 조건하에서는 노예소유제도가 전적으로 리해할수 있고 합법칙적인 현상이였다. 왜냐 하면 그것은 원시공동체제도에 비하여 한걸음 더 전진하였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이를테면 로씨야에서 짜리제도와 자산계급사회가 존재한 1905년의 조건하에서는 자산계급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요구가 전적으로 리해할만하고 또 정당하며 혁명적인 요구였다. 왜냐 하면 자산계급공화국은 그때에는 앞으로의 전진을 의미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쏘련의 조건하에서는 자산계급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요구는 무의미한 요구이며 반혁명적인 요구인것이다. 왜냐 하면 자산계급공화국은 쏘베트공화국에 비해서 한걸음 뒤떨어진것이기때문이다.

모든것은 조건, 장소, 시간에 의하여 전이된다.

사회현상에 대한 이러한 력사적태도가 없이는 력사과학은 존재할수 없으며 발전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하다. 왜냐 하면 오직 이러한 태도만이 력사과학을 우연적인 사건들의 혼돈속에, 맹랑한 오유의 무더기속에 빠지지 않게 할수 있기때문

이다.

다음으로, 만일 세계가 끊임없는 운동과 발전 속에 있으며 낡은것의 사멸과 새것의 장성이 발전의 법칙이라면 《고정불변한》 사회질서, 사적소유와 착취의 《영원한 원칙》, 농민이 지주에게, 로동자가 자본가에게 예속된다는 《영원한 관념》이란 더는 있을수 없다는것이 명백하다.

이것은 자본주의제도가 봉건제도를 대체하였던것처럼 사회주의제도로써 자본주의제도를 대체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것은 지금에는 비록 우세한 력량이라 하더라도 더는 발전하지 못하는 사회계층에 의거할것이 아니라 지금에는 비록 그의 력량이 우세하지 못하더라도 발전하고있으며 장래성이 있는 그런 사회계층에 의거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19세기 80년대, 맑스주의자들이 인민파와 투쟁하던 시기①에 로씨야의 무산계급은 그 당시 인구의 절대다수를 점하고있는 개체농민에 비하면 훨씬 적었다. 그러나 무산계급은 발전하고있는 계급이였고 농민은 날로 와해되여가는 계급이였다. 무산계급이 발전하고있는 계급이였기때문에 맑스주의자들은 무산계급에 의거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유를 범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모두가 다 아는바와 같이 그후에 무산계급은 미미한 력량으로부터 력사적 및 정치적으로 으뜸가는 력량으로 장성하였기때문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오유를 범하지 않으려면 뒤를 돌아다볼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다음으로, 만일 완만한 량적변화가 급격하고 돌연적인 질

---

①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이 인민파와 진행한 투쟁에 대하여서는 《쏘련공산당(볼쉐위크)력사간략독본》 제1장을 참조하라.—편집자

적변화로 이행하는것이 발전의 법칙이라면 피압박계급들이 수행하는 혁명적변혁이야말로 전적으로 자연적이며 불가피한 현상이라는것이 아주 명백하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며 로동계급이 자본주의적압박에서 벗어나는것은 완만한 변화와 개량에 의하여 실현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오직 자본주의제도의 질적변혁, 혁명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오유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량주의자로 될것이 아니라 혁명자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다음으로, 발전이 내적모순의 발현에 의하여,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이러한 모순에 기초한 대립적력량들의 충돌에 의하여 진행되는것이라면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은 전적으로 자연적이며 불가피한 현상이라는것이 명백하다.

이것은 자본주의적제도의 각종 모순을 덮어감출것이 아니라 그 모순을 폭로하고 적발하여야 하며 계급투쟁을 포기할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을 끝까지 진행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오유를 범하지 않으려면 무산계급의 리익을 자산계급의 리익에 조화시키는 개량주의적정책을 집행하지 말며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로 《성장》한다는 타협적인 정책을 실시할것이 아니라 비타협적인 무산계급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맑스주의의 변증법적방법을 사회생활과 사회력사에 적용한다면 이상과 같다.

맑스주의철학적유물론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철학적관념론과 정반대되는것이다.

(2) **맑스주의철학적유물론**의 기본적특징은 다음과 같다.

(ㄱ) 세계를 《절대적관념》, 《우주정신》, 《의식》의 체현이라고 인정하는 관념론과는 반대로 맑스의 철학적유물론은 세계는 그 본질상으로 보아 물질적이며 세계의 여러가지 현상은 운동하고있는 물질의 각이한 형태이며 변증법적방법에 의하여 해명되는 현상의 호상관계와 호상제약은 운동하는 물질의 발전법칙이며 세계는 물질운동법칙에 의하여 발전하고 그 어떤 《우주정신》이든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물론적자연관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외부로부터의 아무런 첨가도 없이 소박하게 생각하는것을 의미한다.》(《맑스엥겔스전집》, 로문판, 제1판, 제14권, 651페지)①

유물론의 견해를 가진 고대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것을 망라한 전일체로서의 세계는 어느 신이나 어느 인간에 의하여 창조된것이 아니라 합법칙적으로 타오르며 합법칙적으로 사라지는 영원히 살아있는 불덩이였고 불덩이이며 또 불덩이일것이다.》라고 인정하였다. 이 유물론적견해에 관하여 레닌은 《이것은 변증법적유물론의 기본에 대한 매우 훌륭한 서술이다.》(레닌 《철학필기》, 로문판, 318페지)②라고 말하였다.

(ㄴ) 우리의 의식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질세계, 존재, 자연은 오직 우리의 의식가운데, 우리의 감각, 표상, 개념 가운데만 존재한다고 억설한 관념론과는 반대로 맑스주의 철학적유물론은 물질, 자연, 존재가 우리의 의식밖에, 또는 의식에 의존하지 않고있는 객관적현실이며 물질은 그것이 감각, 표상, 의식의 원천이기때문에 1차적이고 의식은 그것이 물질의 반영이고 존재의 반영이기때문에 2차적이고 파생적이며 사유는 고도의 완전성에 도달한 물질의 산물, 즉 두뇌의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527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38권, 395페지를 보라.—편집자

산물이며 그리고 두뇌는 사유의 기관이며 그렇기때문에 크게 오유를 범하지 않으려면 사유를 물질에서 분리시켜서는 안된다고 인정한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철학전체의 최고문제인 존재에 대한 사유의 관계, 자연에 대한 정신의 관계문제는…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2대진영으로 나누어졌다. 자연에 대하여 말하면 정신이 본원적인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관념론의 진영을 형성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자연을 본원적인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유물론의 각종 학파에 속하였다.》(《맑스선집》, 로문판, 제1권, 329페지)①

다음으로

《우리자신이 속해있는 감각으로 지각되는 물질적인 세계만이 유일한 현실적세계이며 우리의 의식과 사유는 그것이 아무리 초감각적인것으로 보일지라도 물질적, 육체적 기관인 뇌수의 산물이다. 물질은 정신의 산물이 아니며 정신은 물질의 최고산물에 불과한것이다.》(우와 같은 책, 332페지)②

물질과 사유문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유를 사유하는 물질로부터 분리시킬수는 없다. 물질은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의 기초이다.》(우와 같은 책, 302페지)③

레닌은 맑스주의철학적유물론에 대하여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물론일반은…의식, 감각, 경험…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존재(물질)를 인정한다. …의식은 존재의 반영에 지나지 않으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20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제4권, 223페지—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제3권, 384페지—편집자

며 그것도 기첫해서 근사적으로 정확한(적절한, 아주 정확한)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3권, 266～267페지)①

다음으로

《물질이란 우리의 감각기관에 작용하여 감각을 산생하는것이다. 물질이란 우리가 감각을 통하여 지각하는 객관적실재이다. …물질, 자연, 존재, 물리적인것이 1차적인것이며 정신, 의식, 감각, 심리적인것이 2차적인것이다.》(우와 같은 책, 119～120페지)②

《세계도상이란 물질의 운동 및 〈물질의 사유〉의 도상이다.》(우와 같은 책, 288페지)③

《뇌수는 사유의 기관이다.》(우와 같은 책, 125페지)④

(ㄷ) 세계와 그의 합법칙성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을 부인하며 우리의 지식의 확실성을 믿지 않으며 객관적진리를 승인하지 않으며 그리고 세계는 영원히 과학으로써 인식할수 없는 《사물 그자체》로 충만되였다고 인정하는 관념론과는 반대로 맑스주의철학적유물론은 세계와 그의 합법칙성은 완전히 인식할수 있는것이며 경험과 실천에 의하여 검증된 자연법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객관적진리의 의의를 가진 믿음직한 지식이며 세계에는 인식하지 못할 사물이라고는 없고 다만 아직 인식되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과학과 실천의 힘에 의해서 발견되고 또 인식될 그러한 사물만이 있다고 인정한다.

세계를 인식할수 없다고, 《사물 그자체》는 인식할수 없다고 말한 칸트와 기타 관념론자들의 론점을 비판하고 우리의 지식이 믿음직한것이라고 말하는 유물론의 저명한 명제를 견지하면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332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146페지와 147페지—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361페지—편집자
④ 우와 같은 책, 153페지—편집자

《이러한것들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론박은 기타의 모든 철학적망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실천, 즉 실험과 공업인것이다. 만일 우리자신이 어떤 자연현상을 만들어내며 그 현상의 조건에 따라 그것을 산생시키며 게다가 그 현상을 우리의 목적에다 복무시키는것으로써 그 현상에 대한 우리의 리해의 정당성을 증명할수 있다면 칸트의 포착할수 없는 〈사물 그자체〉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동물 및 식물의 체내에 생겨나는 화학적물질은 유기화학이 그것들을 한가지씩 차례차례로 만들어내게 되기전까지는 의연히 그러한 〈사물 그자체〉로 남아있었다. 유기화학이 그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자 〈사물 그자체〉는 우리를 위한 사물로 전화되였다. 례컨대 꼭두선이의 색소 알리자린 같은것이 그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 색소를 전원에서 재배하는 꼭두선이의 뿌리에서 얻는것이 아니라 훨씬 더 렴가로, 또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콜타르에서 얻는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계설은 300년동안이나 가설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99%, 99.9%, 99.99%까지 믿을만한것이기는 하였으나 어쨌든 가설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러웨리에가 이 태양계의 자료에 기초하여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또 하나의 행성이 반드시 존재하리라는것을 증명하였을뿐만아니라 계산으로써 천공에서의 그 위치까지 확정하였고 그후 갈레가 실지로 그 행성을 발견하였을 때 비로소 코페르니쿠스의 태양계설은 증명되였다.》(《맑스선집》, 로문판, 제1권, 330페지)①

레닌은 보그다노브, 바자로브, 유슈께위치 및 마호의 기타 추종자들을 신앙주의(신앙을 과학보다 중히 여기는 반동적리론)에 빠졌다고 질책하고 자연에서의 합법칙성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지식이 믿음직하며 과학의 법칙들이 객관적진리라고 하는 유물론의 저명한 명제를 고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대의 신앙주의는 결코 과학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과학의 〈지나친 요구〉, 즉 객관적진리에 도달하려는 요구를 부인할따름이다. 만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21～222페지를 보라.—편집자

일 객관적진리가(유물론자들이 생각하는바와 같이) 존재한다면, 만일 인간의 〈경험〉에서 외부세계를 반영하는 자연과학만이 객관적진리를 우리에게 줄수 있다면 온갖 신앙주의는 무조건적으로 부정되고만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3권, 102페지)①

맑스주의철학적유물론의 특징들을 요약하면 바로 이러하다.

철학적유물론의 명제들을 사회생활의 연구에, 사회력사의 연구에 확장하는것이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며 또 이 명제들을 사회력사와 무산계급당의 실천활동에 적용하는것이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은 쉽게 리해할만한 일이다.

자연현상의 련계와 그 호상제약이 자연발전의 합법칙성으로 되는 이상 이로부터 사회생활현상의 련계와 그 호상제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연한 일인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으로 된다는것을 알수 있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사회생활, 사회력사는 더는 《우연적현상》의 퇴적으로 될수 없다는것이다. 왜냐 하면 사회력사는 사회의 합법칙적발전으로 되며 사회력사에 대한 연구는 과학으로 되기때문이다.

그런즉 무산계급당의 실천활동은 《탁월한 인물》의 선량한 념원, 《리성》, 《보편적도덕》 등등의 요구에 근거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합법칙성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 세계가 인식될수 있으며 또 자연의 발전법칙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객관적진리의 의의를 가진 믿음직한 지식인것만큼 이로부터 사회생활과 사회발전도 마찬가지로 인식할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124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발전법칙에 관한 과학적성과는 객관적 진리의 의의를 가지는 믿음직한 성과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즉 사회생활현상이 복잡다단하다 할지라도 사회력사에 관한 과학은 례컨대 생물학에서처럼 정밀한 과학으로 될수 있으며 사회발전법칙을 실제에 적용할수 있는 과학으로 될수 있다는것이다.

그런즉 무산계급당은 그의 실천활동에서 그 어떤 우연적인 동기를 지침으로 삼을것이 아니라 사회발전법칙 및 이러한 법칙에서 얻어낸 실제적결론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것이다.

그런즉 사회주의는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에 관한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되였다는것이다.

그런즉 과학과 실천활동과의 련계, 리론과 실천과의 련계, 그것들의 통일은 무산계급당의 등대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 자연, 존재, 물질세계가 1차적이며 의식, 사유는 2차적이고 파생적인 이상, 물질세계가 사람들의 의식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객관적현실이고 의식은 이 객관적현실의 반영인 이상 이로부터 사회의 물질생활과 사회의 존재도 역시 1차적이고 사회의 정신생활은 2차적이고 파생적이며 사회의 물질생활은 사람들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객관적현실이고 사회의 정신생활은 이 객관적현실의 반영이며 존재의 반영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것이다.

그런즉 사회의 정신적생활을 형성하는 원천, 사회적사상, 사회적리론, 정치적견해 및 정치적기관①을 산생하는 원천을

① 원문은 《Учреждение》이다. 이것은 일정한 리론적견해에 서로 적응되는 조직과 기구를 가리킨다.—편집자

사상, 리론, 견해 및 정치적기관 자체에서 찾을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상, 리론 및 견해 등등이 사회존재의 반영이기때문에 사회의 물질생활조건, 사회의 존재가운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즉 사회력사의 부동한 시기에는 부동한 사회적 사상, 리론, 견해 및 정치적기관이 있는것만큼 즉 노예소유제하에서는 그의 사회적 사상, 리론, 견해 및 정치적기관이 있고 봉건제도하에서는 그와 다른것이 있으며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또 그와 다른것이 있는것만큼 이것은 사상, 리론, 견해 및 정치적기관 자체의 《본성》과 《속성》에 의하여 해석할것이 아니라 부동한 사회발전시기의 부동한 사회물질생활조건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사회적존재, 사회의 물질적생활조건의 여하에 따라 사회적 사상, 리론, 정치적견해 및 정치적기관도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맑스선집》, 로문판, 제1권, 269페지)①

그런즉 정치적으로 오유를 범하지 않으며 공상가들의 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무산계급당은 자기의 활동에서 추상적인 《인간리성의 원리》로부터 출발할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결정적힘으로서의 구체적인 사회의 물질생활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위대한 인물》의 선량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할것이 아니라 사회의 물질생활발전의 현실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것이다.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82페지를 보라.—편집자

인민파, 무정부주의자, 사회혁명당원[32]들을 포함한 공상가들이 몰락하게 되는 원인의 하나는 그들이 사회의 발전과정에서의 사회의 물질생활조건의 우선적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관념론에 빠지면서 사회의 물질생활발전의 수요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이런 수요와는 관계없이 또 이런 수요에 반하여 자기의 실천활동을 세우며 사회의 현실생활로부터 멀어진 《리상적계획》 및 《오만가지 방안》에 근거하여 자기의 실천활동을 세우는데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위력과 생명력은 그가 자기의 실천활동에서 언제나 사회의 현실적생활을 떠나지 않고 사회의 물질생활발전의 수요에 근거하고있는데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맑스의 말로부터 사회적 사상, 리론, 정치적견해 및 정치적기관이 사회생활에서 의의를 가지지 못하며 또 그것들은 사회적존재와 사회생활의 물질조건의 발전에 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당분간 사회적 사상, 리론, 정치적견해 및 정치적기관의 **기원**에 대하여서만, 그것들의 **산생**에 대하여서만, 사회의 정신생활은 사회의 물질생활조건의 반영이라는 것에 대하여서만 말하였다. 사회적 사상, 리론, 정치적견해 및 정치적기관의 **의의**, 력사상에서의 그것들의 **역할**에 대하여서는 력사적유물론은 부인하지 않을뿐만아니라 도리여 사회생활과 사회력사에서의 그것들의 중대한 역할과 의의를 치중하여 지적하고있는것이다.

사회적 사상과 리론은 여러가지가 있다. 사회의 쇠망하여가는 세력을 위해 복무하는 쇠퇴해진 낡은 사상과 리론이 있다. 그것들은 사회의 발전과 전진을 방해하는 역할을 논다. 또한 사회의 전진적인 세력을 위하여 복무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사상과 리론이 있다. 그것들은 사회의 발전과 전진을 촉진

하는 역할을 논다. 그것들이 사회의 물질적생활의 발전수요를 더 정확히 반영하면 할수록 그것들의 의의는 더욱 큰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사상과 리론은 사회의 물질생활의 발전이 사회에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였을 때에라야만 산생된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산생된후에는 사회의 물질생활의 발전에 의하여 제기된 새 과업의 수행을 추진하며 사회의 전진을 추진하는 가장 중대한 력량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사상, 새로운 리론, 새로운 정치적견해 및 새로운 정치적기관의 그런 극히 위대한 조직적, 동원적 및 혁신적 의의가 있는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사상과 리론이 산생하는것은 그것이 사회에 필요하기때문이며 그것들의 그런 조직적, 동원적 및 혁신적 역할이 없이는 사회의 물질생활발전에서의 당면의 과업을 해결하기 불가능하기때문이다. 사회의 물질생활의 발전에 의하여 제기된 재 과업의 기초우에서 산생된 새로운 사회적 사상과 리론은 자기의 길을 개척하며 인민대중의 재부로 되며 사회의 쇠망하여가는 세력을 반대하여 인민대중을 동원하고 조직하며 따라서 사회의 물질생활의 발전을 저애하는 쇠망하여가는 사회세력의 전복을 쉽게 하여준다.

이로부터 사회적 사상, 리론 및 정치적기관은 사회의 물질생활의 발전 즉 사회존재의 발전에 의하여 제기된 절박한 과업을 토대로 하여 산생된 다음에는 그자체가 사회의 물질생활의 절박한 과업을 철저히 수행케 하며 사회의 물질생활을 가일층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창조하여주면서 사회적존재, 사회의 물질생활에 도로 영향을 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리론이 그것이 대중에게 장악되면 곧 물질적힘으로 된다.》(《맑스

엥겔스전집》, 로문판, 제1판, 제1권, 406페지)①

그런즉 사회의 물질생활조건들에 영향을 주며 그 조건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이러한 조건들의 개선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얻자면 무산계급당은 사회의 물질생활발전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며 따라서 광범한 인민대중을 발동하고 동원할수 있으며 그들로 사회의 반동세력을 분쇄하고 사회의 선진세력을 위해 길을 개척하는 무산계급당의 대군을 조직할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리론, 그러한 사회적사상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주의자》들과 멘쉐위크들이 몰락하게 된 원인의 하나는 그들이 선진적리론과 선진적사상의 동원적, 조직적, 혁신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비속적유물론에 빠져서 이런 선진적리론과 선진적사상의 역할을 거의 허무한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당을 소극적인것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것으로 만든데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위력과 생명력은 그것이 사회의 물질생활발전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진적인 리론에 의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론을 그 상응한 높이에까지 끌어올리며 이러한 리론의 동원력, 조직력, 혁신력을 충분히 리용하는것을 자기의 직책으로 간주하는데 있다.

력사적유물론은 사회적존재와 사회적의식간의 관계, 사회의 물질생활발전의 조건과 사회의 정신생활발전간의 관계를 이렇게 해결한다.

(3) 력사적유물론

력사적유물론의 견지로 보아 결국 사회의 면모, 그의 사상, 견해 및 정치적기관 등등을 결정하는 《사회의 물질생활조

---

① 《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12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건》들을 어떻게 리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구경 《사회의 물질생활조건》이란 무엇이며 그 특징은 어떠한가?

《사회의 물질생활조건》이란 개념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사회가 처해있는 자연환경, 즉 사회의 물질생활에 필요하고 항구적조건의 하나이며 또 두말할것없이 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환경이 포함되여있다는것은 의심할바없는것이다. 사회발전에서 지리적환경이 노는 역할은 어떠한가? 지리적환경이 사회의 면모, 인류사회제도의 성격, 한 제도로부터 다른 제도에로의 이행을 결정하는 그러한 주요한 힘으로 될수 있는가?

력사적유물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지리적환경은 두말할것도 없이 사회발전에서의 항구적이고 필요한 조건중의 하나이며 두말할것없이 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 즉 그것은 사회발전의 진척을 촉진시키거나 혹은 지체시킨다. 그러나 그것의 영향은 절대 결정적영향으로 될수 없다. 왜냐 하면 사회적 변화와 발전은 지리적환경의 변화와 발전보다 비할수 없이 빨리 진행되기때문이다. 3,000년동안에 구라파에서는 부동한 세가지 사회제도—원시공동체제도, 노예소유제도, 봉건제도—가 바뀌였으며 그리고 동구라파, 즉 쏘련에서는 지어 네가지 사회제도가 바뀌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 구라파의 지리적조건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는 할수 없으나 어쩌나 적게 변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지리학은 말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명백한 사실이다. 인류사회제도가 극히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데는 수백년 혹은 1,000년이나 2,000년이면 녀녀하나 지리적환경이 다소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데는 수백만년이 걸린다.

이로부터 지리적환경이 사회발전의 주되는 원인, 결정적원인으로 될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 하면 수만년동안이나 거의 변하지 않고있는 현상이 결코 수백년동안에 근본적변화를 일으키는 현상발전의 주되는 원인으로 될수 없기때문이다.

다음으로 인구의 증장, 인구의 밀도도 《사회의 물질생활조건》이라는 이 개념에 포함된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왜냐 하면 사람은 사회의 물질생활조건의 필요한 요소이며 그리고 일정한 최저한도의 인구가 없이는 사회의 어떠한 물질생활도 있을수 없기때문이다. 인구의 증장이 인류사회제도의 성격을 결정하는 주되는 힘인가?

력사적유물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물론 인구의 증장이 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주며 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지체시키지만 그것은 사회발전의 주되는 힘으로 될수 없으며 사회발전에 대한 그의 영향이 결정적영향으로 될수 없다. 왜냐 하면 인구의 증장 그자체는 어째서 어떠한 사회제도가 그 어떤 다른 제도로써가 아니라 꼭 이러한 새 제도로써 바뀌여지며 원시공동체제도는 노예소유제도로써 바뀌여지고 노예소유제도는 봉건제도로써, 봉건제도는 자산계급제도로써 바뀌여지는가 하는것을 설명할수 없기때문이다.

만일 인구의 증장이 사회발전의 결정적힘으로 된다면 보다 높은 인구밀도는 필연적으로 그에 해당한 보다 높은 류형의 사회제도를 낳게 될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형은 볼수 없다. 중국의 인구밀도는 미국보다 3배나 더 높지만 사회발전정형을 놓고보면 미국이 중국보다 더 높은 단계에 처해있다. 왜냐 하면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반봉건제도가 통치적지위를 차지하고있지만 미국은 오래전에 벌써 자본주의발전의 최고단계에 도달하였기때문이다. 벨지크의 인구밀

도는 미국보다 19배나 높고 쏘련보다는 26배나 높지만 사회발전의 견지에서 보면 미국이 벨지크보다 높으며 벨지크는 쏘련에 비하여 웅근 한 력사시대나 떨어졌다. 왜냐 하면 벨지크에서는 자본주의제도가 통치하고있으나 쏘련에서는 이미 자본주의를 소멸하고 국내에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였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인구의 증장이 사회제도의 성격을 **결정**하며 사회의 면모를 **결정**하는 사회발전의 주되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또한 될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ㄱ) 그러면 사회의 물질생활조건체계에서 사회의 면모를 결정하며 사회제도의 성격을 결정하며 한 제도로부터 다른 한 제도에로의 사회의 발전을 결정하는 주되는 힘은 구경 무엇인가?

력사적유물론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획득방식**, 즉 사회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식료품, 의복, 신발, 주택, 연료 및 생산도구 등등의 **물질수단의 생산방식**이 이러한 힘이라고 인정한다.

생활하기 위하여서는 식료품, 의복, 신발, 주택, 연료 등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물질수단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런것들을 생산하여야 하며 그런것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이 식료품, 의복, 신발, 주택, 연료 등등을 생산하는데 쓸 생산도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생산도구를 생산할줄 알아야 하며 이 도구를 사용할줄 알아야 한다.

물질수단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생산도구** 및 일정한 **생산경험**과 **로동기능**으로써 생산도구를 사용하고 물질수단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모든 요소가 공동히 사회의 **생산력**을 구성한다.

그러나 생산력은 물질수단을 생산하는데 리용되는 자연대상과 자연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생산의 한면,

생산방식의 한면뿐이다. 생산의 다른 한면, 생산방식의 다른 한면은 생산과정에서의 사람들사이의 호상관계, 즉 사람들의 **생산관계**이다. 사람들은 서로 고립되고 서로 분리된 개개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 사회적으로 자연과 투쟁하며 또 물질수단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연을 리용한다. 그러므로 어느때, 어떤 조건하에서나를 물론하고 생산은 **사회적**생산인것이다. 사람들은 물질수단의 생산을 진행할 때 생산령역에서 서로 이런 혹은 저런 관계 즉 이런 혹은 저런 생산관계를 이룬다. 이 관계는 착취를 받지 않는 사람들간의 호상협력과 호상협조의 관계로도 될수 있고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도 될수 있으며 또 마지막으로 이것은 생산관계의 한 형태로부터 다른 한 형태에로의 과도적관계로도 될수 있다. 그러나 생산관계는 어떠한 성격을 띠고있든지간에 그것은 어느때, 어떠한 제도하에서나 사회의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생산의 필수적요소인것이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간은 생산에 있어서 자연과만 관계를 가지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호상간에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간은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여 공동활동을 하며 또 그 활동을 서로 교환하지 않고서는 생산을 진행할수 없다. 생산하기 위하여 인간은 일정한 련계 및 관계를 맺으며 또 이러한 사회적 련계 및 관계의 테두리안에서만 그들의 자연과의 관계가 존재하며 생산이 진행된다.》(《맑스엥겔스전집》, 모문판, 제1판, 제5권, 429페지)①

그러므로 생산, 생산방식에는 사회생산력이 포함되여있을뿐만아니라 사람들의 생산관계도 포함되여있으며 그리고 물질수단의 생산과정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이 체현되여있다.

---

① 《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462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ㄴ) 생산의 첫째 특징은 그것이 언제나 한점에 장기간 머물러있는것이 아니라 시종 변화하고 발전하는 상태에 처하여있으며 동시에 생산방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전반 사회제도, 사회적사상, 정치적견해 및 정치적기관의 변경을 일으켜 전반 사회결구와 정치결구에 대한 재조직을 초래하게 하는 그것이다. 부동한 발전단계에서 사람들은 부동한 생산방식을 리용한다. 혹은 좀더 평범하게 말하면 여러가지 방식으로 생활한다. 원시공동체하에서 그의 생산방식이 있었다면 노예제도하에서는 그와 다른 생산방식이 있었으며 봉건제도하에서는 또 그와 다른 생산방식 등등이 있었다. 이에 적응하여 사람들의 사회제도, 그들의 정신생활, 그들의 견해, 그들의 정치적 기관도 역시 각기 다른것이다.

사회의 생산방식의 여하에 따라서 사회자체도 기본상 달라지며 사회적 사상과 리론, 정치적견해와 정치적기관도 역시 달라진다.

혹은 좀더 평범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생활방식의 여하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상방식도 달라진다.

이것은, 사회발전사는 무엇보다도먼저 생산발전사이며 여러 세기동안 서로 바뀌여지고있는 각종 생산방식의 력사이며 생산력과 사람들의 생산관계의 발전사라는것을 의미한다.

그런즉 사회발전사는 동시에 물질수단생산자자체의 력사이며 또 생산과정에서의 기본적힘이고 사회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수단을 생산하는 근로대중의 력사인것이다.

그런즉 력사과학이 진정한 과학으로 되게 하려면 사회발전사를 더는 제왕장상의 행동으로, 다른 나라를 유린하는 《침략자》와 《정복자》의 행동으로 보지 말고 무엇보다도 물질수단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력사, 근로대중의 력사, 여러 나라 인민들의 력사를 연구하여야 한다.

그런즉 사회력사의 법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의 관건은 사람들의 두뇌속에서, 사회적 견해 및 사상 가운데서 찾을것이 아니라 매개 특정적인 력사시기에 사회가 취한 생산방식에서, 즉 사회의 경제에서 찾아야 하는것이다.

그런즉 력사과학의 선차적임무는 생산법칙, 생산력 및 생산관계의 발전법칙, 사회의 경제발전법칙을 연구하고 천명하는데 있는것이다.

그런즉 무산계급의 당이 진정한 당으로 되려면 무엇보다도먼저 생산발전법칙에 대한 지식, 사회의 경제발전법칙에 대한 지식을 장악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런즉 무산계급의 당이 정치적으로 오유를 범하지 않으려면 자기의 당강령을 제정할 때, 자기의 실천활동을 전개할 때 무엇보다도먼저 생산발전의 법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사회의 경제발전의 법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ㄷ) 생산의 둘째 특징은 생산의 변화와 발전은 언제나 생산력의 변화와 발전으로부터, 무엇보다도먼저 생산도구의 변화와 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생산력은 생산중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요소이다. 처음에는 사회의 생산력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그다음에는 이 변화에 따라서 또 이 변화에 상응하여 사람들의 생산관계, 사람들의 경제관계가 변화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생산관계가 생산력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생산력이 생산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발전하며 동시에 또 생산력의 발전을 가속화하거나 완만하게 하면서 도로 그 발전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것은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장성보다 너무 지나치게 오래동안 뒤떨어지고 또 그것과 모순되여있을수 없다는 그것이다. 왜냐 하면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성격과 상태에 적응되며 생산력의 발전에 여지를 주는 그런 경우에라야만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될수 있기때문이다. 이렇기때문에 생산관계가 아무리 생산력의 발전에 뒤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만간에 생산력발전의 수준에,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되여야 하며 또 실지로 적응되는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체계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이 근본적으로 파괴되며 생산전반이 파렬되며 생산에 공황이 생기며 생산력이 파괴된다.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되지 않으며 이 량자간에 충돌이 생기는 실례가 바로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경제공황이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사적소유가 생산과정의 사회적성격과 생산력의 성격에 극히 적응되지 않는다. 생산력을 파괴하는 경제공황이 바로 이런 불적응성의 결과이며 따라서 이런 불적응성자체가 현존생산관계를 파괴하고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되는 새로운 생산관계를 창건하려는 사명을 가진 사회혁명의 경제적기초인것이다.

이와 반대로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성격에 완전히 적응되는① 실례가 쏘련의 사회주의인민경제이다. 쏘련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생산과정의 사회적성격에 전적으로 적응되며 또 이렇기때문에 쏘련에는 경제공황도 없으며 생산력이 파괴되는 정형도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생산력은 생산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요소일뿐만아니라 생산발전에서의 결정적요소인것이다.

생산력의 여하에 따라서 생산관계도 마땅히 그렇게 되여야 한다.

---

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성격에 완전히 적응된다는데 관한 문제는 쓰딸린이 그후에 쓴 저서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경제문제》(이 책 744페지와 760페지를 보라.)를 참조하라.—편집자

생산력의 상태가 어떠한 생산도구로써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물질수단을 생산하는가 하는 문제를 대답한다면 생산관계의 상태는 다른 문제, 즉 **생산수단**(토지, 삼림, 하천, 광물자원, 원료, 생산도구, 생산건축물, 교통도구, 통신도구 등등.)이 누구의 소유인가, 생산수단이 누구의 관리밑에 있는가, 전 사회의 관리밑에 있는가, 아니면 그것으로써 다른 개인, 집단, 계급을 착취하는 개인, 집단, 계급의 관리밑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대답한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생산력발전을 보여주는 일반적정형은 다음과 같다. 조잡한 석기로부터 활과 화살로 넘어갔고 또 이와 관련하여 수렵생활로부터 동물의 사양과 원시적목축업에로 넘어갔으며 석기로부터 금속도구(철도끼, 철보습을 맞춘 쟁기 등)로 넘어갔고 이와 관련하여 식물재배와 농업에로 넘어갔으며 재료를 가공하는 금속도구가 더 개선되여 대장간 풀무에로 넘어갔고 도자기생산에로 넘어갔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공업이 발전되였고 수공업이 농업으로부터 분리되였으며 독립적수공업생산과 그후의 공장제수공업생산이 발전되였으며 수공업생산도구로부터 기계에로 넘어갔으며 수공업—공장제수공업생산이 기계공업으로 전화되였으며 나아가 기계체계로 넘어가서 현대적인 대규모적기계공업이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나마 이것이 인류력사에서의 사회생산력발전의 정황이다. 여기에서 명확히 알수 있는바와 같이 생산도구의 발전과 개선은 인간들과 관계없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산에 참가하는 그런 인간들에 의하여 실현되였던것이다. 그러므로 생산도구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생산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간도 변화발전되였으며 그들의 생산경험, 로동기능 그리고 생산도구를 리용하는 기능도 변화발전되였다.

력사상에서의 사회생산력의 변화와 발전에 적응하여 사람

들의 생산관계, 사람들의 경제관계도 변화발전되였다.

력사상에는 다섯가지 기본적류형의 생산관계, 즉 원시공동체적생산관계, 노예소유제적생산관계, 봉건적생산관계, 자본주의적생산관계,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있었다.

원시공동체하에서의 생산관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였다. 이것은 당시의 생산력의 성격에 대체로 적응되였었다. 석기와 그후에 생긴 활과 화살은 사람들에게 자연력과 맹수를 단독으로 대항하여 싸울수 있는 가능성을 주지 못하였다. 삼림속에서 과실을 따며 물에서 고기를 잡으며 그 어떤 주택을 짓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은 공동히 일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죽게 되고 맹수나 이웃부락의 희생품으로 되였다. 공동로동은 생산수단, 생산물에 대한 공동소유를 초래하였다. 맹수의 침해를 방어하는데 쓰는 약간의 생산도구에 대한 사적소유를 제외한다면 여기에서는 아직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란 무엇인지 모르고있었다. 여기에는 착취도 계급도 없었다.

노예소유제하에서는 생산수단과 생산자인 노예에 대한 노예주의 소유가 생산관계의 기초로 되였는데 노예주는 노예를 가축처럼 매매할수 있었으며 죽일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관계는 그 당시의 생산력상태에 대체로 적응되였던것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석기 대신에 금속도구를 가졌으며 목축업과 농업을 알지 못하던 그런 빈궁하고 원시적인 수렵경제 대신에 목축업, 농업, 수공업이 생겼고 이런 생산부문사이에 분공이 생겼으며 개인과 개인사이, 부락과 부락사이에 생산물을 교환할만한 가능성과 소수인의 수중에 재부를 축적할만한 가능성이 생겼으며 소수인의 수중에 생산수단의 실제적인 축적이 생겼으며 소수인이 대다수 사람들을 예속시키며 또 대다수 사람들을 노예화할 가능성이 생겼다. 여기에서는 생산과정에서의 사

회의 모든 성원들의 공동로동과 자유로동이 없어졌다。여기에서는 일하지 않는 노예주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노예들의 강박로동이 지배적자리를 차지하였다。그러므로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공동소유도 없었다。사적소유가 그것을 대신하였다。여기에서는 노예주가 첫째가는, 그리고 기본적인 완전한 사적소유자였다。

부자와 가난한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권리를 완전히 가진자와 권리를 가지지 못한자。그들간의 잔혹한 계급투쟁—이러한것이 노예소유제의 진상이다。

봉건제도하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봉건령주의 소유와 또 생산자인 농노에 대한 봉건령주의 불완전한 소유가 생산관계의 기초로 되였는데 여기에서는 봉건령주가 농노를 매매할수는 있으나 벌써 그를 죽일수는 없었다。봉건소유제와 병존하여 생산도구와 사적경영에 대한 농민과 수공업자의 개체소유, 즉 본인의 로동을 기초로 한 개체소유제가 있었다。이러한 생산관계는 그 당시의 생산력상태에 대체로 적응되였다。철의 제련과 가공이 가일층 개선되였고 쇠쟁기와 직포기가 보급되였고 농업, 원예업, 양주업, 착유업이 계속 발전되였으며 수공업작업소와 함께 공장제수공업기업이 나타났다。이것이 그 당시 생산력상태의 특징이였다。

새로운 생산력은 생산자들이 생산에서 그 어떤 주동성, 로동의욕, 로동에 대한 리해관계에 관심을 가질것을 요구하였다。이렇기때문에 봉건령주는 로동에 아무런 리해관계도 가지지 않으며 로동에 대한 주동성이 전혀 없는 일군인 노예를 내버리고 농노를 가지려 하였다。왜냐 하면 농노는 자기의 경영과 자기의 생산도구를 가지고있으며 또한 토지를 경작하며 자기의 수확중에서 일부분을 봉건령주에게 현물로 납부하는데 필요한 로동에 대하여 약간의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기때문

이다.

여기에서 사적소유는 한층더 발전되였다. 착취는 노예제도하에서와 거의 비슷하게 잔혹하였으나 오직 그것이 얼마쯤 완화되였을따름이였다. 착취자와 피착취자와의 계급투쟁이 바로 봉건제도의 기본특징이였다.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생산자인 임금로동자를 개인소유로 하지 않는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소유제가 생산관계의 기초로 되였으며 자본가는 생산자 즉 임금로동자를 죽이거나 팔수 없었다. 왜냐 하면 그들은 개인적인 예속관계에서 벗어났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생산수단을 빼앗겼으므로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서는 부득이 자본가에게 자기의 로동력을 팔며 착취의 멍에를 목에 올려놓지 않으면 안되였다.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소유제에 병존하여 농노제의 예속관계에서 벗어난 농민과 수공업자 자체의 로동을 기초로 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있었으며 이런 사적소유가 초기에는 널리 보급되였다. 수공업작업소와 공장제수공업기업은 기계로 장비된 대형공장에 의하여 대체되였다. 간단한 생산도구로써 경작하던 귀족령지는 농업기술에 의하여 경영하고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자본주의적대농장에 의하여 대체되였다.

새로운 생산력은 생산자가 무지몽매한 농노보다 더 문명하고 령리할것을 요구하며 기계를 알고 그것을 옳게 사용할 기능을 가질것을 요구하였다. 때문에 자본가들은 농노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기계를 옳게 사용할수 있는 상당한 문화정도를 가진 임금로동자를 사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거대한 규모에로 발전시킨 다음 자기로써는 해결할수 없는 모순에 빠졌다. 자본주의가 날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내고 상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경쟁을 첨예화하고 수많은 중소사적소유자들을 파산시켜 그들

을 무산자로 전락시켰으며 또 그들의 구매력을 감소시켰다. 그리하여 생산해낸 상품을 팔수 없게 하였다. 자본주의는 생산을 확장하고 또 대규모적공장에 수백만명의 로동자들을 집중시켰으며 이리하여 생산과정에 사회적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자본주의자체의 토대를 파괴하였다. 왜냐 하면 생산과정의 사회적성격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를 요구하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제는 생산과정에서의 사회적성격과 량립될수 없는 사인자본주의적소유제로 남아있기때문이다.

생산력의 성격과 생산관계사이의 이와 같은 비타협적인 모순은 생산과잉의 주기적인 공황을 통하여 폭로된다. 공황시기에 자본가들은 자기자신이 인민대중을 파산시켰기때문에 지불능력이 있는 수요자를 얻지 못하여 부득이 생산물을 소각하며 제품을 없애버리며 생산을 정지하며 생산력을 파괴한다. 반면에 천백만 인민은 상품이 부족한탓으로가 아니라 상품을 너무 많이 생산한탓으로 실업당하고 굶주리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적생산관계가 사회의 생산력상태에 벌써 적응되지 않으며 사회생산력과 비타협적인 모순을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현유의 자본주의적소유제를 사회주의적소유제로써 바꾸어놓을 사명을 지닌 그런 혁명이 자본주의내에 배태되여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착취자와 피착취자간의 가장 날카로운 계급투쟁이 자본주의제도의 기본적특징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아직은 다만 쏘련에서만 실현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공동소유가 생산관계의 기초로 된다. 여기에는 벌써 착취자도 피착취자도 없다. 생산물은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에 의하여 로동에 따라 분배된다. 여기에서는 생산과정에서의 사람들의 호상관계가 착취를 받지

않는 근로자들간의 동지적협작과 사회주의적호상방조의 관계로 특징지어지고있다. 여기에서는 생산관계가 생산력상태에 전적으로 적응된다. 왜냐 하면 생산과정에서의 사회적성격이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에 의하여 보장되여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쏘련의 사회주의적생산에는 생산과잉의 주기적 공황과 또 그와 관련되는 황당한 현상이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생산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는것이다. 왜냐 하면 생산력에 적응되는 생산관계는 생산력이 이처럼 발전할수 있는 충분하고도 광활한 길을 열어주기때문이다.

이것이 인류력사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생산관계발전의 진상이다.

이것은 생산관계의 발전이 사회생산력의 발전,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도구의 발전에 의존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존관계로 하여 생산력의 변화와 발전은 조만간에 그에 적응한 생산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것이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동수단①의 사용과 창조는 비록 맹아적상태에서는 어떤 종류의 동물에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로동과정에 특수하게 있는 특징이다. 그러므로 프랭클린은 인간을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규정하고있다. 로동수단의 유물이 멸망한 사회경제구성형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은 동물의 유골의 구조가 멸망한 동물종족의 신체조직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과 같다. 경제적시대는 무엇이 생산되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생산되는가에 의해서 구별된다.… 로동수단은 비단 인간로동력발전의 척도로 될뿐만아니라 로동이 수행되는 사회적관계의 지표로도 된다.》(카.맑스의 《자본론》, 1935년 로문판, 제1권, 121페지)②

---

① 맑스가 말한 《로동수단》이란 주로 생산도구를 두고 말한것이다.—이.쓰딸린

②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3권, 204페지를 보라.—편집자

다음으로

《사회적관계는 생산력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인간은 새로운 생산력을 얻게 됨에 따라 자기의 생산방식을 변경시키며 생산방식 즉 자기 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인간은 또한 자신의 모든 사회적관계를 변경시키게 된다. 맛돌은 봉건군주가 지배하는 사회를 낳으며 증기제분기는 산업자본가가 지배하는 사회를 낳는다.》(《맑스엥겔스전집》, 로문판, 제1판, 제5권, 364페지)①

《생산력의 장성, 사회적관계의 파괴, 관념의 산생의 부단한 운동이 진행된다. 변동되지 않는것은 다만 운동의 추상…뿐이다.》(우와 같은 책, 364페지)②

《공산당선언》에 서술된 력사적유물론에 대하여 해석하면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매개 력사적시기의 경제적생산과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구조는 그 시기의 정치사와 정신사의 기초를 이루며 따라서(원시적 토지의 공동소유가 해체된후로는) 전 력사는 계급투쟁의 력사 즉 사회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의 피착취계급과 착취계급간의 투쟁,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간의 투쟁의 력사였으며 또 현재에 와서는 이 투쟁은 피착취, 피압박 계급(무산계급)이 동시에 전반 사회를 착취와 압박과 계급투쟁으로부터 영원히 해방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착취하며 압박하는 계급(자산계급)으로부터 해방될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였다.…》(《공산당선언》 독일문판에 대한 엥겔스의 서문)③

(ㄹ) 생산의 셋째 특징은 새로운 생산력과 그에 상응한 생산관계는 낡은 제도로부터 분리되여 단독으로가 아니라, 낡은 제도가 없어진후인것이 아니라 낡은 제도의 내부에서 생기는것이며 사람들의 의식적, 자각적 활동의 결과로서가 아니

① 《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140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140페지—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303페지—편집자

라 자연발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 전이되지 않고서 생기는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 전이되지 않고서 생기는것이다.

첫째로, 사람들은 이런 혹은 저런 생산방식을 자유로 선택할수 없기때문이다. 왜냐 하면 매개 새세대는 생활을 시작할 때에 전세대의 활동의 결과인 기성적인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가지게 되며 따라서 새세대가 물질수단을 생산할 가능성을 얻기 위하여서는 맨 초기에는 생산방면에서 기성적인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게 되며 또는 그에 적응되여야 하기때문이다.

둘째로, 사람들은 이런 혹은 저런 생산도구와 이런 혹은 저런 생산력요소를 개진할 때에 이러한 개진이 어떠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리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며 오직 자기의 일상적인 리해관계이거나 자기의 로동을 경감시켜 자기에게 대하여 그 어떤 직접적이고 현저한 리익을 얻으려는데 대해서만 생각하기때문이다.

원시공동체사회의 어떤 성원들이 석기로부터 철제도구로 넘어가는것을 점차적으로 더듬어낼 때에 그들은 이 혁신이 어떠한 사회적결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물론 알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금속제도구에로 넘어가는것이 생산에 있어서의 변혁을 의미하며 이것이 결국 노예소유제도를 초래하게 되리라는것에 대하여서는 리해하지도 못하였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당시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로동을 헐하게 하며 목전의 현저한 리익을 얻자는것만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그들의 의식적인 활동은 개인의 이런 일상적리익의 협소한 범위내에만 국한되였던것

이다.

구라파의 신흥자산계급이 봉건제도시기에 소규모적동업조합작업소와 아울러 대규모적공장제수공업기업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사회의 생산력을 추진시켰을 때에 그 신흥자산계급은 이러한 혁신이 어떠한 사회적결과를 가져오겠는가에 대하여서는 물론 알지도 못하였고 생각하지도 못하였으며 그는 이런 《사소한》 혁신이 그가 은총을 높이 평가하고있던 그 국왕정권을 타도할뿐만아니라 그의 우수한 인물들이 귀족대렬에 들어설것을 꿈꾸고있던 그 귀족도 타도하는 그러한 혁명을 일으킬 사회적세력의 재편성을 일으킬것이라는것을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리해하지도 못하였다. 당시 자산계급은 단순히 상품생산의 비용을 낮추고 더욱 많은 상품을 아세아시장과 새로 발견된 아메리카시장에 수출함으로써 리윤을 더 많이 얻을것만을 생각하였던것이다. 당시 그들의 의식적인 활동은 이 일상적실천의 협소한 범위에만 국한되였던것이다.

로씨야자본가들이 짜리제도는 추호도 건드리지 않고 또 농민을 지주가 뜯어먹으라고 내맡기면서 외국자본가들과 함께 로씨야에 현대적기계화대공업을 애써 건설할 때에 그들은 물론 생산력의 이러한 거대한 장성이 어떠한 사회적결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알지도 못하였으며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들은 사회생산력면에서의 이 거대한 비약이 사회적세력의 재편성을 일으키면서 무산계급으로 하여금 농민과 련합하여 승리적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수 있게 하리라는것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리해하지도 못하였던것이다. 당시 그들은 단순히 공업생산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며 거대한 국내시장을 차지하며 독점자본가로 되며 또 인민경제에서 더욱 많은 리윤을 얻어내려고만 생각하였던것이다. 당시 그들의 의식적인 활동은 그들의 일상적인 실천의 협소한 리해관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간은 그들의 생활의 사회적생산에 있어서〔즉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질수단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이.쓰딸린〕 일정한, 필연적인, 그들의 의지와는 독립한① 관계, 즉 그들의 물질적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생산관계에 들어선다.》(《맑스선집》, 로문판, 제1권, 269페지)②

그러나 이것은 생산관계의 변화와 그리고 낡은 생산관계로부터 새 생산관계로 이행하는것이 충돌도, 진동도 없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러한 이행은 늘 혁명적수단으로 낡은 생산관계를 뒤엎고 새로운 생산관계를 수립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현되는것이다. 일정한 시기까지는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 면에서의 변화가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 전이되지 않고 진행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일정한 시기까지 그러할뿐이며 이미 산생하여 한창 발전하고있는 생산력이 충분히 성숙될 그 시기까지 그러할뿐이다. 새 생산력이 성숙된후에는 현존한 생산관계와 또 이런 생산관계를 체현하고있는 지배계급은 《극복할수 없는》 장애물로 된다. 이 장애물은 오직 신흥계급의 의식적활동을 통하여, 이런 계급의 폭력적활동을 통하여, 혁명을 통하여서만 제거될수 있는것이다. 여기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폭력으로써 소멸할 사명을 지닌 그러한 새 사회적사상, 새 정치적기관, 새 정권의 거대한 작용이 특별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새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와의 충돌의 기초우에서, 사회의 새 경제적요구의 기초우에서 새 사회적사상이 생긴다. 이 새 사상은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며 이 대중은 새 정치적대군으로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82페지를 보라.—편집자

단결되며 새 혁명적정권을 건립하며 나아가 생산관계면에서의 낡은 질서를 폭력으로 철폐하고 새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정권을 리용한다. 이리하여 자연발생적발전행정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에, 평화적발전은 폭력적변혁에, 진화는 혁명에 자리를 내여주는것이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틀림없이 계급으로 련합되여야 하며…그들이 혁명을 통하여 자기를 지배계급으로 전화시키며 그리하여 지배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를 폭력적으로 소멸하여야 한다.》(《공산당선언》, 1938년 로문판, 52페지)①

다음으로

《무산계급은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리용하여 자산계급의 자본전체를 점차 탈취하며 모든 생산도구를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무산계급의 수중에 집중시키며 생산력의 총량을 될수록 급속히 증대시킬것이다.》(우와 같은 책, 50페지)②

《폭력은 새로운 사회를 배태하고있는 모든 낡은 사회의 조산부이다.》(맑스의 《자본론》, 1935년 로문판, 제1권, 603페지)③

아래에 서술한것은 1859년에 맑스가 자기의 유명한 저서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쓴 력사적의의를 띤 《서문》에서 력사적유물론의 실질에 대하여 내린 천재적정의이다.

《인간은 그들의 생활의 사회적생산에 있어서 일정한, 필연적인, 그들의 의지와는 독립한 관계, 즉 그들의 물질적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생산관계에 들어선다. 이 생산관계의 총체는 사회의 경제적구조를 즉 법률적 및 정치적 상부구조가 그우에 서며 일정한 사회적의식형태들이 그것에 상응하는 현실적로대를 이룬다. 물질적생활의 생산방식은 사회적, 정치적 및 정신적 생활과정일반을 제약한다. 인간

① 《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353~354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제1권, 352페지—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한문판, 제2권, 256페지—편집자

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사회의 물질적생산력은 그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그 생산력이 줄곧 그 내부에서 활동하여오던 현존하는 생산관계 또는 이것의 법률적표현에 불과한 소유관계와 모순되게 된다. 이 관계는 생산력의 발전형식으로부터 그것의 질곡으로 전화한다. 그때에 사회혁명의 시대가 닥쳐온다. 경제적기초의 변화에 따라 거대한 상부구조전체가 혹은 급속히 혹은 서서히 변혁된다. 그러한 변혁들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경제적생산조건에 있어서의 물질적인, 자연과학적으로 정확히 확인할수 있는 변혁과 법률적, 정치적, 종교적, 예술적 또는 철학적 요컨대 의식형태적 제 형태—이것들에서 인간은 충돌을 의식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투쟁한다.—와를 항상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개인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근거로 삼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변혁시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시대의 의식을 근거로 삼을수는 없다. 도리여 이 의식을 물질적생활의 모순에서, 사회적생산력과 생산관계간의 현존하는 충돌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사회구성도 그것이 충분한 여지를 주고있는 생산력이 다 발전하기전에는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또 새로운, 보다 높은 생산관계는 그것의 물질적존재조건이 낡은 사회자체의 태내에서 성숙하기전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류는 언제나 해결할수 있는 과제만을 자기에게 제기한다. 왜냐 하면 보다 더 자세히 고찰하면 과제자체는 그것을 해결할 물질적조건이 이미 존재하거나 적어도 형성과정에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는것을 알게 될것이기때문이다.》(《맑스선집》, 로문판, 제1권, 269~270페지)①

맑스주의적유물론을 사회생활과 사회력사에 적용한다면 이러한것이다.

변증법적유물론 및 력사적유물론의 기본적특징들은 이러하다.

《레닌주의 제 문제》, 한문판, 629~657페지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82~83페지를 보라.—편집자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제18차 대회[78]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발취)

(1939년 3월 10일)

3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의 가일층의 공고화

정치로선과 일상적인 실천활동에서 볼 때 총화기간은 우리 당의 총로선이 완전히 승리한 시기였다.(오래 계속되는 열렬한 박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적체계가 확립되고 새로운 기술에 기초하여 공업과 농업의 개조가 완성되였으며 공업에서 제2차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고 매해 알곡생산량을 70억뿌드의 수준에까지 올리였으며 빈궁과 실업을 없애고 인민의 물질문화수준을 향상시킨것—이것이 우리 당 정책과 그의 령도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성과들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성과앞에서 우리 당 총로선의 적대자들인 각종《좌익》및《우익》적 조류, 온갖 뜨로쯔끼-빠따꾜브적 및 부하린-리꼬브적 변절자들은 할수없이 자신을 감추게 되였

고 자기들의 낡아빠진 《정강》을 숨기게 되였으며 지하로 기여들어가게 되였다. 인민의 의사에 순종할 용기가 없는 그들은 멘쉐위크, 사회혁명당원[32], 파시스트들과 합류하여 외국첩보기관의 앞잡이가 되고 간첩이 되여 쏘련의 적들이 우리 나라를 분렬시키며 우리 나라에 자본주의노예제도를 복구하도록 도와주게 되였다.

이것이 바로 후에 인민의 원쑤로 된, 우리 당 로선의 적대자들의 치욕스러운 말로이다.

인민의 원쑤들을 격멸하고 당과 쏘베트의 조직에서 변절자들을 제거해버림으로써 당은 자기의 정치사업과 조직사업에서 더욱더 통일되였으며 당중앙위원회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결속되였다.(열렬한 박수. 전체 대표들이 기립하여 보고자에게 경의를 드린다. 《쓰딸린동지 우라! 쓰딸린동지 만세! 우리 당 중앙위원회 만세! 우라!》라는 웨침소리)

이제 우리는 총화기간의 당대부생활의 발전, 당조직사업과 선전사업에 대한 구체적자료를 보기로 하자.

1. 당성분의 개선대책. 조직의 세분화. 하부사업에로의 지도기관의 접근

총화기간에 당과 그 지도기관을 강화하는 사업은 무엇보다도먼저 당의 성분을 조절하며 믿을수 없는자들을 제거하고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하는것과 당조직을 세분화하며 그의 법위를 축소하고 지도기관을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하부사업에 접근시키는 두가지 면에서 실시되였다.

제17차당대회[65]는 187만 4,488명의 당원을 대표하였다. 만일 이 수자를 그전 대회인 제16차당대회[66]가 대표하였던 당원수와 비교하면 제16차당대회로부터 제17차당대회에 이르는 기간에 60만명이 새로 입당한것으로 된다. 당은 1930～1933년

의 조건에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인것은 당원수를 불건전하고 부당하게 확장한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당은 그의 대렬에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들뿐만아니라 우연분자들이나 당의 기치를 자기들의 개인적목적에 리용하려는 출세주의자들도 들어온다는것을 알았다. 당은 당원수가 많아야만 당이 강한것이 아니라 우선 당원들의 질이 좋아야 강하다는것을 모를리 없었다. 그리하여 당성분을 조절하여야 할 문제가 나서게 되였다. 이미 1933년에 시작된 당원 및 후보당원 대렬을 순결화하는 청당사업을 앞으로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사업은 실지로 1935년 5월까지 계속되였다. 다음으로는 신당원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실지로 1936년 9월까지 신당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36년 11월 1일부터야 신당원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당내에 의심스러운 분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준 끼로브동지에 대한 흉악한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당증검열과 당증교환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두가지 사업은 다 1936년 8월말에야 끝났다. 이렇게 한 뒤에야 비로소 당원과 후보당원들을 당에 새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 대책을 취한 결과 당은 가장 견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을 선발하면서 자기 대렬에서 우연분자, 소극분자, 출세주의자 및 적대분자들을 축출할수 있었다. 그러나 청당사업에 엄중한 오유가 없었다고는 말할수 없다. 유감스럽지만 오유는 예상하던것보다 더 많았다. 우리가 더는 대중적인 청당방법을 리용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1933～1936년의 청당사업은 어쨌든 불가피적이였으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적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이번 제18차대회는 약 160만명의 당원 즉 제17차대회보다 27만명이나 적은 당원을 대표하고있다. 그러나 이에 나쁜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

다. 오히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 하면 당은 추악한 분자를 제거하여버림으로써 공고해지기때문이다. 지금 우리 당은 당원수로는 좀 적어졌다 하더라도 그대신 질적으로는 더 나아졌다.

이것은 거대한 성과이다.

당의 일상적인 지도를 하부사업에 접근시키고 그 지도를 한층더 구체화함으로써 그 지도를 개선한다는 점에 대하여 말한다면 당은 조직을 세분화하며 그의 범위를 축소시키는것이 이 조직에 대한 당기관의 지도를 용이하게 하며 그 지도를 구체적이고도 산 지도로, 실제적인 지도로 되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조직을 세분화하는 사업은 각 인민위원부계통과 각 행정구역적조직의 계통 즉 가맹공화국, 변강구, 주와 구역 등등의 계통으로 진행되였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결과 우리 나라에는 지금 7개의 가맹공화국 대신에 11개의 가맹공화국, 14개의 쏘련인민위원부 대신에 34개의 쏘련인민위원부, 70개의 변강구 및 주 대신에 110개의 변강구와 주, 2,559개의 도시 및 농촌 구역 대신에 3,815개의 도시 및 농촌 구역이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기관체계에는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를 위수로 하는 11개의 중앙위원회와 6개의 변강구위원회, 104개의 주위원회, 30개의 지구위원회, 212개의 시위원회, 336개의 도시구역위원회, 3,479개의 농촌구역위원회와 11만 3,060개의 기층당조직들이 있다.

조직의 세분화사업이 끝났다고는 아직 말할수 없다. 분명히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것이다. 그러나 여하간 그 세분화사업은 사업의 일상적지도를 개선하는데서나 그 지도를 구체적인 하부사업에 접근시키는데서 벌써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있다. 나는 조직을 세분화함으로써 수백수천명의 새 일군들을 지도적사업에 등용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서는 더 말하지

않겠다.

이것도 역시 거대한 성과이다.

2. 간부의 선발, 등용, 배치

당의 성분을 조절하며 지도기관을 구체적인 하부사업에 접근시키는것은 당과 그 지도를 더한층 강화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였으며 또한 그렇게 될수도 없었다. 총화기간에 당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수단은 간부에 대한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간부들을 선발, 등용, 배치하며 사업과정에서 간부들을 검열하는 사업을 개선하는것이였다.

당간부들은 당의 지휘원일뿐만아니라 우리 당이 주권을 쥐고있기때문에 그들은 또한 국가지도기관의 지휘원이다. 실천에서 검열된 옳은 정치로선이 채택된 다음에는 당간부들이 당 및 국가 지도에서 결정적력량으로 된다. 옳은 정치로선을 가지는것—이것은 두말할것없이 선차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옳은 정치로선은 걸치레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철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이다. 그런데 옳은 정치로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당의 정치로선을 리해하고 그것을 자기자신의 로선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준비가 되여있고 그것을 실천속에서 수행할줄 알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것을 수호하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할줄 아는 사람, 그러한 간부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간부들이 없이는 옳은 정치로선도 공론으로 될 위험이 있다.

바로 여기에서 간부들을 옳게 선발육성하며 새로운 일군들을 등용하고 간부들을 옳게 배치하며 이미 해온 사업을 통해서 그들을 심사하는 문제가 또한 나서게 되는것이다.

간부들을 옳게 선발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부들을 옳게 선발한다는것은 자기 주위에 몇몇 조수와 보조자를 모아놓고 사무실을 설치하여 거기에서 각종 지시를 내리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웃음소리) 이것은 또한 자기의 권리를 람용하여 수십수백명의 사람들을 공연히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끝이 없이 《재조직》사업을 하는것을 의미하는것도 아니다.(웃음소리)

간부를 옳게 선발한다는것은 다음과 같은것을 의미한다.

첫째로, 간부를 당과 국가의 보물과 같이 귀중히 여기며 그를 아끼고 존경할것,

둘째로, 간부를 잘 알며 매개 간부들의 우점과 결함을 세밀히 연구하고 매 간부의 재능이 어떠한 직위에서 더 잘 발휘될수 있겠는가를 아는것,

셋째로, 간부를 성의껏 육성하며 자라나는 매개 일군들이 부단히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일군들을 꾸준히 《돌봐주며》 그들의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간을 아끼지 말것,

넷째로, 새로운 젊은 간부들을 제때에 그리고 대담하게 등용하여 그들이 한자리에 머물러있거나 소침해지지 않게 할것,

다섯째로, 매개 일군들이 자기의 일자리가 자기에게 적당하다고 느끼게 하며 매 일군들이 우리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며 간부배치의 총적방향이 이 배치사업이 목적하는 정치로선의 요구에 전적으로 합치되게 일군들을 배치할것이다.

재로운 젊은 간부들을 제때에 그리고 대담하게 등용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나는 우리 일군들이 아직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간부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주로 오랜 간부들에게 의거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있다. 그와 반대로 다른

일부 사람들은 주로 젊은 간부들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다. 나는 이 두 의견이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랜 간부는 물론 당과 국가의 커다란 재부로 되고있다. 그들에게는 젊은 간부들에게 없는 풍부한 지도경험,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단련, 실무지식, 방향을 잡을줄 아는 능력 등이 있다. 그러나 첫째로, 오랜 간부는 언제나 많지 않아서 수요보다 적으며 자연법칙에 의하여 이미 그들은 부분적으로 사업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고있다. 둘째로, 일부 오랜 간부들은 과거를 지나치게 고집하며 과거의것과 낡은것에 빠져 실생활에서 새로운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나군 한다. 이것은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결함이다. 젊은 간부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에게는 물론 오랜 간부들이 가지고있는 그러한 경험과 단련, 그리고 실무지식과 방향을 옳게 식별할줄 아는 능력은 없다. 그러나 첫째로, 젊은 간부는 그 수자로 보아 많으며 둘째로, 그들은 젊기때문에 아직 사업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없으며 셋째로, 그들에게는 매개 볼쉐위크적일군의 귀중한 기질인 새것에 대한 민감성이 있으며 넷째로, 그들은 빨리 자라고 빨리 계발되며 진취심이 강하므로 멀지 않은 장래에 늙은 세대를 따라잡을것이며 그들과 나란히 서서 나갈것이며 그들의 훌륭한 계승자가 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문제는 오랜 간부들에 의거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간부들에게 의거하여야 하는가에 있는것이 아니라 오랜 간부와 젊은 간부를 당과 국가의 지도사업이라는 하나의 합주단에 결합하고 배합하는 방침을 취하는데 있다.(오래 계속되는 박수)

바로 그렇기때문에 젊은 간부를 제때에 그리고 대담하게 지도적지위에 등용하여야 한다.

총화기간에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면에서 달성한 중대한

성과의 하나는 당이 간부들을 선발할 때 오랜 일군들과 젊은 일군들을 결합하는 바로 이 방침을 아래로부터 우에 이르기까지 성과있게 관철한 그것이다.

당중앙위원회에는 총화기간에 당이 국가기관과 당기관 계통의 지도적지위에 50만명이상의 젊은 당원 볼쉐위크들과 당에 접근하는 볼쉐위크들—그중 20%이상은 녀성들이였다.—을 등용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과업이 나서고있는가?

과업은 간부선발사업을 아래로부터 우에 이르기까지 한손에 완전히 틀어쥐고 그것을 과학적이고 볼쉐위크적인 응당한 수준에 올려세우는것이다.

이렇게 하자면 간부를 심사, 등용 및 선발하는 사업을 여러 부서와 여러 부문에 분산시켜 하던 방법을 없애고 그 사업을 한곳에 집중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간부국과 각 공화국, 변강구 및 주의 당단체내의 해당 간부부가 이러한 기관이 되여야 한다.

3. 당의 선전사업. 당원들과 당간부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교양

총화기간에 당과 그 지도기관을 강화한 또 하나의 가장 요긴하고도 가장 중요한 당사업은 구두 또는 출판물에 의한 당의 선전선동사업이며 당원들과 당간부들을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이며 당과 당일군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는 사업이였다.

당선전사업과 우리 일군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교양사업의 중대성에 대하여 장황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것 같다. 나는 당기관일군들만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공

청동맹, 직업동맹, 상업기관, 협동조합, 경제조직, 쏘베트조직, 교육조직, 군사조직 및 기타 기관의 일군들까지 념두에 두고있다. 당의 성분을 조절하며 지도기관을 하부사업에 접근시키는 사업이나 간부를 등용하고 선발하며 배치하는 사업은 만족스럽게 할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도 만일 어떤 리유로 해서 우리 당 선전사업을 충분히 하지 못하거나 우리 간부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교양사업을 미약하게 진행하기 시작하며 그 간부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는 우리의 사업을 약화시키고 이에 따라 간부들자신이 우리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우리 사업의 정당성을 리해하지 못하게 되며 상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망을 잃은 실무주의자로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국가사업이나 당사업도 모두 약화될것이다. 국가 및 당 사업의 어떤 부분의 일군을 물론하고 그들의 정치수준과 맑스-레닌주의적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업자체의 능률이 더 높아지고 사업성과가 더 많아질것이며 반대로 일군들의 정치수준과 맑스-레닌주의적의식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업이 잘못되고 실패하기 쉬우며 일군들자신이 비속화되고 타락되여 사소한 일에 매여달리는 실무주의자로 되며 또한 그들이 변질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것을 자명한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사업부문의 간부들을 사상적으로 배양하고 국제국내정세를 수시로 판명할수 있도록 그들을 정치적으로 단련시키며 국가령도문제를 큰 과오 없이 능히 해결할수 있는 완전히 성숙된 맑스-레닌주의자로 그들을 육성할줄 알았더라면 벌써 우리의 모든 문제의 10분의 9는 해결된것으로 인정할 모든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그리고 이 과업은 물론 우리가 해결할수 있다. 그것은 이 과업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과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매개 부문별로 즉 전문별로 젊은 간부들을 교육하며 육성한다. 이것은 필요하고도 적절한것이다. 의학전문가가 동시에 물리학 또는 식물학 전문가로 되거나 또는 그와 반대의 경우로 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모든 과학부문에서 일하는 볼쉐위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의 과학부문이 있는바 그것은 곧 사회와 사회의 발전법칙, 무산계급혁명의 발전법칙, 사회주의건설의 발전법칙, 공산주의승리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과학이다. 왜냐 하면 레닌주의자라고 자칭하면서 자기의 전문부문에 국한되여 이를테면 수학, 식물학, 또는 화학에 국한되여 자기의 전문기술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레닌주의자로 인정할수 없기때문이다. 레닌주의자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과학부문의 전문가로만 될수는 없다. 그는 동시에 자기 나라의 운명에 적극 관심을 돌리며 사회의 발전법칙을 알고 그 법칙을 리용할줄 알며 나라의 정치적지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정치가, 사회활동가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물론 볼쉐위크전문가들에게 첨가되는 부담으로 될것이다. 그러나 이 부담은 큰 리익을 가져다주는 부담으로 될것이다.

당선전사업의 과업, 간부들을 맑스-레닌주의로 교양하는 과업은 모든 부문에 있는 우리의 간부들이 사회발전법칙에 관한 맑스-레닌주의과학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선전사업과 간부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교양사업을 개선할 대책에 대한 문제는 각 주 당단체선전원들의 참가밑에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에서 여러번 토의되였다. 여기에서 1938년 9월에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간략독본》이 출판된 사실에 주의를 돌렸다. 그리고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간략독본》의 출판은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선전

사업의 새로운 발전의 기초로 된다는것이 확증되였다.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의 토의가 있은후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간략독본〉의 출판과 관련한 당선전사업조직에 대하여》①라는 저명한 결정이 발표되였다.

이 결정에 근거하고 또 1937년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의 저명한 결정《당사업의 결함에 대하여》를 고려하면서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는 당선전사업의 결함을 시정하고 당원들과 당간부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교양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다음과 같은 주요한 대책을 지적하였다.

1. 당선전선동사업을 한 부문에 집중시키며 각 선전선동부들과 출판부를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내의 통일적인 선전선동국에 련합시키며 동시에 각 공화국, 변강구, 주당단체내에 해당한 선전선동부를 설치할것.

2. 선전에서 학습반체계에만 편중하는것은 옳지 않으며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연구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서 출판물을 통한 선전과 강의식선전을 조직하는데 당의 주의력을 집중할것.

3. 우리의 하급간부들을 위하여 각 주 중심지에 1년제재교육강습소를 설치할것.

4. 우리의 중급간부들을 위하여 우리 나라의 여러 중심도시에 2년제레닌주의학교를 세울것.

5. 높은 리론수준을 가진 리론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직속 3년제맑스-레닌주의 고급당학교를 세울것.

6. 선전원과 신문일군들을 재교육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① 《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서집》, 1957년 인민출판사판, 제4분책, 501~521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의 여러 중심지에 1년제강습소를 세울것.

7. 대학의 맑스-레닌주의강사들을 재교육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고급당학교내에 6개월강습소를 세울것.

아직 원만하다고는 볼수 없으나 이미 실시되고있는 이러한 제반 대책은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4. 몇가지 리론문제

중대한 실천적의의를 가지는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우리 동지들이 완전히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있지 못하며 이 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혼란을 일으키고있는것은 우리의 선전 및 사상 사업의 결함으로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나는 국가일반에 대한 문제, 특히 우리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문제와 우리 쏘베트지식인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말하는것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즉 《우리 나라에서는 착취계급이 청산되여 국내에는 이미 적대계급이 없으며 진압해야 할 사람들이 없는 이상 국가는 이미 필요없는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조락되여야 할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우리의 사회주의국가의 조락을 촉진시키지 않는가? 어째서 우리는 국가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힘쓰지 않는가? 이 국가란 폐물을 모조리 집어던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또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다. 즉 《우리 나라에서는 착취계급이 이미 청산되였고 사회주의가 대체로 건설되였으며 우리는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고있다. 그런데 국가에 관한 맑스주의학설은 공산주의제도하에서는 아무런 국가도 있을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국가의 조락을 촉진시키지 않는가? 국가를 고물박물관에 넘겨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질문은 그 질문자들이 국가에 관한 맑스와 엥겔스

의 학설의 개별적명제들을 매우 성실하게 암송하였다는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질문은 그 동지들이 이 학설의 본질을 리해하지 못하였고 그 학설의 개별적명제가 어떠한 력사적조건하에서 규정된것인가를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특히 현 국제환경을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자본주의에 의하여 포위된 사실과 여기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주의나라에 대한 위험성을 보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 질문에는 자본주의적포위에 대한 과소평가만 나타난것이 아니다. 이 질문에는 간첩, 살인배, 암해분자를 우리 나라에 파견하며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진공의 기회를 얻으려고 날뛰는 자산계급국가들과 그의 기관들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과소평가도 나타나고있으며 동시에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사회주의나라를 수호하기에 필요한 우리의 사회주의적국가, 그의 군사기관, 징벌기관 및 정찰기관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과소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소평가에 대하여는 이상에 지적한 동지들만 과오를 범한것이 아니라 우리 볼쉐위크들도 누구나 할것없이 모두다 어느 정도 과오를 범하였다는것을 시인하여야 할것이다. 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뜨로쯔끼파와 부하린의 상층분자들이 벌써 10월혁명초기부터 외국간첩기관의 간첩이 되여 음모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우리는 이자들의 간첩활동과 음모에 대하여는 최근에 와서, 즉 1937～1938년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였다. —그래 이것이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듯 중대한 사건을 보지 못하게 되였는가? 이러한 실수를 무엇으로 설명할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한다. 즉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것은 설명으로 될수 없으며 변명으로는 더구나 될수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실수한 사실은 사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실수는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이 실수는 우리를 포위하고있는 자산계급국가기구와 그 간첩기관의 력량과 의의를 과소평가한데 기인된다. 이 기관들은 사람들의 약점, 사람들의 허영심, 사람들의 나약성을 리용하여 그들을 자기의 간첩망에 끌어넣어 그들로써 쏘련 국가기구를 포위하려고 애쓰는것이다. 이 실수는 우리 사회주의국가기구와 그의 정찰기관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과소평가, 쏘베트국가에서 정찰기관은 보잘것없는것이며 무용지물이며 쏘베트정찰기관은 쏘베트국가자체와 마찬가지로 속히 고물박물관에 넘겨주게 되리라고 떠드는 쏘베트정찰기관에 대한 과소평가에 기인된다.

어떠한 기초우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과소평가가 생겨날수 있었는가?

그것은 국가에 대한 맑스주의학설의 몇가지 일반적명제의 연구가 불완전하며 불충분한 결과로 발생하였다. 그것이 전파된것은 우리에게 리론적총화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주는 우리의 20년간의 국가활동의 실제적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하고저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리론적결함을 성과있게 보충할만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의 일부 리론문제에 대하여 허용할수 없는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였기때문이다. 우리는 맑스주의리론을 더한층 연구할 사명을 지닌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의 리론상의 의무에 대한 레닌의 극히 중요한 교시를 잊었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결코 맑스의 리론을 그 어떤 고정불변한, 신성불가침한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이 리론은 사회주의자들이 만일 실생활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모든 면에서 더 전진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그 과학의 기초를 닦았을뿐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로씨야사회

주의자들에게는 맑스의 리론에 대한 **독자적연구**가 특히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왜냐 하면 이 리론은 일반적인 **지도적경제방**을 제공할 뿐인데 이러한 명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국에서는 프랑스에서와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독일에서와 다르게, 독일에서는 로씨야에서와 다르게 적용되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권, 492페지)①

실례로 엥겔스가 규정한 사회주의국가발전에 관한 리론의 전형적공식을 들어보자.

《진압하여야 할 사회적계급이 없게 될 때, 계급의 지배와 지금까지의 생산의 무정부상태에서 기인되는 개체생존투쟁과 함께 이러한것들로부터 생기는 충돌과 폭행이 없어지게 될 때에는 진압하여야 할것이 더는 없게 될것이며 진압하기 위한 특수한 력량인 국가도 더는 필요없게 될것이다. 국가가 진정으로 전 사회의 대표자로서 취하는 최초의 행동, 즉 사회의 명의로 생산수단을 점유하는것은 동시에 국가가 국가로서 취하는 최후의 독자적행동인것이다. 그때에 가서는 사회적관계에 대한 국가정권의 간섭이 선후로 각 부문에서 불필요하게 되여 스스로 정지되고 만다. 그때에 가서는 사람에 대한 지배는 물건에 대한 관리와 생산과정에 대한 지도로 대체된다. 국가는 〈폐지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락한다.**》(**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반듀링론》, 1933년, 당의 출판사판, 202페지)②

엥겔스의 이 명제는 옳은가?

그렇다, 옳은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중에서 하나인 때에만 옳은것이다. 즉 (ㄱ) **만일** 고찰의 편리를 위하여 나라와 국가를 국제환경에서 고립시켜 국제적요인으로부터 미리 격리시켜놓고 나라의 내부발전의 견지에서만 사회주의국가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혹은 (ㄴ) **만일** 사회주의가 벌써 세계 각국에서 승리하였거나 대다수 국가에서 승리하였고 사회주의적포위가 자본주의적포위를 대체하였으며 외부로부터

① 《레닌선집》, 제1권, 269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②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320~321페지를 보라. —편집자

의 침공의 위험이 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군대와 국가를 강화할 필요가 더는 없다고 가정할 때에만 이 명제가 옳은것이다.

그런데 만일 단독적으로 한 나라에서만 사회주의가 승리하였으며 그때문에 국제적조건에서 어쨌든 떨어져나올수 없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엥겔스의 공식이 대답을 주지 않는다. 엥겔스는 본래 이러한 문제를 자기앞에 제기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그에게 있을수 없었던것이다. 엥겔스는 사회주의가 이미 각국에서 또는 대다수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동시에 승리하였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때문에 엥겔스는 여기에서 어떠한 개별적나라의 어떤 구체적사회주의국가를 고찰한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사실을 가정하고 사회주의국가일반의 발전을 고찰한것이다. 그 공식은 《사회주의가 대다수 국가에서 승리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묻노니, 이러한 경우에 무산계급적, 사회주의적 국가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사회주의국가문제의 고찰에 있어서 엥겔스가 국제적조건, 국제적환경과 같은 그런 요인을 전혀 제쳐놓았다는것은 다만 문제의 이러한 일반적, 추상적 성질에 의하여 설명되는것이다.

그리하여 여기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사회주의국가일반의 운명에 대한 엥겔스의 일반적공식을 사회주의가 단독적으로 한 나라에서 승리한 개별적, 구체적 경우에까지 확장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이 나라는 그 주위에 자본주의적포위가 있으며 이 나라는 외부로부터의 군사적침공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그렇기때문에 이 나라는 국제적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나라는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사회주의적전취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잘 훈련된 군대와 잘 조직된 징벌기관과 강력한 정찰기관이 반드시 자기 관할하에 있어야 될것이다.

즉 십분 강력한 자기의 국가가 있어야 할것이다.

우리 시대에서 45~55년전에 활동한 맑스주의대가들에게서 먼 장래에 개별적국가에서 발생될 각이한 력사적굴곡의 예견을 요구할수는 없는것이다. 맑스주의대가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50~100년후에 개별적국가에서 발생될수 있는 각종 리론적 문제의 완성된 답안을 작성하여 맑스주의대가들의 후손인 우리로 하여금 화로옆에 편안히 앉아서 완성된 답안을 삼킬수 있게 하여달라고 요구하는것은 우스운 일일것이다.(만장의 웃음소리)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자들에게서 그들이 맑스주의의 개개의 일반적명제를 암송하는데만 국한하지 말고 맑스주의의 본질을 깊이 체득하며 사회주의국가가 20년동안이나 존재한 우리 나라의 경험을 고려할줄 알며 끝으로는 그들이 이 경험에 의거하여 맑스주의의 본질로부터 맑스주의의 개별적일반명제를 구체화하며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보다 완미하게 하는 일을 배워야 할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또 반드시 요구하여야 할것이다. 레닌은 1917년 8월에, 즉 10월혁명과 쏘베트국가가 창설되기 몇달전에 자기의 유명한 저서 《국가와 혁명》을 썼다. 레닌은 국가에 대한 맑스와 엥겔스의 학설을 기회주의자들의 외곡과 비속화에서 수호하는것을 이 저서의 주되는 임무로 삼았다. 레닌은 또한 《국가와 혁명》의 제2편을 쓰려고 하였는데 그는 거기서 1905년과 1907년 로씨야혁명의 경험의 주요한 총화를 서술하려고 예상하였었다. 레닌은 그의 저서의 제2편에서 우리 나라에 쏘베트정권이 존재한 경험에 의거하여 국가에 대한 리론을 한층더 깊이 있게 연구하며 더욱 발전시키려고 하였던것은 의심할바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레닌의 서거는 그로 하여금 이 임무를 실현할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레닌이 마저 해놓지 못한 그 위업은 그의 제자들이 반드시 완수하여야 할것이다.(우뢰와 같은

박수)

국가는 사회가 적대적계급에로 분렬된 기초우에서 발생되였으며 소수인 착취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다수인 피착취자를 억제하려고 발생된것이다. 국가정권의 기구는 주로 군대, 정별기관, 정탐기관, 감옥들에 집중되였다. 두가지 기본직능이 국가활동의 특징을 표현한다. 즉 대내적(주되는것)직능은 다수인 피착취자들을 억제하기 위한것이며 대외적(주되지 않은것) 직능은 다른 국가의 령토를 략탈하여 자기의 지배계급의 령토를 확장하거나 다른 국가의 침공으로부터 자국의 령토를 보위하는것이다. 노예소유제도와 봉건제도하에서 사태는 이러하였으며 자본주의제도하에서도 역시 사태는 이렇게 되여있다.

자본주의를 뒤엎기 위하여서는 다만 자산계급을 정권에서 축출하고 자본가를 수탈하기만 할것이 아니라 자산계급의 국가기구를 즉 그의 낡은 군대, 그의 관료기구, 그의 경찰기관을 철저히 분쇄해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무산계급적국가기구, 새로운 사회주의국가를 수립하여야 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볼쉐위크들은 바로 이렇게 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무산계급국가의 요구에 적절하게 변화된 낡은 국가의 일부 직능이 새 무산계급국가에 보존될수 없다는 결론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주의국가의 형태가 반드시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든가 우리 국가의 모든 최초의 직능이 앞으로도 전적으로 보존되여야 한다는 결론은 더구나 나오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 국가의 형태는 우리 나라의 발전과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며 또 변경될것이다.

레닌이 다음과 같이 말한것은 전적으로 옳은것이다.

《자산계급국가의 형태는 극히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이다. 즉 이 국가들은 모두 이렇게나저렇게나간에 결국은 틀림없이 **자산계급의 독재**이다.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물론 무수하고 다종

다양한 정치적형태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으나 이 경우에 본질은 불가피하게 하나, 즉 무산계급독재일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1권, 393페지)①

10월혁명이래 우리 사회주의국가는 그 발전에 있어서 두개의 주요한 단계를 경과하였다.

첫단계는 10월혁명으로부터 착취계급을 소멸하는데까지 이르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기본임무는 전복된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외국무력간섭에 대항하여 국방을 조직하며 공업과 농업을 복구시키며 자본주의요소의 청산을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국가는 이 시기에 이에 적응하여 두개 기본직능을 실현하였다. 첫째 직능은 국내의 전복된 계급을 진압하는것이였다. 이 점에서 우리 국가는 외형상으로는 굴복하지 않는자들을 진압하는 직능을 리행하던 종래의 국가들과 비슷하였으나 종래의 국가들은 소수인 착취자의 리익을 위하여 다수인 피착취자를 진압하였지만 우리 국가는 다수인 근로자의 리익을 위하여 소수인 착취자를 진압한 원칙적차이가 있는것이다. 둘째 직능은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방위하는것이였다. 이 점에서도 역시 우리의 국가는 외형상으로는 무력으로 자기 나라를 보호하던 종래의 국가들과 비슷하였으니 종래의 국가들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소수인 착취자의 재부와 특권을 보호하였지만 우리 국가는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다수인 근로자의 전취물을 보호한 그런 원칙적차이가 있는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셋째 직능도 있었다. 그것은 우리 국가기관의 경제조직사업과 문화교양사업인데 그의 목적은 새로운 사회주의경제의 맹아를 싹트게 하며 사람들을 사회주의의 정신으로써 재교양하려는것이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200페지를 보라.—편집자

기능은 그 시기에 중대한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둘째 단계는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요소를 청산하는 시기로부터 사회주의적경제체계의 완전한 승리와 새로운 헌법채택에까지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기본임무는 전국을 통하여 사회주의적경제를 조직하며 자본주의요소의 최후의 잔재를 청산하며 문화혁명을 조직하며 국방을 위하여 아주 현대적인 군대를 조직하는데 있었다. 우리 사회주의국가의 직능도 이에 적응하게 개변되였다. 착취제도가 청산되였고 착취자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진압해야 할 대상이 없어졌기때문에 국내에서의 군사적진압의 직능은 없어지고 조락되였다. 국가의 진압의 직능은 인민의 재부의 횡령과 도적으로부터 사회주의적소유물을 보호하는 직능으로 바뀌여졌다.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군사적으로 보위하는 직능은 전적으로 보존되였다. 그리하여 붉은 군대와 해군이 보존되였으며 외국정찰기관에서 우리 나라에 파견하는 간첩, 살인배, 암해분자들을 잡아내고 처벌하는데 필요한 징벌기관과 정찰기관이 보존된것이다. 국가기관의 경제조직사업과 문화교양사업의 직능이 보존되였으며 또한 충분하게 발전되였다. 지금 국내에서의 우리 국가의 기본임무는 평화적인 경제조직사업과 문화교양사업을 진행하는데 있다. 우리 군대, 징벌기관 및 정찰기관에 대하여 말하면 벌써 그의 예봉은 국내에 향한것이 아니라 외부에, 외계의 적들을 반대하는데 돌려지고있는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력사상에서 아직 보지 못하였으며 그 형태와 직능으로 보아 사회주의 첫단계의 국가보다 훨씬 다른 전혀 새로운 사회주의국가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발전은 여기에서 정지될수 없다. 우리는 계속하여 앞으로, 공산주의에로 향하여나아가고있다. 공산주의시대에 가서도 역시 우리에게 국가가 보존되겠는가?

그렇다, 만일 자본주의적포위가 청산되지 않고, 만일 외계의 군사적침공의 위험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물론 국가는 보존될것이다. 이에 있어서 내부적 및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국가의 형태가 다시 변경될것은 명백한 일이다.

아니다. 만일 자본주의적포위가 청산되여 그것이 사회주의적포위로 바뀌여진다면 물론 국가는 보존되지 않고 사멸할것이다.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문제는 이러하다.

둘째 문제는 쏘베트지식인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도 역시 국가에 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당내에 일부 불명확한 리해와 혼란이 있다.

쏘베트지식인문제에 대한 당의 립장이 완전히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내에는 지금도 여전히 당의 립장과 량립할수 없는, 쏘베트지식인을 적대시하는 견해가 류행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이러한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쏘베트지식인을 로동계급이나 농민과는 인연이 없으며 지어는 적대되는 력량으로 간주하면서 그들을 멸시하며 모욕하고있다. 사실 지식인은 쏘베트의 발전기간에 그 성분으로나 그 처지에서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인민들에게 접근하고 그들과 같이 성실하게 일하는것으로써 낡은 자산계급지식인과 원칙적으로 구별되는것이다. 그런데 이 동지들은 보건대 이러한 변화를 도무지 보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들은 지식인이 지주와 자본가들에게 복무하던 낡은 시대에 형성된 견해와 태도로 쏘베트지식인을 옳지 않게 대하면서 낡은 피리를 계속 불고있다.

그전, 혁명전시기인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는 지식인이 우선 유산계급들인 귀족, 기업가, 상인, 부농 및 기타 계급의 출신으로 형성되였었다. 지식인대렬에는 또한 소시민과 소관리 출신, 지어는 농민과 로동자의 출신도 있었으나 그들은 거

기에서 결정적역할을 놀지 못하였으며 또 놀수도 없었다. 그 당시의 지식인들은 대체로 유산계급에 의하여 부양되였으며 그들에게 봉사하였다. 그러므로 그때에 우리 나라의 혁명분자들, 누구보다도 먼저 로동자들이 지식인에 대하여 불신임, 지어는 흔히 증오를 품은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물론 낡은 지식인들속에서도 로동계급의 립장에 서서 자신의 운명을 끝까지 로동계급의 운명과 련결시킨 개별적인 지어는 수십명의 용감한 혁명가들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때 지식인중에는 너무나 적었던때문에 그들은 전반 지식인들의 면모를 개변시킬수 없었다.

그러나 10월혁명이후, 외국무력간섭이 격파된후, 특히는 공업화와 집단화가 승리한후에 착취가 근절되고 사회주의적경제체계가 확립되여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고 그것을 실시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이 나라에 조성된 때에 와서는 지식인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가장 영향력이 크고 기술에 제일 능숙한 일부 낡은 지식인은 벌써 10월혁명초기에 지식인대중으로부터 떨어져나가 쏘베트정권을 반대하였으며 태업을 단행하였다. 그들은 이 대가로 받아야 할 징벌을 받았으며 쏘베트정권기관들에 의하여 격멸되였고 소탕되였다. 그후 그들중에서 살아남은 지식인중의 대다수는 압해분자, 간첩으로서 우리의 적들에게 정모되였으며 그 결과 자기자신을 지식인대오에서 제거하였다. 그러나 기능이 약하고 그 수가 많은 다른 일부 낡은 지식인들은 《좋은 시절》을 기다리면서 오래동안 제자리를 계속 지켜오다가 그후 어찌할수 없어 사무원으로 되여 쏘베트정권하에서 화목하게 살기로 작정하였다. 이 부류에 속하는 낡은 지식인의 대다수는 벌써 로쇠하였으며 사업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낡은 지식인의 세번째 부류는 주로 하층지식인이며 두번째 부류의 지식인보다 기능이 더 못한 지식인

들인데 그들은 인민에 접근하였으며 쏘베트정권을 옹호하였다. 그들은 더 배워야 하였으며 실지 그들은 우리의 대학들에서 학습을 끝마쳤다. 그런데 낡은 지식인의 이 고통스러운 분화 및 와해 과정과 병행하여 새로운 지식인의 력량이 형성되고 동원되며 집결되는 과정이 급격히 진행되였다. 로동계급, 농민, 근로지식인의 대렬에서 나온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대학과 전문학교에 들어갔으며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줄어든 지식분자의 대렬을 보충하였다. 그들은 지식인들의 대렬에 새로운 피를 넣어주어 새로운 방식, 쏘베트적방식으로 활기를 부여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지식인들의 전 면모를 근본적으로 개변시켰다. 남은 낡은 지식인들은 새로운, 쏘베트적, 인민적 지식인대렬속에 용해되였다. 그리하여 인민과 밀접히 련결되였고 그 절대다수가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할것을 각오한 새로운, 쏘베트적지식인이 형성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나라에는 그 구성에서나 사회정치적 면모에서 낡은 자산계급지식인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수많은 새로운, 인민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지식인들을 가지게 되였다.

지식인을 믿지 않으며 그와 투쟁하여야 한다는 낡은 리론은 지주와 자본가에게 복무하던 낡은 지식인에 대해서는 가장 알맞는 리론이였다. 지금에 와서는 벌써 이 리론이 낡아빠졌으며 우리의 새로운 쏘베트적지식인에게는 맞지 않게 되였다. 새로운 지식인에게는 그를 친근하게 대해주고 그에게 배려를 돌리며 그를 존경하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리익을 위하여 그와 협력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리론이 필요하다.

이만하면 명백해진것 같다.

지식인의 처지가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이후에도 우리 당내에 아직까지 자산계급지식인에 대한 낡은 리론을 기

본적으로 사회주의적지식인인 우리의 새로운 쏘베트지식인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은 더우기 놀랍고도 괴이한 일이다. 이 사람들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공장과 집단농장에서 쓰따하노브처럼 일하던 로동자와 농민들이 그후 대학에 파견되여 교육을 받게 되면 그들이 참다운 사람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제2부류의 사람으로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니 결국 교육을 받는것이 해롭고 위험한것이라는것이다.(웃음소리) 우리는 모든 로동자와 모든 농민들을 문화적이고도 교양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며 또 우리는 이 사업을 점차 진행할것이다. 그러나 이 괴이한 동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와 같은 우리의 계획은 그자체내에 커다란 위험을 내포하고있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로동자와 농민들이 문화적이고 지식있는 사람으로 되기만 하면 그들은 제2부류 사람의 대렬에 들어설 위험이 있기때문이다.(만장의 웃음소리) 잘못하면 이 괴이한 동무들은 앞으로 락후, 몽매, 무지, 우매를 찬양하는데까지 이를수 있을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리론적탈선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고 또 가져올수도 없는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사회주의적지식인에 대한 문제는 이러하다.

* *
*

당을 더욱 강화하는 분야에서의 우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원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며 고험을 거쳤고 공산주의 위업에 충실한 동지들을 개별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으로 당에 받아들이면서 당의 성분을 부단히 개선할것.

2. 지도기관들을 하부사업에 더욱 접근시킴으로써 그들의 지도사업이 더욱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되게 하며

회의를 점차 줄이고 사무를 더욱 간소화할것.

3. 간부선발사업을 집중시키며 간부의 육성에 관심을 돌리여 일군들의 우점과 결함을 상세히 연구하며 젊은 일군들을 대담하게 등용하며 간부들의 선발, 배치 사업을 당의 정치로선의 요구에 적응되게 할것.

4. 당의 선전선동사업을 집중시키며 맑스-레닌주의사상을 널리 선전하며 우리 간부들의 리론수준을 높이며 정치적단련을 강화할것.

《레닌주의 제 문제》,
한문판, 690~709페지

방 송 연 설

(1941년 7월 3일)

동지들! 공민들!
형제자매들!
우리의 륙해군전사들!
나의 벗들, 이제부터 나는 당신들앞에서 연설을 하겠다!

히틀러독일이 6월 22일부터 우리 조국을 반대하여 발동한 배신적군사진공은 계속되고있다. 붉은군대가 영용히 저항하고 적들의 정예사단과 정예공군부대가 이미 격파되여 싸움터에 매장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또 새로운 병력을 전선에 투입하여 계속 앞으로 쳐들어오고있다. 히틀러군대는 리뜨와의 전 경내와 라뜨위야의 대부분 지역, 백로씨야의 서부지역, 서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들을 강점하였다. 파쑈공군부대는 저들의 폭격구역을 확대하여 무르만스크, 오르샤, 모길료브, 스몰렌스크, 끼예브, 오데싸, 쎄와스또뽈 등 도시들을 제멋대로 폭격하고있다. 우리 조국은 엄중한 위험에 직면하고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붉은군대는 어찌하여 파쑈군대가 우리의 일부 도시와 지역들을 점령하게 하였는가? 그래 독일의 파쑈군대가 참으로 나발불기 좋아하는 파쑈선동가들이 끊임없이 불어대는것과 같이 무적의 군대란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력사가 보여주다싶이 무적의 군대란

지금도 없거니와 옛날에도 없었다. 나뽈레옹의 군대는 한때 무적의 군대로 인정되여왔으나 선후하여 로씨야군대와 영국군대와 독일군대에게 격파되였다. 제1차제국주의전쟁시기에 윌헬름의 독일군대도 무적의 군대로 인정되였었지만 이 군대도 로씨야군대와 영국-프랑스군대에게 수차 패배당하였으며 나중에는 영국-프랑스군대에게 격파되고말았다. 오늘의 히틀러독일파쑈군대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이 군대는 구라파대륙에서 아직까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적이 없다. 그들은 오직 우리 나라 령토에서만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것이다. 이런 저항으로 하여 독일파쑈군대의 정예사단이 우리 붉은군대에게 격파되였다는 이 사실은 나뽈레옹의 군대와 윌헬름의 군대가 격파된것처럼 히틀러파쑈군대도 격파될수 있으며 또 꼭 격파되고야말리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의 일부 령토가 독일파쑈군대에게 강점당하게 된것은 주로 파쑈독일의 반쏘전쟁이 독일군대에게 유리하고 쏘련군대에게 불리한 형편에서 발발되였기때문인것이다. 문제는 독일군대는 전쟁을 하고있는 나라의 군대로서 모조리 충분히 동원되여있었고 쏘련을 진공하기 위하여 쏘련변경에 집결된 170개 사단이 완전히 전시태세를 취하고서 진공신호가 내리기만 기다리고있었으나 쏘련군대는 그때 계속 충분히 동원되며 변경에 집결해야 하였다는데 있다. 여기에는 적지 않은 역할을 논 또 한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것은 파쑈독일이 침공자의 일방으로서 전 세계의 지목을 받게 될것도 꺼리지 않고 1939년에 쏘련과 체결한 상호불침범조약을 갑자기 배신적으로 파기해버린 것이다.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나라는 선참으로 조약을 파괴하려 하지 않기때문에 배신적인 길로 나갈수는 없었던 것이다.

쏘련정부는 어찌하여 히틀러나 뭡벤트로프와 같은 배신자

들이나 악마들과 상호불침범조약을 체결할수 있었는가, 쏘련정부는 이 면에서 오유를 범하지 않았는가고 질문할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물론 오유를 범하지 않았다! 상호불침범조약이란 두 나라사이의 평화조약이다. 독일은 바로 이러한 조약의 체결을 1939년에 우리에게 제기하였던것이다. 쏘련정부가 이러한 제의를 거부할수 있었는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서는 이웃나라와(그 이웃나라가 히틀러나 립벤트로프와 같은 흡혈귀들에 의하여 지배되고있다 하더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을 거부할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이 평화협정은 그것이 평화애호국가의 령토완정과 독립과 영예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필요한 조건하에서 체결된것이다. 다 알다싶이 독일과 쏘련이 체결한 상호불침범조약은 바로 이러한 조약이였다.

우리는 독일과 상호불침범조약을 체결하여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는 우리 나라에 1년 반이란 평화시기를 보장해줌으로써 파쑈독일이 감히 조약을 모험적으로 위반하고 우리 나라를 진공하는 경우에 반격을 가할 자기의 력량을 준비할 가능성을 지어주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리롭고 파쑈독일에 해로운것이였다.

파쑈독일은 배신적으로 조약을 파기하고 쏘련을 진공하여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그 결과 독일군대는 단시일내에 그 어떤 유리한 지위를 얻었으나 정치적으로는 패하였으며 자기가 피에 주린 침략자라는것을 전 세계앞에 드러내놓았다. 독일이 군사면에서 얻은 일시적인 리득은 우연한 요인에 지나지 않으나 쏘련이 정치면에서 얻은 거대한 리득은 중요하고도 장구적인 요인으로 되고있느니만큼 이에 기초하여 파쑈독일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붉은군대의 군사적승리가 날로 확대되여갈것은 의심할것 없는것이다.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우리의 영용한 전체 륙군과 우리의 영용한 전체 해군과 우리의 수리개들인 전체 비행사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여러 민족 인민들, 구라파, 아메리카, 아세아의 모든 우수한 인사들 및 독일의 모든 우수한 인사들은 독일파시스트들의 배신행위를 규탄하며 쏘련정부를 동정하며 쏘련정부의 행동을 찬동하고있으며 또 우리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적들이 꼭 패망하고 우리가 꼭 승리하리라는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우리들에게 강요된 전쟁으로 하여 가장 흉악하고 음험한 적인 독일파쑈주의와 결사적으로 싸우게 되였다. 우리 군대는 땅크와 비행기로 이발까지 무장한 적들과 영용하게 싸우고있다. 붉은군대와 붉은 해군은 첩첩한 곤난을 물리치면서 매 한치의 쏘련국토를 보위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싸우고있다. 수천대의 땅크와 수천대의 비행기를 가지고있는 붉은 군대의 주력이 전투에 뛰여들고있다. 붉은군대전사들의 용감성은 류례없는것이다. 적들에 대한 우리의 항격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전체 쏘련인민이 붉은군대와 함께 일떠나 조국을 보위하고있다.

우리 조국이 직면하고있는 위험을 물리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적을 쳐부시기 위하여서는 어떤 대책들을 취하여야 하는가?

무엇보다도먼저 우리 쏘련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를 위협하는 위험의 엄중성을 리해하고 태연자약한 심리상태와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는 심리상태를 단호히 극복하며 전쟁전에는 완전히 리해할수 있는것이였으나 전쟁으로 하여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금에 있어서는 매우 해로운 평화건설의 기분을 일소하게 하여야 한다. 적은 잔인하고도 무자비하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자기 땀으로 가꾸어온 땅을 빼앗고 우

리가 자기 로동으로 바꾸어온 곡물과 석유를 략탈하려는데 있다. 그들의 목적은 지주정권과 짜리제도를 회복하고 로씨야인, 우크라이나인, 백로씨야인, 리뜨와인, 라뜨위야인, 에스또니야인, 우즈베크인, 따따르인, 몰다위야인, 그루지야인, 아르메니야인, 아제르바이쟌인 및 쏘련의 기타 자유로운 민족들의 민족문화와 국가제도를 유린하고 그들을 독일화하며 그들을 독일의 왕공귀족들의 노예로 만들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쏘베트국가의 생사존망에 관계되는 문제이며 쏘련의 여러 민족 인민들의 생사존망에 관계되는 문제이며 쏘련의 여러 민족 인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노예로 전락되는가 하는데 관계되는 문제이다. 쏘련사람들이 이 점을 깨닫고 더는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지 않게 하며 그들전체가 일떠나 자기의 모든 사업을 새로운 전시궤도에 들어서게 하며 적에게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는 기개를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의 대렬내에 불만분자, 겁쟁이, 경황망조한 자들과 도주병들이 붙어있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우리의 사람들이 투쟁에서 두려움모르는 정신을 발양하고 파쑈예속자들을 반대하는 우리의 조국보위전쟁에 서슴없이 뛰여들게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창건자인 위대한 레닌은 투쟁에서 용감하고 대담하고 두려움을 모르며 인민들과 함께 우리 조국을 반대하는 적과 싸울 결심을 가지는것이 우리 쏘련사람들의 기본품성으로 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볼쉐위크의 이런 우수한 품성이 수백만 붉은군대와 붉은 해군 및 쏘련의 여러 민족 인민들의 미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즉시 우리의 모든 사업을 전시궤도에 돌려세움으로써 모든것이 전선의 리익과 적을 분쇄하기 위한 조직적과업에 복종되게 하여야 한다. 지금 쏘련의 여러 민족 인민은 독

일파쏘주의가 전체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로동과 보람찬 생활을 보장해주고있는 우리 조국에 대하여 이발을 갈며 극도로 증오하고있다는것을 보고있다. 쏘련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적을 반대하고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국토를 보위하기 위하여 일떠나야 한다.

붉은군대와 붉은 해군과 쏘련의 전체 공민은 쏘련의 국토를 한치도 빠짐없이 수호하여야 하며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을 보위하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싸워야 하며 우리 나라 인민들에게 고유한 용감성과 주동성과 민활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는 붉은군대에 대한 전면적원호사업을 조직하고 힘이 자라는데까지 그 대오를 보충하며 그들에게 일체 필수품공급을 보장해주며 군대와 군수품을 신속히 수송하며 부상자들을 광범히 구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붉은군대의 후방을 공고히 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이 위업의 리익에 복종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기업소들에서 일을 다그쳐 보총, 기관총, 대포, 탄알, 포탄, 비행기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며 공장과 발전소, 전화 및 전신시설에 대한 보위사업을 조직하며 지방의 방공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후방을 소란하는 분자, 도주병, 경황망조하는자들 및 요언날조분자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고 간첩과 파괴분자와 적의 락하산병들을 소멸하여야 하며 이런 면에서 우리의 간세숙청부대를 제때에 협조하여야 한다. 원쑤들은 음험하고 교활하며 기만과 날조에 이골이 났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미리 예견함으로써 적들의 도발책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경황망조와 비겁때문에 방무자업에 해를 끼친자는 그가 누구든간에 즉시 군사재판에 넘겨야 한다.

붉은군대의 부대가 퇴각하지 않을수 없는 경우에는 철도

의 교통수단들을 몽땅 가지고 감으로써 적에게 기관차 한대, 차량 하나도 남겨주지 말며 량곡 한키로, 석유 한리터도 남겨 놓지 말아야 한다. 집단농장의 농장원들은 일체 가축을 몽땅 몰고가야 하며 곡물은 후방으로 옮겨가는데 편토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넘겨 보관시켜야 한다. 유색금속, 량곡, 연료 등을 포함하여 운반해갈수 없는 일체 귀중한 물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없애버려야 한다.

적들의 강점구에서는 기병과 보병, 유격대를 건립하고 파괴소조를 조직하여 적군부대와 싸우며 도처에 유격전쟁의 횃불을 지피며 다리와 길을 폭파하고 전화 및 전신시설을 파괴하며 산림과 창고와 군수품을 불살라버려야 한다. 강점자의 통치구역에서는 적들과 그의 모든 앞잡이들이 배겨나지 못하게 하며 일보일보 그들을 추격하고 소멸하며 그들의 일체 활동을 파괴하여야 한다.

파쑈독일과의 전쟁은 결코 보통전쟁으로 볼수 없다. 이 전쟁은 다만 두 나라 군대사이의 전쟁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독일파쑈군대를 반대하는 전체 쏘련인민의 위대한 전쟁이다. 파쑈압박자를 반대하는 전인민적조국보위전쟁의 목적은 우리 나라가 직면하고있는 위험을 제거하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독일파쑈주의기반밑에서 신음하고있는 구라파의 여러 나라 인민들을 도와주려는데 있다. 이 해방전쟁에서 우리는 고립되여있지 않다. 이 위대한 전쟁에서 히틀러위정자들에게 예속되고있는 독일인민을 포함한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우리의 믿음직한 동맹자로 될것이다. 우리 조국의 자유를 보위하기 위하여 진행하고있는 우리의 이 전쟁은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의 독립과 민주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합류될것이다. 이것은 자유를 쟁취하고 히틀러파쑈군대의 예속과 그 위협을 반대하기 위한

여러 나라 인민들의 통일전선으로 될것이다. 쏘련을 지원할데 관한 영국수상 처칠씨의 력사적연설과 우리 나라를 원조하려는 미국정부의 선언이 이 문제의 아주 명확한 실례로 된다. 그러니 쏘련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이에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릴뿐이다.

동지들! 우리의 힘은 무궁무진한것이다. 우쭐대는 적들은 미구에 반드시 이 점을 확신하게 될것이다. 수천수만의 로동자와 집단농장의 농장원들과 지식인들이 떨쳐나서서 붉은군대와 함께 우리 나라에 침입한 적들과 싸우고있다. 우리 나라의 수백만 인민대중이 일떠나 싸울것이다.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의 근로자들은 붉은군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천만의 민병대오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독일파쑈주의를 반대하는 우리의 조국보위전쟁에서 우리는 적들이 침입할 위험이 있는 도시들마다에서 이런 민병대오를 조직하고 전체 근로자들을 투쟁에로 궐기시킴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자유와 영예, 자기의 조국을 목숨으로 지켜내도록 하여야 한다.

쏘련의 여러 민족 인민들의 일체 력량을 신속히 동원하여 우리 조국을 배신적으로 침범하는 적을 항격하기 위하여 이미 국방위원회가 수립되였는데 이 국방위원회는 지금 국가의 전체 권력을 자기의 수중에 집중시키고있다. 이미 사업에 착수한 국방위원회는 전국인민들에게 레닌-쓰딸린당의 두리에 뭉치고 쏘련정부의 두리에 뭉쳐 붉은군대와 붉은 해군을 자아희생적정신으로 지원함으로써 적을 분쇄하고 승리를 쟁취할것을 호소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힘으로 우리의 용감한 붉은군대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붉은 해군을 지원하라!

인민의 모든 힘으로 원쑤를 무찌르라!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

《쓰딸린선문집》, 한문판, 262～268페지

국방인민위원의 명령

(제55호. 1942년 2월 23일 모스크바)

붉은 육군과 붉은 해군의 전사, 지휘원, 정치일군 그리고 남녀유격대원동지들!

우리 나라 여러 민족 인민은 우리 조국의 생존과 자유를 비렬하고 몰렴치하게 침해하고있는 파쑈독일을 반대하는 조국 보위전쟁의 준엄한 나날에 붉은군대창건 24돐을 경축하고있다. 북빙양으로부터 흑해에 이르기까지의 광활한 전선에서 붉은 육군과 붉은 해군의 전사들은 독일파쑈침략자를 우리 나라에서 몰아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하여 치렬한 전투를 하고있다.

붉은군대가 원쑤들의 침략에 항거하여 조국을 보위해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4년전에 붉은군대는 그 당시 우리 나라를 분할하며 우리 나라로 하여금 독립을 잃게 하려고 한 외국무력간섭자들의 침략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창건되였다. 처음으로 전쟁에 참가한 청소한 붉은군대는 1918년 2월 23일에 프스꼬브와 나르와 근방에서 독일침략자들을 여지없이 격파하였다. 그리하여 1918년 2월 23일은 붉은군대탄생일로 선포되였다. 그때로부터 붉은군대는 외국무력간섭자들과의 투쟁속에서 성장하고 장대하여졌다. 붉은군대는 1918년에 독일침략자들과의 전투에서 놈들을 우크라이나와 백로씨야에서 몰아내고 우리 조국을 고수하였다. 붉은군대는 1919～1921년에

협약국군대와의 전투에서 그들을 우리 나라의 경내에서 몰아내고 우리 조국을 고수하였다.

국내전쟁에서 외국무력간섭자들을 격파한 사실은 쏘련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장구한 평화와 평화적건설의 가능성을 보장하여주었다. 이 20년동안의 평화적건설시기에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공업과 집단농업을 건립하였으며 과학과 문화를 번영시켰으며 우리 나라 여러 민족 인민의 친선관계를 튼튼히 하였다. 그러나 쏘련인민은 적이 우리 조국을 또다시 진공할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언제든지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공업과 농업, 과학과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쏘련의 군사실력도 장성하였다. 남의 나라를 침범하기를 즐기는 일부 사람들은 벌써 이 위력을 직접 체험하였다. 한때 거만을 부리던 독일파쑈군대도 지금 이 위력을 체험하고있다.

8개월전, 파쑈독일은 횡포하고 파렴치하게도 호상불침범조약을 파기하고 배신적으로 우리 나라를 침범하였다. 적들은 붉은군대가 첫타격에 격파되여 저항력을 잃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너무나 오산하였다. 그들은 붉은군대의 력량을 타산하지 못하였으며 쏘련의 후방의 견고성을 타산하지 못하였으며 승리를 전취하려는 우리 나라 여러 민족 인민의 의지를 타산하지 못하였으며 파쑈독일의 구라파후방이 안전하지 못함을 타산하지 못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파쑈독일과 그 군대의 내부적약점을 타산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전쟁의 첫 몇달동안에 붉은군대는 독일파쑈의 불의의 돌연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할수없이 일부의 쏘련령토를 내놓고 퇴각하였다. 그러나 붉은군대는 퇴각하면서도 적의 병력을 소모해버리고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붉은군대의 전사이거나 우리 나라 여러 민족의 인민이거나 할것없이 그들은 이 퇴각이 일시적이며 적들이 앞으로 꼭 저지될것이며 나아가서

는 격멸되고야말것이라는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전쟁행정에서 붉은군대는 부단히 새 력량을 흡수하고 인원과 기술장비를 보충하였으며 새 예비사단의 원조를 받았던것이다. 이리하여 붉은군대가 광활한 전선의 중요한 지대들에서 진격에로 넘어갈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였다. 짧은 기간에 붉은군대는 돈강연안의 로스또브와 쩌호윈 부근에서, 크림과 모스크바 부근에서 독일파쑈군대에 거듭되는 타격을 주었다. 모스크바부근격전에서 붉은군대는 독일파쑈군대를 격파함으로써 수도를 적들의 포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 붉은군대는 모스크바부근의 적들을 격퇴하고 적들을 계속 서쪽으로 퇴각하게 핍박하였다. 모스크바주와 뚤라주의 전부 그리고 일시 적에게 점령되였던 기타 주의 수십개의 도시와 수백개의 농촌은 이미 독일침략자의 발밑으로부터 해방되였다.

지금 독일군대는 배신적으로 돌연적진공을 하던 전쟁의 첫 몇달동안에서처럼 그런 군사적우세를 가지고있지 못하다. 독일파쑈군대의 잠재적힘으로 되고있던 돌연성과 의외성의 요인은 이미 완전히 없어지고말았다. 따라서 독일파쑈들의 돌연적진공으로 말미암아 조성되였던 전쟁조건의 불균등상태도 없어지고말았다. 이제는 전쟁의 운명이 돌연성이란 이 부대적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게 될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요인—후방의 견고성, 군대의 사기, 사단의 수효와 질, 군대의 장비, 군대지휘원의 조직능력 등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였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여야 할것은 돌연성의 요인이 독일파쑈군대의 무기고에서 사라지자 이 군대는 당장 멸망하게 되였다는 그것이다.

독일파쑈분자들은 그들의 군대야말로 무적의 군대라고 여기면서 전쟁에서 1 대 1로 싸우면 두말할것없이 붉은군대를 격파할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지금 붉은군대는 독일파쑈군대와 1

대 1로 작전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 독일파쑈군대는 또 이딸리아, 로므니아, 핀란드의 군대로부터 전선에서 직접적인 원조를 받고있다. 붉은군대에게는 일시적으로 아직 이런 원조가 없다. 그러나 결과는 한때 거만을 부리던 독일군대가 패배를 당하고있으며 붉은군대가 중대한 승리를 거두고있다. 독일군대는 붉은군대의 강대한 타격을 받아 서쪽으로 도망하고있으며 인원과 기술장비에서 커다란 손실을 보았다. 놈들은 멸망의 기일을 연기하여보려고 걸음마다 완강히 저항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허사로 돌아갈것이다. 지금 주도권은 이미 우리 군대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으므로 히틀러의 독이 끼고 나사가 풀린 이 기계가 제아무리 단말마적발악을 한다 하더라도 붉은군대의 압력을 당해내지 못하게 되였다. 멀지 않아 붉은군대는 강대한 타격으로 레닌그라드부근의 야수같은 적들을 몰아내고 백로씨야와 우크라이나, 리뜨와와 라뜨위야, 에스또니야와 까렐리야의 도시와 마을에 있는 적들을 소멸해버리고 쏘베트의 크림을 해방할것이다. 그때에는 붉은기발이 다시 온 쏘련땅에서 승리적으로 휘날릴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미 얻은 승리에 만족하여 이제는 독일군대를 걱정할것 없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용서할수 없는 근시안적 표현이며 쏘련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될 허위적자랑과 교만인 것이다. 우리앞에는 아직도 난관이 많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적들이 비록 패배를 당하고있지만 아직 격파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멸망되지 않았다. 적들은 아직도 강대하다. 그들은 승리를 얻으려고 최후의 력량을 다할것이다. 뿐만아니라 적들은 패배를 당할수록 더 흉악해질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전선지원을 위한 후비력량훈련사업을 일분간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야수같은 원쑤들을 타격하며 승리를 전취하기 위하여 새 부대를 끊임없이 전선에 내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공업, 특히는 군수공업이 2배의 정력으로 생산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선에서 땅크, 비행기, 대포, 박격포, 기관총, 보총, 자동총과 탄약을 날이 갈수록 더 많이 공급받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붉은군대의 력량과 위력의 주요한 원천의 하나이다.

그러나 붉은군대의 력량이 여기에만 있는것은 아니다.

붉은군대의 력량은 무엇보다도 그가 침략적, 제국주의적 전쟁을 진행하고있는것이 아니라 해방적, 정의적 보위전쟁을 진행하고있는데 있다. 붉은군대의 임무는 독일침략자들에게 강점된 쏘련령토를 해방하는것이며 전쟁전에는 자유롭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있었으나 지금은 압박받고 략탈과 파산과 추위에 시달리고있는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의 공민들을 독일침략자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것이다. 붉은군대는 또 독일파쑈악마들이 가하는 수치와 륭욕으로부터 우리 나라의 녀성들을 해방하여야 한다. 이런 임무와 비길 더 고상하고 더 영광스러운 임무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자기들은 정의의 전쟁을 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는 독일병은 하나도 없다. 왜냐 하면 그들은 타민족을 략탈, 억압하기 위한 전쟁에 꿰박되였다는것을 보지 않을수 없게 되였기때문이다. 독일병사한테는 그를 고무해주고 긍지감을 가지게 할수 있는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전쟁목적이 없다. 그와 반대로 붉은군대의 어떠한 전사나 다 그는 정의적인 해방전쟁을 하고있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있다고 자랑스레 말할수 있다. 붉은군대에는 공훈을 세우도록 그들을 고무해주는 고상하고 공고한 전쟁목적이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국보위전쟁에서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싸운 수천만명의 영웅들이 용솟음쳐나온것이다.

여기에 붉은군대의 위력이 있는것이다.

또 여기에 독일파쑈군대의 약점이 있는것이다.

붉은군대의 목적은 독일인민을 소멸하고 독일국가를 없애기 위한것이라고 간혹 외국출판물들은 지껄이고있다. 이것은 물론 미욱한 잡소리며 붉은군대에 대한 졸렬한 훼방이다. 붉은군대에는 이따위 미련한 목적이 있을수 없다. 붉은군대의 목적은 우리 나라에서 독일강점자들을 몰아내고 독일파쑈침략자의 수중에서 쏘련령토를 해방하는것이다. 쏘련령토를 해방하는 전쟁은 히틀러도당의 구축 또는 소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결말을 환영하는것이다. 그러나 히틀러도당을 독일인민과 또 독일국가와 동일시하는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히틀러도당들은 정권을 잡았다가 나떨어질수 있지만 독일인민과 독일국가는 그냥 존재하게 된다는것을 력사의 경험은 말하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 붉은군대의 위력은 붉은군대가 독일인민도 포함하여 타국인민에 대하여 인종적차별시를 하지 않으며 또 할수도 없다는데 있으며 붉은군대가 각 민족과 인종의 평등권의 정신으로, 타국인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신으로 교양된데 있는것이다. 독일인들의 인종론과 인종적차별시의 실천은 모든 자유애호인민을 파쑈독일의 적으로 되게 하였다. 쏘련의 인종평등론과 타국인민을 존중하는 실천은 모든 자유애호인민을 쏘련의 벗으로 되게 하였다.

여기에 붉은군대의 력량이 있는것이다.

또 여기에 독일파쑈군대의 약점이 있는것이다.

쏘련사람들은 독일인을 독일인이라 하여 다 미워하며 붉은군대는 독일의 모든것을 다 증오하기때문에 독일병사를 독일인이라 하여 소멸하며 또 그때문에 독일병사를 붙잡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외국출판물들은 간혹 허튼소리를 치고있다.

이것도 역시 미욱한 잡소리이며 붉은군대에 대한 졸렬한 훼방이다. 붉은군대에는 인종적차별시가 없다. 붉은군대는 인종평등의 정신으로와 타국인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신으로 교양되였기때문에 그런 비렬한 감정을 가지고있지 않다. 이외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인종적기시의 발현을 법률로 제재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독일파쑈강점자들이 우리 조국을 예속하려는 이상, 그들이 우리 군에게 포위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바치고 투항하려 하지 않는 한 붉은군대는 그들을 소멸해버릴밖에 없다. 붉은군대는 그들을 독일인이라 하여 소멸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조국을 예속하려 하기때문에 소멸하는것이다. 붉은군대도 다른 어떠한 민족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국을 예속하려는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어느 민족에 속하든지를 불문하고 소멸해버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 얼마전에 깔리닌, 클린, 쑤히니치, 안들레아뽈과 또로뻬쯔 등 도시들에서 독일수비군이 우리 군에게 포위되였을 때 우리 군은 그들에게 투항하라고 권고하였으며 또 투항할 경우에 그들의 생명을 보전해줄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독일수비군은 무기를 바치고 투항하기를 거절하였다. 물론 무력으로 그들을 몰아내는수밖에 없었으므로 적지 않은 독일병사가 총에 맞아죽었다. 전쟁은 어디까지나 전쟁이다. 만일 독일군장병들이 투항을 원한다면 붉은군대는 그들을 포로로 접수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전해줄것이다. 그러나 만일 독일군장병들이 투항을 거절하고 그냥 무기를 잡고 우리 나라를 예속하려 든다면 붉은군대는 그들을 소멸할밖에 없다. 《원쑤가 투항하지 않으면 그를 없애버리라》①고 한 로씨야의 위대한 작가 막씸 고리끼의 말을 회상

① 쎔.고리끼의 이 명언은 그가 1930년 11월 15일 《쁘라우다》지에 발표한 론문의 표제이다.(《고리끼저작선집》, 1954년 인민문학출판사판, 제125～128페지를 보라.)—편집자

하라.

붉은 육군과 붉은 해군의 전사, 지휘원, 정치일군 그리고 남녀유격대원동지들! 나는 붉은군대창건 24돐에 즈음하여 당신들에게 축하를 보내는바이다! 여러분이 독일파쇼침략자들을 철저히 타승하기를 바란다!

붉은 육군과 붉은 해군 만세!

남녀유격대원 만세!

우리의 영광스러운 조국,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 만세!

우리를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볼쉐위크당 만세!

위대한 레닌의 불패의 기치 만세!

레닌의 기치하에서 독일파쇼침략자들을 소멸하기 위하여 앞으로!

국방인민위원 이.쓰딸린

《쓰딸린선문집》, 한문판,
289～294페지

모스크바시 쓰딸린선거구선거자들의 선거전 대회에서 한 연설

(1946년 2월 9일)

의장:

이오씨프 위씨리오노위치 **쓰딸린**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쓰딸린동지가 연단에 오르자 선거자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낸다. 환호소리는 몇분동안 계속된다. 대극장안의 회의참가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쓰딸린동지를 축하한다. 회의장으로부터 《위대한 쓰딸린 우라!》《위대한 쓰딸린 만세, 우라!》《친애하는 쓰딸린 우라!》의 환호소리가 련달아 울린다.)

쓰딸린동지:

동지들! 전번 최고쏘베트의 선거가 있은 그때로부터 8년이 지나갔다. 이 시기는 결정적성격을 띤 사변들로 충만된 시기였다. 첫 4년은 제3차5개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쏘련인민의 긴장한 사업속에서 지나갔다. 그후의 4년은 독일 및 일본 침략자들과의 전쟁사변—제2차세계대전의 사변을 포괄하고있다. 의심할바없이 전쟁은 지난 시기에 있어서의 주요한 사변이였다.

제2차세계대전을 우연히 발생한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일부 국가지도자들의 과오의 결과—물론 과오가 있은것이지만

—로 인하여 발생한것으로 생각하는것은 옳지 못하다. 사실에 있어서 이번 전쟁은 현대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한 세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세력발전의 불가피적결과로서 발생한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세계경제체계가 전반적위기와 군사적충돌의 요소를 내포하고있으며 따라서 현대에 자본주의의 발전은 순조롭고 균등적인 전진운동의 형식으로가 아니라 위기와 전쟁의 재난을 통하여 진행된다고 한두번만 언명하지 않았다. 문제는 자본주의국가들의 발전의 불균등성이 통례로 일정한 시기를 지나서 세계자본주의체계내의 균등을 급격히 파괴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에게 원료산지와 판매시장이 충분히 보장되여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국가들이 통례로 무력적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현상태를 변경하며 《세력범위》를 재분할하려고 시도하고있는데 있다. 그 결과로 자본주의세계는 두개의 적대되는 진영으로 분렬되고 량자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는것이다.

만일 국가들간에 평화적협상의 방법으로 그들의 경제적실력에 따라 원료산지와 판매시장을 정기적으로 재분할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면 혹시 전쟁의 재난을 면할수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세계경제발전의 현 자본주의적조건하에서는 이것을 실현할수 없는것이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적세계경제체계의 첫위기의 결과로 제1차세계대전이 발생하였고 제2차위기의 결과로 제2차세계대전이 발생하였다.

이렇다고 해서 물론 제2차세계대전이 제1차세계대전과 완전히 같다는것은 아니다. 그와 반대로 제2차세계대전은 그 성격으로 보아 제1차세계대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념두에 두어야 할것은, 주요한 파쑈국가들인 독일, 일본, 이딸리아는 련합국들을 침공하기전에 자국내에서 자산계급민주주의적자유

의 마지막잔재마저 숙청하여버리고 자국내에 잔혹한 테로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여러 약소국의 자주권 및 자유발전의 원칙을 유린하였으며 타국의 령토를 강점하는 정책을 자기 나라의 정책으로 선포하였으며 또 그들은 세계적패권과 전 세계에 걸친 파쑈제도의 전파를 공공연하게 성명하였으며 그리고 추축국들은 체스꼬슬로벤스꼬와 중국중부지역을 점령함으로써 그들이 모든 자유애호민족을 예속하려는 저들의 위협을 실현할 결심을 보여준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추축국들을 반대하는 제2차세계대전은 제1차세계대전과는 달리 최초부터 반파쑈적, 해방적 전쟁의 성격을 띠였으며 민주주의적자유를 되살리는것도 또한 이 전쟁의 과업의 하나로 되였던것이다. 쏘련이 추축국들을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한것은 오직 제2차세계대전의 반파쑈적해방적성격을 강화시킬수 있었을뿐이며 또 확실히 강화시켰다.

이 토대우에서 쏘련, 미국, 영국 및 기타 자유애호국가들의 반파쑈련맹이 형성되였으며 이 련맹은 그후 추축국들의 무력을 분쇄하는 면에서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문제는 이러하다.

이번 전쟁은 확실히 각국인민의 생활에서 우연한것이 아니였으며 또 그렇게 될수 없었다는것, 사실에 있어서 이 전쟁은 각국 인민이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진행한 전쟁으로 되였다는것, 또 그때문에 이 전쟁은 속결적이고 전격적인 전쟁으로 될수 없었다는것을 아마 지금은 누구나 시인하고있을것이다.

우리 나라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번 전쟁은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어려운 전쟁이였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다만 저주롭기만 한것이 아니였다. 전쟁은 그와 동시에 인민의 총력량을 시험하고 검열하는 위대한 학교였다. 전쟁은 후방과 전선에서 생기는 온갖 진상과 사변을 숨김없이 발로하였으며 전쟁은 모든 국가, 정부, 당들의

진면모를 가리워놓았던 온갖 엄폐물을 무자비하게 벗겨버렸으며 그들을 아무런 가면과 분장이 없이 있는 장점과 단점 그대로 무대에 등장시켰다. 전쟁은 우리 쏘베트제도, 우리 국가, 우리 정부, 우리 공산당에 대하여 시험을 치르는것과 같았으며 또 그들의 사업을 총화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듯하였다. 자, 이것이 당신네의 사람과 조직이며 그들의 사업과 활동이니, 그들을 신중히 조사해보고 그들의 사업정황에 좇아 보상을 주도록 하라고.

전쟁의 한 긍정적인 면은 여기에 있는것이다.

이 정황은 우리 선거자들에게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과 그의 사람들의 활동을 시급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옳바른 결론을 짓도록 도와주기때문이다. 다른 때 같으면 당의 대표자들의 연설과 보고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그들의 말과 행동을 대조하고 총화하는 등등의 일을 하여야 할것이다. 그러자면 복잡하고도 곤난한 사업이 필요하며 또 그러는중에 과오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담보할수 없는것이다. 전쟁이 끝났으며 전쟁자체가 우리 조직체 및 지도자들의 사업을 검열하고 총화한 지금에 와서는 정황이 다르게 되였다. 지금에는 우리가 분석과 옳바른 결론을 내리는것이 아주 쉽게 되였다.

그러면 전쟁의 총화는 어떠한가?

한가지 주요한 총화가 있는바 그 총화에 근거하여 온갖 다른 총화들이 생기였다. 이 총화란 전쟁의 종말에 적들은 패배를 당하고 우리와 우리의 동맹국들이 승리하였다는것이다. 우리는 적에 대한 완전한 승리로써 전쟁을 결속지었다.—여기에 전쟁의 가장 중요한 총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총화이므로 우리는 이것으로 그칠수 없다. 물론 제2차세계대전과 같은 전대미문의 전쟁에서 적을 패배시켰다는것

은 세계사적승리를 달성한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필경은 일반적인 총화이므로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우리 승리의 위대한 력사적의의를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이 문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적에 대한 우리의 승리를 어떻게 리해할것인가? 우리 나라 내부적힘의 상태와 발전의 견지로 보아 이 승리는 대체 무엇을 의미할수 있는가?

우리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첫째로, 우리 쏘베트사회제도가 승리하였으며 쏘베트사회제도가 전쟁의 시련을 성공적으로 이겨냈으며 자기의 충분한 생활력을 증명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외국출판물에서 어떤 사람들은, 쏘베트사회제도는 실패의 운명을 가진 《모험적실험》이며 쏘베트제도는 실생활속에 뿌리를 박지 못한, 숙반위원회기관이 인민에게 강요한 《모래우에 세운 루각》이여서 외부로부터 약간 밀기만 하여도 이 《모래우에 세운 루각》은 완전히 무너지고말것이라고 한두번만 단언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전쟁이 외국출판물의 이러한 단언을 모두 근거없는것으로 뒤엎어놓았다고 말할수 있다. 전쟁은, 쏘베트사회제도가 인민들속에서 성장하였으며 인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있는 참으로 인민적인 제도라는것, 쏘베트사회제도가 충분한 생활력을 가진 튼튼한 사회조직형태라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쏘베트사회제도가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가 어떤가에 대하여는 더 론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쟁의 명확한 교훈이 있은후 어떠한 회의적인자도 더는 쏘베트사회제도의 생활력에 대하여 감히 의심을 가질수 없게 되였

기때문이다。지금은 쏘베트사회제도가 비쏘베트사회제도보다 훨씬 생활력이 강하고 튼튼하다는것, 쏘베트사회제도는 비쏘베트적사회제도보다 우월한 사회조직형태이라는것에 대하여 론하고있다。

우리의 승리는 둘째로, 우리 쏘베트국가제도가 승리하였으며 우리 다민족쏘베트국가가 전쟁의 모든 시련을 이겨냈으며 자기의 생활력을 증명하였다는것을 의미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외국출판물의 저명한 인물들은 쏘베트 다민족국가는《인위적이고 비현실적인 건축물》이며 어떠한 분규든지 발생하는 경우에는 쏘베트련맹은 불가피하게 붕괴할것이며 쏘베트련맹은 오지리-웽그리아제국과 마찬가지의 운명을 당하고야말것이라고 한두번만 언명하지 않았다。

인제는 전쟁이 외국출판물의 이러한 언명을 아무 근거도 없는것으로 반박하여버렸다고 말할수 있다。전쟁은 쏘베트다민족국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시련을 이겨냈으며 전쟁기간에 더 공고하여졌으며 충분한 생활력을 가진 국가제도라는것을 보여주었다。우리 다민족국가가 민족적불신임과 민족적적대시의 감정을 도발하는 자산계급적토대우에서 성장한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우리 국가의 여러 민족들사이에 우애와 형제적협조의 감정을 배양하는 쏘베트제도의 토대우에서 성장하였기때문에 우리 나라를 오지리-웽그리아제국과 동일하게 론하는것은 아무 근거도 없다는것을 이 량반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전쟁의 교훈이 있은후 이 량반들은 더는 쏘베트국가제도의 생활력을 감히 부인하지 못하게 되였다。지금은 쏘베트국가제도의 생활력에 대하여는 론하지 않는다。그것은 이 제도의 생활력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것으로 되였기때문이다。지금은 쏘베트국가제도가 다민족국가의 모범으로 되였으며 쏘베트국가제도가 다른 어떤 다민족국가보다 민족문제와

민족협조문제를 더잘 해결한 국가조직체계라는것에 대하여 론하고있다.

우리의 승리는 셋째로, 쏘베트무장력이 승리하였으며 우리의 붉은군대가 승리하였으며 붉은군대가 영웅적으로 전쟁의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적의 군대를 철저히 분쇄해버림으로써 전쟁에서 승리자로 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회의석으로부터 웨치는 소리. 《쓰딸린동지의 지도하에서 승리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모두 일어선다. 우뢰와 같은 박수가 오래동안 계속되다가 환호로 바뀐다.)

붉은군대가 자기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낸다는것을 지금은 벗들도 적들도 다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5~6년전에는, 즉 전쟁직전에는 사정이 그렇지 않았다. 다 아는바와 같이 외국 출판물의 저명한 인물들과 외국의 많은 공인되고있는 군사문제권위들은, 붉은군대의 상태에는 대단히 의문되는 점이 있으며, 붉은군대는 장비가 나쁠뿐만아니라 진정한 지휘관을 가지고있지 못하며 붉은군대의 사기는 말할수없이 낮으며 그 군대는 방어전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진공전에는 적합하지 못하며 독일군의 타격을 받을 경우에 붉은군대는 《진흙다리거인》처럼 무너질것이라고 여러번 언명하였던것이다. 이러한 론의는 독일에만 있은것이 아니라 프랑스, 영국, 미국에도 있었다.

이제는 전쟁이 이러한 모든 론의를 아무 근거없는 웃음거리로서 반박하여버렸다고 말할수 있다. 전쟁은 붉은군대가 《진흙다리거인》인것이 아니라 완전히 현대화한 장비와 비상히 로련한 지휘관, 고도의 사기와 전투력을 가진 현대 제1류의 군대라는것을 보여주었다. 붉은군대는 어제까지도 구라파 모든 나라의 군대를 공포에 떨게 한 독일군대를 전멸한 군대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붉은군대에 대한 《비평가》들이 점점 적어지고있다는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뿐이 아니다. 외국출판물에는 붉은군대의 높은 자질, 그의 전사와 지휘관의 수완, 그의 전략전술의 완미성을 찬양하는 기사가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붉은군대가 모스크바와 쓰딸린그라드에서, 꾸르스크와 벨고로드에서, 끼예브와 끼로워그라드에서, 민스크와 보브루이스크에서, 레닌그라드와 딸린에서, 야씨와 리워브에서, 위스와강과 네만강에서, 두나이강과 오데르강에서 윈과 베를린에서 찬란한 승리를 거둔것만큼 당연히 붉은군대를 제일류의 군대로서 많이 따라배워야 하겠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는 적에 대한 우리 나라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리해하고있다.

전쟁의 총화는 기본상 이러하다.

전국에 미리 적극적방어의 준비를 시키지 않아도 이런 력사적승리를 전취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그릇된것이다. 이런 준비를 단기간에, 즉 3～4년동안에 해낼수 있다고 생각하는것도 이에 못지않게 그릇된것이다. 단지 우리 군대의 용감성에 의해서만 승리를 거두었다고 인정하는것은 더구나 그릇된것이다. 물론 용감성이 없이는 승리를 거둔다는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군대가 많고 병기가 우월하며 오랜 훈련을 받은 장교가 있고 공급이 상당히 좋은 적을 용감성만으로는 타승할수 없는것이다. 이러한 적들의 공격에 견디여내며 그들에게 반타격을 가하며 그들을 최종적으로 철저히 패배시키자면 우리 군대의 무비의 용감성이외에도 완전히 현대화적인 그리고 충족한 량의 병기와 잘 조직된, 마찬가지로 충족한 량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것을 그것도 량적으로 충족하게 갖추는것이 필요하다. 즉 무

기, 군수품, 기업의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금속**, 기업과 운수의 작업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 군복을 생산하기 위한 **면화**, 군대공급을 위한 **량식** 등이 그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에 참가하기 직전에 우리 나라는 이와 같은 수요를 기본상 만족시키기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이미 가졌다고 단언할수 있는가? 나는 단언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거대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3차의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실행하는것이 필요하였다. 다름아닌 이 3차의 5개년계획이 이러한 물질적조건을 창조할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었다. 하여튼 제2차세계대전직전인 1940년에 이 면에서 우리 나라의 상태는 제1차세계대전직전인 1913년보다 몇배나 나았다.

제2차세계대전직전에 우리 나라는 어떠한 물질적조건을 가지고있었는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리해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나는 이제 우리 나라에 적극적방어의 준비를 시키는 면에서 공산당이 진행한 활동을 간단하게나마 보고해야 하겠다.

제2차세계대전직전인 1940년의 자료를 제1차세계대전직전인 1913년의 자료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알게 된다.

1913년에 우리 나라는 422만톤의 **선철**, 423만톤의 **강철**, 2,900만톤의 **석탄**, 900만톤의 **석유**, 2,160만톤의 **상품곡물**, 74만톤의 **면화**를 생산하였다.

우리 나라가 제1차세계대전에 참가할 때에 가지고있던 물질적조건은 이러하였다.

옛 로씨야가 전쟁에 리용할수 있은 경제적기초는 이러하였다.

1940년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해에 우리 나라는 1913년의

거의 4배가 되는 1,500만톤의 선철, 1913년의 4.5배가 되는 1,830만톤의 강철, 1913년의 5.5배가 되는 1억 6,600만톤의 석탄, 1913년의 3.5배가 되는 3,100만톤의 석유, 1913년보다 1,700만톤이나 더 많은 3,830만톤의 상품곡물, 1913년의 3.5배가 되는 270만톤의 면화를 생산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에 참가할 때에 우리 나라가 가지고있던 물질적조건은 이러하였다.

이것이 전쟁에 리용할수 있었던 쏘련의 경제적기초였다.

보는바와 같이 그 차이는 대단히 큰것이다.

생산의 이와 같은 미증유의 장성을 락후한 상태로부터 진보에로 국가가 전진한 단순하고 평범한 발전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비약이였다. 이 비약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락후한 나라로부터 선진국으로, 농업국으로부터 공업국으로 전변된것이다.

이 력사적인 전변은 1928년 즉 제1차5개년계획의 첫해부터 시작하여 3차의 5개년계획을 실행하는 기간에 실현되였다. 이 시기전까지는 우리는 파괴된 공업을 복구하고 제1차세계대전과 국내전쟁으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만일 또 제1차5개년계획이 4년에 수행되고 제3차5개년계획의 실행이 전쟁에 의하여 네번째해에 중단되였다는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한다면 우리 나라가 농업국으로부터 공업국으로 전변하는데는 불과 13년좌우밖에 걸리지 않은셈이다.

이처럼 거대한 사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13년이란 시간은 비상히 짧은 기간이라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수자의 발표가 일찍 외국출판물에서 분분한 론의를 일으키게 된것은 사실 이때문이다. 벗들은 《기적》이 생긴것이라고 인정하였고 악의자들은 5개년계획이 《볼쉐위크의 선

전》이며 《숙반위원회의 요술》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세상에 기적이란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 숙반위원회도 사회발전의 법칙을 폐지할 정도로 강대하지는 않은만큼 국외의 《여론》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공산당은 어떤 정책에 의하여 국내에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런 물질적조건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는가?

무엇보다먼저 국가공업화의 쏘베트적정책에 의해서였다.

쏘베트의 국가공업화의 방법은 자본주의의 공업화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공업화가 통례로 경공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중공업에 비하여 경공업에는 투자가 적게 들고 자본의 류통이 빠르며 리윤도 비교적 쉽게 얻을수 있기때문에 거기에서는 경공업이 공업화의 첫대상으로 되는것이다. 경공업이 장구한 기간을 걸쳐서 리윤을 축적하고 그 리윤을 은행에 집중하여야만 공업화의 순번이 중공업에 차례지며 중공업을 발전시킬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축적이 서서히 중공업에 돌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은 몇십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요구하는 긴 과정이며 그동안에는 경공업이 발전되기를 기다려야 하며 중공업이 없는 그런 나날을 억지로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공산당이 이 길을 취할수 없었던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은 전쟁이 박근하고있다는것, 중공업이 없이는 나라를 지켜낼수 없으므로 한시바삐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착수하여야 한다는것, 중공업을 늦게 발전시키면 실패를 당하게 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당은 중공업이 없이는 나라의 독립을 고수할수 없으며 중공업이 없이는 쏘베트제도가 멸망될수 있다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공산당은 공업화의 《통례적》길을 거부하고 중공업을 발전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의 공업화를 실시하였던것이다. 이것은 매우 곤난한 일이였지만 그러나 극복할수 있었던

것이다. 이 면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것은 자금을 신속히 모아 그것을 중공업에 돌릴수 있게 한 산업과 은행의 국유화였다.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를 이처럼 짧은 기간에 공업국으로 전변시킬수 없었다는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둘째로는 농업집단화정책에 의해서였다.

농업분야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락후한 상태를 소멸하며 국가에 더 많은 상품곡물과 더 많은 면화 등등을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령세한 농민경영으로부터 대규모경영에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것은 대규모경영만이 새 기술을 채용하고 농예상의 모든 성과를 리용하며 더 많은 상품생산물을 제공할 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대규모경영에는 자본주의적대규모경영과 집단적대규모경영 두가지가 있다. 공산당은 농업의 자본주의적발전의 길을 취할수 없었다. 그것은 원칙상의 리유에 의하여서일뿐만아니라 이 길이 지나치게 긴 발전과정을 요구하며 또 먼저 농민을 령락시키고 그들을 고용농민으로 전변시킬것을 요구하였기때문이였다. 그리하여 공산당은 농업집단화의 길, 즉 농호들을 집단농장에 통합시키는것에 의하여 농업을 대규모적인것으로 하는 길을 취하였다. 결과는 농업집단화의 방법이 가장 진보적인 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이 방법이 농민들을 령락시키지 않았을뿐만아니라 특히는 그것이 새 기술을 채용하며 농예상의 모든 성과를 리용하며 국가에 더 많은 상품생산물을 제공할수 있는 대규모적집단경영이 몇년사이에 전국을 뒤덮을 가능성을 주었기때문이다.

집단화의 정책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처럼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 농업의 세기적락후성을 퇴치할수 없었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당의 정책이 저항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수는 없다. 새것이면 언제든지 배격하는 락후한 사람들뿐만아니라 많은 이름난 당원들도 일관적으로 당을 뒤로 끌었으며 당을 《통레적》자본주의발전의 길로 끌어가려고 온갖 수단을 다하였던것이다. 뜨로쯔끼파와 우익의 모든 반당적술책과 우리 정부의 시책을 암암리에 파괴하는 그들의 《활동》전체는 당의 정책을 파탄시키며 공업화와 집단화의 사업을 저애하는 하나의 목적을 추구한것이였다. 그러나 당은 전자의 위혁에도 후자의 비명에도 굴복하지 않고 모든것을 다 물리치고 확신성있게 앞으로 나아갔다. 당의 공로는 당이 락후분자들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흐름을 거슬러나아가는것을 겁내지 않았으며 시종일관 당의 지도세력의 지위를 고수한데 있다. 이런 견인불발한 정신이 없었더라면 공산당이 나라의 공업화와 농업집단화의 정책을 고수할수 없었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공산당은 이렇게 창조된 물질적조건을 군수품생산을 발전시키고 붉은군대에 필요한 무기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옳게 리용하였는가?

나는 당이 그것을 옳게 리용하였으며 또 아주 성과있게 리용하였다고 생각한다.

만일 공업의 동부에의 철퇴로 인하여 군수품생산의 발전이 저애된 전쟁의 첫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쟁의 나머지 3년동안에 당은 전선에 충족한 량의 대포, 기관총, 보총, 비행기, 땅크 및 탄약을 공급하는것을 가능하게 하였을뿐만아니라 예비까지 가능하게 할 정도의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가 질적으로 독일것보다 못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심지어 일반적으로 보아 독일것보다 나았다는것은 다 아는 바이다.

우리의 땅크공업이 전쟁의 마지막 3년동안에는 매년 평균

3만대이상의 땅크, 자동포, 장갑차를 생산하여냈다는것은 다 아는바이다.(우뢰와 같은 박수)

다음으로 우리의 비행기공업은 같은 기간에 매년 비행기를 4만대씩 생산하여냈다는것은 다 아는바이다.(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의 총포공업은 같은 기간에 매년 12만문에 달하는 각종 구경의 대포(우뢰와 같은 박수), 45만정에 달하는 경기관총과 중기관총(우뢰와 같은 박수), 300만자루이상의 보총(박수), 약 200만자루의 자동총을 생산하여냈다는것도 다 아는바이다.(박수)

마지막으로 박격포공업은 1942～1944년기간에 매년 평균 10만문에 달하는 박격포를 생산하여냈다는것도 다 아는바이다.(우뢰와 같은 박수)

당연한 일이지만 이와 동시에 이에 상응한 량의 포탄, 각종 지뢰와 수뢰, 항공폭탄 및 보총탄알과 기관총탄알을 생산하여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례를 들면 단지 1944년 한해동안에만 22억 4,000만이상의 포탄, 작탄, 지뢰와 수뢰(박수)및 74억이상의 탄알을 생산하여냈다.(우뢰와 같은 박수)

붉은군대에 대한 무기와 탄약의 공급정황은 대체로 이러하다.

보다싶이 이것은 제1차세계대전시기에 우리 나라 군대가 공급받던 정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때에는 전선에 대포와 포탄이 늘 부족했고 군대는 땅크와 비행기가 없이 싸웠으며 병사 3명에 보총 한자루씩 차례졌던것이다.

붉은군대의 식량과 군복 공급에 대하여 말한다면 다 아는바와 같이 전선은 이 면에서 하등의 결핍을 느끼지 않았을뿐 아니라 필요한 예비까지 가지고있었다.

전쟁전시기와 전쟁시기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 공산당의 사업정황은 이상과 같다.

이제는 공산당의 가까운 장래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려 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이 계획은 근일에 비준될 새 5개년계획안에 진술되여있다. 새 5개년계획의 근본과업은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국내지역들을 복구하며 공업과 농업의 전쟁전 수준을 회복하며 다음으로 이 수준을 비교적 큰 폭도로 릉가하는것이다.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배급제가 폐지될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오래동안 계속되는 우뢰와 같은 박수) 특히 일용품생산을 확대하며 모든 상품의 가격을 점차적으로 인하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오래동안 계속되는 우뢰와 같은 박수) 과학에 그의 력량을 발휘할만한 가능성을 줄수 있는 각종 과학연구소들을 널리 설립함에(박수) 주의를 돌리게 될것이다.(우뢰와 같은 박수)

만일 우리의 과학자들에게 응당한 방조를 준다면 그들은 불원간에 외국의 과학성과를 따라잡을뿐만아니라 그것을 릉가할것이라는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계속되는 박수)

보다 더 장기간이 요구되는 계획에 관하여 말한다면 당은 우리 공업의 수준을 전쟁전에 비하여 례컨대 3배로 제고할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만한 인민경제의 새로운 급격한 앙양을 조직할 예정이다. 우리는 우리의 공업이 매년 5,000만톤에 달하는 선철(오래동안 계속되는 박수), 6,000만톤에 달하는 강철(오래동안 계속되는 박수), 5억톤에 달하는 석탄(오래동안 계속되는 박수), 6,000만톤에 달하는 석유(오래동안 계속되는 박수)를 생산할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직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우리 조국이 온갖 의외의 사변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보장될수 있다고 인정할수 있다.(우뢰와 같은 박수) 이러자면 아마 아직도 3개의 5개년계획을 실현하는 시간이 걸려

야 하며 또 그보다 더 걸릴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할수 있는 일이며 또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우뢰와 같은 박수)

이상의것이 우리 나라 공산당의 멀지 않은 과거의 활동과 그의 장래의 사업계획에 대한 나의 간단한 보고이다.(오래동안 계속되는 우뢰와 같은 박수)

공산당이 어느 정도로 옳게 사업하였으며 또 사업하고있는가(박수), 그리고 그보다 더 낫게 사업할수 없었겠는가를 심판하는것은 여러분이 할일이다.(크게 활기를 띠며 박수)

승리자를 심판할수 없으며[79](활기를 띠며 박수) 그들을 비판하지도 말며 검열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승리자를 심판할수 있으며 또 심판하여야 하며(환호소리, 박수) 비평과 검열을 할수 있으며 또 꼭 하여야 한다. 그것은 사업을 위하여서도 유익할뿐만아니라 승리자자신에 대하여서도 유익하며(찬성하는 웨침, 박수) 이렇게 하면 교만성이 적어지고 더 겸손해지게 될것이다.(환호소리, 박수) 선거운동은 집정당인 우리 나라 공산당을 심판하는 선거자들의 법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선거의 결과는 선거자들의 판결을 의미할것이다.(높은 소리로 찬성, 박수) 만일 우리 나라 공산당이 비판과 검열을 겁낸다면 당은 고귀한 가치를 가지지 못할것이다. 공산당은 자진하여 선거자들의 판결을 받을것이다.(우뢰와 같은 박수)

선거투쟁에서 공산당은 단독으로 활동하는것이 아니다. 공산당은 비당인사들과 련맹을 무어가지고 선거에 참가한다. 종전에는 공산당원들이 비당인사들과 무소속인사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임하지 않았다. 그것은 각종 자산계급단체들이 가면없이는 선거자들앞에서 불리하였으므로 흔히 무소속이라는 기치로써 정체를 은폐하여왔기때문이다. 과거에는 사실이 이

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지금은 쏘베트사회제도라는 장벽이 비당인사들과 자산계급을 분리시켜놓았다. 이 장벽은 또 쏘베트사람들의 한 공동집단에 공산당원들과 비당인사들을 련합시켜놓았다. 이 공동집단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우리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함께 투쟁하였으며 우리 조국의 자유와 존엄을 위하여 함께 피흘리며 싸웠으며 적들에 대한 우리 나라의 승리를 함께 단조하였으며 또 단조하여냈던것이다. 그들사이의 차이라면 다만 한사람은 당원이고 다른 사람은 당원이 아닌 그것뿐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형식적차이인것이다. 중요한것은 량자가 다 하나의 공동한 사업을 하고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공산당원들과 비당인사들의 련맹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생기있는 일이다.(오래동안 계속되는 우뢰와 같은 박수)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이 나를 최고쏘베트대의원렵후보자로 추천함으로써 나에게 신임을 표명하여준데 대하여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바이다.(오래동안 그치지 않는 박수. 회의석으로부터 웨치는 소리. 《모든 승리의 향도자 위대한 통수 쓰딸린동지 우라!》) 내가 여러분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리라는것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란다.(회의참가자들은 모두 일어선다. 우뢰와 같은 박수가 오래동안 그치지 않다가 환호소리로 바뀐다. 회의장의 사방으로부터 환호소리가 터져나온다. 《위대한 쓰딸린 만세! 우라!》《제 민족 인민의 위대한 수령 우라!》《위대한 쓰딸린동지에게 영광을 돌리라!》《전 민족의 렵후보자 쓰딸린동지 만세!》《우리의 모든 승리의 창조자 쓰딸린동지에게 영광을 돌리라!》)

《쓰딸린선문집》, 한문판
제441～454페지

맑스주의와 언어학 제 문제[80]

언어학에 있어서의 맑스주의에 관하여

일부 청년동무들이 나에게 언어학의 제 문제에 관하여, 특히 언어학에 있어서의 맑스주의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출판물에 진술하여줄것을 제의하여왔다. 나는 언어학자가 아니므로 물론 동무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수는 없다. 언어학에 있어서의 맑스주의에 관하여 말한다면 기타 사회과학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이런 동무들이 제기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답해줄것을 동의하였다.

물음: 언어는 토대우에 서있는 상부구조라는것이 옳은가?

대답: 아니다, 옳지 않다.

토대는 일정한 발전단계에 있어서의 사회의 경제제도이다. 상부구조는 사회의 정치적, 법률적, 종교적, 예술적, 철학적 제 견해 및 이들에 상응하는 정치적, 법률적 및 기타의 제 기관①인것이다.

모든 토대는 그에 상응하는 자기의 상부구조를 가지고있다. 봉건제도의 토대는 자기의 상부구조, 자기의 정치적, 법률적 및 기타의 제 견해, 이들에 상응하는 제 기관을 가지고

---

① 원문은 《учреждение》인데 이것은 일정한 리론적견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가리킨다.—편집자

있으며 자본주의의 토대도 자기의 상부구조를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의 토대도 자기의 상부구조를 가지고있다. 토대가 변화되고 소멸되면 이에 따라 그의 상부구조도 변화되고 소멸되며 새로운 토대가 산생되면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상부구조가 산생된다.

언어는 이 점에서 상부구조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로씨야사회와 로씨야어를 례로 들어보자. 최근 30년간에 로씨야에서는 낡은 자본주의토대가 소멸되고 새로운 사회주의토대가 확립되였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토대우에 서있던 상부구조는 소멸되고 사회주의토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상부구조가 확립되였다. 따라서 낡은 정치적, 법률적 및 기타 제 기관이 새로운 사회주의적 제 기관에 의하여 교체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씨야어는 기본적으로 10월혁명이전과 다름없다.

이 시기에 로씨야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로씨야어의 어휘구성이 어느 정도 변화하였다. 다시말하면 새로운 사회주의적생산이 산생되고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주의문화, 새로운 사회적견해, 새로운 도덕의 출현과 관련하여, 그리고 기술 및 과학의 발전과 관련하여 생겨난 상당한 수효의 새로운 단어와 표현으로써 보충되였으며 일련의 단어와 표현의 의미가 변화하여 새로운 뜻을 획득하였으며 약간의 폐어들이 어휘에서 빠져나갔다. 언어의 기초를 이루는 로씨야어의 기본어휘와 문법구조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토대가 소멸된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기본어휘와 새로운 문법구조로써 교체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반대로 아무런 중대한 변화도 없이 그대로 완전히 보존되였다. 그것은 현대로씨야어의 기초로서 보존되였다.

다음, 상부구조는 토대에 의하여 산생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상부구조는 단지 토대를 반영할따름이라거나 또한 그

것은 소극적이고 중립적이며 자기의 토대의 운명이나, 계급들의 운명이나 제도의 성질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대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반대로 상부구조는 세상에 나타나자마자 최대의 적극적인 힘으로 되여 자기의 토대가 형성되고 공고히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새 제도가 낡은 토대와 낡은 계급들을 박멸청산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모든 방책을 취한다.

달리는 될수 없다. 상부구조가 토대에 의하여 창조되는것은 바로 그것이 토대에 복무하며 그것이 토대의 형성과 공고화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그것이 낡은 상부구조를 가진, 케케묵고 낡아빠진 토대의 청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상부구조는 그의 이러한 복무적역할을 포기하기만 하면, 상부구조가 자기의 토대를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립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의 립장으로, 모든 계급들에 대한 동일한 태도의 립장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그것은 자기의 본질을 상실하며 상부구조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언어는 이 점에서 상부구조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언어는 어느 한 사회내부에서 이런 또는 저런 토대에 의하여, 낡은 또는 새로운 토대에 의하여 산생되는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사회의 력사 및 토대의 력사의 전 행정에 의하여 산생된다. 언어는 어떤 한 계급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회전체에 의하여, 사회의 계급전체에 의하여, 수백세대의 노력에 의하여 창조된다. 언어는 어느 한 계급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요구, 사회의 계급전체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창조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사회에 대하여 단일적이고 사회의 전체 성원들에 대하여 공통한 전인민적언어로서 창조된다. 따라서 사람들의 교제수단으로서

의 언어의 복무적역할은 다른 계급들에게는 불리하고 한 계급에게만 유리하게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전체, 사회의 계급전체에 대하여 꼭같이 복무하는것이다. 언어가 사멸하는 낡은 제도에나 상승하는 새로운 제도에나 낡은 토대에나 새로운 토대에나 착취자들에게나 피착취자들에게나 꼭같이 복무할 수 있다는것은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로씨야어가 오늘 로씨야사회의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문화에 복무하고있는것과 꼭 마찬가지로 10월혁명이전에도 로씨야의 자본주의와 로씨야의 자산계급문화에 잘 복무하였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일이다.

재로운 사회주의제도에 복무하고있는것과 꼭 마찬가지로 자기 민족의 낡은 자산계급제도에 잘 복무한 우크라이나어, 백로씨야어, 우즈베크어, 까자흐어, 그루지야어, 아르메니야어, 에쓰또니야어, 라트위야어, 리트와어, 몰다위야어, 따따르어, 아제르바이쟌어, 바쉬끼르어, 뚜르크메니야어 및 기타의 쏘련민족들의 언어도 이와 동일하다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달리는 될수 없다. 언어가 존재하며 또 그것이 창조되는것은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교제도구로서 사회전체에 복무하며 사회 전체 성원들에 대하여 공동적이고 사회에 대하여 단일적이며 계급적지위와는 관계없이 사회의 전체 성원들에게 복무하는것으로 되기 위하여서이다. 언어가 이 전인민적립장으로부터 물러서기만 하면, 언어가 다른 사회적집단들에게는 불리하고 어느 한 사회적집단을 편중하고 지지하는 립장으로 나서기만 하면 그것은 자기의 본질을 상실하며 더는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교제수단으로 될수 없으며 어느 한 사회적집단의 통용어로 전화되고 퇴화하며 소멸되게 된다.

이 점에서 언어는 상부구조와는 원칙적으로 구별되지만 생산도구와는, 례컨대 기계와는 구별되지 않는다. 기계는 언

어와 꼭같이 계급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자본주의제도에나, 사회주의제도에나 꼭같이 복무할수 있는것이다.

그다음으로, 상부구조는 일정한 경제토대가 존재하고 활동하는 한 시대의 산물이다. 때문에 상부구조는 그 생존기가 길지 않으며 자기의 토대가 청산되고 소멸됨에 따라 함께 청산되고 소멸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언어는 그것이 형성되고 풍부화되고 발달되고 세련되는 일련의 시대의 산물이다. 때문에 언어는 어떠한 토대나 어떠한 상부구조와는 비길수없이 오래동안 생존한다. 비단 한 토대와 그 상부구조만이 아니라 몇개의 토대와 그것들에 상응하는 상부구조의 산생 및 소멸도 력사상에서 소여의 언어의 소멸, 그 구조의 소멸을 가져오지 않으며 또 새로운 어휘구성과 새로운 문법구조를 가진 새로운 언어의 산생을 가져오지 않는것은 바로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뿌쉬낀이 서거한지 이미 백여년이 되였다. 이동안에 로씨야에서는 봉건제도, 자본주의제도가 소멸되고 제3의 제도, 즉 사회주의제도가 산생되였다. 말하자면 두개의 토대와 그 상부구조가 소멸되고 새로운 사회주의의 토대와 그 새로운 상부구조가 산생되였다. 그러나 례컨대 로씨야어를 례로 들어본다면 그것은 이 오랜 기간에 아무런 파괴도 당하지 않았으며 현대로씨야어는 그 구조에 있어서 뿌쉬낀의 언어와 별로 구별되지 않는다.

이동안에 로씨야어에서는 무엇이 변화되였는가? 이동안에 로씨야어는 어휘구성이 크게 보충되였으며 많은 폐어가 어휘구성으로부터 빠져나갔으며 상당한 수효의 단어의 함의가 변화되였으며 언어의 문법구조가 개선되였다. 뿌쉬낀의 언어구조, 그 문법구조 및 기본어휘에 대하여 말한다면 본질적인 모든 점에 있어서 그것은 현대로씨야어의 기초로 보존되여있다.

이것은 극히 명백한 일이다. 실제에 있어서 매차 혁명이 후 보통 상부구조에 대하는것처럼 현존하는 언어의 구조, 그 문법구조 및 기본어휘를 소멸하고 새로운것들로써 교체하는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례컨대 《물》, 《땅》, 《산》, 《숲》, 《물고기》, 《사람》, 《걷다》, 《일하다》, 《생산하다》, 《장사하다》 등등을 물, 땅, 산 등등이라 하지 않고 달리 부르는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언어에서의 단어의 변화와 문장에서의 단어의 결합이 현존문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전연 다른 문법에 의하여 진행되는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언어에서의 이와 같은 변혁이 혁명에 어떠한 리익을 줄것인가? 력사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필요가 없이는 어떠한 본질적인 변혁도 하지 않는다. 묻노니, 만일 현존언어가 그 구조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극히 적당하다는것이 증명된다면 그러한 언어변혁을 일으킬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사회의 생산력발전의 전망을 열어주기 위하여 몇해동안에 낡은 상부구조를 소멸하고 그것을 새로운 상부구조로써 교체하는것은 가능하며 또 필요한것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무정부상태를 가져오지 않고 사회의 붕괴의 위협을 일으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몇해동안에 현존언어를 소멸하고 그대신에 새로운 언어를 창조할수 있겠는가? 돈 끼호떼51따위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과업을 내세울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상부구조와 언어사이에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구별이 있다. 상부구조는 생산, 인간의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는 련결되여있지 않다. 상부구조는 다만 경제를 통하여서만, 토대를 통하여서만 간접적으로, 생산과 련결되여있다. 때문에 상부구조는 생산력발전수준의 변화를 즉시로, 직접적으로 반영하는것이 아니라 토대에 변화가 생긴후 생산에서의 변화가 토대에서의 변화에서 굴절되는것을 통하여 반영한다. 이

것은 상부구조의 작용범위가 협소하고 제한되여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어는 이와 반대로 인간의 생산활동과 직접 련결되여있으며 비단 생산활동뿐만아니라 생산으로부터 토대에 이르기까지, 토대로부터 상부구조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의 모든 사업범위에서의 일체 다른 활동과도 직접 련결되여있다. 때문에 언어는 토대에서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생산에서의 변화를 즉시로 직접 반영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활동령역을 포괄하고있는 언어의 작용범위는 상부구조의 작용범위보다 훨씬 넓고 다면적일뿐만아니라 거의 무한하다.

언어가, 그중에서도 그 어휘구성이 거의 끊임없는 변화상태에 처하여있다는것은 무엇보다도먼저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공업과 농업, 상업과 운수업, 기술과 과학의 끊임없는 발전은 언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새로운 단어와 표현으로써 그 어휘를 보충할것을 요구한다. 언어는 직접 이 요구를 반영하여 자기의 어휘를 새로운 단어로써 보충하며 자기의 문법구조를 개선한다.

이리하여

(1) 맑스주의자는 언어를 토대우에 서있는 상부구조로 간주할수 없다.

(2) 언어를 상부구조와 혼동하는것은 엄중한 오유라는것을 의미한다.

물음: 언어는 종래로 계급적이였으며 또 언제나 그러하다는것, 사회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단일적인, 비계급적, 전인민적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이 옳은가?

대답: 아니다, 옳지 않다.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는 계급적언어에 관하여 운운할수조차 없다는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원시공동체적씨족제도

는 계급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계급적언어라는 것이 있을수도 없었다. 그때 언어는 전체 집단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단일적인것이였다. 계급을 원시공동체적집단도 포함한 온갖 인간집단으로 리해해야 한다는 반박은 반박이 아니라 론박할 가치도 없는 말의 희롱이다.

씨족적언어로부터 종족적언어에로, 종족적언어로부터 준민족(народность)언어에로, 준민족(народность)언어로부터 민족(нация)①언어에로 넘어가는 그 언어들의 계속적인 발전에 관하여 말한다면 발전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교제수단으로서의 언어는 사회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단일적이며 사회적지위와는 관계없이 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복무하였다.

나는 여기서 노예적 및 중세기적 시기의 제국, 례컨대 쿠루스 및 알렉싼드르 대제의 제국 또는 케자르 및 샤를 대제의 제국, 즉 자기의 경제토대를 가지지 못하고 일시적인 공고하지 못한 군사-행정적련합체를 이루었던 제국들을 두고 말하는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국들은 제국에 대하여 단일적이고 제국의 모든 성원들에게 리해되는 그러한 언어를 가지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또 가질수도 없었다. 이러한 제국들은 각기 자기의 생활방식과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있던 종족 및 준민족(народность)들의 혼합체였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것은 이러한 제국 또는 이들에 류사한 제국이 아니라 제국의 구성속

---

① 로씨야어에서의 《народность》와 《нация》는 보통 《민족》으로 번역된다. 쓰딸린은 본문에서 《народность》를 종족이 산생된 뒤의 노예사회와 봉건사회에 있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켰고 《нация》를 자본주의의 상승기와 이 시기 이후에 있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켰다. 이 글에서는 《народность》를 《준민족》으로 번역하고 거기에 원문을 달았으며 《нация》는 《민족》으로 번역하고 일반적으로 원문을 달지 않았다.
—편집자

에 들어가 각기 자기의 경제적토대와 오래전부터 형성된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있던 종족 및 준민족(народность)들이다. 력사는 이러한 종족 및 준민족(народность)들의 언어는 계급적인것이 아니고 전인민적이고 종족 및 준민족(народность)들에 대하여 공통적인것이였으며 그들전체에게 리해되는 것이였다는것을 말하고있다.

물론 이들 언어와 함께 방언①과 지방적소방언이 있었다. 그러나 종족 또는 준민족(народность)들의 단일적이고 공통적인 언어가 그 방언과 지방적소방언에 대하여 우세하였으며 그것들을 자기에게 복종시켰다.

그후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봉건적할거가 소멸되고 민족적 시장이 형성됨과 함께 준민족(народность)은 민족(нация)으로 발전하였으며 준민족(народность)의 언어도 민족(нация)어로 발전하였다. 민족언어는 계급적인것이 아니라 민족의 성원들에 대하여 공통적이며 민족에 대하여 단일적인 전인민적 언어라는것을 력사는 말하고있다.

우에서 말한바와 같이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교제수단으로서의 언어는 사회의 계급전체에 꼭같이 복무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계급들에 대하여 일종의 무관심을 표시한다. 그러나 사람들, 개개의 사회적집단들, 계급들은 언어에 대하여 결코 무관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어를 자기들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하며 언어에 대하여 자기들의 특수한 어휘, 자기들의 특수한 술어, 자기들의 특수한 표현을 강요하려고 애쓴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현저한것은 인민으로부터 유리되고 인민을 증오하는 유산계급들의 상층, 즉 귀족과 자산계급의 상층분자들이다. 그

---

① 원문은 《диалект》로서 지역적방언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는 또 어떤 사회집단의 습관어로도 사용되였는데 그것을 다같이 《방언》으로 번역한다.—편집자

들에 의하여 《계급적》관습어, 통용어, 쌀롱《어》[81]가 창조된다. 문헌들에서는 이러한 관습어와 통용어를 옳지 않게 언어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무산계급언어》, 《농민언어》에 대립되는 《귀족언어》, 《자산계급언어》라고 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이상하게도 민족언어는 허구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것은 오직 계급적언어들뿐이라는 결론을 내오고있다.

나는 이런 결론보다 더 그릇된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습어와 통용어를 언어로 간주할수 있는가? 절대로 없다. 그것은 첫째로 이러한 관습어와 통용어는 자기의 문법구조와 기본어휘를 가지지 않고 그것을 민족언어에서 빌어쓰고 있기때문이다. 둘째로 이러한 관습어와 통용어는 어느 한 계급의 상층분자들사이의 좁은 범위에서 통용될뿐 사람들의 교제수단으로서 사회전체에 사용될수는 전혀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관습어와 통용어들에는 대체 어떤것들이 있는가? 그것들에는 귀족 또는 자산계급의 상층분자들의 특수한 취미를 반영하는 약간의 특수한 단어들, 민족언어의 《조잡》한 표현과 말구절로부터 벗어난 약간의 세련되고 우아한 표현과 말구절들, 그리고 약간의 외래어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즉 압도적 다수의 단어와 문법구조는 전인민적민족언어에서 가져온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어나 통용어는 전인민적민족언어의 결가지로서 아무런 언어적자주성도 없으며 발전할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있다. 이러한 관습어나 통용어가 민족언어를 배제하고 교체할수 있는 자주적언어로 발전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력사적전망을 보지 못하고 맑스주의의 립장으로부터 물러나가는것을 의미한다.

일부 사람들은 맑스를 인증한다. 즉 자산자는 《자기의 언

어》를 가지고있으며 이 언어는 《자산계급의 산물》①이며 이 언어는 중상주의와 매매의 정신으로 관통되여있다고 말하고있는 맑스의 론문 《성 막스》의 한구절을 인용한다. 일부 동지들은 이 인용문으로써 맑스가 마치 언어의 《계급성》을 주장하였으며 마치 단일한 민족언어의 존재를 부인하였다는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만일 이 동지들이 객관적으로 사물을 대하였다면 그들은 같은 론문 《성 막스》가운데서 맑스가 단일적민족언어의 형성방도에 관한 문제를 언급할 때 《경제적 및 정치적 집중화에 의하여 제약된 단일적민족언어에로의 방언들의 집중화》②에 관하여 말하고있는 다른 구절도 인용했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맑스는 낮은 형태로서의 방언들이 복종되여있는 높은 형태로서의 단일적민족언어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면 이 경우에 맑스가 자산자의 언어는 《자산계급의 산물》이라고 말한 그 함의는 무엇인가? 맑스는 이 언어를 자기의 특수한 언어구조를 가진 민족언어와 꼭같은 언어로 간주하였던것일가? 그가 이것을 그러한 언어로 간주할수 있었을것인가? 물론 그럴수 없다! 맑스는 다만 자산자가 단일적인 민족언어를 자기들의 상업용어휘들로써 더럽혔으며 따라서 자산자는 자기들의 상업용통용어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하려고 한데 지나지 않는다.

이런 동지들은 맑스의 립장을 외곡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그 립장을 외곡한 까닭은 그들이 맑스주의자로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구명하지 않고 독경주의자로서 맑스를 인증한데 있다.

일부 사람들은 엥겔스를 인증한다. 즉 엥겔스의 저서 《영국로동계급의 형편》에서 《…영국로동계급은 점차 영국자산계

①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권, 255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권, 410페지를 보라.—편집자

급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였다.》《로동자들은 자산계급과는 다른 관습어로 말하며 다른 사상과 관념, 다른 풍습과 도덕적원칙, 다른 종교와 정치를 가지고있다.》①는 말들을 인용한다. 이 인용문에 기초하여 일부 동지들은 엥겔스는 전인민적민족언어의 필요성을 부인하였으며 따라서 그는 언어의《계급성》을 주장하였다는 결론을 내오고있다. 기실 엥겔스가 여기서 말하고있는것은 언어가 아니라 관습어인것이다. 그는 민족언어의 결가지로서의 관습어는 민족언어를 대체할수 없다는것을 충분히 리해하고있었다. 그러나 이런 동지들은 언어와 관습어와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것에 대하여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모양이다.…

인용문이 적당히 인용되지 못하였다는것이 명백하다. 왜냐 하면 엥겔스가 여기에서 말하고있는것은《계급적언어》가 아니라 주로 계급적 사상, 관념, 풍습, 도덕적원칙, 종교, 정치에 관하여서이기때문이다. 자산자와 무산자의 사상, 관념, 풍습, 도덕적원칙, 종교, 정치가 절대 대립되여있다는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이것이 민족언어 또는 언어의《계급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회에 계급적모순이 존재한다는것이 언어의《계급성》을 주장하거나 또는 단일한 민족언어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론거로 될수 있는가? 맑스주의는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의 가장 중요한 표징의 하나라고 말하는 한편 민족내부에는 계급적모순이 있다는것도 잘 알고있다. 우에서 말한 동지들은 이 맑스주의적명제를 인정하는가?

일부 사람들은 라파르그를 인증한다. 즉 라파르그는 자기의 소책자《언어와 혁명》에서 언어의《계급성》을 인정하고있으며 마치 전인민적민족언어의 필요성을 부인하고있는것 같

①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권, 500페지를 보라.—편집자

이 지적들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라파르그는 확실히 《귀족언어》에 관하여, 사회의 여러 층의 《통용어》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지들은 라파르그가 언어와 통용어간의 차이에 관한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관습어를 《인공적인 말》 혹은 《통용어》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소책자에서 《귀족들이 잘 사용하는 인공적인 말은… 자산자도, 수공업자도, 도시에서도, 농촌에서도 사용되는 전인민적언어에서 갈라져나온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언명하고있다는것을 잊고있다.

따라서 라파르그는 전인민적언어의 존재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있는 동시에 《귀족언어》 및 기타의 관습어와 통용어는 전인민적언어에 대해 종속적성격과 의존성을 가지고있다는 것을 충분히 리해하고있다.

결국 라파르그에 대한 인증에서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한때 영국에서 영국인민은 영어로 말하고있었지만 영국봉건령주들은 《수세기간이나》 프랑스어로 말하였다[82]는 이러한 사실은 언어의 《계급성》을 주장하며 전인민적언어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론거로 된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론거가 아니라 일종의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로, 당시 프랑스어로 말한것은 봉건령주의 전부가 아니라 왕궁이나 귀족저택에서 사는 영국봉건령주의 얼마 안되는 상층분자들이였다. 둘째로, 그들은 그 어떤 《계급적언어》로 말한것이 아니라 보통 쓰는 전인민적프랑스어로 말하였다. 셋째로, 다 아는바와 같이 프랑스어로 말하던 이러한 장난은 그 후 전인민적영어에 자리를 내여주고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동지들은 영국봉건령주들과 영국인민이 《수세기간이나》 번역을 통하여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고, 영국봉건령주들은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 당시에는 전인민

적영어가 없었다고, 프랑스어가 그 당시 영국귀족상층의 좁은 범위안에서만 통용되던 쌀롱어이상으로 가치있는것이였다고 생각하고있는가? 이러한 웃음거리《론거》에 기초하여 전인민적언어의 존재와 필요성을 부인할수 있는가?

로씨야귀족들도 한때 까리궁정과 쌀롱에서 프랑스어로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들은 로씨야어에 프랑스어를 섞어말하는것과 프랑스어의 억양으로 로씨야어를 할줄 아는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이것이 로씨야에는 그때 전인민적로씨야어가 없었다거나 전인민적언어란 당시에는 허구이고 《계급적언어》가 실재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가?

이런 동지들은 여기에서 적어도 두가지 오유를 범하고 있다.

첫째 오유는 그들이 언어와 상부구조를 혼동하고있는 점이다. 그들은 상부구조가 계급성을 띠고있다면 언어도 전인민적이 아니라 계급적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우에서 말한바와 같이 언어와 상부구조는 두개의 서로 다른 개념이며 맑스주의자는 그 개념들의 혼동을 용허할수 없는것이다.

둘째 오유는 이 동지들이 자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리해관계의 대립, 그들간의 가혹한 계급투쟁을 사회의 완전한 분렬로, 두 적대계급사이의 모든 련계의 결렬로 리해하고있는 점이다. 그들은 사회가 분렬되여 이미 단일한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있는것은 계급들뿐인만큼 사회에 대하여 단일적인 언어도 필요없으며 민족언어도 필요없다고 생각하고있다. 만일 사회가 분렬되여 전인민적인, 민족적인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계급들과 《계급적언어들》이 남을것이다. 물론 매개의 《계급적언어》는 자기의 《계급적》문법을—《무산계급적》문법, 《자산계급적》문법을 가지게 될것이다. 그

러나 실지 세상에는 그러한 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지들은 난처해함이 없이 그러한 문법이 나타나리라고 믿고있다.

한때 우리 나라에는, 10월혁명후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철도는 자산계급적철도여서 우리 맑스주의자들이 이것을 리용하는것은 적당치 않으므로 그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무산계급적》철도를 부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맑스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로 인하여《동굴속에서 사는 원시인》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되였다.…

물론 사회, 계급, 언어에 대한 이러한 천박한 무정부주의적견해는 맑스주의와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는 혼란에 빠진 일부 우리 동지들의 머리가운데 확실히 존재하고있으며 또 계속 존재하고있는것이다.

가혹한 계급투쟁의 존재로 말미암아 마치 사회가 한 사회내에서 이미 경제적으로 서로 련결되여있지 않는 계급들로 분렬된것처럼 보는것은 물론 옳지 않다.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자산자와 무산자는 단일한 자본주의사회의 두 부분으로서 경제적으로 서로 천갈래만갈래 련결되여있게 된다. 자산자는 임금로동자를 마음대로 지배하지 않고서는 생존할수도, 부유해질수도 없으며 무산자는 자본가에게 고용되지 않고서는 자기 생존을 유지할수 없다. 그들사이의 온갖 경제적련계의 단절은 온갖 생산의 단절을 의미하며 온갖 생산의 단절은 사회의 파멸, 계급자체의 멸망을 가져온다. 물론 어떠한 계급도 자체의 멸망을 원하지 않는다. 때문에 계급투쟁은 그것이 아무리 첨예하다 하더라도 사회의 분렬을 가져올수는 없다. 오직 맑스주의문제에 대한 무식과 언어의 본성에 대한 완전한 몰리해만이 우리의 일부 동지들로 하여금 사회의 분렬이니,《계급적》언어이니,《계급적》문법이니 하는 황당한 이야

기를 늘어놓게 한다.

다음으로 일부 사람들은 레닌을 인증한다. 즉 레닌이 자본주의제도하에서의 두가지 문화, 즉 자산계급문화와 무산계급문화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민족문화의 구호는 민족주의적구호라고 지적하였다는것을 상기시키고있다. 이 모든것은 다 옳은것이다. 레닌은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정확하다. 그러나 이것이 언어의 《계급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본주의제도하에서의 두가지 문화에 관한 레닌의 명제를 인증하고있는 이 동지들은 아마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것들을 고취하려고 한것 같다. 즉 사회에 두가지의 문화—자산계급문화와 무산계급문화가 존재하는 한 언어도 그것이 문화와 련결되여있음으로 하여 두가지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레닌은 단일한 민족언어의 필요성을 부인하고있다, 따라서 레닌은 《계급적》언어를 주장하고있다고. 여기에서 이런 동지들의 오유는 그들이 언어를 문화와 동일시하며 혼동하고있는데 있다. 기실 문화와 언어는 두개의 서로 다른 물건이다. 문화는 자산계급적일수도 있고 사회주의적일수도 있지만 언어는 교제수단으로서 언제나 전인민적이며 자산계급문화에도, 사회주의문화에도 복무할수 있다. 로씨야어, 우크라이나어, 우즈베크어가 10월혁명이전에 이들 민족의 자산계급문화에 복무하던것보다 결코 못지않게 오늘날 이들 민족의 사회주의문화에 복무하고있는것이 그래 사실이 아니란말인가? 결국 이 동지들은 두가지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는 두가지 서로 다른 언어를 형성시키며 단일한 언어의 필요성의 부인을 가져온다고 단언함으로써 매우 큰 오유를 범하고있다.

두가지 문화에 대하여 말할 때 레닌은 바로 다음과 같은 명제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두가지의 문화가 존재한다 하여 결코 단일한 언어를 부정하거나 두가지 언어의 형성을 초래하

지는 않을것이며 반대로 언어는 마땅히 단일적이여야 한다. 민족적언어의 필요성을 부인하며 문화를 《비민족적인》것으로 해석한다고 분느파83는 레닌을 비난하였다. 다 알다싶이 레닌은 이와 같은 론조를 준렬히 반박하면서 자기가 반대하는것은 자산계급문화이지 결코 그 존재의 필요성을 론쟁할 여지도 없는 민족언어를 반대하는것은 아니라고 언명하였다. 우리의 일부 동지들이 분느파의 꽁무니를 따라갔다는것은 괴이한 일이 아닐수 없다.

마치 레닌이 단일한 언어의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한것처럼 말하는것에 관하여는 레닌의 다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언어는 인간교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언어의 통일과 언어의 자유로운 발전은 현대자본주의에 적응되는 참으로 자유롭고 광범한 상업거래와 주민의 각 계급별로의 자유롭고 광범한 집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이다.》①

여기서 존경하는 동지들이 레닌의 견해를 외곡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람들은 쓰딸린을 인증한다. 그들은 《자산계급과 그 민족주의적당은 이 시기에 있어서 그러한 민족들의 주요한 령도적력량이였으며 또 계속 그러한 력량이였다.》②라고 한 쓰딸린의 말을 인용한다. 이 모든것은 다 정확하다. 자산계급과 그 민족주의적당은 무산계급과 그 국제주의적당이 무산계급의 문화를 령도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자산계급의 문화를 실제적으로 령도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이 언어의 《계급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민족언어가 민족문화의 형식이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권, 508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1권, 290페지를 보라.—편집자

며 민족언어가 자산계급문화에도, 사회주의문화에도 다같이 복무할수 있다는것을 이 동지들은 모른단말인가? 오늘날의 로씨야문화, 우크라이나문화, 백로씨야문화 및 기타의 문화가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이며 형식에 있어서는, 다시말하면 언어에 있어서는 민족적이라는 맑스주의자들의 유명한 공식을 이 동지들이 모른단말인가? 그들은 이 맑스주의적공식에 동의하는가?

여기에서 우리 동지들의 오유는 그들이 문화와 언어사이의 차이를 보지 못하며 문화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발전의 매개 새로운 시기마다 변화하지만 언어는 새로운 문화와 낡은 문화에 다같이 복무하면서 여러 시기에 걸쳐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언어로 남아있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

이리하여

(1) 교제수단으로서의 언어는 언제나 사회에 대하여 단일적이고 그 전체 성원들에 대하여 공통적이였으며 또 계속 그러하다.

(2) 관습어와 통용어의 존재는 전인민적언어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확증한다. 왜냐 하면 그것들은 전인민적언어의 결가지이며 또 전인민적언어에 종속되여있기때문이다.

(3) 언어의 《계급성》에 관한 공식은 그릇된 비맑스주의적 공식이다.

물음: 언어의 특징은 무엇인가?

대답: 언어는 사회적현상중의 하나로서 사회가 존재하는 그때로부터 언어라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사회의 발생 및 발전과 함께 발생하며 발전한다. 그것은 사회의 사멸과 함께 사멸한다. 사회의 밖에는 언어가 없다. 그러므로 언어와 그 발전법칙은 그것이 사회발전의 력사와 그리고 그 언어의 창조자

이며 사용자인 인민의 력사와 끊을수 없는 련계속에서 연구되는 경우에만 리해될수 있다.

언어는 사람들이 그것으로써 서로 교제하며 사상을 교환하며 호상 리해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도구이다. 언어는 사유와 직접적으로 련결되여있는바 그것은 단어와 그리고 문장에서의 단어결합에서 인간의 사유활동의 결과와 인식활동의 성과를 기록하고 확고히 하며 그리함으로써 인류사회에서의 사상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사상의 교환은 언제나 극히 필요한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이 없이는 자연력과의 투쟁에서, 필요한 물질적재부의 생산을 위한 투쟁에서 사람들의 협동적인 행동을 조절할수 없으며 사회의 생산활동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적생산의 존재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전 사회에 대하여 리해되고 그 전체 성원들에 대하여 공통적인 언어가 없이는 사회는 생산을 중지하게 되고 붕괴하게 되며 사회로서 존재할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어는 교제의 도구인 동시에 사회투쟁과 사회발전의 도구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언어가운데 있는 모든 단어는 전체로서 이른바 언어의 어휘구성을 이룬다. 언어의 어휘구성에서 주되는것은 기본어휘인데 이속에 핵심으로 되고있는 모든 근간적 단어①도 들어간다. 기본어휘는 언어의 어휘구성보다 그 범위는 훨씬 좁으나 아주 오래동안, 수세기에 걸쳐 생존하며 그 언어에 대하여 새로운 단어조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어휘구성은 언어발전의 상태를 반영한다. 즉 어휘구성이 풍부하고 다면적일수록 그 언어는 더욱 풍부하고 발달된 언어인것이다.

---

① 단 하나의 어근으로만 조성된 단순어를 가리킨다.—편집자

그러나 어휘구성은 그것만으로써는 아직 언어를 이루지 못한다. 그것은 오히려 언어를 위한 건설재료다. 건설사업에서 건설재료는 비록 그것 없이는 건물을 건축할수 없다 하더라도 그자체가 건물을 이루지 못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언어의 어휘구성도 비록 그것 없이는 어떠한 언어도 상상할수 없지만 그래도 언어 그자체인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어의 어휘구성은 그것이 언어의 문법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된다. 문법은 단어의 변화의 규칙, 문장에서의 단어의 결합의 규칙을 규정하며 그리하여 언어에 정연한 뜻있는 성격을 부여한다. 문법(형태론, 문장론)은 단어의 변화와 문장에서의 단어의 결합에 관한 규칙의 집성이다. 따라서 언어는 바로 문법에 의하여 인간의 사상을 물질적인 언어의 외피로 덮어쌀 가능성을 가진다.

문법의 특징은 그것이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라 아무런 구체성도 없는 일반적인 단어를 념두에 두면서 단어의 변화에 관한 규칙을 주며 그가 어떠한 구체적인 문장, 이를테면 구체적인 주어, 구체적인 술어 등등이 아니라 어떤 한 문장의 구체적형태와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모든 문장을 념두에 두면서 문장구성을 위한 규칙을 주는 점에 있다. 따라서 문법은 단어와 문장에서 특수적인것과 구체적인것을 추상해버리고 단어의 변화와 문장에서의 단어의 결합의 기초로 되여있는 일반적인것을 종합하여 이로부터 문법적규칙, 문법적법칙을 만든다. 문법은 인간사유의 장구한 추상활동의 성과이며 사유의 거대한 성과의 표징이다.

이 점에서 문법은 기하학을 상기시킨다. 기하학은 구체적인 대상을 추상해버리고 여러가지 대상을 구체성을 가지지 않은 물체로서 고찰하며 그것들사이의 관계를 어떠한 구체적대상의 구체적관계로서가 아니라 아무런 구체성도 가지지 않는

일반적물체들간의 관계로서 규정하면서 자기의 정리를 내세운다.

생산과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경제를 통하여 련결되여있는 상부구조와는 달리 언어는 인간활동의 례외없는 모든 령역에서의 다른 모든 활동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있다. 그러므로 언어의 어휘구성은 변화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것으로서 거의 부단한 변화상태에 처하여있으며 또 이밖에도 언어는 상부구조와는 달리 토대의 소멸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토대가 소멸되기전에 토대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어휘구성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언어의 어휘구성은 상부구조와 같이 낡은것을 폐지하고 새로운것을 건설하는 방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회제도의 변화, 생산의 발전, 문화, 과학 등등의 발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새로운 단어로써 현존하는 어휘를 보충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화한다. 이 경우에 언어의 어휘구성으로부터 약간의 페어가 빠져나가는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수효의 새로운 단어가 거기에 첨가된다. 기본어휘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보존되여 언어의 어휘구성의 기초로 리용된다.

이것도 명백한것이다. 만일 기본어휘는 그것이 일련의 력사적시기에 걸쳐 성과적으로 리용될수 있다면 이를 없애버릴 아무런 필요성도 없다. 짧은 기간내에 새로운 기본어휘를 창조할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기본어휘를 없애버린다면 언어를 마비시키고 사람들간의 교제사업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수 있다는데 관하여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언어의 문법구조는 그 기본어휘보다 훨씬 더디게 변화한다. 여러 시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언어의 살과 피 속에 들

어간 문법구조는 기본어휘보다 더욱 더디게 변화한다. 그것은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완성되며 자기의 규칙을 개선하고 정밀화하며 새로운 규칙으로써 풍부화되지만 문법구조의 기초는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것이 여러 시대에 걸쳐 성과적으로 사회에 복무할수 있었던만큼 매우 오랜 시기에 걸쳐 보존된다.

이리하여 언어의 문법구조와 그 기본어휘는 언어의 기초, 그 특성의 본질을 구성한다.

력사는 언어의 거대한 온정성과 강제적동화에 대한 비상한 저항성을 보여주고있다. 일부 력사가들은 이 현상을 설명할 대신에 다만 놀라기만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랄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언어의 온정성은 그 문법구조와 기본어휘의 온정성으로써 설명된다. 토이기의 동화주의자들은 수백년동안 발칸 각 민족 인민들의 언어를 유린하고 파괴, 소멸하려고 애썼다. 이 시기에 발칸의 언어들의 어휘구성은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고 토이기어의 단어와 표현들을 적지 않게 받아들였으며 《집결》과 《분리》도 있었으나 발칸의 각 민족 인민의 언어들은 견디여내였고 살아나왔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이 언어들의 문법구조와 기본어휘가 기본적으로 보존되였기때문이다.

이 모든것으로부터 언어 및 그 구조를 어느 한 시대의 산물로 볼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언어의 구조, 그 문법구조와 기본어휘는 여러 시대의 산물이다.

현대언어의 제 요소는 아주 오랜 옛적인 노예시대이전에 이미 그 기초가 마련되여있었다고 추측하여야 할것이다. 그것은 극히 빈약한 기본어휘구성과 자기의 문법구조를 가진, 물론 원시적이기는 하나 여하른 문법구조를 가진 복잡하지 않은 언어였다.

생산의 계속적인 발전, 계급의 출현, 문자의 출현, 관리를 위한 보다 정연한 문서왕복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탄생, 정연한 문서왕복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상업의 발전, 인쇄기의 출현, 출판물의 발전—이 모든것은 언어의 발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 종족들과 준민족(народность)들은 분리되고 분산되고 혼합되고 융합되였으며 그이후에는 민족언어들과 국가들이 출현하고 혁명이 진행됨으로써 낡은 사회제도들이 새 사회제도들에 의하여 교체되였다. 이 모든것은 언어와 그 발전에 더욱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언어의 발전이 상부구조의 발전과 같이 기존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것을 건설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유일것이다. 실지에 있어서 언어의 발전은 기존언어를 없애버리고 새 언어를 창조하는 방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기존언어의 기본요소를 발전시키며 개진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였다. 이때 언어의 한 질로부터 다른 질로의 이행은 폭발의 방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단꺼번에 낡은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것을 창설하는 방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 새로운 언어구조의 요소를 점차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축적하는 방법에 의하여, 낡은 질의 요소가 점차적으로 사멸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였다.

언어의 계단적발전의 리론은 낡은 질로부터 새로운 질로의 언어의 이행조건으로서 돌연적폭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만큼 그것이 맑스주의적리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물론 옳지 않다. 왜냐 하면 이 리론가운데서 맑스주의적인것을 발견하기는 어렵기때문이다. 그리고 만일에 계단성의 리론이 실지로 언어발전의 력사에서 돌연적인 폭발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이것은 더욱 좋지 못하다. 맑스주의는 언어의 발전에 있어서의 돌연적폭발, 기존언어의 돌연적사멸과 새 언어의

돌연적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파르그가 프랑스에서 《1789년과 1794년사이에 돌연적언어혁명이 수행되였다.》(라파르그의 소책자 《언어와 혁명》을 보라.)고 말한것은 옳지 못하였다. 그때 프랑스에는 어떠한 언어혁명도 없었으며 돌연적언어혁명이라 할만한것은 더구나 없었다. 물론 이 시기에 프랑스의 어휘구성은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로써 보충되고 약간의 폐어가 빠져나갔으며 약간의 단어들의 함의가 변하였다. 그리고 단지 이것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결코 언어의 운명을 추호도 결정하지 않는다. 언어에서 주되는것은 그 문법구조와 기본어휘이다. 프랑스어의 문법구조와 기본어휘는 프랑스자산계급혁명시기에 비단 소멸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도 없이 보존되였으며 또 비단 보존되였을뿐만아니라 오늘 현대프랑스어가운데 계속 살아남아있다. 기존언어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어를 창설(《돌연적언어혁명》1)하기 위해서는 5~6년의 시간이란 우스울만큼 적은것으로서 이를 위하여는 수백년이 필요하다는것에 관하여는 더 말하지도 않겠다.

맑스주의는 낡은 질로부터 새로운 질로의 언어의 이행은 폭발의 방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기존언어를 없애버리고 새 언어를 창조하는 방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의 요소의 점차적축적의 방법에 의하여, 따라서 낡은 질의 요소의 점차적사멸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인정한다.

총적으로 폭발에 매혹된 동지들에게 지적해주어야 할것은 폭발의 방법에 의한 낡은 질로부터 새로운 질로의 이행의 법칙은 비단 언어발전의 력사에 적용될수 없을뿐만아니라 토대 또는 상부구조에 속하는 다른 사회적현상에도 언제나 꼭 적용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 적대적계급으로 나뉘여져있는 사회에 대하여는 폭발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적대적계급을 가지지 않은 사회에 대하여는 폭발은 결코 필수적이 아니다. 8~

10년간에 우리는 우리 나라의 농업에서 자산계급적개인영농제도로부터 사회주의적집단농장제도에로의 이행을 실현하였다. 이것은 농촌에서의 낡은 자산계급적경제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 혁명이였다. 그러나 이 변혁은 폭발의 방법에 의하여, 즉 기존정권을 전복하고 새 정권을 수립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행된것이 아니라 농촌에서의 낡은 자산계급제도로부터 새 제도에로 점차 이행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였다. 그리고 이것을 수행할수 있었던것은 그것이 우로부터의 혁명이였기때문이며 이 변혁이 현 정권의 창도에 의하여, 기본농민대중의 지지밑에 수행되였기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력사상에 발생한 수많은 언어융합의 사실이 융합이 생길 때 폭발의 방법에 의하여, 낡은 질로부터 새로운 질로의 돌연적이행의 방법에 의하여 새로운 언어의 형성이 진행된다고 추측할 근거를 준다고 말한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언어의 융합을 몇해동안에 자기의 결과를 나타내는 한차례의 결정적인 타격행위로 보아서는 안된다. 언어의 융합은 수백년동안 계속되는 기나긴 과정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 어떠한 폭발에 관하여도 운운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만일 두 언어의 융합의 결과로써 그 두 언어의 어느 하나에도 비슷하지 않고 그중 어느것과도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제3의 언어가 생기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혀 잘못일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융합에서는 그중 한 언어가 대개는 승리자로 되여 자기의 문법구조와 자기의 기본어휘를 보존하고 자기 발전의 내적법칙에 따라 계속 발전하며 다른 언어는 점차적으로 자기의 질을 상실하고 점차적으로 사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융합은 어떤 새로운 제3의 언어를 만들어내는것

이 아니라 그중 한 언어를 보존하고 그 문법구조와 기본어휘를 보존하여 자기 발전의 내적법칙에 따라 발전할 가능성을 준다.

물론 이때 패배한 언어로부터 일부 단어들을 받아들여 승리한 언어의 어휘구성이 더 풍부하여진다. 그러나 이것은 승리한 언어를 약화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화하는것이다.

례컨대 로씨야어가 그러하였는바 그것은 력사적발전과정에서 다른 여러 민족의 언어와 융합되였으며 또 언제나 승리자로 되였다.

물론 로씨야어의 어휘구성은 이때 다른 언어들로부터 많은 단어들을 받아들여 보충되였지만 이것은 로씨야어를 약화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반대로 로씨야어를 풍부하게 만들었고 강화하였다.

로씨야어의 민족적특성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추호의 손실도 받지 않았다. 왜냐 하면 로씨야어는 자기의 문법구조와 기본어휘를 보존하면서 자기 발전의 내적법칙에 따라 계속 전진하고 완선화되였기때문이다.

언어융합론이 쏘련언어학에 아무러한 중요한것도 줄수 없다는데 대하여는 의심할바없다. 언어학의 주요한 임무가 언어발전의 내적법칙을 연구하는것이라는것이 옳다면 언어융합론은 비단 이 임무를 해결할수 없을뿐만아니라 이 임무를 제기조차 하지 않고있다.—그것은 바로 이 임무를 전혀 홀시하고있거나 또는 전혀 리해하지 못하고있다고 승인해야 할것이다.

물음: 《쁘라우다》지[4]가 언어학 제 문제에 관한 자유토론을 벌린것은 옳았는가?

대답: 옳았다.

어떠한 방향에서 언어학 제 문제가 해결될것인가—이것은 토론끝에 명백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도 토론은

이미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할수 있다.

토론은 무엇보다도먼저 중앙과 공화국들의 언어학기관내에 파학 및 파학일군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가 지배하고있었다는것을 해명하여놓았다. 쏘련언어학의 상태에 대한 극히 조그마한 비판도, 지어는 언어학에 있어서의 소위《신리론》에 대한 극히 대담치 못한 비판의 시도조차도 언어학의 지도집단으로부터의 박해를 받고 금지당하고있었다. 엔.야.마르의 유저를 비판적으로 대한탓으로, 엔.야.마르의 리론에 대하여 약간 찬동을 표하지 않은탓으로 언어학분야에서의 우수한 일군과 연구자들이 철직 또는 강직되였다. 일부 언어학일군들이 그의 재능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엔.야.마르의 리론을 무조건적으로 승인하는데 의하여 책임적지위에 등용되였다.

어떠한 과학도 의견의 론쟁, 비판의 자유가 없이는 발전하지 못하며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없다는것은 모두가 승인하는바이다. 그런데 모두가 인정하는 이 규칙이 무시되고 가장 란포하게 유린되였다. 스스로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지도자들이 있을수 있는 온갖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제멋대로 행패하기 위해 배타적인 소집단을 만들었다.

례를 하나 들어보자. 소위《바꾸강의》(바꾸에서 한 엔.야.마르의 강의)는 저자자신에 의하여 폐기되고 재출판이 금지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집단(메쌰니노브동지는 그들을 엔.야.마르의《제자들》이라고 부른다.)의 지시에 의하여 재출판되였으며 아무런 비판도 없이 학생들을 위한 참고서중의 하나로 추천되였다. 이것은 폐기된《강의》를 완전히 가치있는 참고서로 삼아 학생들을 기만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만일 내가 메쌰니노브동지와 기타 언어학일군들의 성실성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러한 행위가 해독행위와 같은것이라고 말하였을것이다.

무엇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생길수 있었는가?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것은 언어학계에 조성된 아락체예브식제도[84]가 무책임성을 배양하고 그러한 독단적행동을 고무하였기때문이다.

토론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이 아락체예브식제도를 백일하에 드러내여 그것을 철저히 분쇄한 까닭으로 극히 유익한것이였다.

그러나 토론의 성과는 이것만이 아니다. 토론은 언어학계의 낡은 제도를 분쇄하였을뿐만아니라 이 과학분야의 지도집단가운데서 지배하고있는, 언어학의 극히 중요한 제 문제에 관한 견해의 믿을수 없을만한 혼란을 드러내였다. 토론이 시작되기전까지 엔.야.마르의 《제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언어학계의 악렬한 상태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토론이 시작되여 더는 침묵을 지킬수 없게 되자 그들은 신문지상에 글을 발표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가? 엔.야.마르의 리론가운데는 원래 허다한 결함, 오유, 명확하지 않은 문제, 연구되지 않은 론점들이 존재한다는것이 판명되였다. 그래 엔.야.마르의 《제자들》은 무엇때문에 토론이 시작된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이런것들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는가? 무엇때문에 그들은 미리부터 이런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않았던가? 무엇때문에 그들은 과학일군답게 솔직하고 성실하게 이런것들에 대하여 제때에 말하지 않았던가?

엔.야.마르의 《몇가지》 오유를 인정한 엔.야.마르의 《제자들》은 앞으로 쏘련언어학을 발전시키려면 자기들이 맑스주의적이라고 간주하는, 《개정된》 엔.야.마르의 리론을 기초로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있는 모양이다. 아니다, 우리는 엔.야.마르의 《맑스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엔.야.마르는 확실히 맑스주의자로 되기를 원하였으며 또 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맑스주의자로 될수는 없었다. 그는 겨우 《무

산계급문화파》85나 《라프파》86와 마찬가지로 맑스주의를 단순화하고 비속화하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엔.야.마르는 언어를 상부구조로 보는 비맑스주의적인 그릇된 공식을 언어학에 도입하여 자신을 혼란시켰고 또 언어학을 혼란시켰다. 이런 그릇된 공식의 기초우에서는 쏘련언어학은 발전될수 없다.

엔.야.마르는 언어의 《계급성》에 관한 역시 그릇된 비맑스주의적인 다른 공식을 언어학에 도입하여 자신을 혼란시켰고 또 언어학을 혼란시켰다. 민족들과 언어들의 전 력사행정과 모순되는, 그릇된 이런 공식의 기초우에서는 쏘련언어학은 발전될수 없다.

엔.야.마르는 맑스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거만하고 우쭐대는 건방진 태도를 언어학에 도입하였다. 그러한 태도는 엔.야.마르이전의 언어학가운데 있었던 모든 성과를 경솔하게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엔.야.마르는 력사적비교방법87을 《유심주의》라고 하면서 요란스럽게 비난하고있다. 그러나 력사적비교방법은 그것이 가진 엄중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엔.야.마르의 진짜관념론적인 4요소분석법88보다는 낫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 하면 전자는 언어의 연구사업을 추진하지만 후자는 다만 삐치까우에 누워 악명높은 4요소를 둘러싸고 커피찌꺼기로 점을 치도록 추동할뿐이기때문이다.

엔.야.마르는 언어류별(족)연구의 온갖 시도를 《원시어》89리론의 발현이라고 거만하게 멸시하고있다. 그러나 례컨대 슬라브와 같은 민족들의 언어적친족성은 의심할바없다는것과 이런 민족들의 언어적친족성을 연구하는것은 언어발전의 법칙을 연구하는 면에서 언어학에 커다란 리익을 가져올수 있으리라는것은 부인할수 없다. 물론 《원시어》리론과 이 문제는 아무

런 관계도 없다.

엔.야.마르의 론법, 특히 그 《제자들》의 론법을 들으면 엔.야.마르이전에는 아무런 언어학도 없었으며 언어학은 엔.야.마르의 《신리론》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였다고 생각할수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훨씬 겸손하였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변증법적유물론을 철학까지도 포함한 그 이전시기의 과학발전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이리하여 이번 토론은 그것이 쏘련언어학의 사상적오유를 폭로하였다는 그 점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

나는 우리의 언어학이 엔.야.마르의 오유로부터 빨리 벗어나면 날수록 지금 빠져있는 위기로부터 더욱 빨리 벗어날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학에서의 아락체예브식제도의 청산, 엔.야.마르의 오유로부터의 해방, 언어학에의 맑스주의의 도입—이러한것이 쏘련언어학을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있는 방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1950년 6월 20일부 《프라우다》지 제171호에 게재

언어학의 몇가지 문제에 관하여

예. 크라쉐닌니꼬와동지에게 보내는 회답

크라쉐닌니꼬와동지!

동무의 물음에 대답하겠습니다.

1. 물음: 언어는 토대도 아니고 상부구조도 아니라는것이 당신의 론문에 설복력있게 증시되여있습니다. 언어는 토대와

상부구조 이 두가지에 다같이 고유한 현상이라고 간주하는것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언어를 중간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것이 더 옳습니까?

대답: 물론 사회적현상으로서의 언어는 토대와 상부구조도 포함한 모든 사회적현상에 고유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즉 언어는 토대와 상부구조도 포함한 다른 모든 사회적현상이 사회에 복무하고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복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현상에 고유한 그 공통적인것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그다음으로부터는 사회적 제 현상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바로 사회적 제 현상은 이 공통적인것외에 자기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제 현상을 서로 구별하고있으며 이것이 과학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 점에 있습니다. 토대의 독특한 특성은 그것이 경제적으로 사회에 복무하는 점에 있습니다. 상부구조의 독특한 특성은 그것이 정치적, 법률적, 미학적 및 기타의 견해로써 사회에 복무하고있으며 사회를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법률적 및 기타의 기관을 창건하는 점에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사회적 제 현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언어가 사람들의 교제수단으로서, 사회에서의 사상교환의 수단으로서, 인간활동의 모든 면에서, 즉 생산분야에서나 경제관계의 분야에 있어서나 정치분야에 있어서나 문화분야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사람들을 호상 리해하게 하며 공통적사업을 조절할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수단으로서 사회에 복무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 특성은 오직 언어에만 고유하며 또 바로 언어에만 고유하기때문에 언어는 독자적인 과학—언어학—의 연구대상으로 되는것입니다. 언어의 이 특성이 없다면 언어학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권리를 잃게 될것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언어는 토대의 부류에 넣을수 없으며 상부구조의 부류에도 넣을수 없습니다.

언어는 또한 토대와 상부구조사이의 《중간적인》 현상의 부류에도 넣을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중간적인》 현상이란 존재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언어를 사회의 생산력의 부류에, 말하자면 생산도구의 부류에 넣을수 없겠습니까? 실지 언어와 생산도구와의 사이에는 약간의 류사한 점이 있습니다. 즉 생산도구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계급들에 대하여 일종의 무관심성을 나타내며 낡은 계급이나 새 계급이나 사회의 같지 않은 계급에 대하여 꼭같이 복무할수 있습니다. 이 사정은 언어를 생산도구의 부류에 넣을 근거를 줍니까? 아닙니다, 주지 않습니다.

한때 엔.야.마르는 《언어는 토대우에 서있는 상부구조이다.》라는 그의 공식이 반박을 받게 되자 그것을 《개변》하기로 결심하고 《언어는 생산도구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엔.야.마르가 언어를 생산도구의 부류에 넣은것은 옳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옳지 못한것입니다.

문제는 언어와 생산도구간의 비슷한 점은 내가 방금 말한 그것뿐이라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생산도구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차이점은 생산도구는 물질자료를 생산하나 언어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며 겨우 단어밖에 《생산》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산도구를 가진 사람들은 물질자료를 생산할수 있으나 그 동일한 사람들이 생산도구가 없이 언어만을 가지고서는 물질자료를 생산할수 없습니다. 만일 언어가 물질자료를 생산할수 있다면 말꽁부쟁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들로 될것이라는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2. 물음: 맑스와 엥겔스는 언어를 《사상의 직접적인 실재》①로서, 《실천적인…현실적의식》②으로서 규정하고있습니다. 맑스는 《사상은 언어와 떨어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③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에 의하면 언어학은 언어의 의미적 측면, 의미론과 어의사학과 문체론을 어느 정도로 취급해야 합니까? 또는 언어학의 연구대상으로는 오직 형태만이 될수 있습니까?

대답: 의미론은 언어학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단어와 표현의 의미적측면은 언어연구사업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때문에 의미론은 언어학에서 그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미론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 자료를 리용하면서 결코 그 의의를 과대평가하여서는 안되며 더구나 그것을 람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나는 몇몇 언어학자들, 즉 의미론에 너무나 열중함으로써 사유와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여있는 《사상의 직접적인 실재》로서의 언어를 무시하고 사유를 언어와 분리시키면서 언어는 이미 낡은것으로 되였다느니 언어없이도 해나갈 수 있다느니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언어학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엔.야.마르의 다음과 같은 말에 주의를 돌리십시오.

《언어는 오직 그것이 음성으로 나타나는 한에 있어서만 존재한다. 사유의 활동은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도 진행된다.… 언어(음성적인)는 오늘날 무조건적으로 공간을 정복하고있는 최신의 발명들에 이미 자기의 기능을 넘겨주기 시작하였으나 사유는 과거에 리용되지 않은 그 축적물들과 새로운 성과들로써 번영하여가고있으며 완전히 언어를 배척

---

①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권, 525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44페지를 보라.—편집자
③ 맑스의 《경제학수고》, 한문판, 상책, 109페지를 보라.—편집자

하고 그것을 대체하게 될것이다. 미래의 언어는 자연적물질로부터 해방된 기술에서 자라나는 사유이다. 어떠한 언어도, 지어는 역시 자연의 규범과 련결된 음성적언어조차도 그앞에서는 견디여내지 못할것이다.》(엔.야.마르의《선집》을 보라.)

이 《마술적》인 괴상한 문장을 보통사람의 말로 번역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수 있습니다.

(1) 엔.야.마르는 사유를 언어와 분리시키고있다.

(2) 엔.야.마르는 사람들의 교제는 언어가 없이도 언어의 《자연적물질》로부터 《해방》되고 《자연의 규범》으로부터 해방된 사유자체의 힘을 빌어 실현될수 있다고 간주하고있다.

(3) 사유를 언어와 분리하며 사유를 언어의 《자연적물질》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엔.야.마르는 관념론의 진창속에 빠지고있다.

사상은 언어로 진술되기 이전에 사람의 머리가운데서 발생하며 언어적재료가 없이, 언어적외피가 없이, 말하자면 벌거벗은채로 발생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상이 사람의 머리가운데 발생하든지, 그리고 어떠한 때에 사상이 발생하든지 그것은 오직 언어적재료에 기초하여서만, 언어적단어와 문구에 기초하여서만 발생하고 존재할수 있습니다. 언어적재료를 떠난, 언어의 《자연적물질》을 떠난 벌거벗은 사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사상의 직접적인 실재》(맑스)입니다. 사상의 실재성은 언어우에서 나타납니다. 오직 관념론자들만이 언어의 《자연적물질》과 련결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 언어없는 자유에 관하여 말할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의미론의 과대평가와 그 람용은 엔.야.마르를 관념론에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엔.야.마르와 몇몇 그 《제자들》이 범하고

있는바와 같은 과장과 람용으로부터 의미론을 보호한다면 의미론은 언어학에 대하여 커다란 리익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3. 물음: 당신은 자산자와 무산자의 사상, 관념, 풍습 및 도덕원칙은 완전히 대립되고있다는데 관하여 아주 정당하게 지적하시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계급적성격은 언어의 의미적측면에(당신의 론문가운데에 옳게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때로는 언어의 형태, 즉 어휘구성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언어의 재료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어의 의미적측면을 분석할 때 언어가 개념의 계급적본질을 표현했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특히 인간의 사상뿐만아니라 그 계급적속성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현실에 대한 그 태도를 언어로 표현하는것이 문제로 되는 그러한 경우에 언어가 개념의 계급적본질을 표현했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대답: 간단히 말하면 동무는 다음과 같은것을 알고저 하고 있습니다. 계급들은 언어에 영향을 끼치는가? 계급들은 언어에 자기의 특수한 단어와 표현을 집어넣는가? 사람들은 계급적속성에 따라 동일한 단어와 표현에 각이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계급들은 언어에 영향을 끼치며 언어에 자기들의 특수한 단어와 표현을 집어넣으며 때로는 동일한 단어와 표현을 각이하게 리해합니다. 이것은 의심할바없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특수한 단어와 표현 및 의미에서의 차이가 단일한 전인민적언어의 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가질수 있다든가, 그것들이 전인민적언어의 의의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그 성격을 변화시킬수 있다든가 하는 결론을 내올수 없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특수한 단어 및 표현과 의미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전체 언어재료의 1%도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

수가 아주 적은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절대다수의 단어 및 표현과 그것들의 의미는 사회의 모든 계급에 대하여 **공통적**입니다.

둘째로, 계급적색채를 띤 특수한 단어와 표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계급적》문법의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현존하는 전인민적언어의 문법의 규칙에 따라 언어행위에서 리용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한 단어와 표현의 존재 및 의미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단일한 전인민적언어의 존재와 필요성을 론박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확증하는것입니다.

4. **물음**: 당신은 론문가운데서 마르를 맑스주의를 비속화한 사람이라고 매우 정확하게 평가하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까지 포함한 언어학자들이 마르의 **모든** 언어학적유산을, 다시말하면 거기에 일련의 가치있는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에 관하여는 토론가운데서 치끄바와, 싼제예브 및 기타 동지들이 쓰고있습니다.) 모두 포기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은 마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대하면서도 그에게서 유익하고 가치있는것을 받아들일수 없습니까?

대답: 물론 엔.야.마르의 저서들은 모두가 그릇된것은 아닙니다. 엔.야.마르는 그가 언어학에 외곡된 맑스주의의 요소를 집어넣었을 때, 그가 독자적인 언어리론을 창조하려고 시도하였을 때 극히 엄중한 오유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엔.야.마르에게는 재능있게 씌여진 훌륭한 개별적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서들에서는 그가 자기의 리론적야심을 잊어버리고 량심적으로 그리고 재치있게 개별적언어를 연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저서가운데는 가치있고 유익한것들이 적지 않게 있는바 그런것들을 엔.야.마르로부터 받아들이여 리용하여야 할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5. 물음: 쏘련언어학이 정체상태에 빠지게 된 기본원인의 하나는 **형식주의**라고 많은 언어학자들은 생각하고있습니다. 언어학에서의 형식주의란 어디에 표현되며 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여야 할것인가에 대하여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엔.야.마르와 그의 《제자들》은 엔.야.마르의 《신리론》에 찬동하지 않는 모든 언어학자들을 《형식주의》라고 비난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신중하지 못하며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엔.야.마르는 문법을 텅 빈 《형식》이라고 간주하였으며 문법구조를 언어의 기초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형식주의자라고 간주하였습니다. 이것도 매우 어리석은짓입니다.

《형식주의》라는것은 《신리론》의 창조자들이 언어학에서의 자기들의 적수들과의 투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꾸며낸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쏘련언어학이 정체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은 엔.야.마르와 그의 《제자들》이 고안해낸 《형식주의》인것이 아니라 언어학에서의 아락체예브식제도와 리론적결합입니다. 아락체예브식제도를 수립한것은 엔.야.마르의 《제자들》이였습니다. 리론적혼란을 언어학에 가져온것은 엔.야.마르와 그의 가까운 전우들이였습니다. 정체상태를 없애버리기 위하여서는 이 두가지를 다같이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병근의 숙청은 쏘련언어학을 건전하게 만들것이며 그것을 광활한 대로우에 내세울것이며 세계언어학에서 첫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을 쏘련언어학에 줄것입니다.

1950년 6월 29일

1950년 7월 4일부 《쁘라우다》지 제185호에 게재

동지들에게 보내는 회답

싼쥐예브동지에게

존경하는 싼쥐예브동지!

중앙위원회기관에서 어제야 당신의 편지를 전해주었기때문에 퍽 늦게야 회답을 드리게 됩니다.

당신은 방언과 관습어 문제에 대한 나의 관점을 아주 정확히 해석하고있습니다.

《계급적》관습어는 통용어라고 부르는것이 더 적당할것이며 그것은 인민대중에 복무하는것이 아니라 사회의 협소한 상층분자들에 복무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것들은 자기의 고유한 문법구조와 기본어휘를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것들은 결코 독자적인 언어로 발전할수 없습니다.

지방적(《지역적》)방언은 이와 반대로 인민대중에 복무하며 자기의 문법구조와 기본어휘를 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방적방언은 민족(нация)형성의 과정에서 민족언어의 기초로 될수 있으며 독자적인 민족언어로 발전할수 있습니다. 례컨대 로씨야민족언어의 기초로 된 로씨야어의 꾸르스크—오룔방언(꾸르스크-오룔《말》)이 그러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민족언어의 기초로 된 우크라이나어의 뽈따와—끼예브방언에 대하여도 그러하다는것을 말하여야겠습니다. 이들 언어의 다른 방언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들은 자기의 특성을 잃고 이들 언어에 합류되고있으며 이들 언어속에 소멸되고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발전과정도 있습니다. 즉 필요한 경제적발전조건의 결여로 말미암아 아직 민족(нация)으로 되지 못한 준

민족(народность)의 단일한 언어가 이 준민족(народность)의 국가적붕괴의 결과 와해되고말았고 미처 단일한 언어로 개조될수 없었던 지방적방언들이 오히려 활기를 띠여 개별적, 독자적 언어들로 형성될 기초로 되는 일이 있습니다. 례컨대 단일한 몽골어가 바로 이러하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1950년 7월 11일

1950년 8월 2일부 《프라우다》지 제214호에 게재

데.벨긴과 에스.푸레르 두 동지에게

당신들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들의 오유는 서로 다른 두 사물을 혼동하고 크라쉐닌니꼬와동지에게 보내는 나의 회답에서 고찰된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바꾸어놓은 점에 있습니다.

1. 엔.야.마르는 언어(음성적인)와 사유에 관한 문제에서 언어를 사유와 분리시키고있으므로 관념론에 빠지고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회답에서 그를 비판하였습니다. 보다싶이 내가 회답에서 말한것은 언어를 소유한 정상적인 사람을 두고 말한것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사상은 언어적재료에 기초하여서만 발생할수 있으며 언어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어적재료와 결부되지 않은 벌거벗은 사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명제를 접수하거나 또는 반박할 대신에 당신들은 언어를 가지지 않은 비정상적인 사람들, 다시말하면 언어를 가지지 않고 따라서 물론 그 사상이 언어적재료에 기초하여 발생할수 없는 귀먹고 말못하는 사람들을 들고나왔습니다. 보다싶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언급

하지도 않았으며 또 언급할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언어학이 언어를 가지고있지 않는 비정상적인 귀먹고 말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것이 아니라 언어를 가지고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기때문입니다.

당신들은 토론되고있는 문제를 토론되고있지 않는 다른 문제로 슬그머니 바꾸어놓았습니다.

2. 벨낀동지의 편지에 의하면 그는 《단어의 언어》(음성언어)와 《손짓언어》(엔.야.마르의 말에 의하면 《손의》 언어)를 동일시하고있는것이 명백합니다. 그는 아마 손짓언어와 단어의 언어는 동일한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한때 인류사회는 단어의 언어를 가지고있지 않았으며 그 당시에는 《손의》 언어가 후에 나타난 단어의 언어를 대신하고있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만일 벨낀동지가 참말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엄중한 오유를 범하고있습니다. 음성언어 또는 단어의 언어는 언제나 사람들의 교제의 완전한 수단으로 될수 있는 인간사회의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력사에는 아무리 락후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음성언어를 가지고있지 않은 그러한 인간사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속학은, 말하자면 19세기의 오스트랄리아 주민이나 푸에고섬주민[90]과 같이 또는 그보다도 훨씬 원시적인 민족(народец)이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음성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락후한 민족(народец)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음성언어는 인류력사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계로부터 구별되여나와 사회를 이루고 자기의 사유를 발전시키며 사회적생산을 조직하며 자연의 힘과의 성과적인 투쟁을 진행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진보에 도달하도록 도와준 힘의 하나입니다.

이 점에서 소위 손짓언어의 의의는 그것이 가진 국도의

빈약성과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아무 보잘것도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언어가 아니며 지어는 일정한 정도로 음성언어를 대신할수 있는 언어의 내용물조차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담화에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여 때로 리용하는, 표현방법에서 극히 제한된 보조적수단입니다. 손짓언어를 음성언어와 비교할수 없는것은 마치 원시적인 나무쟁기를 오련식 보습이나 파종기를 갖춘 현대적무한궤도뜨락또르와 비교할수 없는것과 같습니다.

3. 분명히 당신들은 무엇보다도먼저 귀먹고 말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야 언어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사실인즉 바로 이러한 사정이 당신들로 하여금 나에게 일련의 물음을 제기하도록 만든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기어코 알고싶다면 나는 당신들의 요청을 만족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귀먹고 말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사유가 활동하며 사상이 발생하고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유가 활동하며 사상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만일에 귀먹고 말못하는 사람이 언어를 상실하고있다면 그들의 사상이 언어적재료에 기초하여 발생할 수 없다는것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귀먹고 말못하는 사람의 사상이 《자연의 규범》(엔.야.마르의 표현)과 결부되지 않은 벌거벗은것이라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먹고 말못하는 사람의 사상은 시각, 촉각, 미각, 후각에 의하여 외계의 대상과 그 대상들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일상생활에서 그들에게 형성되는 모상, 지각, 표상에 기초하여서만 발생되며 또 존재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 지각, 표상이 없이는 사상은 공허한것이며 아무러한 내용도 가지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그런 사상은 존재하지 않습니

다.

1950년 7월 22일

1950년 8월 2일부 《쁘라우
다》지 제214호에 게재

아.홀로뽀브동지에게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업에 분주히 보내다보니 회답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당신의 편지는 무언중에 두개의 가정에서, 즉 어떤 저자의 저서를 인용함에 있어서 그 인용문이 론의하고있는 력사적 시기를 떠나서 그것을 인용할수 있다는 가정과 둘째로는 력사적발전의 한 시기를 연구하여 얻어진 맑스주의의 어떤 결론과 공식이 발전의 모든 시기에 정확성을 가지며 따라서 불변의것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있습니다.

이 두 가정은 아주 그릇된것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례를 몇가지 들어봅시다.

1. 아직 독점자본주의가 없었으며 자본주의가 아직 그것에 의하여 점령되지 않은 새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상승선을 따라 어느 정도 거침없이 발전하였으며 발전의 불균형법칙이 아직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작용할수 없었던 19세기 40년대에 맑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혁명이 어떤 한 나라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그것은 모든 또는 대다수의 문명한 나라들에서 공동적 공격의 결과로써만 승리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결론은 그후 모든 맑스주의자들에 대하여 지도적인 명제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독점이전의 자본주의가 뚜렷하게 독점자본주의로 변하였다는것이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되였고 상승적인 자본주의가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로 변하였고 전쟁이 세계제국주의 전선의 고칠수 없는 약점을 폭로하고 발전의 불균형법칙이 여러 나라들에서의 무산계급혁명의 성숙의 비동시성을 미리 규정하여놓은 20세기초, 특히 제1차세계대전시기에 레닌은 맑스주의리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발전조건밑에서 사회주의혁명은 개별적인 한 나라에서 완전히 승리할수 있으며 모든 나라 또는 대다수의 문명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동시적승리는 이 나라들에서의 혁명성숙의 불균형성때문에 불가능하며 맑스와 엥겔스의 낡은 공식은 새로운 력사적조건에는 이미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보다싶이 우리는 여기에서 사회주의승리의 문제에 관하여 서로 모순될뿐만아니라 서로 배척하고있는 두개의 서로 다른 결론을 가지고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구명하지 않고 력사적조건을 떠나서 형식적으로 인증하는 어떤 독경주의자들이나 훈고학자들은 이 결론들중에서 하나는 절대적으로 옳지 않은것으로서 포기되여야 하고 다른 결론은 절대적으로 옳은것으로서 발전의 모든 시기에 적용되여야 한다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독경주의자들이나 훈고학자들이 오유를 범하고있다는 것을 모르고있을수 없으며 이 두 결론은 다같이 정확하나 절대적으로 정확한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만 정확하다는것, 즉 맑스와 엥겔스의 결론은 독점이전의 자본주의시기에 정확하고 레닌의 결론은 독점자본주의시기에 정확하다는것을 모르고있을수 없습니다.

2. 엥겔스는 자기의 저서 《반듀링론》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이후에는 국가는 사멸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①. 여기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이후 우리 당내의 독경주의자들과 훈고학자들은 우리 국가를 아주 급속하게 사멸시키고 국가기관을 해산시키고 상비군을 해체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것을 당에 요구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쏘련의 맑스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세계정세를 연구한 기초우에서 사회주의혁명이 한 나라에서만 승리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가 지배하고있는 그러한 자본주의적포위의 존재하에서는 혁명에서 승리한 나라가 자본주의적포위에 의하여 격멸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자기의 국가, 국가기관, 정찰기관, 군대를 약화시킬것이 아니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은 엥겔스의 공식은 모든 나라 또는 대다수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승리를 념두에 둔것이며 그것은 사회주의가 개별적인 한 나라에서 승리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지배하고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적용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보다싶이 우리는 여기에 사회주의국가의 운명의 문제에 관하여 서로 배척하고있는 두개의 서로 다른 공식을 가지고있습니다.

독경주의자들과 훈고학자들은 이러한 사태는 참을수 없는 정세를 조성한다, 그중 한 공식은 절대적으로 그릇된것으로서 포기하여야 하며 다른 공식은 절대적으로 옳은것으로서 사회주의국가발전의 모든 시기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말할것입니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이 두 공식이 다같이 정확하나 절대적으로 정확한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만 정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320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확하기때문에, 즉 쏘련맑스주의자들의 공식은 한 나라 또는 몇 개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시기에 정확하고, 엥겔스의 공식은 개별적인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련속적승리가 대다수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가져오고 이리하여 엥겔스의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이 조성된 그러한 시기에 정확한것이기때문에 독경주의자들과 훈고학자들은 오유를 범하고있다는것을 모르고있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례는 더 많이 들수 있을것입니다.

홀로뽀브동지가 쓰딸린의 여러 저서들에서 발취하여 자기의 편지가운데에 인증한 언어문제에서의 서로 다른 두 공식에 관하여서도 이와 같다고 말하여야 하겠습니다.

홀로뽀브동지는 쓰딸린의 저서《언어학에 있어서의 맑스주의에 관하여》를 인증하고있습니다. 그곳에는 말하자면 두 언어의 융합의 결과로 그중 한 언어가 대개는 승리자로 되여나오고 다른 언어는 사멸하며 따라서 그 융합은 어떠한 새로운 제3의 언어를 낳는것이 아니라 그중 한 언어를 보존한다는 결론이 지어져있습니다. 다음 그는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제16차대회에서의 쓰딸린의 보고에서 다른 결론을 인증하고있습니다. 그곳에는 사회주의가 강화되여 일상생활에 침투되는 세계적규모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시기에는 각 민족어들은 불가피적으로 한개의 공통어로 융합되여야 할것이며 이 공통어는 물론 로씨야어도, 독일어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언어일 것이라는 결론이 진술되여있습니다①. 이 두 공식을 대비하여 그것들이 서로 합치되지 않을뿐만아니라 서로 배척하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홀로뽀브동지는 절망에 빠지고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습니다.《당신의 론문에서 나는

①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2권, 320~321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언어의 융합으로부터는 어느때나 결코 어떤 새로운 언어가 나올수 없다는것을 리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론문이 나오기 이전에는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제16차대회에서 한 당신의 연설에 근거하여 공산주의의 시기에서는 언어들이 한개의 공통어로 융합된다고 굳게 믿고있었습니다.»

홀로뽀브동지는 이 두 공식사이의 모순을 발견하고 모순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고 굳게 믿으면서 공식중의 하나는 정확하지 않은것인만큼 그것을 버려야 하며 또 하나의 공식은 모든 시기, 모든 나라에 정확한것인만큼, 그것을 틀어쥐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으나 바로 어느 공식을 틀어쥐여야 할것인가 하는것은 알지 못하고있는것이 분명합니다. 막다른골목에 이른것 같았습니다. 홀로뽀브동지는 두 공식이 각각 자기의 시대에 정확할수 있다는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있습니다.

독경주의자들과 훈고학자들은 항상 이러합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구명하지 않고 인용문이 론의하고있는 력사적 조건과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인증하면서 언제나 막다른골목에 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명한다면 막다른골목에 들어갈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문제는 쓰딸린의 소책자 《언어학에 있어서의 맑스주의에 관하여》와 제16차당대회에서 한 쓰딸린의 연설이 두개의 전혀 다른 시대를 념두에 두고있으며 그 결과 공식도 다른것이 나왔다는데 있습니다.

쓰딸린의 소책자중 언어융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의 그의 공식은 착취계급들이 세계에서 지배적세력으로 되여있고 민족적 및 식민지적 압박이 여전히 계속되고 민족적고립성과 민족들의 호상불신임이 국가적차이에 의하여 강화되고있고 민족적평등이 아직 없고 언어의 융합이 그중 한 언어의 지배적 지위를 위한 투쟁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민족들과 언어들의 평

화적, 우호적 협조를 위한 조건들이 아직 없고 언어들의 협조와 호상풍부화가 일정에 나서고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들의 동화와 다른 언어들의 승리가 일정에 나서고있는 세계적규모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이전의** 시대를 념두에 두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밑에서는 다만 승리한 언어들과 패배한 언어들밖에 있을수 없다는것은 명백합니다. 쓰딸린의 공식이 말하자면 두개의 언어의 융합은 결과에 있어서 새로운 언어의 형성을 가져오는것이 아니라 그중 한 언어의 승리와 다른 언어의 패배를 가져온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조건들을 념두에 두고있습니다.

제16차당대회에서의 연설중, 하나의 공통어로의 언어들의 융합에 관한 쓰딸린의 다른 한 공식에 대해 말한다면 이곳에서는 다른 시대, 즉 세계적제국주의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착취계급들이 전복되고 민족적 및 식민지적 압박이 청산되고 민족적고립성과 민족들간의 호상불신임이 민족들간의 호상신임과 접근으로써 교체되고 민족적평등이 실현되고 언어들의 억압 및 동화 정책이 청산되고 민족들간의 협조가 원만히 진행되고 민족언어들이 협조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서로 풍부히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전 세계적 규모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이후**의 시대를 념두에 두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밑에서는 어떤 언어들의 피억압과 패배와 다른 언어들의 승리에 대하여는 운운할 여지도 없다는것이 명백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은 하나가 패배하고 다른 하나가 투쟁에서 승리자로 되여나오는 그러한 두개의 언어를 문제로 삼게 될것이 아니라 수백의 민족언어를 문제로 삼게 될것인바 민족들의 장구한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협조의 결과 이 수백의 민족언어들로부터 처음에는 가장 풍부히 된 단일한 지역적언어들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지역적언어들이 하나의 공통적인 국제어로 융합될것입니다.

이 국제어는 물론 독일어도, 로씨야어도, 영어도 아니고 민족적 및 지역적 언어들의 훌륭한 요소들을 자체내에 섭취한 새로운 언어일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공식은 사회발전의 서로 다른 두 시대에 상응하고있으며 바로 이 공식들이 그러한 시대에 상응하고있기때문에 각각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정확한것입니다.

이 공식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그것들이 서로 배척하지 않을것을 요구하는것은 마치 자본주의지배시대가 사회주의지배시대와 모순되지 않으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배척하지 않을것을 요구하는것과 같이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독경주의자들과 훈고학자들은 맑스주의와 그 개별적 결론 및 공식을 사회발전의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영원히》변하지 않는 교조의 집합물로 간주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암기한 결론과 공식이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 생활상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리라는 타산밑에 만일 그들이 이 결론과 공식을 암기하고 그것을 제멋대로 인용한다면 어떠한 문제나 다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맑스주의의 문자는 보나 그 본질은 보지 못하며 맑스주의의 결론과 공식은 암기하나 그 내용은 리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뿐입니다.

맑스주의는 자연 및 사회의 발전법칙에 관한 과학이며 피압박, 피착취 군중의 혁명에 관한 과학이며 모든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과학이며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에 관한 과학입니다. 과학으로서의 맑스주의는 한자리에 서있을수 없습니다. —그것은 발전하여가고있으며 완성되여가고있습니다. 맑스주의는 자기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지식으로써 풍부화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개별적 공식과 리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을수 없으며 새

로운 력사적임무에 상응하는 새로운 공식과 결론으로써 교체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맑스주의는 모든 시대와 시기에 절대적으로 적응하는 불변의 결론과 공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맑스주의는 온갖 교조주의의 적입니다.

1950년 7월 28일

1950년 8월 2일부 《쁘라우다》지 제214호에 게재

《쓰딸린선문집》, 한문판, 520～559페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경제문제[91]

경제문제토론회의 참가자들에게

1951년 11월토론회와 관련된 경제문제에 관한 의견

나는 정치경제학교과서초고의 평가와 관련하여 진행된 경제문제토론회의 모든 문건을 받았다. 그가운데는 《정치경제학교과서초고의 개선에 관한 제의》, 《초고의 오유와 부정확한 점을 제거할데 관한 제의》, 《론쟁문제에 관한 설명자료》가 포함되여있다.

이 모든 자료와 교과서초고에 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경제법칙의 성격에 관한 문제

어떤 동지들은 과학의 법칙이 가지는 객관적성격, 특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정치경제학법칙의 객관적성격을 부인한다. 그들은 정치경제학의 법칙이 사람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제 과정의 합법칙성을 반영하고있다는것을 부인한다. 그들은 력사가 쏘베트국가에 부과한 특수한 역할로 말미암아 쏘베트국가와 그 지도자들은 정치경제학의 현존법칙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칙을《제정》하며 새로운 법칙을《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다.

이 동지들은 그야말로 아주 잘못 생각하고있다. 두말할것도 없이 그들은, 사람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자연 또는 사회의 객관적과정을 반영하는 과학의 법칙을 정부가 발표하며 사람들의 의지에 의하여 제정되며 법률적효력만을 가지는 법률과 혼동하고있는듯하다. 그런데 이 두가지는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맑스주의는 과학의 법칙을—자연과학의 법칙이거나 정치경제학의 법칙이거나를 막론하고—사람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객관적과정의 반영이라고 리해한다. 사람들은 이런 법칙을 발견하며 인식하며 연구하며 자기들의 행동에서 이를 고려하며 사회에 리롭게 이를 리용할수는 있지만 이 법칙을 변경하거나 폐기할수는 없으며 새로운 과학의 법칙을 제정하거나 창조할수는 더구나 없는것이다.

이것은 례컨대 자연법칙의 작용의 결과 즉 자연력의 결과는 근본적으로 피면할수 없다거나 자연력의 파괴적작용은 어느때 어디서나를 물론하고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불가항력적힘을 가지고 출현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아니다, 그런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천문, 지질 및 기타 이와 류사한 일부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것들의 발전법칙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들에 영향을 줄수 있는 힘은 없는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제외한 기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결코 무능력한것이 아니다. 다시말하면 사람들은 자연의 과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연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려하고 그것들에 의거하여 그것들을 능숙하게 적용하고 리용하기만 하면 자연법칙의 작용범위를 제한할수 있으며 자연의 파괴력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

하여 그것을 사회에 유리하게 전화시킬수 있는것이다.

허다한 실례중에서 하나만을 들어보기로 하자. 고대에는 큰 강의 범람, 홍수 및 이로 인한 주택 및 농작물의 류실은 사람들의 힘으로써는 어찌할수 없는, 막아낼길없는 재해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후에 와서 인류의 지식이 발전됨에 따라 사람들이 방축과 수력발전소를 건설할줄 알게 되자 사회는 이전에는 어찌할수 없는것으로 생각되여오던 홍수재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사람들은 또 자연의 파괴력을 제어하는것, 말하자면 그것에다 굴레를 씌워 물의 힘을 사회에 유리하게 만들며 밭을 관개하고 에네르기를 얻는데 물을 리용할줄 알게 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사람들이 자연법칙이나 과학의 법칙을 폐기하고 새로운 자연법칙, 새로운 과학의 법칙을 창조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런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물의 파괴력의 작용을 방지하며 그것을 사회에 리롭게 리용하는 이 전반 사업과정이 과학의 법칙을 조금이라도 위반하거나 변경하거나 폐기함이 없이, 새로운 과학의 법칙을 창조함이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 있다. 도리여 이러한 모든 사업과정은 자연의 법칙과 과학의 법칙에 정확하게 립각하여 실현된다. 왜냐 하면 자연법칙에 대한 위반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의 혼란과 사업과정의 파탄을 가져올따름이기때문이다.

경제발전법칙, 정치경제학의 법칙에 관해서도—자본주의시기거나 사회주의시기거나를 막론하고—이와 꼭같이 말하여야 할것이다. 여기에서도 자연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발전법칙은 사람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경제발전과정을 반영하는 객관적법칙이다. 사람들은 이 법칙들을 발견하며 인식하며 또 그것들에 의거하며 그것들을 사회에 유리하게 리

용하며 어떤 법칙들의 파괴적작용을 다른 방향에로 인도하며 그 작용범위를 제한하며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있는 다른 법칙에다 광활한 길을 열어줄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법칙들을 폐절하거나 새로운 경제법칙을 창조할수는 없는것이다.

정치경제학의 특징의 하나는 그 법칙이 자연과학의 법칙과 달라서 장구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적어도 그 대다수는 일정한 력사적시기에 작용하다가 그후에는 새로운 법칙에 자리를 내여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 법칙들은 폐절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조건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상실하고 무대로부터 물러나 새로운 법칙에 자리를 내여주는데 이 새로운 법칙도 사람들의 의지에 의하여 창조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조건의 토대우에서 발생하는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엥겔스의 《반듀링론》을 인증한다. 즉 자본주의의 청산과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함께 인간은 자기의 생산수단에 대한 권력을 획득할것이며 사회경제적 제 관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할것이며 자기의 사회생활의 《주인》으로 될것이라는 엥겔스의 공식을 인증한다. 엥겔스는 이 자유를 《인식된 필연성》①이라고 부르고있다. 그러면 《인식된 필연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객관적법칙(《필연성》)을 인식한후이면 그것을 충분히 의식적으로 사회를 위하여 적용하게 되리라는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엥겔스는 이 저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지금까지는 인간을 지배하는 외적자연법칙으로서 인간과 대립하고있던 인간자신의 사회적행위의 법칙이 이제는 인간에 의하여 능숙하게 리용될것이며 그리하여 인간의 지배에 복종될것이다.》②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153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②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323페지를 보라.—편집자

보는바와 같이 엥겔스의 이 공식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현존경제법칙을 폐절하고 새로운 경제법칙을 창조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유리한것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공식은 경제법칙의 폐절을 요구하고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인식과 능숙한 적용을 요구하고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법칙은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띠고있다느니, 이 법칙의 작용은 막아낼수 없다느니, 사회는 그앞에서 무능력하다느니 하고 말하고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법칙에 대한 물신숭배이며 자기를 법칙의 노예로 만드는것이다. 사회는 법칙앞에서 결코 무능력하지 않으며 바로 자연력 및 그 법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큰 강의 범람에 관한 상술한 실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는 경제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작용범위를 제한하며 사회를 위하여 그것들을 리용하여 그것들을 《굴레를 씌울》수 있다는것이 증명되였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의 쏘베트정권의 특수한 역할을 인증하면서 이러한 특수한 역할로 하여 마치 쏘베트정권은 현존경제발전법칙을 폐절하고 새로운 경제발전법칙을 《제정》할수 있는듯이 말하고있다. 이것도 역시 옳지 않다.

쏘베트정권의 특수한 역할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정으로써 설명된다. 즉 첫째로 쏘베트정권은 종래의 혁명처럼 한 착취형태를 다른 착취형태로 바꾸어놓을것이 아니라 온갖 착취를 청산하여야 하였으며 둘째로 국내에 사회주의경제의 그 어떤 기성적맹아도 없었기때문에 쏘베트정권은 말하자면 《빈터》에다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형태를 창조하여야 하였다는것이다.

이 임무는 두말할것도 없이 전례없는, 그야말로 곤난하고 복잡한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베트정권은 이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쏘베트정권이 이 임무를 수행한

것은 결코 그가 현존경제법칙을 폐절하고 새로운 경제법칙을 《제정》하였기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쏘베트정권이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관계의 필수적적응의 경제법칙에 의거하였기때문인것이다. 당시 우리 나라의 생산력 특히 공업에서의 생산력은 사회적성격을 가지고있었지만 소유제형태는 사적이며 자본주의적이였다.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관계의 필수적적응의 경제법칙에 의거하여 쏘베트정권은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여 그것을 전체 인민의 재산으로 만들었으며 그리하여 착취제도를 폐절하고 사회주의적경제형태를 창조하였다. 이 법칙이 없었거나 이 법칙에 의거하지 않았더라면 쏘베트정권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관계의 필수적적응의 경제법칙은 오래전부터 벌써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있다. 그것이 아직 자기의 길을 개척하지 못하였고 또 광활한 길에 나서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이 법칙이 죽어가는 사회세력의 극히 강력한 저항을 받고있기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제법칙의 다른 특성을 보게 된다. 새로운 법칙의 발견과 적용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자연과학의 법칙과는 달리 경제학분야에서는 죽어가는 사회세력의 리익에 저촉되는 새로운 법칙의 발견과 적용은 이 죽어가는 세력의 극히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 저항을 능히 극복할수 있는 세력, 즉 사회세력이 필요하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세력이 사회의 압도적다수를 이루고있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으로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나라 즉 자본주의나라들에는 아직 이러한 세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 쏘베트정권이 낡은 사회세력을 분쇄할수 있었고 또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관계의 필수적적응의 경제법칙이 우리 나라에서 충분히 작용할수 있게 된 비밀이 있는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의 필연성이 쏘베트정권으로 하여금 현존경제법칙을 폐절하고 새로운 경제법칙을 창조할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우리의 년간계획과 5개년계획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의 객관적경제법칙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법칙은 자본주의제도하에서의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의 대립물로서 발생한것이다. 이 법칙은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이 효력을 상실한후 생산수단의 사회화의 토대우에서 발생하였다. 이 법칙이 작용하게 된것은 사회주의적인민경제가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의 경제법칙에 기초해서만 운영될수 있기때문이다. 이것은 인민경제의 계획적 발전법칙이 우리의 계획기관들에 사회적생산을 정확하게 계획화할 **가능성**을 주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능성**을 **현실성**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서로 다른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경제법칙을 연구하여야 하며 장악하여야 하며 그것을 능숙하게 적용할줄 알아야 하며 이 법칙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하는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우리의 년간계획과 5개년계획이 이 경제법칙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하고있다고는 말할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작용하고 있는 가치법칙도 포함한 어떤 경제법칙들은 계획경제의 기초우에서 《개조된》 또는 심지어 《근본적으로 개조된》 법칙이라고 말하고있다. 이것도 옳지 않다. 법칙은 《개조》할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개조》할수는 더구나 없다. 만일 법칙을 개조할수 있다면 그것을 폐절하고 다른 법칙으로 바꾸어놓을수도 있을것이다. 법칙을 《개조》할수 있다는 주장은 법칙을 《폐절》하고 《제정》할수 있다는 옳지 않은 공식의 잔재이다. 경제법칙을 개조할수 있다는 공식은 우리 나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퍼지고있기는 하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이 공식을 포기하여야 할것이다. 이러저러한 경제법칙의 작용범위를 제한할수는 있으며 또 그 파괴적작용(물론 그런것이 있는 경우에)을 방지할수는 있다. 그러나 법칙을 《개조》하거나 《폐절》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연력 또는 경제력의 《정복》, 그것에 대한 《지배》라고 할 때 그것은 결코 과학의 법칙을 《폐절》할수 있다거나 《제정》할수 있다고 말하려는것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사람들이 법칙을 발견하며 인식하며 파악하며 능숙하게 적용하는것을 배우며 사회를 위하여 리용하며 그리하여 그것들을 정복하며 그것들을 지배할수 있다는것을 말하려는것뿐이다.

요컨대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정치경제학의 법칙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경제생활과정의 합법칙성을 반영하는 객관적법칙인것이다. 이 명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과학을 부인하는것이며 또 과학을 부인함으로써 온갖 예견의 가능성을 부인하는것이며 따라서 경제생활에 대한 지도의 가능성을 부인하는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모든것은 다 옳은것이며 또 누구나 다 아는것이며 거기에는 새로운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따라서 누구나 다 아는 진리를 되풀이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을것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실 새로운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있는 몇가지 진리를 되풀이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것은 옳지 않다. 문제는 해마다 수천명의 새로운 젊은 간부들이 지도적핵심인 우리에게 접근하고있으며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려는 절절한 념원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보려는 의욕에 불타고있으나 충분한 맑스주의적교양을 받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잘 알고있는 많은 진리를 모르고있으며 따라서 어둠속에서 헤매지

않을수 없다는데 있다. 그들은 쏘베트정권의 거대한 성과에 경탄하고있으며 쏘베트제도의 비상한 성공에 현혹증을 느끼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쏘베트정권은 《무엇이나 다 할수 있다》, 쏘베트정권은 《모든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쏘베트정권은 과학의 법칙을 폐절하고 새로운 법칙을 제정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동지들을 어떻게 할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맑스-레닌주의의 정신으로 교양할것인가? 나는 소위 《누구나 다 아는》 진리를 계통적으로 되풀이하고 그것을 꾸준히 해설하는것이 이러한 동지들을 맑스주의적으로 교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2.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상품생산에 관한 문제

어떤 동지들은 당이 우리 나라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한 이후에도 상품생산을 그대로 두어둔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당이 그때에 벌써 상품생산을 없애버렸어야 할것이였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엥겔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증하고있다.

《일단 사회가 생산수단을 장악하면 상품생산이 제거될것이며 그와 함께 생산자에 대한 생산물의 지배도 제거될것이다.》(《반듀링론》을 보라.)①

이런 동지들은 아주 잘못 생각하고있다.

우리는 엥겔스의 공식을 분석하여보기로 하자. 엥겔스의 이 공식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것이라고는 인정할수 없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사회가 **모든** 생산수단을 다 장악하는가 아니면 생산수단의 일부분만을 장악하는가, 즉 **모든** 생산수단을 전인민적소유로 하는가 아니면 생산수단의 일부분만 전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323페지를 보라.—편집자

인민적소유로 하는가 하는것이 지적되여있지 않기때문이다. 이것은 엥겔스의 이 공식을 이렇게도 리해할수 있고 저렇게도 리해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반듀링론》의 다른개소에서 엥겔스는 《모든 생산수단》의 장악, 《생산수단의 총체》의 장악에 대하여 말하고있다. 그러므로 엥겔스는 자기의 공식에서 생산수단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것, 즉 공업에서뿐만아니라 농업에서도 생산수단을 다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것을 념두에 두고있는것이다.

결국 엥겔스는 나라의 모든 생산수단을 수탈하여 그것을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리만큼 공업에서뿐만아니라 농업에서도 자본주의와 생산의 집적이 충분히 발전된 그러한 나라들을 념두에 두고있는것이다. 따라서 엥겔스는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함께 상품생산을 없애버려야 할것이라고 인정하고있다. 이것은 물론 옳다.

이러한 나라는 19세기말엽 즉 《반듀링론》이 출판된 때에는 오직 영국 한 나라뿐이였다. 당시 거기에서는 공업에서뿐만아니라 농업에서도 자본주의의 발전과 생산의 집적이 이미 무산계급이 정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내의 모든 생산수단을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고 상품생산을 일상생활에서 없애버릴수 있으리만한 정도에까지 이르고있었다.

여기에서 나는 영국 인민경제에서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외무역이 영국에 대하여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있는가 하는 문제는 고려에 넣지 않고있다. 나는 오직 이 문제를 연구한후에라야만 무산계급이 정권을 취득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한후의 영국의 상품생산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19세기말엽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날에 있어서도 농

업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과 생산의 집적이 영국에서와 같은 그런 정도에 도달한 나라는 아직 하나도 없다. 다른 나라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 나라들에는 농촌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산계급이 정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운명을 결정하여야 할 상당히 많은 수의 중소소유자—생산자계급이 아직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즉 만일 우리나라도 포함한 어떤 나라에 무산계급이 정권을 취득하고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이 있으며 또 공업에서는 자본주의가 생산수단을 고도로 집적시키고있기때문에 그것을 수탈하여 사회의 소유로 넘길수 있으나 농업은 자본주의가 장성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수한 중소소유자—생산자들 사이에 분산되여있어서 이 생산자들을 수탈하는 문제를 제기할수 없다면 무산계급과 그 정당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엥겔스의 공식은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고있다. 또 이 공식은 이 문제에 대답할수도 없다. 왜냐 하면 이 공식은 다른 문제, 즉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화된후에 상품생산이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문제의 토대우에서 발생하였기때문이다.

그러면 만일 **모든** 생산수단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일부분만이 사회화될수 있고 무산계급이 정권을 탈취할 유리한 조건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무산계급은 정권을 탈취해야 할것인가 또 정권을 탈취한후에 즉시 상품생산을 없애버려야 할것인가?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정권탈취를 거부하고 자본주의가 수백만의 중소생산자들을 령락시켜 그들을 고농으로 전락시키며 농업에서 생산수단을 집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것이며 이렇

게 된후에야 비로소 무산계급이 정권을 탈취하며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이라고 인정하는 약간의 가련한 맑스주의자들의 의견은 물론 대답이라고 할수 없다. 맑스주의자들이 심한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러한 《출로》를 택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물론이다.

아마 정권을 탈취하고 농촌의 중소생산자들을 수탈하여 그들의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가련한 맑스주의자들의 의견도 역시 대답이라고 인정할수가 없다. 이 황당하고도 범죄적인 길로도 역시 맑스주의자들은 나아갈수 없다. 왜냐 하면 이 길은 무산계급혁명승리의 온갖 가능성을 무너뜨릴것이며 농민을 오래동안 무산계급의 적들의 진영으로 쫓아버릴것이기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레닌이 《현물세》에 관한 자기의 저작들과 유명한 《협동조합계획》에서 대답을 주었다.

레닌의 대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권탈취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놓치지 말며 자본주의가 중소개인생산자들인 수백만의 주민을 령락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무산계급은 정권을 탈취할것,

(2) 공업에서의 생산수단을 수탈하여 그것을 전인민적소유로 넘길것,

(3) 중소개인생산자들을 점차로 생산협동조합 즉 대규모 농업기업소, 집단농장에 련합시킬것,

(4) 공업을 배방으로 발전시켜 집단농장을 대규모적생산의 현대적인 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것, 그리고 집단농장들을 수탈할것이 아니라 반대로 집단농장에 1등급의 뜨락또르와 기타 기계를 극력 공급할것,

(5)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과의 경제적련계를 위하여 농민이 유일하게 접수할수 있는 도시와의 경제적련결형태인 상

품생산(매매를 통한 교환)을 일정한 기간 유지하며 쏘베트상업, 즉 국영상업과 협동조합-집단농장상업을 전력을 다하여 발전시켜 상품류통으로부터 모든 자본가들을 구축할것.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는 레닌이 제시한 이 발전의 길이 완전히 옳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어느 정도 많은 수의 중소생산자계급이 있는 모든 자본주의나라들에 있어서 이 발전의 길이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유일하게 가능하며 적당한 길이라는것은 의심할것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상품생산은 어떠한 조건하에서나 자본주의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으며 또 반드시 가져올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언제나 또 어떠한 조건하에서나 그런것은 아니다! 상품생산을 자본주의적생산과 동일시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서로 다른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은 상품생산의 최고형태이다. 만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있다면, 만일 로동력이 상품으로서 시장에 나타나게 되여 자본가들이 그것을 사서 생산과정에서 착취할수 있게 된다면, 따라서 만일 자본가가 임금로동자를 착취하는 제도가 국내에 존재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만 상품생산은 자본주의를 가져온다. 자본주의적생산은 생산수단이 개인의 수중에 집중되고 생산수단을 상실한 로동자들이 자기의 로동력을 상품으로서 팔지 않을수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렇지 않다면 자본주의적생산은 없는것이다.

그러나 만일 상품생산을 자본주의적생산으로 전화시키는 이러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일 생산수단이 이미 사적소유가 아니라 사회주의적소유로 되여있다면, 만일 임금로동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로동력이 이미 상품으로 되지 않는다면, 만일 착취제도가 오래전에 벌써 청산되였다면 그때에는 어떻게 될것인가? 상품생산은 그래도 자본주의를 가져온다

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수 없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임금로동제도, 착취제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회인것이다.

상품생산을 주위의 경제적조건들과는 관계없는 그 어떤 독자적인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상품생산은 자본주의적생산보다 더 오랜것이다. 상품생산은 노예제도하에서도 존재하였으며 그 제도에 복무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상품생산은 봉건제도하에서도 존재하였으며 그 제도에 복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적생산을 위한 약간의 조건을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자본주의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만일 상품생산이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적조건하에서와 같이 무제한하고 전체포괄적으로 확장되여있지 않으며 또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의 확립, 임금로동제도의 청산, 착취제도의 청산과 같은 결정적인 경제적조건들로 말미암아 엄격한 제한을 받고있다는것을 고려한다면 왜 상품생산이 자본주의를 가져오지 않고 일정한 기간 역시 우리 사회주의사회에도 복무할수 없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의 지배가 확립되고 임금로동제도와 착취제도가 청산된후에는 상품생산의 존재가 그 의의를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상품생산은 제거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한다.

이것도 역시 옳지 않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적 생산의 두가지 기본 형태, 즉 국가적—전인민적 형태와 전인민적이라고는 부를수 없는 집단농장적형태가 있다. 국영기업소에 있어서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인민적소유로 되여있다. 그러나 집단농장적기업소에서는 생산수단(토지, 기계)은 국가에 속해있지만 생산물은 개개의 집단농장의 소유로 되여있다. 왜냐 하면 집단농장에서의 로동은 종자와 마찬가지로

그자체의것이며 국가에서 집단농장에 영원히 리용하도록 넘겨준 토지는 그것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저당할수는 없으나 사실상 집단농장에서 자기의 소유처럼 사용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국가는 국영기업소의 생산물만을 관리할수 있고 집단농장의 생산물은 집단농장만이 자기의 소유로서 관리하게 된다. 그런데 집단농장은 상품형태, 즉 집단농장에 필요한 상품과 교환하는 형태로밖에는 자기의 생산물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지금에 있어서는 집단농장은 도시와의 경제적련계에 있어서 상품교환, 매매를 통한 교환이외의 다른 련계는 다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품생산과 상품류통은 약 30년전에 레닌이 상품류통을 백방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필요한것이다.

물론 두가지 기본적생산성분, 즉 국영생산성분과 집단농장적생산성분 대신에 국내의 모든 소비품을 관리할 권리를 가진 하나의 전체포괄적인 생산성분이 나타날 때에는 상품류통은 그 《화폐경제》와 함께 인민경제의 불필요한 요소로서 소멸될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아직 두가지 기본적생산성분이 남아있는 한 상품생산과 상품류통은 우리 인민경제체계의 필요한, 또 매우 유용한 요소로서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수 없다. 이런 단일적이고 통합된 성분은 어떻게 창립할것인가? 그것은 국영적성분이 집단농장적성분을 아예 삼켜버리는 방법에 의할것인가?—이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집단농장에 대한 수탈로 리해될것이기때문이다—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국내의 일체 소비품을 계산하는 권리를 가지며 그후 한시기 지나, 말하자면 생산물교환방식으로 생산물을 분배하는 권리도 가진 통일적인 전인

민적(국영공업 및 집단농장의 대표자가 참가하는)경제기관을 조직하는 방법에 의할것인가? 이 문제는 따로 심의하여야 할 특수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상품생산은 보통상품생산인것이 아니라 특수한 종류의 상품생산이다. 즉 자본가 없는 상품생산이며 기본적으로, 통합된 사회주의적생산자들(국가, 집단농장, 협동조합)의 상품과 관련되여있으며 그 작용범위는 개인소비품에 국한되여있으며 또 물론 자본주의적생산으로는 결코 발전할수 없고 그 《화폐경제》와 함께 사회주의적생산의 발전 및 공고화에 복무하지 않을수 없는 그러한 상품생산이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사회가 생산의 상품적형태를 청산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에 고유한 모든 경제적범주 즉 상품으로서의 로동력, 잉여가치, 자본, 자본에 대한 리윤, 평균리윤률 등등이 우리 나라에서 부활되지 않을수 없는것 같이 주장하는 동지들은 전혀 옳지 않다. 이 동지들은 상품생산을 자본주의적생산과 혼동하고있으며 상품생산이 있는 이상 자본주의적생산도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있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상품생산이 자본주의제도하에서의 상품생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다음으로 나는, 맑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한 《자본론》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관계에 인위적으로 적용하고있는 몇개의 다른 개념도 배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념두에 두고있는것은 특히 《필요》로동과 《잉여》로동, 《필요》생산물과 《잉여》생산물, 《필요》시간과 《잉여》시간과 같은 개념이다. 맑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한것은 로동계급을 착취하는 근원 즉 잉여가치를 천명하고 생산수단을 상실한 로동계급에게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정신적무기를 주기 위해서였다. 물론 맑스는 이 경우에 자본주의적관계에 완

전히 부합하는 개념(범주)을 사용하고있다. 그러나 로동계급이 정권과 생산수단을 잃고있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수중에 정권을 장악하고있으며 생산수단을 소유하고있는 오늘날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는것은 너무나 기이한 일이다. 오늘 우리 제도하에서는 상품으로서의 로동력이니 로동자의 《고용》이니 하는 말은 아주 황당무계하게 들린다.—그것은 마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있는 로동계급이 자기자신에게 고용되며 자기자신에게 자기의 로동력을 파는것 같이 된다. 《필요》로동이니 《잉여》로동이니 하고 말하는것도 오늘에 와서는 역시 기이하다.—이것은 마치 우리의 조건하에서 생산의 확대, 교육 및 보건의 발전, 국방의 조직 등등을 위하여 사회에 제공된 로동자들의 로동이 로동자와 그 가족의 개인적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지출된 로동만큼은 로동계급(현재 정권을 장악하고있는)에게 필요하지 않다는것 같이 된다.

지적해야 할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사회의 제1단계를 연구하고있는 자기의 로작 《고타강령비판》에서 맑스는 생산의 확대, 교육, 보건, 관리비, 예비기금의 형성 등등을 위하여 사회에 제공되는 로동을 로동계급의 소비적 요구의 충족을 위하여 지출되는 로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한것이라고 인정하고있다는것이다.

나는 우리 경제학자들이 낡은 개념과 우리 사회주의나라의 새로운 사태와의 이러한 불일치를 청산하고 낡은 개념을 새로운 사태에 부합되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정한 시기까지는 이러한 불일치를 참을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불일치를 청산하여야 할 때가 왔다.

3.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가치법칙에 관한 문제

가끔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서도,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도 가치법칙이 존재하며 작용하는가 하고 질문한다.

그렇다, 존재하며 작용한다. 상품과 상품생산이 있는 곳에는 가치법칙도 존재하지 않을수 없다.

가치법칙의 작용범위는 우리 나라에서는 우선 상품류통 즉 매매를 통한 상품교환, 주로 개인소비상품교환에 미치고있다. 이 분야에서는 가치법칙이 물론 일정한 범위내에서 조절자의 역할을 보유하고있다.

그런데 가치법칙의 작용은 상품류통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작용은 생산에도 미친다. 물론 우리 사회주의적생산에서는 가치법칙이 조절적의의는 가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시 생산에 영향을 주고있으므로 생산을 지도함에 있어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는 생산과정에서의 로동력의 지출을 보상하는데 필요한 소비품이 우리 나라에서는 가치법칙의 작용을 받는 상품으로서 생산되며 실현된다는데 있다. 바로 여기에서 생산에 대한 가치법칙의 영향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소들에서는 독립채산제와 수익성문제, 원가문제, 가격문제 등등과 같은 문제가 현실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기업소들은 가치법칙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으며 또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이것은 좋은 일인가? 나쁘지 않다. 우리 나라의 현조건하에서는 이러한 사정은 우리 경제일군들을 생산에 대한 합리적 운영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훈련하느니만큼 이것은 사실상 나쁘지 않다. 그것은 생산의 수치들을 계산하며 그것도 정확히 계산하며 그리고 또 주먹구구식의 《개략적자료》에 관하여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생산의 실제사정을 정확히 타

산하는것을 우리 경제일군들에게 가르쳐주느니만큼 나쁘지 않다. 그것은 생산가운데 숨어있는 은폐된 예비를 짓밟아버리지 않고 탐구하며 발견하며 리용하는것을 우리 경제일군들에게 가르쳐주느니만큼 나쁘지 않다. 그것은 생산방법을 계통적으로 개선하며 생산원가를 저하시키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기업소의 수익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는것을 우리 경제일군들에게 가르쳐주느니만큼 나쁘지 않다. 그것은 현 발전단계에 있어서 우리 경제간부들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그들이 빨리 사회주의적생산의 참다운 지도자로 되게 하는 좋은 실천적학교이다.

불행은 가치법칙이 우리 나라에서 생산에 영향을 준다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불행은 우리 경제일군들과 계획일군들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가치법칙의 작용을 잘 알지 못하며 그것을 연구하지 않으며 그것을 자기의 계산에서 고려할줄 모르는데 있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아직도 우리 나라의 가격정책문제에서는 혼란이 지배하고있는것이다. 무수한 실례중의 하나를 들어보자. 얼마전에 면화와 곡물 가격의 비률을 면화재배업에 유리하게 조정하며 면화재배자에게 판매하는 곡물가격을 정확하게 정하며 국가에 납부하는 면화가격을 높일것이 결정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제일군들과 계획일군들이 제출한 제안은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놀라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것은 이 제안에 의하면 곡물 한톤의 가격이 면화 한톤의 가격과 거의 같으며 또 곡물 한톤의 가격이 빵 한톤의 가격과 같았기때문이다. 빵 한톤의 가격은 제분과 빵제조에 지출된 추가적비용때문에 곡물 한톤의 가격보다 높지 않으면 안되며 면화와 곡물의 세계가격도 역시 증명하고있는바와 같이 면화는 곡물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비싸다고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하였다. 이 지적에 대해서 그 제안작성자들은 요령있는 아

무런 대답도 못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중앙위원회는 이 문제를 직접 취급하여 곡물가격을 낮추고 면화가격을 높이지 않을수 없었다. 만일 이 동지들의 제안이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였더라면 어떻게 되였겠는가? 우리는 면화재배자들을 령락시켰을 것이며 면화는 얻지 못하게 되였을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모든것은 가치법칙의 작용범위가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주의제도하에서와 같다거나 가치법칙이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의 조절자로 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런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사실에 있어서 가치법칙의 작용범위는 우리 경제제도하에서는 엄격히 제한되여있으며 국한되여있다. 상품생산의 작용범위가 우리 제도하에서는 제한되여있으며 국한되여있다는것은 이미 말하였다. 가치법칙의 작용범위에 관해서도 꼭같은것을 말해야 할것이다. 도시에도 농촌에도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없고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였으니만큼 가치법칙의 작용범위와 생산에 대한 그 영향의 정도가 제한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경쟁 및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과 교체한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도 이와 동일한 방향에서 작용한다.

또한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법칙의 요구에 립각하고있는 우리의 년간계획 및 5개년계획과 또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체 경제정책도 이와 동일한 방향에서 작용한다.

이러한 모든것이 합쳐서 결국 우리 나라에서는 가치법칙의 작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우리 제도하에서는 가치법칙이 생산의 조절자의 역할을 할수 없게 하는것이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이 있을수 있는것이다. 즉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생산이 부단히 또 급격히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가치법칙은 파잉생산공황을 초래하지 않는데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광범한 작용범위를 가지는

그 동일한 가치법칙이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생산장성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파잉생산공황을 초래한다는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치법칙은 력사발전의 모든 시기에 필수적인 항구적법칙이며 가치법칙은 공산주의사회의 제2단계에 가서 비록 교환관계의 조절자로서의 효력은 상실한다 하더라도 이 발전단계에 있어서도 각 생산부문간의 관계의 조절자로서의, 생산부문간의 로동분배의 조절자로서의 효력은 보존할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가치는 가치법칙과 마찬가지로 상품생산의 존재와 관련되여있는 하나의 력사적범주이다. 상품생산의 소멸과 함께 가치, 가치의 제 형태 및 가치법칙도 소멸할것이다.

공산주의사회의 제2단계에서는 생산물생산에 지출된 로동의 량은 상품생산하에서와 같이 간접적방법으로 즉 가치 및 가치의 제 형태에 의해서 측정되는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즉 생산물생산에 소비된 시간의 량에 의해서 측정될것이다. 로동의 분배에 관해서 말한다면 각 생산부문간의 로동의 분배는, 이때에 가서는 효력을 상실할 가치법칙에 의해서 조절되는것이 아니라 생산물에 대한 사회의 수요의 장성에 의해서 조절될것이다. 그것은 생산이 사회의 수요에 의해서 조절되며 사회의 수요의 계산이 계획기관들에 있어서 최대의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사회일것이다.

우리 나라 현 경제제도하에서 즉 공산주의사회발전의 제1단계에서 가치법칙은 각 생산부문간의 로동분배의 《비률》을 조절한다고 하는 주장도 역시 전혀 옳지 않다.

만일 그것이 옳다면 흔히 수익성이 낮으며 또 때로는 전연 수익이 없는 중공업보다 극히 수익성이 높은 경공업을 우

리 나라에서 전력을 다하여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리유를 리해할수 없게 된다.

만일 그것이 옳다면 로동자들의 로동이 《응당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있는, 아직 수익이 없는 많은 중공업기업소들을 우리 나라에서 폐쇄하지 않으며 로동자들의 로동이 《더 큰 효과》를 낼수 있는, 무조건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경공업기업소들을 새로 설치하지 않는 리유를 리해할수 없게 된다.

만일 그것이 옳다면 각 생산부문간의 로동분배의 《비률》을 조절한다는 가치법칙에 따라서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 대단히 필요하기는 하나 그러나 수익성은 낮은 기업소들로부터 수익성이 더 높은 기업소들로 로동자를 옮기지 않는 리유를 리해할수 없게 된다.

이 동지들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소비수단생산을 위하여 생산수단생산의 우위를 거부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생산수단생산의 우위를 거부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 인민경제의 부단한 장성의 가능성을 말살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생산수단생산의 우위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인민경제를 부단히 장성시킬수 없기때문이다.

이 동지들은 오직 자본주의제도하에서만,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만, 경쟁, 생산의 무정부성, 과잉생산공황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만 가치법칙이 생산의 조절자로 될수 있다는것을 망각하고있다. 그들은 가치법칙의 작용범위가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존재하며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법칙이 작용하기때문에 제한되여 있다는것, 따라서 또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법칙의 요구를 근사하게 반영한 우리의 년간계획과 5개년계획에 의해서도 또한 제한되여있다는것을 망각하고있다.

어떤 동지들은 이로부터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법칙이나 인민경제의 계획화는 생산의 수익성원칙을 폐절하는것이라는 결론을 짓고있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사태는 그와 정반대로 되여있다. 만일 수익성을 개개의 기업소나 또는 개개의 생산부문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또 1년을 단위로 해서가 아니라 전 인민경제의 견지에서 이를테면 10년 내지 15년을 단위로 해서 본다면—그리고 이것이 문제의 유일하게 옳은 취급방법일것이다.—개개의 기업소나 또는 개개의 생산부문의 일시적이고 확고치 못한 수익성은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법칙의 작용과 인민경제의 계획화가 우리에게 주는—즉 인민경제를 파괴하며 사회에 막대한 물질적손해를 주는 주기적경제공황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며 인민경제의 부단한 장성과 그 높은 속도를 우리에게 보장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그러한 높은 형태의 확고하고 항구적인 수익성과는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는것이다.

요컨대 우리 나라의 현재의 사회주의적생산조건하에서 가치법칙은 각 생산부문에 로동을 분배하는데 있어서 《비률의 조절자》로 될수 없다는것은 의심할바없는 일이다.

4. 도시와 농촌,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대립의 폐절에 관한 문제와 그 차이의 청산에 관한 문제

이 제목은 본질적으로 호상 구별되는 일련의 문제에 관계된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서로 뒤섞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서술의 간결을 기하기 위하여 한절에 넣는다.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간의 대립의 폐절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맑스와 엥겔스가 제기한 주지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고 공업, 상업, 신용 체계의 전 발전행정이 농민을 수탈하며 대다수 농촌주민을 령락시키

는것이 이러한 대립의 경제적기초인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자본주의체도하에서의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은 리해관계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지반우에서 도시에 대한, 일반적으로 《도시사람》들에 대한 농촌의 적대적관계가 발생하였던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와 착취제도가 폐절되고 사회주의체도가 공고화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간의 리해관계의 대립도 소멸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일이다. 사실 또 그렇게 되였다. 지주와 부농을 청산하는 사업에서 사회주의적도시와 우리 로동계급이 우리 농민에게 준 거대한 원조는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의 지반을 강화하였으며 또 농민과 그들의 집단농장에 최고급의 뜨락또르와 기타 기계를 계속적으로 공급한것은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그들간의 친선으로 전화시켰다. 물론 로동자와 집단농장농민과는 아직도 그 처지로 보아 서로 구별되는 두 계급을 이루고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결코 그들의 친선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의 리해관계는 하나의 공통한 길 즉 사회주의제도의 공고화와 공산주의의 승리에 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농촌이 지난날에 도시에 대하여 가지고있던 불신임, 더구나 증오는 그 흔적도 찾아볼수 없게 되였다는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모든것은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간의 대립의 지반이 우리 나라의 현 사회주의제도에 의하여 이미 청산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의 폐절이 《대도시의 파멸》(엥겔스의 《반듀링론》을 보라.)①을 가져오리라는것을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336페지를 보라.—편집자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대도시는 소멸하지 않을뿐만아니라 문화의 최고발전의 중심지로서 대공업뿐만아니라 농산물가공 및 모든 식료품공업부문의 강력한 발전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대도시들이 더욱더 나타날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나라의 문화적 륭성을 용이하게 하며 도시와 농촌의 생활조건의 균등화를 가져올것이다.

우리는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대립의 폐절문제에 있어서도 비슷한 사태를 본다. 이 문제도 역시 오래전에 맑스와 엥겔스가 제기한 주지의 문제이다.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대립의 경제적기초는 정신로동자들이 육체로동자들을 착취하는것이다. 자본주의제도하에 존재한, 기업소의 육체로동자들과 지도성원들간의 갈등은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이 갈등의 토대우에서 자기들의 적으로서의 지배인, 직공장, 기사 및 기타 기술인원들에 대한 로동자들의 적대적관계가 발전한것은 주지하는바이다. 자본주의 및 착취제도의 폐절과 함께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간의 리해관계의 대립도 소멸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 대립은 우리 나라의 현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실지로 소멸되였다. 지금은 육체로동자와 지도성원과는 적인것이 아니라 동무이며 생산의 성과와 개선에 혈연적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유일한 생산집단의 성원들인것이다. 그들간의 과거의 적대는 흔적도 남지 않았다.

도시(공업)와 농촌(농업),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간의 차이의 소멸문제는 전연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이 문제는 맑스주의의 창시자들에 의해서는 제기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 의하여 제기된 새로운 문제이다.

이 문제는 꾸며낸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실천적인 또는 리론적인 의의가 있는가? 아니다, 이 문제는 꾸며낸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이 문제는 우리에

게 있어서 극히 중대한 문제이다.

례로서 농업과 공업간의 차이를 들어본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에서의 로동조건과 공업에서의 로동조건이 다르다는 점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고 주로 공업에 있어서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전인민적소유가 존재하는데 농업에 있어서는 전인민적소유가 아니라 집단적, 집단농장적 소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상품류통이 존속되게 되며 또 공업과 농업간의 이 차이가 소멸되여야만 비로소 상품생산 및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가 소멸될수 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농업과 공업간의 이 본질적차이의 소멸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1차적의의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은 부인할수가 없다.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본질적차이의 폐절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꼭같은것을 말해야 할것이다. 이 문제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제1차적의의를 가진다. 대중적사회주의경쟁이 전개되기 시작하기전에는 우리의 공업발전은 힘들게 진행되였으며 많은 동지들은 공업발전속도를 늦추는 문제까지 제기하였다. 이것은 주로 로동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이 너무 낮았으며 기술일군들의 수준보다 멀리 뒤떨어져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경쟁이 우리 나라에서 대중적성격을 띠게 된후에는 사태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바로 그후부터 공업은 급속한 속도로 전진하였다. 왜 사회주의경쟁이 대중적성격을 띠게 되였는가? 그것은 기본적인 기술을 소유하였을뿐만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술일군의 수준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기수, 기사들의 의견을 시정해주며 이미 낡아버린 현재의 기준을 타파하고 새로운 보다 현대적인 기준을 도입하는 등등을 하게 된 그런 동지들의 많은 집단이 로동자들가운데서 배출하였기때문이다.

만일 로동자의 개별적집단이 아니라 로동자의 대다수가 자기의 문화기술수준을 기사, 기수의 수준에까지 제고시켰다면 어떻게 되였겠는가? 우리의 공업은 다른 나라 공업이 도달할수 없는 수준에까지 발전하였을것이다. 따라서 로동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기술일군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킴으로써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본질적차이를 폐절하는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1차적의의를 가지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다.

어떤 동지들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공업과 농업,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간의 본질적차이가 소멸될뿐만아니라 온갖 차이도 다 소멸될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공업과 농업간의 본질적차이가 폐절된다고 해서 온갖 차이가 다 폐절될수는 없다. 공업과 농업의 로동조건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어떤 차이는 물론 비본질적인것이기는 하겠지만 물론 남아있을것이다. 심지어 공업내부에 있어서도 공업의 각이한 부문을 념두에 둔다면 그 로동조건이 어디서나 동일한것은 아니다. 즉 례컨대 탄광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은 기계화된 제화공장로동자들의 로동조건과 다르며 광산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은 기계제작로동자들의 로동조건과 다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구나 공업과 농업간의 일정한 차이는 남아있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에 관해서도 이와 꼭같은것을 말해야 할것이다. 문화기술수준이 같지 않다는 의미에서의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본질적차이는 물론 소멸될것이다. 그러나 물론 비본질적인것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차이는 역시 남아있을것이다. 그것은 기업소지도성원의 로동조건과 로동자의 로동조건만 보더라도 같지 않기때문이다.

이와 반대의것을 주장하는 동지들은 아마 나의 일부 연설에 있은 어떤 공식에 의거하고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나는 온갖 차이의 폐절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본질적차이의 폐절을

말한다는것을 밝히지 않고 공업과 농업,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의 폐절에 관해서 말하였던것이다. 이 동지들은 나의 공식을 바로 이렇게 리해하고 그것이 온갖 차이의 폐절을 의미하는것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 공식이 부정확하였으며 불만족한것이였다는것을 의미한다. 그 공식을 버리고 공업과 농업,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본질적차이는 폐절되고 비본질적차이는 보존된다고 하는 다른 공식으로 바꾸어야 할것이다.

5. 단일한 세계시장의 붕괴와 세계자본주의체계의 위기의 심각화에 관한 문제

제2차세계대전과 그 경제적영향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결과라고 보아야 할것은 전체포괄적인 단일한 세계시장의 붕괴이다. 이 사태로 말미암아 세계자본주의체계의 전반적위기는 가일층 심각화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은 그자체가 이 위기로 말미암아 일어난것이다. 전쟁시기에 맞붙은 두 자본주의련합은 저마다 적을 격파하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여기에서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찾았다. 미국은 자기의 가장 위험한 적수인 독일과 일본을 격파하고 해외시장과 세계원료자원을 탈취하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이 기대와는 어그러졌다. 사실 3대 자본주의국가—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쟁자로서의 독일과 일본은 격파되였다. 그러나 그와 함께 중국 및 기타 구라파 인민민주주의나라들이 자본주의체계로부터 떨어져나와 쏘련과 함께 자본주의진영에 대립하는 통일된 강력한 사회주의진영을 형성하였다. 대립하는 두 진영이 존재하게 된 경제적결과로서 전체포괄적인 단일한 세계시장은 붕괴되였으며 그리하여 오늘

에 와서는 역시 서로 대립하는 평행적인 두 세계시장이 존재하게 되였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자신들이 물론 본의는 아니였지만 평행적인 새로운 세계시장의 형성과 공고화를 촉진시켰다는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이 나라들은 《마샬계획》92체계에 들어가지 않은 쏘련, 중국 및 구라파 인민민주주의나라들에 대하여 경제봉쇄를 실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들을 질식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실지에 있어서는 질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시장의 공고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물론 경제봉쇄에 있는것이 아니라 전후시기에 이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단결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며 호상 원조하게 되였다는데 있다. 이 협력의 경험은 어떠한 자본주의국가도 쏘련이 인민민주주의나라들에 주고있는것과 같은 그런 실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우수한 원조를 이 나라들에 줄수 없으리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제는 그 원조가 가장 값이 싸며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한것이라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무엇보다도 그 협력의 기초로 되여있는것이 호상 원조하여 전반적인 경제적륭성을 달성하려는 중심으로부터의 념원이라는 점에 있다. 그 결과 이 나라들에서는 공업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되였다. 이러한 공업발전속도로 나아간다면 얼마 안가서 이 나라들이 자본주의나라들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될뿐만아니라 이 나라들자신이 생산한 잉여상품을 타국에 수출할 필요를 느끼는데까지 이르게 될것이라는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주요자본주의나라들(미국, 영국, 프랑스)이 세계자원에 세력을 뻗칠수 있는 령역이 확장되는것이 아니라 축소될것이며 이 나라들의 세계판매시장의 조건은 악화될것이며 이 나라들에서 기업소의 불완전

한 조업은 더욱 심해지리라는것이다. 바로 이 점에 세계시장의 붕괴와 관련된 세계자본주의체계의 전반적위기의 심각화가 있는것이다.

이것을 자본가들자신도 느끼고있다. 그것은 쏘련이나 중국과 같은 시장을 상실한데서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그들은 이 곤경을《마샬계획》, 조선전쟁, 군비경쟁, 공업의 군사화 등으로써 타개하려고 애쓰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물에 빠진자가 지푸래기를 붙잡는 격이다.

이러한 상태와 관련하여 경제학자들앞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가 제기되였다.

(1)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시기에 있어서의 시장의 상대적안정에 관한, 제2차세계대전전에 발표된 쓰딸린의 주지의 명제는 아직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주장할수 있는가?

(2) 자본주의는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전체로서의 자본주의는 이전보다도 비상히 빨리 발전하고있다.》①는 1916년 봄에 발표된 레닌의 주지의 명제는 아직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주장할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주장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2차세계대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새로운 조건들로 말미암아 이 두 명제는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해야 할것이다.

6. 자본주의나라들간의 전쟁의 불가피성에 관한 문제

어떤 동지들은 제2차세계대전후의 새로운 국제조건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나라들간의 전쟁은 불가피하지 않은것으로 되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회주의진영과 자본주의진영간의 모순은 자본주의나라들간의 모순보다 강하며 미국은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842페지를 보라.—편집자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을 충분히 예속시키고있기때문에 그 나라들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싸우지 못하게 하고 서로 약화시키지 못하게 할수 있으며 자본주의의 선진적인 사람들은 전체 자본주의세계에 중대한 손해를 준 2차에 걸친 세계대전의 경험에서 충분히 배웠기때문에 자본주의나라들을 호상간의 전쟁에 또다시 끌어넣지 않을수 있으며—이러한 모든것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나라들간의 전쟁은 불가피하지 않은것으로 되였다고 생각한다.

이 동지들은 잘못 생각하고있다. 그들은 표면에서 어른거리는 외부적인 현상은 보나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있으나 그러나 역시 사건의 진행을 결정할 깊은 내부에 있는 력량은 보지 못하고있다.

외관상으로는 모든것이 다 《순조롭게》 되여가는것 같다. 즉 미국은 서구라파, 일본 및 기타 자본주의나라들을 예속시켰으며 또 미국의 독수에 걸린 독일(서부),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일본은 미국의 명령을 공손히 리행하고있다. 그러나 이 《순조로운것》이 《영원히》 유지될수 있으며 이 나라들이 영구히 미국의 지배와 압박을 참을것이며 이 나라들이 미국의 노예상태로부터 빠져나와 독립적발전의 길에 들어서려고 시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옳지 않을것이다.

우선 영국과 프랑스를 들어보자. 의심할것도 없이 이 나라들은 제국주의국가이다. 값싼 원료와 확보된 판매시장이 이 나라들에 대해서 제1차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미국인들이 《마샬계획》에 의한 《원조》를 떠들어대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에 뿌리를 뻗치며 이 나라들의 경제를 미국경제의 부속물로 만들려고 노력하며 미국자본이 영국,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원료와 판매시장을 탈취하며 그리하여 영국, 프랑스 자본가들의 높은 리윤을 파국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는 그러한 현재의 상태를 그들이 영원히 참고있으리라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자본주의영국은, 그리고 그뒤를 이어서 자본주의프랑스도 결국 독립적지위와 그리고 물론 높은 리윤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미국과 충돌하게까지 되지 않을수 없으리라고 말하는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주요전패국인 독일(서부)과 일본을 보자. 이 나라들은 현재 미제국주의의 철제밑에서 비참하게 살고있다. 이 나라들의 공업, 농업, 상업, 대외대내정책, 이 나라들의 전 생활이 미국의 점령《제도》에 얽매여있다. 이 나라들은 어제까지는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의 지배의 근저를 뒤흔든 대제국주의강국이 아니였던가. 이 나라들이 또다시 제발로 일어서서 미국의 《제도》를 분쇄하고 독립적발전의 길로 벗어져나가려고 시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기적을 믿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모순은 자본주의나라들간의 모순보다 강하다고 말한다. 리론적으로는 물론 이것이 옳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만 옳은것이 아니다.—이것은 제2차세계대전전에 있어서도 또한 옳았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나라들의 지도자들도 많으나적으나 리해하고있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은 쏘련파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된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국가들간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왜 그렇게 되였는가? 왜냐 하면 첫째로 사회주의국가인 쏘련과의 전쟁은 자본주의국가들간의 전쟁보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더 위험하기때문이다. 그 리유는 만일 자본주의국가들간의 전쟁에서는 어떤 자본주의국가가 다른 자본주의국가에 대해서 우세를 차지하는것이 문제로 된다면 쏘련과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자본주의 그자체의 존망이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기때문

이다. 둘째로 자본가들은 《선전》의 목적으로 쏘련의 침략성에 대해서 떠들고있기는 하나 그들이 쏘련의 평화정책을 고려에 넣고있으며 쏘련자신이 자본주의나라들을 공격하지는 않는다는것을 알고있는만큼 그들자신은 쏘련의 침략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어떤 동지들이 일본과 독일은 종국적으로 격파되였다고 생각하고있는것과 꼭 마찬가지로 제1차세계대전후에도 역시 사람들은 독일이 종국적으로 격파되였다고 인정하였다. 당시에도 역시 미국은 구라파를 예속시켰으며 독일은 다시는 일어설수 없으며 금후에는 자본주의국가들간의 전쟁은 있을수 없다고 말들 하였고 또 출판물에서 떠들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패전후 약 15년 내지 20년이 지나서는 일어났으며 노예상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발전의 길에 들어서서 대강국으로 나섰다. 여기에 있어서 특징적인것은 다름아닌 영국과 미국이 독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일어서게 하며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증가시키도록 원조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과 영국이 독일을 경제적으로 일어서도록 원조할 때에 그들이 생각한것은, 일어선 독일로 하여금 쏘련을 공격하게 하며 사회주의나라를 반대하는데 독일을 리용하자는것이였다. 그러나 독일은 자기의 힘을 제일먼저 영국, 프랑스, 미국 집단을 반대하는데로 돌렸다. 그리하여 히틀러독일이 쏘련에 대해서 선전을 포고하였을 때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집단은 히틀러독일에 가담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반대로 히틀러독일을 반대해서 쏘련과 련합하지 않을수 없었다.

따라서 시장쟁탈을 위한 자본주의나라들의 투쟁과 자기의 경쟁자를 파멸시키려는 욕망은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간의 모순보다 실천적으로는 더 강하였던것이다.

묻노니, 독일과 일본이 또다시 일어서지 않으며 미국의

노예상태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독립적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으리라고 보증할수 있는가? 나는 그런것은 보증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로부터 자본주의국가들간의 전쟁의 불가피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람들은, 제국주의는 불가피적으로 전쟁을 낳는다는 레닌의 명제는 오늘날 평화를 옹호하며 새 세계대전을 반대하는 인민의 강력한 력량이 장성하였으니만큼 이미 낡아진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현재의 평화옹호운동은 평화를 유지하며 새 세계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에 인민대중을 궐기시키는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그것은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수립하려는 목적을 추구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평화유지를 위한 투쟁이라는 민주주의적목적에 국한되여있다. 이 점에 있어서 현재의 평화유지를 위한 운동은 제1차세계대전시기의 제국주의전쟁을 국내전쟁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운동과 구별된다. 왜냐 하면 제1차세계대전시기의 운동은 앞으로 더 나아갔으며 사회주의적목적을 추구하였기때문이다.

여러가지 정세의 일정한 결합하에서는 평화옹호투쟁이 어떤 곳에서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발전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현재의 평화옹호운동인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타도를 위한 운동일것이다.

평화유지를 위한 운동인 현재의 평화옹호운동은 그것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삼숱한 이** 전쟁을 방지하며 그것을 일시 연기하며 **현재의** 평화를 당분간 유지하며 호전적인 정부를 사직시키고 그것을 당분간 평화를 유지할 용의가 있는 다른 정부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극히 많다. 이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대단히 좋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시 이것

으로는 자본주의나라들간의 전쟁일반의 불가피성을 소멸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 불충분하다는 리유는 평화옹호운동이 이러한 모든 승리를 거두는 때에도 제국주의는 역시 유지되고 존속되며 따라서 전쟁의 불가피성도 또한 존속되기때문이다.

전쟁의 불가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를 없애버려야 한다.

7. 현대자본주의 및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에 관한 문제

주지하는바와 같이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에 관한 문제는 수차 토론에 제기되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각종 의견이 발표되였으며 그중에는 극히 환상적인것도 있었다. 토론회참가자들의 대다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반응하지 않았으며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러한 결론도 지으려고 하지 않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토론회참가자들중 그 누구도 이러한 법칙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은 존재하는가? 그렇다, 존재한다. 그것은 어떠한것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이란 자본주의적생산발전의 어떤 개별적측면이나 또는 어떤 개별적과정을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생산발전의 모든 주요측면과 모든 주요과정을 규정하는 법칙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적생산의 본질, 그 진수를 규정하는 법칙이다.

가치법칙이 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이 아닌가? 아니다, 가치법칙은 무엇보다도 상품생산의 법칙이다. 그것은 또 상품생산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이전에도 존재하였으며 자본주의가 전복된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 례컨대 우리 나라에도, 물론 그 작용범위는 국한되여있지만 역시 존재한다. 물론 가

치법칙은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는 그 작용범위가 넓기때문에 자본주의적생산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적생산의 본질과 자본주의적리윤의 기초를 규정하지 못할뿐만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조차 못한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현대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으로 될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이나 또는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자본주의의 불균등적발전법칙도 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으로 될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평균리윤률의 법칙이 현대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 현대자본주의 즉 독점자본주의는 평균리윤으로써는 만족할수 없는것이다. 게다가 평균리윤은, 자본의 유기적구성이 높아지기때문에 점차 저하하는 경향을 가지고있다. 현대독점자본주의는 평균리윤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상적인 확대재생산을 실현하기에 필요한 최대한의 리윤을 요구한다.

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것은 잉여가치법칙 즉 자본주의적리윤의 산생 및 증식에 관한 법칙이다. 이 법칙은 확실히 자본주의적생산의 기본특징을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이 잉여가치법칙은 독점자본주의의 발전조건으로 되여있는 최고리윤률에 관한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는, 너무나 일반적인 법칙이다. 이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잉여가치법칙을 구체화하는것이 필요하며 또 독점자본주의는 어떠한 리윤이라도 다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바로 최대한의 리윤을 요구한다는것을 고려하여 잉여가치법칙을 독점자본주의의 제조건에 적응하게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현대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으로 될것이다.

현대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의 주요특징과 요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수 있을것이다. 즉 자기 나라의 주민의 대다수를 착취하고 령락시키고 빈궁화함으로써, 또 다른 나라 특히 락후한 나라의 인민들을 노예화하고 계통적으로 략탈함으로써, 끝으로 최고리윤의 보장에 리용되는 전쟁이나 인민경제의 군사화의 방법으로 최대한의 자본주의적리윤을 보장하는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평균리윤은 역시 오늘의 조건하에서도 자본주의적발전을 위하여 완전히 충분한것으로 볼수 있을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평균리윤이란 그이하로써는 자본주의적생산이 불가능하게 되는, 수익의 최저한도이다. 그러나 현대독점자본주의의 두목들이 식민지를 강점하며 인민들을 노예화하며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겨우 평균리윤만을 보장하려 한다고 생각하는것은 가소로운 일일것이다. 아니다, 평균리윤이 아니라, 또 평균리윤을 약간 초과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초과리윤이 아니라 바로 최대한의 리윤이야말로 독점자본주의의 동력인것이다. 바로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할 필요성이야말로 독점자본주의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모험적행동에로 나아가게 한다. 즉 식민지 및 기타 락후한 나라들을 노예화하고 계통적으로 략탈하며, 많은 독립국가들을 예속국으로 만들며 현대자본주의의 두목들에게 있어서 최대한의 리윤을 짜내기 위한 가장 좋은《영업》인 새 전쟁을 조직하며, 세계의 경제적패권을 잡으려고 시도하게 한다.

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전분야의 모든 중요현상들을 규정하여주며 그 호경기와 공황, 그 승리와 패배, 그 장점과 단점을, 다시말하면 그 모순되는 발전과정전체를 규정하여줌으로써 그것들을 리해하며 설명할수 있게 하여주는데 있다.

허다한《놀랄만한》실례중에서 그 하나를 들어보자.

자본주의의 력사와 실천중에서,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다는것을 실증하여주는 사실들은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그것은 자본가들이 선진기술의 기수로, 생산기술 발전분야에서 혁명가로 나타나는 때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기술발전이 정체된다는것을 실증하여주는 다른 종류의 사실들도 또한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그것은 자본가들이 새 기술을 발전시키는 분야에서 반동분자로 나타나며 왕왕 손로동으로 이행하는 그러한 때이다.

이러한 놀라운 모순은 무엇으로써 설명할수 있는가? 그것은 현대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 즉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할 필요성에 의해서만 설명할수 있다. 자본주의는 새로운 기술의 최대한의 리윤을 약속하는 때에는 그것을 지지한다. 자본주의는 새로운 기술의 최대한의 리윤을 약속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반대하며 손로동으로 이행하는것을 지지한다.

현대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에 관한 문제는 이렇다.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은 존재하는가? 그렇다, 존재한다. 이 법칙의 본질적인 특징과 요구는 무엇인가?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의 본질적인 특징과 요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수 있을것이다. 높은 기술의 토대우에서 사회주의적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고 개선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의 최대한의 충족을 보장하는것이라고.

따라서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하는것이 아니라 사회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의 최대한 충족을 보장하는것, 호경기로부터 공황에로 또 공황으로부터 호경기로 이렇게 중단되면서 생산이 발전하는것이 아니라 생산이 부단히 장성하는것, 사회의 생산력의 파괴를 동반하면서 기술발전이 주기적으로 중단되는것이 아니라 높은 기술적토대우에서 생산을 부단히 개선

하는것이 그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이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 따라서 또 이 법칙의 어느 정도 정확한 반영인 인민경제의 계획화는 만일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이 어떠한 과업을 위하여 수행되는가가 명확치 않거나 또는 그 과업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자체로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것이다.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과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라야만 비로소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법칙은 응당한 효과를 나타낼수 있는것이다.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법칙자체는 이러한 과업을 줄수 없다. 더군다나 인민경제의 계획화는 그것을 줄수 없는것이다. 이 과업은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안에 상술한바와 같은 이 법칙의 요구로서 내포되여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법칙의 작용은 그것이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에 립각하고있는 경우에만 완전히 발휘될수 있는것이다.

인민경제의 계획화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수 있다. 즉 (1) 그것이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법칙의 요구를 옳게 반영하는 경우. (2) 그것이 모든 점에서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의 요구에 순응하는 경우.

8. 기타 문제

(1) 봉건주의제도하에서의 경제외적강제에 관한 문제.

물론 경제외적강제는 지주-농노주들의 경제적지배를 강화하는데 역할을 놀았다. 그러나 경제외적강제가 봉건주의의 기초인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봉건적소유가 봉건주의제도의 기초였다.

(2) 집단농장농가의 개인적소유에 관한 문제.

교과서초고에 《매개 집단농장농가는 개인적리용을 위하여 젖소, 소가축 및 가금을 가진다.》고 서술한것은 옳지 않을것이다. 사실에 있어서는 주지하는바와 같이 젖소, 소가축, 가금 등등은 집단농장농가의 개인적리용하에 있는것이 아니라 농가의 개인적소유하에 있는것이다.

《개인적리용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아마 농업로동조합기준규약에서 인용한것 같다. 그런데 농업로동조합기준규약이 잘못되여있다. 보다 면밀히 연구작성된 쏘련헌법에는 다르게 서술되여있다.

《매개 집단농장농가는… 개인적소유로서 터밭에서의 부업경리, 주택, 식용가축, 가금 및 소농구를 가진다.》

이것은 물론 옳다.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좀더 상세히 서술하여야 할것이다. 즉 매개 집단농장원은 개인적소유로서 지방적조건을 참작하여 한마리로부터 몇마리까지의 젖소, 몇마리의 양, 염소, 돼지(역시 지방적조건을 참작하여 몇마리로부터 몇마리까지) 및 무제한한 수의 가금(오리, 거위, 닭, 칠면조)을 가진다고.

이러한 상세한 서술은 우리 나라에서 농업의 집단화가 실현된후에 대체 무엇이 집단농장농가의 개인적소유로 남아있는가를 정확히 알고저 하는 우리 외국동지들에게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3) 지주에 대한 농민의 소작료지불액과 토지구매를 위한 지출액에 관한 문제.

교과서초고에는 토지를 국유화한 결과 《농민들은 지주에게 지불하던 매년 약 5억루블에 달하는 소작료로부터 해방되였다.》(《금루블로》라고 말해야 할것이다.)고 씌여있다. 이 수

자는 보다 정확히 표현하여야 할것이다. 왜냐 하면 이 수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 로씨야의 소작료가 아니고 로씨야의 대다수 주의 소작료만을 계산하고있기때문이다. 또 로씨야의 일련의 변강에서는 소작료가 현물로 지불되고있었다는것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교과서초고의 필자들은 그것을 고려에 넣지 않은것 같다. 그리고 또 농민들은 비단 소작료로부터 해방되였을뿐만아니라 토지구입을 위한 매년의 지출로부터도 해방되였다는것을 역시 고려에 넣어야 할것이다. 교과서초고에 그것이 고려되여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고려되지 않은것 같은데 역시 그것을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4) 독점과 국가기관과의 유착에 관한 문제.

《유착》이라는 표현은 적당치 않다. 이 표현은 독점과 국가와의 접근을 피상적으로 또 서술적으로 지적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접근의 경제적의의를 밝혀주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유착하기만 하는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독점에 종속하게 된다는데 있다. 그렇기때문에 《유착》이라는 말을 버리고 그것을 《독점에의 국가기관의 종속》이라는 말로 바꾸어야 할것이다.

(5) 쏘련에서의 기계사용에 관한 문제.

교과서초고에는 《쏘련에서는 기계가 사회를 위하여 로동을 절약하는 모든 경우에 사용된다.》고 씌여있다. 이것은 말하여야 할 내용과는 전연 다르다. 첫째로, 쏘련에서는 기계는 언제나 사회를 위하여 로동을 절약한다. 따라서 쏘련에서 기계가 사회를 위하여 로동을 절약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둘째로, 기계는 비단 로동을 절약할뿐만아니라 동시에 기계는 로동자들의 로동을 헐하게 하여준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와는 달라서 로동자들이 로동과정에서 기계를 아주 즐겨 사용한다.

그렇기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것이다。 쏘련에서처럼 기계를 즐겨 사용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왜냐 하면 기계는 사회를 위하여 로동을 절약하며 로동자들의 로동을 헐하게 하여주기때문이며 또 쏘련에는 실업이 없으며 로동자들이 인민경제에서 기계를 아주 즐겨 사용하기때문이다라고。

(6)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물질적형편에 관한 문제。

로동계급의 물질적형편에 관하여 말할 때 보통은 생산에 종사하고있는 로동자들을 념두에 두며 소위 실업자예비군의 물질적형편은 고려에 넣지 않는다。 로동계급의 물질적형편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취급하는것이 옳겠는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일 실업자예비군이 존재하고 그 성원들이 자기의 로동력을 팔지 않고서는 살 도리가 없다면 그 실업자들은 로동계급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로동계급의 구성에 포함된다면 그들의 극빈상태는 생산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의 물질적형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물질적형편을 특징지을 때에는 실업로동자예비군의 형편도 역시 고려에 넣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7) 국민소득에 관한 문제。

나는 교과서초고에 국민소득에 관한 새로운 장을 **무조건적으로** 포함시켜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8)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창시자로서의 레닌과 쓰딸린에 관한 교과서의 특별한 장에 관한 문제。

나는 《사회주의에 관한 맑스주의학설。 웨。 이。 레닌과 이。 웨。 쓰딸린에 의한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창시》라는 장은 교과서에서 빼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장은 교과서에서 전혀 필요치 않다。 왜냐 하면 이 장에는 아무러한 새로운것도 없으며 교과서의 그 전장들에 더 상세히 서술되여있는것을 그

저 무미건조하게 되풀이하고있을뿐이기때문이다.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오스뜨로위쨔노브, 레온찌예브, 쉐벨로브, 가똡스끼 및 기타 동지들의 《제의》에 대해서 아무러한 의견도 나에게는 없다.

9. 맑스주의적정치경제학교과서의 국제적의의

나는 동무들이 맑스주의적정치경제학교과서의 모든 의의를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생각한다. 교과서는 우리 쏘련청년들에게만 필요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특히 모든 나라의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공명하고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우리 외국동지들은 어떻게 우리가 자본주의적예속에서 벗어나왔는가, 어떻게 우리가 나라의 경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였는가, 어떻게 우리가 농민과의 친선을 달성하였는가, 어떻게 우리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아직 빈곤하고 약하던 우리나라를 부유하고 위력있는 나라로 되게 하였는가, 집단농장이란 어떠한것인가,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상품생산, 화폐, 상업을 없애버리지 않는가 등등을 알고싶어한다. 그들이 이 모든것과 기타 많은것을 알고싶어하는것은 단순한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배우고 우리의 경험을 자기 나라에 리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때문에 훌륭한 맑스주의적정치경제학교과서가 나온다는것은 국내적의의만 있는것이 아니라 크나큰 국제적의의도 있는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뿐만아니라 외국에서도 혁명적청년들의 참고서로 될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교과서는 지나치게 방대해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지나치게 큰 교과서는 참고서로 될수 없으며 또 그것을 다 읽고 리해하기 어렵기때문이다. 그러다 교과서에는 우리 나라 경제의 기본문제와 자본주의 및 식민지 체계의 경제의 기본문제가 모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동지들은 토론회때에 교과서에다 일련의 새로운 장을 포함시킬것을 제의하였다. 즉 력사가는 력사에 관한 장을, 정치가는 정치에 관한 장을, 철학자는 철학에 관한 장을, 경제학자는 경제에 관한 장을 포함시킬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교과서는 무한히 방대하게 될것이다. 물론 그렇게 할수는 없다. 교과서는 경제학의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력사적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정치경제학교과서를 경제관계의 력사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는 500페지, 최대한으로 600페지(그이상 되여서는 안된다.)의 교과서가 필요하다. 그것은 맑스주의정치경제학의 참고서로 될것이며 모든 나라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주는 좋은 선물로 될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대다수 공산당의 맑스주의적발전수준이 불충분한것만큼 이러한 교과서는 이 나라들의 나이든 간부공산주의자들에게도 대단히 유익할것이다.

10. 정치경제학교과서초고를 개선할 방도

어떤 동지들은 토론회때에 지나치게 열심히 교과서초고를 《비난》하였으며 오유와 실수가 있다고 해서 저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초고는 잘되지 못하였다고 단언하였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물론 교과서에는 오유와 실수가 있다. 오유와 실수는 큰일에는 거의 언제나 있는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토론회참가자들의 압도적다수는 역시 교과서초고가 앞으로 나올 교과서의 기초로 될수 있으며 약간의 시정과 보충이 필요할따름이라는것을 인정하였다. 사실 이 교과서초고를 지금 사용되고있는 정치경제학교과서들과 좀 비교해보기만 한다면 이 교과서

초고가 현재의 교과서보다는 훨씬 훌륭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이 점에 교과서초고저자들의 큰 공적이 있는것이다.

교과서초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초고의 저자들뿐만 아니라 또 토론회참가자의 대다수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뿐만아니라 대다수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 교과서초고를 맹렬히 비판한 사람들도 포함한 많지 않은 인원으로 되는 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원회에는 수자를 검열하며 초고에 새로운 통계자료를 인용하기 위하여 경험있는 통계학자와 그리고 또 정식화가 정확한가를 검열하기 위하여 경험있는 법률학자도 포함시키는것이 좋을것이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모든 사업에서 일시 해방하며 물질적면에서도 충분히 보장하여줌으로써 그들이 전적으로 교과서편찬사업에 몰두할수 있게 하여야 할것이다.

이밖에 또 교과서의 최종편집을 위하여 레컨대 3명으로 되는 편집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은 문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과서초고에는 유감스럽게도 문체가 통일되여있지 않다.

완성된 교과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기한은 1개년이다.

이.쓰딸린

1952년 2월 1일

알렉싼드르 일리이치 노트낀동지에게 주는 대답

노트낀동지!

나는 동지가 제기한 문제가 긴급한것이라고 인정하지 않

았기때문에 회답을 급히 서둘지 않았다. 그뿐만아니라 긴급한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자연 동지의 편지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조목별로 대답하겠다.

첫째 조목에 대하여

《의견》가운데는, 사회는 과학의 법칙에 대하여 무력하지 않으며 인간은 경제법칙을 인식함으로써 그것을 사회를 위하여 리용할수 있다는 주지의 명제가 있다. 동무는 주장하기를, 이 명제는 다른 사회구성에는 적용될수 없으며 그것은 사회주의제도와 공산주의제도하에서만 타당하며 례컨대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경제적과정의 자연발생적성격때문에 사회는 경제법칙을 사회를 위하여 리용할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자산계급혁명시기에, 례컨대 프랑스에서는 자산계급이 봉건제도를 반대하여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관계의 필수적적응에 관한 주지의 법칙을 리용하여 봉건적생산관계를 전복하고 새로운 자산계급적생산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 생산관계를 봉건제도의 태내에서 자라난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하게 만들었다. 자산계급이 이렇게 할수 있은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하는데 혈연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봉건령주들이 이에 반항한것은 그들이 우둔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법칙의 실현을 방해하는데 혈연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혁명에 관해서도 꼭같은것을 말해야 할것이다. 로동계급은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관계의 필수적적응의 법칙을 리용하여 자산계급적생산관계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수립하였으며 그것을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하게 만들었다. 로동계급이 이렇게 할수 있은것은 그

들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하는데 혈연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자산계급혁명의 초기에는 진보적세력이였으나 이미 반혁명적세력으로 되여버린 자산계급은 이 법칙의 실현에 백방으로 반항하였다. 그들이 반항한것은 그들의 비조직성으로 인한것도 아니며 경제적과정의 자연발생적성격이 그들로 하여금 반항하도록 추동하였기때문인것도 아니다. 그것은 주로 그들이 이 법칙의 실현을 반대하는데 혈연적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따라서

1. 경제적과정, 경제법칙을 사회를 위하여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와 공산주의제도하에서뿐만아니라 다른 사회구성하에서도 이런 또는 저런 정도로 진행된다.

2. 계급사회에서는 경제법칙의 리용이 언제 어디서나 계급적배경을 가진다. 그리하여 사회를 위하여 경제법칙을 리용하는 기수는 언제 어디서나 선진계급이며 한편 낡은 계급들은 이에 반항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무산계급과 또 력사상에서 한때는 생산관계를 변혁시킨 다른 계급들과의 사이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데 있다. 즉 무산계급의 혁명은 착취의 어떤 한 형태의 폐절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온갖 착취의 폐절을 의미하는 까닭에 무산계급의 계급적리익은 사회의 절대다수인의 리익과 합치되는데 한편 착취의 어떤 한 형태만을 폐절하는 다른 계급들의 혁명은 사회의 다수인의 리익과 모순되는 그들의 협소한 계급적리익의 테두리안에 국한된다.

《의견》가운데는 경제법칙을 사회를 위하여 리용하는 문제가 가지는 계급적배경이 언급되여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새로운 법칙의 발견과 적용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자연과학의 법칙과는 달라서 경제분야에서는

낡은 사회세력의 리익에 저촉되는 새로운 법칙의 발견과 적용은 이 낡은 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된다.》고. 그러나 동지는 여기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둘째 조목에 대하여

동지는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관계의 완전한 적응은 사회주의제도와 공산주의제도하에서만 있을수 있고 다른 사회구성하에서는 불완전한 적응만이 있을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자산계급이 봉건적생산관계를 파괴하고 자산계급적생산관계를 수립한 자산계급혁명이후시기에 자산계급적생산관계가 생산력의 성격에 완전히 적응한 시기가 물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본주의는 자산계급혁명후에 발전한것처럼 그렇게 급속하게는 발전할수 없었을것이다.

다음으로, 《완전한 적응》이라는 말을 절대적인 의미로 리해해서는 안된다. 마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장성보다 뒤떨어지는 일이 결코 없는것처럼 이 말을 리해해서는 안된다. 생산력은 생산의 가장 가동적이며 혁명적인 힘이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도 생산력은 생산관계보다 물론 앞서 나아간다. 얼마 안가서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하도록 개조될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완전한 적응》이라는 말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겠는가? 다음과 같이 리해해야 한다. 즉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사태가 보통, 생산관계와 생산력이 충돌하는데까지는 이르지 않으며 사회는 제때에 뒤떨어진 생산관계를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시킬수 있다는 의미로 리해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가 이렇게 할수 있는것은, 반항을 조직할수 있는 낡은 계급이 그 구성안에 없기때문이다. 물론 사회주의제도하에서도 생산관계의 변화의 필연성을 리해하지 못하는 락후한 보수적세력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물론 사태를 충돌에까지 이

르게 하지 않고 용이하게 그것을 극복할수 있을것이다.

셋째 조목에 대하여

동지의 론의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국유화된 기업소가 생산하는 생산수단, 그중에서도 생산도구를 동지는 상품으로 본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생산수단을 상품으로 볼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상품이란 임의의 구매자에게 판매되며 그리고 판매되면 그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구매자가 그 소유자로 되여 그것을 다시 판매할수도 있고 저당할수도 있고 사장할수도 있는 그런 생산물이다. 생산수단이 이 정의에 맞는가? 맞지 않는다는것은 분명하다. 첫째로 생산수단은 어떤 구매자에게나 다 《판매》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농장에조차 《판매》되지 않으며 오직 국가가 자기 기업소들에 분배할따름이다. 둘째로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국가는 그것을 어떤 기업소에 넘겨줄 때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조금도 상실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보유한다. 셋째로 국가로부터 생산수단을 받은 기업소지배인은 그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되지 못할뿐만아니라 반대로 국가가 부과한 계획에 따라 생산수단을 리용하는, 쏘베트국가의 전권대표라는것이 확인된다.

보는바와 같이 우리 제도하에서는 생산수단을 상품의 범주에 포함시킬수는 도저히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생산수단의 가치니 그 원가니 그 가격이니 하는 말을 하는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리유에서 그러는것이다.

첫째로, 이것은 계산을 위하여, 결제를 위하여 필요하며 기업소의 리익과 손실을 밝히며 기업소를 검열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형식적면에 불과하다.

둘째로, 이것은 대외무역에서 외국에 생산수단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 대외무역분야에서 그리고 이 분야에서만 우리의 생산수단은 사실상 상품으로 되며 또 그것은 사실상 판매(인용부 없이)된다.

이리하여 결국 대외무역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소들이 생산하는 생산수단은 본질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상품의 속성을 가지고있으나 한편 국내경제류통분야에서는 생산수단은 상품의 속성을 상실하며 상품이 되지 못하며 다만 상품의 외피(계산 기타)를 보유할뿐 가치법칙의 작용은 받지 않는다.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문제는 다음과 같은데 있다. 즉 우리 사회주의조건하에서는 경제발전이 변혁의 방법으로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점차적 변화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즉 낡은것은 단순히 완전하게 폐기되는것이 아니라 그 형식만은 그대로 가지고있으면서 새로운것에 적합하게 그 본질을 변화시키며 또 새로운것은 낡은것을 단순히 폐기하는것이 아니라 낡은것에 침투하여 낡은것의 본질과 기능을 변화시키되 그 형식은 파괴하지 않고 새로운것의 발전을 위하여 리용한다는데 있다. 상품이 그러할뿐만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류통에 있어서의 화폐도 또한 그러하다. 또 낡은 기능을 상실하고 새 기능을 가지게 되였으나 낡은 형식은 그대로 가지고있으면서 사회주의제도에 리용되고있는 은행도 또한 그러하다.

만일 형식적면에서, 현상의 표면에서 진행되는 과정의 면에서 문제를 본다면, 자본주의의 범주들이 우리 경제에서도 역시 그대로 통용된다는 옳지 못한 결론에 도달할수 있다. 만일 경제적과정의 내용과 그 형식을, 발전의 심오한 과정과 표면적현상을 엄격히 구별하는 맑스주의적분석을 가지고 문제를 본다면—자본주의의 낡은 범주중에서 우리 나라에 보존되여있

는것은 주로 형식, 외피이며, 본질상 이 범주들은 사회주의적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적합하게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유일하게 정당한 결론에 도달할수 있다.

넷째 조목에 대하여

동지는 농업에서 생산되여 수매가격으로 국가에 납부되는 《생산수단》의 가격에 대하여 가치법칙이 조절적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동지는 이 경우에 원료, 례컨대 면화 같은 《생산수단》을 념두에 두고있다. 동지는 여기에다 또 아마, 양모 및 기타 농산물원료도 첨가할수 있을것이다.

우선 지적해야 할것은 이 경우에 농업은 《생산수단》을 생산하는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중의 하나인 원료를 생산한다는것이다. 《생산수단》이라는 말을 가지고 희롱하여서는 안된다. 맑스주의자들이 생산수단의 생산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념두에 두고있는것은 우선 생산도구의 생산 즉 맑스가 말한 《기계적로동수단》의 생산인바 맑스는 《기계적로동수단의 총체는》《사회적생산의 일정한 시대의 특징적표식》을 이루는 《생산의 골격체계 및 근육체계라고 부를수 있다.》①고 말하였다. 생산수단의 일부분(원료)을 생산도구까지 포함한 생산수단과 동일시하는것은 맑스주의를 위반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맑스주의는 다른 모든 생산수단에 비하여 생산도구가 결정적역할을 논다는데로부터 출발하기때문이다. 누구나 다 아는바와 같이 어떤 종류의 원료는 생산도구생산의 재료로써 필요하기는 하지만 원료 그자체는 생산도구를 생산할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원료도 생산도구 없이는 생산될수 없는것이다.

다음으로 노트낀동지! 동지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농업에서 생산되는 원료의 가격에 대한 가치법칙의 작용이 **조절적**작

---

①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3권, 204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용이겠는가? 만일 우리 나라에서 농산물원료에 대하여 가격이 《자유로이》 오르내릴수 있다면, 만일 우리 나라에서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면, 만일 우리 나라에 계획경제가 없다면, 만일 원료생산이 계획에 의하여 조절되지 않는다면 그 작용은 조절적작용일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만일》이 우리 인민경제체계에는 없는것만큼 농산물원료의 가격에 대한 가치법칙의 작용은 결코 조절적인것으로 될수 없다. 첫째로 우리 나라 농산물원료의 가격은 계획에 의하여 제정된 고정가격이지 《자유》가격이 아니다. 둘째로 농산물원료생산의 규모는 자연발생성이나 어떤 우연적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하여 결정된다. 셋째로 농산물원료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도구는 개인의 수중이나 개별적집단의 수중에 집중되여있는것이 아니라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여있다. 그러고 보니 가치법칙의 조절적역할에서 무엇이 남는가? 가치법칙자체가 사회주의적생산에 특유한, 상기한 제 사실에 의하여 조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가치법칙이 농산물원료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며 또 이 법칙이 가격형성의 요인중의 하나라는것을 부정할수 없다. 그러나 이 영향은 조절적인것이 아니라 또 조절적인것이 될수도 없다는것을 부정할수는 더욱 없다.

다섯째 조목에 대하여

사회주의적인민경제의 수익성에 관하여 말할 때 나는 나의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약간의 동지들을 반박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 나라의 계획적인민경제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소라고 해서 그것을 더 중요시하지는 않으며 또 이러한 기업소들과 함께 수익이 없는 기업소의 존재도 용허하는것만큼, 이것은 경영에서의 수익성원칙자체를 말살하는것이다라고. 《의견》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개개의 기업소나 개개의 생산부문의 견지에서 본 수익성이란 것은 사회주의적생산이 우리로 하여금 과잉생산공황을 면하게 하며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그 높은 수익성과는 도저히 비교도 안된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개의 기업소나 개개의 생산부문의 수익성은 특별한 가치가 없으며 또 심중한 주의를 돌릴만한것이 못된다는 결론을 짓는다면 옳지 않을것이다. 이것은 물론 옳지 않다. 개개의 기업소와 개개의 생산부문의 수익성은 우리 나라 생산발전의 견지로 보아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수익성은, 건설을 계획할 때나 생산을 계획할 때나 반드시 고려되여야 한다. 이것은 현발전단계에 있어서 우리 경제활동의 초보적지식이다.

여섯째 조목에 대하여

자본주의에 대해서 동지가 말한 《극히 기형화된 형태에서의 확대생산》이라는 말을 어떻게 리해하여야 할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생산, 더구나 이러한 확대생산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말해야 할것이다.

세계시장은 분렬되고 주요자본주의나라들(미국, 영국, 프랑스)이 세계자원에 자기 세력을 부식하는 령역은 축소되였지만 그러나 자본주의발전의 주기적성격—생산의 증대와 축소—은 역시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나라들에서의 생산의 장성은 축소된 토대우에서 진행될것이다. 왜냐 하면 이 다라들에서의 생산의 규모는 축소될것이기때문이다.

일곱째 조목에 대하여

세계자본주의체계의 전반적위기는 제1차세계대전시기에, 특히 자본주의체계로부터 쏘련이 떨어져나온 결과에 시작되였다. 이것은 전반적위기의 제1단계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특히 자본주의체계로부터 구라파와 아세아의 인민민주주의나라들이 떨어져나온후에 전반적위기의 제2단계가 시작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시기의 첫 위기와 제2차세계대전시기의 둘째 위기를 서로 떨어져있는 개별적, 독립적인 위기로 볼것이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체계의 전반적위기의 두 발전단계로 보아야 한다.

세계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는 다만 정치적위기일뿐이거나 또는 다만 경제적위기일뿐인가? 그것은 그 어느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반적위기, 즉 경제도 정치도 포괄하는, 세계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인것이다. 여기에서 명확한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세계경제체계의 더욱더 심해가는 붕괴와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로부터 떨어져나온 쏘련, 중국 및 기타 인민민주주의나라들의 장성하는 경제적위력이 그 위기의 근저에 놓여있다는것이다.

이·쓰딸린

1952년 4월 21일

엘.데.야로쉔꼬동지의 오유에 관하여

얼마전에 야로쉔꼬동지는, 11월토론회에서 심의된 일련의 경제문제에 관하여 금년 3월 20일부로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왔다. 서한에는, 토론회에 관한 기본적총화문건에도 그렇거니와 쓰딸린동지의 《의견》에도 야로쉔꼬동지의 《견해가 전혀 반영되여있지 않다》는 필자의 신소가 있었다. 그밖에 이 서한에서 야로쉔꼬동지는 자기에게 1년 내지 1년 반의 기간에 《사회주의정치경

제학》을 편찬하는것을 허가할것과 이를 위하여 2명의 보조자를 제공하여줄것을 제의하여왔다.

나는 야로쉔꼬동지의 신소와 제의의 본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소부터 보기로 하자.

그러면 상기문건들에 전연 반영되여있지 않은 야로쉔꼬동지의 《견해》란 어떠한것인가?

1
야로쉔꼬동지의 주요오유

만일 야로쉔꼬동지의 견해를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그것은 비맑스주의적견해이며 따라서 극히 그릇된 견해라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야로쉔꼬동지의 주요오유는, 사회발전에서 노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역할에 관한 문제에서 맑스주의로부터 리탈하고있으며 생산력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동시에 생산관계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여 결국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일부분이라고 선언하는데까지 이르렀다는데 있다.

야로쉔꼬동지는 《적대적인 계급적모순》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는 생산관계가 《생산력발전에 모순》되는것만큼 여기에서는 생산관계가 약간의 역할을 논다고 인정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이 역할을 부정적역할 즉 생산력발전을 저애하며 그 발전을 구속하는 요인의 역할에 국한시키고있다. 야로쉔꼬동지는 생산관계가 다른 기능, 어떤 긍정적기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한다.

이미 《적대적인 계급적모순》이 없으며 생산관계가 이미 《생산력발전에 모순되지 않는》 사회주의제도에 관해서 말한다면 야로쉔꼬동지는 여기서는 생산관계의 어떠한 독립적역할이

든 모두 소멸되고 생산관계는 이미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지 못하며 그것은 부분이 전체에 흡수되듯이 생산력에 흡수된다고 간주한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사람들의 생산관계는—하고 야로쉔꼬동지는 말한다.—생산력조직의 한 수단, 한 요소로서 생산력조직에 포괄된다》.(중앙위원회 정치국에 보낸 야로쉔꼬동지의 서한을 보라.)

그렇다면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중요임무는 대체 무엇인가? 야로쉔꼬동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주요문제는 사회주의사회의 사람들의 생산관계를 연구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적생산에서의 생산력조직의 과학적리론, 즉 인민경제발전의 계획화의 리론을 연구발전시키는데 있다.》(토론회총회에서의 야로쉔꼬동지의 토론을 보라.)

바로 그렇기때문에 야로쉔꼬동지는 우리 나라 경제에 존재하는 각종 소유형태, 상품류통, 가치법칙 및 기타의 같은 사회주의제도의 경제문제들을 단지 스콜라적인 론쟁을 야기할뿐인 제2차적문제로 간주하고 이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는것이다. 그는 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자기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에서는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이런 또는 저런 범주—가치, 상품, 화폐, 신용 및 기타—의 역할에 관한, 종종 스콜라적인 성격을 띠는 론쟁은 사회적생산에서의 생산력의 합리적조직, 이와 같은 조직의 과학적론증에 관한 건전한 고찰과 교체된다》.(토론회총회 분과위원회에서의 야로쉔꼬동지의 토론을 보라.)

따라서 경제문제가 없는 정치경제학으로 된다.

야로쉔꼬동지는 《생산력의 합리적조직》만 하면 특별한 난관없이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이행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면 아주 충분

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단적으로 이렇게 언명하고있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은, 생산력을 옳게 조직하며 사회적생산에서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에 귀착된다.》(토론회총회에서의 토론을 보라.) 야로쉔꼬동지는 《공산주의란 사회적생산에 있어서의 생산력의 최고의 과학적조직이다.》라고 엄숙하게 선언한다.

결국 공산주의제도의 본질은 《생산력의 합리적조직》이 그 전부라는것으로 된다.

이 모든 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야로쉔꼬동지는 다음과 같이 결론한다. 모든 사회구성에 타당한 유일한 정치경제학은 있을수 없으며 응당 두가지 정치경제학이 있어야 한다. 즉 그 하나는 사회주의이전 사회구성을 위한 정치경제학으로서 그 대상은 사람들의 생산관계를 연구하는것이며 또 하나는 사회주의제도를 위한 정치경제학으로서 그 대상은 생산관계, 다시 말하면 경제관계를 연구하는것이 아니라 생산력의 합리적조직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것이다라고.

이것이 야로쉔꼬동지의 견해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첫째로, 사회력사에서의 생산관계의 역할을 생산력발전을 구속하는 제동기의 역할에 국한시키는것은 옳지 않다. 맑스주의자들이 생산관계의 제동기적역할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모든 생산관계를 념두에 두는것이 아니라 이미 생산력장성에 적응하지 않는, 따라서 그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생산관계만을 념두에 두는것이다. 그러나 낡은 생산관계 이외에 다 아는 바와 같이 낡은 생산관계 대신에 나타나는 새로운 생산관계도 있다. 새로운 생산관계의 역할이 생산력에 대한 제동기의 역할에 귀착된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수는 없다. 반대로 새로운 생산관계, 바로 이것은 생산력의 가일층

의, 동시에 강력한 발전을 규정하는 **주요하고** 결정적인 힘이며 이와 같은 새로운 생산관계 없이는 생산력은, 현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침체상태에 빠질 운명에 처하게 되는것이다.

수차의 5개년계획기간에 우리 쏘련공업생산력이 거대하게 발전한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1917년 10월에 낡은 자본주의적생산관계를 새로운 사회주의적생산관계로 바꾸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발전은 있을수 없었을것이다. 우리 나라의 생산관계, 경제관계에서 이와 같은 변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나라의 생산력도 현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생산력이 침체상태에 빠져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침체상태에 빠졌을것이다.

최근 20년 내지 25년간에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력이 거대하게 발전한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30년대에 농촌의 낡은 자본주의적생산관계를 새로운 집단적생산관계로 바꾸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발전은 있을수 없었을것이다. 이와 같은 생산적변혁이 없었다면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력도, 현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그것이 침체상태에 빠져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침체상태에 빠졌을것이다.

물론 새로운 생산관계는 영구히 새로운것으로 남아있을수는 없으며 또 남아있지도 않는다. 그것은 점차 낡아져서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과 모순되게 되며 생산력의 주요동력의 역할을 상실하기 시작하며 그리하여 생산력에 대한 제동기로 전화한다. 그때에는 이미 낡아진 이와 같은 생산관계 대신에 새로운 생산관계, 즉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주요동력의 역할을 노는 새로운 생산관계가 나타난다.

생산관계가 생산력에 대한 제동기의 역할로부터 생산력을

전진시키는 주요동력의 역할에로, 또 생산력의 주요동력의 역할로부터 생산력에 대한 제동기의 역할에로 발전하는 이와 같은 생산관계발전의 특성은 맑스주의적유물변증법의 주요요소의 하나를 이루고있다. 이것은 지금에 와서는 맑스주의의 예비과학생들도 다 알고있다. 그런데 야로쉔꼬동지는 이것을 모르고 있는것이다.

둘째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생산관계, 즉 경제관계의 독립적인 역할이 소멸된다느니 생산관계가 생산력에 흡수된다느니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사회적생산은 생산력의 조직에 귀착된다느니 하는것은 옳지 않다. 맑스주의는 사회적생산을, 사회의 생산력(사회가 필요한 물질적향리품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대상인 자연력에 대한 사회의 관계)과 생산관계(생산과정에서의 인간의 호상관계)라는 불가분적인 두 측면을 가진 전일체로 본다. 이것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생산의 각이한 두 측면이다. 그리고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바로 사회적생산의 각이한 측면이기때문에 호상간 작용할수 있는것이다. 이 측면의 하나가 다른 측면에 흡수되여 그 구성부분으로 전화한다고 주장하는것은 맑스주의를 혹심하게 위반하는것이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인간은 생산에 있어서 자연과만 관계를 가지는것은 아니다. 인간은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여 공동생활을 하며 또 그 활동을 서로 교환하지 않고서는 생산을 진행할수 없다.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일정한 련계 및 관계를 맺으며 또 이러한 사회적 련계 및 관계의 테두리안에서만 그들의 자연과의 관계가 존재하며 생산이 진행된다.》(《맑스엥겔스전집》, 로문판, 제1판, 제5권, 429페지를 보라.)①

---

① 《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462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따라서 사회적생산은 두 측면, 즉 호상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계렬의 각이한 관계, 즉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생산력)와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인간 호상간의 관계(생산관계)를 반영하는 두 측면으로 구성되여있다. 생산에 두 측면이 존재함으로써만 사회적생산은 가능한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이거나 기타의 사회구성이거나를 막론하고 매일반이다.

야로쉔꼬동지는 아마도 맑스에 완전히는 동의하지 않는것 같다. 그는, 맑스의 이 명제는 사회주의제도에는 적용될수 없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는 생산관계, 즉 경제관계를 내던지고 이것과 생산력과를 분리시키면서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문제를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과업에 귀착시키고있다.

따라서 야로쉔꼬동지에게서는 맑스주의정치경제학 대신에 보그다노브의 《보편조직학》93 같은 그 무엇이 나타난다.

이리하여 야로쉔꼬동지는 생산력은 생산의 가장 가동적이며 혁명적인 힘이라는 옳은 사상을 황당무계한것으로 만들고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생산관계, 경제관계의 역할을 부인하는데까지 끌고갔다. 그리하여 그에게서 보게 되는것은 생동하는 사회적생산 대신에 일면적이며 빈약한 생산공정—부하린의 《사회-조직적기술》① 같은 그 무엇이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인간은 그들의 생활의 사회적생산에 있어서〔즉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향리품의 생산에 있어서. —이.쓰딸린〕 일정한, 필연적인, 그들의 의지와는 독립한 관계, 즉 그들의 물질적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생산관계에 들어선다. 이 생산관계의 총체는 사회

① 베닌의 《부하린의 소책자 〈과도기의 경제〉에 대한 론평》, 1976년 인민출판사판, 19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의 경제적구조를, 즉 법률적 및 정치적 상부구조가 그우에 서며 일정한 사회적의식형태들이 그것에 상응하는 현실적토대를 이룬다.》(《정치경제학비판》 서문을 보라.)①

이것은 사회주의사회도 포함한 매개 사회구성이, 사람들의 생산관계의 총체로써 이루어지는 자체의 경제적토대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야로쉔꼬동지에게 있어서는 사회주의제도의 경제적토대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야로쉔꼬동지는 많으나적으나 독립적인 분야로서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생산관계를 이미 청산해버렸고 생산관계에서 남은 극소부분은 생산력조직의 구성내에 포함시켜버렸다. 묻노니, 사회주의제도는 자체의 경제적토대를 가지고있는가?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많으나적으나 독립적인 힘으로서의 생산관계가 소멸된 이상 사회주의제도는 자체의 경제적토대를 가지고있지 않는것으로 된다는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자체의 경제적토대 없는 사회주의사회라는 결론이 나온다. 무척 유쾌한 이야기다.…

대체 자체의 경제적토대를 가지지 않는 사회제도가 있을수 있겠는가? 야로쉔꼬동지는 아마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맑스주의는 그러한 사회제도란 이 세상에는 없다고 간주한다.

끝으로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합리적조직이라느니, 생산력의 합리적조직이 곧 공산주의제도의 본질의 전부라느니,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기만 하면 특별한 난관없이 공산주의로 이행할수 있다느니 하는것은 옳지 않다. 우리 문헌에는 공산주의의 다른 정의, 다른 공식, 즉 《공산주의—쏘베트정권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82페지를 보라.—편집자

플라스 전국의 전기화이다.》①라는 레닌의 공식이 있다. 야로쉔꼬동지는 아마도 레닌의 공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그리하여 그는 《공산주의란 사회적생산에 있어서의 생산력의 최고의 과학적조직이다.》라는 자신이 손수 만들어낸 공식과 그것을 바꾸어놓고있다.

첫째로, 야로쉔꼬동지가 고취하고있는 생산력의 이 《최고의 과학적》 또는 《합리적》 조직이란 어떠한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것인가 하는것은 아무도 모른다. 야로쉔꼬동지는 토론회총회 및 분과위원회에서의 토론과 정치국위원들에게 보낸 자기의 서한에서 수십차례나 이 신화적인 공식을 되풀이하고있으나 공산주의제도의 본질의 전체라고 하는 생산력의 《합리적조직》을 대체 어떻게 리해하여야 할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어느곳에서도 일언반구 설명하려 하지 않고있다.

둘째로, 만일 두 공식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유일하게 정당한 레닌의 공식을 내버릴것이 아니라 분명히 꾸며낸, 비맑스주의적인, 보그다노브의 무기고—《보편조직학》으로부터 끌어온 야로쉔꼬동지의 소위 공식을 내버려야 할것이다.

야로쉔꼬동지는, 생산물을 풍요하게 만들고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즉 《각자에게는 로동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공식으로부터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공식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며 사회주의의 경제발전법칙에 대한 완전한 무식을 폭로하는것이다. 야로쉔꼬동지는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조건을 너무나 단순하게,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고있다. 야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1권, 380페지를 보라.—편집자

로쉔꼬동지는 집단농장적-집단적소유, 상품류통 등등과 같은 경제적 제 사실을 그대로 남겨두고서는, 사회의 모든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을 정도로 생산물을 풍요하게 만들수도 없으며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공식에로 이행할수도 없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야로쉔꼬동지는,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공식으로 이행하기전에 사회의 경제적 및 문화적 재교육의 일련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기간에 로동은 단순한 생활유지의 수단으로부터 사회의 관념에서 제1차적인 생활상 요구로 될것이며 사회적소유는 사회존렵의 확고하고 신성한 기초로 되리라는것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공산주의에로의 선언적인 이행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가지의 기본예비조건을 실현해야 한다.

1. 생산력의 신화적인 《합리적조직》이 아니라 생산수단생산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전체 사회적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확고하게 보장하는것이 필요하다. 생산수단생산의 우선적장성이 필요한것은 비단 그것이 생산수단생산부문기업소들과 기타 모든 인민경제부문기업소들에 설비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또한 생산수단의 우선적장성 없이는 도대체 확대재생산을 실현할수 없기때문이다.

2. 집단농장에, 따라서 또 전체 사회에 유익하게 실현되는 점차적이행의 방법으로 집단농장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제고하며 또 상품류통을 역시 점차적이행의 방법으로 물물교환체계로 바꾸어 중앙정권이나 또는 다른 어떤 사회-경제적중앙이 사회적생산의 일체 생산물을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총괄할수 있게 하는것이 필요하다.

야로쉔꼬동지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사회의 생산관계

와 생산력간에 아무러한 모순도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오유를 범하고있다. 물론 우리 나라의 현 생산관계는, 그것이 완전히 생산력의 장성에 적응하기때문에 생산력을 급속도로 전진시키고있는 그러한 시기에 처하여있다. 그러나 이에 안심하고 우리 나라의 생산력과 생산관계간에는 아무러한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일것이다. 생산관계의 발전이 생산력의 발전에 뒤떨어지고있으며 또 앞으로도 뒤떨어질것인만큼 모순은 무조건적으로 있으며 또 앞으로도 있을것이다. 지도기관들의 정책이 정확할 경우에는 이 모순은 대립으로 전화하지 못하며 또 여기에서는 사태가 사회의 생산관계와 생산력간의 충돌에까지 이를수는 없다. 그러나 야로쉔꼬동지가 권고하는것과 같은 옳지 않은 정책을 실시한다면 문제는 다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충돌은 불가피할것이며 우리의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을 저애하는 큰 장애물로 전화할수 있을것이다.

때문에 지도기관들의 과업은, 증대하는 모순을 제때에 발견하고 생산관계를 생산력장성에 적응시키는 방법으로 제때에 이 모순을 극복할 대책을 취하는데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집단적, 집단농장적 소유, 상품류통과 같은 경제현상과 관련되여있다. 물론 현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경제현상이 사회주의경제발전을 위하여 성과적으로 리용되고있으며 또 우리 사회에 의심할 여지 없이 리익을 가져다주고있다. 이러한 경제현상이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도 리익을 가져다주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러한 경제현상이 전체 인민경제를, 특히는 농업을 완전히 국가적계획에 포괄시키는데 장애로 되고있으니만큼 그것은 아미 현재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의 생산력의 강력한 발전을 저애하기 시작하고있다는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용허할수 없는 암둔일것이다. 이러한

경제현상은 우리 나라 생산력의 가일층의 장성을 갈수록 더욱 더 저애하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따라서 과업은 집단농장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점차 전화시키며 상품류통 대신에 물물교환을 역시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모순을 청산하는데 있다.

3. 사회성원들이 사회발전의 적극적활동가로 되기에 충분한 교육을 받을수 있게 하며 또 그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며 현존분업으로 말미암아 일생동안 어떤 한가지 직업에 얽매여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의 전면적발전을 보장할수 있는 그러한 사회의 문화적발전을 달성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현재의 로동상태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고서 사회성원의 이러한 고도의 문화적발전을 달성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옳지 않을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로동시간을 적어도 6시간으로, 다음에는 5시간으로 단축하는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성원들이 전면적교육을 받기에 필요한 자유로운 시간을 충분히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으로 사회성원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며 일생동안 어떤 한가지 직업에 얽매여있지 않게 하는데 필요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또 다음으로 주택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 필요하며 또 화폐임금을 직접 인상하며 특히 대중소비품가격을 가일층 계통적으로 인하하는 방법으로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임금을 적어도 최소한도 2배로 인상하는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것이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기본조건들이다.

이와 같은 모든 예비조건이 전부 실현된후에라야 비로소

로동은 사회성원의 관념에서,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생활의 제1차적요구로》①(맑스) 될것이며 《로동은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쾌락으로 될》(엥겔스)②것이며 사회적소유가 전체 사회성원에게, 사회존립의 확고부동하며 신성한 기초로서 평가받을 것을 기대할수 있을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예비조건이 전부 실현된후에라야 비로소 《각자는 능력을 다하고 각자에게는 로동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사회주의적공식으로부터 《각자는 능력을 다하고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공산주의적공식으로 이행할수 있게 될것이다.

이것은 한 경제, 즉 사회주의경제로부터 다른 보다 높은 경제, 즉 공산주의경제에로의 근본적인 이행일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야로쉔꼬동지가 생각하고있는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대한 경제적변화를 요구하는 이 모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야로쉔꼬동지가 하고있는것처럼 《생산력의 합리적조직》에 귀착시키려고 하는것은 맑스주의를 보그다노브주의로 바꾸어놓는것을 의미한다.

2
야로쉔꼬동지의 다른 오유

1. 야로쉔꼬동지는 자기의 옳지 않은 견지에서 출발하여 정치경제학의 성격 및 대상에 관한 옳지 않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야로쉔꼬동지는 매개 사회구성은 자체의 특수한 경제법칙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12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333페지 —편집자

을 가지고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사회의 구성에 적응하는 유일한 정치경제학의 필요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그는 전혀 옳지 않으며 또 이 점에서 그는 엥겔스나 레닌과 같은 맑스주의자들과 의견을 달리하고있는것이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정치경제학은 《각이한 인간사회들에서 생산과 교환이 진행되는, 또 그에 상응하게 소여의 매개 사회에서 생산물의 분배가 진행되는 그 조건과 형태에 관한 과학》(《반듀링론》)①이다 라고. 따라서 정치경제학은 어떤 한 사회구성의 경제발전법칙을 연구하는것이 아니라 각이한 사회구성의 경제발전법칙을 연구하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레닌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있다. 그는 부하린의 저서 《과도기의 경제》에 관한 론평에서, 부하린이 정치경제학의 범위를 상품생산,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 생산에 국한시키고있는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였으며 동시에 부하린은 여기서 《엥겔스에 비하여 1보 후퇴》②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치경제학교과서초고에 있는 정치경제학의 정의는 완전히 이와 일치하고있다. 초고에는 정치경제학이란 《인간사회발전의 각이한 단계에 있어서의 물질적향리품의 사회적 생산 및 분배에 관한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씌여있다.

이것은 명백하다. 각 사회구성은 그 경제발전에 있어서 자체의 특수한 경제법칙에 복종할뿐만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에 공통적인 경제법칙, 례컨대 단일한 사회적생산에 있어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와의 통일에 관한 법칙, 모든 사회구성의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간의 관계에 관한 법칙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189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부하린의 소책자 〈과도기의 경제〉에 대한 론평》, 1976년 인민출판사판, 2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파 같은 제 법칙에도 복종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은 자체의 특수한 법칙에 의하여 서로 구분될뿐만아니라 또한 모든 사회구성에 공통적인 경제법칙에 의하여 호상련결되여있는것이다.

엥겔스가 다음과 같이 말한것은 전적으로 옳다.

《자산계급경제학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전면적으로 가하기 위하여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교환 및 분배의 형태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하였다. 이 형태에 선행하였거나 혹은 덜 발달한 나라들에 아직 이 형태와 함께 존재하고있는 형태들도 역시 개략적으로나마 연구하고 비교해보지 않으면 안되였다.》(《반듀링론》)①

이 문제에 있어서 야로쉔꼬동지는 부하린과 일맥상통하고 있는것이 명백하다.

다음 야로쉔꼬동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에 있어서는 《정치경제학의 제 범주—가치, 상품, 화폐, 신용 및 기타—는 사회적생산에서의 생산력의 합리적 조직에 관한 견전한 고찰로 교체되며》 따라서 이 정치경제학의 대상은 사회주의의 생산관계가 아니라 《생산력조직의 과학적 리론, 인민경제계획화의 리론 등등의 연구 및 발전》이며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생산관계는 그 독립적인 의의를 상실하고 생산력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생산력에 흡수된다고.

우리 나라에는 아무리 얼빠진 《맑스주의자》라 할지라도 이처럼 어리석은 헛소리를 하고다니는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야 할것이다. 경제문제, 생산문제 없는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체 이와 같은 정치경제학이 이 세상에 있을수 있는가?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에서 경제문제를 생산력의 조직문제로 바꾼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청산한다는것을 의미한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190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다. 야로쉔꼬동지는 바로 이와 같이 하고있는것이다.—그는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청산하고있다. 여기서 그는 완전히 부하린과 한덩어리가 되고있다. 부하린은 자본주의의 폐절과 함께 응당 정치경제학도 폐절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① 야로쉔꼬동지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청산함으로써 이것을 실천하고있는것이다. 하기는 여기서 그는 부하린에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체하고있으나 이것은 계책이며 그것도 값싼 계책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그는 부하린이 설교하였으며 레닌이 반대한것을 실행하고있는것이다. 야로쉔꼬동지는 부하린의 뒤꼬리를 따라가고있다.

다음으로 야로쉔꼬동지는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문제를 생산력의 합리적조직에 관한 문제, 인민경제계획화에 관한 문제 등등에 귀착시키고있다. 그러나 그는 심한 착오에 빠지고 있다. 생산력의 합리적조직, 인민경제의 계획화 등등의 문제는 정치경제학의 대상이 아니라 지도기관의 경제정책의 대상이다. 이것은 혼동해서는 안되는, 서로 다른 두 분야이다. 야로쉔꼬동지는 이 두가지 서로 다른 사물을 혼동함으로써 혼란에 빠지고말았다. 정치경제학은 사람들의 생산관계의 발전법칙을 연구한다. 경제정책은 이로부터 실제적인 결론을 내리며 그것을 구체화하며 이에 근거하여 자체의 일상적사업을 조직한다. 정치경제학에다 경제정책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것은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을 파멸시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경제학의 대상은 사람들의 생산관계, 경제관계이다. 이에 속하는것은 (1) 생산수단의 소유형태, (2) 이로부터 나오는, 생산에 있어서의 각 사회집단의 처지 및 그들의 호상관

---

① 레닌의 《부하린의 소책자 〈과도기의 경제〉에 대한 론평》, 1976년 인민출판사판, 2~3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계, 또는 맑스가 말한바 《그들의 활동의 호상교환》①, (3) 전적으로 이에 종속되는 생산물분배형태이다. 이 모든것이 합쳐서 정치경제학의 대상을 이룬다.

이 정의에는 엥겔스의 정의에 있는 《교환》이라는 말이 없다. 그것이 없는것은 엥겔스가 《교환》이라는 말을 상품교환이라는 의미로만 리해한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통 《교환》을 모든 사회구성에 고유한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구성에만 고유한 상품교환으로 리해하여 간혹 오해를 일으키기때문이다. 그러나 보는바와 같이 엥겔스가 《교환》이라는 말로써 리해한 그 내용이 상술한 정의가운데 그 구성부분으로서 들어가있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의 대상에 대한 이 정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엥겔스의 정의와 완전히 합치되는것이다.

2. 어떤 사회구성의 기본법칙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한 사회구성이 수개의 기본경제법칙을 가질수는 없으며 어떤 하나의 기본경제법칙만을 바로 기본법칙으로서 가질수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매개 사회구성에 수개의 기본경제법칙이 있게 될것인데 이것은 기본법칙이라는 개념자체와 모순된다. 그러나 야로쉔꼬동지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은 하나가 아니라 몇개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나 그러나 사실이다. 토론회총회에서의 토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회적 생산 및 재생산의 물질적총량의 크기와 호상관계는 사회적생산에 인입되는 로동력의 존재와 그 장성의 전망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적인 사회적 생산 및 재생산의 구조를 결정하는 사회주의사회의 기본경제법칙이다.》

---

① 《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462페지를 보라,—편집자

이것이 사회주의의 첫째 기본경제법칙이다.

같은 토론에서 야로셴꼬동지는 또 이렇게 언명하고있다.

《제1부류와 제2부류간의 호상관계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능력있는 전체 주민을 사회적생산에 인입하는데 필요한 규모로 생산수단을 생산해야 할 요구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이며 동시에 이것은 쏘베트사람들의 로동에 대한 권리로부터 나오는 우리 나라 헌법의 요구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사회주의의 둘째 기본경제법칙이다.

끝으로 야로셴꼬동지는 정치국위원들에게 보내는 자기의 서한에서 이렇게 언명하고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의 본질적특징과 요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회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조건의, 부단히 증대하며 개선되는 생산이라고》.

이것이 벌써 사회주의의 셋째 기본경제법칙이다.

이 법칙들은 그 모두가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인가 또는 그중의 하나만이 그러한가 또 만일 그중의 하나만이 그렇다면 어느것이 바로 그것인가—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야로셴꼬동지는 정치국위원들에게 보낸 그 마지막서한에서 해답을 주지 않고있다. 정치국위원들에게 보낸 자기의 서한에서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을 정식화할 때 그는, 자기가 이미 3개월전에 토론회총회에서 한 토론에서 사회주의의 다른 두개 기본경제법칙을 정식화하였다는것을 아마 《잊어버렸던》것 같으며 그는 아마 이 극히 의심스러운 술책에는 사람들이 주의를 돌리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보는바와 같이 그의 타산은 어그러졌다.

가령 야로셴꼬동지가 처음에 정식화한 사회주의의 두개 기본법칙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야로셴꼬동지는 금후에 있

어서는 정치국위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말한 그의 제3의 공식을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으로 간주한다고 하자. 야로쉔꼬동지의 서한을 보기로 하자.

야로쉔꼬동지는 이 서한에서, 자기는 쓰딸린동지의 《의견》에서 말한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정의에서 주요한것은 〈전체 사회의…수요의 최대한의 충족을 보장하는것〉이다. 생산은 여기에서는 이 주요목적—수요의 충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묘사되여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당신이 정식화한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이 생산의 우위로부터 출발한것이 아니라 소비의 우위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추측할 근거를 준다.》

확실히 야로쉔꼬동지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리해하지 못하고있으며 소비의 우위냐 생산의 우위냐 하는 론의는 이 문제와는 아무러한 관련도 없다는것을 알지 못하고있다. 어떤 사회적과정이 다른 과정에 비하여 우위를 차지한다고 말할 때에는 보통 이 두 과정이 많으나적으나 같은 종류의것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한다. 소비수단생산에 비하여 생산수단생산이 우위를 차지한다는것은 말할수 있으며 또 말해야 한다. 왜냐 하면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로 하는것은 생산이며 따라서 이 량자는 많으나적으나 같은 종류의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에 비하여 소비가 우위를 차지한다거나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생산이 우위를 차지한다거나 하는 말은 할수 없으며 또 그렇게 말하는것은 옳지 않은것이다. 왜냐 하면 생산과 소비는 전혀 다른 두 분야, 물론 호상 련결되여있기는 하나 여하튼 서로 다른 분야이기때문이다. 야로쉔꼬동지는 확실히,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있는것은 소비의 우위냐 생산의 우위냐 하는것이 아니라 사회가 사회적생산앞에 어떠한 목적을 제기하는가, 사회가 례컨대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사회적생산을 어

떠한 과업에 종속시키는가 하는것임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다른 모든 사회의 생활의 기초가 그러한것과 같이 사회주의사회의 생활의 기초도 생산이다.》라고 하는 야로쉔꼬동지의 발도 역시 이 문제와는 아무러한 관계도 없는것이다. 야로쉔꼬동지는, 사람은 생산을 위하여 생산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한다는것을 잊어버리고있다. 그는 사회의 수요의 충족으로부터 유리된 생산은 쇠퇴하며 사멸한다는것을 잊어버리고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이라든가, 자본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생산이 거기에 복종하는 그 과업이라든가 하는 말을 할수가 있겠는가? 나는 말할수 있으며 또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자본주의적생산의 직접적목적은 상품의 생산이 아니라 잉여가치 또는 그 발전된 형태인 리윤의 생산이며 생산물의 생산이 아니라 잉여생산물의 생산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에는 로동자체는 그것이 자본을 위하여 리윤 또는 잉여생산물을 창조하는 한에서만 생산적이다. 로동자가 이것을 창조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로동은 비생산적이다. 따라서 사용된 생산적로동의 량은 그 량에 의하여—또는 그 량에 비례하여—잉여로동의 량이 증대되는 한에 있어서만 자본의 팽창을 꾀며 또 그러한 한에 있어서만, 우리가 필요로동시간이라고 부른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로동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한 그 로동은 무용지물로 되며 또 중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적생산의 목적은 언제나 최소한의 전대자본을 가지고 최대한의 잉여가치 또는 최대한의 잉여생산물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로동자들의 과도한 로동에 의해서도 달성되지 못할 때, 소여의 생산물을 가능한 한 더 적은 지출로써 생산하려는 즉 로동력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자본의 경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리해하는 경우에는 로동자자체는 그들이 자본주의적생산

에 있어서 사실상 그런것과 같이 다만 생산의 수단일뿐 목적자체나 생산의 목적은 아니다.》(《잉여가치학설사》, 제2권, 제2분책을 보라.)①

맑스의 이 말은 비단 그것이 간단하고 정확하게 자본주의적생산의 목적을 규정하고있다는 점에서뿐만아니라 또 사회주의적생산앞에 제기되여야 할 기본목적, 주요과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완벽하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의 목적은 리윤을 짜내는것이다. 소비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다만 리윤을 짜내는 과업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자본주의에 필요한것이다. 이것을 제외한다면 소비문제는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아무 의의도 없다. 수요를 가진 인간은 안계에서 사라진다.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회적생산이 수행하여야 할 주요과업은 어떠한것인가?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은 리윤이 아니라 수요를 가진 인간, 즉 인간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이다.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은 쓰딸린동지의 《의견》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전체 사회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의 최대한의 충족을 보장하는것》②이다.

야로쉔꼬동지는 여기에서는 생산에 대한 소비의 《우위》가 문제로 되고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물론 인식부족이다.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하고있는것은 소비의 우위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의 최대한의 충족의 보장이라는 사회주의적생산의 기본목적에의 사회주의적생산의 종속이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

①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6권, 제2분책, 624~625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이 책, 734페지를 보라.—편집자

수요의 최대한의 충족의 보장—이것은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이며 높은 기술적토대우에서의 사회주의적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개선—이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법칙은 이러하다.

소비에 대한 생산의 초위《우위》를 보존하려고 하는 야로셴꼬동지는《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은《사회의 물질적 및 문화적 제 조건의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개선》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야로셴꼬동지는 쓰딸린동지의《의견》에 서술된 공식을 란폭하게 외곡, 손상시키고있다. 야로셴꼬동지는 생산을 수단으로부터 목적으로 전화시키고있으며 사회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의 최대한의 충족의 보장은 도외시하고있다. 생산장성을 위한 생산장성, 목적자체로서의 생산이 나타나며 수요를 가진 인간은 야로셴꼬동지의 안계에서 사라지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야로셴꼬동지의《개념》속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으로서의 인간이 사라짐과 함께 맑스주의의 마지막흔적마저 사라지고있다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야로셴꼬동지에게 있어서는 소비에 대한 생산의《우위》가 아니라 맑스주의적사상에 대한 자산계급적사상의《우위》와 같은 그 무엇이 나타난것이다.

3. 맑스의 재생산론에 관한 문제가 특별하게 취급되고있다. 야로셴꼬동지는 맑스의 재생산론은 다만 자본주의적재생산론에 불과하며 그것은 사회주의적사회구성도 포함한 기타의 사회구성에 타당할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가지고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맑스가 자본주의경제를 위하여 작성한 그의 재생산도식을 사회주의적사회적생산에 옮겨놓는것은 맑스의 학설에 대한 교조주의적리해의 산물로서 그의 학설의 본질에 모순된다.》(토론회총회에서의 야로셴꼬동

지의 토론을 보라.)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맑스의 재생산도식은 사회주의사회의 경제법칙에 맞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적재생산연구의 기초로는 될수 없다.》(우와 같음.)

생산수단생산(제1부류)과 소비수단생산(제2부류)과의 사이의 일정한 호상관계를 규정하고있는 맑스의 단순재생산리론에 관해서 야로쉔꼬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제1부류와 제2부류간의 호상관계는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는 제1부류의 V+M과 제2부류의 C에 관한 맑스의 공식①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사회주의의 조건하에서는 제1부류와 제2부류간의 발전에 있어서의 상기한바와 같은 호상련관은 있을수 없다.》(우와 같음.)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제1부류와 제2부류간의 호상관계에 관한 맑스의 리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건하에서는 적용될수 없다. 왜냐하면 맑스의 리론의 기초로 되여있는것은 자본주의경제와 그 법칙이기때문이다.》(정치국위원들에게 보낸 야로쉔꼬동지의 서한을 보라.)

야로쉔꼬동지는 맑스의 재생산론을 이와 같이 비난하고있다.

물론 자본주의적생산법칙을 연구한 결과 수립된 맑스의 재생산론은 자본주의적생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있으며 또 그것은 자연히 상품적자본주의적가치관계의 형태를 취하고있다. 달리는 될수도 없었다. 그러나 맑스의 재생산론에서 그 형태만을 보고 그 기초를 보지 못하며 자본주의적사회구성에 대해서만 타당한것이 아닌 그 기본내용을 보지 못하는것은 이 리론에서 아무것도 리해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만일 야로쉔꼬동지가 이 문제에서 무엇인가를 리해하였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

① 여기에서 v는 가변자본, m은 잉여가치, c는 불변자본을 가리킨다. 이 도식에 대하여서는 맑스의 《자본론》, 한문판, 제2권, 제20장을 보라.—편집자

명백한 진리도, 즉 맑스의 재생산도식은 결코 자본주의적생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특히 사회주의적사회구성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에 타당한 재생산에 관한 일련의 기본명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있다는 것도 리해하였을것이다. 맑스의 재생산론의 다음과 같은 기본명제 즉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수단생산에의 사회적생산의 구분에 관한 명제, 확대재생산에 있어서의 생산수단생산의 우선적 장성에 관한 명제, 제1부류와 제2부류간의 호상관계에 관한 명제, 축적의 유일한 원천으로서의 잉여생산물에 관한 명제, 사회적기금의 형성 및 그 사명에 관한 명제, 확대재생산의 유일한 원천으로서의 축적에 관한 명제—맑스의 재생산론에 있어서의 이 모든 기본명제는 비단 자본주의적구성에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어느 사회주의사회도 인민경제를 계획화할수 없는 바로 그러한 명제인것이다. 그런데 맑스의 《재생산도식》을 그렇게도 거만하게 코웃음하던 야로셴꼬동지자신이 사회주의적재생산문제를 토의할 때에는 맑스의 이 《도식》을 빈번히 리용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레닌과 맑스는 어떻게 보았는가?

부하린의 저서 《과도기의 경제》에 대한 레닌의 론평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바이다. 그 론평에서 주지하는바와 같이 레닌은, 지금 야로셴꼬동지가 반대하고있는, 제1부류와 제2부류간의 호상 관계에 관한 맑스의 공식은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순수한 공산주의》 즉 공산주의의 제2단계에 대해서도 여전히 타당할것이라고 인정하였던것이다.

맑스는 어떠하였는가 하면 그는 주지하는바와 같이 자본주의적생산법칙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는것을 즐기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는 《자본론》에서 자기의 재생산도식이 사회주의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연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론》 제2권 제20장 《제1부류의 불변자본》이라는 절에서, 즉 그가 제1부류내부에서의 제1부류생산물의 교환을 설명하고있는 절에서 맑스는, 이 부문에 있어서의 생산물교환은 사회주의하에서도 자본주의적생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부단히 진행될것이라고 부언하고있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생산이 자본주의적생산이 아니라 사회적생산이라 할지라도 제1부류의 생산물은 재생산을 위하여 보다 못하지 않게 부단히 이 부류의 각 생산부문간에 생산수단으로서 분배될것이며 제1부류의 생산물의 일부분은 그것이 생산물로서 생산된 생산분야에 직접 남을것이며 이와 반대로 다른 일부분은 다른 생산장소에 이동될것이고 이리하여 제1부류의 각 생산장소들간에서는 부단한 호상이동이 진행되게 될것은 명백하다.》(맑스의 《자본론》, 로문판, 제8판, 제2권, 307페지를 보라.)①

따라서 맑스는 자본주의적생산법칙을 연구하기는 하였으나 자기의 재생산론이 오직 자본주의적생산에만 타당한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반대로 보는바와 같이 그는 자기의 재생산론이 사회주의적생산에도 타당할수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였다.

지적해야 할것은 맑스가 《고타강령비판》에서 사회주의경제와 공산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경제를 분석할 때에 자기의 재생산론의 기본명제들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이 명제들을 공산주의제도하에서도 필수적인것이라고 보았다는것이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것은 엥겔스가 자기의 저서 《반듀링론》에서 듀링의 《공동사회체계》를 비판하고 사회주의제도의 경제의 특징을 론할 때에 그도 역시 맑스의 재생산론의 기본명제들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이 명제들을 공산주의제도하에서

---

①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4권, 473~474페지를 보라.—편집자

도 필수적인것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사실은 이러하다.

결국 이 재생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야로쉔꼬동지는 맑스의 《도식》에 대한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곤경에 빠지고말았다.

4. 정치국위원들에게 보낸 자기 서한의 마지막에서 야로쉔꼬동지는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편찬할것을 자기에게 위임하여달라고 제의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총회와 분과위원회와 본 서한에서 내가 말한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대상에 관한 정의로부터 출발하여 또 맑스주의적변증법적방법을 리용함으로써 나는 두사람의 보조를 받는다면 1년 내지 1년 반이내에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기본문제를 리론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즉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맑스주의적, 레닌-쓰딸린적 리론, 이 과학을 공산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효과적인 무기로 전화시킬 그러한 리론을 서술할수도 있다.》

야로쉔꼬동지는 겸손치않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작가들의 필법을 들어 말한다면 《정반대인데요.》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이미 우에서 말한바와 같이 야로쉔꼬동지는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지도기관들의 경제정책과 혼동하고있다. 그가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있는것, 즉 생산력의 합리적조직이니, 인민경제의 계획화니, 사회적기금의 형성이니 무엇이니 하는것은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대상인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도기관들의 경제정책의 대상인것이다.

야로쉔꼬동지가 법한 중대한 오유라든가 그의 비맑스주의적인 《견해》는 야로쉔꼬동지에게 그러한것을 위임할수 없게 한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 *
*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지도자들에 대한 야로쉔꼬동지의 신소는 무근거하다. 왜냐 하면 토론회 지도자들은 맑스주의자들인것만큼 자기들의 총결문건에다 야로쉔꼬동지의 비맑스주의적인 《견해》를 반영시킬수는 없었기때문이다.

(2)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집필할것을 자기에게 위임해달라는 야로쉔꼬동지의 요청은 그것이 흘레스따꼬브[94]의 냄새가 풍긴다는 리유만으로도 그것을 엄숙한것이라고 간주할수가 없다.

이.쓰딸린

1952년 5월 22일

이.웨.싸니나동지와 웨.게.웬쩨르 동지에게 주는 대답

동지들의 편지를 받았다. 보건대 이 편지의 필자들은 우리 나라의 경제문제를 깊이 또 열심히 연구하고있는것 같다. 편지에는 적지 않게 옳은 정식화와 재미있는 의견들이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몇가지 중대한 리론적오유도 있다. 이 회답에서 나는 그 오유에만 언급하려고 생각한다.

1.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성격에 관한 문제

싸니나동지와 웬쩨르동지는 《오직 물질적생산에 종사하는 쏘베트사람들의 의식적행동에 의해서만 사회주의경제법칙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 명제는 전혀 옳지 않다.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은 객관적으로, 우리밖에, 사람들의 의지 및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가? 맑스주의는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맑스주의는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이란 우리밖에 존재하는 객관적합법칙성이 인간의 두뇌에 반영된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싸니나동지와 웬제르동지의 공식은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하고있다. 즉 이 두 동지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경제발전법칙은 사회의 지도기관들에 의하여 《창조》되며 《개조》된다고 주장하는 그릇된 리론의 견지에 서있다. 다시말하면 그들은 맑스주의와 절연하고 주관적관념론의 길에 들어서고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러한 객관적합법칙성을 발견하고 인식하며 또 그것에 립각하여 이 합법칙성을 사회를 위하여 리용할수는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법칙을 《창조》하거나 《개조》할수는 없는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경제생활에 객관적합법칙성이 존재한다는것을 부인하며 경제법칙을 《창조》하며 경제법칙을 《개조》할수 있다고 선언하는 그릇된 리론의 견지에 잠시 섰다고 가정하자. 그때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에는 우리는 혼란과 우연의 왕국에 빠지게 될것이며 이러한 우연에 노예와 같이 예속되게 될것이며 우리는 혼란상태에 있는 그 우연을 리해하기는 고사하고 그것을 분별할수조차 없게 될것이다.

그때에는 우리는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을 청산하게 될것이다. 왜냐 하면 과학이란 객관적합법칙성을 인정함이 없이는, 이 합법칙성을 연구함이 없이는 존재할수 없으며 발전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런데 과학을 청산한다면, 우리는 국내경제생활에서의 제 사건의 행정을 예견할수 없게 될것이다. 다

시말하면 우리는 가장 초보적인 경제적지도도 실시할수 없게 될것이다.

결국 우리는 객관적합법칙성에 대한 리해도 고려도 없이 경제발전법칙을 《폐절》하며 새로운 법칙을 《창조》하려고 덤비는 《경제적》모험주의자들의 전횡의 지배를 받게 될것이다.

누구나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엥겔스는 《반듀링론》에서 이 문제에 관한 맑스주의의 견지를 다음과 같이 모범적으로 정식화하였다.

《사회적힘도 완전히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않는 한 맹목적으로, 강제적으로,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 활동, 방향, 영향을 파악한 이상 그것을 더욱더 우리의 의사에 복종시키고 그것을 리용하여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자신에게 달려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강대한 생산력에 특히 적용된다. 우리가 한사코 이 생산력의 본성과 성격을 리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그런데 자본주의적생산방식과 그 옹호자들은 이것을 리해하려고 하지 않는다.—이 생산력은 우에서 상세하게 서술한바와 같이 우리를 무시하고 반대하여 작용하며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나 일단 그 본성을 파악하기만 하면 이 생산력은 련합된 생산자들의 손에서 악마와 같은 지배자로부터 순종하는 노복으로 될수 있다. 이 경우의 차이는 뢰우의 번개에 있는 전기의 파괴력과 전신기나 아크등의 제어된 전기와의 차이와 같으며 또 화재의 불과 인간이 사용하는 불과의 차이와 같다. 오늘날의 생산력을 마침내 인식된 그 본성에 알맞게 취급하게 되면 사회적생산의 무정부성은 사회전체와 그 매개 성원의 수요에 적응하는 생산의 사회인, 계획적인 조절로 교체될것이다. 그러면 생산물이 처음에는 생산자를 예속시키고 다음에는 점유자까지 예속시키는 자본주의적점유방식은 현대의 생산수단의 본성자체에 기초한, 생산물의 새로운 점유방식으로 교체될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생산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생산물의 직접적인 사회적점유와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 및 향락 수단으로서의 생산물의 직접적인

개인적점유로 교체될것이다.》①

2. 집단농장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킬 방책에 관한 문제

두말할것도 없이 전인민적소유가 아닌 집단농장적소유를 전인민적(《국가적》)소유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

어떤 동지들은, 한때 자본주의적소유에 대하여 실행한 그 례에 따라 집단농장적소유도 그것을 전인민적소유라고 선포함으로써 간단히 그것을 국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제의는 전혀 옳지 않으며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는것이다. 집단농장적소유는 사회주의적소유이다. 따라서 우리는 집단농장적소유를 자본주의적소유와 마찬가지로 취급할수는 결코 없는것이다. 집단농장적소유는 전인민적소유가 아니라고 해서 집단농장적소유는 사회주의적소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결코 안된다.

이 동지들은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를 국가의 소유로 넘기는것이 국유화의 유일한, 또는 어쨌든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하고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사실에 있어서는 국가의 소유로 넘기는것은 국유화의 유일한 형태가 아니며 또 물론 가장 좋은 형태도 아니다. 그것은 엥겔스가 《반듀링론》에서 정당하게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국유화의 초보적형태인것이다. 두말할것도 없이 국가가 존재하고있는 한 국가의 소유로 넘기는것은 국유화의 가장 알기 쉬운 초보적형태이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을것이다. 사회주의의 세력범위가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에 확대됨에 따라 국가는 조락할것이며 또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319~320페지를 보라.—편집자

물론 이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넘기는 문제도 없어질것이다. 국가는 조락하나 사회는 남아있을것이다. 따라서 전인민적소유의 상속자로 나서게 될것은 이제는 조락한 국가가 아니라 중앙의 지도적경제기관을 자기의 대리자로 하는 사회자체일것이다.

그렇다면 집단농장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할것인가?

집단농장적소유의 이러한 제고에 필요한 기본적대책으로서 싸니나동지와 웬쥐르동지가 제의하고있는것은 농기계임경소에 집중되여있는 기본적생산도구를 집단농장에 판매하여 그 소유로 만들며 그리하여 국가가 농업에 자본을 투하하는 부담을 덜며 집단농장자체가 농기계임경소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집단농장의 투자는 주로 집단농장농촌의 문화적수요에 지출되여야 할것이고 농업생산의 수요를 위해서는 종전대로 그 대부분의 투자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잘못일것이다. 집단농장이 이러한 부담을 전부 감당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으니만큼 국가를 이런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는것이 옳지 않겠는가? 국가는 소비품을 풍요하게 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투자를 해야 하는것이다.》

제안작성자들은 이 제안을 론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론거를 내놓고있다.

첫째로, 생산수단은 집단농장에조차 판매하지 않는다는 쓰딸린의 말을 인증하면서 제안작성자들은 쓰딸린의 이 명제를 의심하여 그래도 역시 국가는 소농기구 즉 큰 낫, 작은 낫, 작은 발동기 등등과 같은 생산수단을 집단농장에 판매하고있다고 언명한다. 그들은, 만일 국가가 집단농장에 이와 같은 생산수단을 판매한다면 농기계임경소의 기계와 같은 기타의 모든 생산수단도 집단농장에 판매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

한다.

이와 같은 론거는 성립될수 없다. 물론 국가는 농업로동조합규약과 헌법에 규정되여있는바와 같이 소농기구를 집단농장에 판매하고있다. 그러나 소농기구와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인 농기계임경소의 기계나 또는 례컨대 역시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의 하나임에 틀림없는 토지 같은것과를 동일시할수 있겠는가? 물론 그럴수 없다. 왜냐 하면 소농기구는 결코 집단농장생산의 운명을 결정할수 없지만 농기계임경소의 기계라든가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은 우리 나라 현조건하에서는 농업의 운명을 전적으로 결정하는것이기때문이다.

쓰딸린이 생산수단은 집단농장에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을 때에 그가 념두에 둔것은 소농기구인것이 아니라 농기계임경소의 기계라든가 토지와 같은 기본적농업생산수단이였다는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이 제안작성자들은 자기들이 곤경에 빠진다는것은 모르고 《생산수단》이라는 말을 가지고 희롱하며 두개의 서로 다른것을 혼동하고있다.

둘째로, 싸니나동지와 웰레르동지는 또한 대중적집단농장운동의 초기인 1929년말 및 1930년초에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자체가 집단농장으로 하여금 농기계임경소의 가격을 3년동안에 상환하게 하고 농기계임경소를 집단농장의 소유로 넘겨주자는데 찬동하였다는것을 인증하고있다. 그 당시는 집단농장이 《빈한하였기때문에》 이 사업이 실패하였지만 지금은 집단농장들이 부유해진것만큼 이 정책으로 돌아가서 농기계뜨락또르임경소를 집단농장에 판매할수 있을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이 론거도 역시 성립될수 없는것이다.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가 1930년초에 농기계임경소를 집단농장에 판매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한것은 사실이다. 이 결정은 집단

농장돌격대원집단의 제의에 의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경험삼아, 시험삼아 채택한것이였다. 그러나 첫시험에서 벌써 이 결정은 불합리하다는것이 나타났기때문에 몇달후인 1930년말에 이 결정은 폐기되고말았던것이다.

집단농장운동의 가일층의 장성과 집단농장건설의 가일층의 발전에서 집단농장원들이나 지도일군들이 종국적으로 확신하게 된것은, 기본적농업생산수단을 국가의 수중에, 즉 농기계임경소의 수중에 집중시키는것이 집단농장생산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것이였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나라 농업생산의 거대한 장성, 즉 곡물, 면화, 아마, 사탕무우 등등의 생산의 장성을 기뻐하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성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그 장성의 근원은 현대적기술에 있으며 이 모든 생산부문에 리용되고있는 수다한 현대적기계에 있는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비단 기술일반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기술은 한자리에 머물러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항상 개선되여야 하며 낡은 기술은 폐기되고 새로운 기술로 교체되여야 하며 또 새로운 기술은 보다 새로운 기술로 교체되여야 한다는데 있는것이다. 이것 없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의 전진은 생각할수 없으며 보다 많은 수확도, 농산물이 풍요하게 되는것도 생각할수 없다. 그런데 수십만대의 차륜식뜨락또르를 폐기하고 이를 무한궤도식뜨락또르로 교체하며 수만대의 낡은 꼼바인을 새로운 꼼바인으로 교체하며 또 몇천대 새로운 공예작물용기계를 만든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6년 내지 8년후에야 비로소 보상될수 있는 수십억의 지출을 부담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집단농장들이 비록 백만장자라 하더라도 과연 이 비용을 감당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감당할수 없다. 왜냐 하면 집단농장

들은 6년 내지 8년후에야 비로소 보상될수 있는 수십억에 달하는 지출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지출은 국가만이 부담할수 있는것이다. 왜냐 하면 국가는 또 오직 국가만이 낡은 기계를 폐기하고 그것을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는데서 오는 손실을 부담할수 있기때문이며 국가는 또 오직 국가만이 그 손실을 6년 내지 8년동안 참아가면서 이 기간에 그 지출을 보상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렇다면 농기계쯔락또르임경소를 집단농장에 판매하여 그 소유로 만들것을 요구하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집단농장에 많은 손실을 주며 집단농장을 령락시키며 농업의 기계화를 파탄시키며 집단농장의 생산속도를 저하시키는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농기계쯔락또르임경소를 집단농장에 판매하여 그 소유로 만들것을 제의하는 싸니나동지와 웬쩨르동지는 락후한 방향에로 일보 퇴각하며 력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고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제 가령 우리가 싸니나동지와 웬쩨르동지의 제의를 채택하여 기본생산도구, 농기계임경소를 집단농장에 판매하여 그 소유로 만들기 시작하였다고 하자. 그때에는 어떻게 될것인가?

그때에는 첫째로, 집단농장은 기본생산도구의 소유자로 될것이다. 즉 집단농장은 우리 나라의 어느 한 기업소도 향유하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처지에 있게 될것이다. 왜냐 하면 주지하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국유화된 기업소조차 생산도구의 소유자는 아니기때문이다. 집단농장의 이러한 특수한 처지를 무엇으로써 론증할수 있으며 진보와 전진운동의 어떠한 견해로써 론증할수 있는가? 그러한 처지는 집단농장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것을 촉진시킬것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러한 처지는 집단농장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할수 있을따름이며 그것은 공산주의에 접근시키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산주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말하는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그때에는 둘째로, 상품류통의 작용범위가 확장되게 될것이다. 왜냐 하면 방대한 량의 농업생산도구가 상품류통의 궤도에 들어가게 될것이기때문이다. 싸니나동지와 웬쥐르동지가 생각하고있는것처럼 상품류통범위의 확대가 공산주의에로의 우리의 전진을 촉진시킬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히려 공산주의에로의 우리의 전진을 저해할수 있을따름이라고 말하는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싸니나동지와 웬쥐르동지의 기본오유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상품류통의 역할과 의의를 리해하지 못하고있으며 상품류통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의 전망과 량립할수 없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는데 있다. 그들은 상품류통의 조건하에서도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이행할수 있으며 상품류통은 이를 방해할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있는 모양이다. 이것은 맑스주의를 리해하지 못하는데서 생기는 커다란 착오이다.

상품류통의 조건하에서 활동하는 듀링의 《경제공동체》를 비판하면서 엥겔스는 자기의 저서 《반듀링론》에서, 상품류통이 존재하는 한 듀링의 소위 《경제공동체》는 자본주의를 부활시키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립증하였다. 싸니나동지와 웬쥐르동지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는 그들에게 더욱 불리하다. 우리들 맑스주의자는,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과 수요에 의한 생산물의 분배라는 공산주의적

원칙은 온갖 상품교환을, 따라서 생산물의 상품에로의 전화도, 또 동시에 생산물의 가치에로의 전화도 배제한다는 유명한 맑스주의적명제를 출발점으로 삼고있는것이다.

싸니나동지와 웬쩨르동지의 제안과 그 론거에 관해서는 사태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집단농장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어떠한 대책을 취해야 할것인가?

집단농장은 보통기업소가 아니다. 집단농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집단농장의 소유인것이 아니라 전인민적소유로 되여있는 토지에서 일하며 이를 경작하고있다. 따라서 집단농장은 자기들이 경작하고있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아닌것이다.

또 집단농장은 집단농장의 소유가 아니라 전인민적소유로 되여있는 기본생산도구를 가지고 일하고있다. 따라서 집단농장은 기본생산도구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집단농장은 협동조합적기업체이며 그것은 자기 농장원의 로동을 리용하며 소득을 로력일에 따라 그 농장원들 사이에 분배한다. 뿐만아니라 집단농장은 자기의 종곡을 가지고있으며 매년 그것을 갱신하며 생산에 충당한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긴다. 도대체 집단농장이 소유하는것이란 무엇이며 집단농장이 완전히 자유로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처리할수 있는 집단농장적소유란 어떤것인가? 그것은 집단농장의 생산물, 집단농장생산의 생산물인 곡물, 육류, 유류, 남새, 면화, 사탕무우, 아마 등등이다. 그러나 터밭에서의 집단농장원의 개인경리와 건물 같은것은 이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산물의 현저한 부분, 집단농장생산의 잉여부분이 시장에 나가 상품류통체계에 포괄된다는데 있다. 다름아닌 바로 이 사정이 지금 집단농장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제고지키는것을 방해하고있는것이다. 그렇

기때문에 다름아닌 바로 이 면에서부터 집단농장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제고시키는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것이다.

집단농장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집단농장적생산의 잉여부분을 상품류통체계에서 떼여내여 그것을 국영공업과 집단농장간의 물물교환체계에 포괄시켜야 할것이다.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발전된 물물교환체계는 없으나 그 맹아형태로서 농업생산물의 《상품화》형태가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면화집단농장, 아마집단농장, 사탕무우집단농장 및 기타 집단농장 생산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품화》되고있다. 물론 그 《상품화》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인것이기는 하나 그러나 어쨌든 《상품화》되고있는것만은 사실이다. 부언해두거니와 상품화란 말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그것은 물물교환이란 말로 바꾸어야 할것이다. 과업은 물물교환의 이 맹아를 모든 농업부문에서 조직하여 그것을 광범한 물물교환체계로 발전시킴으로써 집단농장들이 자기 생산물의 대가로 돈만이 아니라 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받게 되도록 만드는데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도시가 농촌에 보내는 생산물량의 팽장한 증가를 요구하기때문에 그 실시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도시제품의 축적정도에 따라 실시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차츰차츰 상품류통의 작용범위를 축소하고 물물교환의 작용범위를 확대하면서 부단히, 동요함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상품류통의 작용범위를 축소하여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할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제도는 집단농장의 기본적소유인 집단농장생산의 생산물을 전인민적계획화의 전반적체계에 포괄시킬 가능성을 줄것이다.

이러한것이 우리의 현조건하에서 집단농장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키기 위한 현실적이며 결정적

인 수단일것이다.

이 제도는 과연 집단농장농민에게 유리하겠는가? 그것은 물론 유리하다. 유리하다고 하는 리유는 이렇게 되면 집단농장농민은 국가로부터, 상품류통하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물을 보다 헐한 값으로 받게 될것이기때문이다. 누구나 다 아는바와 같이 정부와 물물교환(《상품화》)계약을 체결하고있는 집단농장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집단농장보다 비교도 안되리만큼 더 많은 리득을 보고있다. 만일 물물교환체계를 국내의 전체 집단농장에 확장한다면 그 리득은 우리 나라의 전체 집단농장농민이 받게 될것이다.

이.쓰딸린

1952년 9월 28일

《쓰딸린선문집》, 한문판,
571～649페지

부 록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력사간략독본》

결 속 어

볼쉐위크당이 걸어온 력사의 길에 대하여 어떠한 기본적 총결을 지을수 있는가?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의 력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1) 당의 력사는 무엇보다도먼저 혁명적무산계급정당이 없이는, 기회주의를 소멸하고 타협주의자 및 투항주의자들과 추호도 조화하지 않으며 자산계급과 그의 국가정권에 대하여 혁명적태도를 취하는 당이 없이는 무산계급혁명의 승리와 무산계급독재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것을 가르쳐준다.

당의 력사는 무산계급을 이러한 당이 없는 상태에 처하게 하는것은 그들을 혁명적령도가 없는 상태에 처하게 하는것을 의미하며 그들을 혁명적령도가 없는 상태에 처하게 하는것은 무산계급혁명사업의 실패를 의미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당의 력사는 국내의 평화적조건하에서 자라났고 기회주의분자들에게 끌려다니며 《사회개량》을 환상하고 사회혁명을 두려워하는 서구라파류형의 보통사회민주당은 절대 이러한 당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가르쳐준다.

당의 력사는 오직 사회혁명을 주장하며 무산계급을 자산계급과의 결전에로 동원할수 있으며 무산계급혁명의 승리를 조직할수 있는 신형의 당, 맑스-레닌주의적당만이 이러한 당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쏘련에 있어서 이러한 당은 볼쉐위크당이다.

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2국제당의 각 당들이 로동운동에서 지배적력량이였고 의회투쟁의 형태가 기본적인 투쟁형태였던 혁명전의 시기, 즉 비교적 평화로운 발전시기,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당은 그가 후의 공개적혁명적박투의 조건하에서 가지게 된 그런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또 가질수도 없었던것이다. 카우쯔키는 제2국제당이 공격을 받을 때 그를 변호하면서 제2국제당의 각 당들은 평화의 도구이지 전쟁의 도구는 아니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전쟁시기에, 무산계급의 혁명적진출시기에 그 어떤 중대한 조치를 취할 힘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은 제2국제당의 각 당들은 무산계급의 혁명투쟁에는 합당하지 않다는것, 그 당들은 로동자들을 정권의 탈취에로 인도하는 무산계급의 전투적당인것이 아니라 의회선거와 의회투쟁에 미련을 가진 선거기관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자들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무산계급의 기본적정치조직이 당인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단이였다. 모두가 알고있다싶이 이 시기에 당은 사실상 국회의원단의 부속품이였으며 봉사자였을따름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이러한 당의 령도하에서 무산계급을 혁명에로 동원한다는것은 운운할 여지도 없다는 이것은 거의 증명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새시기가 닥쳐오자 사태는 근본적으로 개변되였다. 새시기는 공개적인 계급적충돌의 시기였으며 무산계급의 혁명적진출의 시기였으며 무산계급혁명의 시기였으며 제국주의를 뒤엎고 무산계급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력량을 직접 준비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는 새로운 혁명적규범에 따라 당의 모든 사업을 개조하며 정권을 탈취하는 혁명적투쟁정신으로 로동자들을 교육하며 후비군을 준비하고 그들을 자기에게 접근시키며 이웃나라의 무산자들과 동맹을 맺으며 식민지 및 예속국의 해 .

방운동과 공고한 련계를 건립하는 등등의 새로운 임무를 무산계급앞에 제기하였다. 만일 이 새 임무를 국회제도의 평화적조건하에서 교육해낸 낡은 사회민주주의정당의 력량으로써 해결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절망적인 처지에 빠뜨리고 피할수 없는 실패에 봉착하게 하는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짊어지고서도 의연히 낡은 당의 령도밑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무장을 완전히 해제당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무산계급이 이러한 사정을 용인할수 없었던것은 거의 증명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무산자들을 정권탈취에로 인도할만한 충분한 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혁명적환경의 복잡한 조건을 리해할만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있으며 전진하는 길에 가로놓인 모든 암초들을 피하여나갈만한 충분한 지혜를 가진 새로운 당, 전투적당, 혁명적당이 있어야 하였다.

이러한 당이 없이는 제국주의를 전복하고, 무산계급독재를 전취한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이 새로운 당은 곧 레닌주의적당이다.》(쓰딸린의 《레닌주의 제 문제》, 로문판, 제10판, 62～63페지)①

(2) 다음으로 당의 력사는 로동계급의 당이 로동운동의 선진적리론을 장악하지 못하고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장악하지 못하고서는 자기 계급의 지도자로 될수 없으며 무산계급혁명의 조직자와 지도자로 될수 없다는것을 가르쳐준다.

맑스-레닌주의리론의 힘은 그것이 당으로 하여금 국세를 판명할수 있고 주위사변의 내재적련계를 료해할수 있으며 사변의 진전을 내다볼수 있으며 또 사변이 지금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향에로 발전하고있는가 하는것뿐만아니라 장차 사변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향에로 발전할것인가 하는것도 통찰할수 있게 하는데 있다.

오직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장악한 당만이 백배의 신심을

① 본 선집 상권, 331～333페지를 보라.—편집자

가지고 전진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전진을 인도할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장악하지 못한 당은 갈팡질팡 헤맬수밖에 없으며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신심을 잃어버리게 되며 로동계급의 전진을 이끌어나갈수 없는것이다.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장악한다는것은 맑스, 엥겔스와 레닌의 저작중의 개개의 결론과 원리를 열심히 암송하고 그것을 적당한 때에 인용하는것을 배우고 그만하면 외워둔 결론과 원칙이 각종 환경 또는 실제생활의 모든 경우에 통용될듯이 만족해할수 있는것으로 리해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이렇게 대하는것은 완전히 그릇된것이다.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절대 교조휘집으로, 교의문답으로, 신조로 간주하여서는 안되며 맑스주의자자신을 체벌레나 독경쟁이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맑스-레닌주의리론은 사회발전에 관한 과학이며 로동운동에 관한 과학이며 무산계급혁명에 관한 과학이며 공산주의사회건설에 관한 과학이다. 그것은 과학인 이상 한자리에 머물러있지 않을것이고 또 머물러있을수도 없는것이다. 그것은 부단히 발전하며 부단히 완전완미해지는것이다. 이 리론은 자기의 발전행정에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지식으로 풍부하여지지 않을수 없으며 그의 부분적 원리와 결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을수 없으며 또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 적응되는 새로운 결론과 새로운 원리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이 명백하다.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장악한다는것은 그의 모든 공식과 결론을 암송하고 이 공식과 결론의 매 구절 매 글자에 매여달리는것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장악하려면 우선 그 문자와 그의 실질을 구별하는것을 배워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장악한다는것은 이 리론의 실질을

체득하며 무산계급계급투쟁의 각종 조건하에서 이 리론을 운용하여 혁명운동의 실제문제를 해결할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장악한다는것은 혁명운동의 새로운 경험으로써 이 리론을 풍부하게 할줄 알며 새로운 원리와 새로운 결론으로써 이 리론을 풍부히 할줄 알며 이 리론의 실질에 근거하여 새로운 력사정세에 적응되는 새로운 원리와 새로운 결론으로써 이 리론의 이미 낡은것으로 된 일부 원리와 결론을 주저없이 대체하면서 이 리론을 발전시키며 추진시킬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맑스-레닌주의리론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

제2차로씨야혁명(1917년 2월)전까지 각국의 맑스주의자들은 의회제민주주의공화국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어서 사회의 가장 적당한 정치적조직형태라고 인정하여왔다. 물론 맑스는 19세기 70년대에 무산계급독재의 가장 적당한 형태는 의회제공화국이 아니라 빠리꼼뮨식의 정치조직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맑스의 이 지시는 그의 저작에서 가일층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망각되고말았던것이다. 그밖에 1891년에 에르푸르트강령초안에 대한 비판중에서 《민주주의공화국…은 무산계급독재의 특수형태이다.》①라고 한 엥겔스의 권위적성명도 역시 맑스주의자들이 민주주의공화국을 의연히 무산계급독재의 정치형태로 인정한다는것을 의심할바없이 보여주었던것이다. 엥겔스의 이 원리는 그후 레닌을 포함한 모든 맑스주의자들의 지도적준칙으로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1905년의 로씨야혁명, 특히는 1917년의 2월혁명은 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①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2권, 274페지를 보라.—편집자

조직형태인 로농대의원쏘베트를 내놓았다. 레닌은 맑스주의리론으로부터 출발하고 로씨야의 두차례의 혁명경험에 대한 자기의 연구에 근거하여 무산계급독재의 가장 좋은 정치적형태는 의회제민주주의공화국이 아니라 쏘베트공화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레닌은 1917년 4월에, 즉 자산계급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하는 시기에 무산계급독재의 가장 좋은 정치적형태로서 쏘베트공화국을 성립하자는 구호를 제출하였다. 그때 각국의 기회주의자들은 의회제공화국에 매여달려 레닌을 맑스주의로부터 리탈하였다느니, 민주주의를 파괴하였다느니 뭐니 하고 질책하였다. 그러나 맑스주의리론을 장악한 진정한 맑스주의자는 물론 레닌이였고 기회주의자가 아니였다. 왜냐 하면 레닌은 맑스주의리론을 앞으로 추진시키고 새로운 경험으로써 이 리론을 풍부히 하였지만 기회주의자들은 이 리론을 뒤로 끌어당기고 그의 원리의 하나를 교조로 만들어버렸기때문이다.

만일 레닌이 맑스주의의 문구에 얽매여 엥겔스가 정의를 내린 맑스주의의 낡은 원리의 하나를 쏘베트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력사적정세에 적응되는 이 새로운 원리로 대체하지 않았더라면 당이, 우리 나라 혁명과 맑스주의가 어떻게 되였을것인가? 당은 암흑속에서 헤매게 되였을것이며 쏘베트는 와해되였을것이며 우리는 쏘베트정권을 가지지 못하였을것이며 맑스주의리론은 엄중한 손실을 당하였을것이다. 무산계급은 실패하였을것이고 무산계급의 적들이 승리하였을것이다.

엥겔스와 맑스는 제국주의이전의 자본주의를 연구할 때에 사회주의혁명은 한 나라에서 단독으로 승리할수 없으며 이 혁명은 오직 모든 문명국가 혹은 대다수 문명국가들이 동시에 진공하는 형세하에서만 승리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19세기중엽에 한 말이다. 이 결론은 그후 모든 맑스주의자

들의 지도적준칙으로 되였었다. 그러나 20세기초에 와서 제국주의이전의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단계의 자본주의로 되였으며 상승하던 자본주의는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로 되였다. 레닌은 맑스주의리론으로부터 출발하고 제국주의단계의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여 엥겔스와 맑스의 낡은 공식은 이미 새로운 력사적정세에 적응되지 않게 되였으며 사회주의혁명은 완전히 한 나라에서 단독으로 승리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당시 각국의 기회주의자들은 엥겔스와 맑스의 낡은 공식에 매달려 레닌을 맑스주의로부터 리탈하였다고 질책하였다. 그러나 맑스주의리론을 장악한 진정한 맑스주의자는 물론 레닌이였고 기회주의자가 아니였다. 왜냐 하면 레닌은 맑스주의리론을 앞으로 추진시키고 또 새로운 경험으로써 이 리론을 풍부히 하였지만 기회주의자들은 이 리론을 뒤로 끌어당기고 또 그 리론을 미이라로 만들어버렸기때문이다.

만일 레닌이 맑스주의의 어구에 얽매여있었다면 또 만일 그가 리론적으로 맑스주의의 낡은 결론을 던지고 사회주의가 한 나라에서 단독으로 승리할수 있다는 새로운 력사정세에 적응되는 이 새로운 결론으로 그것을 대체할 충분한 용기가 없었더라면 당이, 우리 나라 혁명과 맑스주의가 어떻게 되였을것인가? 당은 암흑속에서 헤매이게 되였을것이며 무산계급혁명은 령도를 상실하였을것이며 맑스주의리론은 고갈되기 시작하였을것이다. 무산계급은 실패하였을것이며 무산계급의 적들이 승리하였을것이다.

기회주의는 결코 맑스주의리론 혹은 그의 일부 원리와 결론을 어느때나 직접 부정하는것은 아니다. 기회주의는 때로는 맑스주의의 이미 낡은 일부 원리에 매여달려 그것을 교조로 전환시킴으로써 맑스주의의 앞으로의 발전을 저애하며 따라서 무산계급혁명운동의 발전까지도 저애하려 시도하는것으로 표

현된다.

엥겔스가 서거한후에는 가장 위대한 리론가인 레닌이, 그리고 레닌의 뒤를 이은 쓰딸린과 레닌의 기타 학생들이 맑스주의리론을 앞으로 추진시켰고 또 이 리론을 무산계급계급투쟁의 새로운 조건하에서의 새로운 경험으로써 풍부히 한 유일한 맑스주의자들이였다는것을 조금도 과장함이 없이 말할수 있는것이다.

바로 레닌과 레닌주의자들이 맑스주의리론을 앞으로 추진시켰기때문에 레닌주의는 맑스주의의 진일보의 발전이며 무산계급계급투쟁의 새 조건하에서의 맑스주의이며 제국주의와 무산계급혁명 시대의 맑스주의이며 전 세계 6분의 1의 땅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시기의 맑스주의인것이다.

만일 볼쉐위크당의 선진적간부들이 맑스주의리론을 장악하지 않았다면, 만일 그들이 이 리론을 행동의 지침으로 간주할줄 몰랐다면, 만일 그들이 맑스주의리론을 앞으로 추진시킬줄 모르고 무산계급계급투쟁의 새 경험으로써 이 리론을 풍부히 할줄 몰랐다면 볼쉐위크당은 1917년의 10월혁명에서 승리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엥겔스는 미국에서 미국로동운동의 지도사업을 맡고있는 독일맑스주의자들을 비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독일사람들은 그들의 리론이 미국대중을 추동할수 있는 공간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그들자신도 대부분이 이런 리론을 리해하지 못하고있으며 학리주의적태도와 교조주의적태도로 리론을 쥐급하면서 리론을 숙달하게 암기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수 있는듯이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리론은 행동의 지침인것이 아니라 교조인것입니다.》(《맑스엥겔스전집》, 로문판, 제1판, 제27권, 606페지)①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456페지를 보라.—편집자

레닌은 혁명운동이 이미 앞으로 발전하여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할것을 요구하는 시기인 1917년 4월에 와서도 의연히 무산계급과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의 낡은 공식에 매달리고있는 까메네브와 일부 로볼쉐위크들을 비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학설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이렇게 맑스와 엥겔스는 항상 말하면서 〈공식〉을 암송하거나 단순하게 반복하는것을 정당하게 조소하였다. 이러한 〈공식〉은 기껏해서 일반적과업들을 지적할 수 있을따름이지만 이러한 과업들은 력사적행정의 매 특수단계의 구체적인 경제적 및 정치적 환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변경된다.… 지금에 있어서 필요한것은 맑스주의자는 어제날의 리론에 계속 매여달리지 말고 생동하는 실생활, 현실의 정확한 사실들을 타산해야 한다는 론쟁할 여지없는 진리를 파악하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0권, 100~101페지)①

(3) 그다음으로 당의 력사는 로동계급대오내에서 활동하며 로동계급의 락후한 계층을 자산계급의 품속으로 밀어넣으며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통일을 파괴하는 소자산계급의 당파를 훼멸하지 않고는 무산계급혁명이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우리 당의 력사는 각 소자산계급의 당파—사회혁명당[32], 멘쉐위크, 무정부주의자 및 민족주의자들과 투쟁하고 그들을 훼멸시킨 력사이다. 이러한 당파들을 타승하고 그들을 로동계급대오내에서 구축하지 않았더라면 로동계급의 통일이 달성될수 없었을것이며 로동계급의 통일이 없이는 무산계급혁명의 승리가 실현될수 없었을것이다.

최초에는 자본주의를 보존할것을 주장하였고 10월혁명후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24페지와 26페지를 보라.—편집자

에는 자본주의를 회복하려고 시도한 이러한 당파들을 훼멸하지 않았더라면 무산계급독재가 보존될수 없었을것이며 외국의 무력간섭을 타승하지 못하였을것이며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인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혁명적》 혹은 《사회주의적》 당파로 자칭하고있던 일체 소자산계급당파들 즉 사회혁명당, 멘쉐위크, 무정부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일찍 10월사회주의혁명전에 벌써 반혁명적정당으로 되였으며 그후에는 외국자산계급간첩기관의 대리인으로 변하였으며 한무리의 특무, 암해분자, 파괴분자, 흉수 및 반역자들로 변한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혁명시기의 무산계급의 통일은 오직 극도로 혁명적인 맑스주의당에 의해서만, 오직 기타 모든 당파들을 반대하는 무자비한 투쟁에 의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50페지)①

(4) 그다음으로 당의 력사는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대오내의 기회주의자들과 비조화적인 투쟁을 하지 않고 자기 대오내의 투항주의자들을 훼멸하지 않고는 자기 대오내의 통일과 규률을 보장할수 없으며 무산계급혁명의 조직자와 지도자로 될수 없으며 사회주의 새 사회의 건설자로 될수 없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우리 당내생활의 발전력사는 당내의 기회주의집단—《경제파》, 멘쉐위크, 또로쯔끼파, 부하린파 및 민족주의경향을 가진 분자들과 투쟁하고 그들을 훼멸한 력사이다.

당의 력사는 이 모든 투항주의집단은 실질에 있어서 모두가 우리 당내에서의 멘쉐위크주의의 대리인이며 멘쉐위크주의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1권, 472페지를 보라.—편집자

의 노복이며 멘쉐위크주의의 계속이라는것을 가르쳐준다. 멘쉐위크주의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로동계급내에서와 당내에서 자산계급의 영향을 전파하는 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당내에서 이러한 집단을 소멸하기 위한 투쟁은 멘쉐위크주의를 소멸하기 위한 투쟁의 계속인것이다.

만일 《경제파》와 멘쉐위크를 격파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당을 건립하지 못하였을것이며 무산계급혁명에로 로동계급을 인도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만일 뜨로쯔끼파와 부하린파를 격파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준비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만일 형형색색의 민족주의경향을 가진자들을 격파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국제주의정신으로 인민을 교육하지 못하였을것이며 쏘련의 여러 민족 인민들의 위대한 친선의 기치를 보전하지 못하였을것이며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을 건립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볼쉐위크는 당내의 기회주의분자들과의 투쟁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였고 당내의 기회주의분자들의 작용을 과대평가하였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옳지 못한것이다. 건전한 몸에 부스럼이 난것을 놓아둘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대오내에 기회주의가 존재하는것을 결코 용허할수 없는것이다. 당은 로동계급의 령도부대이며 그의 전선요새이며 그의 전투사령부이다. 로동계급의 령도사령부내에는 신심이 견정하지 못한자, 기회주의자, 투항주의자 및 변절자들이 발붙일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결코 안된다. 자기의 사령부와 자기의 요새에 투항주의자와 변절자를 두고서 자산계급과 결사적인 투쟁을 한다면 앞뒤로 협격을 받는 처지에 빠지게 될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실패로 끝날수밖에

없다는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요새는 내부로부터 점령하기가 가장 쉬운것이다.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로동계급의 당내에서, 그의 령도사령부내에서, 그의 전선요새내에서 투항주의자, 탈주병, 로동자역적, 변절자를 깨끗이 숙청하여야 한다.

쯔로쯔끼파, 부하린파, 민족주의경향을 가진자들이 레닌을 반대하고 당을 반대하다가 멘쉐위크당 및 사회혁명당과 꼭 같은 결말을 보았으며 파쇼간첩기관의 대리인으로, 특무, 암해분자, 흉수, 파괴분자 및 반역자로 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기 대오내에 개량주의자들, 멘쉐위크들을 가지고서는 무산계급혁명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그것을 고수할수 없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아주 명백하다. 이것은 로씨야와 웽그리아의 경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증되였다.…로씨야에서는 만일 멘쉐위크, 개량주의자, 소자산계급민주주의파들을 우리 당내에 남겨두었더라면… 쏘베트제도가 틀림없이 전복되고말았을 곤난한 환경이 여러번 있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462～463페지)①

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우리 당이 자기 내부의 통일과 자기 대오의 전례없는 단결을 이룩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선 그가 기회주의의 오물을 제때에 청소하여버리고 취소파95와 멘쉐위크를 당내에서 구축하였기때문이다. 무산계급정당의 발전과 공고화의 길은 당내에서 기회주의자와 개량주의자, 사회제국주의자와 사회배외주의자, 사회애국주의자와 사회평화주의자들을 청소해버린 길이다. 당은 자기 대오내에서 기회주의분자들을 청소하는데 의하여 공고화되는것이다.》(쓰딸린의 《레닌주의 제 문제》, 로문판, 제10판, 72페지)②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1권, 345～346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본 선집 상권, 347페지를 보라.—편집자

(5) 그다음으로 당의 력사는 만일 당이 승리에 도취되여 교오하기 시작한다면, 만일 당이 자기 사업중의 결점에 더는 주의하지 않는다면, 만일 당이 자기의 오유를 승인하기 두려워하고 이런 오유를 공개적으로 성실하게 제때에 시정하기를 두려워한다면 당은 로동계급의 지도자로 될수 없다는것을 가르쳐준다.

만일 당이 비판과 자기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만일 당이 자기 사업중의 오유와 결함을 덮어감추지 않는다면, 만일 당이 자기 사업중의 오유를 가지고 간부들을 가르치고 교육한다면, 만일 당이 자기의 오유를 제때에 시정할줄 안다면 당은 불패적인것으로 될것이다.

만일 당이 자기의 오유를 속이고 지끄러운 문제들을 덮어감추며 겉으로 모든것이 다 흡족히 되여가는듯이 위장함으로써 자기의 결함을 은폐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을 용인하지 않으며 자만정서에 빠지여 자존자대하고 공로부우에 드러누워 잔다면 당은 망하고말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기 오유에 대한 당의 태도여하는 그 당의 진실성여하와 당이 자기의 계급과 근로대중에 대하여 그가 지닌 의무를 진정으로 리행하는가 안하는가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척도의 하나이다. 오유를 공공연히 시인하며 그 오유의 원인들을 밝히며 오유를 빚어낸 환경을 분석하며 오유를 시정할 방법을 상세히 토의하는것—이것이야말로 진실성있는 당의 표징이며 이것이야말로 당이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는것으로 되는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계급을 나아가서는 대중을 교양하며 훈련하는것으로 되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200페지)①

그리고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13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현재에 이르기까지 멸망한 모든 혁명적당은 자고자대하였고 그들의 힘이 무엇에 있는가를 몰랐으며 또 자기들의 약점에 대하여 말하기를 두려워하였기때문에 멸망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것인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약점에 대하여 말하는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약점을 극복하는것을 배울것이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260～261페지)①

(6) 마지막으로 당의 력사는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과 광범한 련계를 확보하지 않고 또 이 련계를 경상적으로 공고히 하지 않는다면, 대중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그들의 질고를 료해하지 않는다면, 대중을 가르칠뿐아니라 또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결심을 가지고있지 않는다면 당은 천백만의 로동계급대중과 전체 근로대중을 령도할수 있는 진정 대중성을 띤 당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가르쳐준다.

만일 당이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가장 광범한 근로대중 우선 무산계급근로대중과 또한 비무산계급근로대중과도 련계를 맺으며 접근하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융합할줄》(《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74페지)② 알게 된다면 당은 불패적인것으로 된다.

만일 당이 자기 당의 좁은 울타리속에 갇히워있다면, 만일 당이 대중과 리탈된다면, 만일 당이 관료주의의 먼지에 뒤덮인다면 당은 멸망할것이다.

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볼쉐위크가 광범한 인민대중과 련계를 가지고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불패적인것이라는것은 하나의 법칙이라고 인정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볼쉐위크가 대중과 리탈하고 대중과의 련계를 잃어버리며 관료주의의 병에 전염되기만 한다면 그들은 곧 모든 력량을 상실할것이며 허무한것으로 될것이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275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82페지를 보라.—편집자

다.

고대희랍인의 신화에는 안타이오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웅이 있었다. 신화에 의하면 그는 바다의 신 포쎄이돈과 대지의 녀신 가이아의 아들이였다. 그는 자기를 낳고 길러주고 가르쳐준 어머니를 특별히 사랑하였던것이다. 이 안타이오스와 맞설수 있는 영웅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는 무적의 영웅으로 공인되였다. 그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원쑤와 싸우다가 곤난할 때에는 자기를 낳고 길러준 어머니인 땅에 의지함으로써 새힘을 얻었다. 그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그것은 땅에서 멀어지도록 남이 방법을 댈가봐 무서워하는것이였다. 적들은 그의 이 약점을 알아내고 노상 기회만 엿보아왔다. 그후 그의 이 약점을 리용하여 그를 전승한 적이 있었다. 그 적은 헤라클레스였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안타이오스를 이겼는가? 원래 이 적은 안타이오스를 땅에서 멀어지게 하고 공중에 추켜들어 다시는 땅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공중에서 목을 옥죄여 죽여버렸던것이다.

나는 불쉐위크는 희랍신화에 나오는 안타이오스란 영웅과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불쉐위크가 안타이오스처럼 강대한것은 그들이 바로 자기를 낳고 기르고 가르쳐준 어머니인 대중과 련계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이 자기의 어머니인 인민과 련계를 가지고있는 한 그들은 시종 불패적인것으로 될 온갖 자신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이것이 불쉐위크령도의 불패성의 관건인것이다.》(쓰딸린의 《당사업의 결함에 대하여》)①

이상이 불쉐위크당이 걸어온 력사적길에서의 기본적교훈이다.

1938년 9월에 발표

《전련맹공산당(불쉐위크)력사간략독본》, 529～544페지

---

① 《쓰딸린선문집》, 한문판, 147～148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주 해

1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련석전원회의는 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의 참가하에 1928년 4월 6일부터 11일에 거쳐 거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본년도의 곡물수매사업과 1928~1929년도 곡물수매운동의 조직문제, 샤흐띄사건과 관련하여 폭로된 결함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적대책을 취할데 관한 정치국 특별위원회의 보고, 중앙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28년도의 사업계획이 심의되였다. 쓰딸린은 4월 10일의 회의에서 정치국 특별위원회의 보고에 관하여 연설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지방사업에서의 결함을 극복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중앙기관의 지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중앙위원회 위원, 중앙검열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기타 지도간부들을 매년 적어도 한달 반 내지 두달동안 지방사업에 참가시킬 특별결정이 채택되였다.—7, 75페지

2 1923~1928년에 돈바쓰의 자산계급전문가들의 반혁명조직이 암해활동을 감행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조직은 1928년초에 돈바쓰의 샤흐띄구역에서 사출되였기때문에 샤흐띄사건이라고 한다. 1928년 5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쏘련최고법원특별법정에서는 모스크바에서 이 안건에 대한 공개심판이 진행되였다. 심판은 샤흐띄암해분자들이 지난날의 탄광주(로씨야 및 외국의 자본가)와 외국간첩기관에서 준 임무를 집행하여 돈바쓰석탄공업을 파괴하였다는것을 표명한다. 그자들은 고의적으로 불합리한 채굴을 하여 채탄량을 감소시켰으며 국외에서 질이 낮고 메가 지난 설비들을 사들였으며 귀중한 기계와 통풍설비를 파괴하고 갱도를 폭파하였으며 공장과 발전소를 소각하였다. 그자들은 또 의식적으로 소비품공급을 파괴하고 쏘베트로동보호법을 위반하고 탄부들의 물질생활조건을

악화시켰으며 지어 그들의 생명안전까지도 위협을 받게 하였다.—7, 46, 74, 158, 352페지

3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회는 1927년 12월 2일부터 19일까지 모스크바에서 거행되였다. 대회의정에는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와 조직보고, 중앙검사위원회의 총결보고, 중앙검열위원회-로농감독국의 총결보고, 국제공산당주재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의 총결보고,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 작성에 대한 지시, 농촌사업 등이 들어있었다. 쓰딸린은 12월 3일에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를 하였으며 12월 7일에는 이 보고에 관한 결론을 지었다. 대회는 중앙위원회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을 비준하였으며 평화를 수호하고 쏘련의 국방력을 강화할데 대한 정책을 계속 집행하며 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국가의 사회주의공업화를 계속 추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사회주의적요소를 확대시키고 공고화하며 인민경제가운데서의 자본주의적요소를 소멸할데 대한 방침을 집행할것을 당중앙위원회에 위탁하였다. 대회에서는 쏘련의 인민경제 제1차5개년계획을 작성할데 대한 지시가 제정되였다. 대회에서는 전력을 다하여 농업집단화운동을 전개할데 관한 결정이 채택되였으며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을 발전시킬데 대한 계획이 작성되였으며 또한 농업집단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법이 규정되였다. 대회는 뜨로쯔끼-지노위예브동맹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였고 당과 반대파간의 의견상이는 이미 강령상의 상이에까지 발전하였으며 뜨로쯔끼반대파는 이미 쏘베트를 반대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따라서 뜨로쯔끼반대파에 참가하고 그 견해를 선전하는자는 볼쉐위크당내에 남아있을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대회에서는 엘.데.뜨로쯔끼와 게.예.지노위예브를 출당시킬데 관한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련석회의(1927년 11월)의 결정이 비준되였으며 또 뜨로쯔끼-지노위예브동맹내의 모든 골간분자와 민주주의중앙집권파의 전체 성원을 출당시킬 결정이 채택되였다.—7, 63, 75, 84, 125, 299, 428페지

4 《쁘라우다》(《*Правда*》)지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이다.

이 신문은 처음에 로씨야볼쉐위크당의 일간신문으로서 레닌의 지시에 좇아 쓰땁린, 엠.에쓰.올리민스끼, 엔.게.뽈레따에브가 발기하여 창간하였다. 창간호는 1912년 4월 22일(신력 5월 5일) 뻬쩨르부르그에서 출판되였다. 1917년 3월 5일(신력 18일)부터 《쁘라우다》지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의 중앙기관지로 되였다.—12, 153, 673페지

5 《로농감독국란》은 1928년 3월 15일부터 1933년 11월 28일까지 《쁘라우다》에 정기적으로 발표된것으로서 광범한 근로대중을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끌어넣는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12페지

6 《공청동맹쁘라우다》(*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지는 쏘련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및 모스크바위원회의 기관지(일간신문)로서 1925년 5월 24일에 창간되였다.—12, 47, 80페지

7 《로씨야쏘베트련방사회주의공화국형법전》(1926년 인쇄본) 제107조를 말한다. 즉 《상품을 사들이고 감추거나 혹은 저장하여두는것을 수단으로 상품가격을 마구 올리는자에게는 1년이하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을 주며 동시에 그의 재산 전부거나 일부를 몰수하거나 혹은 재산을 몰수하지 않는다. 상술한 행위가 만일 상인과 공모한 것이라는것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자유를 3년이하 박탈하는 처벌을 주며 재산전부를 몰수한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법정에서는 고정가격대로 곡물을 국가에 팔기를 거절하는 부농들과 투기모리분자들을 유죄판결하며 그들의 곡물을 몰수할수 있었다.—25페지

8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8차대회는 1919년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리였다. 대회의 의정에는 중앙위원회의 총결보고,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강령, 국제공산당의 창건, 군사정세와 군사정책, 농촌사업, 조직문제 등이 들어있었다. 레닌은 대회에서 중앙위원회의 총결보고, 당의 강령에 관한 보고와 농촌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레닌이 기초한 당의 새 강령이 채택되였다. 중농을 어떻게 대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회에서 토론

한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메닌이 진술한 농촌사업보고와 이 사업보고에 관한 대회의 결정은 중농에 대한 당의 새로운 정책, 즉 중농을 중립시키는 정책으로부터 중농과 공고한 동맹을 결성하며 이 동맹에서 무산계급의 지도적역할을 확보하는 정책을 규정하였다. 대회는 메닌이 제정한 당의 군사정책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규률이 엄격한 정규적인 붉은군대를 창건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쏘베트사업에서의 당의 지도적역할을 부인한 싸프로노브-오센스끼의 기회주의집단을 규탄하였으며 또 당원의 보편적인 재등록을 실시하며 당의 사회적요소를 개선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27, 209, 298페지

9 쏘련최고인민경제위원회가 1926년 3월 29일에 반포한. 제33호명령 《공업기업관리를 조직할데 관하여》 및 그것의 부건인 《금속공업 및 전기기계공업에서의 기술공장장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총칙》을 두고 말하는것이다.—36페지

10 쏘련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제8차전국대회는 1928년 5월 5일부터 16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리였다.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들이 심의되였다. 즉 사회주의건설의 총결과 전망 및 청년들에 대하여 공산주의교양을 진행할데 대한 임무, 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의 총결보고, 국제공산주의청년동맹 주재 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의 총결보고,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실시와 관련된 청년들의 로동 및 교양 문제, 공산주의청년동맹의 아동사업 및 기타 문제이다. 쓰딸린은 대회의 폐막식에서 연설하였다.—43페지

11 스몰렌스크사건이란 1928년초에 적발된 스몰렌스크의 일부 당, 정부 간부들이 부화타락하고 법과 규률을 위반한 사건을 두고 말한다. 적발된데 의하면 이자들은 탐오를 하고 뇌물을 받아먹었으며 주정을 하며 부농분자 및 지난날의 지주분자들과 서로 결탁을 하였으며 오직 친분여부만 보고 사람을 썼으며 비판을 압제하고 당내민주를 조포하게 파괴하였다.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검열위원회는 1928년 전반년에 이 사건을 토론하고 정치상에서와 도덕

상에서 부화타락한 그런 당원들을 당에서 제명하며 동시에 법률을 위반한 당과 정부 사업일군들을 법정에 넘겨 심판하기로 결정하였다.—48페지

12 아르쪼몹스크사건이란 우크라이나의 아르쪼몹스크지구의 당, 정부 기관의 일부 일군들이 정치상에서와 도덕상에서 부화타락한 사건을 말한다. 1928년초에 적발되고 1928년 3월에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였다.—48페지

13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에서 각 민족 공산당 중앙위원회, 각 중앙국, 각 변강구위원회, 각 주위원회, 각 성위원회, 각 지구위원회 및 각 현위원회에 보내는 호소문《농촌의 사회주의적개혁을 위하여(농촌사업부들의 기본과업들)》를 말한다. 이 호소문은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비서 웨.엠.몰로또브의 서명하에 1928년 5월 16일《쁘라우다》지 제112호에 발표되였다.—52페지

14 스웨르들로브대학, 즉 스웨르들로브로농공산주의대학은 당, 정부 간부를 육성해내는 쏘련의 첫번째 고급당학교이다. 그의 전신은 1918년에 야.엠.스웨르들로브의 발기에 의하여 창설된 전로씨야중앙집행위원회의 직속 선동원 및 지도원 강습소이다. 이 강습소는 1919년 1월에 전로씨야 중앙집행위원회 직속 쏘베트사업학교로 개칭되였다.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8차대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 학교를 토대로 하여 중앙쏘베트사업및당사업학교가 창립되였다. 1919년 7월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조직국의 결정에 의하여 이 학교는 스웨르들로브로농공산주의대학으로 개편되였다.—56페지

15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대회는 1925년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리였다. 쓰딸린은 12월 18일 대회에서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를 하였으며 12월 23일에는 이 보고에 대한 결론을 지었다. 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 및 조직보고, 중앙위원회의 총결보고, 중앙검열위원회의 총결보고, 국제공산당주재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의 총결보고와 직업동맹사업에 관한

보고, 공청동맹사업에 관한 보고, 당규약수정에 관한 보고 등이 토론되였다. 대회는 중앙위원회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을 견적으로 찬동하였으며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 당의 총방침을 비준하였으며 동시에 당의 통일을 파괴하려는 온갖 시도와 단호히 투쟁할것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하였다. 대회는 결정에서 빈농에 의거하는 조건밑에서 로동계급 및 중농과의 동맹을 더한층 공고히 하여 부농과 투쟁할 중요성에 대하여 치중하여 지적하였다. 대회는 농업기술을 높이며 협동조합을 통하여 보다 많은 농호를 사회주의건설의 궤도에 끌어들이는것으로 농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시킬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대회의 결정에 의하여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을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략칭하여 련공(볼)—이라고 부르게 되였다.—65, 125페지

16 **국제공산당 제4차대회**는 1922년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선후하여 뻬뜨로그라드와 모스크바에서 열리였다. 대회에는 58개 나라에서 온 58개 공산당 및 8개 기타 조직의 대표 408명이 출석하였다. 레닌은 《로씨야혁명의 5년과 세계혁명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로동자통일전선에 관한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국제공산당에 관한 전술, 로동운동가운데서의 공산당원의 과업, 동방문제 등에 관한 강령을 비준하였으며 로씨야사회주의혁명과 국제공산주의청년동맹 등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로동자통일전선문제를 치중하여 토론하고 통일전선의 전술에 비추어 대중속에서 장기적이고도 게으름없이 사업하며 로동자의 단결을 강화하고 자산계급의 진공을 물리칠것을 각국 공산당들에 호소하였다.—67페지

17 **국제공산당 제3차대회**는 1921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리였다. 대회에는 52개 나라에서 온 48개 공산당 및 55개 기타 조직의 대표자 도합 605명이 참석하였다. 새로운 투쟁정세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무산계급혁명투쟁의 경험을 총결짓고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제정하는것이 대회의 기본적과업이였다. 레닌은 대회의 명예주석으로 선거되였다. 레닌은 대회에서 국제공산

당의 전술을 수호할데 관한 연설을 하였으며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의 전술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이 보고의 제강은 대회에서 한결같이 비준되였다. 대회는 제2국제당 및 제2절반국제당과 단호히 투쟁하여 기회주의의 영향을 깨끗이 제거하며 통일전선의 전술에 좇아 로동계급의 대다수를 쟁취할것을 각국 공산당에 호소하였다. 레닌은 이번 대회의 제반 결의에서《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주요한 것은 새롭고, 날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전투(방어전이거나 공격전이거나를 막론하고)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보다 절실한 준비이다.》(《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509페지)라고 지적하였다.—69페지

18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1차대회는 1922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리였다. 이번 대회는 레닌이 출석하여 직접 지도한 마지막 당대회였다. 대회의 의사일정에는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와 조직보고, 중앙검사위원회의 총결보고, 중앙검열위원회의 총결보고, 국제공산당주재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의 총결보고, 직업동맹문제, 붉은군대문제, 재정정책, 청당총결 및 당대렬의 공고화 그리고 이 의제에 속한 청년사업, 신문잡지 및 선전사업에 관한 보충적보고 등이 들어있다. 대회는 신경제정책의 첫해의 실시정황에 대하여 총결을 지었다. 레닌은 대회에서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를 하였으며 이 보고에 관한 결론을 지었다. 레닌은 신경제정책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누가 누구를》하는 사활적투쟁을 의미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고 동시에 지금 퇴각시기는 이미 끝났으므로 력량을 다시 배치하여 자본주의적요소를 견결히 공격하여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레닌은 당의 당면과업은 경영관리를 배우며 문화적으로 상업을 경영하는것을 배우는것이며 당면의 과업을 순리롭게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정확하게 간부를 선발하며 집행정황을 검사하여야 한다는것을 제기하였다. 대회는 로동자반대파의 파벌적활동을 엄격히 규탄하였다. 이번 대회후에 열린 중앙위원회 제1차전원회의에서 레닌의 제의에 의하여 쓰딸린을 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선거하였다.—73, 298페지

19 《취인소》지(《*Биржёвка*》), 즉 《취인소통보》(《Биржевые Ведомости》)는 1880년부터 뻬쩨르부르그에서 발간된 로씨야의 비속한 자산계급신문이다. 이 신문의 명칭은 후에 무원칙성과 글을 팔아먹는 자산계급 신문, 잡지의 대명사로 되였다. 1917년 10월말에 이 신문은 뻬뜨로그라드쏘베트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하여 폐간되였다.—80페지

20 경기병은 쏘련청년이 국가 및 사회감독에 참가하는 일종 조직형태로서 1926년에 공청맹원들의 창의에 의하여 조직되였다. 경기병소조는 공청동맹기층조직에 세우며 맹원들과 비맹원청년들이 참가할수 있다. 소조의 사업은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검열위원회와 로농감독인민위원부의 지도를 받는다. 경기병은 돌연습격하는 방법으로 기관, 기업소의 사업을 검사하고 결함을 시정하도록 당장에서 도와주며 동시에 여러가지 회의와 신문간행물들에서 관료주의의 각종 표현들을 적발하고 비판한다. 1928년 12월에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검열위원회와 공청동맹중앙에서는 경기병소조에 관한 명령을 반포하여 경기병의 과업은 국가기관, 경제기관, 협동조합기관 및 직업동맹기관의 관료주의 및 랑비현상들과 싸우며 절약제도를 관철하며 제1차5개년계획의 중점공사의 진도를 감독하며 곡물구매운동을 감독하며 상업 및 공급 등을 감독하는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였다.—80페지

21 《쉐마크의 재판》은 로씨야 17세기의 풍자소설로서 재판관 쉐마크가 피고가 자기에게 회뢰를 주리라고 잘못 생각하고 피고를 두둔하여 황당하게 내린 판결을 묘사하였다. 그후부터 《쉐마크의 재판》은 불공정한 재판의 대명사로 되였다.—81페지

22 메르미도르주의는 뜨로쯔끼반대파가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에 대하여 한 중상이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반대파는 지금 우리 여기에 메르미도르식변질현상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 나라에 무산계급독재가 없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파탄되고 퇴보되고있으며 우리는 사회

주의에로가 아니라 자본주의에로 나아간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것은 물론 괴상하고 어리석은 말이다.》(《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0권, 293～294페지) 떼르미도르(열월이라고도 번역한다.)는 1793년 프랑스국민공회에서 다시 반포한 혁명력서의 열한번째 달로서 신력 7월 19～20일부터 8월 17～18일까지의 시간에 해당된다. 공화2년 열월 9일, 즉 1794년 7월 27일에 열월정변이 일어나 쟈꼬벵파혁명독재가 뒤엎어지고 정권은 자산계급혁명민주주의파의 손에서 대자산계급의 손으로 넘어갔다.—92페지

23 1928년 7월 4일부터 12일까지에 걸쳐 소집된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곧 열리게 될 국제공산당 제6차대회의 문제들에 대한 정황보고를 청취하고 국제공산당의 강령초안을 기본상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곡물수매정책문제, 새로운 국영농장(곡물농장)을 조직할 문제, 새로운 전문가양성사업을 개선할 문제 등에 관하여 결정을 채택하였다. 쓰딸린이 7월 5일, 9일과 11일의 회의에서 선후로 《국제공산당의 강령에 관하여》, 《공업화와 곡물문제에 관하여》; 《로농결합과 국영농장에 관하여》라는 세편의 연설을 발표하였다.(《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1권, 125～137, 138～163, 164～170페지를 보라.)—96, 112, 196페지

24 여기에 지적된 중앙위원은 엠.베.똠스끼, 아.게.세레브랴꼬브를 말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1권, 278～279페지를 참조하라.—98페지

25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앙검열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의 참가하에 1928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리였다. 전원회의는 1928～1929년도 인민경제통제수자를 심사하였으며 7시간로동제실시의 초보적종화 및 이 사업제를 계속 실시할 문제, 로동자를 당에 받아들이며 당의 발전을 조절할 문제 그리고 농촌사업 및 농업을 발전시킬 대책에 관한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북깝가즈변강구위원회의 보고를 심의하였다. 쓰딸린은 11월 19일 회의에서 의정의 첫째 문제에 대하여 《나라의 공업화 및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내의 우익적편향에 관하여》라는 연설을 발

표하였다.—100, 172페지

26 프랑스문 원문으로는 《Laissez faire, laissez passer》이다. 그 뜻은 《누구에게나 하자는대로 내버려두며 가자는대로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경제관계에 간섭하지 말것을 국가에 요구한 18세기중엽의 프랑스경제학자의 한 견해이다. —128페지

27 소환파란 로씨야에서의 1905～1907년 혁명이 실패된 뒤 볼쉐위크 대렬내에 생긴 《좌》익기회주의파벌로서 그 대표인물들로는 아.아. 보그다노브, 아.웨.루나챠르스끼, 게.아.알렉신스끼, 엠.엔.뽀크롭스끼 등이다. 소환파는 제3차국회로부터 사회민주당대표자들을 소환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직업동맹, 협동조합 그리고 기타 합법적 및 반합법적 조직에 참가할것을 거부하였으며 일체 합법적투쟁을 포기하였다. 소환파는 《혁명》이라는 어구를 방패로 취소파의 로선을 집행하였다. 레닌은 소환파를 《문패를 바꾸어 단 멘쉐위크》라고 불렀다. 1909년 6월에 있은 볼쉐위크기관지 《무산자》 확대편집부회의(실제에 있어서는 볼쉐위크중앙전원회의이다.)에서 소환파를 규탄하였으며 볼쉐위크대렬에서 보그다노브를 제명하였다.—132페지

28 《좌익공산주의자》는 브레스트강화시기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내에 나타난 《좌》익기회주의집단으로서 1918년 1월에 산생되였다. 그 핵심적인물들로는 엔.이.부하린, 에.아.쁘레오브라젠스끼, 게.엘.빠따꼬브 및 카.베.라데크 등이다. 《좌익공산주의자》들은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할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서구라파혁명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이는 로씨야사회주의혁명이 기필코 국제자본의 타격에 의하여 훼멸될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들은 브레스트강화의 체결을 반대하여나섰으며 제국주의와 전쟁을 진행함으로써 국제혁명을 《촉진》하자고 주장하였다. 쏘베트정권이 강화를 체결하고 소휴식기를 쟁취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착수할 때 《좌익공산주의자》들은 1918년 4월에 《시국에 대한 테제》를 발표하여 레닌의 《쏘베트정권의 당면과업에 관한 테제》에 대항하여나섰다. 그들은 과도시기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자산계급전문가들과 국가자본주

의를 리용하는것을 반대하였으며 기업에서 규률을 세우며 경제채산을 실시하는것을 반대하면서 레닌의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것은 자산계급적질서를 회복하는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볼쉐위크당은 레닌의 지도하에 《좌익공산주의자》들과 단호히 싸웠다. 《좌익공산주의자》들은 1918년 여름에 오유를 승인하였다.—134페지

29 국제공산당 제5차대회는 1924년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리였다. 대회에는 49개 공산당과 기타 조직의 대표자 도합 504명이 참석하였다. 대회에서는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의 활동, 세계의 경제상황, 쏘련의 경제상황 및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내의 론쟁, 파쑈주의, 직업동맹운동가운데서의 전술, 생산단위의 세포 등 문제들을 토론하였으며 또 개별적국가의 당문제, 강령문제, 민족문제, 토지문제 및 기타 문제들을 토론하였다. 쓰딸린이 대회주석단 위원이였으며 몇개 가장 중요한 위원회—정치위원회, 강령위원회, 레닌주의에 관한 결정초안위원회 위원 및 뿔스까위원회의 위원장이였다. 대회는 뜨로쯔끼주의를 반대하는 볼쉐위크당의 투쟁을 지지하였으며 론쟁의 총결과 당내의 소자산계급적 경향에 관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3차대회와 제13차대회의 결정을 비준하였으며 그것을 국제공산당의 결정으로서 공포할것을 결정하였다. 대회는 자본주의국가의 공산당들을 강화하여 이러한 당을 볼쉐위크화시킴으로써 직업동맹에 의거하는 진정한 대중적인 당으로 되게 할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140페지

30 중앙위원회의 6월선언은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가 1928년 6월 3일에 비판과 자기비판 문제에 관하여 발포한 전체 당원 및 전체 로동자들에게 고하는 글을 두고 말한다. 이 문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중앙위원회는 만일 제일 대담하고 제일 단호히 가장 철저하게 대중을 사회주의건설사업에 끌어들이지 않으며 천백만 대중이 모든 기관에 대하여 검사하고 감독함으로써 그가운데의 직책을 감당할수 없는 분자들을 깨끗이 제거하지 않는다면 개조사기의 과업을 해결할수 없다고 인정한다.》 문헌은 또 다음과 같이 썼다. 《당내의 민주주의와 직업동맹의 민주주의 등(당과 직업동맹의 각급 기관은

진정으로 선거에 의하여 산생되며 그 어떤 급의 비서, 상무위원회, 위원회이든지 모두다 완전히 쇄환할수 있다.)을 철저하게 실시하여야만 대중의 경상적인 감독을 형성시킬수 있으며 우리 기관들의 관료주의의 혹을 떼여버릴수 있으며 관료주의적압제, 호상간의 비호, 관리식의 아첨, 못된 행패, 대중의 리익에 대한 망각, 소시민적인 무사태평 등등의 여러가지 현상들을 깨끗이 없애버릴수 있다. 이러한 대책을 대지 않는다면 비판과 자기비판의 구호는 빈 종이장으로 되고말것이며 또한 이 구호는 대중속에서의 당의 지도와 당자체의 위신을 상실하게 할것이다.》—142페지

31 이번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련석전원회의는 1929년 4월 16일부터 23일에 걸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당내부사건에 관한 문제, 당의 제16차전국대표자회의에 관한 문제, 청당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였다. 전원회의는 1929년 2월 9일의 당내문제에 관한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중앙검열위원회 상무위원회의 련석회의의 결의문을 승인하였으며 엔.이.부하린, 아.이.리꼬브 및 엠.페.똠스끼의 우익기회주의적파벌활동을 질책하였다. 전원회의는 정치국에 의하여 제기된 인민경제발전의 5개년계획, 농업발전의 길, 중농의 세금경감 및 반관료주의투쟁의 총결과 당면과업 등에 관한 제강에 동의하였으며 이 제강들을 당의 제16차전국대표자회의의 심의에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기본상 승인된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당원 및 후보당원을 깨끗이 정돈할데 관한 제강을 당의 제16차대표자회의의 심의에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쓰딸린은 4월 22일 회의에서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내의 우익적편향에 관하여》라는 연설을 하였다.—147페지

32 **사회혁명당**은 로씨야의 소자산계급정당으로서 1901년말~1902년초에 일부 인민파 단체와 소조들이 통합되여 이루어진것이다. 사회혁명당원들의 견해는 인민주의와 수정주의가 절충된 혼합물이다. 그들은 《인민주의의 결함들을 맑스주의에 대한 류행식기회주의적〈비판〉의 쪼각지들로 미봉하려고 애쓴다》(《레닌전집》, 한문판, 제9권, 295페지). 사회혁명당원들은 농민내부의 계급모순을 부정하고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가운데서의 무산계급의 지도적역할과 무산계급독재의 사상을 반대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사회혁명당원들의 다수는 짜리로씨야의 전쟁정책을 지지하였고 소수는 전쟁을 반대하였는데 이것은 그후 좌익사회혁명당의 핵심으로 되였다. 1917년, 2월혁명후 사회혁명당원들은 멘쉐위크, 립헌민주주의자들과 함께 자산계급림시정부의 주요골간으로 전락되였다. 당의 수령 아. 에프.께렌스끼, 엔.데.압크쎈찌에브, 웨.엠.체르노브 등은 림시정부내에서 요직에 있었다. 1917년 11월, 사회혁명당좌익은 자립적 좌익사회혁명당을 결성하였다. 좌익사회혁명당원들은 한시기 쏘베트정권을 승인하고 볼쉐위크와 협작하였으나 인차 또 쏘베트정권을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우익사회혁명당원들은 시종 10월혁명을 적대시하였다. 1918~1920년의 외국의 무력간섭 및 내전기간에 사회혁명당원들은 부농반란을 회책하고 공산당과 쏘베트국가의 지도자들을 암해하려는 등 반혁명적음모를 여러번 책동하였다. 내전이 끝난후 사회혁명당은 반혁명활동을 계속하다가 쏘베트정권에 의하여 분쇄되고말았다.—152, 391, 568, 591, 796페지

33 국제공산당 제6차대회는 1928년 7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에 걸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57개 나라의 50개 공산당과 15개 기타 조직의 대표자 도합 515명이 참석하였다. 대회는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활동에 대한 총결보고, 국제공산주의청년동맹 집행위원회 및 국제공산당 검열위원회의 총결보고를 토론하였으며 제국주의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할데 대한 방법, 국제공산당의 강령,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에서의 혁명운동에 관한 문제, 쏘련에서의 경제형편과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내부의 정형을 심의하였으며 국제공산당의 규약을 비준하였다. 대회는 자기의 결정에서 자본주의의 내부적모순의 증대는 불가피적으로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흔들어놓으며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의 급격한 참예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회는 로동계급의 투쟁의 새로운 조건에 근거하여 국제공산당의 제 과업을 규정하였으며 주요한 위험성으로서의 우익적편향과의 투쟁 및 이것과 융화하는 경향들과의 투쟁의

강화에로 각국 공산당을 동원하였다. 대회는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들과 국제무산계급의 혁명적진지의 강화에 대한 의의를 지적하였으며 쏘련을 수호할것을 전 세계의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쓰딸린은 대회의 사업에 참가하여 지도하였으며 대회의 주석단위원으로 선거되였으며 강령작성위원회 위원 및 국제정세와 국제공산당의 제 과업에 관한 제강작성을 위한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였다.—166페지

34 《친절한 곰은 원쑤보다도 더 위험하다》라는 말은 이.아.크뢸로브의 우화 《은사와 곰》에서 나왔다. 은사와 곰은 서로 벗으로 사귀였다. 어느날 그들은 함께 나가 유람하며 놀았다. 도중에 은사는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었다. 곰은 은사의 이마에 앉은 파리 한마리를 큰돌로 내리쳤다. 하여 은사의 머리는 두쪼각으로 갈라지고 말았다.—177페지

35 강단사회주의란 19세기 후반엽에 독일에서 산생된 자산계급사상의 한 류파로서 그 대표인물들로는 대학교수 아.와그네르, 게.쉬몰레르, 엘.브렌타노, 웨.좀바르트 등이다. 그들은 대학의 강단에서 사회주의간판을 내걸고 자산계급개량주의를 설교하였으며 자산계급국가는 자본가들의 리익을 건드리지 않고 적대적계급들을 서로 화해시키면서 점차 《사회주의》를 실시할수 있는 초계급적인 조직이라고 인정하였다. 강단사회주의의 강령은 질병과 불상사에 대한 로동자들의 보험을 조직하며 공장의 립법면에서 약간한 조치를 취하는 등에만 국한되여있었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의 강단사회주의자들은 리론면에서 박애주의적경향을 얼마간 가진 속류경제학자들보다 더 고명하여지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야말로 비스마르크적국가사회주의에 대한 변호사의 지경에까지 타락되였다.》(《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6권, 375페지) 로씨야에서 합법적맑스주의자들은 강단사회주의의 개량주의사상을 설교하였었다.—180페지

36 립헌민주당(혹은 인민자유당이라고도 한다.)은 로씨야자유주의군주파자산계급의 주요정당으로서 1905년 10월에 창립되였으며 지도

자는 베.엔.밀류꼬브였다. 립헌민주당은 립헌군주제의 형태로 까디제도를 유지하려고 시도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이 당은 짜리정부의 대외침략정책을 지지하였다. 1917년 2월혁명후 립헌민주주의자들은 자산계급림시정부내에서 지도적지위를 차지하였다. 10월혁명이 승리한후 립헌민주주의자들은 반혁명적음모활동과 폭동을 여러차례나 획책하였다. 무력간섭자들과 백파들이 격파된후 립헌민주당상층인물들은 대부분 국외로 도망쳐 쏘베트로씨야를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하였다.—202, 391페지

37 《청년인터나쇼날》(《*Jugend Internationale*》)은 첸메르왈드좌익국제사회주의청년조직련합회의 기관잡지로서 1915년 9월부터 1918년 5월까지 웨.뮌첸베르그의 편집으로 쮜리히에서 발행되였다. 이 잡지는 1919년부터 1941년까지 공산주의청년인터나쇼날 집행위원회의 기관잡지로 발행되였다. 1919년 7월전까지는 1년에 네번씩 발행되였으나 그후부터는 월간잡지로 고쳤다.—215페지

38 《〈사회민주주의자〉 론문집》(《*Сборник Социал-Демократа*》)은 레닌에 의하여 창간된 볼쉐위크잡지로서 레닌이 지도하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 편집부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출판되였으며 도합 두호(1916년 10월 제1호와 12월 제2호)가 나왔다.—222페지

39 **자원적헌납**은 당시 쏘련농촌에서 부농을 반대하는 투쟁에 빈농과 중농을 동원한 한가지 방법이였다. 1928년 1월부터 쏘련농촌에서 실시한 자원적헌납법에 근거하여 본지구의 문화교육복리사업을 꾸리기 위하여 촌농민대회에서 돈을 모집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여 바칠 돈을 각 농호에다 풍길수 있었다. 풍기는데의 원칙은 절대부분의 의연금은 부농과 부유중농상층에서 부담하고 빈농과 힘이 약한 농호들에서는 바치지 않아도 되였다. —234페지

40 **빈농위원회**는 전로씨야중앙집행위원회 1918년 6월 11일부 법령에 근거하여 세워진 농촌빈농조직이다. 당시 쏘베트로씨야의 농촌의 계급투쟁은 매우 첨예하여 아주 많은 부분의 쏘베트농촌이 부농

의 영향밑에 있었다. 6월 11일의 법령은 빈농위원회에 중농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과업은 곡물, 생활필수품 및 농기구를 분배하며 당지의 곡물기구를 협조하여 부농과 부자들의 여유곡물을 몰수하여 빈농에 공급하고 국가곡물수집소에 보내며 곡물개인장사 및 곡물투기활동과 투쟁하며 파종작업과 수확작업을 조직하고 곡식을 보호하는 등이다. 빈농위원회는 농촌에서의 무산계급독재의 기둥으로서 쏘베트정권을 공고히 하고 쏘베트가운데에 있는 부농분자들을 제거하며 중농을 쟁취하는 면에서 중대한 역할을 놀았다. 1918년 11월에 전로씨야쏘베트 제6차비상대회의 결정에 의하여 빈농위원회는 농촌쏘베트와 합병하였다.—235페지

41 **크론슈따트폭동**은 1921년 2～3월에 사회혁명당원, 멘쉐위크 및 백위군들이 발찌해해군요새 크론슈따트에서 일으킨 반혁명반란을 말한다. 당시 10월혁명에 참가했던 발찌해함대의 로해병들은 다 전선으로 나가고 새로 보충된 해병들은 태반이 농민이였는데 그들은 전시공산주의정책에 대하여 불만정서를 품고있었으며 크론슈따트 당조직은 여러차례 전선에 동원되였기때문에 약화되였었다. 이것이 이 반란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다. 반란분자의 두령들은 새로운 투쟁전술을 취하고《공산당원이 없는 쏘베트》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정권을 소자산계급정당의 수중에 전이시킴으로써 자산계급독재를 제우고 로씨야에서 자본주의를 복구하기 위한 조건을 창조하려고 시도하였다. 2월 28일과 3월 1일에 반란분자두령들은 대회를 열고 이른바《좌익사회주의정당》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며 정치위원 및 정치부를 취소하며 자유무역을 용허하며 쏘베트를 개선할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3월 2일 반란분자들은 합대사령을 체포하고 크론슈따트를 점령하였다. 반란분자들은 또한 외국제국주의자들과도 련계를 맺었다.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과단한 조치를 취하고 까.예.워로쉴로브를 위수로 하는 제10차당대회 대표자 약 300명을 붉은군대 제7군단에 파견하여 사업을 강화하였다. 3월 18일에 반란은 철저히 분쇄되였다.—243페지

42 **브레스트강화시기**란 1917년 12월～1918년 3월에 쏘베트로씨야가 독일, 오지리 등 나라들과 브레스트-리똡스크에서 담판하고 강화를 체결하기 전후의 시기를 말한다. 당시 로씨야의 낡은 군대는 이미 와해되여 계속 작전할수 없게 되였으며 로농군대를 창건하는 사업은 방금 시작되였으며 인민들은 기진맥진하여 전쟁을 끝마칠 것을 갈망하였으며 기타 나라들에는 아직 혁명이 폭발되지 않고있었다. 레닌은 이러한 정세하에서 만일 전쟁을 계속한다면 제국주의가 청소한 쏘베트공화국을 파괴하게 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레닌은 가혹한 강화조건을 접수하면서라도 강화조약을 즉시 체결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레닌의 방침은 당내에서 엔.이.부하린 등 《좌익공산주의자》들과 엘.데.뜨로쯔끼의 반대를 받았다. 그들은 독일에 향하여 혁명전쟁을 선포하거나 《싸우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을것》을 주장하였다. 독일에서 최후통첩을 제기하였을 때 쏘베트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뜨로쯔끼는 인민위원회 위원장 레닌의 지시를 위반하고 강화조약체결을 거부하였으며 동시에 또 우리는 군대를 제대시킬것이며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성명하였다. 이렇게 되여 독일군대는 1918년 2월 18일에 전반 전선에 걸쳐 진공을 발동하여 쏘베트국가의 많은 령토를 점령하였으며 수도 뻬뜨로그라드를 위협하였다. 레닌은 일떠나 조국을 수호할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으며 청소한 혁명군대는 독일강도의 침입을 영용하게 항격하였다. 동시에 레닌은 부하린, 뜨로쯔끼 등과 단호히 투쟁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의 다수를 설복하여 독일측의 원래의 최후통첩보다 더 가혹한 조건하에서 3월 3일에 마침내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레닌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이 이번 《우리 당내에 〈좌익〉반대파가 나타난데서 직면하고있는 엄중한 위기는 로씨야혁명이 직면하고있는 엄중한 위기의 하나이다.》(《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462페지)라고 지적하였다. —246페지

43 **좌익사회혁명당원**은 본래 사회혁명당내의 좌익으로서 1917년 11월에 독립적인 정당을 구성하였다. 그의 지도자는 엠.아.쓰삐리도노바, 베.데.깜꼬브, 엠.아.나딴쏜 등이다. 좌익사회혁명당원은 볼

쉐위크와 함께 뻬뜨로그라드쏘베트군사혁명위원회와 10월혁명봉기에 참가하였으며 전로씨야쏘베트 제2차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인민위원회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산계급독재를 부정하였으며 일부 근본적인 문제들에서 볼쉐위크와 의견상이가 있었다. 브레스트담판기간에 그들은 강화조약의 체결을 반대하였다. 1918년 3월에 전로씨야쏘베트 제4차대회가 강화조약을 비준한 뒤 그들은 인민위원회에서 퇴출하였다. 농촌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벌어지고 빈농위원회가 세워짐에 따라 좌익사회혁명당원의 반쏘베트정서가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1918년 7월에 그들은 모스크바주재 독일대사 웨.미르바호를 쩔러죽이고 뒤이어 반혁명적무력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이 분쇄된후 좌익사회혁명당은 분렬되여 그 일부는 1918년 9월에 《인민파공산당》과 《혁명적공산당》(이 두 조직은 1918년 11월과 1920년에 선후하여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과 합병하였음.)을 구성하였고 다른 일부 지도자들은 원래의 립장을 고집하였다. 신경제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좌익사회혁명당원들은 종국적으로 정치무대에서 물러나고야말았다.—246페지

44 《좌익공산주의자》 엔.이.부하린, 엔.오씬스끼, 웨.엔.야꼬블레와, 이.엔.스뚜꼬브, 웨.엔.만께브들의 통제하에 있던 모스크바구역당위원회는 1918년 2월 24일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채택하였다. 즉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모스크바구역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사업을 토론하고 중앙위원회의 정치로선과 중앙위원회성원들에 대하여 불신임을 표시하며 기회만 있으면 중앙위원회를 개선할것을 주장한다. 이밖에 모스크바구역위원회는 오지리-독일강화조약의 조건을 리행하는것과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지은 제반 결정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한다》. 결정에 첨부된 《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모스크바구역위원회는 당은 가까운 장래에 분렬을 피면하기 어려울것이라고 인정하며》, 《국제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우리는 인제는 완전히 형식적으로 된 쏘베트정권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당한것이라고 인정한다.》 레닌은 우에서 든 《설명서》의 마지막 한마디 말을 《피피망측한 언론》이라고 불렀다.

—246페지

45 **정치적사형**이란 중세기 로씨야에서 범인들에게 실시하던 모욕적인 가짜사형이다. 그 방법은 범인을 단두대에 올려놓은 다음 무릎을 꿇게 하고 교형리가 그의 머리우에서 검을 부러뜨린다. 그다음 쇠사슬로써 그 범인을 치욕의 기둥에 동여맨다.—249페지

46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제16차대표자회의**는 1929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리였다. 회의에서는 인민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5개년계획, 농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도 및 중농의 부세를 경감시킬데 관한 문제, 반관료주의투쟁에 대한 총결과 당면의 과업,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당원과 후보당원 대오를 순결화하고 심사할데 관한 문제들이 토론되였다. 회의에서는 제1차5개년계획이 주요의제로 되였다. 회의에서는 우익투항주의자들이 옹호하는 5개년계획의 최저방안을 부결하고 어떠한 조건하에서나 집행하여야 할 최고방안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열위원회 4월전원회의 및 이 회의에서 발표한 쓰딸린의 연설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내의 우익적편향에 관하여》에 대한 웨.엠.몰로또브의 전달보고를 들었으며 《당내사건에 대하여》라는 결의를 일치하게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을 벌릴데 관한 쏘련의 전체 로동자와 근로농민들에게 알리는 글을 채택하였다.—252, 254페지

47 **련속작업제**는 또한 련속작업일주라고도 하는데 현유의 설비를 충분히 리용하는 작업시간제도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는 단위에서는 명절이나 휴식일도 례외없이 밤낮 계속 일을 한다. 모든 종업원들은 교대하여 휴식을 하며 공장전체가 휴식하는 날은 없다.—258, 369페지

48 **맑스주의자-토지문제전문가대표자회의**는 쏘련중앙집행위원회소속 공산주의과학원에 의하여 소집된것으로서 1929년 12월 20～27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리였다. 이 회의에는 과학연구기관, 농업고등학교 및 경제고등학교, 잡지 및 신문사 편집부의 대표자 도합 302명이 참석하였다. 쓰딸린은 12월 27일 회의의 마지막 총회에서 《쏘련에

서의 토지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였다.—274페지

49 《국외에서》(《*За рубежом*》)는 1930년부터 엠.고리끼의 편집하에 발행된 잡지로서 1932년에 잡지형식의 신문으로 고쳐져 1938년까지 발행되였다.—307페지

50 쁘리쉬베예브중사는 로씨야작가 아.메.체호브의 단편소설《쁘리쉬베예브중사》의 주인공이다. 그는 거만하고 무지몽매하며 횡포무도하며 타인의 자유를 간섭하고 생기있는 모든것을 압제하고 질식시키며 하는자이다.—314페지

51 돈 끼호떼는 에스빠냐작가 에메.쎄르반떼스의 소설《돈 끼호떼》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그는 기사문학에 열중한 나머지 책속의 인물을 본따서 기사업적을 쌓으려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 허황한 환상을 현실로 본 그는 도처에서 좌절당한다. 후에 돈 끼호떼는 실제를 떠나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되였다.—333, 389, 653페지

52 죽은 넋이란 말은 로씨야작가 엔.웨.고골리의 소설《죽은 넋》에서 나온것이다. 이른바 죽은 넋이란《농노인두세문건》에는 이름이 올라있으나 호구조사를 다시 하기전에는 산 사람으로 되여있는 죽은 농노를 가리킨다. 그후부터 죽은 넋이란 말은 흔히 허풍치고 거짓보고를 하는 사람을 비유하여 쓰게 되였다.—335페지

53 제1차전련맹사회주의공업일군대표자회의는 1931년 1월 30일～2월 4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리였다. 회의에는 728명의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그들중에는 공업회사의 대표자들, 공장의 지배인들, 공사장의 책임자들, 기사들, 직공장들, 우수한 로동자돌격대원들, 당 및 직업동맹단체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1931년도의 통제수자와 경제조직들의 제 과업에 관한 최고인민경제위원회 위원장 게.까.오르조니끼제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2월 3일 회의에서는 인민위원회 위원장 웨.엠.몰로또브가《경제계획의 기본전제와 완수에 관하여》란 연설을 하였다. 2월 4일 쓰딸린은 회의에서《경제일군들의 임무에 관하여》란 연설을 하였다. 대회에서는 제1차5개년계

회의 결정적인 해인 세번째 해의 인민경제계획의 완수에 관한 실제적인 대책이 제기되였다. 회의에서는 경제일군들의 기본임무는 기술을 습득하며 생산지도의 질을 높이며 일장제를 철저하게 실시하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원가저하와 제품의 질의 개선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345페지

54 뽈빠두르는 원래 프랑스국왕 루이15세가 총애하던 첩으로서 독단독행하며 갖은 행패를 다 부렸다. 로씨야작가 엠.에.쌀띄꼬브-쉐드린은 이 이름을 빌어 쓴《뽕빠두르멸전》등 자기의 소설에서 횡포하고 우매하며 권세를 부리며 자기도 배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배우지 못하게 하는 로씨야관리들의 인물형상을 부각하였다.—351페지

55 공업당은 1925～1930년기간에 쏘련의 낡은 자산계급상층의 공정기술일군들가운데 존재하고있던 반혁명조직으로서 그 주요한 우두머리들로는 낡은 기사와 지난날의 자본가들이였다. 공업당의 일부 성원들은 쏘련최고인민경제위원회와 국가계획위원회 등 지도부문들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있었다. 국제자본의 도구로서의 공업당은 쏘련인민경제의 각 부문에서 간첩파괴활동을 감행하였다. 1930년 11월 25일～12월 7일에 쏘련최고법원특별법정에서는 모스크바에서 공업당안건을 심판하였다.—352페지

56 **경제일군회의**는 1931년 6월 22～23일에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에 의하여 개최되였다. 회의에는 쏘련최고인민경제위원회산하 경제단체들과 쏘련공급인민위원부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쓰딸린은 23일회의에서《새로운 환경과 경제건설의 새로운 과업》이란 연설을 하였다. —359페지

57 《**령리한 모래무지**》는 로씨야작가 엠.에.쌀띄꼬브-쉐드린의 우화인데 거기에는 어디로 가나 죽을 위험이 있을가봐 온종일 몸이나 겨우 가눌수 있는 굴속에 들어박혀 감히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수심에 잠긴 생활을 하고있는 모래무지가 묘사되여있다. 모래무지는 제딴에는 제일 령리하다고 여기나 남들은 그를 바보로 여기였다.

—385페지

58 1917년 10월 29일(신력 11월 11일)에 짜리로씨야군사학교의 학생들이 뻬쯔로그라드에서 발동한 반쏘베트무장폭동을 말한다. 이것은 께렌스끼-크라스노브반혁명폭란의 한개 조성부분이였다. 이 폭동은 엔.메.압크쎈쩌에브, 아.에르.고쯔를 위수로 한 반혁명조직인 《조국및혁명구원위원회》에 의하여 지도되였다. 지휘자는 뻬쯔로그라드군구 사령 게.베.뽈꼬브니꼬브대좌였다. 폭동자들은 전보국, 미하일로브 기마훈련장, 뻬쯔로빠블로브요새와 쓰몰리늬를 점령하고 쏘베트정부와 볼쉐위크당의 수령들을 체포하려고 획책하였다. 폭동은 원래 10월 30일에 일으키기로 결정되였는데 음모가 폭로된데서 앞당기게 되였다. 부분적사관생부대는 미하일로브 기마훈련장과 전보국을 점령하였었다. 그날 저녁무렵에 폭동은 해병과 적위대에 의하여 평정되였다.—391페지

59 **12월당원의 봉기**는 로씨야의 귀족혁명가들(거의 전부가 귀족출신의 군관들이였다.)이 1825년 12월에 짜리전제제도를 반대하여 일으킨 무장봉기를 말하며 이로 하여 12월당원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였다. 12월당원들은 세개의 비밀혁명단체, 즉 엔.엠. 무라위요브가 령도한 북방협회 베.이.뻬쓰껠리가 령도한 남방협회와 아.이.보리쏘브, 베.이.보리쏘브형제가 령도한 슬라브인련합회를 건립하였다. 이 단체들은 농노제를 폐지하고 군주정체를 폐제하거나 짜리의 권력을 제한할것을 요구하였다. 1825년 12월 14일 이른아침에 북방협회는 새 짜리 니꼴라이1세에게 선서하기를 거부하는 병사들을 인솔하여 베쩨르부르그참정원광장에서 봉기를 단행하였다. 봉기는 그날 저녁무렵에 진압되고말았다. 반달이 지난 뒤 남방협회도 우크라이나에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역시 짜리군대에 의하여 진압되였다. 저명한 12월당원들인 뻬쯔껠리, 에스.이.무라위요브-아뽀쓰똘, 까.에포뙬레에브, 엠.베.베스뚜제브-류민, 베.게.까홉스끼는 교형을 받았고 백여명이 씨비리로 추방당했다. 레닌은 이 시대의 로씨야의 혁명운동에 관하여 론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혁명가들의 범위는 협소하다. 그들은 인민들로부

히 아주 멀리 떨어져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업은 허사로 되지는 않았다. 12월당원들은 게르쩬을 깨우쳐주었고 게르쩬은 혁명적선동을 벌리였다.》(《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422페지)—393페지

60 베르싸이유체계란 영국, 미국, 프랑스가 1914～1918년의 제국주의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그 동맹국을 격파한 뒤에 창설한 자본주의국가들간의 정치적 및 경제적 관계의 체계를 말한다. 이 체계의 기초는 베르싸이유강화조약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구라파국가들간의 새로운 국경을 확정하는 조약도 포함한 일련의 기타 조약들이였다.—398페지

61 스톡홀름에서 1906년에 열린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4차대회에서와 런던에서 1907년에 열린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5차대회시기 그리고 쓰딸린이 1912년과 1913년에 출국하여 크라꼬브, 윈에 체류했던 시기에 있은 레닌과의 회견을 말한다.—403페지

62 샤를로텐부르그는 독일 베를린시의 한 귀족주택구역이다. 라뗑구는 프랑스의 빠리에 있는데 구역내에는 많은 학교와 문화과학기관들이 있다. 19세기와 20세기초에 이곳은 대학생과 가난한 지식분자들의 집거지였다.—404페지

63 국가사회주의자 즉 독일파쑈주의정당 국가사회주의로동당분자들이다. 국가사회주의로동당의 전신은 1919년에 뮌헨에서 성립된 독일로동당이였는데 아.히틀러가 가입한후인 1920년에 재편성되여 독일국가사회주의로동당으로 개칭되고 간칭으로 국사당 혹은 나찌스당이라고 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인 1945년에 동맹국관제위원회에 의하여 이 조직은 비법적조직으로 선포되였다.—405페지

64 제1차전련맹집단농장돌격대원대회는 1933년 2월 15～19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1,513명의 대표자들이 출석하였다. 대회에서는 집단농장의 강화와 춘기파종의 파업에 관한 문제가 토론되였다. 쓰딸린이 폐막식에서 연설하였다. 쏘련의 일부 기타 지도자들도 대회에서 연설하였다. 대회는 쏘련의 전체 집단농민들

에게 보내는 글에서 집단농장을 볼쉐위크적인 집단농장으로 만들며 풍작을 따내며 춘기파종을 모범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것을 내용으로 한 쏘련 국영농장 및 집단농장들의 전국적사회주의경쟁을 전개할것을 호소하였다.—407페지

65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제17차대회는 1934년 1월 26일～2월 10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의정에는 중앙위원회의 총결보고, 중앙검사위원회의 총결보고, 중앙검열위원회—로농감독국의 총결보고, 국제공산당주재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의 총결보고, 제2차5개년계획 및 조직문제(당 및 쏘베트 건설)에 관한 보고 등이 들어있었다. 1월 26일에 쓰딸린이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의 사업에 관한 총결보고를 하였다. 쓰딸린의 보고에 근거하여 대회는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의 정치로선과 실제사업을 전적으로 찬동하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대회는 쏘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거대한 성과를 지적하고 당의 총로선이 승리하였다는것을 긍정하였다. 대회는 웨.엠.몰로또브와 웨.웨.꾸이븨쉐브의 보고에 근거하여 쏘련인민경제발전 제2차5개년계획(1933～1937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계획기간에 전반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를 완수하며 로동자, 농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을 더욱 신속히 향상시킬것을 요구하였다. 대회는 엘.엠.까가노위치의 보고에 근거하여 조직문제(당 및 쏘베트 건설)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모든 부문에서의 사업의 질, 무엇보다도먼저 조직적—실천적지도의 질을 높일것을 요구하였다. 대회는 중앙검열위원회—로농감독국을 철폐하고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당외 검열위원회와 쏘련인민위원회 쏘베트검열위원회를 성립할것을 결정하였다. 대회에서는 새로운 당규약이 채택되였다.—427, 591페지

66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제16차대회는 1930년 6월 26일～7월 13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리였다. 대회의 의정에는 당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 및 조직보고, 중앙검사위원회의 총결보고, 중앙검열위원회의 총결보고, 국제공산당주재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의 총결보고, 공업5개년계획의 완수에 관한 보고, 집단농장운동과 농업의 발

건에 관한 보고, 제건기에 있어서의 직업동맹의 과업에 관한 보고 등이 들어있었다. 쓰딸린은 6월 27일에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를 하였으며 7월 2일에는 그 보고에 대한 결론을 지었다. 대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정치로선과 제반 사업을 만장일치로 찬동하고 앞으로도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볼쉐위크적속도를 보장하며 5개년계획을 4년동안에 완수하도록 하며 전반 전선에 걸쳐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공세를 벌리며 전면적집단화의 기초우에서 견정불이하게 부농계급을 소멸할것을 중앙위원회에 책임을 지웠다. 대회는 계속 평화정책을 실시하며 쏘련의 국방력을 강화할것을 당중앙위원회에 위탁하였다. 대회는 전력을 다하여 중공업을 발전시키며 쏘련동부에다 새로운 석탄—강철기지를 세울데 관한 지시, 모든 대중단체의 사업을 개조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직업동맹의 역할을 강화할데 관한 지시, 사회주의경쟁에 모든 로동자 및 근로자 대중을 인입할데 관한 지시를 지었다. 대회는 우경기회주의를 폭로하였으며 우익반대파의 견해는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당적과 어울릴수 없는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대회는 민족문제에서의 편향들—대국배외주의 및 지방민족주의 편향 그리고 이 두 편향에 대한 타협적인 태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레닌의 민족정책을 견결히 집행하여 민족적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을 갖춘 쏘련 각 민족의 문화를 보증코 광범히 발전시킬것을 각급 당단체들에 위임하였다.—428, 591페지

67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제17차대표자회의**는 1932년 1월 30일～2월 4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31년도 공업발전의 총결과 1932년의 과업에 관한 게.까.오르조니끼제의 보고와 쏘련의 인민경제발전 제2차5개년계획(1933～1937년) 작성에 대한 지시에 관한 웨.엠.몰로또브 및 웨.웨.꾸이븨쉐브의 보고를 심의하였다. 회의는 사회주의경제로대의 건립과 쏘련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당대회의 결정들은 이미 순리롭게 수행되였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1932년도사회주의공업발전계획을 비준하였다. 회의는 제2차5개년계획작성에 대한 지시에서 제2차5개년계획의 기본적인 정치적 및 경제적 과업을 규정하고 제2차5개년계획의 주요하고도 결

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경제적과업은 최신기술의 토대우에서 전반 인민경제에 대한 개조를 완수하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429페지

68 《통보》, 즉 《반대파통보》(《*Бюллетень Оппозиции*》)는 1929~1941년에 선후로 빠리, 베를린, 뉴욕 등지에서 출판된 뜨로쯔끼파의 간행물로서 도합 87호가 나왔다.—442페지

69 직무별관리제는 직능기구를 통하여 분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의 특점은 기관과 기업소들에 대량의 직능기구와 부직지도일군을 두며 직능기구는 기층생산부문들에서 생산부문의 지도를 걸치지 않고 직접 생산을 간섭할수 있는 자기의 직속조직이거나 특파원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쏘련에서는 1934년이전에 간부들의 문화수준이 낮고 복잡한 경제에 대한 관리경험이 결핍한데서 이런 제도를 채용하였었는데 그 결과 직능기구들이 독단주의를 부리고 기층생산부문의 지도자가 생산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장악할수 없으며 생산과정의 절박한 문제들을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무책임현상들이 나타나며 집행정황에 대하여 검사할 방법이 없으며 많은 기술간부들이 생산을 탈리하여 관리기구의 사무실에 집중되며 공문과 통계표가 잡다하며 행정지출이 증대되는 등 경제관리에서의 결함들이 조성되였다.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제17차대회는 모든 쏘베트기관과 경제기관내의 직무별관리제를 철소하고 기층생산환절로부터 인민위원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산과 지구의 원칙에 좇아 재편성하며 기관과 생산지도자들의 직능, 권한과 책임을 확대할것을 결정하였다.—446페지

70 헌장운동은 19세기 30~50년대에 영국무산계급이 《인민헌장》의 실현을 쟁취하기 위하여 전개한 혁명운동이다. 레닌은 이 운동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되는 광범하고 참으로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무산계급혁명운동이다.》(《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811페지)라고 말하였다. 《인민헌장》은 런던로동자협회에서 1837년에 작성하고 1838년에 법안형식으로써 공포한, 일반선거권쟁취에 관한 문건으로서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요구가 포함되여있

다. 즉 무릇 나이 21세되는 남성에게는 모두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비밀투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원립후보자에 대한 재산자격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당선된 의원들에게 봉급을 지불하여야 한다, 의회는 매년 한번씩 개선하여야 한다, 선거구역을 평균분배하며 대표는 선거민인수에 따라 산생되여야 한다. 헌장운동에는 세차례의 앙양이 있었다. 첫번째 앙양은 1838~1839년에 나타났었는데 의회에 보내는 청원서에 서명한 인수는 128만이였다. 두번째 앙양은 1842년에 나타났는데 서명자는 약 330만이였고 청원서에는 일반선거의 실시 등 정치적요구를 제기한외에 로동일을 감소하며 로임을 높이라는 요구도 제기되였다. 세번째 앙양은 1848년에 나타났는데 서명자는 197만명에 달하였다. 청원과 함께 로동자집회, 시위행진, 파업, 폭력에 항의하는 투쟁 등 활동도 진행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헌장운동을 적극 지지하였었으며 이 운동의 좌익지도자 지.하니, 이.존즈와 련계를 가지고 이 운동을 사회주의방향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썼다. —475페지

71 《령락된 소도시》는 18세기말과 19세기초의 인구는 감소되였지만 여전히 낡은 제도대로 의원을 선거할 권리를 가지고있던 영국의 일부 소도시와 향촌을 말한다. 사실상 《령락된 소도시》의 의원의 대다수는 당지의 주민을 지배하고있던 대토지귀족들에 의해 지명된자들이였다. 《령락된 소도시》의 이러한 특권은 1832년과 1867년의 선거개혁에 의하여 취소되였다.—475페지

72 영국로동자들이 1926년 5월 3~12일에 단행한 총파업을 말한다. 파업에는 각 주요 공업부문과 운수부문의 500여만의 조직된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쓰딸린은 《영국의 파업 및 뽈스까사건에 관하여》란 보고에서 이 파업에 대하여 론술하였다.(《쓰딸린전집》, 한문판, 제8권, 140~149페지를 보라.)—475페지

73 《총협의회》는 영국로동조합대회의 집행기관으로서 1921년에 카디프대회에서 처음으로 선출되였다.—475페지

74 전 쏘련 스따하노브운동자 제1차회의는 1935년 11월 14~17일에 모스크바크레믈리궁에서 열리였다. 회의에는 공업 및 운수 전선의

스따하노브운동자 3,000명이 참가하였다. 스따하노브운동의 발기자들과 생산혁신자들은 회의에서 사업경험을 교류하였으며 그들이 어떻게 기술을 습득하여 높은 생산물에 도달하였는가를 소개하였다. 11월 17일에 쓰딸린이 회의에서 연설하였다. 쏘련의 다른 일부 지도자들도 회의에서 연설하였다.—487페지

75 전련맹쏘베트 제8차비상대회는 1936년 11월 25일~12월 5일에 모스크바에서 거행되였다. 이 대회는 쏘련의 새 헌법을 심사하고 비준하기 위하여 소집되였다. 대회는 12월 5일에 새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새 헌법에 근거하여 선거조례를 제정하고 비준하며 쏘련 최고쏘베트의 선거날자를 확정할것을 쏘련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 대회는 12월 5일을 전인민적명절—헌법일로 선포하였다.—508페지

76 쏘련 제1차쏘베트대회는 1922년 12월 30일에 모스크바에서 거행되였다. 대회에는 로씨야쏘베트련방사회주의공화국 대표자 1,727명, 우크라이나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대표자 364명, 남깝까즈쏘베트련방사회주의공화국 대표자 91명, 백로씨야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대표자 33명을 망라한 도합 2,215명 대표자가 출석하였다. 대회는 레닌(병때문에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음.)을 명예주석, 엠.이.깔리닌을 주석으로 선거하였다. 쓰딸린은 대회에서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창건에 관한 보고(《쓰딸린전집》, 한문판, 제5권, 129~131페지를 보라.)를 하였다. 대회는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의 창건선언과 조약을 비준하고 모스크바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의 수도로 선포하였으며 쏘련중앙집행위원회를 선거하였다.—516페지

77 《뽀쫌낀의 농촌》이란 걸치레로써 남을 기편하는것을 말한다. 게.아.뽀쫌낀은 짜리로씨야의 장군이며 에까쩨리나2세가 총애하는 대신이였는데 1783년에 크림을 로씨야에 병합할 음모를 획책한것으로 하여 따브리다공작이라는 벼슬칭호를 받았다. 전설에 의하면 1787년에 에까쩨리나2세가 남방을 순찰할 때 수행대신 뽀쫌낀은 새로 병합한 크림의 번영을 녀황제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순찰하는

연도에다 가짜로 술한 마을, 량식창고, 보루 등을 만들어놓았다고 한다.—525페지

78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제18차대회는 1939년 3월 10～21일에 모스크바에서 거행되였다. 대회의 의정에는 중앙위원회의 총결보고, 중앙검사위원회의 총결보고, 국제공산당주재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의 총결보고, 제3차5개년계획, 당규약수정, 당강령수정위원회의 선거 등이 들어있었다. 3월 10일에 쓰딸린은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사업에 관한 총화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의 정치로선과 실제사업을 일치하게 찬성하였다. 대회는 웨.엠.몰로또브의 보고에 근거하여 1938～1942년의 쏘련인민경제발전 제3차5개년계획을 비준하였으며 아.아.쥬다노브의 보고에 근거하여 당규약을 수정하였으며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의 새 당규약을 한결같이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27명으로 구성된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당강령수정위원회를 선거하였으며 쓰딸린이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였다.—590페지

79 《승리자를 심판할수 없다.》는 말은 로씨야의한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로씨야의 유명한 장군 아.웨.쑤워로브는 1773년의 로씨야-토이기전쟁에서 뻬.아.루먄쩨브원수의 명령을 어기고 뚜르뚜까이를 진공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명령을 어긴 일로 하여 군사재판에 넘어가게 되였다. 이 말은 에까쩨리나2세가 그 소식을 듣고 한 말이다. —646페지

80 《맑스주의와 언어학 제 문제》는 쓰딸린이 1950년 6～7월에 쓴것이다. 1950년 5월 9일～7월 4일에 쏘련 《쁘라우다》지는 언어학문제에 관한 토론을 전개하였는데 매주 정기적으로 웅근 두 면의 편폭에 로론특간을 내였다. 이 신문의 편집자는 이번 로론을 조직하는 목적은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언어학발전에서의 정체현상을 극복하고 이 과학의 진일보적발전의 방향을 확정하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토론은 쏘련 언어학계와 지식계에서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다. 로론중에서 쓰딸린은 일부 청년동지들이 그에게 제기한 문제에 비추어 《언어학에 있어서의 맑스주의에 관하여》를 썼는데

6월 20일의 토론특간호에 발표되였다. 뒤이어 쓰딸린은 일부 동지들의 태신에 답복하기 위하여 《언어학의 몇가지 문제에 관하여》와 《동지들에게 보내는 회답》을 썼는데 7월 4일의 토론특간호와 8월 2일의 《쁘라우다》지에 각각 발표되였다. 상술한 저서들은 1950년 8월에 《맑스주의와 언어학 제 문제》라는 이름으로 쁘라우다출판사에 의하여 단행본으로 출판되였다.—648페지

81 쌀롱어란 즉 응접실언어로서 봉건귀족과 자산계급상류사회에서 류행되던 소위 《우아한 언어》이다. 쌀롱은 프랑스어 《salon》의 음역으로서 응접실이라는 뜻이다.—657페지

82 1066년 영국이 프랑스화된 노르만인에게 정복되자 노르만디공작 윌리암은 영국의 국왕으로 되였다. 그후 프랑스어는 영국의 국어로 되여 매우 오래동안 영국의 상층봉건주들사이에서와 궁정, 의회, 법정, 교회 등 통치기구내에서 통용되였다. 이러한 상황은 14세기에 이르러서야 개변되였다.—660페지

83 분드분자란 분드의 성원을 말한다. 분드(이디쉬어 《Bund》의 음역으로서 련맹이라는 뜻이다.)는 리트와, 뽈스까 및 로씨야 유태인로동자총동맹의 략칭으로서 1897년에 성립되였으며 그 참가자로는 주로 로씨야서부 각 성의 유태인수공업자들이였다. 1898년 3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1차대회에서 분드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하였다. 1903년의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분드분자들은 분드를 유태인무산계급의 유일한 대표로 승인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가 대회에서 부결되자 분드는 당에서 퇴출하였다. 1906년의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4차(통일)대회에서 분드는 다시 당에 가입하였다. 분드는 형식상으로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산계급민족주의적성격을 띤 조직이였다. 분드는 당내에서 시종 멘쉐위크를 지지하고 볼쉐위크를 반대하였다. 분드는 민족자결권이란 이 볼쉐위크의 강령적인 요구에 대립하여 민족문화자치의 요구를 제기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분드분자들은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1917년 2월혁명후 분드는 자산계급림시정부를 지지하였다. 1918～1920

년의 외국무력간섭과 국내전쟁시기에 분드의 지도층은 반혁명세력과 결탁하였으나 일반적분드분자들은 전변하기 시작하여 쏘베트정권과의 협작을 주장하였다. 1921년 3월에 분드는 저절로 해산되였으며 일부 성원들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에 가입하였다.—664페지

84 **아락체예브식제도**란 19세기 첫 25년간에 로씨야에서 실시되였던 포악한 경찰적전제제도이며 군벌들이 전횡하고 인민을 폭력으로 진압한 제도로서 그 실시자인 육군대신 아.아.아락체예브백작의 이름으로 알려지고있다.—675페지

85 **무산계급문화파**란 무산계급문화협회의 활동가들을 말한다. 무산계급문화협회는 1917년 9월에 뻬뜨로그라드에서 성립된 대중적이며 독자적인 로동자문화교육단체로서 10월혁명후에는 전국 각지에 분회를 세웠다. 이 협회의 주요지도자들로는 아.아.보그다노브, 웨.에프.쁠레트뇨브 등이였다. 그들은 10월혁명후에 계속 자기 협회의 《독립》을 고집하면서 쏘베트정부와 교육인민위원부의 령도를 거부하였다. 무산계급문화파는 문화유산을 포기할것을 설교하면서 실제를 떠난 《실험실의 길》로써 《순수한 무산계급적》문화를 창조할것을 고취하였다. 그들은 《무산계급문화》라는 간판밑에 철학상의 마흐주의, 예술상의 퇴폐주의와 미래주의를 팔아먹었다. 레닌은 《무산계급문화에 대하여》 등 저서에서 그들의 리론적오유를 비판하였다. 1925년에 무산계급문화협회는 직업동맹에 귀속되였다가 1932년에 해산되였다.—676페지

86 **라프파**는 즉 라프(로씨야무산계급작가동맹의 로문략칭 《РАПП》의 음역)의 성원들이다. 1925년에 성립된 라프는 무산계급작가들을 단결하고 자산계급류파와 투쟁하는 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놀았으나 정치사상적오유도 범하였다. 그들은 소위 변증유물론적창작방법을 제기하고 철학적범주를 기계적으로 예술령역에 옮겨놓았다. 그들은 문화유산을 부정하고 종파주의를 부식하였으며 비당작가를 배척하고 행정명령의 방법으로 작가들을 대하였다. 문학예술단체를 재조직할데 관한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의 1932년 4월 23일의 결정에 의하여 통일된 쏘련작가협회를 성립하고 라프

를 해산하였다.—676페지

87 력사적비교방법은 19세기초부터 언어사건사를 연구하는데 채용하기 시작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친족언어 혹은 방언의 비교를 통하여 어음의 대응법칙을 제시하고 원시어의 체계를 세우는것으로써 친족언어와 방언의 형성과 변화행정을 설명한다.—676페지

88 4요소분석법은 즉 엔.야.마르의 소위 4요소고생물학분석법이다. 마르는 인류최초의 언어의 발음성분은 네개의 요소에 지나지 않는데 그 매개 요소는 두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였으며 원래의 토템부락의 관념과 명칭에 따라 각기 сал, бер, йон, рош라고 부르며 세계의 모든 언어는 모두 이 네개 요소로부터 발전한것이라고 인정하였다.—676페지

89 뭔시어는 기초어, 모어 혹은 선조어라고도 부른다. 력사비교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무릇 친족관계가 있는 언어는 모두 동일한 원시어에서 분화되여 발전한것이라고 리해하고있다. —676페지

90 오스트랄리아주민은 오스트랄리아의 토착민이다. 그들은 19세기에 이르러서도 아직 원시씨족공동체제도를 보존하고있으면서 토템을 숭배하고 각 부락에서는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있었다. 조사에 의하면 오스트랄리아토착민의 언어는 백여가지나 된다고 한다.

푸에고섬주민은 남아메리카주남단에 있는 푸에고섬의 인디안인이다. 그들은 16세기에 구라파식민자들에게 쫓기여 남아메리카대륙으로부터 이 혹한 지구에 왔다. 그들은 수십명에 달하는 친족집단을 단위로 하여 어렵생활을 하였는데 19세기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매우 원시적인 상태에 있었다. —687페지

91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경제문제》는 1951년 11월 경제문제토론회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 1952년 2～9월사이에 쓰딸린이 집필한 저서이다. 두편의 론문과 두통의 서한으로 되여있는 이 저서는 잡지 《볼쉐위크》 1952년부 제18호에 처음으로 발표되였다. 이 토론회는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에서 정치경제학교과서초고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집한것이다. 교과서의 초판은 1954년에 출판되였다.—697페지

92 **마샬계획** 즉《구라파부흥방안》은 1947년 6월 5일에 미국국무장관 지.씨.마샬이 하워드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내놓은것이다. 이 계획의 법률형태로서 1948년 4월 3일에 미국국회에서는《미국대외원조법》을 채택하였다. 계획에는 미국에서 서구라파 여러 나라들의 전쟁후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원조금을 지출하되 원조를 받는 나라들에서는 반드시 일정한 량의 미국상품을 사야 하며 될수록 빠른 기일내로 관세장벽을 철소하며 외화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거나 늦추며 미국원조금사용에 대한 미국의 감독을 받으며 자국이나 식민지 나라들에서 생산한 전략물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미국의 개체경영자들이 투자하고 개발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등이 규정되여있다. 서구라파의 절대다수 나라들은 이 조건들에 근거하여 각각 미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하였다. 계획기한은 원래 5년(1948~1952)으로 정하였는데 미국은 1952년말에 앞당겨 결속짓는다는것을 선포하고《공동안전계획》으로 그것을 대체해버렸다.—725페지

93 **《보편조직학》**은 아.아.보그다노브가 1913~1917년에 출판한 저서이다. 이 저서는 계급이 서로 대치상태에 있는 사회에서 발전의 기본적동력으로 되는것은 사회와 자연사이의《균형》을 잡아주고 생산력을 《조직》하는것이며 생산력은 생산관계와 아무런 관계없는 단순한 공예학으로 인정하였다. —756페지

94 **홀레스따꼬브**는 엔.웨.고골리의 희극《검찰관》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그는 허풍을 치고 사람을 속이며 허위적이고 경솔하며 후안무치한 전형적인물이다. 후에《홀레스따꼬브》는 거짓말쟁이나 허풍쟁이의 대명사로 되였다.—776페지

95 **취소파**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내의 멘쉐위크적우경기회주의파벌로서 로씨야의 1905~1907년혁명이 실패된후의 쓰똘르삔반동시기에 산생되였으며 그 대표인물들로는 베.베.악셀로드, 에프.이.단과 아.엔.뽀뜨레쏘브 등이였다. 이른바《취소주의란 〈당내의 일부 지식인들이 당의 현존조직체를 **취소**〔즉 해산, 파괴, 폐지, 정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싶지어 당의 **강령**, **전술**, 전통〔즉 종전의 경험〕을 **공공연히 거절하**면서까지도 그것을 합법적〔즉《공개적존

재》의] 범위내에서 활동하는 무정형적결합체로 바꾸어놓으려고 시도하는>것이다》(《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458~459페지). 쥐소파는 무산계급정당내에서의 차유자산계급의 대리인이였다. 1912년 1월 당의 제6차(쁘라하)전로대표자회의에서 쥐소파를 출당시켰다.—799페지

인 명 색 인

ㄱ

가똡스끼, 레브 마르꼬위치(加托夫斯基, 列夫·马尔科维奇 Гатовский, Лев Маркович 1903년에 출생)—쏘련경제학자, 쏘련과학원 통신원사. 1965년부터 쏘련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직무를 담임. 주로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연구, 1954년 쏘련에서 출판된 《정치경제학교과서》의 저자의 한사람.—739페지

갈릴레이, 갈릴레오(伽利略, 伽利莱 Galilei, Galileo 1564~1642)—이딸리아의 물리학자, 천문학가, 력학원리의 창시자. 《물체가 자유락하할 때 속도와 중량은 정비례된다.》는 아리스또텔레스의 오유적론단을 부정하고 자유락체의 정리를 발견. 로마교정의 라격, 박해와 법정위협에도 불구하고 프롤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설을 반대하고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을 지지하고 발전시켰음.—549페지

갈레, 요한 고트프리드(加勒, 约翰·哥特弗利德 Galle, Johann Gottfried 1812~1910)—독일천문학가, 1846년에 러웨리에의 계산에 근거하여 해왕성을 발견.—564페지

고골리, 니꼴라이 와씰리에위치(果戈理, 尼古拉·瓦西里耶维奇 Гоголь, 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 1809~1852)—로씨야작가,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창시자의 한사람.—531페지

고리끼, 막씸(高尔基, 马克西姆 Горький, Максим 1868~1936)(본명은 뻬쉬꼬브, 알렉쎄이 막씨모위치 彼什科夫, 阿列克塞·马克西莫维奇 Пешков, Алексей Максимович)—쏘련무산계급작가,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정초자, 쏘베트문학의 창시자.—305~309, 477, 629페지

고쯔, 아브람 라파일로위치(郭茨, 阿布拉姆·拉法伊洛维奇 Гоц, Абрам Рафаилович 1882~1940)—로씨야사회혁명당 지도자의 한사람. 1906년 사회혁명당 전투조직에 참가. 1907년에 8년동안의 징역에 언도당함. 1917년 2월혁명후 뻬뜨로그라드쏘베트집행위원회 위원, 제1차전로씨야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담임. 10월혁명기간에는 반혁명적인 《조국및혁명구원위원회》의 지도자의 한사람으로 되여 뻬뜨로그라드의 사관생반란회책에 참가. 1920년 쏘베트정권을 반대한것으로 하여 체포됨, 1922년 우익사회혁명당 안건으로 하여 형벌을 받음. 석방된후 경제사업에 종사.—391페지

골즈워디, 죤(高尔斯华绥, 约翰 Galsworthy, John 1867~1933)—영국작가.—477페지

그로만, 울라지미르 구스따워위치(格罗曼, 弗拉基米尔·古斯达沃维奇 Громан, Владимир Густавович 1874년에 출생)—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 멘쉐위크. 일찍 멘쉐위크의 잡지 《우리의 사업》의 편집사업에 참가. 스똘리삔반동시기에는 취소파분자였음. 1917년 2월혁명후 뻬뜨로그라드쏘베트곡물위원회 위원장을 담임. 1918년 북방곡물관리국 국장직무를 담임. 1928년 쏘련국가계획위원회 국내물품시세처 처장직무를 담임, 후에 국가계획위원회 주식단 위원 및 중앙통계국 지도성원으로 됨. 1929년에 철직당함.—289, 303페지

게쎈, 이오씨프 울라지미로위치 (盖森, 约瑟夫, 弗拉基米罗维奇 Гесен, Иосиф Владимирович 1866~1943) —로씨야의 정론가, 변호사, 립헌민주당의 창시자 및 지도자의 한사람. 밀류꼬브와 함께 선후로 립헌민주당의 기관지 《인민의 자유》와 《언어》지의 주필을 담임. 1907년에 제2차국회 의원, 국회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 10월혁명후 쏘베트정권을 반대, 외국무력간섭과 국내전쟁시기에는 로씨야의 반혁명파수 유게니치를 지지, 후에 외국으로 망명. 1920년부터 베를린에서 베계로씨야 신문 《타뭄》을 발간, 1921년부터 《로씨야혁명문고》를 발간.—271페지

게르하르트(格尔哈特 Gerhart 1897~1968)(본명은 아이슬레르, 게르하르트 艾斯勒, 格尔哈特 Eisler, Gerhart) —1918년부터 오지리공산당 및 독일공산당의 선전가, 활동가. 1927년 독일공산당 중앙위원으로 당선. 당내에서 조화주의적오유를 범함. 1933년 국외로 망명. 1941년부터 미국공산당신문에 기고. 1949년 독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돌아와 독일통일사회당 중앙위원을 담임. 1962년부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담임. 1967년부터 국제방송텔레비죤단체의 위원장을 담임.—170, 171페지

ㄴ

나제쥬다, 콘스딴찌노브나(娜捷施达·康斯坦丁诺夫娜) —크룹스까야. 엔. 까를 보라.

나뽈레옹1세(拿破仑第一 Napoléon, I 1769~1821) 나뽈레옹 보나빠르트

(拿破仑 • 波拿巴 Napoléon Bonaparte)—프랑스자산계급 군사가 및 정치가, 프랑스황제. 1799년에 안개발정변을 발동하여 스스로 제1집정을 하면서 군사적독재통치를 실시. 1804년에 프랑스제1제국을 건립하고 황제로 자처, 《나뽈레옹법전》을 반포. 1812년에 군대를 거느리고 로씨야를 진공했다가 실패. 1814년에 구라파반프랑스련군에 의하여 빠리가 함락된후 엘바섬에 추방됨. 1815년에 빠리에 다시 돌아와 백일왕조를 건립. 와테를로전투에서 패배한후 쎈트 헬레나섬에 추방됨.—616페지

난젠, 프리트요프(南森, 弗里特奥夫 Nansen, Fridtjof 1861～1930)—노르웨이해양지리학자이며 사회활동가. 제1차세계대전후에 국제련맹전쟁포로사무최고위원을 담임. 1921년에 국제기아민구제위원회창립에 참가. 1925～1929년에는 아르메니아리재민송환위원회를 지도. 1927년에는 국제련맹군비축소위원회주재 노르웨이대표.—239페지

노트킨, 알렉싼드르 일리이치 (诺特京, 亚历山大 • 伊里奇 Ноткин, Александр Ильич 1901년에 출생)—쏘련경제학가이며 쏘련과학원 통신원사, 쏘련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실 주임.—741～750페지

노이만, 하인쯔(诺伊曼,海因茨 Neumann, Heinz 1902년에 출생)—1919년에 독일공산당에 가입,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여러번 당선됨. 1930년에 의원으로 당선. 1931년에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주석단 후보위원.—172페지

네크라쏘브, 니콜라이 알렉세예위치 (涅克拉索夫, 尼古拉 • 阿列克谢也维奇 Некрасов, Николай Алексеевич 1821～1878)—로씨야시인이며 혁명적민주주의자.—354페지

넴치노브, 와씰리 세르게에위치(涅姆钦诺夫,瓦西里•谢尔盖也维奇 Немчинов, Василий Сергеевич 1894～1964)—쏘련의 경제학자이며 통계학가, 쏘련과학원 원사, 전쏘련농업과학원 원사. 1926～1935년에 쏘련중앙통계기관에서 사업, 중앙통계국 국무위원을 담임. 1940～1948년에 모스크바찌미랴제브농업과학원 원장. 1949～1963년에 쏘련과학원 생산력연구위원회 위원장.—59, 289페지

ㄷ

다피드, 에두아르드(大卫, 爱德华 David, Eduard 1863～1930)—독일사회민주당의 우익지도자중의 한사람, 경제학자. 1893년에 입당. 1897년에 기회주의자잡지 《사회주의월간》의 창간에 참여. 1903년에 저서 《사회주의와 농업》을 출판하여 반맑스주의적인 소농경제의 온당론을

설교하고 소위 토지비옥도체감법칙을 수호. 1903~1918, 1920~1930년에 의원으로 됨. 사회민주당의원단의 지도자의 한사람임.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로 됨. 1919년에 와이마르공화국 제1기연합정부에 참가, 1919~1920년에 내무상을 담임, 1922~1927년에 헤센주재 정부대표를 담임. —282페지

다윈, 찰즈 로버트(达尔文, 查理·罗伯特 Darwin, Charles Robert 1809~1882) —영국의 자연과학가, 생물진화론의 창시자. 《종의 기원》 등 저서에서 진화론의 학설을 제기하였으며 생물의 기원, 변이 및 발전의 법칙을 밝혔음. —549, 555페지

탄, 표도르 일리이치(唐恩, 费多尔·伊里奇 Дан, Федор Ильич 1871~1947)(원래의 성은 구르위치 古尔维奇 Гурвич)—로씨야멘쉐위크 수령의 한사람. 1894년에 사회민주주의운동에 참가하고 페제르부르그로동계급해방투쟁협회에 가입. 1903년에 멘쉐위크수령의 한사람으로 됨. 스똘르삔반동시기에는 취소파수령, 취소파의 《사회민주주의자의 목소리》지의 편집.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1917년 2월혁명후에 뻬뜨로그라드쏘베트집행위원회 위원 및 제1기중앙집행위원회 주석단 위원으로서 림시정부를 지지해나섬. 10월혁명후에 쏘베트정권을 반대. 1922년초에 로씨야로부터 축출당하고 베를린에서 멘쉐위크의 반혁명활동을 지도. 1923년에 사회주의로동자국제당의 창건에 참가. 1941~1947년에 미국에서 멘쉐위크망명자들의 간행물인 잡지 《새길》을 발행. —271페지

듀링, 오이겐 칼(杜林, 欧根·卡尔 Dühring, Eugen Karl 1833~1921) —독일의 절충주의철학가, 비속적 경제학자, 소자산계급적사회주의의 대표자. —435, 556, 774, 784페지

ㄹ

라데크, 칼 베른하르도위치(拉狄克, 卡尔·伯恩哈多维奇 Радек, Карл Бернгардович 1885~1939)—1903년부터 갈리찌야, 뽈스까 및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운동에 참가.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국제주의립장에 서있었으나 중간파에로의 동요를 보여줌. 1917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에 가입. 10월혁명후 외교인민위원부에서 사업. 한때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의 비서로 있음.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8차대회로부터 제12차대회에 이르기까지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당선. 1926년에는 모스크바 중산대학 교장. 1918년에는 《좌익공산주의자》, 1923년부터는 뜨로쯔끼파의 골간분자, 1926년에는 뜨로쯔끼-지노

위에브반당동맹에 참가. 1927년 당으로부터 제명, 1930년에 당적을 회복, 1936년 재차 당으로부터 제명. —307페지

라진, 스께빤 찌모페에위치(拉辛, 斯切潘·季莫费也维奇 Разин, Степан Тимофеевич 1630년경~1671)—로씨야농민봉기의 수령, 돈강까자크. 1667년 봄에 까자크들을 조직하여 볼가강하류와 까스삐해지역을 원정. 1670년 봄에 또 한차례 원정을 조직. 아스뜨라한에서 봉기하여 볼가강을 거슬러 북상, 가는 곳마다에서 대중들의 열렬한 향응을 받아 방대한 농민폭동대오를 형성. 이 농민전쟁은 로씨야의 광범한 지역을 휩쓸었음. 봉기가 실패되자 나머지부대를 거느리고 돈강류역으로 돌아옴. 1671년 4월에 반역자에게 결박되여 짜리정부에 압송됨. 그해 6월 모스크바에서 영용히 희생. —393, 395페지

라파르그, 뽈(拉法格, 保尔 Lafargue, Paul 1842~1911)—프랑스로동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 걸출한 맑스주의 선전가 및 정론가, 맑스와 엥겔스의 학생 및 전우, 맑스의 딸 라우라의 남편. 1866년에 제1국제당에 가입하고 국제당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있음. 1871년 빠리꼼뮨시기에 보르도무산계급을 령도하여 꼼뮨을 보위. 꼼뮨이 실패한후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에 망명하여 에스빠냐와 뽀르뚜갈국제당지부의 건립에 참가, 바꾸닌주의를 적극적으로 반대. 1879년 게드 등과 함께 프랑스로동당을 창립. 1891년에 하원의원으로 당선. 맑스주의를 선전, 수호하고 개량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많은 저서를 집필.—659, 660, 671페지

러웨리에, 위르뱅-쟝-조제프(勒维列, 乌尔本·让·约瑟夫 Le Verrier, Urbain-Jean-Joseph 1811~1877)—프랑스의 천문학가 및 수학가. 1846년에 영국의 천문학가인 애담즈와 동시에 당시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해왕성의 궤도를 독립적으로 계산해내고 우주에서의 그 행성의 위치를 확정.—564페지

로마노브가족 (罗曼诺夫王朝 Романовы) — 짜리로씨야왕조 (1613~1917).—392페지

로지트(罗济特 Розит, Д. П.)—1917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에 가입. 한때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검열위원으로 당선, 부하린우익집단의 성원.—175~177, 201페지

로케펠러, 죤 데이위슨(洛克菲勒, 约翰·戴维逊 Rockefeller, John Davison 1839~1937)—미국의 석유대왕, 로케펠러재벌의 창시자. 스탠더드석유회사가 창립되여서부터 로케펠러재벌은 방대한 금융기관과 허다한 대기업소를 가진, 석유공업을

위주로 한 대독점집단으로 점차 발전, 미국의 대내외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일으킴.—463페지

루드위히, 에밀(路德维希, 埃米尔 Ludwig, Emil 1881～1948)—독일의 전론가, 작가 및 극작가. 괴테, 나폴레옹, 빙켈 등의 전기를 쓰고 개인은 력사행정에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인정.—387～406페지

루즈벨트, 프랭클린 델라노(罗斯福, 富兰克林·德兰诺 Roosevelt, Franklin Delano 1882～1945)—미국의 정치가, 민주당당원. 1913～1920년에 해군부 부부장. 1928～1932년에 뉴욕주 주장. 1933～1945년에 미국대통령. —455, 456, 458, 459, 461, 476페지

립벤트로프, 요하힘 폰(里宾特洛普, 约希姆·冯 Ribbentrop, Joachim Von 1893～1946) —독일파쑈분자, 제2차세계대전시 독일의 주요전쟁범죄자의 하나, 원래는 술장사군이였음. 1930년 독일국가사회주의로동당(나찌스당)에 가입. 1936～1938년에 영국주재 대사, 1938～1945년에 외무대신. 제2차세계대전후에 뉘른베르그국제군사법정에서 교형에 처함.—616, 617페지

레닌(울리야노브),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列宁(乌里杨诺夫), 弗拉基米尔·伊里奇 Ленин [Ульянов], Владимир Ильич 1870～1924)—16, 27, 29, 36, 39, 63, 64, 67～70, 71, 73, 76, 85, 88, 90～93, 98, 104～106, 108～110, 123, 132～135, 137～139, 143, 145, 146, 155, 156, 178～180, 183, 184,186～188, 198～201, 214～219, 222～224, 229, 230, 235, 241, 246, 248, 253, 254, 257, 258, 259, 262, 263, 265, 266, 270, 272, 281, 284, 294, 295, 297, 298, 303, 319～330, 336～338, 341, 355, 365, 375, 388, 401, 403, 420, 423, 435, 436, 441, 443, 448, 455, 480, 482, 505, 506, 517, 544, 549, 550, 557, 561, 562, 564, 603, 606, 607, 619, 622, 630, 641, 663, 664, 690, 708, 709, 711, 726, 730, 738, 758, 763, 765, 773, 775, 791, 793～797, 799～801페지

레온찌예브, 레브 아브라모위치(列昂节夫,列夫·阿勃拉莫维奇 Леонтьев, Лев Абрамович 1901～1974) —쏘련의 경제학가이며 쏘련과학원 통신원사. 1919년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에 가입. 1946～1953년에 쏘련공산당 중앙사회과학원 정치경제학교연실 주임. 정치경제학의 많은 저서를 집필, 1954년에 쏘련에서 출판된 《정치경제학교과서》의 저자의 한사람.—739페지

뢰꼬브, 알렉쎄이 이와노위치 (李可夫, 阿列克塞·伊万诺维奇 Рыков, Алексей Иванович 1881～1938) —1899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05년부터 중앙위원회 위원. 스톨리삔반동시기에는 멘쉐위크, 취소파 및 쯔로쯔끼파에 대하여 타협적태도를 취함. 1917년 2월혁명후에는 당의 사회주의혁명의 방침을 반대함, 10월혁명후에 내무인민위원, 최고국민경제위원회 위원장, 인민위원회와 로동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로씨야련방과 쏘련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직무를 력임. 1919년부터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1917년 11월에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이 참가한 련합정부를 건립할것을 주장, 이 주장이 부결되자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로부터의 퇴출을 성명, 1928년에 부하린, 똠스끼와 함께 우익집단을 결성, 1937년에 당에서 제명됨.—116, 124, 149~153, 154, 155, 165, 197, 198, 225~230, 232, 234, 235, 238, 241, 244, 246~250페지

□

마르, 니콜라이 야꼬블레위치(马尔, 尼古拉·雅柯夫列维奇 Марр, Николай Яковлевич 1864~1934)—쏘련의 언어학자 및 동방학자. 1900년부터 뻬쩨르부르그대학 교수, 1912년부터 과학원 원사. 아르메니야-그루지야언어 및 깝까즈지역의 기타 언어들을 주로 연구함.—674~677, 679~681, 683, 684, 686~688페지

마르꼬브(马尔科夫 Марков).—236페지

마레쯔끼(马列茨基 Марецкий, Д.)—쏘련《쁘라우다》지 편집위원회 위원, 부하린우익집단의 성원.—201, 224페지

마몬또브, 콘스딴찐 콘스딴찌노위치(马蒙托夫, 康斯坦丁·康斯坦丁诺维奇 Мамонтов, Константин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1869~1920)(원래의 성은 마만또브 Мамантов)—짜리로씨야 대장, 크라스노브와 제니낀 백파군의 기병군장. 1919년 8월에 기병을 령솔하여 남부전선의 붉은군대후방을 습격하고 가는 곳마다에서 불지르고 죽이고 략탈하면서 갖은 행패를 다 부림. 1919년 10~11월에 격파됨.—35, 391페지

마샬, 죠지 캐틀레트(马歇尔, 乔治·凯特勒特 Marshall, George Catlett 1880~1959)—미국의 정치가, 장군, 민주당당원. 1939~1945년에 륙군참모장, 1945~1947년에 중국주재 미국대통령특사, 1947~1949년에 국무장관, 1950~1951년에는 국방부장을 담임.—725~727페지

마흐, 에른스트(马赫, 恩斯特 Mach, Ernst 1838~1916)—오지리의 물리학가이며 철학가, 주관적관념론자, 경험비판주의의 창시자. 1864년에 오지리 그라쯔대학 수학교수, 1867년에 쁘라하대학 물리학교수, 1895~1901년에는 원에서 철학교수직을

담임. 인식론면에서 버클리와 흄의 관점을 부활시키고 물체는 《감각의 복합》이며 감각은 《세계의 진정한 요소》라고 인정. 주요 철학저작으로는 《감각의 분석》, 《인식과 오유》 등이 있음.—564페지

마싸리크, 또마쉬 가리게(马萨里克, 托马什·加里格 Masaryk, Tomáš Garrigue 1850~1937)—체스꼬슬로벤스꼬의 정치가이며 철학가. 1882~1914년에 쁘라하대학 철학교수. 1900년에 자유주의자산계급의 체스꼬인민당을 창립하고 오지리-웽그리아제국내에서의 체스꼬의 자치를 주장. 오지리의회 의원으로 여러차례 당선. 1918~1935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공화국 대통령.—396페지

맑스, 칼(马克思, 卡尔 Marx, Karl 1818~1883)—71, 219~221, 279, 284, 365, 388, 389, 398, 401, 435, 436, 514, 551, 552, 562, 567, 568, 569, 574, 583, 587~589, 601, 603, 604, 606, 657, 658, 677, 680, 681, 689, 690, 712, 713, 719, 721, 755, 756, 762, 766, 769~775, 791~794, 796페지

모간, 죤 피어폰트(摩根, 约翰·皮尔庞特 Morgan, John Pierpont 1837~1913) (습관상 로모르간이라고 부름.)—미국 금융과두, 대독점자본가, 모간재벌의 창시자의 한사람. 19세기 60년대초에 그는 그의 부친 쥬니어스 스펜써 모간과 함께 영국에다 환은행을 꾸미놓고 미국에 영국의 자본을 대량적으로 수입. 20세기초에 많은 트레스트를 조직하고 독점적지위를 수립.—463페지

몰로또브, 바체슬라브 미하일로위치(莫洛托夫, 维亚切斯拉夫·米哈伊洛维奇 Молотов, Вячеслав Михайлович 1890년에 출생) (원래의 성은 스크랴빈 Скрябин)—쏘련공산당 및 국가의 저명한 활동가. 1906년에 당에 가입. 1912년에 《별》지에서 사업. 후에 《쁘라우다》편집위원회 위원 및 비서. 1917년 2월혁명후에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로씨야국 위원. 1919년부터 니쥬니노브고로드성집행위원회 위원장 및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도네쯔성위원회 비서를 담임. 1920년에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당선, 1921년에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당선. 1921~1930년에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비서. 1930~1941년 쏘련인민위원회 위원장. 1941~1957년에는 쏘련인민위원회(내각) 제1부수장, 외교인민위원(부장)을 여러차례 겸임. 1926~1952년에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정치국 위원. 1952~1957년에 쏘련공산당 중앙주석단 위원. 1957~1960년에 몽골주재 대사를 담임.—51, 493페지

무씬스끼, 와씰리 스께빠노위치(穆辛

斯基，瓦西里·斯捷潘诺维奇 Мясницкий, Василий Степанович 1907년에 출생)—쏘련아르한겔스크지제체쇠의 제1서기, 제1봉쌥에서의 스따하노브운동의 발기자.—493페지

미꿀린나, 에.(米库林娜, 叶·Микулина, Е.)—저서《대중의 경제》의 저자.—258, 256페지

빌류꼬브, 빠웰 니꼴라에위치(米留可夫, 巴维尔·尼古拉也维奇 Милюков, Павел Николаевич 1859~1943)—로씨야립헌민주당 수령. 력사학가 및 정론가. 1905년 10월에 립헌민주당의 창립에 참가, 후에 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위원회 기관지《말》의 주필을 담임. 1907년부터 선후로 제3기, 제4기 국회의원단 대표자로 당선. 1917년 2월혁명후 림시정부의 외교부장으로서 전쟁을 끝까지 하자는 제국주의정책을 실시. 1917년 8월에 꼬르닐로브의 반란책동에 가담. 10월혁명후 외국제국주의의 지지하에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무력간섭을 회책, 후에 국외로 도주.—202, 271페지

메샤니노브, 이완 이와노위치(梅夏宁诺夫, 伊万·伊万诺维奇 Мешанинов, Иван Иванович 1883~1967)—쏘련의 언어학자, 고고학자, 쏘련과학원 원사. 1933~1937년에 쏘련과학원 인문학, 고고학 및 민족학 연구소 소장. 1934~1950년에 쏘련과학원추시단 위원과 문학언어학부 원사-서기를 담임. 1936~1960년에 쏘련과학원 언어사유연구소 소장. 우바르루어와 일반언어학을 연구.—674페지

ㅂ

바자로브, 울바지미르 알렉싼드로위치(巴扎罗夫, 弗拉基米尔·亚历山大罗维奇 Базаров, Владими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74~1939) (본명의 성은 루드네브 鲁德涅夫 Руднев)—로씨야의 철학가, 경제학자. 1896년부터 사회민주주의운동에 참가. 1904~1907년에는 볼쉐위크였음. 스뚤삐삔반동시기에는 마흐주의로 맑스주의를 수정한 주요대표자중의 한사람으로서《장신선》과 경험비판론을 선전하였음. 1917년에는 멘쉐위크국제주의자였으며 멘쉐위크신문《신생활》지의 편집자중의 한사람이였으며 10월혁명을 반대하였음. 1921년부터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사업.—303, 564페지

보그다노브, 알렉싼드르 알렉싼드로위치(波格丹诺夫, 亚历山大·亚历山大罗维奇 Богданов,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73~1928) (본명의 성은 말리놉스끼 Малиновский)—로씨야의 철학가, 경제학자. 1896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

당 제2차대회후에 볼쉐위크로 됨. 1905, 1906년에 중앙위원으로 당선, 1907년에 중앙후보위원으로 당선됨. 볼쉐위크의 《전진》지, 《무산자》지 및 《새생활》지의 편집사업에 종사. 1905년혁명이 실패된후 소환파와 전진파의 수령으로 됨. 철학상에서 자기의 체계—《경험1원론》(마호주의철학의 변종)을 세우고 맑스주의철학의 기본원리를 수정하려 시도하였음. 1909년에 볼쉐위크 조직에서 제명됨. 10월혁명후 모스크바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 1918년에 무산계급문화파의 사상가로 됨. 1926년부터 수혈연구소 소장으로 됨.—564, 756, 758페지

룰로트니꼬브, 이완 이싸에위치(鮑洛特尼科夫,伊万·伊萨也维奇 Болотников, Иван Исаевич 1608년에 사망)—로씨야농민폭동의 수령. 1606년 여름 로씨야남부에서 농민폭동을 일으키고 지도하여 봉건적억압에 반항. 그때 농민전쟁은 로씨야의 넓은 지역에까지 파급되였음. 1606년 10월 폭동군을 인솔하여 모스크바를 포위공격하다가 까리군대에 의하여 격파됨. 이듬해 10월 뚤라에서 포로되여 까르고뽈에 압송된후 비참하게 처형됨.—395페지

부하린, 니꼴라이 이와노위치(布哈林, 尼古拉·伊万诺维奇 Бухарин,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1888～1938) (필명은 Nota Bene)—1906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일찍 모스크바로동자구역에서 선전사업을 진행. 1911년에 외국에 이주하여 경제학을 연구. 1917년에 중앙위원으로 당선. 10월혁명후 중앙위원회정치국 위원,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위원, 주석단위원 및 《쁘라우다》지 주필 등 직무를 력임. 1918년에 《좌익공산주의자》집단을 결성, 1920～1921년 직업동맹문제에 대한 론쟁기간에 《완충》집단을 조직, 1928년에 뢰꼬브 등과 함께 우익집단을 결성. 1929년에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및 국제공산당 주석단위원 직무에서 해임됨. 1937년에 출당됨.—114, 147～154, 156, 163～182, 184～187, 189～191, 193, 195, 197～199,201, 202, 206～209, 213～219, 221～225, 234～237, 241～246, 249～252, 262, 269, 281, 756, 763～765, 773페지

부쓰긴, 알렉싼드르 하리또노위치(布瑟京, 亚历山大·哈利东诺维奇 Бусыгин, Александр Харитонович 1907년에 출생)—쏘련 고리끼시뿔로또브자동차공장의 단조공, 기계제조공업에서의 스따하노브운동의 발기자의 한사람. 1935년 9월초에 한 작업일에 966개의 크랑크축을 단조하는 기록(당시 기준량은 675개였음.)을 창조, 후에 또 그 성과를 1,146개에까지 끌어올렸음. —

488, 492～494, 501, 502페지

브란들메르, 하인리히(布兰德物, 亨利希 Brandler, Heinrich 1881～1967)—독일공산당 우경기회주의류파의 지도자의 한사람. 1898년에 독일사회민주당에 가입.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스파르타쿠스동맹에 참가, 후에 독일공산당 당원으로 됨. 1919～1923년에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됨. 탈하이메르와 함께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지도하는 기간에 우경기회주의로선을 집행. 1923년 가을 독일에 혁명형세가 형성되였을 때 투쟁을 평화적파업에 국한시킬것을 요구하면서 폭동의 준비사업을 파괴. 1923년말에 당내의 령도직무에서 해임됨, 그후 또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제공산당의 결의를 반대하는 파벌활동을 진행, 1929년에 출당당함.—171, 173페지

브렌타노, 류요(布伦坦诺, 路约 Brentano, Lujo 1844～1931)—독일자산계급경제학자, 강단사회주의의 주요대표자의 한사람, 교수. 계급투쟁을 포기할것을 고취하면서 개량주의적인 로동조합을 조직하는것과 공장에서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사회모순을 해결하며 로동자와 자본가의 리익을 조화할수 있다고 인정. 토지문제에서 반맑스주의적인 소농경제의 온당론과 소위 토지비옥도체감법칙을 수호.—177페지

베르진(别尔津 Берзин)—쏘련공산당(볼쉐위크) 오레호워-주에워구역당위원회 비서.—98페지

베른슈타인, 에두아르트(伯恩施坦, 爱德华 Bernstein, Eduard 1850～1932)—독일사회민주당 및 제2국제 공산당 기회주의적지도자의 한사람이며 수정주의리론가. 1872년에 독일사회민주로동당(아이제나흐파)에 가입. 1881～1890년에 당중앙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의 주필을 담임. 엥겔스가 서거된후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당의 과업》이란 저서를 발표하여 맑스주의를 로골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수정. 1902년 이후 수차 의원으로 당선.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적립장에로 전락. 로씨야10월혁명과 무산계급독재를 반대.—221페지

베벨, 아우구스트(倍倍尔, 奥古斯特 Bebel, August 1840～1913)—독일로동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 독일사회민주당 및 제2국제공산당의 창시자이며 지도자의 한사람, 맑스와 엥겔스의 벗이며 전우. 1867년부터 독일로동자협회련합회를 지도, 제1국제당의 성원이였음. 여러차례 의원으로 당선. 1869년에 웨·리프크네히트와 함께 독일사회민주로동당(아이제나흐파)을 창건, 일찍 라쌀파를 반대하여 투쟁. 1870～1871년 프로씨아-

프랑스전쟁시기에 국제주의입장을 견지하고 빠리꼼뮨을 수호. 19세기 900년 세기초대에 와 개량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219페지

벨낀, 데.(别尔金, 德·Белкин, Д.)—686~689페지

人

샤를대제(查理大帝 Charlemagne 742~814)—프랑크왕국의 임금(768~814년). 800년에 로마법왕에 의해 황제의 칭호를 받음. 무력에 의하여 동으로는 엘베강과 다뉴브강, 서남으로 에브로강, 북으로 북해, 남으로 지중해에 이르는 방대한 제국을 건립. 통일적인 경제적토대가 없었으므로 샤를대제가 죽은후 제국은 인차 와해됨.—655페지

샤뚜놉스끼, 야꼬브 모이쎄예위치(沙屠诺夫斯基, 雅柯夫·莫伊塞也维奇 Шатуновский, Яков Моисеевич 1876~1932)—1918년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에 가입. 10월혁명후 교육 및 군사정치 사업에 종사, 1920년 8월부터 경제사업에 종사, 한때 로동국방위원회 운수위원회 위원, 국가계획위원회 공업부 성원으로 있었음. 1927년에는 우익분자였으나 얼마 안되여 반대파로부터 퇴출함.—124, 135페지

슈티르네르, 막스(施蒂纳, 麦克斯 Stirner, Max 1806~1856)(본명은 쉬미트 카스파르 Schmidt, Kaspar)—독일철학가이며 청년헤겔분자, 자산계급 개인주의 및 무정부주의 사상가.—401페지

스메따닌, 니끌라이 스쩨빠노위치(斯梅塔宁, 尼古拉·斯捷潘诺维奇 Сметанин, Николай Степанович 1905년에 출생)—쏘련 베닌그라드제화공장 로동자, 제화공업에서의 스따하노브운동의 발기자. 1935년 9월 21일 운권법을 개진한데서 생산기준량의 2배를 완수함.—488, 494페지

스크뢰쁘니크, 니끌라이 알렉쎄예위치(斯克雷普尼克, 尼古拉·阿列克谢也维奇 Скрыпник, Николай Алексеевич 1872~1933)—쏘련공산당 및 국가의 활동가. 1897년에 입당. 1917년 2월혁명후 전로씨야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0월혁명후 전로씨야쑥반위원회 지도성원, 우크라이나쏘베트정부 주석 및 외교인민위원, 내무인민위원, 교육인민위원 등 직을 담임. 1933년에 우크라이나공화국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담임. 한때 우크라이나공산당(볼쉐위크)중앙위원회 위원, 중앙정치국 위원,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당선.—440페지

스따하노브, 알렉쎄이 그리고리에위치(斯达汉诺夫, 阿列克塞·格里哥里也维奇 Стаханов, Алексей Григорьевич 1906년에 출생)—쏘련적

탄공업에서의 혁신자이며 스따하노브운동의 발기자. 1927년부터 돈빠쓰의 갱도에서 사업. 1933년부터 공기착암기채탄공, 1935년 8월 30일 야간작업에서 한 작업일(5시간 45분)에 당시 기준량의 14배에 해당되는 102톤의 채탄기록을 창조, 9월 19일에 또 한 작업일에 227톤의 새로운 채탄기록을 창조. 그의 창발성적행동은 돈빠쓰와 전국에서 열렬한 반향을 일으킴. 1936~1941년에 모스크바공업학원에서 공부. 1941년부터 선후로 갱도작업반장, 무연탄트레스트 부지배인, 부기사장 등 직을 담임.—487, 488, 492~498, 501, 502, 550페지

스뜨루웨, 쁘뜨르 베른가르도위치(司徒卢威, 彼得·伯恩哈多维奇 Струве, Петр Бернгардович 1870~1944) — 로씨야자산계급 경제학자, 철학가 및 정론가, 립헌민주당 수령의 한사람. 《합법적맑스주의》의 주요한 대표자로서 19세기 90년대에 맑스주의와 로동운동을 자산계급의 리익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고취. 20세기초엽 자산계급자유주의자진영에 가담. 1902년부터 자유주의자산계급의 잡지《해방》을 편집, 자산계급자유주의자조직인《해방단》의 리론가 및 조직자. 1905년 후 립헌민주당 수령의 한사람.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대외에모의 로씨야제국주의의 침략을 고취. 10월혁명후 쏘베트정권을 적대시하고 제니낀 및 우란겔의 반혁명반란에 참가. 후에 국외로 망명.—271페지

스멘(斯滕 Стэн, Я. Э.)—1917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불쉐위크)에 가입, 한때 전련맹공산당(불쉐위크) 중앙위원회 검열위원으로 당선. —217페지

슬렙쯔브(斯列普科夫 Слепков, А. Н.)—1919년에 로씨야공산당(불쉐위크)에 가입. 한때 전련맹공산당(불쉐위크) 중앙위원회 체임지도원,《쁘라우다》지와 잡지《불쉐위크》편집위원회 위원을 담임, 부하린우익집단의 성원.—201, 269페지

쉴랴쁘니쯔브, 알렉싼드르 가브릴로위치(施略普尼柯夫, 亚历山大·加甫里洛维奇 Шляпников, Александр Гаврилович 1885~1937)—1901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17년 2월혁명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불쉐위크) 페제르부르그위원회 위원, 페뜨로그라드쏘베트집행위원회 위원 및 페뜨로그라드 오금직업동맹 주석을 담임. 10월혁명후 근로인민위원, 전로씨야오금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주석, 최고인민경제위원회 주석단위원 등 직을 담임. 당의 제7차대회와 제10차대회에서 각각 중앙후보위원, 중앙위원으로 당선됨. 1920~1922년에는《로동자반대파》의 수령. 1933년에 출당당함.—98페지

쉴리히테르,알렉싼드르 그리고리에위치(施利希特尔，亚历山大·格里哥里也维奇 Шлихтер, Александр Григорьевич 1868～1940)—쏘련 공산당 및 국가의 활동가. 1891년에 입당. 10월혁명후에 농업인민위원, 량곡인민위원을 담임. 1921년부터 오지리주재 전권대표, 우크라이나 주재외교인민위원부 전권대표. 1927～1929년에 우크라이나 농업인민위원을 담임. 1923년부터 선후로 우크라이나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 중앙조직국 위원, 중앙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당선.—229페지

쉐삘로브, 드미뜨리 뜨로피모위치(谢皮洛夫, 德米特里·特罗菲莫维奇 Шепилов, Дмитрий Трофимович 1905년에 출생)—쏘련경제학자, 쏘련과학원통신원사. 1926년에 쏘련공산당(볼쉐위크)에 가입. 1949년에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선동선전부 부장을 담임. 1952～1957년에 중앙위원회 위원, 1956～1957년에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단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비서. 1952～1956년에 《쁘라우다》지 주필. 1956～1957년에 쏘련외교부 부장. 1957～1962년에 끼르기즈공화국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1954년에 쏘련에서 출판된 《정치경제학교과서》저자의 한사람.—739페지

又

자뽈리스끼(扎波尔斯基 Запольский)—83페지

지노위에브, 그리고리 옙쎄에위치(季诺维也夫, 格里哥里·叶夫谢也维奇 Зиновьев, Григорий Евсеевич 1883～1936)(본래의 성은 라도믜슬리스끼 拉多梅斯尔斯基 Радомысльский)—1901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07년부터 중앙위원으로 됨. 1908～1917년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에 당중앙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의 편집위원 및 볼쉐위크의 신문 《무산자》의 편집위원을 담임. 스똘르삔반동시기에 취소파, 소환파 및 뜨로쯔끼파에 대하여 타협적인 태도를 취함. 1917년 4월에 귀국. 10월혁명전야에 까메네브와 함께 무장봉기에 관한 당중앙의 결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공공연하게 발표함으로써 봉기에 관한 당의 계획을 루설. 10월혁명후 뻬뜨로그라드쏘베트위원장, 중앙정치국 위원,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 직무를 담임. 1917년 11월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이 참가하는 련합정부를 세울것을 주장. 1925년 《신반대파》를 조직하는데 참가. 1926년 뜨로쯔끼와 반당련맹을 결성. 1927년에 출당당함. 후에 당적을 두번 회복했다가 두번 제명당함.—143, 152페지

제니낀, 안똔 이와노위치(邓尼金, 安东·伊万诺维奇 Деникин, Антон Иванович 1872～1947)—싸리로씨

야의 장군, 1917년 4~5월에 로씨야군 최고사령관의 참모장으로 있었음. 쯔르닐로브반란에 적극 참가. 10월혁명후 쯔르닐로브 등과 함께 반혁명적인 《지원군》을 조직. 1918~1920년 외국무력간섭과 국내전쟁기간에 영국, 프랑스, 미국 제국주의의 졸개로 되여 반혁명적인 《남부로씨야무장력》의 총사령관을 담임. 1920년 3월 외국으로 망명. —85, 529페지

제닌(捷宁 Зенин)—306페지

젬첸꼬, 마리야 쏘프로노브나(杰姆钦科, 玛丽亚·索弗朗诺夫娜 Демченко, Мария Софроновна 1912년에 출생)—쏘련우크라이나 《국제공산당》집단농장의 생산조장. 1935년 2월 전련맹집단농장돌격대원 제2차 대회에서 사탕무우 헥타르당 수확고를 500쩬트네르 초과할것을 제기하고 그해 헥타르당 수확고를 52.37쩬트네르로 제고시켰음. 그의 창의는 전국적으로 광범한 호응을 일으켜 사탕무우의 높은 수확고를 쟁취하기 위한 《500쩬트네르운동》으로 발전되였음.—502페지

大

차야노브, 알렉싼드르 와씰리에위치(恰扬诺夫, 亚历山大·瓦西里也维奇 Чаянов,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ьевич 1888년에 출생)—쏘련의 농업경제학가, 농업경제학에서의 소위 신인민파의 대표자.—284페지

처칠, 윈스톤(邱吉尔, 温斯顿 Churchill, Winston 1874~1965)—영국의 정치가, 보수당의 수령. 1906~1917년에 부식민대신, 무역대신, 내무대신, 해군대신 및 군수대신 등직을 담임. 1918~1921년에 육군 및 공군대신으로서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무력간섭의 조직자의 한사람. 1921~1922년에 식민대신. 1924~1929년에 재정대신. 1939년에는 해군대신. 1940~1945년에 련합정부 수상. 1940~1955년에는 보수당의 수령. 1951~1955년에는 수상. 1955년에 수상 및 보수당수령직을 사직하고 저술에 종사.—350, 622페지

치교바와, 아르놀드 스제빠노위치(契科巴瓦, 阿尔诺尔德·斯捷潘诺维奇 Чикобава, Арнольд Степанович 1898년에 출생)—쏘련의 언어학자이며 그루지야공화국과학원 원사, 트빌리씨대학 교수. 주로 까르트웰어와 보통언어학을 연구.—683페지

ㅋ

카우쯔키, 칼(考茨基, 卡尔 Kautsky-Karl 1854~1938)—독일사회민주당 중간파의 지도자, 제2국제당 수정주의리론가. 1875년에 오지리사회민주당에 가입, 후에 독일사회민주당에 가입. 1883~1917년에 독일사회민주당의 리론간행물인 잡지 《신

시대》의 주필을 담임. 19세기 80~90년대에 맑스주의를 선전, 해설하는 일부 저서들을 썼지만 거기에서 기회주의적인 관점도 드러내였음. 1910년후 점차 기회주의립장에로 굴러떨어졌음. 제1차세계대전 전야에 초제국주의론을 제기, 대전기간에는 중간파의 기치를 들고 제국주의전쟁을 지지. 1918년후 《무산계급독재》 등 저서를 발표하여 로씨야 10월혁명을 공격하고 무산계급독재를 반대했음.—219~221, 789페지

칸트, 임마누엘(康德, 伊曼努尔 Kant, Immanuel 1724~1804)—독일의 저명한 자산계급철학가, 독일고전철학의 창시자.—563, 564페지

코페르니쿠스, 니콜라우스(哥白尼, 尼古拉 Copernicus, Nicolaus 1473~1534)—뽈스까의 천문학자, 태양중심설의 창시자. 태양중심설로 천여년동안이나 서방을 지배하고있던 지구중심설을 부인하고 봉건적인 신권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줌. —564페지

콜브, 윌헬름(科尔布, 威廉 Kolb Wilhelm 1870~1918)—독일사회민주주의자, 기회주의자, 신문 《인민의 벗》의 편집.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였음.—221페지

쿠루쉬(居鲁士 Kurush 혹은 Gyrus 기원전 약 600~529)—고대 페르샤국왕(기원전 550~529년), 아헤메니드왕조의 창건자. 기원전 550년에 건국, 기원전 546년에 대외무력확장을 진행하여 선후로 소아세아의 뤼디아와 량강류역의 신바빌로니아왕국을 정복.—655페지

크라스노브, 뾰뜨르 니꼴라에위치(克拉斯诺夫, 彼德·尼古拉也维奇 Краснов, Петр Николаевич 1869~1947)—까레로씨야의 장군. 1917년 8월에 뾰르닐로브반란에 참가. 10월혁명기간에 림시정부에 의해 뻬뜨로그라드에 파견되여 혁명을 탄압. 그가 령솔한 까자크부대는 격멸되였고 그자신은 체포되였다가 후에 석방됨. 1918~1919년에 돈강 까자크 백위군을 령도하여 무력적 반란을 일으킴. 1919년에 국외로 망명하여 계속 쏘베트정권을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 1941~1945년에 히틀러분자를 위해 봉사, 제2차세계대전후 쏘련최고법원의 군사재판에 의해 사형당함.—35, 391페지

크라쉐닌니꼬와, 에.(克拉舍宁尼科娃, 叶·Крашенинникова, Е.) —677~684, 686페지

크롬웰, 올리워(克伦威尔, 奥利弗 Cromwell, Oliver 1599~1658)—17세기 영국의 자산계급혁명활동가, 독립당지도자, 영국의 호국공. 1640년부터 정치활동에 참가, 장기적인 의회의원으로 당선. 국내전쟁이 폭발된후 농민을 주력으로 한 부대를 조직, 이 부대는 후에 의회의

정규군의 골간으로 되였음. 1648년 제2차국내전쟁이 승리한후 의회에서 번번의 자산계급상층분자들을 대표하는 원로파를 청산, 국왕을 처단하고 공화국의 성립을 선포. 동시에 평등파와 굴로파의 민주주의운동 및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민족해방운동을 잔혹하게 진압. 1653년에 군사독재통치를 건립하고 호국공으로 됨.—401, 470페지

크룹스까야, 나제쥬다 콘스딴찌노브나(克鲁普斯卡娅, 娜捷施达·康斯坦丁诺夫娜 Крупская, Надежда Константиновна 1869~1939)—쏘련공산당과 국가의 활동가, 레닌의 안해이며 전우. 1890년부터 혁명활동에 종사. 1895년에 페쩨르부르그 로동계급해방투쟁협회의 조직사업에 참가. 1898년에 입당, 레닌을 도와 당사업을 진행. 1905년 11월부터 당중앙위원회 서기를 담임. 스톨르삔반동시기에 취소파 및 소환파와 적극적으로 투쟁. 1917년 2월혁명후 당중앙비서처에서 사업. 10월혁명후 국민교육인민위원부 부무위원을 담임, 1920년에 정치교육총위원회 위원장을 담임. 1929년에 국민교육인민위원부 부인민위원을 담임. 1924년부터 중앙위원회 검열위원으로 당선됨, 1927년에 중앙위원으로 당선됨.—223페지

크리워노스, 뽀뜨르 표도로위치(克里沃诺斯, 彼得·费多罗维奇 Кривонос, Петр Федорович 1910년에 출생)—쏘련 슬라반스크 기무공단 기관차운전수, 철도운수건설에서의 스따하노브운동의 발기자. 1935년 증기기관차의 기술속도를 매시간에 46~47킬로 높임으로써 기준량을 두배로 초과했음.—488페지

케자르, 가이우스 율리우스(凯撒, 盖尤斯·尤利乌斯 Caesar, Gaius julius 기원전 100년경~44)—고대로마의 저명한 통수, 정치가 및 저술가. 기원전 60년에 크라쑤스 및 폼페이우스와 함께 3두정치(련맹)를 결성. 갈리아총독이 되여 갈리아 전 경대를 정복. 기원전 49~45년을 전후하여 폼페이우스 등의 군대를 전승하고 지중해연안과 구라파서부지역을 통치하였으며 종신독재자로 됨. 저서로는 《갈리아전루실기》, 《내전기》 등이 있음. —655페지

ㅌ

탈하이메르, 아우구스트(塔尔海默, 奥古斯特 Thalheimer, August 1884~1948) — 독일공산당우익기회주의파벌의 수명의 한사람, 정론가. 1904년에 독일사회민주당에 가입.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국제주의립장을 취함, 스파르타쿠스련맹에 참가, 후에 독일공산당 당원. 1918~1923년에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독일공산당 중앙기관지 《붉

온기》의 편집. 브란들레르와 함께 독일공산당 중앙지도권을 장악하고 있은 기간에 우의기회주의로선을 실시, 1923년 가을 독일에 혁명정세가 형성되였을 때 투쟁을 평화적파업에 국한시킨것을 요구하면서 봉기의 준비사업을 파괴함. 1923년말에 당내령도직무에서 해임되고 1929년에 당에서 제명됨.—171, 173페지

텔만, 에른스트(台尔曼,恩斯特 Thälmann, Ernst 1886~1944)—독일로동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 독일공산당 수령. 1903년 독일사회민주당에 가입, 1917년 독립사회민주당에 넘어감. 제1차세계대전기간 전선병사들가운데서 혁명활동을 진행. 1918년 독일11월혁명에 적극 참가. 1920년 독립사회민주당 좌익이 공산당과 합병한후 공산당원으로 됨. 1923년에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당선, 함부르그무산계급무장봉기를 지도. 1925년부터 독일로동자자위조직—적색전사동맹 위원장, 1925년에는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1924년부터 국제공산당집행위원회 후보위원, 위원, 주석단후보위원, 위원. 1924~1933년에는 의원.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후인 1933년 3월 3일에 비밀경찰들에게 체포되여 1944년 8월 18일 집중영에서 살해됨.—170~172페지

ㅍ

판네쿠크 안토이니(潘涅库克, 安东尼 Panneckoek, Antoinie 1873~1960)—화란사회민주주의자, 천문학가. 1907년 화란사회민주로동당 좌익기관지《연단》의 창간에 참가. 1909년 화란사회민주당(연단파)의 창건에 참가.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국제주의자로서 짐메르왈드 좌익리론간행물《선구자》의 출판사업에 참가. 1918년에 화란공산당에 가입하였으며 국제공산당의 사업에 참가. 급진적종파주의립장을 취한것으로 하여 비판을 받음. 1921년에 화란공산당에서 퇴출, 얼마 안되여 정치활동에서 퇴출함.—221페지

포드, 헨리(福特, 亨利 Ford, Henry 1863~1947)—미국의 대독점자본가. 일찍 데트로이트 에디슨회사의 기사장을 담임. 1903년에 포드자동차회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는 후에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큰 독점조직의 하나로 발전됨.—463, 464페지

포이에르바호, 루드위히 안드레아스(费尔巴哈, 路德维希·安德列亚斯 Feuerbach, Ludwig Andreas 1804~1872)—독일의 걸출한 유물론철학가, 독일고전철학의 대표자의 한사람.—552페지

푸레르, 에스(富列尔, 斯·Фурер,

C.)—686～689페지
프룬또브(弗龙托夫 Фрунтов)—전연맹공산당(볼쉐위크)보고로쯔크현위원회 비서.—84페지
프룸낀, 모이쎄이 일리이치(弗鲁姆金, 莫萨塞·伊里奇 Фрумкин, Моисей Ильич 1878～1939)—1898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17년 2월혁명후 크라스노야르스크와 씨비리서부 변강지구 등 지역에서 당 및 쏘베트 사업을 담임. 10월혁명후에는 곡물인민위원부 부무위원, 곡물위원회 부인민위원, 씨비리혁명위원회 부위원장, 대외무역위원회 부인민위원, 재정인민위원회 부인민위원 등 직무를 력임. 1928년에 부하린우익집단에 가담. 1937년에 출당당함.—113～116, 119, 124～130, 226페지
프랭클린, 벤쟈민(富兰克林, 本杰明 Franklin, Benjamin 1706～1790)—미국의 정치가, 자산계급민주주의자, 과학가. 미국의 첫 공렵도서관과 페쎌웨이니아대학을 창건. 1775～1783년 미국독렵전쟁에서 미국독렵선언의 작성에 참가하였으며 프랑스주재대표로 임명되여 미국과 프랑스의 동맹 및 영국에 대한 프랑스의 전쟁을 촉진. 주로 물리학을 연구했으며 피뢰침을 발명. 정치경제학면에서 제일 먼저 의식적으로 로동시간으로써 가치를 확정.—583페지
프톨레마이오스, 클라우디우스 (托勒密, 克劳狄乌斯 Ptolemaios, Klaudios 2세기)—고대희랍의 수학자, 천문학자 및 지리학자. 지구중심설을 발전시키고 우주의 지심체계(《프톨레마이오스체계》라고도 함.)를 내놓음. 천여년이나 전해내려온 이 학설은 중세기 후기에 와서는 서방의 교권지배의 중요한 리론적중견으로 됨.—501페지
플라톤(柏拉图 Platon 기원전 427～347)—고대희랍의 철학가이며 고대철학에서의 객관적관념론류파의 창시자이며 노예주귀족의 사상가.—169페지
피쉬, 해밀톤(菲什, 汉密尔顿 Fish, Hamilton)—미국의 정치가.—350페지

ㅎ

홀로뽀브, 아.(霍洛波夫, 阿·Холопов, А.)—689～696페지
히틀러, 아돌프(希特勒, 阿道夫 Hitler, Adolf 1889～1945)—독일의 파쇼두목, 제2차세계대전의 으뜸가는 전쟁범죄자.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독일군 상등병. 1921년 독일국가사회주의로동당(나찌스당)의 수령. 1933년 1월 독점자산계급의 지지하에서 독일총리로 등장, 1934년 힌덴부르그가 죽은후 대통령직을 취소하고 국가원수로 자칭한후 국회를 해산시키고 피비린내나는 파

쏘동치를 실시. 1938년과 1939년에 선후로 오지리와 체스끄슬로벤스끄를 병탄함. 1939년 9월 뽈스까를 침입함으로써 제2차세계대전을 도발함. 1941년 6월에 쏘련에 대한 침략전쟁을 발동. 1945년 4월 30일 파쑈독일이 패망하기 전야에 자살함.—615~617, 621, 626, 628페지

힐페르딩, 루돌프(希法亭, 魯道夫 Hilferding, Rudolf 1877~1941)—오지리사회민주당, 독일사회민주당 및 제2국제당 기회주의수령의 한사람, 《오지리맑스주의》의 리론가. 1907~1915년에 독일사회민주당 중앙기관지 《전진》의 편집. 1910년에 저서 《금융자본》을 발표.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중간파분자, 1917년에 독일독립사회민주당 당원으로 됨. 전쟁후 맑스주의를 공공연히 수정하고 《조직적인 자본주의》리론을 내놓음. 1924년부터 의원. 1923년과 1928~1929년에 와이마르공화국정부 재정부장. 파쑈가 정권을 잡은후 프랑스로 망명.—167페지

헤겔, 게오르그 윌헬름 프리드리히(黑格尔, 乔治·威廉·弗里德里希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1770~1831)—독일고전철학의 가장 위대한 대표자, 객관적관념론자, 독일자산계급사상가. 관념론적변증법을 전면적으로 연구. 정치관점에서는 립헌군주제의 지지자.—551, 556 페지

헤라클레이토스(赫拉克利特 Heraкleitos 기원전 약 540~480)(에페쏘스의)—고대희랍의 유물론철학가, 변증법창시자의 한사람.—561 페지

헤르쯔, 프리드리히 오토(赫兹, 弗里德里希·奥托 Hertz, Friedrich Otto 1878년에 출생)—오지리경제학자, 사회민주주의자, 수정주의자. 1899년에 《사회주의관점에서 본 토지문제》란 저서를 출판하여 토지문제에 관한 맑스주의학설을 반대, 소농경제의 온당성과 대경제의 경쟁에 대한 소농경제의 대항적 기능을 증명하려고 시도.—282페지

П

까가노위치, 라자리 모이세예위치(卡冈诺维奇, 拉扎尔·莫伊谢也维奇 Каганович, Лазарь Моисеевич 1893년에 출생)—쏘련 공산당과 국가의 저명한 활동가. 1911년에 입당. 10월혁명후 당과 정부의 령도직무를 담임. 1924년부터 선후로 모씨야공산당(불쉐위크) 중앙위원, 전련맹공산당(불쉐위크) 중앙정치국 후보위원, 위원으로 당선. 1924~1925 및 1928~1939년에 중앙위원회 비서를 담임. 1930~1935년에 모스크바위원회 제1비서를 담임. 1934년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을 담임. 1935년후에는 교통인민위원, 중공업인민위원,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직무를 력임. 1947년에 우크라이나공산당(불쉐위크) 중앙제1비서를 담임. 1947년부터 쏘련내각 부수상을 담임, 1952~1957년 쏘련공산당 중앙주석단 위원으로 됨, 1953~1957년 쏘련내각 제1부수상을 담임.—451페지

까메굴로브(加米古洛夫 Камегулов)—309페지

까메네브, 레브 보리쏘위치(加米涅夫, 列夫·波里索维奇 Каменев, Лев Борисович 1883~1936)(본래의 성은 로젠펠드 罗森费尔德 Розенфельд)—1901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후에 볼쉐위크로 됨. 스톨뵈삔반동시기에 취소파, 소환파 및 뜨로쯔끼파에 대하여 타협적인 태도를 취함. 1917년 2월혁명후 당의 사회주의혁명방침을 반대. 10월혁명전야에 지노위에브와 함께 무장봉기에 관한 당중앙의 결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공공연하게 발표함으로써 당의 봉기계획을 폭설함. 10월혁명후 전로씨야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모스크바쏘베트 주석,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및 중앙정치국 위원 등 직을 력임. 1917년 11월에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이 참가하는 련합정부를 세울것을 주장, 1925년 《신반대파》를 조직하는데 참가, 1926년 뜨로쯔끼-지노위에브반당련맹을 조직하는데 참가. 1927년에 출당당함. 후에 당적을 두번 회복했다가 두번 제명당함.—149, 151~153, 244, 251, 796페지

콜챠크, 알렉싼드르 와씰리에위치(高尔察克, 亚历山大·瓦西里也维奇 Колчак,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ьевич 1874~1920)—까리로씨야의 해군대장, 군주파분자. 1916년에 흑해함대 사령관으로 임명됨. 10월혁명후 외국제국주의의 지지하에 로씨야의 최고집정자로 자처하면서 우랄, 씨비리 및 극동에 지주-자산계급의 군사독재정부를 건립. 1919년에 반란을 진압하는 붉은군대에 의해 포로되여 1920년 2월 7일에 총살당함.—529페지

꾸바크, 니꼴라이 아파나씨에위치(库比雅克, 尼古拉·阿法纳西也维奇 Кубяк, Николай Афанасьевич 1881~1937)—1898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0월혁명후 로씨야공산당(불쉐위크) 페뜨로그라드성위원회 비서, 전로씨야농립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공산당(불쉐위크) 중앙위원회 재임지도원 등 직무를 력임. 1921년에 《로동자반대파》에 참가. 1922년부터 로씨야공산당(불쉐위크) 중앙위원회 극동국 비서, 전련맹공산당(불쉐위크) 중앙위원회 비서

률 담임. 1928년부터 로씨야련방농업인민위원, 이와노워주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담임. 1934년부터 쏘련중앙집행위원회 겐쏘도시공용사업위원회 위원장을 담임. 1923년부터 중앙위원으로 당선, 1934년에 중앙후보위원으로 당선.—121페지

꾸슈띄께브(库什特谢夫 Куштысев)—145, 146페지

끼로브, 쎄르게이 미로노위치(基洛夫, 谢尔盖·米朗诺维奇 Киров, Сергей Миронович 1886~1934)(본래의 성은 꼬스뜨리꼬브 科斯特里科夫 Костриков)—쏘련공산당의 저명한 활동가. 1904년에 입당. 일찍 뻬쯔로그라드의 10월무장봉기에 참가. 1919년 2월 아스뜨라한변강구빔시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담임, 제11집단군을 령솔하여 제니낀을 치는 전투에 참가. 1921~1925년에는 아제르바이잔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비서를 담임. 1921년부터는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당선, 1923년부터는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당선. 1926년 2월부터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레닌그라드성위원회 제1비서,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서북국 제1비서,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위원을 력임. 1934년부터 중앙위원회 비서를 담임. 1934년 12월 1일에 레닌그라도에서 암살당함.—592페지

께렌스끼, 알렉싼드르 표도로위치(克伦斯基, 亚历山大·费多罗维奇 Керенский, Александр федорович 1881~1970)—로씨야자산계급림시정부의 수뇌자, 사회혁명당원. 1912~1917년의 제4차국회대표, 근로파의원단의 수령.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조국방위론자였음. 1917년 2월혁명후 자산계급림시정부에 참가, 1917년 3~5월에 사법부장을 담임, 5~9월에 륙해군부장을 담임, 7월 21일부터 수상직무를 담임, 9월 12일부터 로씨야군대의 최고사령관 직무를 겸임. 10월혁명후 쏘베트정권을 반대. 1918년에 국외로 망명.—271페지

톤

똘스또이, 알렉쎄이 니꼴라에위치(托尔斯泰, 阿列克塞·尼古拉耶维奇 Толстой, 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1883~1945)—쏘련작가, 쏘련과학원 원사.—307페지

똠스끼, 미하일 빠블로위치(托姆斯基, 米哈伊尔·巴甫洛维奇 Томский, Михаил Павлович 1880~1936)(원래의 성은 에프레모브 马弗列莫夫 Ефремов)—1904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페쩨르부르그 등 지역에서 당의 사업을 하였었으며 《무산자》지의 편집위원회 위원을 담임했었음. 스똘르삔반동시기에 취소파, 소환파 및

쯔로쯔끼파에 대하여 타협적태도를 취함. 1917년 10월혁명후 모스크바 직업동맹비사회 의사장, 페트로씨야(후에는 쳰쪼베르라고 함.)직업동맹중앙비사회 의사장, 최고인민경제위원회 주석단 위원, 국가출판총국 국장, 쏘련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등 직을 담임. 1919년부터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위원, 1922년부터는 중앙정치국 위원. 1920~1921년 직업동맹문제론쟁기간에는 《민주주의중앙집권파》를 지지, 1928년에 부하린, 뢰꼬브와 함께 우익집단을 결성.—98, 147~153, 165, 197, 198, 249~252페지

뜨로쯔끼, 레브 다위도위치 (托洛茨基, 列夫·达维多维奇 Троцкий, Лев Давидович 1879~1940)(본래의 성은 브론슈떼인 勃朗施坦 Бронштейн)—1897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03년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때에는 이스크라소수파분자, 회의후에는 벤쉐위크와 함께 볼쉐위크를 반대함. 1905년에 빠르부스와 함께 반닙스주의적인 《부단혁명》론을 내놓고 고취함. 스톨띄삔반동시기에는 조화파의 면모로 나타났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취소파의 립장을 취함. 1912년에는 반당적 8월동맹을 조직.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중간파립장을 취함. 1917년 2월혁명후 구련파에 참가하고 당 제6차대회에서는 구련파와 함께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에 집단적으로 참가하여 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으로 당선됨. 10월혁명후 외교인민위원, 륙해군인민위원, 혁명군사위원회 위원장 등 직을 담임함. 1918년에 브레스트강화조약의 체결을 반대. 1920~1921년에 직업동맹문제에 관한 론쟁을 일으킴. 레닌이 서거한후 반당적파벌활동을 진행. 1925년 륙해군인민위원 및 혁명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서 해임되고 최고인민경제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및 임대종위원회 위원장을 담임. 1926년에 지노위에브와 반당련맹을 결성, 1927년 당내외 일체 직무에서 해임되고 당으로부터 제명. 1929년 국외로 축출당함. 국외에서 계속 쏘련의 당과 국가를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 메히꼬에서 죽음. —98, 115, 116, 131, 132, 140, 394페지

ㅃ

빠빠닌, 이완 드미뜨리에위치 (帕帕宁, 伊万·德米特里也维奇 Папанин, Иван Дмитриевич 1894년에 출생) —쏘련의 극지탐험가, 지리학가. 1919년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에 가입. 1932~1935년에 선후로 찌하야만과 쳴류스낀갑의 극지고찰소를 지도. 1937~1938년 북극지대의 띠다니는 얼음장우에 설치한 쏘련의 첫 과학고찰소를 지

도. 1939년부터 북방해양항선관리총국 국장, 쏘련과학원 해양고찰연구소 소장.—550페지

빠따쁘브, 게오르기 레오니도위치(皮达可夫, 格奥尔基·列昂尼多维奇 Пятаков, Георгий Леонидович 1890~1937)—1910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일찍 우크라이나와 국외에서 당사업을 진행.1917년 2월혁명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 끼에브위원회 주석, 당의 사회주의혁명적방침을 반대함. 10월혁명후 우크라이나림시로농정부 주석. 1918년에 우크라이나 《좌익공산주의자》를 지도. 1920년부터 중앙돈바쓰석탄공업관리국 국장, 국가계획위원회 및 최고인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 직을 담임. 1920~1921년에 직업동맹문제에 대한 론쟁기간에 뜨로쯔끼의 강령을 지지. 1923년부터는 뜨로쯔끼파의 골간분자. 1927년 출당되였다가 1928년에 당적을 회복, 1936년에 재차 출당당함. —214페지

뾰뜨르대제 (彼得大帝 Петр Великий 1672~1725)(뾰뜨르1세 Петр I) —로씨야황제, 전로씨야의 칫번째 황제(1682~1725년)—103, 387, 888페지

뿌가쵸브, 에멜리얀 이와노위치(普加乔夫, 叶梅利扬·伊万诺维奇 Пугачев, Емельян Иванович 1742년경~1775)—로씨야농민봉기의 수령, 돈까자크. 1773년 8월에 구원된 뾰뜨르3세라고 자칭하고 야이쯔끼지역의 까자크부락에서 까자크들의 반란을 발동함. 이번 농민전쟁은 로씨야의 광범한 지역을 휩쓸었음. 1774년 8월에 봉기군이 실패한 후 나머지부대를 거느리고 외볼가 초원지대에로 퇴각. 9월에 반역자에게 결박되여 짜리정부에 압송됨, 그 이듬해 1월에 모스크바에서 영용히 희생.—393, 395페지

뿌쉬낀, 알렉싼드르 쎄르게에위치(普希金, 亚历山大·谢尔盖耶维奇 Пушкин,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1799~1837) —로씨야시인. 로씨야 신문학의 창시자. —652페지

뿌엥까레, 레몽(彭加勒, 雷蒙 Poincaré, Raymond 1860~1934)—프랑스정치가이며 변호사. 1887~1903년에 하원의원. 1893년부터 프랑스 정부에 여러번 참가. 1912~1913년에는 총리, 1913~1920년에는 대통령.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전쟁을 끝까지 할것을 견지. 로씨야10월혁명후에는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외국무력간섭의 회책자의 한사람. 1922~1924년과 1926~1929년에 총리를 담임하였으며 독일을 분할할것을 극력 주장하고(1923년에 루르지구를 점령) 구라파에서의 프랑스의 제패를 확립하려고 시도. —350페지

쁘로닌(普罗宁 Пронин, И. К.)—쏘련 뻔드로위제지공장 로동자로서 스

따하노브운동의 발기자의 한사람.
—488페지

쁘루동, 삐에르-죠제프(蒲鲁东, 比埃尔·约瑟夫 Proudhon, Pierre-Joseph 1809～1865)—프랑스정론가, 속류경제학가 및 사회학가, 소자산계급사상가, 무정부주의의 창시자의 한사람. 1848년혁명기간에 헌법제정의회 의원으로 당선. —219페지

쁘레오브라젠스끼, 에브게니 알렉쎄에위치 (普列奥布拉任斯基, 叶甫盖尼·阿列克谢也维奇 Преображенский, Евгений Алексеевич 1886～1937)—1903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17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불쉐위크) 제6차대회에서 당의 사회주의혁명방침을 반대. 10월혁명기간에는 우랄지역 당의 지도자였으며 국내혁명기간에는 제3집단군 정치부 주임. 1918년에는 《좌익공산주의자》. 1920년에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당선, 후에 중앙위원회 비서. 1920～1921년의 직업동맹문제에 대한 론쟁기간에는 뜨로쯔끼의 강령을 지지. 1921년부터 선후로 당중앙위원회 및 인민위원회의 재정위원회 위원장, 교육인민위원부 직업교육총국 국장을 담임. 1923년부터 뜨로쯔끼파의 골간분자. 1927년에 출당당함. 1929년 당적을 회복, 후에 재차 출당됨.—208페지

쁠레하노브, 게오르기 왈렌찌노위치 (普列汉诺夫, 格奥尔基·瓦连廷诺维奇 Плеханов, Георгий Валентинович 1856～1918) —로씨야 최초의 맑스주의선전가, 로씨야로동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 후에 멘쉐위크 및 제2국제당 기회주의수령의 한사람으로 됨. 19세기 70년대에 인민파운동에 참가하였으며 인민파조직인 토지 및 자유그루빠의 성원이며 토지재분배주의그루빠의 지도자의 한사람. 1883년 로씨야의 첫 맑스주의단체—로동해방단을 창건하고 맑스 및 엥겔스의 허다한 저작들을 번역소개하여 로씨야에서 맑스주의를 전파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놈. 적지 않은 우수한 맑스주의저작들을 집필하고 인민파, 《합법적맑스주의》, 경제파, 마흐주의를 비판함. 20세기초엽에 베닌과 함께 《이스크라》지와 잡지 《서광》을 편집.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후 점차 멘쉐위크로 돌아섬. 1905년혁명시기에 베닌의 민주주의혁명건설을 반대해나섬. 후에 멘쉐위크와 불쉐위크사이에서 동요. 스똘르삐빈반동시기에 취소주의를 반대하고 멘쉐위크호당파를 지도.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사회배외주의립장을 취함. 1917년 2월혁명후 불쉐위크당의 사회주의혁명방침을 반대함.—394, 549페지

뻬니쵸브 (彼尼科夫 Пеньков) —건

민맹공산당(볼쉐위크) 모스크바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모고유-씨푼구역당위원회 비서. 우경적오유를 범하여 1928년 10월에 철직당함.—97페지

베쯔룝스끼 (彼得罗夫斯基 Петровский)—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내의 부하린우익집단의 성원.—201페지

从

싸니나, 아.웨. (萨宁娜, 阿·弗·Санина, А. В.) —776~787페지

싸하로브 (萨哈罗夫 Сахаров)—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모스크바검열위원회 위원.—98, 99페지

짠제에브(桑热耶夫 Санжеев, Г.Д. 1902년에 출생) —쏘련의 언어학자이며 교수. 한때 아세아인민연구소 돌궐, 몽골, 극동 언어연구실 주임을 담임. 잡지《언어학문제》편집위원회 위원. 주로 몽골어를 연구.—683, 685, 686페지

쏘콜린스끼 (索科林斯基 Соколинский)—쏘련고리끼시볼모또브명칭자동차공장 단조직장 직장장.—494페지

쉐드린(谢德林 Щедрин 1826~1889) (쌀띄꼬브-쉐드린, 미하일 에브그라포위치 萨尔蒂科夫-谢德林, 米哈伊尔·叶甫格拉福维奇 Салтыков-Щедрин, Михаил Евграфович) —로씨야의 풍자작가, 에문평론가, 혁명민주주의자.—351, 385, 526, 527페지

O

아브라모위치, 라파일(阿布拉莫维奇, 拉法伊尔 Абрамович, Рафаил 1880~1963)(본명은 레인, 라파일 아브라모위치 雷因, 拉法伊尔·阿布拉莫维奇 Рейн, Рафаил Абрамович) —로씨야의 분드파 지도자의 한사람. 스똘르삔반동시기에는 취소파분자였음. 1912년 반당적인 8월동맹에 참가.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중간파분자였음. 1917년에는 멘쉐위크국제주의자우익에 속했음. 10월혁명후 볼쉐위크를 반대. 1920년에 베를린에 망명하여 마르또브와 함께《사회주의통보》를 창간하고 편집하였으며 쏘베트정권을 반대하였음. 1923년에는 사회주의로동자국제동맹 창건에 참가하였으며 그 집행국 위원을 담임. 3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 —271페지

아이헨왈드 (艾亨瓦尔德 Айхенвальд, А. Ю.) —쏘련의 경제학자로서 부하린파의 관점을 띤 경제정책교과서《쏘베트경제》(제5판은 1929년에 출판되였음.)를 썼음. —269페지

안드레에브, 안드레이 안드레에위치 (安德列也夫, 安德列·安德列也维奇 Андреев, Андрей Андреевич 1895~1971) —쏘련 공산당 및

국가의 활동가. 1914년에 입당. 10월혁명후 우랄과 우크라이나에서 당 및 직업동맹 사업에 종사. 1920~1922년에 전로씨야직업동맹 중앙리사회 비서를 담임. 1922~1927년에 월도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담임. 1920년후에 여러번 중앙위원으로 당선. 1924~1925년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비서를 담임, 1926년부터는 선후로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위원으로 당선. 1927~1930년에는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북캅까즈변강구역위원회 비서를 담임. 1930년후에는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 쏘련로농검사인민위원,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교통인민위원을 력임. 1935년후에는 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 등 직무를 담임. 1946~1953년에는 쏘련내각 부수상을 담임.—118페지

알렉싼드로스대제(亚历山大大帝 Alexander the Great 기원전 356~323) —고대의 유명한 통수, 마케도니아의 국왕. 기원전 336년에 즉위. 기원전 334년에 군대를 령솔하여가지고 원정하여 소아세아를 점령하고 페르싸를 멸망시킨후 또 중앙아세아를 거쳐 동으로 인도에로 원정. 동으로 인다스강, 서쪽으로 나일강 지역과 발칸반도에 이르는 지역에 알렉싼드로스제국을 건립. 이 제국은 통일된 경제기초가 결핍하고 다만 불온정한 군사 및 행정적 련합체였기때문에 알렉싼드로스가 죽은후에 인차 와해됨.—655페지

알레세이 막씨모위치(阿列克塞·马克西莫维奇) —고리끼, 엠.율 보라.

야로쉔꼬, 엘. 데. (雅罗申科, 尔·德·Ярошенко, Л. Д.)—750~776페지

요스뜨로위짜노브, 꼰스딴젠 와셀리에위치 (奥斯特罗维佳诺夫, 康斯坦丁·瓦西里也维奇 Островитянов, Константин Васильевич 1892~1969) —쏘련경제학자, 쏘련과학원 원사. 1914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에 가입. 1947~1953년 쏘련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을 담임, 1948~1954년 잡지《경제문제》의 주필을 담임. 1949~1953년 쏘련과학원 경제학철학법학부 대리원사 서기를 담임. 1953~1962년에 쏘련과학원 부원장을 담임, 1954년 쏘련에서 출판된《정치경제학교과서》의 지자중의 한사람.—739페지

우글라노브, 니끌라이 알렉싼드로위치 (乌格拉诺夫, 尼古拉·亚历山大罗维奇 Угланов,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86~1940) —1907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17년의 2월혁명과 10월혁명에 참가. 1919년 페뜨로그라드성 직업동맹리사회 비서, 페뜨로그라드량곡위

원부 부무위원을 담임. 1920년부터 모씨아공산당(볼쉐위크) 페뜨로그라드성위원회 위원 및 비서, 니쥬니노브고로드성위원회 비서, 모스크바위원회 비서, 모둔인민위원 등 직을 담임. 1921년부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당선, 1923년부터 중앙 위원회 위원. 1927년 12월부터 중앙정치국, 조직국 후보위원 및 비서처 비서. 1928년에 부하린우익집단에 참가. 1932년 당으로부터 제명, 후에 당적을 회복, 1936년에 제차 당으로부터 제명.—142, 143, 147페지

유슈께위치, 빠웰 쑬로모노위치(尤什凯维奇, 巴维尔·索洛莫诺维奇 Юшкевич, Павел Соломонович 1873~1945)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이며 멘쉐위크. 철학상에서는 마흐주의자로서 경험부호론을 고취. 철학저서로는 《경험부호론으로부터 론 현대유물론》(이 론문은 《맑스주의철학개론에 대하여》에 수록됨.), 《유물론과 비판적실재론》 등이 있음.—564페지

일리이치(伊里奇) —레닌, 웨.이.(列宁, 弗·伊·)를 보라.

에웨르트, 아르루르 (埃韦特, 阿尔图尔 Ewert, Arthur 1890~1959) —독일로동운동 및 국제로동운동의 활동가. 1908년 독일사회민주당에 가입. 1919년 독일공산당에 가입하여 할레-메르제부르그, 동부작쎈, 헤쎈-프땅크푸르트, 라인-웨스트팔렌 등 지역에서 당사업을 지도. 1923년부터 수차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당선. 당내에서 조화주의적오유를 범하였음. 1928~1935년에는 국제공산당집행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됨. 브라질에서 혁명활동을 하다가 1937년에 체포되여 13년 도형을 언도받음. 1947년에 귀국. —170, 171페지

엥겔스, 프리드리히 (恩格思, 弗里德里希 Engels, Friedrich 1820~1895) —216, 219, 220, 284, 285, 398, 401, 435, 436, 551, 552, 554~556, 561~563, 584, 601, 604~606, 658, 659, 677, 680, 689~692, 700, 701, 705~707, 719~721, 762~764, 766, 774, 778, 779, 784, 791~796페지

왕베르-드로, 쥘 (安贝尔-德罗, 茹尔 Humbert-Droz, Jules 1891~1971) —일찍 스위스사회당에 가입하여 그 당의 좌익에서 활동. 1921년 스위스공산당 창건사업에 종사. 1921년부터 국제공산당집행위원회 비서, 조직국 위원, 정치비서처 및 주석단 성원을 역임. 1929년 7월 국제공산당에서의 직무를 해임당함. 1931년부터 스위스공산당사업에 종사, 중앙정치비서 및 정치국 위원으로 당선. 1941년에 령도직무에서 해임, 1943년에 출당됨. 후에 스위

스사회민주당에 가입, 1947~1958년에 그 당의 비서를 담임. —172페지

위노그라도와, 에브도끼야 옉또로브나 (维诺格拉多娃, 叶夫多捷娅·维克多罗夫娜 Виноградова, Евдокия Викторовна 1914~1962)와 위노그라도와, 마리야 이와노브나(维诺格拉多娃, 玛丽亚·伊万诺夫娜 Виноградова, Мария Ивановна 1910년에 출생) —쏘련 위츄가의 노긴면방직공장의 녀직포공, 방직공업에서의 스따하노브운동의 발기자. 조작법개진에 노력하여 직포기관리대수를 훨씬 증가시킴에서 여러 방직기업소의 사회주의경쟁을 촉진시킴. —488, 501페지

위토르프, 요한 (维托尔夫, 約翰 Wittorf, Johann) —독일공산당합부르그당조직 비서, 1928년에 당의 경비를 절취했다는 신소를 받고 당으로부터 제명. —170페지

윌헬름2세 (威廉二世 Wilhelm II 1859~1941) —독일의 황제이며 프로씨아국왕(1888~1918년). —616페지

워론스끼, 알렉싼드르 콘스딴찌노위치 (沃朗斯基, 亚历山大·康斯坦丁诺维奇 Воронский, Александр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1884~1943) —쏘련의 문예평론가, 정론가, 작가. —308페지

웨브, 씨드니 제임즈(维伯, 悉尼·詹姆斯 Webb, Sidney James 1859~1947)—영국의 경제학자 및 사회활동가, 페이비안협회의 창시자 및 지도자의 한사람.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사회배외주의립장을 취함. 1924년과 1929~1931년에 로동당정부대신으로 있음. 그의 안해 비아트리스 웨브와 함께 영국로동운동의 력사 및 리론에 관한 많은 저서들을 집필하여 자본주의제도하에서 로동자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개량주의사상을 설교. —177페지

웬제르, 웨. 게. (文热尔, 弗·格·Венжер, В. Г.) —쏘련 경제학박사, 교수. 집단농장경제문제에 관한 일부 저서를 집필. —776~787페지

웰즈, 허버르 죠지 (威尔斯, 赫伯特·乔治 Wells, Herbert George 1866~1946)—영국작가. 1920년과 1934년에 두차례나 로씨야를 방문하고 레닌, 쓰딸린과 담화를 했음. —455~478페지

* * *

Nota Bene—부하린, 엔. 이. (布哈林, 尼·伊·)를 보라.

本书根据中共中央马克思、恩格斯、列宁、斯大林著作编译局翻译、人民出版社1979年12月第1版北京第1次印刷的汉文版本翻译出版。

이 책은 중공중앙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저작편역국에서 번역한, 인민출판사 1979년 12월 제1판 북경 제1차인쇄본(한문판)에 의하여 번역출판한다。

斯大林选集

下卷

（朝鮮文）

中央马列著作毛泽东著作
民族语文翻译局翻译
民族出版社出版　新华书店发行
民族印刷厂印刷
开本：850×1168毫米1/32 印张：27 3/8
1982年4月第1版 1982年4月北京第1次印刷
纸面布脊精装本印数：0001—1,000册　定价：1.90元
书号：M 1049 (6) 300